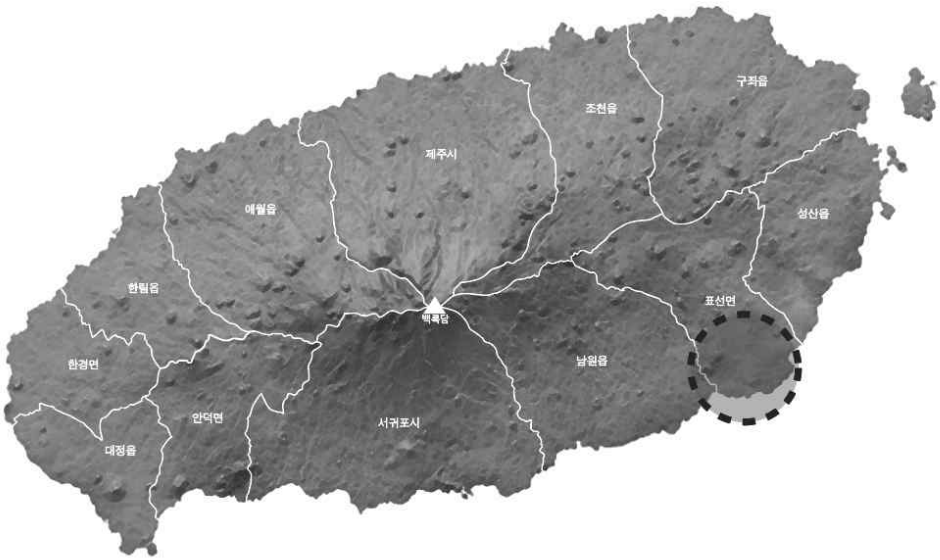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59-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4
–표선면 세화리

구술: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최연미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3
3. 밭일 ····· 80
4. 들일 ····· 130
5. 바다일 ····· 165
6. 의생활 ····· 182
7. 식생활 ····· 227
8. 주생활 ····· 294
9. 신앙 ····· 337
10. 통과의례 ····· 341
11. 민간요법 ····· 389
12.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422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최연미, #1:강필문, #2:고옥화, #3:송인생, #4:장술생, #5:강기수, #6:김정자, #7:현봉화, #8:김양선)

1. 조사 마을

101001 @ 지금 표선면[1] 세화리[2]에 데헤서 그 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뒈신지 그런 거에 데헤가지고 여쭤보쿠다예?(지금 표선면 세화리에 대해서 그 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여쭤볼게요?)

101001 #1 예, 예.(예, 예.)

101001 @ 어, 먼저예? 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 뒈여신지 말씀헤주십서.(어, 먼저요? 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01001 #1 에, 멘 처음에는 이 마을이 지금부떠 흔 삼백년 전이라예.(에, 맨 처음에는 이 마을이 지금부터 한 삼백년 전이에요.)

101001 @ 예.(예.)

101001 #1 삼백년 전에, 요 위에 가면은 양위산이라는, 양호산[3]이라는 데가 이수다게.(삼백년 전에, 요 위에 가면 양위산이라는, '양호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 내 동쪽인데 가시리[4] 밑에.(그, 내 동쪽인데 '가시리' 밑에.)

101001 @ 예.(예.)

101001 #1 거기에 멘 처음 살다가 차차 이제 마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 뒈어가지고 현제 잇는 데 까지. 저 위에 여기에서 흔 약 이키로.(거기에 맨 처음 살다가 차차 이제 마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 되어가지고 현제 있는 데 까지. 저 위에 여기에서 한 약 2킬로미터.)

101001 @ 예.(예.)

101001 #1 이키로 위에서 살다가, 이젠 그 이쪽 꼬지 오니까, 흔 이제 흔참을 내려온 편인데, 게서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이. 멘 처음에는 거기 살다가 춤, 마을이 이쪽으로 이제 형성이 뒈십주.(2킬로미터 위에서 살다가, 이젠 그 이쪽까지 오니까, 한 이제 한참을 내려온 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 살다가 참, 마을이 이

1) '표선면'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속하는 행정구역에 속하며 동쪽은 천미천을 경계로 성산읍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송천을 경계로 남원읍과 접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2) '세화리'는 표선면 중앙부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중산간에서 해안지대로 길고 넓게 펼쳐진 마을이다.
3) '양호산'은 세화1리 2241번지 일대를 말한다. 두 줄기 동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지형지세가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결투하는 지세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4) '가시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름이다.

쪽으로 이제 형성이 됐습지요.)
101002 #1 게서 멘 처음엔 이, 여기예도 성씨가 젤 처음 산 분이, 어떤 성씨가 살앗냐면은 에, 그 설촌이, 설촌 홀 때가 허씨가 살앗다고 흡니다.(그래서 맨 처음엔 이, 여기에도 성씨가 젤 처음 살았던 분이, 어떤 성씨가 살았냐면 에, 그 설촌이, 설촌 할 때가 허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101002 @ 예.(예.)
101002 #1 그 허씨가 살앗는데 허씨가 살다가 그 다음에 타 성씨덜이 김씨, 경주 김씨, 그다음에 광산 김씨, 또 예, 이 편안 강 칩이, 저 그 편안 강씨들이 여기 왓고. 또, 현씨, 또 정씨, 이렇게 그 성이 츰, 여러 성이, 성씨를 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그 허씨가 살았는데 허씨가 살다가 그 다음에 타 성씨들이 김씨, 경주 김씨, 그다음에 광산 김씨, 또 예, 이 편안 강 집이, 저 그 편안 강씨들이 여기 왔고. 또, 현씨, 또 정씨, 이렇게 그 성이 참, 여러 성이, 성씨를 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
101002 @ 교장선생님은 무신 강잇꽈?(교장선생님은 무신 강입니까?)
101002 #1 여, 저는 편안 강.(여, 저는 편안 강.)
101002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1002 #1 여, 신천[5]이우다.(여, 신천입니다.)
101002 @ 아, 기구나예. 아.(아, 그렇군요. 아.)
101002 #1 아, 또 여기에 그 성씨가 그다음에 최씨도 이서수다.(아, 또 여기에 그 성씨가 그다음에 최씨도 있었습니다.)
101002 @ 아, 기꽈?(아, 그래요?)
101002 #1 예. 여기 최씨도 현재꼬지 살고 이십주. 이 성씨가.(예. 여기 최씨도 현재까지 살고 있습지요. 이 성씨가.)
101002 @ 기꽈? 그 최는 무신 최꽈?(그래요? 그 최는 무슨 최입니까?)
101002 #1 최?(최?)
101002 @ 예.(예.)
101002 #1 저 그 뭿산 변에.(저 그 뫼산山 변에.)
101002 @ 어디 최마씸?(어디 최요?)
101002 #1 아, 그 본꼬진.(아, 그 본까지는.)
101002 @ 모루쿠과?(모르겠습니까?)
101002 #1 다 모루쿠다, 건.(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101002 @ 기구나예.(그렇군요.)
101002 #1 전부 다 귀양 온 ᄌᆞ순덜이우다.(전부 다 귀양 온 자손들입니다.)
101002 @ 아, 기꽈?(아, 그래요?)
101002 #1 예, 다 귀양 ᄌᆞ순덜이우다.(예, 다 귀양 자손들입니다.)
101002 @ 조선시대마씸?(조선시대요?)
101002 #1 제주도에는 이 저 고, 양, 부 웨로는 다 귀양 자손입니다.(제주도에는 이

5) '신천'은 황해남도 신천군을 말한다.

저 고, 양, 부 외로는 다 귀양 자손입니다.)
101002 @ 아, 경허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2 #1 게서 이 저, 표선면에도 제일 먼저 그 마을이 산 듸가 진사리[6]라고 해서, 진사리가 어디냐면은 성읍리[7]라양.(게서 이 저, 표선면에도 제일 먼저 그 마을이 산 데가 진사리라고 해서, 진사리가 어디냐면 '성읍리'예요.)
101002 @ 아, 예.(아, 예.)
101002 #1성읍리 다음에는 가시리우다.('성읍리' 다음에는 '가시리'입니다.)
101002 @ 음.(음.)
101002 #1 또 가시리 우예, 성읍리 보단 젤 처음 표선면에, 면에 먼저 사람살기 시작헌 듸가 가시리.(또 가시리 위에, 성읍리 보단 젤 처음 표선면에, 면에 먼저 사람살기 시작한 데가 '가시리'.)
101002 @ 가시리예?(가시리요?)
101002 #1 예, 가시린디, 가시리는 저 청주 한 씨꽈?(예, '가시린'데, '가시리'는 저 청주 한 씬가요?)
101002 @ 아.(아.)
101002 #1 청주 한씨가, 한씨 그 조상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한씨 ᄌᆞ순은 그, 가시리 귀양 온 하르버지 다 ᄌᆞ순덜이우다.(청주 한씨가, 한씨 그 조상이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한씨 자손은 그, 가시리 귀양 온 할아버지 다 자손들입니다.)
10100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2 #1 겨고, 그 우예 그 한씨 전에는 누게가 왓냐면은 변씨가.(그리고, 그 위에 그 한씨 전에는 누가 왔냐면 변씨가.)
101002 @ 음.(음.)
101002 #1 안좌동[8]에.('안좌동'에.)
101002 @ 안좌동이면?('안좌동'이면?)
101002 #1 안좌리, 가시리 우예.('안좌리' '가시리' 위에.)
101002 @ 아, 가시리 그 우쪽 사람들이 내려오멍, 내려오멍 세화리까지 온 거꽈?(아, 가시리 그 위쪽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세화리'까지 온 겁니까?)
101002 #1 그러니까 저, 여기에, 거기에도 온 사람들 ᄒᆞ고는 또 틀려마씀게.(그러니까 저, 여기에, 거기에도 온 사람들 하고는 또 틀립니다.)
101002 @ 거민예? 세화리 중심으로 ᄀᆞᆯ아줍서예.(그러면요? '세화리' 중심으로 말해주십시오.)
101002 #1 예, 예.(예, 예.)
101002 @ 예.(예.)
101002 #1 그레 그 ᄎᆞ례가.(그리로 그 차례가.)
101002 @ 예.(예.)

6) '진사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7) '성읍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름이다.
8) '안좌동'은 '안좌리' 즉 표선면 세화리와 가시리에 경계에 있는 자연마을이름이다.

101002 #1 표선면부터 생각ᄒᆞ민 옛날 동중면[9]인디?(표선면부터 생각하면 옛날 '동중면'인데?)
101002 @ 아, 예.(아, 예.)
101002 #1 동중면부터 ᄒᆞ민은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ᄒᆞᆫ 듸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자리라마씀.('동중면'부터 하면 젤 먼저 사람 살기 시작한 데가 '성읍리'도 아니고 '안좌리'입니다.)
101002 @ 안자리.('안좌리'.)
101002 #1. 예, 안좌리. 안자리는 저 그 변씨 조상인데.(예, '안좌리'. '안좌리'는 저 그 변씨 조상인데.)
101002 @ 예.(예.)
101002 #1 옛날 임금, 그 저, 임금님 아덜 동궁 관, 임금님 아덜 저 ᄀᆞ르치는 듸가 동궁 관 아니꽈?(옛날 임금, 그 저, 임금님 아들 동궁 관, 임금님 아들 저 가르치는 데가 동궁 관 아닙니까?)
101002 @ 예.(예.)
101002 #1 사는 듸가, 집이.(사는 데가, 집이.)
101002 @ 예.(예.)
101002 #1 그 동궁 관 벼슬을 ᄒᆞ던 그 하르방이 그듸 와낫젠 ᄒᆞᆸ니다.(그 동궁 관 벼슬을 하던 그 할아버지가 거기 왔었다고 합니다.)
101002 @ 예.(예.)
101002 #1 그래서 예, 그 후예, 그듸가 젤 표선면에서 먼저 사름이 산 듸고, 이 세화리는 그 후예, 지금부터 삼백년 전, 사백년 그 사이에 저, 허씨가 저, 양위산[10] 거기에 오란에 이제 그 터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세화리 설촌 처음이우다.(그래서 예, 그 후에, 거기가 젤 표선면에서 먼저 사람이 산 데고, 이 세화리는 그 후에, 지금부터 삼백년 전, 사백년 그 사이에 저, 허씨가 저, '양위산' 거기에 와서 이제 그 터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이 '세화리' 설촌 처음입니다.)
101002 @ 아, 기구나예. 그면 지금 현재는?(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1002 #1 지금은 허씨는 엇수다.(지금은 허씨는 없습니다.)
101002 @ 없고, 어느 성씨가 젤 많우꽈?(없고, 어느 성씨가 젤 많습니까?)
101002 #1 지금은 어느 성씨보다도 기자 대강 아까 얘기한 김씨, 또 정씨 현씨 강씨, 그정도우다.(지금은 어느 성씨보다도 그저 대강 아까 얘기한 김 씨, 또 정 씨 현 씨 강 씨, 그 정도입니다.)
101002 @ 요 ᄒᆞ루기.(요 하루.)
101002 #1 최씨.(최씨.)
101002 @ 요 ᄒᆞ루기 와가지고 물어보난 어떤 어른들은 현씨가 무신 젤 먼저 가시리에 자리 잡앗덴 헌 말은 무슨 말이꽈?(요 하루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현

9) '동중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표선 일대를 이르던 면 이름이다.
10) '양위산'은 '양호산'의 다른 이름이다.

씨가 무슨 젤 먼저 ‘가시리’에 자리 잡았다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1002 #1 가시리는 한씨.(‘가시리’는 한씨.)
101002 @ 아니, 아니 세화리.(아니, 아니 ‘세화리’.)
101002 #1 세화리? 아니우다.(‘세화리’? 아닙니다.)
101002 @ 아니꽈?(아닙니까?)
101002 #1 허씨우다. 허 씨.(허씨입니다. 허씨.)
101002 @ 허씨가 먼저 왓수과? 게민.(허씨가 먼저 왔습니까? 그러면.)
101002 #1 허 씨.(허씨.)
101002 @ 음, 허씨 가예?(음, 허씨 가요?)
101002 #1 게, 그 허씨가 어떻게 왜 그랫냐면은.(그래, 그 허씨가 어떻게 왜 그랬냐면.)
101002 @ 예.(예.)
101002 #1 옛날 그 정의고을[11]들이.(옛날 그 정의고을들이.)
101002 @ 무신거마씸?(뭐라고요?)
101002 #1 저, 동남[12]에 이서나십주게.(저, 동남에 있었습지요.)
101002 @ 아.(아.)
101002 #1 고성[13]에.(고성에.)
101002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1002 #1 예. 고성에 잇단, 그 옛날 그 정의현[14]이, 현에는 엿날 현감이 잇잖읍니까?(예. ‘고성’에 있다가, 그 옛날 그 ‘정의현’이, 현에는 옛날 현감이 있잖습니까?)
101002 @ 맛수다예.(맞습니다.)
101002 #1 현감 시민 현감 밑에 그 따라뎅기는 그 저, 벼슬자리들이 잇잖읍니까?(현감 있으면 현감 밑에 그 따라다니는 그 저, 벼슬자리들이 있잖습니까?)
101002 @ 이방이나 이런 사름덜마씨?(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101002 #1 예 예 예, 그런 사름덜 중에 허씨가 흔디 이 저, 순훼 돌아보레 뎅기단에.(예 예 예, 그런 사람들 중에 허씨가 함께 이 저, 순회 돌아보러 다니다가.)
101002 @ 예.(예.)
101002 #1 여기 이 저, 고성에서 이제 저,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 따라 이레 다니다보니까 요 세화리 저 오름 가세오름[15]과 가세오름 저 우에 가시리 잇잖습니까양?(여기 이 저, ‘고성’에서 이제 저,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 따라 이리로 다니다보니까 요 ‘세화리’ 저 오름 ‘가세오름’과 ‘가세오름’ 저 위에 가시리 있잖습니까?)
101002 @ 예.(예.)

---

11) ‘정의고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옛 이름이다.
12) ‘동남’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대를 말한다.
13) ‘고성’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를 말한다.
14) ‘정의현’은 제주 서귀포시(구 남제주군)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옛 행정구역을 말한다.
15) ‘가세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사이에 위치한 표고 202m, 넓이 30정보의 오름이다. 오름 모양이 중이 갓 쓴 정국,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가위처럼 생겼다는데 붙여진 이름이다.

101002 #1 가시리광 여기 세화리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데 지형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차를 이제 끗난 다음에 허씨가 이제 여기 와서 먼저 살았다고 흡니다.('가시리'랑 여기 '세화리'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데 지형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차를 이제 끝난 다음에 허씨가 이제 여기 와서 먼저 살았다고 합니다.)

101002 @ 경헷구나예. 경허믄.....(그랬군요. 그러면.....)

101002 #1 예. 터 잡앙.(예, 터 잡아서.)

101002 @ 그러면 그.(그러면 그.)

101002 # 그게 혼 삼백년 전에.(그게 한 삼백년 전에.)

101003 @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시대에.(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시대에.)

101003 #1 예.(예.)

101003 @ 일제강점기 시대라던가 이때에, 아니면 그 이후에라든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왓수과? 주로.(일제강점기 시대라던가 이때에, 아니면 그 이후라든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로.)

101003 #1 어떤 일, 저 보통 농사지어십주.(어떤 일, 저 보통 농사지었습지요.)

101003 @ 예.(예.)

101003 #1 농사짓고 소, 말 기르고.(농사짓고 소, 말 기르고.)

101003 @ 소, 말도 기르고예?(소, 말도 기르고요?)

101003 #1 예예. 목축이 많앗십주.(예 예. 목축이 많았습지요.)

101003 @ 예, 예. 그다음에는예?(예, 예. 그다음은요?)

101003 #1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소, 말 기르고 저 농사짓고.(우리 조상들도 보면 소, 말 기르고 저 농사짓고.)

101003 @ 음.(음.)

101003 #1 예.(예.)

101003 @ 교장선생님도 헤낫수과?(교장선생님도 했었습니까?)

101003 #1 예.(예.)

101003 @ 경헤낫구나예. 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예?(그랬었군요. 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01004 @ 그다음엔예 이 세화리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내창, 바위라든가 굴 같은 거 이시민 ᄒᆞ꼼 골아줍서.(그다음은요 이 '세화리'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내, 바위라든가 굴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세화리 주위에 굴은 별로 엇수다. 바로 이 저, 요기 사는 우리 집에서 혼 오메타 뒈는 요기에 동산이 이섯는데 거기에 굴이 ᄒᆞ나 이서나십주.(세화리 주위에 굴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저, 요기 사는 우리 집에서 한 5미터 되는 요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습지요.)

101004 @ 궤마씸?(굴요?)

101004 #1 예. 궤[16] 궤.(예, 굴, 굴.)

101004 @ 그 궤 이름이 무시건지 기억남수과?(그 굴 이름이 무언지 기억나십니까?)
101004 #1 게, 요기가 궤ᄆᆞ루[17], 궤ᄆᆞ루 홉주게.(그래, 요기가 '굴마루', '굴마루' 합지요.)
101004 @ 예, 궤ᄆᆞ루예. 궤가 이서나난 궤ᄆᆞ루엔 헴구나예?(예, '굴마루'요. 굴이 있어서 '굴마루'라고 하는군요?)
101004 # 이제 여기 우리 집 바로 동, 서남쪽에 집 이수다.(이제 여기 우리 집 바로 동, 서남쪽에 집 있습니다.)
101004 @ 음.(음.)
101004 #1 그디 ᄆᆞ루 옆이 집지선 살암수다.(그디 마루 옆에 집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101004 @ 아, 예. 오름은 엇수과?(아, 예. 오름은 없습니까?)
101004 #1 오름은 저 가세오름벳긔 엇수다.(오름은 저 '가세오름'밖에 없습니다.)
101004 @ 아, 오름은 가세오름이꽈?(아, 오름은 '가세오름'입니까?)
101004 #1 예.(예.)
101004 @ 아, 가세오름. 내창은마씸?(아, '가세오름'. 내는요?)
101004 #1 내창도 저, 가시리에서 내려오는 내우다.(내도 저, '가시리'에서 내려오는 냅니다.)
101004 @ 그 내 이름이 뭐우꽈?(그 내 이름이 뭡니까?)
101004 #1 가시천[18]이엔 헙니다.('가시천'이라고 합니다.)
101004 @ 가시천이엔예. 옛날에도 가시천이엔 ᄀᆞᆯ앗수과?('가시천'이라고요. 옛날에도 '가시천'이라고 말했습니까?)
101004 #1 예, 예. 이딘 저, 돈오름내[19]엔 ᄒᆞᄀᆞ.(예, 예. 여긴 저, '돈오름내'라고 하고.)
101004 @ 무신내마씸?(무슨 내요?)
101004 #1 돈오름내(돈오름내.)
101004 @ 돈오름?(돈오름?)
101004 #1 예. 돈오름.(예, 돈오름.)
101004 @ 무사 돈오름이엔 헴신고예?(왜 '돈오름'이라고 할까요?)
101004 #1 뼁뼁 ᄃᆞᆯ라진 듸난에 돈오름이엔 헴사 헴신디 ᄆᆞᆯ루쿠다.(뺑뺑 둘러진 데라서 '돈오름'이라고 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1004 @ 그다음에는 혹시 큰 바위라든가 뭐 이런 건 엇수과?(그다음에는 혹시 큰 바위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101004 #1 바위마씀?(바위요?)

16)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17) '궤ᄆᆞ루'는 세화1리 1185번지 화산초등학교 동북쪽을 말한다. 이 언덕배기에 동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마을 안길 확장으로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18) '가시천'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거쳐 세화1리로 연결된 개천을 말한다.
19) '돈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옛 지명이며, 달리 '돈내오름'이라고도 한다.

101004 @ 예.(예.)
101004 #1 동산덜은, 바윗동산덜은 이섯수다마는 이제 다 바윗동산 다 없어져부리난.(동산들은, 바위동산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다 바위동산 다 없어져버려서.)
101004 @ 그때 이서난 바윗동산 이름은 뭐라낫수과?(그때 있었던 바위동산 이름은 뭐였습니까?)
101004 #1 꽝묻은동산[20]이엔 헌 듸가 이수다.('꽝묻은동산'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101004 @ 무사 꽝묻은 듸엔 헤신고예?(왜 꽝 묻은 데라고 했는지요?)
101004 #1 그, 돌멩이나 이런 것이 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그, 돌멩이나 이런 것이 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101004 @ 아, 꽝꽝 헤가지고.(아, 꽝꽝 해가지고.)
101004 #1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입니다.(예,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101005 @ 그다음에 이 세화리 안에예 무슨 기관 같은 거, 들어선 거 이수과?(그다음에 이 세화리 안에요 무슨 기관 같은 거, 들어선 거 있습니까?)
101005 #1 기관이엔 헌 거, 옛날엔 엇고양.(기관이라고 한 거, 옛날엔 없고요.)
101005 @ 예.(예.)
101005 #1 요, 해방 후예.(요, 해방 후에.)
101005 @ 예.(예.)
101005 #1 화산초등학교가 생겻단에.(화산초등학교가 생겼다가.)
101005 @ 예.(예.)
101005 #1 요즘 학생들 막 족아가니까.(요즘 학생들 매우 적어가니까.)
101005 @ 예.(예.)
101005 #1 뭐 멧 안 뒈니까 이젠 네중에 저, 세화리, 저 토산[21] 저 하천리[22].(뭐 몇 안 되니까 이젠 나중에 저, '세화리', 저 '토산' 저 '하천리'.)
101005 @ 예.(예.)
101005 #1 가시리 헤가지고.('가시리' 해가지고.)
101005 @ 예.(예.)
101005 #1 저, 지금 한마음초등학교[23] 만들어부렷수다.(저, 지금 한마음초등학교 만들어버렸습니다.)
101005 @ 아, 한마음초등학교가?(아, 한마음초등학교가?)
101005 #1 예, 저쪽으로 가십주.(예, 저쪽으로 갔습지요.)
101005 @ 예, 막 곱닥헌 학교예?(예, 막 곱상한 학교요?)
101005 #1. 예, 예.(예, 예.)

---

20) '꽝묻은동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901번지 '관묻은동산'이 변형된 표현이다.
21) '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를 말한다.
22) '하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를 말한다.
23) '한마음초등학교'는 2001년 3월 1일에 화산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가 통합되어 개교된 학교를 말한다.

101005 @ 아, 거기구나예.(아, 거기군요.)
101005 #1 예. 한마음초등학교.(예. 한마음초등학교)
101005 @ 거민 아이들 어떵 다념수과, 학교를?(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다닙니까, 학교를?)
101005 #1 자동차가 이수게, 뻐쓰.(자동차가 있습니다, 버스.)
101005 @ 아, 뻐쓰가 잇구나예.(아, 버스가 있군요.)
101005 #1 예, 예. 학교 뻐쓰가 이심니께.(예, 예. 학교 버스가 있습니다.)
101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5 #1 뻐쓰로 전부 실어가곡 실어오곡.(버스로 전부 실어가고 실어오고.)
101005 @ 옛날에 교장선생님은 어느 초등학교 다녓수과?(옛날에 교장선생님은 어느 초등학교 다녔습니까?)
101005 #1 표선초등학교.(표선초등학교.)
101005 @ 아, 표선초등학교예.(아, 표선초등학교요.)
101005 #1 표선, 그때는 일제시대니까.(표선,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101005 @ 예.(예.)
101005 #1 표선초등학교 가젠 ᄒᆞ난에.(표선초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101005 @ 예.(예.)
101005 #1 우리 아홉 술 때 가난에, 거기서 안 받아 주언에.(우리 아홉 살 때 가니까, 거기서 안 받아 주어서.)
101005 @ 예(예.)
101005 #1 시험보고 다 헙디다.(시험보고 다 합디다.)
101005 @ 아, 예.(아, 예.)
101005 # 시험 봔에 안 받아 주난에 이젠 안 갓단, 그 다음해에 열 살 뒌에 그디 간 시험 봔 뎅겨나십주.(시험 봐서 안 받아 주니까 이젠 안 갔다가, 그 다음해에 열 살 돼서 거기 가서 시험 봐서 다녔습지요.)
101005 @ 그 당시는 일제 때마씸?(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때요?)
101005 #1 예, 일제시대.(예, 일제강점기.)
101006 @ 기구나예. 그리고 이 마을에 계, 그 접 같은 거 엇엇수과?(그렇군요. 그리고 이 마을에 계, 그 계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101006 # 접은 없고양.(계는 없고요.).
101006 @ 예.(예.)
101006 #1 옛날엔 ᄆᆞ을에서 그 무슨 일이 나면은 상뒤.(옛날엔 마을에서 그 무슨 일이 나면은 향도.)
101006 @ 상뒤?(향도?)
101006 #1 예, 그 사람들 많이 모야가지고 서로 돕는 그 상뒤를 메인덴헙니다게.(예, 그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돕는 그 향도를 멘다고 합니다.)
101006 @ 상뒤.(향도.)

101006 #1 상뒤라고 헤가지고 마을 전체적인 그 친목입주.(향도라고 해가지고 마을 전체적인 그 친목입지요.)
101006 @ 예(예.)
101006 #1 전체적인, 무슨 그 사람이 돌아가신다 허면은, 그 영장허젠 허면 그 필요하지 아입니까?(전체적인, 무슨 그 사람이 돌아가신다 하면, 그 영장하려고 하면 그 필요하지 않습니까?)
101006@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1006 #1 그래서 그 온 동네사람덜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장사를 지내주고.(그래서 그 온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장사를 지내주고.)
101006 @ 경헤낫수과.(그랬었습니까?)
101006 #1 예, 경허고 무슨.(예, 그러고 무슨.)
101006 @ 믈ᄀᆞ렛 계 같은 거 엇엇낫수과?(연자매 계 같은 거 없었습니까?)
101006 #1 믈ᄀᆞ렛 계렌 헌 건 없고.(연자매 계라고 한 건 없고.)
101006 @ 예.(예.)
101006 #1 다 동네마다 믈ᄀᆞ레, 믈ᄀᆞ레 ᄒᆞ나씩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헙니께.(다 동네마다 연자매, 연자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서 합니다.)
101006 @ 계렌 허지 안 헹 그냥.(계라고 하지 안 해서 그냥.)
101006 #1 예.(예.)
101006 @ 동네 ᄒᆞ나 영, 이렇게 놔가지고예?(동네 하나나 이렇게, 이렇게 놓아가지고요?)
101006 #1 예, 예.(예, 예.)
101006 @ 여기는 믈ᄀᆞ레가 멧 개쯤 이섯수과? 이 저 세화마을 안에.(여기는 영자매가 몇 개쯤 있었습니까? 이 저 '세화마을' 안에.)
101006 #1 동네마다, 하나 둘 셋, 세 개나 이섯수다.(동네마다,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었습니다.)
101006 @ 세 개예.(세 개요.)
101006 #1 예. 동네마다 이서십주.(예. 동네마다 있었습지요.)
101006 @ 동네마다.(동네마다.)
101006 #1 이 지금도, 지금도 삼동으로 갈라졌는데.(이 지금도, 지금도 삼동으로 갈라졌는데.)
101006 @ 예.(예.)
101006 #1 아, 이젠 그때도, 그 때 네 개가 이섯구나. 옛날에.(아, 이젠 그때도, 그 때 네 개가 있었구나. 옛날에.)
101006 @ 네 개요.(네 개요.)
101006 #1 믈ᄀᆞ레. 믈ᄀᆞ레가 네 개 이섯는디 이젠 ᄒᆞ낫토 엇수다.(연자매. 연자매가 네 개 있었는데 이젠 하나도 없습니다.)
101006 @ 음.(음.)

101007 @ 그리고 이 마을에, 세화리에 독특한 무슨 풍습 같은 건 뭐 이수과?(그리고 이 마을에, '세화리'에 독특한 무슨 풍습 같은 건 뭐 있습니까?)

101007 #1 풍습은 여기 마을에 당[24]이 이수다, 당.(풍습은 여기 마을에 '당'이 있습니다, 당.)

101007 @ 예.(예.)

101007 #1 제.(제.)

101007 @ 당, 당 이름은 뭐마씸?('당', '당' 이름은 뭔가요?)

101007 #1 세화리 그자 당입주 당.('세화리' 그저 '당'입지요 '당'.)

101007 @ 당예.('당'요.)

101007 #1 그, 당이 있는데 그 사삼사건 전에.(그, '당'이 있는데 그 사삼사건 전에.)

101007 @ 예.(예.)

101007 #1 일제시대로구나. 일제시대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일본 놈 멘장이 다 뒈고, 멘장을 일본 일본 놈들이 다 오란 시키고, 학교 교장도 전부 초등학교교장도 일본사람덜이 허자녓수과?(일제강점기구나.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일본 놈 면장이 다 되고, 면장을 일본 놈들이 다 와서 시키고, 학교 교장도 전부 초등학교교장도 일본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101007 @ 맞수다.(맞습니다.)

101007 #1 전부 헷는디,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이 그 저, 우리 그 저, 조선사람덜은 말을 완전히 바꿀려고 얼마나 혹독한 일을 헷는지, 모든 게 이 믿는 걸 미신이라 헤가지고 그걸 와서 그 전부, 그 당인데 집 지어놓고 거기서 그 기도를 헌다든지 뭘 헤나십주. 공들이고 뭐 허곡 헤낫는디, 그걸 오란 그, 그 당시에 면서기덜.(전부 했는데,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이 그 저, 우리 그 저, 조선 사람들은 말을 완전히 바꾸려고 얼마나 혹독한 일을 했는지, 모든 게 이 믿는 걸 미신이라 해가지고 그걸 와서 그 전부, 그 '당'인데 집 지어놓고 거기서 그 기도를 한다든지 뭘 했었지요. 공들이고 뭐 하고 했었는데, 그걸 와서 그, 그 당시에 면서기들.)

101007 @ 예.(예.)

101007 #1 서기 시켜가지고 와서 불 지던 테와불지 안 헷수과?(서기 시켜가지고 와서 불 지펴서 태워버리지 안 했습니까?)

101007 @ 예.(예.)

101007 #1 그 사람이 불 지던 그 당을 테와 버리두고 이제 갓는디 집에 가자마자 거쒜야 받앗는지 어땟는지 막.(그 사람이 불 지펴서 그 '당'을 태워 버려두고 이제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거 죄야 받았는지 어땠는지 막.)

101007 @ 곧 죽어부럿구나예?(곧 죽어버렸군요.)

101007 #1. 저, 뜨겁다고 하면서 뭐헨에, 그 불 지더동 간에 죽어버렷수다.(저, 뜨겁다고 하면서 뭐해서는, 그 불 지펴놓고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

24) '당'은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소호해 주는 신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 또는 당신에게 제차를 드리는 장소를 말한다.

101007 @ 아, 아!(아, 아!)
101007 #1 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흔 말이, 그 당 다시 설립 헤달라고.(그래,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 '당' 다시 설립 해달라고.)
101007 @ 헤달라고.(해달라고.)
101007 #1 그 유언을 냉기고 죽어붜려십주. 그러나 그 뭐 일본 시대난에 그 뭐 헷는디. 게 당헨 불 지더버리난에 그건 집은 타버렷는디, 게 그 부락사람들은 또, 그건 타버렷지마는 다른 쪽에 헤서 조그맣게 뭐 나무 밑에난 이런데 가서 그걸 만들어서 쭉 하다가 그.(그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렸지요. 그러나 그 뭐 일본 시대니까 그 뭐 했는데. 그 '당'해서 불 지펴버리니까 그건 집은 타버렸는데, 그래 그 부락사람들은 또, 그건 타버렸지만 다른 쪽에 해서 조그맣게 뭐 나무 밑이니까 이런데 가서 그걸 만들어서 쭉 하다가 그.)
101007 @ 해방 전에마씸?(해방 전에요?)
101007 #1 예. 허다가, 그 또 그때는 숨어서 허는 거 뒈십주게.(예. 하다가, 그 또 그때는 숨어서 하는 거 됐습지요.)
101007 @ 예.(예.)
101007 #1 모든 걸 다 일본 놈들이 저, 너무나 뭐허게허기 때문에 일본 관리라고 ᄒᆞ면은 다 속여숫게.(모든 걸 다 일본 놈들이 저, 너무나 뭐하게하기 때문에 일본 관리라고 하면 다 속였지요.)
101007 @ 아. 그 마을주민들이 다 ᄀᆞ튼 마음으로마씸?(아. 그 마을주민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요?)
101007 #1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덜이 거짓말이라는 건 저, 없엇고, 저 거짓말은 하나의 쥐로 생각을 헷는데.(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건 저, 없었고, 저 거짓말은 하나의 죄로 생각을 했는데.)
101007 @ 예.(예.)
101007 #1 이 거짓말을 허지 아녀면 살질 못허게 뭰 것이 어떤 놈이 때문이냐면은 저 웨놈들 때문입주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질 못하게 된 것이 어떤 놈의 때문이냐면 저 왜놈들 때문입지요.)
101007 @ 기구나예.(그렇군요.)
101007 #1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짓말 그 일본 놈을 속이지 아녀면 못사니까. 만약에 그 우리 마을에 실지 예를 든다고 ᄒᆞ면은 그 시대에 일본 놈들이 그 대동아전쟁을 저 일으켜가지고 그 싸움ᄒᆞᆯ 때에, 오란에 놋그릇 다 걷어가 부렷지, 심지어는 보리, 조, 뭐 생산허는 거 공출.(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짓말 그 일본 놈을 속이지 않으면 못사니까. 만약에 그 우리 마을에 실지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시대에 일본 놈들이 그 대동아전쟁을 저 일으켜가지고 그 싸움할 때에, 와서는 놋그릇 다 걷어가 버렸지, 심지어는 보리, 조, 뭐 생산하는 거 공출.)
101007 @ 예.(예.)
101007 #1 그것도 공출입니다. 공출. 공짜로 내 다 받아가는 거여.(그것도 공출입니

다. 공출. 공짜로 내 다 받아가는 거야.)
101007 @ 예.(예.)
101007 #1 밧이 멧 펭이고 뭣을 갈면은 거 얼마를 내놓라 헤서, 강제야.(밭이 몇 평이고 뭣을 갈면 거 얼마를 내 놓아라 해서, 강제야.)
101007 @ 음.(음.)
101007 #1 저, 공산주의보다 더헌 놈들이여. 강제로 헤서 전부 다 가져갓는데, 만약에 보리를 저, 가마니로 열 개민 열 개 내놓라고 헤서 열 개 못 내놓면은 와서 이제 집을 완전히 츰 쑥대밧 뒈도록히 믄 조사헤여. 조사헤서 아지고.(저, 공산주의보다 더한 놈들이야. 강제로 해서 전부 다 가져갔는데, 만약에 보리를 저, 가마니로 열 개면 열 개 내놓으라고 헤서 열 개 못 내놓으면은 와서 이제 집을 완전히 참 쑥대밭 되도록 모두 조사해. 조사해서 가지고.)
101007 @ 음.(음.)
101007 #1 만약에 숨겨둔 거기에 씨앗이라도 이시면 씨앗도 전부 가져가불잖아.(만약에 숨겨둔 거기에 씨앗이라도 있으면 씨앗도 전부 가져가버리잖아.)
101007 @ 그거는 다음, 다음 질문에 보면 그거 이실 때 질문허쿠다예.(그거는 다음, 다음 질문에 보면 그거 있을 때 질문할게요.)
101007 #1 예.(예.)
101008 @ 그다음엔 여기 세화리에서 특산물론 뭐가 이수과?(그다음엔 여기 세화리에서 특산물론 뭐가 있습니까?)
101008 #1 특산물로는 그 전에는.(특산물로는 그 전에는.)
101008 @ 예.(예.)
101008 #1 뭐 조, 보리, 고구마.(뭐 조, 보리, 고구마.)
101008 @ 예.(예.)
101008 #1 벼, 메밀.(벼, 메밀.)
101008 @ 옛날에 고구마니 벼니 레는 안 골앗지예? 옛날에는 뭐렌 골앗수과?.(옛날에 고구마니 벼니 라고는 안 말했지요?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1008 #1 감저.(고구마.)
101008 @ 감저, 예.(고구마, 예.)
101008 #1 고구마가 감저.(고구마가 감저.)
101008 @ 예.(예.)
101008 #1 겐디 고구마는 감저엔 ᄒᆞ고.(그런데 고구마는 감저라고 하고.)
101008 @ 예.(예.)
101008 #1 저, 지금에 말ᄒᆞ는 감자는 지실.(저, 지금에 말하는 감자는 지실.)
101008 @ 예, 지실이엔 골앗고예? 그런 것들이 특산물이엇구나예?(예, 지실이라고 말했고요? 그런 것들이 특산물이었군요?)
101008 #1 예, 지실. 겐데 감자, 감자가 많이 나서, 그 감자 일제시대는 그거 감자 절간허영.(예, 감자. 그런데 감자, 감자가 많이 나서, 그 감자 일제강점기 때는 그거 감자

절간고구마해서.)
101008 @ 예.(예.)
101008 #1 감자를 썰어가지고, 그 기계가 십주.(감자를 썰어가지고, 그 기계가 있습지요.)
101008 @ 예.(예.)
101008 #1 그기 넣어서 돌리면은 감저가 썰어져 나와.(거기 넣어서 돌리면 고구마가가 썰어져 나와.)
101008 @ 그 뺏데기 만들 때 일제시대도 그 기계가 이섯수과?(그 절간고구마 만들 때 일제강점기 때고 그 기계가 있었습니까?)
101008 #1 예.(예.)
101008 @ 아, 기구나. 그면 뺏데기로 걷어간마씸? 일본에서가?(아, 그렇구나. 그러면 절간고구마로 걷어갔나요? 일본에서가?)
101008 #1 그 받아가십주. 그 헤서 그 저, 제주시.(그 받아갔습지요. 그 해서 그 저, 제주시.)
101008 @ 예.(예.)
101008 #1 그 저, 저, 부두 쪽으로 가는데.(그 저, 저, 부두 쪽으로 가는데.)
101008 @ 예.(예.)
101008 #1 거기에서 그 저 알콜.(거기에서 그 저 알콜.)
101008 @ 주정공장마씸?(주정공장이요?)
101008 #1 주정공장.(주정공장.)
101008 @ 아.(아.)
101008 #1 주정이 바로 그 고구마로 만든 주정이어.(주정이 바로 그 고구마로 만든 주정이야.)
101008 @ 맞수다게.(맞습니다.)
101009 @ 그다음에는 이 마을에서 아, 우리 세화에서는 진짜 이게 최고라게 헐 자랑할 만헌 거 뭐이수과?(그다음에는 이 마을에서 아, 우리 세화에서는 진짜 이게 최고야 할 자랑할 만한 거 뭐있습니까?)
101009 #1 허! 자랑할게 이젠 다 없어져서.(허! 자랑할게 이젠 다 없어져서.)
101009 @ 옛날엔?(옛날엔?)
101009 #1 옛날에는 여기 참, 허! 화목ᄒᆞ고.(옛날에는 여기 참, 허! 화목하고.)
101009 @ 예.(예.)
101009 #1 살기가 참 펜안헌 듸주. 겐데 흉년이 들어서 헤도 저 웨부에서 세화리 와서 먹을 거라도 조꼼 구헤서 짊어지고 나갓지.(살기가 참 편안한 데지.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해도 저 외부에서 '세화리' 와서 먹을 거라도 조금 구해서 짊어지고 나갔지.)
101009 @ 예.(예.)
101009 #1 세화리 사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흉년이 들어도 다른 데 가서 얻어다 먹언 예는 없어.(세화리 사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흉년이 들어도 다른 데 가서 얻어다 먹

은 예는 없어.)
101009 @ 그렇구나예.(그렇군요.)
101009 #1 그렇게 여기 사람덜은 곳곳에 부지런히 헤가지고 자급자족 헷젠ᄒᆞ카?(그렇게 여기 사람들은 곳곳에 부지런히 해가지고 자급자족 했다할까?)
101009 @ 예.(예.)
101009 #1 그것이 이섯는데 이젠 누구나 다 경ᄒᆞ는 사름은 엇고.(그것이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다 그러는 사람은 없고.)
101009 @ 맞수다.(맞습니다.)
101009 #1 허허허!(허허허!)
101010 @ 이 마을에 데헤서 제가 질문한 것덜 잇잖아예?(이 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들 있잖아요?)
101010 #1 예.(예.)
101010 @ 그 무슨 지형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특산물 자랑거리 같은 거, 이거 웨로 뭔가 특별나게 세화리는 어떤 데라는 걸 혹시 하시고픈 말 이시민 ᄀᆞᆯ아줍서.
101010 #1 휴! 제 여기 제주도 사삼사건 지금 말허는데.(휴! 제 여기 제주도 사삼사건 지금 말하는데.)
101010 @ 사삼에 데헤선 다시 질문할게예. 다음 하면서예.(사삼에 대해선 다시 질문할게요. 다음 하면서요.)
101010 #1 예.(예.)
101010 @ 따로 이제 사삼 말고 말할 거 엇수과? 사삼은 이제 다음 질문에 저가 질문에 들어가쿠다.(따로 이제 사삼 말고 말할 거 없습니까? 사삼은 이제 다음 질문에 저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1010 #1 엇수다.(없습니다.)
101010 @ 엇수과? 알았습니다. 그면 지금까지 조사마을에 데헤 말씀드려수다예.(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마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 제보자 일생인데예? 어디서 낳고, 어떻게 자라신디 잠깐만 말씀헤 주십서.(어, 제보자 일생인데요? 어디서 낳고, 어떻게 자랐는지 잠깐만 말씀해주십시오.)
102001 #1 에, 난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에, 난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101001 @ 예.(예.)
101001 #1 지금ᄁᆞ지 여기에서 살앗수다.(지금까지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102002 @ 경헷지예?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헷수과?(그랬지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2002 #1 우리아버지는 목축, 소 말도 기르고, 농사도 지으면서 또 집짓는 목수엿수

다.(우리아버지는 목축, 소 말도 기르고, 농사도 지으면서 또 집짓는 목수였습니다.)
102002 @ 아, 경헷수과? 몇 오누이, 저기 형제분이 몇이라낫수과?(아, 그랬습니까? 몇 오누이, 저기 형제분이 몇이었습니까?)
102002 #1 우리아버지는, 우리아버지는 형제가 이섯는데.(우리아버지는, 우리아버지는 형제가 있었는데.)
102002 @ 아니, 교장선생님네.(아니, 교장선생님네.)
102002 #1 아, 나는 에, 우리아버지 밑에 세 성젭주. 세 성제. 세 성젠디 내가 젤 막둥이.(아, 나는 에, 우리아버지 밑에 세 형제입지요. 세 형제. 세 형젠데 내가 젤 막둥이.)
102002 @ 예.(예.)
102002 #1 다슷 오누이, 아 저, 다섯 저 형제간인데, 아덜 셋 딸 둘인데.(다섯 오누이, 아 저, 다섯 저 형제간인데, 아들 셋 딸 둘인데.)
102002 @ 예.(예.)
102002 #1 내가 아덜 막둥이 세 번째.(내가 아둘 막둥이 세 번째.)
102002 @ 센 번째마씸.(세 번째요.)
102002 #1 예. 내 밑으로 누이동생이 둘, 그래서 다섯 오누입주.(예. 내 밑으로 누이동생이 둘, 그래서 다섯 오누이입지요.)
102002 @ 지금 다 살아계시우꽈?(지금 다 살아계십니까?)
102002 #1 우리 형, 두 형님은, 우의로 큰형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도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은 저 육이오 때 가가지고 전사당헤버리고.(우리 형, 두 형님은, 위로 큰형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도 돌아가시고, 두 번째 형님은 저 육이오 때 가가지고 전사당해버리고.)
102002 @ 아, 기꽈?(아, 그래요?)
102002 #1 그래서 저는 막둥이로, 기자 막둥이 ᄒᆞ나 남아십주.(그래서 저는 막둥이로, 그저 막둥이 하나 남았습지요.)
102003 @ 기꽈? 교장선생님 어머니 고향은 어디엿수과?(그래요? 교장선생님 어머니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102003 #1 우리 어머니는 원래는 저 여우내[25]. 신흥2리[26].(우리 어머니는 원래는 저 여우내. '신흥2리'.)
102003 @ 거기를 여우내렌 헷수과?(거기를 '여우내'라고 했습니까?)
102003 #1 예, 예. 여우내, 신흥2리. 여우내엔 헌디 광산 김칩이 뚤입주.(예, 예. '여우내', 신흥2리. '여우내'라고 하는데 광산 김씨 집의 딸입지요.)
102003 @ 아.(아.)
102003 #1 광산 김칩이 뚤인데 우리 광산 김칩이 우리 어머니 웨가가 남원, 옛날 일제시대 그 처음으로 멘장 헐 때에 저, 여기는 동중면[27]이고 남원[28]이는 서중면[29] 아닙

25) '여우내', 혹은 '여온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옛 이름이다.
26) '신흥2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27) '동중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현 중에서 지금의 표선면 일대를 이르던 면 이름이다.

니까? 서중면이라낫는데 서중면 면장 조카 뭴 철입주.(광산 김씨 집의 딸인데 우리 광산 김씨 집이 우리 어머니 외가가 남원,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 처음으로 면장 할 때에 저, 여기는 '동죽면'이고 '남원'은 '서중면' 아닙니까? '서중면'이이었는데 '서중면' 면장 조카 뻘입지요.)

10200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03 #1 허허허!(허허허!)

102004 @ 교장선생님 어릴 땐 여기서 어떤 놀이를 헷수과? 놀이 종류덜 골아줘봅서.(교장선생님 어릴 땐 여기서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놀이 종류들 말해주십시오.)

102004 #1 놀이, 우리가 기억남은 게.(놀이, 우리가 기억남은 게.)

102004 @ 예.(예.)

102004 #1 연 띄우는 거.(연 날리는 거.)

102004 @ 예.(예.)

102004 #1 그다음에 펭이 치는 거.(그다음에 팽이 치는 거.)

102004 @ 예.(예.)

102004 #1 그 다음 구멍치기가 이서예. 허허허!(그 다음 구멍치기가 있어요. 허허허!)

102004 @ 고망치기예?(구멍치기요?)

102004 #1 구멍치기, 허허허!(구멍치기, 허허허!)

102004 @ 다음엔 놀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질문 할게예?(다음엔 놀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질문 할게요?)

102004 #7 예.(예.)

102005 @ 그다음엔 아까 잠깐 말씀 하셧엇잖아예? 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데헤가지고 말씀헤주십서. 특히 공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뒈신가예?(그다음엔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공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요?)

102005 #1 공출은 그 당시에 그 저 어떻게야 조사헷는지 그 면에서.(공출은 그 당시에 그 저 어떻게야 조사했는지 그 면에서.)

102005 @ 예.(예.)

102005 # 면서기들이 전부 조사합니다.(면서기들이 전부 조사합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지금도 마찬가지주마는 지금도 농사짓는데 뭐 그 집에 밧이 멧 펭이고 멧 개가 잇고 어떻게 허고, 전부 알잖입니까?(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농사짓는데 뭐 그 집에 밭이 몇 평이고 몇 개가 있고 어떻게 허고, 전부 알잖습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그 보리, 그다음엔 보리공출이 이섯고.(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그 보리, 그다음엔 보리공출이 있었고.)

---

28) '남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읍 소재지이다.

29) '서중면'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현 중에서 지금의 남원읍 일대를 이르던 이름이다.

102005 @ 저, 뻿데기기 같은 거.(저, 절간고구마 같은 거.)
102005 #1 뻿데기.(절간고구마.)
102005 @ 예.(예.)
102005 #1 또 그 다음에는 뜸, 뜸이엔 ᄒᆞ민 알아지쿠과?(또 그 다음에는 뜸, 뜸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102005 @ 모루쿠다.(모르겠습니다.)
102005 #1 뜸이엔 헌 건 뭐이냐면, 새 헤다가.(뜸이라고 한 건 뭐냐면, 띠 해다가.)
102005 @ 예.(예.)
102005 #1 새 헤다가 이제 그 뭐 더프면은 물 바라가지고.(띠 해다가 이제 그 뭐 덮으면 물 바래가지고.)
102005 @ 예.(예.)
102005 #1 저 물, 비 맞지 않게.(저 물, 비 맞지 않게.)
102005 @ 예.(예.)
102005 #1 그걸 엮어갑니다. 노 꼬아가지고 그걸 새를 놓으면서 여꺼마씀. 그걸 뜸이라고 흡니다.(그걸 엮어갑니다. 노 꼬아가지고 그걸 새를 놓으면서 엮어요. 그걸 뜸이라고 합니다.)
102005 @ 우장 같은 거마씸?(우장 같은 거요?)
102005 #1 예, 우장 가찌 헤서 ᄒᆞ지 않고.(예, 우장 같이 해서 호지 않고.)
102005 @ 예.(예.)
102005 #1 우장은 아주 가늘게 헤서 사람이 입을 수 잇도록히 만든 게 우장이고.(우장은 아주 가늘게 해서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우장이고.)
102005 @ 예.(예.)
102005 #1 요건 바깟듸 이거 뭐 저 뻿데기나 이렇게 막 헤다 놓면은.(요건 밖에 이거 뭐 저 절간고구마나 이렇게 마구 해다 놓으면.)
102005 @ 예.(예.)
102005 #1 그 우에 더프는 거.(그 우에 덮는 거.)
102005 @ 아.(아.)
102005 #1 더프는 용으로 그 그걸 만들어.(덮는 용도로 그 그걸 만들어.)
102005 @ 만들엉 가져오렌 헨마씸?(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102005 #1 예. 가져오렌 헤낫수다.(예.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102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05 #1 겨고, 우리 학생시대는 학생들은 뭘 ᄒᆞ느냐면은 저 송진.(그리고, 우리 학생시대는 학생들은 뭘 하느냐면 저 송진.)
102005 @ 예.(예.)
102005 #1 송진을, 그 저 소나무에서 뻬어가지고 그걸 바찌렌 헤나고 거, 여기서 송진이 소나무가 송진을 받을라믄 오래 걸리거든예?(송진을, 그 저 소나무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바치라고 했었고 그거, 여기서 송진이 소나무가 송진을 받으려면 오래 걸리거든

요?)
102005 @ 예.(예.)
102005 #1 그러믄 소나무 가지를 착! ᄒᆞ게 끈엉 내불면은 그걸 송진이 그거에 맺혀잇지 아녑니까?(그러면 소나무 가지를 착! 하게 끊어서 내버리면 그걸 송진이 그거에 맺혀 있지 않습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게민 그런 걸 가지를 전 부 끈어다가.(그러면 그런 걸 가지를 전 부 끊어다가.)
102005 @ 예.(예.)
102005 #1 그걸 도람, 학교에서.(그걸 드럼, 학교에서.)
102005 @ 예.(예.)
102005 #1 도람통에 놔가지고 밑으로 불 뗍니다.(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밑으로 불 뗍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그러믄 그 나무에서 진.(그러면 그 나무에서 진.)
102005 @ 예.(예.)
102005 #1 송진이 녹아서 내립주.(송진이 녹아서 내립지요.)
102005 @ 아, 테우렌 헹예?(아, 태우라고 해서요?)
102005 #1 아, 그걸 바쩌낫씀니께.(아, 그걸 바쳐났잖아요.)
102005 @ 예.(예.)
102005 #1 그러지. 또 저, 지금에 말하면 이질풀.(그러지. 또 저, 지금에 말하면 이질풀.)
102005 @ 예, 이질풀.(예, 이질풀.)
102005 #1 이질풀, 그 때 그게 겐노쇼꼰[30]데 이질풀, 또 도꼬마리.(이질풀, 그 때 그게 겐노쇼꼰데 이질풀, 또 도꼬마리.)
102005 @ 예.(예.)
102005 #1 그 씨앗.(그 씨앗.)
102005 @ 예. 도꼬마린 뭐에 써신고예?(예. 도꼬마린 뭐에 썼을까요?)
102005 #1 도꼬마리도 그거 자기네 기름 뭐 홀랴고.(도꼬마리도 그거 자기네 기름 뭐 하려고.)
102005 @ 아.(아.)
102005 #1 그거 헤서 저 바찌고.(그거 해서 바치고.)
102005 @ 음.(음.)
102005 #1 또 학생들에게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은.(또 학생들에게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102005 @ 예.(예.)

30) '겟노쇼코'는 일본어 'げんのじょうこ'로 이질풀을 말한다.

102005 #1 저, 헤바라기 씨 열 방울.(저, 해바라기 씨 열 방울.)
102005 @ 음.(음.)
102005 #1 또 피마자 씨 열 방울 주어서.(또 피마자 씨 열 방울 주어서)
102005 @ 예.(예.)
102005 #1 내중엔 그거 열 방울 준 다음엔 뭘 허냐면은.(나중엔 그거 열 방울 준 다음엔 뭘 하냐면.)
102005 @ 예.(예.)
102005 #1 헤바라기를 갖다 그 열 방울 심어가지고.(해바라기를 갖다 그 열 방울 심어가지고.)
102005 @ 예.(예.)
102005 #1 그 씨를 흔 말씩 내라는 거야.(그 씨를 한 말씩 내라는 거야.)
102005 @ 아.(아.)
102005 #1 그 안 내면은 그 저 허허허, 그 당시에는 뭐이냐, 실과?(그 안 내면은 그 저 허허허, 그 당시에는 뭐냐, 실과?)
102005 @ 예.(예.)
102005 # 그 무어예, 성적에 올려.(그 무엇에, 성적에 올려.)
102005 @ 아.(아.)
102005 #1 그리고 그거 헤서 피마자도 그렇게 헹 바찌곡, 뭘 헹 바찌곡, 그 일제시대 얼마나 학생들까지도 부려먹엇다고.(그리고 그거 해서 피마자도 그렇게 해서 바치고, 뭘 해서 바치고, 그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학생들까지도 부려먹었다고.)
102005 @ 아.(아.)
102005 #1 겨고 또 절간, 아까 얘기하듯 절간 헤서 그거 바쩟지, 또 그 웨, 그 저 담베, 담베를 헷는지 그걸 뭘로 썻는진 몰라, 그 저 이질풀을 헤가지고 그 물려가지고 그것도 내놔고.(그리고 또 절간고구마, 아까 얘기하듯 절간고구마 해서 그거 바쳤지, 또 그 왜, 그 저 담배, 담배를 했는지 그걸 뭐로 썼는지는 몰라, 그 저 이질풀을 해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그것도 냈었고.)
102005 @ 음.(음.)
102005 #1 게, 밧젼 기어이. 내중에는 막 저 뭐 헐 때는 저 드릇멀리 잇자니여 멀리.(그래, 바쳤어 기어이. 나중에는 막 저 뭐 할 때는 저 들머루 있잖아 머루.)
102005 @ 예, 멀리.(예, 머루.)
10205 #1 머위, 드릇멀리.(머위, 들머루.)
102005 @ 예.(예.)
102005 #1 그 잘자란 게 까망헤여.(그 자잘한 게 까매.)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넝쿨을 져 바찌라, 만들어. 저 끈어다가 바찌라고 헤서 내 그것 저 들에 가가지고 그 넝쿨을 흔 짐 져단에 바쩌가지고 상 받으멍 헤낫는디.(그 넝쿨을 져 바쳐라, 만들어. 저 끊어다가 바치라고 해서 내 그것 저 들에 가가지고 그 넝쿨을 한 짐

져다가 바쳐가지고 상 받으면서 했었는데.)
102005 @ 건 뭐헤신고예? 그걸로.(그건 뭐했을까요? 그걸로.)
102005 #1 건 뭐헷는지 몰라게.(그건 뭐했는지 모르겠어.)
102005 @ 예, 경헷구나예.(예, 그랬군요.)
102006 @ 그다음엔 어 여기, 세화에도 많이 사삼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이신디예. 사삼 때 교장선생님 네는 어떤 피해 같은 거 이섯수과?(그다음엔 어 여기, 세화에도 많이 사삼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삼 때 교장선생님 네는 어떤 피해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2006 #1 사삼 때는 피해는 엇고, 우린, 난, 고셍을 하영 헷는디.(사삼 때는 피해는 없고, 우린, 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세화리는 사삼 때 희생자가 흔, 청년이 청년덜 임원덜, 청년회의 임원덜 십칠 명, 세화리 사람만 십칠 명, 또 그 웨예 사람들은 그 저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이고, 그 청년덜 피해가 그 여기에 그 이섯습니다. 이섯고, 세화리는 소탕을 하지 아녜서.(세화리는 사삼 때 희생자가 한, 청년이 청년들 임원들, 청년회의 임원들 십칠 명, 세화리 사람만 십칠 명, 또 그 외에 사람들은 그 저 그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이고, 그 청년들 피해가 그 여기에 그 있었습니다. 있었고, 세화리는 소탕을 하지 않았어.)
102006 @ 음.(음.)
102006 #1 게, 소탕을 아니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세화리에 그 저 이장꼬지 지내고, 그 옛날엔 구장인디.(그게, 소탕을 아니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세화리'에 그 저 이장까지 지내고, 그 옛날엔 구장인데.)
102006 @ 예.(예.)
102006 #1 지금엔 이장이고.(지금엔 이장이고.)
102006 @ 예.(예.)
102006 #1 옛날엔 구장인데 구장도 오레하고, 거, 일본 놈들이 구장 ᄒᆞ면은 구장을 오죽 못살게 헷수과?(옛날엔 구장인데 구장도 오래하고, 거, 일본 놈들이 구장 하면 구장을 오죽 못살게 했습니까?)
102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06 #1 구장안티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무시거 공출 ᄒᆞ는 거, 또 사람 뽑아가지고 어디에 그 저, 석탄 파레 보내는 노무자덜.(구장한테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무엇 공출하는 거, 또 사람 뽑아가지고 어디에 그 저, 석탄 파러 보내는 노무자들.)
102006 @ 예.(예.)
102006 #1 이장한티 구장한티 전부 헹은에 뽑앙은에 보내렌 헷거든.(이장한테 구장한테 전부 해서 뽑아서 보내라고 했거든.)
102006 @ 아.(아.)
102006 #1 그래서 그런 사람 ᄒᆞ는 거 이장을 아주 기초로 헹은에 아주 막 못살게 굴어나서.(그래서 그런 사람 하는 거 이장을 아주 기초로 해서 아주 막 못살게 굴었었어.)

102006 @ 누가 못살게? 정부가마씸?(누가 못살게? 정부가요?)
102006 #1 그 일본 놈들이.(그 일본 놈들이.)
102006 @ 아니, 아니 사삼 때.(아니, 아니 사삼 때.)
102006 #1 그 헨디, 그렇게 헷던 그 사람이 구장이 잇엇는데.(그 한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구장이 있었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그 구장이 사삼사건 때는 에, 우리 부락에 그 한 사람이 옛날 그 일제시대부터 그 일본에서, 그 일본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사상이라고 헤서이.(그 구장이 사삼사건 때는 에, 우리 부락에 그 한 사람이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일본에서, 그 일본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사상이라고 했어.)
102006 @ 예.(예.)
102006 #1 지금에는 가만히 생각헤보면은 공산주읜데.(지금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산주읜데.)
102006 @ 예.(예.)
102006 #1 일본에서 사회주의는 일본하고 이렇게 반대 뭰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흔 사람이 이섯어.(일본에서 사회주의는 일본하고 이렇게 반대 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사람이 일본에 살앗는데.(그 사람이 일본에 살았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이 부락 사람인데 그 사람 형은 여기에 구장으로도 이섯고, 그 동생은 표선 면장끄지도 헷던 사람이고.(이 부락 사람인데 그 사람 형은 여기에 구장으로도 있었고, 그 동생은 표선 면장까지도 했던 사람이고.)
102006 @ 예.(예.)
102006 #1 그런 사람이 게 이섯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자꾸 그 일본을 반대허는 그 운동을 하니까, 지금 ᄀᆞ뜨면은 지금의 우리가 애기허는 거는, 우리가 생각허기로는 그게 반일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ᄒᆞ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그런 사람이 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자꾸 그 일본을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의 우리가 애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반일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10200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06 #1 그러니 요주인물이라 말이여 일본 놈들은.(그러니 요주인물이라 말이여 일본 놈들은.)
102006 @ 예.(예.)
102006 #1 하도 그 놈의 그 뭐허니까 일본에서 추방을 시켜버렷서.(하도 그 놈의 그 뭐하니까 일본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
102006 @ 음.(음.)

102006 #1 추방을 시키니까 갈 듸는 어디 이서, 고향에 벳긘 더 올 거 아니?(추방을 시키니까 갈 데는 어디 있어, 고향에 밖에는 더 올 거 아니?)
10200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6 #1 게네 이듸 오란 이젠 묻처서 사는디 일본놈들이 그 싸움에 깅헨 내좇앗는디.(그러니 여기 와서 이젠 묻혀서 사는데 일본 놈들이 그 싸움에 그렇게 해서 내쫓았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일본 놈들이 망허지 아녜서?(일본 놈들이 망하지 않았어?)
102006 @ 예.(예.)
102006 #1 망허난 우린 해방뒐 거 아니?(망하니까 우린 해방될 거 아니?)
102006 @ 예.(예.)
102006 #1 해방 뒈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ᄒᆞ단 이디 오란 사는디, 일본 놈들이 요주의 인물로 헤근에 감시를 헤낫거든.(해방 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자가 여기 와서 사는데, 일본 놈들이 요주의 인물로 해서 감시를 했었거든.)
102006 @ 예.(예.)
102006 #1 감시를 헤낫는디 해방이 뒈어서 뭐허니까, 우리나라 그 경찰이 잇잖녀?(감시를 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뭐하니까, 우리나라 그 경찰이 있잖아?)
102006 @ 예.(예.)
102006 #1 경찰이 일본 놈들이 ᄒᆞ던 감시ᄒᆞ던 그 사람이 요주의인물이 바로 세화리에 이섯던 거야.(경찰이 일본 놈들이 하던 감시하던 그 사람이 요주의인물이 바로 '세화리'에 있었던 거야.)
102006 @ 예.(예.)
102006 #1 게서 이젠 사삼사건은 나서 이제 뭐허니까, 이거 소개하라고 허니까, 그 ᄒᆞᆫ 그 구장을 헷던 그 사람은 우린 소개허지 않겟다, 소개허믄 어디 가서 사느냐, 집 없이 다른데서 가서 살 수도 없고 우리 부락 사람들 다 가면은 살 수도 엇고.(그래서 이젠 사삼사건은 나서 이제 뭐하니까, 이거 소개하라고 하니까, 그 한 그 구장을 했던 그 사람은 우린 소개하지 않겠다, 소개하면 어디 가서 사느냐, 집 없이 다른데서 가서 살 수도 없고 우리 부락 사람들 다 가면 살 수도 없고.)
102006 @ 예.(예.)
102006 #1 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네 절대 우린 소개 못 허겟다 헤선 딱 나바쩌지니까, 중산간[31]에서 소탕 아넨 듸가 이 부락ᄒᆞ고 성읍리[32] 뿐이야.(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당신네 절대 우린 소개 못 하겠다 해선 딱 나자빠지니까, '중산간'에서 소탕 안한 데가 이 부락하고 '성읍리' 뿐이야.)
102006 @ 아.(아.)
102006 #1 제주도 뻥 일주도로에만 사람이 잇고 중산간에 ᄒᆞ나토 엇어, 집이.(제주도

31) '중산간'은 해안에서 한라산 쪽으로 200~600m쯤 안으로 들어간 지대를 말한다.
32) '성읍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뱅 일주도로에만 사람이 있고 '중산간'에 하나도 없어, 집이.)
102006 @ 맞수다.(맞습니다.)
102006 #1 겐디, 세화리 일리ᄒᆞ고 저 성읍리만 이섯서. 그 성읍리는 웨 이섯냐면은 옛날 정의고을[33] 아니라게?(그런데, 세화리 1리하고 저 성읍리만 있었어. 그 '성읍리'는 왜 있었냐면 옛날 '정의고을' 아니야?)
102006 @ 맞수다.(맞습니다.)
102006 #1 현관이 잇고 헤나난에 게, 성읍리 잇는데 성읍리ᄒᆞ고 여기는 아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으문 죽어도 절대 우리 부락에서는 다른데 못 간다, 안가겠다 겡 허니깐 홀 수없이 이젠 여기는 안 갈 걸로 헤서 헷는데 이제 내중엔 그 저 초토화시긴가 뭔 놈의 그 놈의 작전으로 문딱 불부찌기 시작ᄒᆞ지 아녀게?(현관이 있고 했어서 그게, '성읍리' 있는데 성읍리하고 여기는 아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으면 죽어도 절대 우리 부락에서는 다른데 못 간다, 안가겠다 그러니깐 할 수없이 이젠 여기는 안 갈 걸로 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엔 그 저 초토화시긴가 뭔 놈의 그 놈의 작전으로 모두 불붙이기 시작하지 않았어?)
102006 @ 여기 세화도마씸?(여기 세화도요?)
102006 #1 게난 세화는 아녯주게.(그러니까 세화는 않았지.)
102006 @ 안 허고예? 넘어가고예?(안 하고요? 넘어가고요?)
102006 #1 그 작전이 이젠 바로 시행을 허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기에서 살겠다고 헤서 나자빠졋는디, 거 허니까 가시리, 아 그이 멧 년도니, 그 사삼사건 다음 해 그 해.(그 작전이 이젠 바로 시행을 허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기에서 살겠다고 해서 나자빠졌는데, 그거 하니까 '가시리', 아 그 이 몇 년도니, 그 사삼사건 다음 해 그 해.)
102006 @ 사십구 년에예?(사십구 년에요?)
102006 #1 그 해, 으. 사십구 년, 그 사삼사건 일어나는 해에, 구년인가? 사십구 년.(그 해, 으. 사십구 년, 그 사삼사건 일어나는 해에, 구년인가? 사십구 년.)
102006 @ 사십구 년, 예.(사십구 년, 예.)
102006 #1 사십구 년 음력 시월 십오 일.(사십구 년 음력 시월 십오 일.)
102006 @ 예.(예.)
102006 #1 시월십사 일 날 거기에 아즈니까 이 청년덜 무시거 전부 표선으로 전부 모이라고 헷단 말이여.(시월십사 일 날 거기에 앉으니까 이 청년들 무엇 전부 표선으로 전부 모이라고 했단 말이야.)
102006 @ 예.(예.)
102006 #1 게서 여기 청년덜 전부 갈 거 아니?(그래서 여기 청년들 전부 갈 거 아니?)
102006 @ 예.(예.)
102006 #1 가니까 세화리에 요주의인물이 ᄒᆞ나 이섯단 말이여.(가니까 '세화리'에 요주의인물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33) '정의고을'은 성읍리의 옛 이름이다.

102006 @ 예.(예.)
102006 #1 겐디 세화리에 살고 이섯서.(그런데 '세화리'에 살고 있었어.)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사람이 산에도 올라가지 아녀고.(그 사람이 산에도 올라가지 안하고.)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사람덜은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빨갱이로만 인정을 허는 거여.(그 사람들은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빨갱이로만 인정을 하는 거야.)
102006 @ 아, 아.(아, 아.)
102006 #1 겐디 빨갱이 아니라는 건 어찌서 나가 생각ᄒᆞ기로 아느냐면, 내 그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뎅길 때거든.(그런데 빨갱이 아니라는 건 어째서 내가 생각하기로 아느냐면, 내 그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
102006 @ 예.(예.)
102006 #1 다른 데서 메모지를 주어.(다른 데서 메모지를 주어.)
102006 @ 예.(예.)
102006 #1 이거 세화리 누게안티 전헤주렌 허영 주면은 걸 갖다 주면은 그, 나하고 동창 아방니까.(이거 '세화리'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주면 걸 갖다 주면 그, 나하고 동창 아버지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아덜안티도 안 주곡 나를 시켱 동네에 사니까.(그 아들한테도 안 주고 나를 시켜서 동네에 사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나를 시켜가지고 그듸 그 사람 안댄 ᄒᆞ니까 그듸 갖다 주라고 헤여. 게 가면은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그걸 무시헤버려. 자기는 필요 없는 것 같이 겅헤. 느, 잘 아정 오랏져 헌다든지 이렇게 ᄒᆞ민 ᄒᆞ주마는, '에, 다시랑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나를 시켜가지고 거기 그 사람 안다고 하니까 거기 갖다 주라고 해. 그래 가면 갖다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려. 자기는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너, 잘 가져왔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지만, '에, 다시랑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102006 @ 음.(음.)
102006 #1 겡헨 내중에는 여러 번 줘도 가져오지 말렌 헹 뭐하니까, 아마 대답을 그에 순응 아넷던 모양이지.(그렇게 해선 나중에는 여러 번 줘도 가져오지 말라고 해 뭐하니까, 아마 대답을 그에 순응 않았던 모양이지.)
102006 @ 예.(예.)
102006 #1 그게 가만 보니까 그 남노당.(그게 가만 보니까 그 남로당.)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직원인 모양이라.(그 직원인 모양이야.)
102006 @ 아.(아.)
102006 #1 마음은 남노당에 뎅기는 사람인 것 가테.(마음은 남로당에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102006 @ 음.(음.)
102006 #1 나도 모르는디.(나도 모르는데.)
102006 @ 음.(음.)
102006 #1 겐디, 내중에야 그걸 알앗지.(그런데, 나중에야 그걸 알았지.)
102006 @ 음.(음.)
102006 #1 겐디 그 사건이 뒈니까 불부찌레 소탕허레 간다고 청년덜 모이렌 허니까 거기에서 열일굽 사람, 우리 부락사람 열일굽 사람 청년들 임원들 다 불른 거야.(그런데 그 사건이 되니까 불붙이러 소탕하러 간다고 청년들 모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열일곱 사람, 우리 부락사람 열일곱 사람 청년들 임원들 다 부른 거야.)
102006 @ 음.(음.)
10206 #1 불러서 딱 가돠 논 거야.(불러서 탁 가둬 놓은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그 소탕하레 가지 않고.(그 소탕하러 가지 않고.)
102006 @ 음.(음.)
102006 #1 가시리는 그 다음날은 가시리 뼁 ᄒᆞ게 둘러싸가지고 전부 불부쩌서 사람도 죽여불고 다 불부쩌버릿잖아.(가시리는 그 다음날은 가시리 빙 하게 둘러싸가지고 전부 불붙여서 사람도 죽여 버리고 다 불붙여버렸잖아.)
102006 @ 예.(예.)
102006 #1 겐디 그 불부찐 아침에는, 저 그 형이, 형이 구장이엇서. 그 당시에.(그런데 그 불붙인 아침에는, 저 그 형이, 형이 구장이었어. 그 당시에.)
102006 @ 그 마을에서 안 나가켄 헌 사람.(그 마을에서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102006 #1 으으. 그 남노당으로 지목을 받던 그 사람이.(으으. 그 남로당으로 지목을 받던 그 사람이.)
102006 @ 예.(예.)
102006 #1 일제시대 그 추방당헹 온 사람.(일제강점기 때 그 추방당해서 온 사람.)
102006 @ 예.(예.)
102006 #1 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성이 구장이엇서.(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 형이 구장이었어.)
102006 @ 예.(예.)
102006 #1 게 구장 면에서 첨, 모이렌 허민 모일 거 아니?(게 구장 면에서 참, 모이라고 하면 모일 거 아니?)
102006 @ 예.(예.)
102006 #1 모여서, 이사람 넬 데려 오라.(모여서, 이사람 낼 데려 오라.)
102006 @ 예.(예.)
102006 #1 넬 아홉 시ᄁᆞ지 안 데려오면은 요 일굽 사람, 열일굽 사람 이사람 대신 총살 허켄 허니까, 총살헹 정말 죽일 걸로 생각을 아넷거든.(낼 아홉 시까지 안 데려오면

요 일곱 사람, 열일곱 사람 이사람 대신 총살 하겠다고 하니까, 총살해서 정말 죽일 걸로 생각을 안했거든.)

102006 @ 맞수다예.(맞습니다.)

102006 #1 그래서 이젯 저녁에 와가지고 동생안티 '야, 제발 죽어도 느 손으로 강은에 죽으렌.' '나 뭐 잘못이 잇으멍 나 뭐 ᄒᆞ는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뭐헌데 가서 죽느냐' 멍, '죽으민 죽어도 아무듸도 안 간다고.' 형제간이 아멩 소정헤도 뒐 말이냐?(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동생한테 '야, 제발 죽어도 네 손으로 가서 죽으라.' '나 뭐 잘못이 있으며 나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뭐한데 가서 죽느냐'며, '죽으면 죽어도 아무데도 안 간다고.' 형제간이 아무리 사정해도 될 말이니?)

102006 @ 맞수다.(맞습니다.)

102006 #1 강제로 끌엉가진 못ᄒᆞᆫ단 말이여.(강제로 끌고 가진 못한단 말이야.)

102006 @ 맞수다예.(맞습니다.)

102006 #1 누게 뒈크냐게? 그, 누게가 경 ᄒᆞᆯ 거니?(누가 되겠니? 그, 누가 그렇게 할 거니?)

102006 @ 경허난예.(그러니까요.)

102006 #1 경허단보니까 아홉 시가 넘어버렷단 말이어.(그러다보니까 아홉 시가 넘어버렸단 말이야.)

102006 @ 아!(아!)

102006 #1 게니까 총소리 나니까 그 정말 죽여 부러시카부덴은 아녓주게.(그러니까 총소리 나니까 그 정말 죽여 버렸을까는 않았지.)

102006 @ 음.(음.)

102006 #1 게, 열일굽 사람 다 총살헤 버릿잖아.(그래, 열일곱 사람 다 총살해 버렸잖아.)

102006 @ 쩟쩟, 게 그 구장 동생은 게 어떵 뒛수과?(쩟쩟, 그래 그 구장 동생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102006 #1 경허난에 내중에는 그 사람 다 죽여 부리니까 게, 형이 어떵 ᄒᆞᆯ 말이라.(그러니 나중에는 그 사람 다 죽여 버리니까 그래, 형이 어떻게 할 말이야.)

102006 @ 하이고.(하이고.)

102006 #1 ᄉᆞ실관계 ᄀᆞᆯ을 거 아니?(사실관계 말할 거 아니?)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허난 동네사람들이 'ᄒᆞᆯ 수 엇다 이젠, 우리 너네 성이나 무시거나 우리 사람덜 다 살리젠 ᄒᆞ민은 너 가렌' 심언 간 바쩐 주어부릿주게.(그러니 동네사람들이 '할 수 없다 이젠, 우리 네 형이나 무엇이나 우리 사람들 다 살리려고 하면 네가 가라' 붙잡아 가서 바쳐 주어버렸지.)

102006 @ 아.(아.)

102006 #1 심엉 가난에 이젠 일본 놈덜 그 칼[34]로 야게 끊언 죽여부렷주게.(붙잡아

34) '일본 놈덜 그 칼'은 '일본도'를 말한다.

가니까 이젠 일본 놈들 그 칼로 목 끊어서 죽여 버렸지.)
102006 @ 아으, 진짜예.(아으, 진짜요.)
102006 #1 겡헨에 그것이 발단이 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빨갱이 ᄒᆞ고 산에 올라간 그 저 거시기 남노당 뭐 ᄒᆞ던 놈들이 맨 처음엔 저 육지에서 들어온 놈들이거든.(그렇게 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빨갱이 하고 산에 올라간 그 저 거시기 남로당 뭐 하던 놈들이 맨 처음엔 저 육지에서 들어온 놈들이거든.)
102006 @ 예.(예.)
102006 #1 구련대(9연대)가 그 전부 공산주의라.(구연대(9연대)가 그 전부 공산주의라.)
102006 @ 예.(예.)
102006 #1 십일 연대는 저 제주시에서, 십일 연대 대대장은 그 부하안티 그 남노당 부하안티 얻어 죽자니여서. 총살헤어부럿주게.(십일 연대는 저 제주시에서, 십일 연대 대대장은 그 부하한테 그 남로당 부하한테 얻어 죽었잖아. 총살해버렸지.)
102006 @ 예.(예.)
102006 #1 경허멍 헤엇는디 그, 그 공산주의ᄒᆞ고 남노당 그 저, 사삼사건 때 일어난 그 주모자덜 ᄒᆞ고 이거 구분을, 양민ᄒᆞ고 구분을 어떻게 ᄒᆞ느냐면 증명을 헤주게 뒈여서.(그러면서 했는데 그, 그 공산주의하고 남로당 그 저, 사삼사건 때 일어난 그 주모자들 하고 이거 구분을, 양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증명을 해주게 되었어.)
102006 @ 예.(예.)
102006 #1 양민증이엔, 그게 양민증이라, 민증 나온 게.(양민증이라고, 그게 양민증이야, 민증 나온 게.)
102006 @ 음.(음.)
102006 #1 내중에는 뭐 도민증이엔 ᄒᆞ단엔 이젠 주민등록으로 다 바뀟주마는 맨 처음엔 그 양민증이라. 그 죽은 사람 가족은 양민증을 안 헤주겟다고 하거든. 안 헤주겟다고. 그러니 일제시대부터 그 구장 허든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양민증 안 헤주민, 이 가족들 양민증 안 헤줄 바에는 우리 세화리 사람 다 양민증 헤주지 말라. 다 죽이커들랑 다 죽이라.' 게멍 이젠 반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경찰이.(나중에는 뭐 도민증이라고 하다가 이젠 주민등록으로 다 바꿨지만 맨 처음엔 그 양민증이라. 그 죽은 사람 가족은 양민증을 안 해주겠다고 하거든.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 일제강점기부터 그 구장 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양민증 안 해주민, 이 가족들 양민증 안 해줄 바에는 우리 세화리 사람 다 양민증 해주지 말라. 다 죽이겠으면 다 죽여라.' 그러며 이젠 반항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경찰이.)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사람을 개머리판으로 갖다 조지곡 이, 막 ᄆᆞᆺ는 거라.(그 사람을 개머리판으로 갖다 조지고 이, 마구 무수는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겡 그 사람이 죽으민 죽어도, 입에 막 피버꿈 물고, 이렇게 막 맞아서 피

나면서도 이 사람들 양민증 아니헤주민 우리 다 헤주지 말라고 계속 소카렷단 말이여. 게니 그 사람 내중에 그렇게 뒈도록 계속 ᄒᆞ니까 이런 줴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젠 막 ᄒᆞ니까 양민증을 다 만들어 줘서.(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죽어도, 입에 막 피거픔 물고, 이렇게 막 맞아서 피 나면서도 이 사람들 양민증 아니해주면 우리 다 해주지 말라고 계속 소리쳤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 나중에 그렇게 되도록 계속 하니까 이런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이젠 막 하니까 양민증을 다 만들어 줬어.)

102006 @ 음.(음.)

102006 #1 그래서 그 형이나 그 가족이나 그 아들이나 똘이나 다 살곡, 그 친촉 그 당시에는.(그래서 그 형이나 그 가족이나 그 아들이나 딸이나 다 살고, 그 친족 그 당시에는.)

102006 @ 다 죽엿일 건디예?(다 죽였을 건데요.)

102006 #1 그 당시에는 팔촌까지.(그 당시에는 팔촌까지.)

102006 @ 맞수다예.(맞습니다.)

102206 #1 저, 거기에 가담한 뭐 시면 팔촌까지 다 죽이게 뒛단 말이여.(저, 거기에 가담한 뭐 있으면 팔촌까지 다 죽이게 됐단 말이야.)

102006 @ 게난예.(그러게요.)

102006 #1 그 사람 죽여 불라면 죽일 때라.(그 사람 죽여 버리라면 죽일 때라.)

102006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2006 #1 게 가지고, 그 가족들 전부 살리고 내중에는 부락은 옮기지 아녀켄 ᄒᆞ니까, 주위로 뼁 ᄒᆞ게 둘러서 성담을 이제 밑에는 우리 발로 ᄒᆞᆫ 발 넘어, 굽이 그렇게 담을 쌓잖아. 높이가 얼마냐면, 에, ᄒᆞᆫ 삼 미타, 우리 사람 키가 일 메타 오십벳긘 더 뒈나, 게연 그거 사람 두 키.(그래 가지고, 그 가족들 전부 살리고 나중에는 부락은 옮기지 안하겠다고 하니까, 주위로 뺑 하게 둘러서 성담을 이제 밑에는 우리 발로 한 발 넘어, 굽이 그렇게 담을 쌓잖아. 높이가 얼마냐면, 에, 한 삼 미타, 우리 사람 키가 일 미터 오십밖에 더 되나, 그래서 그거 사람 두 키.)

102006 @ 예.(예.)

102006 #1 그 높이로 뼁 ᄒᆞ게 둘러서 성담 쌓서 여기 살앗잖아.(그 높이로 뺑 하게 둘러서 성담 쌓아서 여기 살았잖아)

102006 @ 게믄 그 사삼 끗나가지고 구장이나, 구장 동생이나 그 가족들 때문에 죽은 열일곱 명의 그 젊은 사람들의 가족들 하고는 서로 원수졍 살거나 겅 안헷수과?(그러면 그 사삼 끝나가지고 구장이나, 구장 동생이나 그 가족들 때문에 죽은 열일곱 명의 그 젊은 사람들의 가족들 하고는 서로 원수져서 살거나 그렇게 안했습니까?)

102006 #1 아니,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아니, 아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102006 @ 그러니깐예.(그러니까요.)

102006 #1 즉 대행총살이란 말이, 그 대행총살이 있을 수가 있나.(즉 대행총살이란 말이, 그 대행총살이 있을 수가 있나.)

102006 @ 그니깐예?(그러니까요.)
102006 #1 게,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주의 거시기면 사람덜이 그 넹기느냐?(그래, 그 사람이 만약에 공산주의 거시기면 사람들이 그 남기느냐?)
102006 @ 게난예? 맞수다. 그냥 아이고, 아무튼.(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냥 아이고, 아무튼.)
102006 #1 겨난 이건 누게 아무도 몰라. 난 그 그걸 매 맞고 그 사람 매 맞는 걸 봣거든, 앞이서.(그러니 이건 누구 아무도 몰라. 난 그 그걸 매 맞고 그 사람 매 맞는 걸 봤거든, 앞에서.)
102006 @ 게난, 잘도 훌륭허다예. 진짜.(그러니까, 잘도 훌륭하네요. 진짜.)
102006 #1 그래가지고 그 웨예 사람들은 또 심어다가 저기에서 합동으로 총살 허는데 총 맞아서 게도 총을 제라헌듸 맞지 아니헤영 이?(그래가지고 그 외의 사람들은 또 심어다가 저기에서 합동으로 총살 하는데 총 맞아서 그래도 총을 온전한데 맞지 않아서 응?)
102006 @ 예.(예.)
102006 #1 옆으로 비낀다던지 영 헹은에 흔 사람은 내중엔 창으로 강은에 사람 찔러 죽이라고 헷거든.(옆으로 비낀다던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나중엔 창으로 가서 사람 찔러 죽이라고 했거든.)
102006 @ 예.(예.)
102006 #1 겡헤도 산 사람이 산 사람이 잇서. 살아서 와서 이제 숨은 사람, 또 내중엔 심어단에 또 죽여불고.(그래도 산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 살아서 와서 이제 숨은 사람, 또 나중엔 심어다가 또 죽여 버리고.)
102006 @ 게, 세화리는 그믄.(그래, 세화리는 그러면.)
102006 # 게, 그 사람들 ᄒᆞ고 그 웨예 사람덜.(그래, 그 사람들 하고 그 외의 사람들.)
102006 @ 합치면 몇 사람 정도 희생뒛수가? 사삼 때.(합치면 몇 사람 정도 희생됐습니까? 사삼 때.)
102006 #1 (한숨)그 열일굽 사람ᄒᆞ곡 그 웨예 사람이 흔, 내 확실히 그거 다 세지는 못헤겟네. 그 그 담음엔 저 성담 싸기 전에 이?((한숨)그 열일곱 사람하고 그 외에 사람이 한, 내가 확실히 그거 다 세지는 못하겠네. 그 그 담음엔 저 성담 쌓기 전에 응?)
102006 @ 네.(네.)
102006 #1 싸기 전에 저기에서 와서 식량을 구헤, 막 털어가곡 헤낫주게.(쌓기 전에 저기에서 와서 식량을 구해, 막 털어가고 했었지.)
102006 @ 산 사람들마씨?(산사람들이요?)
102006 #1 어. 쉐도 오랑은에 헤가고, 흔 번 습격을 들어서. 습격 들어서 온 때가 그때 다슷 사람인가 죽어서.(어. 소도 와서는 잡아가고, 한 번 습격 들어서. 습격 들어서 온 때가 그때 다섯 사람인가 죽었어.)
102006 @ 그 사람, 산 사람들안티마씸?(그 사람, 산 사람들한테요?)
102006 #1 산 사람들안티.(산 사람들한테.)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 얻어 죽어가지고 저 이 동네까지는 오지 않고 저 윗동네로 헨에 헷는디 그 후에 성담 싼 다음에는.(얻어 죽어가지고 저 이 동네까지는 오지 않고 저 윗동네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성담 쌓은 다음에는.)
102006 @ 음.(음.)
102006 #1 습격을 들질 못헷주. 성담 쌓음과 동시에 경찰이 이디 일개 뭐 소대민 소대가 경찰이 이서가지고 이 부락에서 소 잡으멍.(습격을 들질 못했지. 성담 쌓음과 동시에 경찰이 여기 일개 뭐 소대면 소대가 경찰이 있어가지고 이 부락에서 소 잡으면서.)
102006 @ 멕엿구나예?(먹였군요.)
102006 #1 멕연 살렷거든. 그 사삼 끗날 때끄지.(먹여서 살렸거든. 그 사삼 끝날 때까지.)
102006 @ 게난, 경찰안티도 피해가 없고, 산 사람들안티도 나중에 피해가 없고예?(그러니, 경찰한테도 피해가 없고, 산 사람들한테도 나중에 피해가 없고요?)
102006 #1 게난, 그 때만 피해가 이섯주.(그러니, 그 때만 피해가 있었지.)
102006 @ 그때만 잇고.(그때만 있고.)
102006 # 겨난, 그 열일곱 사람은 줴 없이 얻어 총살당한 사람.(그러니, 그 열일곱 사람은 죄 없이 얻어 총살당한 사람.)
102006 @ 경헷구나예? 아, 사삼 이야기는 여기로 정리하고예.(그랬군요? 아, 사삼 이야기는 여기로 정리하고요.)
102007 @ 교장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셧수과?(교장선생님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102007 #1 결혼?(결혼?)
102007 @ 예. 몇 살 때 헷수과?(예. 몇 살 때 했습니까?)
102007 #1 나, 쑤물흔 술 나는 해.(나, 스물한 살 나는 해.)
102007 @ 연애결혼 헷수과? 중매결혼 헷수과?(연애결혼 했습니까? 중매결혼 했습니까?)
102007 #1 중매.(중매.)
102007 @ 중매결혼 헷수과?(중매결혼 했습니까?)
102007 #1 어.(어.)
102007 @ 사모님은 어디서 오션마씨?(사모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102007 #1 저 가마리[35], 세화 2리.(저 가마리, 세화 2리.)
102008 @ 중매결혼 헐 때 사주는 봣수과?(중매결혼 할 때 사주는 봤습니까?)
102008 #1 사주?(사주?)
102008 @ 예.(예.)
102008 #1 물론, 그때야 사주 다 봉 헌 때.(물론, 그때야 사주 다 봐서 한 때.)
102008 @ 게, 사주 막 좋텐 헷수과?(그래, 사주 막 좋다고 했습니까?)
102008 #1 몰라, 좋텐사 헤신디 궂텐사 헤신디.(몰라, 좋다 했는지 궂다 했는지.)

35)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를 말한다.

102009 @ 그믄예? 결혼헹 올 때 새각시가 혼수품은 뭐 헹 왓수과?(그러면요? 결혼해서 올 때 새색시가 혼수품은 뭐 해서 왔습니까?)
102009 #1 혼수품? 이불 ᄒᆞ나.(혼수품? 이불 하나.)
102009 @ 이불 ᄒᆞ나예? 다른 건 엇엇수과?(이불 하나요?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2009 #1 다른 건 우리 결혼헐 땐 돈이 없을 때라.(다른 건 우리 결혼할 땐 돈이 없을 때야.)
102009 @ 그믄 교장선생님은 뭐 헤줫수과? 새각시안티.(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뭐 해줬습니까? 새색시한테.)
102009 #1 헤준 것도 없어.(해준 것도 없어.)
102009 @ 언제부터 교직에 가셧수과?(언제부터 교직에 가셨습니까?)
102009 #1 천구백오십, 거신 나 멧 설에 가져신디 모르키어. 오십년? 오십이, 오십오 년인가?(천구백오십, 것이 나 몇 살에 가졌는지 모르겠어. 오십년? 오십이, 오십오 년인가?)
102009 @ 그때 몇 세마씸?(그때 몇 세였습니까?)
102009 #1 오십오 년, 쑤물세 설에, 쑤물세 설부터 학교 뎅겨시난에, 오십오 년 답다. 오십오 년.(오십오 년, 스물세 살에, 스물세 살부터 학교 다녔으니까, 오십오 년 닮다. 오십오 년.)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 식 어디서 올렷수과?(결혼식은 어디서 했나요? 식 어디서 올렸습니까?)
102010 #1 원래 우리 집이 저 이사무소, 옛날 이사무소 옆에 안네집이랏는디.(원래 우리 집이 저 이사무소, 옛날 이사무소 옆의 안집이었는데.)
102010 @ 예.(예.)
102010 #1 거, 여기에서.(거, 여기에서.)
102010 @ 집에서 헷구나예? 그 때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언마씨?(집에서 했군요? 그 때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었어요?)
102010 #1 사진, 카메라도 엇인 때.(사진, 카메라도 없을 때.)
102010 @ 기지예?(그렇지요?)
102011 @ 그무는 결혼헤가지고 신혼살림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앗수과?(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았습니까?)
102011 #1 음, 음음.(음, 음음.)
102011 @ 부모님이랑 같이예?(부모님이랑 같이요?)
102012 @ 지금 교장선생님은 저기 자제분이 몇 분마씸?(지금 교장선생님은 저기 자제분이 몇 분입니까?)
102012 #1 아들 넷, 뚤 둘.(아들 넷, 딸 둘.)
102012 @ 막내까지 다 결혼한 거지예?(막내까지 다 결혼한 거지요?)
102012 #1 어.(어.)
102012 @ 나이가, 나이가예.(나이가, 나이가요.)

102015 @ 며느리 사위들은 어떵 잘헙니까? 여기 세화 사는 어른들은 엇어마씨?(며느리 사위들은 어떻게 잘합니까? 여기 세화 사는 어른들은 없어요?)
102015 #1 세화리 ᄒᆞ나 살암서.(세화리 하나 살아.)
102015 @ 그럼 다 이제 멀리 살아불멘마씨?(그럼 다 이제 멀리 살아버리나요?)
102015 #1 어. 저, 서울 살고, 저 어디 경기도 살고, 서귀포 살고.(어. 저, 서울 살고, 저 어디 경기도 살고, 서귀포 살고.)
102015 @ 서귀포도 살암수과?(서귀포도 사나요?)
102016 @ 아까 조사마을 마치고예. 이젠 제보자 일생을 쭉 제가 여쭤 본 거라예. 교장선생님, 특별하게 뭐 저희가 제주어 연구하는데 세화리에 대해서 특별나게 하시고 싶을 말 엇수과?(아까 조사마을 마치고요. 이젠 제보자 일생을 쭉 제가 여쭤 본 거에요. 교장선생님, 특별하게 뭐 저희가 제주어 연구하는데 세화리에 대해서 특별나게 하시고 싶을 말 없습니까?)
102016 #1 거, 요즘 제주어엔 헹은에 별도로 저, 뭐 ᄒᆞ는데, 별도로 경 애쓸 필요는 없고, 쑤물ᄋᆞ덟 글짜 다 사용 ᄒᆞ도록히 ᄒᆞ면은 그 내역이나 옛날에는 요거 쓰고 잇고, 현제는 요거는 안 쓰는 거라는 걸 예기 헤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거 특별히 제주어라고 헹은에 애쓸 필요가 시카. 우리 한글만 보존 ᄒᆞ면은 그게 제주어가 그기에 다 포함되엇다, 이렇게 생각 허는데.(거, 요즘 제주어라고 해서 별도로 저, 뭐 하는데, 별도로 경 애쓸 필요는 없고, 스물여덟 글자 다 사용 하도록 하면 그 내역이나 옛날에는 요거 쓰고 있고, 현제는 요거는 안 쓰는 거라는 걸 얘기 해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거 특별히 제주어라고 해서 애쓸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한글만 보존 하면 그게 제주어가 거기에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102016 @ 예. 고맙습니다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겟습니다예.(예.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 제보자 일생

102001 @ 우선예? 송인생 삼춘이 언제 나고, 어떻게 자랏는지 먼저 여쭤보크라예?(우선요? 송인생 삼춘이 언제 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2001 #3 음.(음.)
102001 @ 언제 어디서 낳앗수과?(언제 어디서 낳았습니까?)
102001 #3 가시리[36]서.('가시리'에서.)
102001 @ 가시리서 낳안예?('가시리'에서 낳았어요?)
102001 #3 가시리서.('가시리'서.)
102001 @ 예.(예.)
102001 #3 음, 가시리서 난, 가시리서 열 살 나도록 컷주게.(음, '가시리'서 낳고, 가시

36)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리서 열 살 나도록 컸지.)
102001 @ 가시리는 여기하고 마을이 많이 떨어저이신 듸꽈?('가시리'는 여기하고 마을이 많이 떨어져있는 뎁니까?)
102001 #3 요 웃마을이라. 바루 읖 마을.(여 윗마을이야. 바로 옆 마을.)
102001 @ 웃마을예?(윗마을이요?)
102001 #3 응, 바로 웃마을. 웃마을이고양.(응, 바로 윗마을. 윗마을이고요.)
102001 @ 예.(예.)
102001 #3 열 설, 열 설 나기 전에 웨정시대에.(열 살, 열 살 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102001 @ 예.(예.)
102001 #3 웨정시대에는 확실히 몰라도 그 때 나가 으둡 솔 닮수다, 으둡 솔.(일제강점기 때에는 확실히 몰라도 그 때 내가 여덟 살 같습니다, 여덟 살.)
102001 @ 그때 왓수과?(그때 왔습니까?)
102001 #3 아니, 아니. 사삼사건 때 왓지, 열 설에.(아니, 아니. 사삼사건 때 왔지, 열 살에.)
102001 @ 열 설에예?(열 살이요?)
102001 # 응.(응.)
102001 @ 나중에예.(나중에요.)
102001 #1 응.(응.)
102001 @ 웨정 때고 이때고 물어보크라예? 다시예.(일제강점기 때고 이때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102001 #3 응, 응.(응, 응.)
102001 @ 다시 물어볼 거난 그때 껀 그때 강 ᄀᆞᆯ으민 뒈고예.(다시 물어볼 거니까 그때 그건 그때 가서 말하면 되고요.)
102001 #3 어, 응 응.(어, 응 응.)
102001 @ 그때 낳아가지고 어떻게 자라서 웨 여기에 와신지 ᄀᆞᆯ아줍서.(그때 낳아가지고 어떻게 자라서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해주세요.)
102001 #3 그때가 지금 그, 거기서 가시리서 난에.(그때가 지금 그, 거기서 가시리서 낳아서.)
102001 @ 예.(예.)
102001 #3 열 설 나도록 거기서 살아신디.(열 살 나도록 거기서 살았는데.)
102001 @ 예.(예.)
102001 #3 그 이 사삼사건이 닥쳣잖아요.(그 이 사삼사건이 닥쳤잖아요.)
102001 @ 예.(예.)
102001 #3 사삼사건 닥치난에 그때 어느 때냐면 음력으로 시월 십오일 날.(사삼사건 닥치니까 그때 어느 때냐면 음력으로 시월 십오일 날.)
102001 @ 예.(예.)

102001 #3 시월십오일 날 그 가시리가 그, 막 집에 불 다 부찌고, 그 곡식물도 다 불부쩌불고, 사람도 봐지민 다 죽여불고 헤서. 그걸 저, 이 저 순경덜이.(시월십오일 날 그 가시리가 그, 막 집에 불 다 붙이고, 그 곡식도 다 불붙여버리고, 사람도 보이면 다 죽여불고 했어. 그걸 저, 이 저 순경덜이.)

102001 @ 소개허렌 헷구나예?(소개하라고 했군요?)

102001 #3 응, 순경덜이 이제 막 그걸 그 마을 사람덜을 봐지민 다 그 죽여 불고, 집에 불 부쩌불곡 ᄒᆞ난 우린 오라방도 엇고 어머니 아버지 허고 우리 형님 ᄒᆞ나만 서낫수다.(응, 순경들이 이제 막 그걸 그 마을 사람들을 보이면 다 그 죽여 버리고, 집에 불 붙여버리고 하니까 우린 오라버니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우리 언니 하나만 있었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3 식구가 네 식구만예. 네 식구만 시난, 우린 집이 그 가시리에서 알동네라양.(식구가 네 식구만이요. 네 식구만 있으니까, 우린 집이 그 가시리에서 아랫동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3 폭낭동네엔 헌 듸, 알동네에 사는디, 그 막 그 ᄒᆞ쏠 위험지구 뒛수궤?(팽나무동네라고 한 데, 아랫동네에 사는데, 그 막 그 조금 위험지구 됐잖아요?)

102006 @ 음.(음.)

102006 #3 밤에는 그 집이를 잘 못 잣수다.(밤에는 그 집에서 잘 못 잤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3 그때 무사 그냥ᄒᆞ민 그 우에 올르는 사람덜이 자기네 말만 들으렌 헤부난양.(그때 왜 그랬냐면 그 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만 들으라고 해버려서요.)

102006 @ 아, 경헤근에 여기로. 불 부처불 거난 내려가렌 허난 여기로 왓수과?(아, 그렇게 하니까 여기로. 불 붙여버릴 거니까 내려가라고 하니까 여기로 왔습니까?)

102006 #3 아니, 내려가렌 안헷수다.(아니, 내려가라고 안했습니다.)

102006 @ 사삼 거는 다시 물어 볼게예? 사삼 거는예? 여기까지 온 거는 그때 사삼 때 마을에서 다 내려가렌 허난 내려 온 거?(사삼 거는 다시 물어 볼게요? 사삼 거는요? 여기까지 온 거는 그때 사삼 때 마을에서 다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 온 거?)

102006#3 내려가렌 아넨.(내려가라고 안했어.)

102006 @ 안헨.(안했어요.)

102006 #3 내려가렌 아넷주. 내려가렌 ᄒᆞᆯ 생각, 어느 하가에.(내려가라고 안했지. 내려가라고 할 생각, 어느 겨를에.)

102006 @ 음.(음.)

102006 #3 경헨에 그때 밤에도 무섭고, 경허민 우리 영 밧이 이서서양, 욮에.(그렇게 해서 그때 밤에도 무섭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옆에.)

102006 @ 음.(음.)

102006 #3 밧 시난, 우녁 담 옘에 영, 그 바람의지 뭔 듸난에, 그때 시월달이니까 이

불만 영 쌍 아자나서, 밤이양.(밭 있으니까, 위쪽 돌담 옆에 이렇게, 그 바람의지 된 곳이어서, 그때 시월달이니까 이불만 이렇게 써서 앉았었어요, 밤에요.)

102006 @ 음.(음.)

102006 #3 이불 썬 아졋단, 듯날은 막 흔, 흔 생각이 흔 아홉 시나 열 시나 뒈는 거 닮아양. 배고프지 아녀꽈?(이불 써서 앉았다가, 뒷날은 막 한 한, 생각이 한, 아홉 시나 열 시나 되는 거 같아요.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102006 @ 음.(음.)

102006 #3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헤여, 집이 가까우니까, 밧 두 개 넘으민 우리 집이난 밥을 헤당 먹어 얄 건디, 배고프난 어떵허민 좋고 허난, 우리 성님이 '나가 강 헹 오쿠다.' 겡허난,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이고 무서왕 못 간다, 어떵 갈티?' 영 허난 '에, 경헤도 나 강 헹 오쿠덴.' 흐난 경허난, 담을 영 올라사난 그 우녁 밧디도 우리 밧이라낫수다. 게난 순경이 탁 와서. 바로 우리 밧디. 거난 우린 알력밧디 잇고, 우녁밧디 순경이 탁 닥치난, 우리 성님이양 탁 내령 '아이고 큰일 낫수다, 우녁밧디 순경 와수다' 허난, 그때는 우리 알레레 돌아온 거우다. 이 세화[37]엘 돌아왓수게.(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밭 두 개 넘으면 우리 집이니까 밥을 해다가 먹어 얄 건데, 배고프니까 어떡하면 좋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내가 가서 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이고 무서워서 못 간다, 어떻게 갈래?'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도 내가 가서 해서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돌담을 이렇게 올라서니까, 그 위쪽 밭도 우리 밭이었습니다. 그러니 순경이 탁 왔어. 바로 우리 밭에. 그러니 우린 아래쪽 밭에 있고, 위쪽 밭에 순경이 탁 닥치니까, 우리 언니가요 탁 내려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위쪽 밭에 순경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는 우리 아래쪽으로 뛰어온 겁니다. 이 세화엘 뛰어왔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3 뭇조건 알레레 돌은 거양. 총이 팡팡 쏘아서예. 쏘아도 무쪼껀 돌앗수다.(무조건 아래쪽으로 뛴 거예요. 총을 팡팡 쏘았어요. 쏘아도 무조건 뛰었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3 뭇조건 돌안에 어디 와시냐 허민 요 가세오름[38] 거의 돌아 완.(무조건 뛰어서 어디 왔느냐 하면 요 '가세오름' 거의 뛰어 와서.)

102006 @ 예.(예.)

102006 #3 막 돌아왓주, 촐밧이구 무시거구 막 돌아완 돌아완 가세오름 요 읖에까지 오난 숨도 흐꼼 느리 쉬고, 이제는 어딜 가냐민, 우리 웨가가 가마리[39]우다. 가마리.(마구 뛰어왔지, 꼴밭이고 무엇이고 마구 뛰어와서 뛰어와서 '가세오름' 요 옆에까지 오니까 숨도 조금 내려 쉬고, 이제는 어딜 가느냐면, 우리 외가가 '가마리'입니다. '가마리'.)

---

37) '세화'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를 말한다. 표선면 중앙부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중산간에서 해안지대로 길고 넓게 펼쳐진 마을이다.

38) '가세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사이에 위치한 표고 202m, 넓이 30정보의 오름이다. 오름 모양이 중이 갓 쓴 정국,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가위처럼 생겼다는데 붙여진 이름이다.

39)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의 고유지명이다.

102006 @ 음.(음.)
102006 #3 가마리난에 이제는 그디 강 에구, ᄒᆞ쏠 그디나 가보카 헨에 이젠 가누렌 ᄒᆞ난에 요, 강왓듸[40]엔 헌 듸가 그때 하르버지들이 막 영 목 지켱 보추를 사수다.('가마리'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에구, 조금 거기나 가볼까 해서 이젠 가느라고 하니까 요, '강왓듸'라고 한 데가 그때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목 지켜서 보초를 섰습니다.)
102006 @ 음.(음.)
102006 #3 보추를 사난 '어딜 감이니?' 물으난 우리 아부지 허는 말이 '가마리 처남네 집이 강 배고프고 허난 아이들 밥이라도 멕이고 허쿠다.' 영 허난에 '아이고, 그뒨 가민 신작로가 비짝 헌디난 신작로가이라 부난 위험허난 가지 말렌.'(보초를 서니까 '어딜 가니?'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가마리 처남 네 집에 가서 배고프고 하니까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거기는 가면 신작로가 비쭉한데니까 신작로가여 버려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102006 @ 음.(음.)
102006 #3 세화리 친촉이 이서서. 웨가로 친촉이 시난, 그 집일 가렌. '무사 오렝헐 때 안 가서.' 그때 세화리 궨당이 우리신디 간에 '가시리 못사니까 세화리 ᄂᆞ려옵서, ᄂᆞ려왕 요디 집인디 그 우연네 오랑 집 짓고 이디 오랑 삽서.' 헤도 우린 아덜도 엇고 허난에 아명치도 안 헨덴만 헨에 '우린 아덜 엇이난 어떵 안 허메 어떵 안 허여.' 허멍 이젠 아녀 오랏단 이젠 닥치난 그디 강 밥 먹고 허렌.(세화리 친척이 있어서. 외가로 친척이 있으니까, 그 집엘 가라고. '왜 오라고할 때 안 가서.' 그때 '세화리' 권당이 우리에게 가서 '가시리 못사니까 세화리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요기 집인데 그 터알에 와서 집 짓고 여기 와서 사셔요.' 해도 우린 아들도 없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안 한다고만 해서 '우린 아들 없으니까 어떻게 안 한다며 어떻게 안 해.' 하면서 이젠 아니 왔다가 이젠 닥치니까 거기 가서 밥 먹고 하라고.)
102006 #3 그디 오란에 이젠, 그때 시월 보름날이난 이디 본향[41]이엔 헌 듸가 이수다. 본향. 그디덜 본향에 가시난 그 하르버지가 완 ᄀᆞᆯ아주난, 그 하르버지가 나완에 저, 집이 강 보민 밥도 막 헤 놧고 어디 막 반찬도 잇고 허난 그거 먹고, 고만히 이십서, 영 허난, 이젠 배고프고 허난 그디 완에, 부엌에 완에 그때 정지주 정지, 부엌이 아니라 정지렌 ᄀᆞᆯ아서양.(거기 와서 이젠, 그때 시월 보름날이니까 여기 '본향'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본향'. 거기들 '본향'에 가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와서 말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저, '집이 가서 보면 밥도 막 해 놓았고 어디 막 반찬도 있고 하니까 그거 먹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젠 배고프고 하니까 거기 와서, 부엌에 와서 그때 정지지 정지, 부엌이 아니라 정지라고 말했지요.)
102006 @ 예.(예.)
102006 #3 정지에 완에 밥이 시난 밥 먹고 이젠 그디 ᄀᆞ만히 아자시난에, 이제 ᄆᆞ슬 칸덜 완에양, 이제 완에 그디가 이젠 그디 살게 뒌 거라. 이제 ᄆᆞ수왕 오지도, 그날 가

40) '강왓듸'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3리에 있는 작은 동네이름이다.
41) '본향'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1847번지 상뒤동산에 있는 신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시리는 우리 집이, 가시리 전부 다 집도 불부쩌 불고 곡식 눌 다 부쩌불고 허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엇지 아니꽈.(부엌에 와서 밥이 있으니까 밥 먹고 이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마을갔다들 와서요, 이제 와서 거기가 이젠 거기 살게 된 거야. 이제 무서워서 오지도, 그날 '가시리'는 우리 집이, 가시리 전부 다 집도 불붙여 버리고 곡식가리 다 붙여 버리고 하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02006 @ 음.(음.)

102006 #3 경허난에 이제는 그 집에 살앗수궤게, 거기.(그러니 이제는 그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

102006 @ 경헹 이제 세화리 살기 시작헷구나예?(그렇게 해서 이제 '세화리' 살기 시작했군요?)

102006 #3 예, 예. 세화리 살기 시작헌 거.(예, 예. '세화리' 살기 시작한 거.)

102006 @ 예, 알앗습니다예.(예, 알았습니다.)

102002 @ 경허민 부모님은 어떤 일 허멍 살앗수과?(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 하면서 살았습니까?)

102002 #3 농사 헷수게.(농사 했지요.)

102002 @ 게, 어떤 농사마씸?(그래, 어떤 농사요?)

102002 #3 밧 갈곡게, 보리 갈곡, 조 갈곡 헹 먹엇주게.(밭 갈고, 보리 갈고, 조 갈고 해 먹었지.)

102002 @ 음.(음.)

102002 #3 그때는 감저도 놓곡게. 엿날에. 그때는 막 생활허는 게 에로왓수다.(그때는 고구마도 놓고. 옛날에. 그때는 막 생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102002 @ 음.(음.)

101002 #3 지금 닮지 아녕 곡식이 그때는 막 에로난 우린 게도 이녁 밧이 시난 양석에 부찌진 아년.(지금 같지 않아서 곡식이 그때는 막 어려우니까 우린 그래도 이녁 밭이 있으니까 양식에 부치지는 않아서.)

102002 @ 음.(음.)

102002 #3 이녁 식구도 엇이난 이녁 먹고 살아신디, 충분히 먹고 살아신디, 그때는 다 장만도 못허고 눌로 누렁 내빗주. 산듸, 조 막 누렁 내불어신디 다 불부쩌부난 장만 헷자 먹을 거 엇잖으꽈, 다 불부쩌부난.(이녁 식구도 없으니까 이녁 먹고 살았는데,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다 장만도 못하고 가리로 가려서 내버렸지. 밭벼, 조 마구 가려서 내버렸는데 다 불붙여버리니까 장만해도 먹을 거 없잖습니까, 다 불붙여버려서.)

102002 @ 그 다음엔 사삼이 끗나난 강 그 밧은 또 밧 갈앙 먹엇구나예?(그 다음엔 사삼이 끝나니까 가서 그 밭은 또 밭 갈아서 먹었군요?)

102002 #3 예, 농사는 허고, 사삼 끗나난 농사는 허고, 이젠 경헨에 이젠 세화리 오난에 흔 메칠 이시난.(예, 농사는 하고, 사삼 끝나니까 농사는 하고, 이젠 그렇게 해서 이젠 '세화리' 오니까 한 며칠 있으니까.)

102002 @ 이제 물어 보크라예? 다, 하나씩예? 경헹 세화에 오고예? 부모님들은 농사

지으멍 살앗고예?(이제 물어 볼게요? 다, 하나씩요? 그렇게 해서 '세화'에 오고요? 부모님들은 농사지으면서 살았고요?)

102002 #3 예게.(예.)

102003 @ 친정어머니 고향은 어디꽈?(친정어머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03 #3 토산[42].(토산.)

101003 @ 아, 토산이꽈?(아, 토산입니까?)

101003 #3 우리 친정어머닌 토산, 우리 큰어머니는 가마리.(우리 친정어머닌 토산, 우리 큰어머니는 가마리.)

102004 @ 게민 어릴 땐 어, 어떤 놀이허멍 지냇수과? 가시리서.(그러면 어릴 땐 어, 어떤 놀이하면서 지냈습니까? '가시리서'.)

102004 #3 가시리서게, 가시리는 구젱기딱쌀에 밥허멍 돌ᄀᆞ루 영영 긁어당 놔근엥에 그거 밥허멍 놀앗주게, 대막뎅이 영 혜영 풀, 새각시풀이영 헌 풀이 이서수다.(가시리서, 가시리는 소라딱지에 밥하면서 돌가루 이렇게이렇게 긁어다가 넣어서 그거 밥하면서 놀았지, 대막대기 이렇게 해서 풀, 새색시풀이라고 한 풀이 있었습니다.)

102004 @ 예.(예.)

102004 #3 그거 헤근에 영 새각시 멘들곡 막 그추룩 허멍.(그거 해서 이렇게 새색시 만들고 막 그처럼 하면서.)

102004 @ 예.(예.)

102004 #3 뭐 아이고, 경허멍 무신 놀이게 헐 겟가 그때는 두레[43]지고 지금ᄀᆞ찌 발달이 안 된 때난에.(뭐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놀이야 할 것이 그때는 '두레지고'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된 때니까.)

102004 @ 맞수다.(맞습니다.)

102004 #3 무시거게 경허멍 놀앗주게, 거 무시거게.(무슨 그러며 놀았지, 거 무슨.)

102004 @ 맞수다.(맞습니다.)

102005 @ 그다음에는 여기 세화리 오기 전에.(그다음에는 여기 '세화리' 오기 전에.)

102005 #3 어.(응.)

102005 @ 가시리에서 농사지을 때.('가시리'에서 농사지을 때.)

102005 #3 응.(응.)

102005 @ 혹시나 기억이 날지 모르쿠다마는 일본, 일제 때난.(혹시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일제강점기 때난.)

102005 #3 응.(응.)

102005 @ 일본군 순사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공출 같은 거 엇엇수과?(일본군 순사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공출 같은 거 없었습니까?)

102005 #3 공출 막 헷주게. 공출.(공출 막 했지. 공출.)

---

42) '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43) '두레'는 ①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 정상적인 행세를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② 바보스러운 짓을 잘하는 사람을 나삐 일컫는 말이다. 동의어로는 '두루훼, 두리웨, 두리훼'등으로 쓰인다. 여기서는 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02005 @ 공출헷던 거 한번 ᄀᆞᆯ아줘봅서.(공출했던 거 한번 말해주세요.)
102005 #3 공출, 그때 그 막 저, 쒜낭푼 ᄀᆞ튼 것도 막 아져가부러서.(공출, 그때 그 막 저, 놋 양푼 같은 것도 막 가져가버렸어.)
102005 @ 놋그릇예.(놋그릇이요.)
102005 #3 놋그륵 ᄀᆞ튼 것도 아서가불곡, 순경이 막 뎅기멍 뭐 저 영 이신 거 시민, 그때 너무 두린 때라도 영 보난, 콩 영 널어시난에 콩을 볶아도렌 허난에 콩도 보까주어낫수다. 그때.(놋그릇 같은 것도 가져가버리고, 순사가 막 다니면서 뭐 저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그때 너무 어린 때라도 이렇게 보니까, 콩 이렇게 널었으니까 콩을 볶아 달라고 하니까 콩도 주었었습니다. 그때.)
102005 @ 음.(음.)
102005 #3 경허멍 헷주. 우린 두린 때난 잘 몰라도 순경덜토 그 웨정 일본순경덜토 와낫수다. 읖이 칼 탁 차곡 순경들 와낫주게.(그러면서 했지. 우린 어린 때니까 잘 몰라도 순사들도 그 왜정 일본순사들도 왔었습니다. 옆에 칼 탁 차고 순사들 왔었지.)
102005 @ 콩 보까내렌마씸?(콩 볶아내라고요?)
102005 #3 그때 콩 보까주멍 헤서. 지네 먹젠허난 보까ᄃᆞ렌 ᄒᆞ난.(그때 콩 볶아주면서 했어. 자기네 먹으려니까 볶아달라고 하니까.)
102005 @ 겐, 기억남수과?(그래, 기억납니까?)
102005 #3 예. 거 알아져.(예, 그거 알아지지.)
102005 @ 예.(예.)
102005 # 어ᄃᆞᆸ 설 때 닮아. 겨민 그때는 비형기가, 요자게도 ᄀᆞᆫ드시양, 비형기가 오라근에 영 ᄂᆞ치 떠근엥에 자우락 자우락[44] 허당 기자 삐라 짝 뿌려동 가불어.(여덟 살 때 같아. 그러면 그때는 비행기가, 요사이의 어느 때에 말하듯이,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낮게 떠서 '자우락 자우락' 하다가 그저 삐라 짝 뿌려놓고는 가버려.)
102005 @ 음.(음.)
102005 #3 경허난양 비형기만 와 가민 담 옘에 강 탁 엎더지렌 헙디다. 우리신더레 엎더저불렌, 영 사름 보민 마처부니까.(그러니까요 비행기만 와 가면 돌담 옆에 가서 탁 엎더지라고 합디다. 우리보고 엎더져버리라고, 이렇게 사람 보면 쏘아버리니까.)
102005 @ 음.(음.)
102005 #3 그 저, 비형기가 저만찌 와 가민 낭 알르레라도, 저 담옘드레 엎더저불렌 탁 엎더저불렌 경 ᄀᆞᆯ앗주게.(그 저, 비행기가 저만치 와 가면 나무 알로라도, 저 돌담 옆으로 엎더져버리라고 탁 엎더져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지.)
102005 @ 음(음.)
102005 #3 경ᄒᆞ민.(그렇게 하면.)
102005 @ 그래서 이제는 세화리, 막 그렇게 가시리에서 도망청 나와근에 세화리에서 살앗잖아예?(그래서 이제는 '세화리', 막 그렇게 '가시리'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세화리'에서 살았잖아요?)

44) '자우락 자우락'은 비행기가 실그러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102005 #3 예.(예.)
102006 @ 그때 세화리에 살면서 사삼에 의해서 일어낫던 일들 잇잖아예?(그때 '세화리'에 살면서 사삼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102006 #3 예게.(예.)
102006 @ 그걸 한 번 골아줘봅서. 가시리는 불태와버렷고.(그걸 한 번 말해주세요. 가시리는 불태워버렸고.)
102006 #3 불태와불고.(불태워버렸고.)
102006 @ 예.(예.)
102006 #3 불태와부난 거기 소탕부락이 뒛지. 사람이 아무도 엇언.(불태워버리니까 거기 소탕부락이 됐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102006 @ 예.(예.)
102006 #3 사람이 하낫토 어섯지, 가시리는 이제는 그 너른 부락에, 가시리가 막 너른 부락인디, 이디 저디 너른 부락이라도 사람이 하낫토 엇엇어 그때 당시엔.(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가시리는 이제는 그 너른 부락에, 가시리가 막 너른 부락인데, 여기 저기 너른 부락이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당시엔.)
102006 @ 음.(음.)
102006 #3 하낫토 엇이난 그때는 표선에 내려가렌 헷어. 우리.(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표선에 내려가라고 했어. 우리.)
102006 @ 예.(예.)
102006 #3 표선이 국미학교엘 가서.(표선이 초등학교엘 갔어.)
102006 @ 예.(예.)
102006 #3 경허난 가시리 사람덜 전부 표선이 국민학교렐 갓수게.(그러니까 '가시리' 사람들 전부 표선의 초등학교엘 갔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3 그듸 간 일주일을 산거라.(그곳 가서 일주일을 산거야.)
102006 @ 그때도 학교를 국민학교렌 골앗수과?(그때도 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말했습니까?)
102006 #3 그때도 응, 국민학교.(그때도 응, 국민학교.)
102006 @ 음.(음.)
102006 #3 이젠 초등이주만 그땐 국민학교.(이젠 초등학교지만 그땐 국민학교.)
102006 @ 음.(음.)
101006 #3 국민학교 이젠 그디 살안에 이젠 저 겨난 그기서 막, 밧듸 감저가 이서도 감절 파다 먹을 수가 엇주게.(국민학교 이젠 거기 살아서 이젠 저 그러니 거기서 막, 밭에 고구마가 있어도 고구마를 파다 먹을 수가 없지.)
102006 @ 맞아예.(맞아요.)
102006 #3 무서완 순경들 무서완 가지도 못허고 허민 막 거 어떵어떵 허멍 일주일 살안에. 이제 그때는 우리는 저 듯날, 일주일 찬 듯날은 그 가족이 없는 사름, 혼 사름

이라도 가족이 없는 사름은 다 죽여 부려서.(무서워 순경들 무서워 가지도 못하고 하면 막 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일주일 살았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저 뒷날, 일주일 찬 뒷날은 그 가족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여 버렸어.)

102006 @ 예.(예.)

102006 #3 그 폭도다 헨에. 가족이 없는 사름은 폭도다 헹 다 죽여 불고, 영영 골련에 호명헤근에, 경헤신디 우리는 우리 삼춘이 아시날치냑 ᄃᆞ랑 나와부런.(그 폭도다 해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폭도다 해서 다 죽여 버리고, 이렇게이렇게 골라서 호명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삼촌이 전날저녁 데려서 나와 버렸어.)

102006 @ 예.(예.)

102006 #3 그땐 저 우린 아무도 줴 엇이난 그 아들도 엇고 뚤만 성제난에.(그땐 저 우린 아무도 죄 없으니까 그 아들도 없고 딸만 자매니까.)

102006 @ 예.(예.)

102006 #3 ᄃᆞᆯ아와신디, 그때는 가족이 ᄒᆞ나라도 아들이라도 ᄒᆞ나 떨어진 사름은 다 죽여 부럿수궤.(데려왔는데, 그때는 가족이 하나라도 아들이라도 하나 떨어진 사람은 다 죽여 버렸잖아요.)

102006 @ 예.(예.)

102006 #3 그때 그 학교에서.(그때 그 학교에서.)

102006 @ 어휴, 진짜로.(어휴, 진짜로.)

102006 #3 예. 놋곶ᄆᆞ루[45]왕 다 죽여 부러서. 표선이 영 올라오민 그 소방서 ᄒᆞ썰 우트레 올라왕.(예. '놋곶ᄆᆞ루'왕 다 죽여 버렸어. 표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소방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102006 @ 음.(음.)

102006 #3 지금 소방서 쪼꼼 올라완 거기서 다 죽여 부럿주. 경, 하이구! 그추룩 헨에게 나사민 그 가시리 우리 아부지가 그 ᄒᆞ끔 아는 어른은 저 메누리가 이디 세화리 사난에 그 이녁 씨어멍도 촞아오지 못허난, 우리아부지가 촞아줍센 허민, 가근에 그 죽은 사름 이사름 뒈싸 놕 저사름 뒈싸 놕 허멍, 그 할망을 촞자오곡 헷수다게. 경허멍, 무서운 거 무시거 알앗수과? 겁나고 허난 무서운 것도 몰랏일 거우다. 게난.(지금 소방서 조금 올라와 거기서 다 죽여 버렸지. 그렇게, 하이고! 그처럼 해서 나서면 그 '가시리' 우리 아버지가 그 조금 아는 어른은 저 며느리가 여기 '세화리' 사니까 그 이녁 시어머니도 찾아오지 못하니까, 우리아버지에게 찾아주세요 하면, 가서 그 죽은 사람 이사람 뒤집어 놓고 저사람 뒤집어 놓고 하며, 그 할머니를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거 무엇 알았겠습니까? 겁나고 하니까 무서운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102006 @ 음.(음.)

102006 # 경허멍 사름 죽은 거 손으로 막 이레 뒛삭 저레 뒛삭허멍 촞구렌 허주게 우리아부지가 그때. 경헨에게 세화리 게난, ᄒᆞ쏠 꺼져가난에 멧 해 후제는 가시리터레 올

45) '놋곶ᄆᆞ루'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던 옛 '소릿질'이었던 관정로 13번지 일대를 말한다. 4·3 때 학살 터이다.

라가렌 헷수다게. 그 이녁 집을 밧 춪앙 강 빚지성 살렌 헤도 우린 식구도 엇고, 나가 그때 이디 국민학교에 부떠부난.(그러면서 사람 죽은 거 손으로 막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하면서 찾았다고 하지 우리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해서 '세화리' 그러니까, 조금 꺼져가니까 몇 해 후에는 '가시리'쪽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녁 집을 밭 찾아 가서 빚져서 살라고 해도 우린 식구도 없고, 내가 그때 여기 초등학교에 붙어버려서.)

102006 @ 예.(예.)

102006 #3 다옵서 가지말겐, 가지말겐헨에 아니 간 이디 살기 시작헨. 세화리 열 솔에 ᄂᆞ려완에 기자.(모두 가지말자고, 가지말자고해서 안 가서 여기 살기 시작했어. '세화리' 열 살에 내려와서 그저.)

102006 @ 그 사삼 때 그 아버지가 그 저기 가시리 어른들 죽은 거 이렇게 시체를 골르고 잇던 거.(그 사삼 때 그 아버지가 그 저기 가시리 어른들 죽은 거 이렇게 시체를 고르고 있던 거.)

102006 #3 음.(음.)

102006 @ 직접적으로 시체를 보거나 그런 건 엇언마씨?(직접적으로 시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102006 #3 아부지가?(아버지가?)

102006 @ 아니, 삼춘이.(아니, 삼촌이.)

102006 #3 나?(내가?)

102006 @ 예.(예.)

102006 #3 난 두려 부난 안 봣지. 그거는.(난 어려 버려서 안 봤지. 그거는.)

102006 @ 음, 안 보여줫구나예.(음, 안 보여줬군요.)

102006 #3 음, 두려 부난 아니 봔. 안 봐신디.(음, 어려 버려서 안 봤지. 안 봤는데.)

102006 @ 예.(예.)

102006 #3 그 우리 후제 막 우린 두린 땐디 우리 ᄉᆞ춘을 ᄃᆞ라아전에.(그 우리 훗날 막 우린 어린 땐데 우리 사촌을 데려가지고.)

102006 @ 음.(음.)

102006 #3 그 대축 비어 먹으레 가낫수다. 그때 사당대축이엔 막 우연네 심경 엿날엔, 지금은 그런 대축 엇엇도.(그 수수 베어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사탕수수라고 막 텃밭에 심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수수 없어도.)

102006 @ 음.(음.)

102006 #3 깡낭대축 말고 사당대축, 막 이제 큰 것가 갈아나서예.(옥수수 말고 사탕수수, 막 이제 큰 것을 갈았었어요.)

102006 @ 예.(예.)

102006 #3 거 영 물 뿔아 먹어난 ᄃᆞᆯ코랑허게. 그거 비어 먹고 저밤도 저밤 알아지카? 저밤?(그거 이렇게 물 빨아 먹었던 달콤하게. 그거 베어 먹고 구실잣밤나무 열매도 구실잣밤나무 열매 알까? 구실잣밤나무 열매?)

102006 @ 예.(예.)

102006 #3 젠젠헌 거, 저밤 줏어먹으레 가겐허멍 우리 ᄉᆞ춘 ᄃᆞ라아전에, 요번에 죽어부러신디, 나보다 ᄒᆞᆫ 나 우읜듸, ᄉᆞ춘 ᄃᆞ라아전에 간에 영영 밧 옘에 거 줏는디 영 알력담엔디 베리난 그게 사름 죽은 거 닮아, 이제 생각헤보민.(자잘한 거, 구실잣밤나무 열매 주어먹으러 가자하면서 우리 사촌 데려가지고, 요번에 죽어버렸는데,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사촌 데려가지고 가서 이렇게이렇게 밭 옆에 그거 줍는데 이렇게 아래쪽 돌담인데 보니까 그게 사람 죽은 거 같아, 이제 생각해보면.)

102006 @ 음.(음.)

102006 #3 수랑허게 담 옘에 거먼 이불껍데기를 탁 더끈 것가 이서서. 게도 그땐 두려부난 사름 죽은 건지 몰라. 열 술이라부난.(기름하게 돌담 옆에 검은 이불껍데기를 탁 덮은 것이 있었어. 그래도 그땐 어려서 사람 죽은 건지 몰랐어. 열 살이어서.)

102006 @ 경헤도 겁나지 안헹.(그래도 겁나지 않아서.)

102006 #3 겁난 걸 몰라. 사름 죽은 줄 몰라부난.(겁난 걸 몰라. 사람 죽은 줄 몰라버려서.)

102006 @ 저밤 주수레가고예?(구실잣밤나무 열매 주우러가고요?)

102006 #3 응, 저밤 주수레 가고, 그걸 몰라, 그거를 사름 죽어신가 그걸 아나, 이제는 생각허민 아, 그게 사름 죽은 거 영 담 옘에 내벼낫구나, 그 생각이 나점주.(응, 구실잣밤나무 열매 주우러가고, 그걸 몰라, 그거를 사람 죽었는가 그걸 아나, 이제는 생각하면 아, 그게 사람 죽은 거 이렇게 돌담 옆에 내버려났구나 그 생각이 나지.)

102006 @ 음.(음.)

102006 #3 몰라, 아예 당췌, 경헨 기자 세화리 삶시작 허난 이때ᄁᆞ장 산 거 아니꽈게.(몰라, 아예 당최, 그렇게 해서 그저 '세화리' 살기시작 하니까 이때까지 산 거 아니닙니까.)

102006 @ 산 거지예?(산 거지요?)

102006 #3 예.(예.)

102007 @ 어, 중매결혼 헷수과? 연애결혼 헷수과?(어,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했습니까?)

102007 #3 아이고, 중매결혼 헷주, 중매결혼.(아이고, 중매결혼 했지, 중매결혼.)

102007 @ 예, 중매결혼 헷겟다예.(예, 중매결혼 했겠네요.)

102007 #3 예.(예.)

102008 @ 겐, 사주는 봣수과?(그래서, 사주는 봤습니까?)

102008 #3 사주 봣주. 그때.(사주 봤지. 그때.)

102008 @ 사준 게난 뭐렌 좋덴 헙디가?(사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좋다고 합디까?)

102008 #3 무신게사 헤신디 그때.(뭐라고 했는지 그때.)

102008 @ 안 ᄀᆞᆯ아줍디가?(안 말해주었습니까?)

102008 #3 응. 그 저 좋덴만 허멍 허여난.(응. 그 저 좋다고만 하면서 했었어.)

102008 @ 맞수다. 그때예, 아 맞아, 결혼은 멧 살에 헷수과?(맞습니다다. 그때요, 아참, 결혼은 몇 살에 했습니까?)

102008 #3 쑤무 술에.(스무 살에.)
102008 @ 쑤무 술에.(스무 살에.)
102008 #3 쑤무 술에 헤연. 쑤무 술에 우린 씨어멍 어신 듸 오란 난 막 고셍헤연.(스무 살에 해서. 스무 살에 우린 시어머니 없는 데 와서 난 막 고생했어.)
102008 @ 남자어른은 몇 살 때?(남자어른은 몇 살 때?)
102008 #3 동갑이라낫주.(동갑이었지.)
102008 @ 아, 기꽈?(아, 그래요?)
102008 #3 예.(예.)
102008 @ 남자어른은 언제 돌아가셧수과?(남자어른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2008 #3 하이고, 나 서른넷에 죽으난에 언제 돌아간지 알아지쿠과?(하이고, 내가 서른넷에 죽으니까 언제 돌아갔는지 알겠습니까?)
102008 @ 무사 그추룩 빨리 돌아가션마씨?(왜 그처럼 빨리 돌아가셨나요?)
102008 #3 몰라. 경헨에 서른넷에 죽어부럿주게. 겨난 그때 다슷 오누이 ᄃᆞ란 나 이때ᄁᆡ장 산거주게. 애기들 아들 넷에 똘 ᄒᆞ나 ᄃᆞ란에.(몰라. 그렇게 해서 서른넷에 죽어버렸지. 그러니 그때 다섯 오누이 데려서 나 이때까지 산거지. 애기들 아들 넷에 딸 하나 데려서.)
102008 @ 하이고, 잘도 잘도 고셍헤시키여예?(하이고, 잘도 잘도 고생했겠네요?)
102008 #3 고셍은 죽기 강 ᄀᆞᆯ앙, 말로는 ᄀᆞᆯ앙 못헐 정도로 고셍헷주게 그때.(고생은 죽기 가서 말해, 말로는 말 못할 정도로 고생했지 그때.)
102008 @ 예.(예.)
102008 #3 젤 뭐가 고셍하민 일 못헌 거 고셍헤연. 밧 갈지 못헤연. 농서허젠 허민 헤이고.(젤 뭐가 고생이냐면 일 못한 거 고생했지. 밭 갈지 못해서. 농사하려고 하면 헤이고.)
102012 @ 그믄 어, 큰아이가 아들이엇수과, 딸이엇수과?(그러면 어, 큰아이가 아들이었습니까, 딸이었습니까?)
102012 #3 아들, 아들.(아들, 아들.)
102012 @ 그믄 서른넷 헤봐야 열네 살벳긔 안 뒈시키여.(그러면 서른넷 해봐야 열네 살밖에 안 됐겠네요.)
102012 #3 열네 술에.(열네 살에.)
102012 @ 으음, 열네 살에.(으음, 열네 살에.)
102012 #3 열네 술, 열두 술, 아홉 술, 똘이 ᄋᆞ슷 술.(열네 살, 열두 살, 아홉 살, 딸이 여섯 살.)
102012 @ 음.(음.)
102012 #3 막내가 첫돌 넘은 두 돌전의 세 술, 경헷주게.(막내가 첫돌 넘은 두 돌전의 세 살, 그랬지.)
102012 @ 음, 경헷구나게.(음, 그랬구나.)
102012 #3 예.(예.)

102012 @ 게도 다덜 잘 컷수다예?(그래도 다들 잘 컸군요?)
102012 #3 에이고 게메, 아이덜이 막 착헤주언.(아이고, 그러게, 아이들이 막 착해주어서.)
102012 @ 네.(네.)
102012 #3 저 ᄒᆞᆨ교에 페선이, 중고등학교 페선[46]이서 헷인디.(저 학교에 표선, 중고등학교 표선에서 했는데.)
102012 @ 예.(예.)
102012 #3 그자 재기 일, ᄒᆞᆨ교 풀민 재기 ᄃᆞᆯ으멍, ᄃᆞᆯ으멍 우리 밧드레 오렌허민, 유채가 ᄒᆞᆯ 때가 제일 에로왕 그때가양.(그저 빨리 일, 학교 풀면 빨리 달리며, 달리며 우리 밭으로 오라고하면, 유채가 할 때가 제일 어려워 그때가요.)
102012 @ 음.(음.)
102012 #3 유채가 ᄒᆞ민 막 케어불곡 ᄒᆞ민, ᄃᆞᆯ으멍 오렌ᄒᆞ민 ᄃᆞᆯ으멍 오곡게, 어떤 때 토요일 날은 ᄒᆞᆨ교도 아니 보내곡게.(유채를 갈면 막 패어버리고 하면, 달려서 오라고하면 달려서 오고, 어떤 때 토요일 날은 학교도 아니 보내고.)
102012 @ 음.(음.)
102012 #3 경허멍 살아숫게. 아이고.(그러면서 살았지요. 아이고.)
102012 @ 음.(음.)
102012 #3 경허멍 쩌.(그러면서 쯧.)
102009 @ 그, 결혼식은?(그, 결혼식은?)
102009 #3 음.(음.)
102009 @ 아, 아니 아니. 혼수품은 뭘 가져왓수과?(아, 아니 아니. 혼수품은 뭘 가져왔습니까?)
102009 #3 그때 혼수품 하간 거 헤서?(그때 혼수품 여러 가지 것 했어?)
102009 @ 게도 이불이라도.(그래도 이불이라도.)
102009 #3 이불헹 왓주게.(이불해서 왔지.)
102009 @ 이불 멧 채마씸?(이불 몇 채요?)
102009 #3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02009 @ 두 채 헷수과?(두 채 했습니까?)
102009 #3 음. 두 채 헌 거 닮아. 두 채 헨 오란.(음. 두 채 한 거 같아. 두 채 해왔어.)
102009 @ 두 채 헨 오난 그 남자 어른 네 집에서는 뭐 헤줍디가?(두 채 해서 오니까 그 남자 어른 네 집에서는 뭐 해줍디까?)
102009 #3 그때 옷 ᄒᆞᆫ 불.(그때 옷 한 벌.)
102009 @ 옷 ᄒᆞᆫ 불, 한복 ᄒᆞᆫ 불.(옷 한 벌. 한복 한 벌.)
102009 #3 한복 ᄒᆞᆫ 불. 거벳긔 엇엇난. 그때 엿날엔. 아뭇거도 엇엇난.(한복 한 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때 옛날엔. 아무것도 없었어.)

46) '페선'은 '표선'을 말하는데 서귀포시 표선면 면소재지를 말한다.

102009 @ 음. 한복 흔 불. 경헷구나예?(음. 한복 한 벌. 그랬군요?)
102009 #3 예.(예.)
102009 게, 헤 준 한복 입어근에 식 올린것과?(그래, 해 준 한복 입어서 식 올린린건가요?)
102009 #3 아니주, 식 올릴 땐 집에서 입엉 온 옷이라낫주.(아니지, 식 올릴 땐 집에서 입어 온 옷이었었지.)
102009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02009 #3 그때는 유동치메 양단저구리.(그때는 유동치마 양단저고리.)
102009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2010 @ 게, 결혼식은 식은 어디서 올렷수과?(그래, 결혼식은 식은 어디서 올렷렸습니까?)
102010 #3 아이고, 그때 식, 마당에서.(아이고, 그때 식, 마당에서.)
102010 @ 시집 마당에서마씨?(시집 마당에서요?)
102010 #3 응, 마당.(응, 마당.)
102010 @ 음.(음.)
102010 #3 마당에서 영 헨 사진만 쳣주.(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사진만 찍었지.)
102010 @ 아, 사진 찍엇수과?(아, 사진 찍었습니까?)
102010 #3 사진은 쳣주.(사진은 찍었지.)
102010 @ 사진 이수과?(사진 있습니까?)
102010 #3 우리 아이덜 아져가부런 엇인 거 닮은디, 이디 신가?(우리 아이들 가져가버려서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있는가?)
102010 @ 사진, 만일에라도 사진 이시민 흔 번만 찍게예?(사진, 만일에라도 사진 있으면 한 번만 찍게요?)
102010 #3 이디 이시카?(여기 있을까?)
102010 @ ᄒᆞ꼼 봅서, 이수과.(조금 보세요, 있는지.)
102010 #3 아이덜 아저가부런, 족은아덜이 다 줏어가부난에.(아이들 가져가버려서, 작은아들이 다 주워가버려서.)
102010 @ 여기 아까 여기 앞집이 족은 아덜이꽈?(여기 아까 여기 앞집이 작은 아들입니까?)
102010 #3 아니, 가시리 사는 아덜이 족은아덜. 이거 말젓 세 번짜.(아니, '가시리' 사는 아들이 작은아들. 이거 셋째 세 번째.)
102010 @ 아, 세 번짜.(아, 세 번째.)
102010 #3 엇인 것 딺아, 이디, 아져가분 것.(없는 것 같아, 여긴, 가져가버린 것.)
102010 @ 나중에 춪이고예. 나중에 춪이고예.(나중에 찾고요? 나중에 찾고요.)
102010 #3 어, 어어.(어, 어어.)
102010 @ 그 차이가 이수다예. 경헤도예? 어, 쑤무 살이난 지금 어, 아, 잠깐만, 아까 교장선생님 네는 쑤물흔 살에 결혼 헤신디, 그땐 사진 안 찍엇덴 헙디다.(차이가 있네

요. 그래도요? 어, 스무 살이니까 지금 어, 아, 잠깐만, 아까 교장선생님 네는 스물한 살에 결혼 했는데, 그땐 사진 안 찍었다고 합디다.)
102010 #3 사진 안 찍엇덴?(사진 안 찍었다고?)
102010 @ 예. 게난 그때.(예, 그러니 그때.)
102010 #3 사진은 찍언, 요 마당에서.(사진은 찍었어, 요 마당에서.)
102010 @ 게난, 몇 년 차이냐 허면예? 열, 십사 년 차이난 하이고, 차이도 크다예.(그러니, 몇 년 차이냐 하면요? 열, 십사 년 차이니까 하이고, 차이도 크네요.)
102010 #3 어디? 그 그 저 하르방네?(어디? 그 그 저 할아버지네?)
102010 @ 아니우다. 오 년 차이.(아닙니다. 오 년 차이.)
102010 #3 네 설, 다슷 설 차이.(네 살 다섯 살 차이.)
102010 @ 오 년 차이 맞아.(오 년 차이 맞아.)
102011 @ 그믄 신혼살림도 씨집에서 헷수과?(그러면 신혼살림도 시집에서 했습니까?)
102011 #3 씨집에서 그자.(시집에서 그저.)
102011 @ 씨어머니 엇언 씨아버지만 살아이섯수과?(시어머니 없어서 시아버지만 살아있었습니까?)
102011 #3 씨아버지만 데련 모션 십일 년 살안.(시아버지만 데려 모셔서 십일 년 살았어.)
102011 @ 아이고,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2011 #3 밥도 두불 밥헹 멕이고, 보리쏠.(밥도 두벌 밥해서 먹이고, 보리쌀.)
102011 @ 큰아덜안티 시집갓수과?(큰아들한테 시집갔습니까?)
102011 #3 아덜 ᄒᆞ나.(하들 하나.)
102011 @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102011 #3 음.(음.)
102011 @ 아, 아덜 ᄒᆞ나만 낳안.(아, 아들 하나만 낳아서.)
102011 #3 아니, 일찍 그, 큰씨아지방이 이서낫인디 죽어부런.(아니, 일찍 그, 큰 시아주버니가 있었는데 죽어버려서.)
102011 @ 아. 죽어부런.(아, 죽어버려서.)
102011 #3 음, 죽어부런.(음, 죽어버려서.)
102011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11 #3 씨어멍도 일찍 죽어불고.(시어머니도 일찍 죽어버리고.)
102014 @ 아까 삼춘네 아이덜 다섯 오누이 낳덴 헷지예? 아들 셋?(아까 삼촌네 아이들 다섯 오누이 낳았다고 했지요? 아들 셋?)
102014 #3 네 개. 뚤 ᄒᆞ나.(네 사람. 딸 하나.)
102014 @ 아, 그 뚤 ᄒᆞ나가 식당 헌덴 헷수과?(아, 그 딸 하나가 식당 한다고 했습니까?)
102014 #3 어, 어.(어, 어.)

102014 @ 식당 어디서 헴수과?(식당 어디서 합니까?)
102014 #3 하이고, 그거 ᄀᆞ만시라, 무시거엔 ᄀᆞᆫ는디. 아, 저 엇 거 법원 영 ᄒᆞᄉᆞᆯ, 이디서 우리 ᄀᆞ트민 우트레라.(하이고, 그거 가만있어라, 뭐라고 말하는데. 아, 저 엇 거 법원 이렇게 조금, 여기서 우리 같으면 위쪽으로야.)
102014 @ 제주시마씸?(제주시에요?)
102014 #3 제주시에.(제주시에.)
102014 @ 법원동네에.(법원동네에.)
102014 #3 법원 영 올랑, 이도아파트 삼단지 입구로 영 서르레 간딘 듸.(법원 이렇게 올라서, 이도아파트 삼단지 입구로 이렇게 서쪽으로 간덴 데.)
102014 @ 아, 이도동에서 헴구나예? 기구나예?(아, 이도동에서 하는군요? 그렇군요?)
102014 #3 어.(어.)
102013 @ 그 씨집살이,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 혼자 계신 씨집살이 하면서 혹시 막 힘들엇던 기억 어떤 거 이섯수과?(그 시집살이,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 혼자 계신 시집살이 하면서 혹시 막 힘들었던 기억 어떤 거 있었습니까?)
102013 #3 제서 때가 제일 힘들언.(제사 때가 제일 힘들었어.)
102013 @ 제사 멧 번헷수과?(제사 몇 번했습니까?)
102013 #3 ᄀᆞ레 ᄀᆞᆯ지 못헤연. 그 때 제사 일굽 번헤신가?(맷돌 갈지 못해서. 그 때 제사 일곱 번했는가?)
102013 @ ᄀᆞ레사 남자언른안티 허렌 허민 뒈주.(맷돌이야 남자어른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요.)
102013 #3 아이구, 영 영 정ᄀᆞ레로 ᄀᆞᆯ앙 묵ᄀᆞ슴도 ᄀᆞᆯ앗주 그때.(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풀맷돌로 갈아 묵 감도 갈았지 그때.)
102013 @ ᄀᆞᆯ렌 헐 거 아니꽈게. 하긴 옛날에 안 헤서예?(갈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긴 옛날에 안 했지요?)
102013 #3 아이고, 아니 경헨. ᄀᆞ레, 난 힘이 엇어 아무 때도.(아이고, 아니 그랬어. 맷돌, 난 힘이 없어 아무 때도.)
102013 @ 음.(음.)
102013 #3 힘이 엇이민 저 못 ᄀᆞᆯ켄 ᄒᆞ민 ᄀᆞᆯ아주긴 헤서. 저레 가불렌 ᄒᆞ멍 헤동 경헨.(힘이 없으면 저 못 갈겠다고 하면 갈아주기는 했어. 저리 가버리라고 하면서 해놓고 그랬어.)
102013 @ 경헷수과? (그랬습니까?)
102013 #3 거 허벅 버청 물도 못 질어낫젠ᄒᆞ난. 나 막 힘이 엇어.(거 허벅 힘에 부쳐 물도 못 길어났다니까. 내가 막 힘이 없어서.)
102013 @ 힘이 엇어.(힘이 없어.)
102013 #3 아니, 일을 아녀나 부난 두린 때도.(아니, 일을 안 해버려서 어린 때도.)
102013 @ 맞수다게예?(맞습니다.)
102013 #3 그 저 우리 형제뿐이난, 난 막내로 헹글락 헤민, 열흔 술 난 국민학교 부

뜨난 멧 술 난 졸입마튼, 열읏슷에.(그 저 우리 자매뿐이니까, 난 막내로 아주 작으면, 열한 살 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몇 살 난 졸업한, 열여섯에.)
102013 @ 열넷에 졸업헐 거.(열넷에 졸업할 거.)
102013 #3 아니주뭐. 열흔 술에 부떠부난.(아니지. 열한 살에 붙어버려서.)
102013 @ 아.(아.)
102013 #3 이디 오란 부떳덴 ᄒᆞ니까.(여기 와서 붙었다고 하니까.)
102013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13 #3 경 ᄒᆞ난에 또, 뎅기단에 또 독새기 장시허레 뎅겨불고.(그렇게 하니까 또, 다니다가 또 계란 장사하러 다녀버리고.)
102013 @ 아, 것도 헤낫수과?(아, 그것도 했었습니까?)
102013 #3 시에 강 풀곡 허멍게.(제주시에 가서 팔고 하면서.)
102013 @ 독새긴 닭 키워근에?(계란은 닭 키워서요?)
102013 #3 독, 뎅기멍 사당.(닭, 다니며 사다가.)
102013 @ 사당?(사다가?)
102013 #3 어.(어.)
102013 @ 아이고, 잘도 잘도 용감헤수다예?(아이고, 잘도 잘도 용감했네요?)
102013 #3 그 사당은에, 올 땐 궤기 사왕 풀곡.(그 사다가, 올 땐 고기 사와서 팔고.)
102013 @ 아이고, 경헷수과?(아이고, 그랬습니까?)
102013 #3 각제기 그거 ᄀᆞ튼 거 경헷주게.(전갱이 그거 같은 거 그랬지.)
102013 @ 아, 경허멍.(아, 그러면서.)
102013 #3 경허멍 살앗주게.
102013 @ 음.(음.)
102013 #3 경허멍.(그러면서.)
102013 @ 시집강 결혼헹 이후에도 경헷수과?(시집가서 결혼해서 이후에도 그랬습니까?)
102013 #3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13 @ 결혼헤근엔 농사만 짓고.(결혼해서는 농사만 짓고.)
102013 #3 음, 전혀.(음, 전혀.)
102013 @ 아이고, 혼자 어떵헹 잘헷수다예.(아이고, 혼자 어떻게 잘했에요.)
102014 @ 그 다음엔 지금, 다섯 오누이 다 시집장가 갓수과?(그 다음엔 지금, 다섯 오누이 다 시집장가 갔습니까?)
102014 #3 음, 다 간.(음, 다 갔어.)
102014 @ 시집 장가 다 간예.(시집 장가 다 간요.)
102015 @ 특별히 막 저 메누리덜.(특별히 막 저 메누리덜.)
102015 #3 메누리덜 막 착혜.(며느리들 매우 착해.)
102015 @ 다 착헤여마씸.(다 착하다고요.)
102015 #3 원, ᄒᆞᆫ 번 대답 ᄒᆞᆫ 번 아녀봔.(원, 한 번 대답 한 번 안 해봤어.)

102015 @ 아.(아.)
102015 #3 겨고, 형제간 중에도 흔 번도 ᄃᆞ타보지 아네연.(그리고, 형제간 중에도 한 번도 다퉈보지 않았어.)
102015 @ 메누리 넷이 다.(며느리 넷이 다.)
102015 #3 예. 막 착헤여.(예. 막 착해.)
102015 @ 아, 다행이다예.(아, 다행이네요.)
102015 #3 아이덜이 막 착헤주난 살앗주게.(아이들이 막 착해주니까 살았지.)
102015 @ 멩질 제사 때 다 옵니까?(명질 제사 때 다 옵니까?)
102015 #3 예, 다 와.(예, 다 와.)
102015 @ 다, 여기 제주도 살멘마씨?(다, 여기 제주도 사나요?)
102015 #3 응.(응.)
102015 @ 것도 ᄉᆞ망이이우다예.(것도 운이 좋네요.)
102015 #3 ᄉᆞ망이라. 진짜 다 제줏메누리 허고.(행운이라. 진짜 다 제주며느리 하고.)
102015 @ 어구야, 진짜.(에고야, 진짜.)
102015 #3 응.(응.)
102015 @ 진짜.(진짜.)
102015 #3 큰메누린 감산리[47].(큰며느린 '감산리'.)
102015 @ 음.(음.)
102015 #3 셋메누린 남원리[48], 말잣메누리 조천.(둘째며느린 남원리, 셋째며느린 조천.)
102015 @ 음.(음.)
102015 #3 족은메누린 페선[49]이.(작은며느린 표선.)
102015 @ 아이고야, 다행이우다예.(아이고아, 다행이네요.)
102015 #3 다 이딧메누리.(다 여기며느리.)
102015 @ 다 이 동네들, 그믄 다.(다 이 동네들, 그러면 다.)
102015 #3 큰아덜은 서귀포 살단.(큰아들은 서귀포 살다가.)
102015 @ 예.(예.)
102015 #3 밧이 여기라부난.(밭이 여기라버려서.)
102015 @ 예.(예.)
102015 #3 우리 하르버지 살단 듸 집터를 집이영 다 주어부럿주 큰아덜은.(우리 할아버지 살던 데 집터를 집이랑 다 주어버렸지 큰아들은.)
102015 @ 예.(예.)
102015 #3 줘불고 이거는 셋아덜, 요 집이 셋아덜이고 이거는 말젯아덜.(줘버리고 이거는 둘째아들, 요 집이 둘째아들이고 이거는 셋째아들.)
102015 @ 음.(음.)

47) '감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48) '남원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읍소재지를 말한다.
49) '페선'은 '표선'을 말하는데 서귀포시 표선면 면소재지를 말한다.

102015 #3 경허고 이디 족은아덜 찍세끄장 집터를 주엇인디 안 뒈부난 가인 다시 가시리 간 거라.(그리고 여기 작은아들 몫까지 집터를 주었는데 안 돼버려서 그 아인 다시 '가시리' 간 거야.)
102015 @ 음.(음.)
102015 #3 요, 역지동[50] 들어가는 듸.(요, 역지동 들어가는 데.)
102015 @ 음.(음.)
102015 #3 그듸 강 집 지성 살암주게.(거기 가서 집 지어 살지.)
102015 @ 으음. 아유 게도 다들.
102015 #3 예.(예.)
102015 @ 사위도 막 착험니까?(사위도 막 착합니까?)
102015 #3 사위도 막 착ᄒᆞ믄 ᄒᆞ고. 그자 막 착혀.(사위도 막 착하기는 하고. 그저 막 착해.)
102015 @ ᄀᆞ찌 식당헤마씸?(같이 식당해요?)
102015 #3 ᄒᆞᆫ디헤사 좋주.(같이해야 좋지.)
10201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15 #3 이 저 버청 못ᄒᆞ여. 아니 차 탄에, 택시 타도.(이 저 힘에 부쳐 못해. 아니 차타서, 택시 타도.)
102015 @ 음.(음.)
102015 #3 버청 잘 타지 못헴젠. 일도 도와 헤사주.(힘에 부쳐 당 타지 못하고 있대. 일도 도와서 해야지.)
102015 @ 음, 경헴구나예.(음, 그렇게 하고 있군요.)
102015 #3 그거 장서가 게 국수칩이고, 저 무신 순대국 ᄒᆞ곡 허는 듸난, 밤이 일 하영 헌덴. 막 열두 시ᄁᆞ장도 ᄒᆞ고.(그거 장사가 그래 국수집이고, 저 무슨 순댓국 하고 하는 데니까, 밤의 일 많이 한다고. 막 열두 시까지도 하고.)
101015 @ 열두 시ᄁᆞ지도.(열두 시까지도.)
102015 #3 예. 경헤불민 즘도 못자곡 도와 헤야주, 경헌덴.(예. 그래버리면 잠도 못자고 도와서 해야지, 그런대.)
102016 @ 기구나예. 그다음엔 그 세화에서 게민 몇 년 산거꽈?(그렇군요. 그다음엔 그 세화에서 그러면 몇 년 산겁니까?)
102016 #3 열 솔에 오난에게 거 게난 멧 헤 산 거라?(열 살에 오니까 거 그러니 몇 해 산 거야?)
102016 @ ᄒᆞᆫ 육십 년.(한 육십 년.)
102016 #3 육십 아홉 해.(육십 아홉 해.)
102016 @ 거의 ᄒᆞᆫ 칠십 년 살앗저예.(거의 한 칠십 년 살았네요.)
102016 #3 칠십년 산거지, 예.(칠십년 산거지, 예.)
102016 @ 칠십 년 살멍, 특별나게 세화에 살아보난 참 이런 게 좋아라, 하고 싶은 말

50) '역지동'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지역이름이다.

뭐이수과?(칠십 년 살면서, 특별나게 세화에 살아보니까 참 이런 게 좋아라, 하고 싶은 말 뭐있습니까?)
102016 #3 세화리 좋아라 궂어라가 어딧고.(세화리 좋다 궂다가 어디 있고.)
102016 @ 게도.(그래도.)
102016 #3 기자 동네 사름덜이 다 좋아. 이 세화릿 어른덜은.(그저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 이 세화리 어른들은.)
102016 @ 세화 어른들은?(세화 어른들은?)
102016 #3 그 촌이니까, 부촌이난.(그 촌이니까, 부촌이어서.)
102016 @ 음.(음.)
102016 #3 막 그 엿날엔 그 저 바당에 물질 다닛주 엿날엔.(막 그 옛날엔 그 저 바다에 물질 다녔지 옛날엔.)
102016 @ 예.(예.)
102016 #3 그때는 바당에덜 막 다년 이듸서. 가마릴[51] 걸엉 강 물질을 헤서. 메역허레.(그때는 바다에 마구 다녔어 여기서. 가마릴 걸어서 가서 물질을 했어. 미역 캐러.)
102016 @ 음.(음.)
102016 #3 메역 ᄒᆞ레 이듸서.(미역 캐러 여기서.)
102016 @ 메역허채 헐 때마씸?(미역허채 할 때요?)
102016 #3 허채ᄒᆞ곡, 허채 ᄒᆞᆫ 후제도 막 ᄒᆞ곡.(허채하고, 허채 한 후에도 마구 하고.)
102016 @ 후제도 허곡?(후에도 하고?)
102016 #3 후제도 ᄒᆞ곡, 걸엉 다녓주, 이듸서 그딜.(후에도 하고, 걸어서 다녔지, 여기서 거길.)
102016 @ 하이고.(하이고.)
102016 #3 걸엉 메역 ᄒᆞᆫ 짐 잔뜩 정 이제 걸엉 오곡.(걸어서 미역 한 짐 잔뜩 져서 이제 걸어서 오고.)
102016 @ 걸엉 오곡예?(걸어서 오고요?)
102016 #3 걸엉 와.(걸어서 와.)
102016 @ 메역만 헷수과? 막 전복이나 구젱기나 그런 건 안 헷수과?(미역만 했습니까? 막 전복이나 소라나 그런 건 안 했습니까?)
102016 #3 아이고, 그런 건 안 헨. 그때는.(아이고, 그런 건 안 했어. 그때는.)
102016 @ 메역만.(미역만.)
102016 #3 메역만, 메역만 헷주게.(미역만, 미역만 했지.)
102016 @ 음.(음.)
102016 #3 경ᄒᆞ민 동넷어른덜이 나가 저 막 물질도 잘 ᄒᆞ지도 못ᄒᆞ곡, 젤 밑에난 막 애껴줘근에 막 춤 도와양, 출려도 주곡, 재기 못 챙기민, 그때는 검질을 구덕에 담앙강 물에 들엉나민 불 추아사주게 추워부난.(그러면 동네어른들이 내가 저 매우 물질도 잘 하지도 못하고, 젤 밑이니까 매우 아껴줘서 막 참 도와줘요, 챙겨도 주고, 재우 못 챙기

51)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를 말한다.

면, 그때는 검불을 구덕에 담아가서 물에 들고나면 불 쬐어야지 추우니까.)
102016 @ 예.(예.)
102016 #3 그땐 물옷이 엇언.(그땐 잠수복이 없어서.)
102016 @ 예.(예.)
102016 #3 속곳 하나만 입엉.(속곳 하나만 입어서.)
102016 @ 예.(예.)
102016 #3 아무것도 안 입엉.(아무것도 안 입어서.)
102016 @ 물옷도 안 입엉예?(잠수복도 안 입어서요?)
102016 #3 ᄒᆞ나만 입엉 거 바당에 그자 강 들엉 엄 동안 메역 헹 나오곡 헷주.(하나만 입어서 그 바다에 그저 가서 들어서 추울 동안 미역 캐서 나오고 했지.)
102016 @ 맞수다.(맞습니다.)
102016 #3 경헤난. 경ᄒᆞ민 사름덜이 막 은심이 좋앙 이제도 그 어른들이 벗을 ᄒᆞ는디.(그랬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인심이 좋아서 이제도 그 어른들과 벗을 하는데.)
102016 @ 음.(음.)
102016 #3 갈 때는 '가게, 출리라. 바당에 가게, 가게.' 헹 다 못 출리민 기디렷당 ᄒᆞᆫ 듸갓주, 출리민 ᄒᆞᆫ듸 가.(갈 때는 '가자, 챙겨라. 바다에 가자, 가자.' 해서 다 못 챙기면 기다렸다가 같이 갔지, 챙기면 같이 갔어.)
102016 @ 음.(음.)
102016 #3 경헨 벗사, 그 벗들이 이제도 벗이주.(그래서 벗이야, 그 벗들이 이제도 벗이지.)
102016 @ 벗이 뒈영예?(벗이 돼서요?)
102016 #3 이제도 헴서. 그 벗들이.(이제도 하지. 그 벗들이.)
102016 @ 예, 알안예. 지금 그 삼춘에 제보자 생애, 일생은 여기까지 허고 정리 할게예.(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삼촌의 제보자 생애, 일생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 할게요.)
102016 #3 예.(예.)

2-2. 제보자 일생

102001 @ 삼춘, 가마리에서 태어난마씸?(삼촌, '가마리'에서 태어났어요?)
102001 #7 음.(음.)
102001 @ 옛날에도 가마리를 가마리렌 헷수과?(옛날에도 '가마리'를 '가마리'라고 했습니까?)
102001 #7 가마리? 응, 가마리엔 헷주.(가마리? 응 '가마리'라고 했지.)
102001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01 #7 그다음엔 서화리엔 ᄒᆞ고.(그다음엔 '세화리'라고 했고.)
102001 @ 서화리엔 허고예.('세화리'라고 하고요.)
102001 #7 서화리 상둥, 이건 하둥.('세화리' 상동, 이건 하동.)

102001 @ 하동.(하동.)
102002 @ 그때 삼춘네 부모님은 뭐헷수과? 어머니 아버지는.(그때 삼촌네 부모님은 뭐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102002 #7 어머니네도 물질ᄒᆞ고.(어머니도 물질하고.)
102002 @ 예.(예.)
102002 #7 이, 밧듸 농서지엉 먹고.(이, 밭에 농사지어서 먹고.)
102002 @ 예.(예.)
102002 #7 아버지도 바당에 강 고기 잡아오곡, 농서지엉 먹곡 경헷주게.(아버지도 바당에 강 고기 잡아오곡, 농서지엉 먹곡 경헷주게.)
102002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02 #7 그 당시엔.(그 당시엔.)
102003 @ 그때 삼춘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꽈?(그때 삼촌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입니까?)
102003 #7 어머니 고향은 저 풰선[52].(어머니 고향은 저 표선.)
102003 @ 표선.
102003 #7 음.(음.)
102003 @ 표선에서 이제 가마리 시집왓구나예?(표선에서 이제 '가마리' 시집왔군요?)
102003 #7 음.(음.)
102003 @ 아, 경헷구나게.(아, 그랬군요.)
102004 @ 혹시, 삼춘, 어릴 때, 그니까 일제시대 때, 그때 어떵 무시거 놀았던 거, 어떤 놀이헷던거 기억남수과?(혹시, 삼촌, 어릴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어떻게 무슨 놀았던 거, 어떤 놀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02004 #7 음.(음.)
102004 @ 일제시대 때 뭐허멍 놀앗수과? 놀 때.(일제강점기 때 뭐하면서 놀았습니까? 놀 때.)
102004 #7 어이구, 놀 생각, 열세 설 나난에 훈련만, 훈련만. 일분 나라에 우리가 이 조선은 부떠놓난.(어이구, 놀 생각, 열세 살 되니까 훈련만, 훈련만. 일본 나라에 우리가 이 조선은 붙어놓으니까.)
102004 @ 맞수다.(맞습니다.)
102004 #7 미국광 일분이 이젠 싸우난 우린 일분 국민이 뒈엇거든.(미국과 일본이 이젠 싸우니까 우린 일본 국민이 되었거든.)
102004 @ 예.(예.)
102004 #7 경허난 메날 훈련만 허렌허난 집인 일은 헤젓어?(그러니까 만날 훈련만 하라고 하니까 집의 일은 해졌어?)
102004 @ 음.(음.)
102004 #7 허지 못허난 나가 열여슷에부떠 육지 격지 나가나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52) '풰선'은 '표선'을 말하는데 서귀포시 표선면 면소재지를 말한다.

열여섯에부터 육지 객지 나갔었어.)
102004 @ 무시거 허레?(뭐 하러?)
102004 #7 물질허레.(물질하러.)
102004 @ 아.(아.)
102004 #7 가민, 훈련 버천.(가면, 훈련 부쳐.)
102004 @ 버천. 제주도엔, 이 가마리엔 막 훈련을 헷구나예?(부쳐서. 제주도엔, 이 '가마리'엔 막 훈련을 했군요?)
102004 #7 응.(응.)
102004 @ 아.(아.)
102004 #7 이디서만 헷어? 이디서 연십혜영.(여기서만 했어? 여기서 연습해서.)
102004 @ 예.(예.)
102004 #7 풰선국민헥교에.(표선초등학교에.)
102004 @ 예.(예.)
102004 #7 이 동네마다 다 아홉 동네.(이 동네마다 다 아홉 동네.)
102004 @ 예.(예.)
102004 #7 그디 강 훈련을 일주일에 흔 번썩을 그디 강 가젠허민 이디선 메날 아척 저믓 훈련, 집인 일을 못헤서.(거기 가서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을 거기 가서 가려고 하면 여기선 만날 아침 저문 훈련, 집엔 일을 못했어.)
102004 @ 그 훈련 받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그 훈련 받기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102004 #7 전쟁 터지기 전에 제오 애기 돌 만ᄒᆞ난에, 열둬 설 뒈난에.(전쟁 터지기 전에 겨우 아기 돌볼 만하니까, 열두어 살 되니까.)
102004 @ 예.(예.)
102004 #7 훈련을 시작헨에. 내가 열ᄋᆞ둡에 해방 뒛주게.(훈련을 시작해서. 내가 열여덟에 해방 됐지.)
102004 @ 기구나. 그 애기 돌 때, 돌멍 놀아난 거 엇수과? 고무줄놀이라든가 뭐.(그렇군요. 그 아기 돌볼 때, 돌보면서 놀아난 거 없습니까? 고무줄놀이라든가 뭐.)
102004 #7 무사 엇어. 빵치기도 잇곡, 헤헤헤.(왜 없어. 사방치기도 있고, 헤헤헤.)
102004 @ 그런 거, 무싱거허멍 놀아낫수과? 그때. 골아봅서.(그런 거, 무엇하면서 놀았었습니까? 그때. 말해보세요.)
102004 #7 그때 빵치기 ᄒᆞ는 것가 이, 땅에 방 기려놩이.(그때 사방치기 하는 것이 이, 땅에 방을 그려놔서.)
102004 @ 예, 예예.(예, 예예.)
102004 #7 그, 그것이 잘허는 아인 일등을 헤영 그걸 다 ᄋᆞ답 칸 멩글어 놔근에 다 뛰국.(그, 그것이 잘하는 아인 일등을 해서 그걸 다 여덟 칸 만들어 놓아서 다 뛰고.)
102004 @ 예.(예.)
102004 #7 암만헤도 머리빡이에 기관 엇인 건 ᄒᆞ지 못헤근에 뭐 헤여.(암만해도 머리

빡에 기관 없는 건 하지 못해서 뭐 해.)
102004 @ 예, 예.(예, 예.)
102004 #7 우린 이제도 그 일분, 그때는 그때 시절에 일분말만 헤영 뭐이던지 일분말만 헤영 조선 말 못쓰게 헤낫어.(우린 이제도 그 일본, 그때는 그때 시절에 일본말만 해서 뭣이던지 일본말만 해서 조선 말 못쓰게 했었어.)
102004 @ 아, 경헤낫구나예?(아, 그랬었군요.)
102004 #7 어.(어.)
102004 #7 게, 집에 왕은 그냥 어, 우리 제줏말 허고마씨? 집에 와근에.(그래, 집에 와서는 그냥 어, 우리 제주말 하고요? 집에 와서는.)
102004 #7 아니, 해방 뒈어사 이제 여깃 말을 헷주.(아니, 해방 돼야 이제 여기 말을 했지.)
102004 @ 예.(예.)
102004 #7 해방뒈기 전엔 일분말로만.(해방되기 전엔 일본말로만.)
102004 @ 집에 왕도?(집에 와서도?)
102004 #7 응. 집에 왕도 조선말 못쓰게 헷주.(응. 집에 와서도 조선말 못쓰게 했지.)
102004 @ 아.(아.)
102004 #7 연설을 하나씨까다라고, 일분말로 연설을 허젠 허민 이제 동은 헹아시[53], 서는 무까시[54], 이렇게 헤나난.(연설을 하나씨까다라고, 일본말로 연설을 하려 하면 이제 동은 '헹아시', 서는 '무까시', 이렇게 했었어.)
102004 @ 예.(예.)
102004 #7 밧은 하다께[55].(밭은 하다께.)
102004 @ 예.(예.)
102004 #7 이렇게 허지?(이렇게 하지?)
102004 @ 예.(예.)
102004 #7 경허멍 이제 그걸 교와[56], 다 일분말로 연설을 허렌 허민, 교와 오까산니 오도산니 오도도아 이쇼니 무꼬노 하다껜니떼 무끼오 마끼마시다 이모오 호리마시다 헌 말은 섯밧디 간에 어멍이영 아바지영 동생들이영 ᄀᆞ찌 간에, 섯밧디 간에 음, 보리를 갈았습니다. 감저를 팟습니다 헌 말이라 이 말이.(그러면서 이제 그걸 교화, 다 일본말로 연설을 하라고 하면, '교와 오까산니 오도산니 오도도아 이쇼니 무꼬노 하다껜니떼 무끼오 마끼마시다 이모오 호리마시다[57].' 한 말은 '서쪽 밭에 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같이 가서, 서쪽 밭에 가서 음, 보리를 갈았습니다. 고구마를 캤습니다.' 한 말이야 이 말이.)

---

53) '헹아시는' 일본어 'ひがし(東)'로 '동쪽을 말한다.
54) '무까시'는 일본어 'むかし'로 '옛날'이라는 의미다.
55) '하다께'는 일본어 'はたけ'로 '밭'이라는 의미다.
56) '교와'는 일본어 'こんばん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밤 인사말이다.
57) '교와 오까산니 오도산니 오도도아 이쇼니 무꺼노 하다껜니떼 무끼오 마끼마시다 이모오 호리마시다'는 일본어 'きょうはお母さん、お父さん、弟一緒に向こうの畑で麦をまきました、芋を掘りました'로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함께 저쪽 밭에 가서 보리를 뿌리고 감자를 팠습니다'라는 의미다.

102004 @ 아, 경헷구나.(아, 그랬군요.)
102004 #7 어. 일분말로 그 연설을 ᄒᆞ렌 ᄒᆞ민 이 사람이 아척이는 오하요 고사이마스[58], 인섯말이.(어. 일본말로 그 연설을 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침에는 '오하요 고사이마스', 인사말이.)
102004 @ 음.(음.)
102004 #7 낮이는 곤이찌[59]와, 저낙에는 곤방와[60] 허는디.(낮에는 '곤이찌, 저녁에는 '곤방와' 하는데.)
102004 @ 음.(음.)
102004 #7 ᄒᆞᆫ사름만 부뜨는 듸는 그렇게 단순허게 ᄒᆞᆫ번만 곤방와 곤이찌와 이렇게 허곡, 그 둘리 이신 듼 미나상[61]을 똑 부찌주. 미나상.(한 사람만 붙는 데는 그렇게 단순하게 한번만 '곤방와' '곤이찌와' 이렇게 하고, 그 둘이 있는 덴 '미나상'을 똑 붙이지. '미나상'.)
102004 @ 음.(음.)
102004 #3 둘리 이신 듸는 미나상 곤방와엔 ᄒᆞᆫ 건 둘리 이신 여, ᄒᆞ나는 기자 곤방와. 저낙 인서는 곤방와.(둘이 있는 데는 '미나상 곤방와'라고 한 건 둘이 있는 여, 하나는 그저 '곤방와'. 저녁 인사는 '곤방와'.)
102004 @ 저녁에 집에 왕도 어머니 아버지영도 일본말로 ᄀᆞᆯ앗수과?(저녁에 집에 와서도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일본말로 말했습니까?)
102004 #7 전부 일분말만 썻거든 그때.(전부 일본말만 썼거든 그때.)
102004 @ 아, 경헷구나예? 경헤도 무신 뭐 고무줄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헤낫수과?(아, 그랬군요? 그래도 무슨 뭐 고무줄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했었나요?)
102004 #7 고무줄놀이둥 무사 아녀? 고무줄놀이허는디 고무줄을 헐 저르가 엇엇어.(고무줄놀이도 왜 않아? 고무줄놀이하는데 고무줄을 할 겨를이 없었어.)
102004 @ 애기 보젠 허난?(아기 돌보려 하니까?)
102004 #7 우리는 애기, 은, 큰뚤로 나가 나 헤부난 두 ᄉᆞᆯ ᄆᆞ지, 두 ᄉᆞᆯ ᄆᆞ지 줄줄이사탕으로 이 동생덜이 나와놓니까, 휘레 여듸 내 오라나민 휘레 큰물에 가젠 애길 자불민 가보젠 막 저난.(우리는 아기, 은, 큰딸로 내가 내가 해버려서 두 살 터울, 두 살 터울 줄줄이사탕으로 이 동생들이 태어나놓으니까, 헤엄치러 여기 냇물 터져나면 헤엄치러 큰물에 가려고 아기가 자버리면 가보려고 매우 저리니까.)
102004 @ 하하하.(하하하.)
102004 #7 애기구덕드레 그 뜨데길 막 더퍼 놔근엔 막 숨 ᄀᆞ우찌게 헹, 줌 제기자불민 휘레 가젠.(아기요람에 그 처네로 막 덮어 놔서 막 숨 가쁘게 해서, 잠 빨리자버리면 헤엄치러 가려고.)
102004 @ 하하하 경헹?(하하하 그렇게 해서?)

58) '오하요 고사이마스'는 일본어 'おはようございます'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아침 인사말이다.
59) '곤이찌와'는 일본어 'こんにち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낮 인사말이다.
60) '곤방와'는 일본어 'こんばん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밤 인사말이다.
61) '미나상'은 일본어 'こんばんは'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밤 인사말이다.

102004 #7 그릏게 헤난. 그 거난 뚤이 뚤 뚤 뚤 뚤 다슷 개가 ᄒᆞ고, 남동생이 ᄒᆞ나 낳난에.(그렇게 했었어. 그 그러니까 딸이 딸 딸 딸 딸 다섯 사람하고, 남동생이 하나 낳으니까.)

102004 @ 음.(음.)

102004 #7 그 남동생 나야 우릴 호적에 놓젠 허난 거 호적에 줄여벼서[62].(그 남동생 나야 우릴 호적에 넣으려하니까 그거 호적에 줄여버렸어.)

102004 @ 아, 경헨 헷구나예.(아, 그래서 했군요.)

102004 #7 경헷어.(그랬어.)

102004 @ 음, 기구나.(음, 그렇군요.)

102004 #7 엿날엔 그 우리 시철엔 씨집을 열일굽에 너 오누인 다 열일굽에 가서.(옛날엔 그 우리 시절엔 시집을 열일곱에 네 오누인 다 열일곱에 가서.)

102004 @ 열일굽에 갓구나예.(열일곱에 갔군요.)

102005 @ 그 때 그 저 일제 때 막 물질허면 혹시 공출 같은 건 엇엇수과? 일본에서?(그 때 그 저 일제 때 막 물질하면 혹시 공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본에서?)

102005 #7 공출이엔 무사 엇엇어, 보리 갈앙도 먹을 거 엇어도 공출 막 파견헤근에.(공출이라고 왜 없었어, 보리 갈아서도 먹을 거 없어도 공출 막 파견해서.)

102005 @ 예.(예.)

102005 #7 이제 응, 멧 가멩이.(이제 응, 몇 가마니.)

102005 @ 예.(예.)

102005 #7 내라 헤영 그 다 내엿주.(내어라 해서 그 다 냈지.)

102005 @ 예.(예.)

102005 #7 내곡, 이제 숟ᄀᆞ락은 놋숟ᄀᆞ락 이신디.(내고. 이제 숟가락은 놋숟가락 있는데.)

102005 @ 예.(예.)

102005 #7 숟ᄀᆞ락도 밥 못 먹게 그 숟ᄀᆞ락을 다 공출로, 놋낭푼.(숟가락도 밥 못 먹게 그 숟가락을 다 공출로, 놋양푼.)

102005 @ 예.(예.)

102005 #7 그런 거 다 총가랑가 멩근다 한다.(그런 거 다 총알을 만든다 한다.)

102005 @ 예.

102005 #7 긍허난 그걸 이제 다 바찌렝 헤영 다 바쩌불곡.(그러니 그걸 이제 다 바치라고 해서 다 바쳐버리고.)

102005 @ 물에 든 건마씸. 물질헌 건?(물에 든 건요. 물질 한 건?)

102005 #7 물질 흔 건게 벌어당 먹으미엔 메역 ᄌᆞ물아당 풀앙 먹곡게. 고동[63] 잡앙, 그땐 고동, 셍복이 하난에 잡앙먹어도, 막 줏아가난 물질도 못ᄒᆞ게 헤서.(물질 한 거는 벌려다가 먹으므로 미역 캐다가 팔아서 먹고. 소라 잡아다, 그땐 소라, 전복이 많으니까

62) '줄여벼서'는 여기서는 나이를 줄여버렸다는 뜻이다.
63) '고동'은 다 자란 큰 소라를 말한다.

잡아먹어도, 막 잦아가니까 물질도 못하게 했어.)

102005 @ 아.(아.)

102005 #7 길쎄, 그 뭐가 비형기가 막 오라근에 막 감장도는 따문에.(글쎄, 그 뭐가 비행기가 마구 와서 막 맴도는 때문에.)

102005 @ 음.(음.)

102005 #7 쏘아부난에 그때 이디도 죽은 사름이 이서.(쏘아버리니까 그때 여기도 죽은 사름이 있어.)

102005 @ 아, 누게가 쏘아부런? 비행기에서?(아, 누가 쏘아버렸어요? 비행기에서?)

102005 #7 응, 비형기에서 그 간세끼[64] 간시끼엔 헌 비형기, 그 미국 비형기가.(응, 비행기에서 그 '간세끼 간시끼'라고 한 비행기, 그 미국 비행기가.)

102005 @ 음.(음.)

102005 #7 그 막 줒아갈 땐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간 거 쏘아부난에 삼춘조케가 죽고.(그 막 잦아갈 땐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간 거 쏘아버리니까 삼촌조카가 죽고.)

102005 @ 가마릿 사름?'(가마리' 사람?)

102005 #7 응, 물에 빠전에 이제 배창 아래 숨비언[65] 곱은 건 살국.(응, 물에 빠져 이제 뱃장 아래 '숨죽이고' 숨은 건 살고.)

102005 @ 아.(아.)

102005 #7 다슷이 고기 나끄레 간.(다섯이 고기 낚으러 가서.)

102005 @ 고기 낚단에.(고기 낚다가.)

102005 #7 응, 그때 당시에는 막 웨정시철이라고 아주 일분놈의 게난, 그때렌 학생들은 고고신민노 지까이[66]고.(응, 그때 당시에는 막 일제강점기라고 아주 일본놈의 그러니까, 그때엔 학생들은 '고고신민노 지까이고'.)

102005 @ 예.(예.)

102005 #7 거 우리는 센네따이는 고고신민노 세시, 그 때 헤난 거 이제 싱싱헤여.(거 우리는 센네따이는 고고신민노 세시, 그 때 했던 거 이제 생생해.)

102005 @ 음, 게 학교는 어디 다녓수과?(음, 그래 학교는 어디 다녔습니까?)

102005 #7 학교 뎅길 생각이랑마랑, 어느 하가의 마.(학교 다닐 생각은커녕, 어느 겨를에 마.)

102005 @ 음.(음.)

102005 #7 혹교 뎅기지 아네도 그 훈련ᄒᆞ레 가근에 그 저 강의를 이제 그 일분말로 ᄒᆞ렌 ᄒᆞ민, 그 나가 그때두 이 머리가 백도 넘엇젠 헤여.(학교 다니지 않아도 그 훈련하러 가서 그 저 강의를 이제 그 일본말로 하라고 하면, 그 내가 그때도 이 머리가 백도 넘었다고 해.)

102005 @ 음.(음.)

102005 #7 혼두 번 굴은 건 딱 웨우니까.(한두 번 말한 건 딱 외우니까.)

---

64) '간세끼'는 일본어 'かんさいき(艦載機)'로 '함재기'라는 의미다. '함재기'는 '항공모함이나 기타 함선에 싣고 다니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보자는 '간사이끼'를 '간세끼' '간시끼' 등으로 말하고 있다.

65) '숨비다'는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숨을 죽이고'의 의미로 쓰였다.

66) '고고신민노 지까이'는 일본어 'ここ臣民のちかい'로 '여기 신민에 가까운'이라는 의미다.

102005 @ 음.(음.)
102005 #7 음. 그 그때 그 저 이 강단 우이 사근에 이제 그 ᄒᆞ는 것이 그때 헤난 거 이제두 싱싱허게 알아져.(음. 그 그때 그 저 이 강단 위에 서서 이제 그 하는 것이 그때 했던 거 이제도 생생하게 알아지지.)
102005 @ 음.(음.)
102005 #7 (일본어 연설) 이, 사이까이니[67] 헌건 이 제주도라.((일본어 연설) 이, 사이까이니 한 건 이 제주도야.)
102005 @ 예.(예.)
102005 #7 음, 사이까이니 헌 건 제주도, 겨난 그걸 웨와근에 게난 그 고쭈센세이[68] 교장 선생은 일분 사름이고 또 훈련 선생도 소노다이[69]엥 헨 응, 일분 선생이고, 그 나무킨 이디 선생덜 이, 헨 ᄀᆞ르쳇는디, 그 교장 선생 강단 우의 허난 그걸 그 강의로 이제 그 세넷 아이덜을 걸 웨아근에 걸 ᄒᆞ렌 ᄒᆞ난에 헤져서게?(음, 사이까이니 한 건 제주도, 그러니 그걸 외워서 그러니 그 고쭈센세이 교장 선생은 일본 사람이고 또 훈련 선생도 '소노다이'엥 해서 응, 일본 선생이고, 그 나머진 여기 선생들 이, 해서 가르쳤는데, 그 교장선생 강단 위에 하니까 그걸 그 강의로 이제 그 서너 아이들을 걸 외워서 걸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나?)
10200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2005 #7 누게가 웨왕 ᄒᆞᆫ두 번 ᄀᆞᆯ은 걸 웨와져?(누가 외워서 한두 번 말한 걸 외워져?)
102005 @ 음.(음.)
102005 #7 견디 우린 ᄒᆞᆫ두 번 들으민 딱 웨왓주게.(그런데 우린 한두 번 들면 탁 외웠지.)
102005 @ 음. 거민 아까 ᄀᆞᆯ은 일본말 우리말로 ᄀᆞᆯ아봅서. 뭐렌 ᄀᆞᆯ아신지.(음. 그러면 아까 말한 일본말 우리말로 말해보세요. 뭐라 말했는지.)
102005 #7 그, 이제 다 이져비언 못ᄒᆞᆫ다.(그, 이제 다 잊어버려서 못한다.)
102005 @ 아까 헌 것만.(아까 한 것만.)
102005 #7 (웃음)
102005 @ 아까 ᄀᆞᆯ은 것만.(아까 말한 것만.)
102005 #7 잊어비언에.(잊어버려서.)
102005 @ 잊어비언예?(잊어버려서요?)
102005 #7 어, 잊어비언에, 이거 멧 헤니게? 그것이 어, 열ᄋᆞ슷.(어, 잊어버려서, 이거 몇 해니? 그것이 어, 열여섯.)
102005 @ 음.(음.)
102005 #7 열ᄋᆞ슷에 그추룩 헌 것만 허렌 매날 헤난 저 일분 물질 연쉽인가.(열여섯에 그처럼 한 것만 하라고 만날 하니까 저 일본 물질 연습인가.)

67) '사이까이니'는 일본어 'さいかい(再開)に'로 '재개한'라는 의미다.
68) '고쭈 센세이'는 일본어 'こうちょう(校長)せんせい(先生)'로 '교장선생'이라는 의미다.
69) '소노다이'는 일본어 'その臺'로 '그 단상'의 의미다.

102005 @ 음.(음.)
102005 #7 저, 인술 오라시난.(저, 인솔 오니까.)
102005 @ 예.(예.)
102005 #7 나도 가키엔 ᄒᆞ난, 어, 느 물질 그듸 강 헤지크넨, 아이, 나도 어른광 ᄀᆞ찌 협니덴. 경헨 간 ᄒᆞ난 그듸 간 빈대만 간 막 튿쟈아전 와나서.(나도 가겠다고 하니까, 어, 너 물질 거기 가서 해지겠냐고, 아이, 나도 어른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서는 가서 하니까 거기 가서 빈대만 가서 막 뜯겨가지고 왔었어.)
102005 @ 일본 강?(일본 가서?)
102005 #7 응.(응.)
102005 @ 일본 어듸 갓다 왓수과?(일본 어디 갔다 왔습니까?)
102005 #7 강우시마[70].('강우시마'.)
102005 @ 음.(음.)
102005 #7 강우시마 간에 에, 수랑헌 함바에 방 ᄒᆞ나만썩 헌 거 똑똑똑 갈란에 ᄋᆞ슷 사름이 그 방에 눕곡 그디서 밥헹 먹곡.('강우시마' 가서 에, 기름한 가건물에 방 하나씩만 한 거 똑똑똑 갈라서 여섯 사람이 그 방에 눕고 거기서 밥해서 먹고.)
102005 @ 음.(음.)
102005 #7 경헨게. 경헌디 그 알은 세멘바닥 절르우고, 이 우의 ᄀᆞ는 건 다듬이[71]라고 대 꿰언에 대로 전 거라라.(그렇게 한 게. 그랬는데 그 밑은 시멘트바닥 굳히고, 이 위에 까는 건 '다듬이'라고 대 꿰어서 대로 전 거더라.)
102005 @ 예.(예.)
102005 #7 그 ᄀᆞ난에 이만썩 헌 빈데 그 쉬.(그 까니까 이만씩 한 빈데 그 쉬.)
102005 @ 음.(음.)
102005 #7 그 막 헷당 밤인 하이고, 나 솔성에 막 헤영 곱고 알랑알랑[72] 헤엿주게 게난. 그 어른덜 트멍덜에 강 누워시민 ᄒᆞ꼼 덜 튿짐사 헐티 헌걸. 빈데만 막 튿어네. 석 덜을 제우 살안에.(그 막 했다가 밤엔 하이고, 내 피부에 막 하얘 곱고 '알랑알랑' 했지 그러니까. 그 어른들 틈들에 가서 누워있으면 조금 덜 뜯길까 할까 한걸. 빈대만 막 뜯어서. 석 달을 겨우 살았어.)
102005 @ 음.(음.)
102005 #7 그 저 강안도로.(그 저 강원도로.)
102005 @ 다시?(다시?)
102005 #7 강안도 장진해 간 맹 지난 그 셍각이 나.(강안도 장진해 가서 명이 기니까 그 생각이 나네.)
102005 @ 장진항?(장진항?)
102005 #7 음?(음?)
102005 @ 강원도 어디마씨?(강원도 어디요?)

70) '강우시마'는 일본 규슈(九州)의 가고시마(鹿児島) 지역을 말한다.
71) '다듬이'는 일본어 'たたみ'를 말하며 돗자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72) '알랑알랑'은 표준어 '야들야들', 혹은 '부들부들'에 해당하는 투명하며 얇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102005 #7 강안도 장진으루 간.(강원도 장진으로 갔어.)
102005 @ 가근에?(가서?)
102005 #7 배가 그디 간에.(배가 거기 가서.)
102005 @ 음.(음.)
102005 #7 그 배 야마구지엔 헌 배가 간에, 야맷 배.(그 배 야마구지라고 한 배가 가서, 뒷거래한 배.)
102005 @ 예.(예.)
102005 #7 간에 그디 장진이엔 헌 듸 오란에 이제 우리가 그듸 사름이 가마리 사름이 물질 간에.(가서 거기 장진이라고 한 데 와서 이제 우리가 거기 사람이 '가마리' 사람이 물질 가서.)
102005 @ 음.(음.)
102005 #7 가도오도 못헹 그듸 살앗주게.(가도오도 못해서 거기 살았지.)
102005 @ 음.(음.)
102005 #7 사난에 물건은 하고 즘순 엇이난에 음, 물건헹 강 돈 벌엉 가렌.(사니까 물건은 많고 해녀는 없으니까 음, 물건해서 가서 돈 벌어 가라고.)
102005 @ 음.(음.)
102005 #7 차비 헹 가렌. 경헨에 그듸 오란에 물질헨에.(차비해서 가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 와서 물질해서.)
102005 @ 예.(예.)
102005 #7 물건은 하곡 사름이 이듸 즘수두 가도오도 못ᄒᆞ난에.(물건은 많고 사람이 여기 해녀도 가도오도 못하니까.)
102005 @ 음.(음.)
102005 #7 경헨.(그렇게 했어.)
102005 @ 거기선 멧 헤 살앗수과?(거기선 몇 해 살았습니까?)
102005 #7 그듸서 두 덜산디, 살안에 돈 제법 벌언에 와서.(거기서 두 달인가, 살아서 돈 제법 벌어 왔어.)
102005 @ 아이구, 기구나예?(아이고, 그렇군요.)
102005 #7 음.(음.)
102007 @ 게믄 시집은 일제 때 시집간건게양?(그러면 시집은 일제 때 시집갔네요?)
107007 #7 음.(음.)
107007 @ 해방뒈기 전에예?(해방되기 전에요?)
107007 #7 음, 열일굽에 간.(음, 열일곱에 갔어.)
102007 @ 게믄 남자어른은 뭐 허는 사름이엇수과?(그러면 남자어른은 뭐 하는 사름이었습니까?)
102007 #7 게, 아무것도 아녀는 사름.(그게, 아무것도 않는 사람.)
102006 @ 기구나예. 그다음에는예, 결혼 헤가지고 아이 나실 때 사삼 터젓수과?(그렇군요. 그다음은요, 결혼 해가지고 아이 났을 때 사삼 터졌습니까?)

102006 #7 아니. 어, ᄉᆞ숨ᄉᆞ건?(아니. 어, 사삼사건?)
102006 @ 예.(예.)
102006 #7 어, ᄉᆞ섬ᄉᆞ건은 나가 쑤물ᄒᆞ나에 터젓주게.(어, 사삼사건은 내가 스물하나에 터졌지.)
102006 @ 아, 기구나.
102006 #7 어.(어.)
102006 @ 게문예? 사삼 때는 무슨 피해는 엇엇수과?(그러면요? 사삼 때는 무슨 피해는 없었습니까?)
102006 #7 우린 피해 엇어.(우린 피해 없어.)
102006 @ 음.(음.)
102006 #7 우린 저 그른 나쁜 사름덜토 엇고 이해가기는 엇고, ᄒᆞ난에 우린 피핸 엇어.(우린 저 그런 나쁜 사람들도 없고 이해관계는 없고, 하니까 우린 피핸 없어.)
102006 @ 음, 경헷구나예?(음, 그랬군요.)
102006 #7 음.(음.)
102007 @ 결혼은 중매결혼 헷수과, 연애결혼 헷수과?(결혼은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했습니까?)
102007 #7 아이고, 덜러와. 연애산디, 시집이 어듸 부뜬 처리도 몰르는 시집을 가는 거주, 갓주.(아이고, 더러워. 연애인지, 시집이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시집을 가는 거지, 갔지.)
102007 @ 가마리에서 가마리로 시집갓뎅 허멍마씸?('가마리'에서 '가마리'로 시집갔다고 하면서요?)
102007 #7 요, 동으로 멪는디 웃서화리 간.(요, 동으로 맺는데 윗세화리 갔어.)
102007 @ 예.(예.)
102007 #7 이 본 타리에 나가 ᄂᆞ려 온 거주게.(이 본 터에 내가 내려 온 거지.)
102007 @ 아, 경헷구나게, 음.(아, 그렇게 했구나, 음.)
102008 @ 결혼 헐 때 사주는 봣지예?(결혼 할 때 사주는 봤지요?)
102008 #7 음?(음?)
102008 @ 사주, 사주는 봐근에 결혼헷지예?(사주, 사주는 봐서 결혼했지요?)
102008 #7 아이, 사둔도 안 보고.(아니, 사돈도 안 보고.)
102008 @ 아니, 사주, 사주팔자.(아니, 사주, 사주팔자.)
102008 #7 엿날, ᄉᆞ주보곡 예장 쓰국, 다, 그는 것사 헷주.(옛날, 사주보고 예장 쓰고, 다, 그런 것이야 했지.)
102008 @ 헷지예?(했지요?)
102008 #7 헤여두 저 ᄉᆞ주팔자 맞은 사름이 엿날 이서? 엇어.(해도 저 사주팔자 맞은 사람이 옛날 있어? 없어.)
102008 @ 게메예.(그러게요.)
102008 #7 반도 안 살앗어, 다.(반도 안 살았어, 다.)

102008 @ 안 살안, 맞수다.(안 살아서, 맞습니다.)
102009 @ 게, 시집 올 때 무시거헤옵디가?(그래, 시집 올 때 뭐해옵디까?)
102009 #7 무시거 헨와서.(뭐 해왔어.)
102009 @ 이불이라도 헤와실 거 아니꽈?(이불이라도 해왔을 거 아닙니까?)
102009 #7 아니, 이불 헤연 이녁 더끌 거헹 가는 거주.(아니, 이불 해서 이녁 덮을 거 해서 가는 거지.)
102009 @ 이불 더끌 거.(이불 덮을 거.)
102009 #7 이녁 더끌 거.(이녁 덮을 거.)
102009 @ 게민 흔 채?(그러면 한 채?)
102009 #7 흔 채 헹 갓주. 우리 시철에사. 제국시태난 무신 뭐 이서시냐. 살 것도 엇고, 풀 것도 엇엇저.(한 채 해서 갔지. 우리 시절에야. 일제강점기니까 무슨 뭐 있었니.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었어.)
102009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09 #7 시집 간 둣해에 해방뒈난에게.(시집 간 다음해에 해방되니까.)
102009 @ 아, 경헤수나예? 음, 둣해에 해방뒈면.(아, 그랬군요? 음, 다음해에 해방되면.)
102009 #7 열으답에 해방뒈난에.(열여덟에 해방되니까.)
102009 @ 예.(예.)
102009 #7 열으답에 저 울산 녹수금[73]에 간 해방뒌 오라서. 물질 간.(열여덟에 저 울산 '녹수금'에 가서 해방돼서 왔어. 물질 가서.)
102010 @ 그때당시 결혼 헐 때 사진 같은 거 이서수과?(그때당시 결혼 할 때 사진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2010 #7 하이고, 사진 출리고.(하이고, 사진 차리고.)
102010 @ 맞아, 사진도 엇엇지예? 그 후제라도 찍엇수과? 후제, 애기 낭 다음에라도 찍엇수과?(맞아, 사진도 없었지요? 그 후라도 찍었습니까? 후에, 아기 낳은 다음에라도 찍었습니까?)
102010 #7 그 제국시태에 막 좇아가부난 그는 거 찍을 생각이랑마랑.(그 일제강점기 때에 막 잦아가니까 그런 거 찍을 생각이랑마랑.)
102010 @ 그 이후예, 해방 후예.(그 이후에, 해방 후에.)
102010 #7 해방 후예? 해방 후예.(해방 후에? 해방 후에.)
102010 @ 예.(예.)
102010 #7 삼년 이시난 또 ᄉᆞ삼사건이 또 일어나비엇주게.(삼년 있으니까 또 사삼사건이 또 일어나버렸지.)
102010 @ 맞수다예. 맞수다.(맞아요, 맞습니다.)
101010 #7 게난 숨을 쉴, 우리시철은 아주 ᄀᆞ리가 나쁜 ᄀᆞ리에 띄어난놓니까 고생만, 고생만 헷어.(그러니 숨을 쉴, 우리시절은 아주 때가 나쁜 때에 태어나놓으니까 고생만,

73) '녹수금'은 울산 전하동의 동북쪽 포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고생만 했어.)
101010 @ 맞수다.(맞습니다.)
102012 @ 근데 무사 아들만 둘 나아근에 애기 하영 더 안 낳수과?(그런데 왜 아들만 둘 낳아서 아기 많이 더 안 낳았습니까?)
102012 #7 아이고, 더러 죽어빗저게.(아이고, 더러 죽어버렸지.)
102012 @ 아, 기꽝.(아, 그래요.)
102012 #7 엿날엔.(옛날엔.)
102012 @ 예.(예.)
102012 #7 그 애기가 나민.(아기가 나면.)
102012 @ 예.(예.)
102012 #7 한집이라고.(천연두라고.)
102012 @ 예.(예.)
102012 #7 이제는 에방주사 다 놔부난.(이제는 예방주사 다 놓아버려서.)
102012 @ 예.(예.)
102012 #7 그런 것가 엇지 아녀느냐?(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102012 @ 예.(예.)
102012 #7 엇는디 그 시절엔 그 에방주사 아니 놓민 그 한집이라고 들민.(없는데 그 시절엔 그 예방주사 안 놓으면 그 천연두라고 걸리면.)
102012 @ 족은한집? 큰한집마씨?(홍역? 천연두?)
102012 #7 오, 혼 집이 홈치 두 개썩도 죽어서.(그래, 한 집에 한꺼번에 두 사람씩도 죽었어.)
102012 @ 게난, 족은한집? 큰한집?(그러니, 홍역? 천연두?)
102012 #7 음.(음.)
102012 @ 게난 한집도 큰 게 잇고, 족은 게 이서낫잖아예?(그러니까 천연두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잖아요?)
102012 #7 음.(음.)
102012 @ 게난 무슨 한집도 큰 게 잇고 족은 거 이서낫잖아예?(그러니까 무슨 천연두도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었잖아요?)
102012 #7 큰 거는 막 얽어지는 거.(큰 거는 막 얽어지는 거.)
102012 @ 얽어지는 거.(얽어지는 거.)
102012 #7 족은 것도 저 난 그때 육지 옐일굽에 가부난.(작은 것도 저 난 그때 육지 열일곱에 가버리니까.)
102012 @ 예.(예.)
102012 #7 우리 형제간들은 문딱 헤엿는디.(우리 형제간들은 모두 했는데.)
102012 @ 예.(예.)
102012 #7 나만 떨어젓단에.(나만 떨어졌다가.)
102012 @ 음.(음.)

102012 #7 시집간에 애기 두 개 나사.(시집가서 아기 둘 나야.)
102012 @ 음.(음.)
102012 #7 젓엣애기 어느 때 죽은 철리도 몰르게.(갓난아기 어느 때 죽은 줄도 모르게.)
102012 @ 아.(아.)
102012 #7 그 한집 ᄒᆞ난 부끄지 못헹 나이 항은 그 솟지 못헹 더 죽어, 애기 죽은 처리도 몰란.(그 천연두 하니까 솟아오르지 못해서 나이 많아서는 그 솟지 못해 더 죽어, 아기 죽은 줄도 몰랐어.)
102012 @ 음.(음.)
102012 #7 막 한집에 얼먹어서 나.(매우 천연두에 얼먹었어, 내가.)
102012 @ 아이고, 경헷구나예? 음.(아이고, 그랬군요? 음.)
102012 #7 엿날엔 ᄒᆞ쏠ᄒᆞ민 탈바근에이, 구신이 한 때난.(옛날엔 조금하면 탈났어, 귀신이 많을 때여서.)
102012 @ 맞수다게.(맞습니다.)
102011 @ 그 결혼헤가지고는 신혼은 시집이서 살앗수과, ᄯᅮ루 살앗수과?(그 결혼해가지고는 신혼은 시집이서 살았습니까, 따로 살았습니까?)
102011 #7 아니, ᄯᅮ루 안 살아서.(아니, 따로 안 살았어.)
102011 @ ᄀᆞ찌 살안?(같이 살았어.)
102011 # ᄒᆞᆫ디 산디.(같이 살았는데.)
102011 @ 예.(예.)
102011 #7 어, 씨집 가난에 씨어멍이 삼년 뒈난에 ᄉᆞ섬ᄉᆞ건 잇는 해에 오꼿 죽어비서.(어, 시집가니까 시어머니가 삼년 되니 사삼사건 있는 해에 그만 죽어버렸어.)
102011 @ 아, 그냥 아판?(아, 그냥 아파서?)
102011 #7 어?(어?)
102011 @ 아파근에?(아파서?)
102011 #7 어, 아판에. 죽어부난에 그 그듸두 이제 그 할망이[74] 아프난에 재기 이제 푼 거라.(어, 아파서. 죽어버리니까 그 거기도 이제 그 할머니가 아프니까 재기 이제 결혼시킨 거야.)
102011@ 음.(음.)
102011 #7 아시 헤엔 우리 풀고, 또 듯 헤엔 씨아지방 ᄒᆞ나 신 거 푼 거 보난에.(아우(전)해에는 우리 결혼시키고, 또 다음해에는 시아주버니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킨 거 보니까.)
102011 @ 음.(음.)
102011 #7 게, 경허난 ᄉᆞ섬ᄉᆞ건 있는 헤엔 삼월에 할망이 죽어비서.(그래, 그렇게 하니까 사삼사건 있는 해에 삼월에 '할머니가' 죽어버렸어.)
102011 @ 음.(음.)

74) '할망'은 할머니를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시어머니를 말한다.

102011 #7 죽어부난, 하르방[75]은 술 먹는 하르방이난 살렴을, 하르방이게 할망 죽어부난에게 ᄀᆞ마니 부뜰 거냐?(죽어버리니까 할아버지는 술 먹는 할아버지니까 살림을, 할아버지가 할머니 죽어버리니까 가만히 붙을 거니?)
102011 @ 겐난에.(그러니까.)
102011 #7 풍지박살 헤볏주.(풍지박살 해버렸지.)
102011 @ 아, 맞수다.(아, 맞습니다.)
102011 #7 경허난에, 이젠 씨어멍 살아시민 경도 안헷주마는 하르방은 할망 죽어부난, 막 그 부젯집이라나서.(그렇게 하니까, 이젠 시어머니 살아있으면 그렇게도 안했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 죽어버리니까, 매우 부잣집이었어.)
102011 @ 음.(음.)
102011 #7 경헌디 하르방이 다 조가 먹언 이젠 헤가난에 이것가 친정동네주게.(그런데 할아버지가 다 조겨 먹어서 이젠 해가니까 여기가 친정동네지.)
102011 @ 기구나예.(그렇군요.)
102011 #7 응, 웃서화리 시집을 갓는디.(응, 윗세화리 시집을 갔는데.)
102011 @ 음.(음.)
102011 #7 이디 내려완에.(여기 내려와서.)
102011 @ 음.(음.)
102011 #7 이, 이 알녁집이가 우리 친정이라.(이, 이 아랫집이 우리 친정이야.)
102011 @ 음.(음.)
102011 #7 경헨 이디 오란에 애기 두 개. 남은 건 애기 두 개 남으난에.(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애기 두 아이. 남은 건 애기 두 아이 남으니까.)
102011 @ 음.(음.)
102011 #7 저, 아들 두 개 남으난에 한집ᄒᆞ멍 뚤도 ᄒᆞ나 죽어불고.(저, 아들 두 개 남으니까 천연두하며 딸도 하나 죽어버리고)
102011 @ 음.(음.)
102011 #7 경허난에 이디 오란에, 나가 원 첨, 물질을 잘 허난에 육지 갓닥 어디 갓닥허멍 그 제국 시태도.(그렇게 하니까 여기 와서, 내가 원 참, 물질을 잘 하니까 육지 갔다가 어디 갔다가하며 그 일제강점기 때도.)
102011 @ 음.(음.)
102011 #7 벌언에 이젠 이거, 이디 삶 시작을 헨에.(벌어서 이젠 이거, 여기 삶 시작을 해서.)
102011 @ 음.(음.)
102011 #7 친정 동네 이거 태 ᄉᆞ른 동네주.(친정 동네 이거 탯줄 사른 동네지.)
102011 @ 음. 그 때, 여기 내려올 땐 바깟어른 살아실 때구나예?(음. 그 때, 여기 내려올 땐 바깥어른 살았을 때군요?)
102011 #7 응.(응.)

75)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시아버지를 말한다.

102011 @ 음.(음.)
102011 #7 그 땐 이 간 오난 그 일본 해방 뒈난에 또 ᄉᆞ섬ᄉᆞ건 일언에 군인 가부런.(그 땐 이 가서 오니까 그 일본 해방 되니까 또 사삼사건 일어나서 군인 가버렸어.)
102011 @ 군인 갓구나, 음.(군인 갔구나, 음.)
102011 #7 음, 경헷주게.(음, 그렇게 했지.)
102011 @ 음.(음.)
102011 #7 군인 간 그때뜰은 응, 육년 썩 칠년 썩 살아서.(군인 간 그때들은 응, 육년 씩 칠년 씩 살았어.)
102011 @ 게난마씸예?(그러니까요.)
102011 #7 어, 군인을.(어, 군인을.)
102011 @ 음.(음.)
102011 #7 이제는 무신 쑤물넉 덜인가 수물 멧 덜 살민 오라도.(이제는 무슨 스물넉 달인가 스물 몇 달 살면 와도.)
102011 @ 그땐 게믄 그 저 한국전쟁 육이오영 다 끗나근에 돌아와시쿠다예? 바깟어른은예?(그땐 그러면 그 저 한국전쟁 육이오랑 다 끝나서 돌아오셨겠네요? 바깥어른은요?)
102011 #7 음, 육년 칠년 차 왓주.(음, 육년 칠년 차 왔지.)
102011 @ 아이고, 애기덜 다 커근에 왓구나게. 겐,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불고 그면 시아버지는 막 오래 살앗수과?(아이고, 아기들 다 커서 왔겠네요. 그래서 시집살이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버리고 그면 시아버지는 막 오래 살았습니까?)
102011 #7 씨아버지 우리 저 족은아덜보다 ᄒᆞᆫ 나 알인가? 그 후제 할망[76] 장만헨에 아덜 난에, 우리 저 족은아덜보단 ᄒᆞᆫ 설 아래 이제 이서.(시아버지 우리 저 작은아들보다 한 살 알인가? 그 후에 할머니 장만해서 아들 나서, 우리 저 작은아들보단 한 살 아래 이제 있어.)
10201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11 #7 할망[77] 죽어부난에게 우린 뚤아진 목숨이주게.(할머니 죽어버리니까 우린 따돌린 목숨이지.)
102011 @ 맞수다예.(맞습니다.)
102011 #7 하르방 저, 하르방이 책음헤연 뭐 다 헤부난.(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책임해서 뭐 다 해버리니까.)
102011 @ 음.(음.)
102011 #7 할망 살아시민 ᄒᆞ주마는 뭐 우런 권리가 엇언.(할머니 살았으면 하지만 뭐 우러러서 권리가 없어서.)
102011 @ 맞수다.(맞습니다.)
102011 #7 뭐헨 이젠 친정으로 애기 두 개 ᄃᆞ라오란에, 원차 나가 물질을 잘 헌, 헨

76) '할망'은 할머니를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새시어머니를 말한다.
77) '할망'은 할머니를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시어머니를 말한다.

에.(뭐해서 이젠 친정으로 애기 두 아이 데려와서, 원래 내가 물질을 잘 한, 했어.)
102012 @ 음.(음.)
102012 #7 그 때 당시에 우리 애기덜 장성 시켯주.(그 때 당시에 우리 아기들 장성 시켰지.)
102012 @ 거난. 애기덜은 다 착헨마씨?(그러니까. 아기들은 다 착한가요?)
102012 #7 막 착헤여.(매우 착해.)
102012 @ 음.(음.)
102012 #7 착ᄒᆞ여낫는디.(착했었는데.)
102012 @ 음.(음.)
102012 #7 큰아덜은 벵이 이상헌 벵을.(큰아들은 병이 이상한 병을.)
102012 @ 어디?(어디?)
102012 #7 그땐 벵이 나민 벵안의 잘 약도 엇고 벵안이 잘 엇언, ᄆᆞᆫ 다ᄃᆞᆯ아사 벵이름도 나타난 죽어비서.(그땐 병이 나면 병원의 잘 약도 없고 병원이 잘 없어서, 모두 다다라야 병 이름도 나타난 죽어버렸어.)
102012 @ 어디 아파신디마씨?(어디 아팠는데요?)
102012 #7 백헬벵이엔 다 뒈어사.(백혈병이라고 다 되어야.)
102012 @ 음, 경헷구나. 게민 그때 손지들은 누게가 키웟수과?(음, 그랬구나. 그러면 그때 손주들은 누가 키웠습니까?)
102012 #7 손지, 손지덜은 지집아이 두 개 나난 지네 어멍이.(손주, 손주들은 계집아이 두 아이 낳으니까 자기네 엄마가.)
102012 @ 데련 간?(데려갔어요?)
102012 #7 음.(음.)
102012 @ 음.(음.)
102012 #7 ᄃᆞ란간, 국민헥교 뭴 때 뒈난에 이제 오랏주.(데려가서, 초등학교 될 때 되니까 이제 왔지.)
102012 @ 음. 기구나예. 음.(음, 그렇군요. 음.)
102012 #7 오란 우리 저 족은메누리 헤단, 우리 족은메누리가 다 ᄃᆞ란 살고, 폴고.(와서는 우리 저 작은며느리 해다가, 우리 작은며느리가 다 데려서 살고, 결혼시키고.)
102012 @ 아이고, 세상에 잘도 잘도 착허우다예.(아이고, 세상에 잘도 잘도 착하네요.)
102012 #7 가네덜토 멩이 쫄란 다 죽어비서.(그 아이들도 명이 짧안 다 죽어버렸어.)
102012 @ 아이구야, 무사마씸?(이이고야, 왜요?)
102012 #7 가네 그 손지덜은 이제 세 개썩 이서도.(게네 그 손주들은 이제 세 아이씩 있어도.)
102012 @ 아.(아.)
102012 #7 겐디 어떵헤연 큰아덜엔 뚤 손지만 뚤 손지만 다 잇주.(그런데 어떡해서 큰아들엔 딸 손주만 딸 손주만 다 있지.)

102012 @ 음.(음.)
102012 #7 아덜이 없어.(아들이 없어.)
102012 @ 아, 그 뚤 손지덜은 어디아팡 젊은 나이에 죽언마씨?(아, 그 딸 손주들은 어디아파서 젊은 나이에 죽었나요?)
102012 #7 그 친정에가.(그 친정에.)
102012 @ 예.(예.)
102012 #7 아메도 그 암 종네기가 불휘가 이신 셍이라.(아무래도 그 암 종자가 뿌리가 있는 생이야.)
102012 @ 아.(아.)
102012 #7 경헨에 큰아인 유방암으로 죽구.(그렇게 해서 큰아인 유방암으로 죽고.)
102012 @ 음.(음.)
102012 #7 또 족은년은 이녁 차에 사고 난 죽어부렷주.(또 작은년은 이녁 차에 사고 난 죽어버렸지.)
102012 @ 아이고, 세상에 겅헷구나게, 음. 그믄 이제 족은아덜 족은메누리에 손지가 또 이신 거구나예?(아이고, 세상에 그랬군요, 음. 그어면 이제 작은아들 작은며느리의 손주가 또 있는 거군요?)
102012 #7 그 족은메누리에 손지덜 저거.(그 작은며느리에 손주들 저것.)
102012 @ 게난.(게난.)
102012 #7 저거 증손덜.(저것 증손들.)
102012 @ 음, 겅헷구나예?(음, 그랬군요.)
102012 #7 증손은 작년의, 그 족은아덜엔 아덜만 두 개난에.(증손은 작년의, 그 작은아들엔 아들만 두 아이여서.)
102012 @ 음.(음.)
102012 #7 자네 저 이제 돌아뎅기는 거, 아방 어멍은 큰손지고.(쟤네 저 이제 돌아다니는 거, 아버지 어머니는 큰손주고.)
102012 @ 음.(음.)
102012 #7 큰 손지에 저거 난 거고.(큰 손주에 저것 낳은 거고.)
102012 @ 음.(음.)
102012 #7 족은 손진 제주시 간.(작은 손주는 제주시 갔어.)
102012 @ 음.(음.)
102012 #7 작년에 풀안에 제주시에 간 살암서.(작년에 결혼해서 제주시에 가서 살고 있어.)
102012 @ 겅헷구나예?(그랬군요.)
102012 #7 음.(음.)
102012 @ 게 멩질 때 손지덜은 다 여기서 모염수과? 멩질, 제사 때?(그래 명질 때 손주들은 다 여기서 모이나요? 명질, 제사 때?)
102012 #7 우린 멩질이나 무시거라도 다 교를 믿언에.(우린 명질이나 무엇이라도 다

교를 믿어서.)
102012 @ 음.(음.)
102012 #7 다 파헨에 개척으로 다 헤부럿어.(다 파해서 개척으로 다 해버렸어.)
102012 @ 아, 제사도 안하고예?(아, 제사도 안하고요?)
102012 #7 응.(응.)
102012 @ 아.(아.)
102012 #7 게난 제서도 정월 초ᄒᆞ룰날 그 합동 기념으로 ᄒᆞ여.(그러니 제사도 정월 초하룻날 그 합동 기념으로 해.)
102012 @ 게민 섭섭허지 안헙니까?(그러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102012 #7 섭섭은, 그디 다 출려놩 합동 기념식으로 ᄒᆞ난에, ᄉᆞ월 십구일 날 ᄒᆞ곡.(섭섭하기는, 거기 다 차려놓고 합동 기념식으로 하니까, 사월 십구일 날 하고.)
102012 @ 음.(음.)
102012 #7 정월 초ᄒᆞ룰날 허고.(정월 초하룻날 하고.)
102012 @ 그문 삼춘 아들이영 메누리영 증손자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쯤 뒘수과? 멧 사름?(그러면 삼촌 아들이랑 며느리랑 증손자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쯤 되십니까? 몇 사람?)
102012 #7 쑤무나믄 개 뒈주게.(스물 몇 사람 되지.)
101012 @ 쑤무나문 개? 예, 아이고 알아수다. 고맙수다예. 이, 삼춘이야기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예.(스물 몇 사람? 예, 아이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삼촌이야기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게요.)
102012 #7 어.(어.)

3. 밭일

103001 @ 어, 지금부터는예 밧일에 데헤가지고 여쭤보쿠다예. 밧일은 그냥 쉬운 거라예. 헤난 거 그대로 말씀헤주시면 뒈어예.(어, 지금부터는요 밭일에 대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밭일은 그냥 쉬운 겁니다. 했던 거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02001 #3 어.(어.)
102001 @ 밧일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잇엇습니까?(밭일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3001 #3 밧일, 농사허는 거?(밭일, 농사하는 거?)
103001 @ 예. 농사 종류들 어떤 거 이섯수과?(예. 농사 종류들 어떤 거 있엇습니까?)
103001 #3 ᄀᆞᆯ읍서.(말하십시오.)
103001 #4 어떤 농사? 엿날 보리 갈아난 거?(어떤 농사? 옛날 보리 갈았던 거?)
103001 #3 어.(어.)
103001 @ 예, 보리 갈아나고, 또?(예, 보리 갈았었고, 또?)

103001 #4 보리찝 이민게 걸름 내근엥에 서껑.(보릿짚 이면 거름 내어서 섞어서.)
103001 @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보크라예?(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 볼게요?)
103001 #3 아아.(아아.)
103001 @ 그니까 무신 농사? 농사 종류. 보리농사가 잇고 또? 조농사가 잇고 또?(그러니까 무슨 농사? 농사 종류. 보리농사가 있고 또? 조농사가 있고 또?)
103001 #4 그거.(그거.)
103001 #3 산듸도 잇고.(밭벼도 있고.)
103001 @ 산듸도 잇고예?(밭벼도 있고요?)
103001 #4 모물도 잇고.(메밀도 있고.)
103001 @ 모물도 잇고, 또?(메밀도 있고, 또?)
103001 #3 엿날엔 콩을 하영 안 갈아나서.(옛날엔 콩을 많이 안 갈았었어.)
103001 #4 엿날엔 밀도 허고게.(옛날엔 밀도 하고.)
103001 @ 밀도 헤낫수과?(밀도 했었습니까?)
103001 #3 밀도 헷수게.(밀도 했습니다.)

보리농사

103002 @ 지금부터는 보리농사에 데헤서 여쭤보크라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 어떤 것들이 준비가 뒈야 뒛수과?(지금부터는 보리농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됐습니까?)
103002 #4 보리농서 허젠 허민게 걸름 내영.(보리농사 하자고 하면 거름 꺼내서.)
103002 @ 예.(예.)
103002 #4 걸름 내영은엥에 돗걸름에 서꺼근엥에.(거름 꺼내서 돼지거름에 섞어서.)
103002 #3 도새기통에.(돼지우리에.)
103002 #4 도새기통에 헹 걸름을 내영.(돼지우리에 해서 거름을 꺼내어.)
103002 @ 예.(예.)
103002 #3 도새길 질루민 도새기 영 담 다왕.(돼지 기르면 돼지 이렇게 돌담 쌓아.)
103002 @ 예.(예.)
103002 #3 엿날 도새길 질롯주.(돼지를 길렀지.)
103002 @ 예, 예예.(예, 예예.)
103002 #3 질루민 그기 막 쉐걸름도 담앙 놓곡, 무시 것도 하영 담아 놩, 그것 막 썩어서 더 거기서 썩으면.(기르면 거기 마구 소거름도 담아서 넣고, 무슨 것도 많이 담아 넣어, 그것 막 썩어서 더 거기서 썩으면.)
103003 @ 썩어서 준비가 뭰 거잖아예?(썩어서 준비가 된 거잖아요?)
103003 #3 어,(어.)
103003 #4 어.(어.)
103003 @ 그러면 보리밧 거름을 만들젠 허민 어떻게 만들엇수과?(그러면 보리밭 거

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3003 #3 게, 그 걸름을 만들젠 허면은.(그래, 그 거름을 만들려고 하면.)
103003 @ 예.(예.)
103003 #3 그 걸름을 또 내어 놔사 사름이 터내영.(그 거름을 또 꺼내어 놓아야 사람이 떠내서.)
103003 @ 예.(예.)
103003 #3 쉐스렁으로 영 막 터내영.(쇠스랑으로 이렇게 마구 떠내서.)
103003 @ 예.(예.)
103003 #3 그게 경허민 그게 썩으난 그때는 저 그 터내영 보리씨영 삐영은엥에 막 불려놧주, 쉐로.(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썩으니까 그때는 저 그 꺼내서 보리씨하고 뿌려서 마구 밟아놓았지, 소로.)
103003 @ 쉐로 불령 그다음에 어떵 헷수과?(소로 밟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3003 #4 쉐로 불려근엥 올려.(소로 밟아서 올려.)
103003 @ 예.(예.)
103003 #4 올려근엥에 쭉 허게 놩.(올려서 쭉 하게 놓아서.)
103003 @ 예.(예.)
103003 #4 이제 그 멩텡이에 담앙.(이제 그 망태기에 담아서.)
103003 @ 예.(예.)
103003 #4 멩텡이에 담아근엥에 밧듸 강 삐여근엥에 걸름을 탁탁 허게시리 영 헤낫주.(망태기에 담아서 밭에 가서 뿌려서 거름을 탁탁 하게끔 이렇게 했었지.)
103003 #3 손으로 영 찌지멍 놧주.(손으로 이렇게 찢으면서 놓았지.)
103003 #4 삐어낫주. 쭉 허게시리 쭉 허게 페와놔근엥에.(뿌렸었지. 쭉 하게끔 쭉 하게 펴놓아서.)
103003 @ 저, 혼사름씩 허게예?(저, 한사람씩 하게요.)
103003 @ #3 응, 뭐?(응, 뭐?)
103003 @ 혼사름씩마씸.(한사람씩이요.)
103003 #3 응.(응.)
103003 #4 쭉 허게 페와근엥에.(쭉 하게 펴놓고.)
103003 @ 예. 쭉 페와 놓면 씨영 ᄀᆞ찌 서꺼졍 허는 거잖아예?(예. 쭉 펴서 놓으면 씨랑 같이 섞여 하는 거잖아요?)
103003 #4 응, 씨영 ᄀᆞ찌 서껑, 그추룩 헤나시녜.(응, 씨랑 같이 섞어서, 그처럼 했었네.)
103004 @ 보리씨는 아까 거름이랑 서껑 헌거고예? 보리씨는예?(보리씨는 아까 거름이랑 섞어서한 거고요 ? 보리씨는요?)
103004 #4 응, 응응.(응, 응응.)
103006 @ 그다음 보리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그다음 보리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3006 #3 보리?(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겉보리도 잇고.(겉보리도 있고.)
103006 @ 예.(예.)
103006 #3 주넹이보리도 잇고.(맥주보리도 있고.)
103006 @ 예.(예.)
103006 #3 솔보리도 잇고.(쌀보리도 있고.)
103006 @ 예.(예.)
103006 #3 경헷주게.(그렇게 했지.)
103006 @ 경헷수과?
103006 #3 으, 응응.(응, 응응.)
103007 @ 그다음엔예? 그 보리를 뿌리면 겨울이 오잖아예?(그다음은요? 그 보리를 뿌리면 겨울이 오잖아요?)
103007 #3 에.(예.)
103007 @ 보리밟기 헤낫수과?(보리밟기 했었습니까?)
103007 #3 보리 붋아서.(보리 밟았어.)
103007 @ 어떤 식으로 붋앗수과?(어떤 식으로 밟았습니까?)
103007 #3 그 발로.(그 발로.)
103007 @ 예.(예.)
103007 #3 그 보리가 걸름을 탁탁탁 영 놓아 놓면은.(그 보리가 거름을 탁탁탁 이렇게 놓아 놓으면.)
103007 @ 예.(예.)
103007 #3 그 모록모록허게[78] 나잖아 보리.(그 '모록모록'하게 나잖아 보리.)
103007 @ 예.(예.)
103007 #3 뭉텡이 나잖아.(뭉텅이 나잖아.)
103007 @ 예.(예.)
103007 #3 보리가 뭉텡이 저근에 하나로.(보리가 뭉텅이 져서 하나로.)
103007 @ 예,(예.)
103007 #3 게민 그걸 막 그 겨울 들어 막 눈 오고 ᄒᆞ민 고사불민 들러저부난.(그러면 그걸 막 그 겨울 들어 막 눈 오고하면 얼어버리면 들어져버려서.)
103007 @ 예, 예예.(예, 예예.)
103007 #3 걸 막 발로 붤라서, 발로 막 붤라.(걸 막 발로 밟았어, 발로 막 밟아.)
103007 @ 아.(아.)
103008 @ 그다음엔 보리밧엔 검질은 멧 번 멧수과?(그다음엔 보리밭엔 김은 몇 번 맸습니까?)

78) '모록모록하다'는 나무나 풀, 꽃, 채소 따위가 한데 뭉쳐나서 소담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형용사다.

103008 #4 혼 불쯤 멧주, 혼 불.(한 벌쯤 맸지, 한 벌.)
103008 @ 혼 불예?(한 벌이요?)
103008 #3 보리밧딘 으라 번 안 메여.(보리밭엔 여러 번 안 매.)
103009 @ 그다음에는예 보리밧딘 어떤 검질들이 이섯수과?(그다음은요 보리밭엔 어떤 김들이 있었습니까?)
103009 #4 그 여꿰 닮은 거.(그 여뀌 닮은 거.)
103009 #3 겨울 풀.(겨울 풀.)
103009 @ 여뀌가 잇고. 겨울 풀이 잇고.(여뀌가 있고. 겨울 풀이 있고.)
103009 #3 겨울 풀이난에 대게 콩풀[79].(겨울 풀이니까 대게 콩풀.)
103009 #4 콩풀(콩풀.)
103009 @ 이름이 콩풀마씸?(이름이 콩풀이요?)
103009 #3 콩풀이엔 헷주 우린.(콩풀이라고 했지 우린.)
103009 @ 예.(예.)
103009 #3 콩풀, 콩풀이엔 헷어, 그 겨울 풀은.(콩풀, 콩풀이라고 했어, 그 겨울 풀은.)
103009 @ 겨울 풀은 콩풀, 그거벳긔 엇엇수과?(겨울 풀은 콩풀,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103009 #4 그거허곡 씨메꿰.(그거하고 며느리밑씻개.)
103009 @ 씨메꿰예?(며느리밑씻개?)
103009 #3 쒜뭬끼, 궤대우리도 잇고 대우리.(며느리밑씻개, 귀리도 있고 귀리.)
103009 @ 대우리예?(귀리요?)
103009 #3 대우리렌 혼 거도 이서서.(귀리라고 한 것도 있었어.)
103009 @ 아까 씨뭬께렌 헷수과 쒜메께렌 헷수과?(아까 '씨뭬께'라고 했습니까, '쒜메께'라고 했습니까?)
103009 #3 쒜메께.('쒜메께'.)
103009 #4 쒜뭬께.('쒜메께'.)
103009 @ 쒜메께.('쒜메께'.)
103009 #4 건 벌겅허느녜.(건 벌겋지.)
103009 @ 알앗수다예.(알았습니다.)
103010 @ 그다음엔 보리를 이제 거둘 거 아니꽈예? 거둘 때, 처음에 보리 베는 거부터 시작헤가지고 한 번 골아줘봅서.(그다음엔 보리를 이제 거둘 거 아닙니까? 거둘 때, 처음에 보리 베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말해보세요.)
103010 #3 호미로 비엇주게.(낫으로 베었지.)
103010 @ 호미로 베엉.(낫으로 베어서.)
103010 #3 호미로 비영 거 물류우민 물르민 무껏주.(낫으로 베서 그거 말리면 마르면 묶었지.)

79) '콩풀'은 유럽점나도나물을 말한다.

103010 @ 예.(예.)
103010 #3 무껑, 또 눌어서. 눌엇다가 장만허는 거라.(묶어서, 또 가려서. 가렸다가 장만하는 거야.)
103010 #4 게영, 홀태로 홀타.(그렇게 해서, 홅이로 홅어.)
103010 #3 영 클로 홀탕.(이렇게 틀로 홅어서.)
103010 @ 클로예?(틀로요?)
103010 #4 마당에 앗당.(마당에 가져다가.)
103010 @ 마당에 앗다당예?(마당에 가져다가요?)
103010 #3 마당에 앗당 홀탕 두드리곡.(마당에 가져다가 홅어서 두드리고.)
103011 @ 게 두드릴 땐?(그럼 두드릴 때는?)
103011 #3 도께로.(도리께로.)
103011 @ 어, 도께로만 헷수과?(어, 도리께로만 했습니까?)
103011 #3 도께로.(도리께로.)
103011 #4 도께로.(도리께로.)
103011 @ 홀탄 다음에 이제 도께 질 허는 거예.(홅은 다음에 이제 도리께 질 하는 거요.)
103011 #3 음 음, 도께로.(음 음, 도리께로.)
103012 @ 그다음에 보리 홀타근에 도께로 두둘기잖아예? 그다음엔 보리쌀은 어떵 장만헷수과?(그다음에 보리 홅아서 도리께로 두들기잖아요? 그다음엔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103012 #4 쏠은? 물ᄀᆞ레.(쌀은? 연자매로.)
103012 #3 쏠, 그 물ᄀᆞ레에도 골주. ᄀᆞ레에.(쌀, 그 연자매에도 갈지. 맷돌에.)
103012 @ 물ᄀᆞ레에.(연자매에.)
103012 #4 큰 멧돌 서서.(큰 맷돌 있었어.)
103012 #3 큰 멧돌이민 그레 물 버므령.(큰 맷돌이면 그리 물 버무려서.)
103012 @ 예.(예.)
103012 #3 물 버므령 그레 영 가민 빙빙 그 사름으로 막 밀령 골앗주.(물 버무려서 그리 이렇게 가면 빙빙 그 사람으로 마구 밀어서 갈았지.)
103012 @ 물고렌디도 사름으로 헷수과? 물 안 무껑?(연자맨데도 사람으로 했습니까? 말 안 묶어서?)
103012 #3 사름으로 허고 물도 메왕 허곡.(사람으로 하고 말도 매어서 하고.)
103012 #4 그거민 물 매왕 헐 때는 막 저 ᄒᆞ끔 늦언.(그거면 말 매어 할 때는 막 저 조금 늦어서.)
103012 #3 처음엔 사름으로만 헤서.(처음엔 사람으로만 했어.)
103012 @ 사름으로만 헌게, 혹시 일제 때는 어떵 헷수과?(사람으로만 한 게, 혹시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12 #4 일제, 일제 때도 게 그게 경 헨에 골앗주게.(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도

그 그게 그렇게 해서 갈았지.)
103012 #3 일제 때도 그거주. 그축 헹 살앗주게. 경 헨 살안.(일제강점기 때도 그거지. 그렇게 해서 살았지.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3012 @ 그냥? 그게 언제까지 헷수과?(그냥? 그게 언제까지 했습니까?)
103012 #4 옛날엔 다 전 뎅겨시녜. 에이고.(옛날엔 다 져서 다녔어. 아이고.)
103012 @ 방앗간 놔두고?(방앗간 놔두고?)
103012 #3 방엣간이, 그땐 방앗간이 잘 엇엇어.(방앗간이, 그땐 방앗간이 잘 없었어.)
103012 #4 방에가 엇엇어.(방아가 없었어.)
103012 #3 옛날에 방앗간이 어선, 그 물ᄀᆞ레엔 헌 거.(옛날엔 방앗간이 없어서, 그 연자매라고 한 그거.)
103012 @ 방앗간이 언제부터 이섯수과?(방앗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03012 # 3 방앗간이 그게 멧.(방앗간이 그게 몇.)
103012 @ 옛날엔 방앗간보고 뭐렌 골앗수과?(옛날엔 방앗간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12 #3 기곗방.(기곗방.)
103012 @ 기곗방.(기곗방.)
103012 #3 음.(음.)
103012 #4 기곗방 나건 덴 오래지 아년 거주.(기곗방 나온 데는 오래지 않은 거지.)
103012 #3 ᄀᆞ만셔보라. 그게 멧 년, 멧 헤, 우리 멧 설 때여마는.(가만있어봐라. 그게 몇 년, 몇 해, 우리 몇 살 때였지.)
103012 @ 전기 나기 전이꽈? 후꽈?(전기 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103012 #3 전이.(전에.)
103012 @ 전에 나긴 헷수과?(전에 나긴 했습니까?)
103012 #3 응. 전기 나기 전에.(응. 전기 나기 전에.)
103012 @ 왜냐하면 기곗방은 기게 돌리젠 허믄 전기로 돌렷일 거 아니꽈?(왜냐하면 기곗방은 기계 돌리려고 하면 전기로 돌렸을 거 아닙니까?)
103012 #3 그때 그 전기가 아니라.(그때 그 전기가 아니라.)
103012 #4 발동기 살려서 헷어.(발동기 살려서 했어.)
103012 @ 아, 발동기로. 그믄 천구백칠십 년 전이어예? 칠십구 년 뭐, 그때 전기들 들어왓덴 허난에.(아, 발동기로. 그러면 천구백칠십 년 전이네요? 칠십구 년 뭐, 그때 전기들 들어왔다고 하니까.)
103012 #3 아이고 저, 칠십 년 전이주.(아이고 저, 칠십 년 전이지.)
103012 @ 칠십 년 전이어예.(칠십 년 전이네요.)
103012 #4 것도 옛날이엇주.(그것도 옛날이었지.)
103013 @ 그다음엔예? 보리쌀을 가근에 ᄀᆞ레에 골아오면.(그다음엔예? 보리쌀을 가서 맷돌에 갈아오면.)
103013 #3 어.(어.)

103013 @ 보리쌀로는 주로 어떤 걸 헤먹엇수과?(보리쌀로는 주로 어떤 걸 해먹었습니까?)
103013 #3 집에 오랑 ᄀᆞ레에 거펏어.(집에 와서는 맷돌에 거피했어.)
103013 @ 거펏수과?(거피했습니까?)
103013 #3 쏠 뒈게 거 벌러지게.(쌀 되게 그거 벗겨지게.)
103013 #4 정ᄀᆞ레에.(풀맷돌에.)
103013 #3 보리도 흔 불만 골앙 안뒈서. 둬 벌 골앗주.(보리도 한 벌만 갈아서 안 됐어. 두어 벌 갈았지.)
103013 @ 집에서 정ᄀᆞ레로에.(집에서 풀맷돌로요.)
103013 #3 어.(어.)
103013 @ 아까 삼춘 막 힘들엇덴 헌 거 그걸로.(아까 삼촌 매우 힘들었다고 한 그거 그걸로.)
103013 #3 응응, ᄀᆞ레도 골곡, 치멍 그추룩도 헤영 ᄒᆞ고.(응응, 맷돌도 갈고, 치면서 그처럼도 해서 하고.)
103013 @ 게, 걸로 뭐헤영 먹엇수과?(그래, 그걸로 뭐해서 먹었습니까?)
103013 #3 밥헹 먹엇주게.(밥해서 먹었지.)
103013 @ 보리밥?(보리밥?)
103013 #3 보리밥.(보리밥.)
103013 @ 보리밥 벳긔 안 헤먹엇수과?(보리밥 밖에 안 해먹었습니까?)
103013 #3 보리밥 벳긔 안 헤먹엇주게.(보리밥 밖에 안 해먹었지.)
103013 #4 보리밥 헤먹엇주.(보리밥 해먹었지.)
103013 #3 여름 나민 보리밥.(여름 오면 보리밥.)
103013 @ 개역 안 헤먹엇수과?(미숫가루도 안 해먹었습니까?)
103013 #4 어, 개역도 헷어.(어, 미숫가루도 했어.)
103013 #3 개역도 헤먹언. 개역도 헤먹엇주게.(미숫가루도 해먹었어. 미숫가루도 해먹었지.)
103013 @ 개역도 헤먹엇지예?(미숫가루도 해먹었지요?)
103013 #3 어.(어.)
103013 @ 그다음엔 혹시 보까다근에 물, 보리찬 안 끌려먹어봣수과?(그다음엔 혹시 볶아다가 물, 보리찬 안 끓여먹었습니까?)
103013 #3 아이고, 보리차 아녜연.(아이고, 보리찬 않았어.)
103013 #4 그거 차 아녜연..(그거 차 않았어.)
103013 @ 그믄 아이덜 베탈 나근에 허민 어떵 헷수과?(그러면 아이들 배탈 나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3013 #4 탈나근에 하영 죽엇주게, 경허난 애기덜. 애기덜이 나민 죽고, 나민 죽고 엿날 할망덜.(탈나서 많이 죽었지, 그러니 아기들. 아기들이 나면 죽고, 나면 죽고 옛날 할머니들.)

103013 #3 베탈 나민 소금물이나 헹 먹어낫주. 베 아프민 소금물 헹 먹어낫주.(배탈 나면 소금물이나 해서 먹었었지. 배 아프면 소금물 해서 먹었었지.)
103013 #4 대산이 물이나 먹곡.(마늘 물이나 먹고.)
103013 #3 베 아프민 대산이 울린 물 먹곡, 소금물 먹곡 헷주.(배 아프면 대산이 우린 물 먹고, 소금물 먹고 했지.)
103014 @ 그담엔 보리 갈아나면 쌀은 밥을 헤먹거나 개역을 헤먹잖아예? 그담엔 남는 찌끄레기를 뭐렌 골앗수과?(그담엔 보리 갈아나면 쌀은 밥을 해먹거나 개역을 해먹었잖아요? 그담엔 남는 찌끼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14 #3 찌끄레기가 잇게 헤서? 저, 무게기 무게기 헤나신디.(찌끼가 있게 했어? 저, 찌끼 찌끼 했었는데.)
103014 @ 예.(예.)
103014 #3 그 무게기도 엇게 다 골앗주. 게 영 대체로 치멍.(그 찌끼도 없게 다 갈았지. 그 이렇게 대체로 치면서.)
103014 @ 아니, 게난 골아난 그것들. 그 무게기들이영 그것들은 뭐에 썻수과?(아니, 그러니까 갈았던 그것들. 그 찌끼들이랑 그것들은 무엇에 썼습니까?)
103014 #3 무게기는 엇게시리 또 골앗다가 또 골앗다가 헤서 대체로 쳐서 쏠 만들어난. 거프레기는 데껴불고.(찌끼는 없게끔 또 갈았다가 또 갈았다가 해서 대체로 쳐서 쌀 만들었어. 꺼풀은 던져버리고.)
103014 @ 거프레기는 데껴부럿수과?(꺼풀은 던져버렸습니까?)
103014 #4 데껴빗주, 먹질 못허난 그걸.(던져버렸지, 먹질 못하니까.)
103014 #3 ᄀᆞ루 또 나와. ᄀᆞ레 골민, ᄀᆞ루.(가루 또 나와. 맷돌 갈면, 가루.)
103014 @ 것도 다 데껴부럿수과?(것도 다 던져버렸습니까?)
103014 #4 데껴부럿주게. 먹질 못허난.(던져버렸지. 먹질 못하니까.)
103014 #3 ᄀᆞ루 떡 헨 먹엇주.(가루 떡 해서 먹었지.)
103014 #4 영 처근엥에.(이렇게 쳐서.)
103014 #3 줌진체로 처근에 떡 헨 먹어서, 것도.(가는체로 처서 떡 해서 먹었어, 그것도.)
103014 @ 떡 헹 먹엇지예? 그다음엔 줌진체로 헤근에 막 그 ᄀᆞ루들은 떡 헤먹엇덴 허고 그 우에 남앗던 것들은 어떵 헷수과? 체 헹 남앗던 거.(떡 해서 먹었지요? 그다음엔 가는체로 해서 막 그 가루들은 떡 해먹었다고 하고 그 위에 남았던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 쳐서 남았던 거.)
103014 #4 첸 데껴부럿주게.(겨는 던져버렸지.)
103014 @ 뒈지 안 줫수과? 도새기 안 줫수과?(돼지 안 주었습니까? 돼지 안 주었습니까?)
103014 #3 도새기 줫주게. 도새기 질루왕.(돼지 주었지. 돼지 길러서.)
103014 #4 도새기 줫줘. 맞다, 도새기 줫져. 춤 도새기 돗통에 허난 도새기 줫저.(돼지 주었지. 맞다, 돼지 주었지. 참, 돼지 돼지우리에 기르니까 돼지 주었지.)

103014 #3 도새기 질루공 체 헤영.(돼지 기르고 겨 해서.)
103014 @ 그, 보리 까끌까끌한 거, 저 맨 처음에 보리를 털잖아예?(그, 보리 까끌까끌한 거, 저 맨 처음에 보리를 털잖아요?)
103014 #3 응.(응.)
103014 @ 왕은에 이제 도리깨로 두들겨가지고.(와서는 이제 도리깨로 두들겨가지고.)
103014 #3 응.(응.)
103014 @ 이제 알갱이로 만들고 그거를 강 ᄀᆞ레에 강 ᄀᆞᆯ아오면, ᄀᆞᆯ아온 다음에 다시 왕 정ᄀᆞ레로 헷잖아예?(이제 알갱이로 만들고 그거를 가서 풀맷돌에 가서 갈아오면, 갈아온 다음에 다시 와서 맷돌로 했잖아요?)
103014 #3 응 응.(응 응.)
103014 @ 그문 ᄀᆞ레로 ᄀᆞᆯ 때라든가 아니면 맨 처음 털 때, 그 약간 거무스름헌 보리쌀 갈앗던 나머지 까끌까끌한 것들은 뭐에 썻수과?(그러면 맷돌로 갈 때라든가 아니면 맨 처음 털 때, 그 약간 거무스름한 보리쌀 갈았던 나머지 까끌까끌한 것들은 뭐에 썼습니까?)
103014 #4 까끌까끌헌 건 체 영 헤나민 ᄀᆞᆺ사 말짝 아니라도 도새기나 줘벳주 건 먹지 아녓져.(까끌까끌한 건 체 이렇게 하고나면 방금 한말 아니라도 돼지나 줘버렸지 그건 먹지 않았어.)
103014 @ 아니, 먹진 안헹 도새기 주엇구나예?(아니, 먹진 않아서 돼지 주었군요?)
103014 #4 응.(응.)
103014 @ 도새기 먹이로 주엇수과? 아니면?(돼지 먹이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103014 #4 거프레기, 거프레기난.(꺼풀, 꺼풀이니까.)
103014 @ 게난, 돗통에 놔근에 거름으로 쓰게 돗통에 바락바락 비왓수과?(그러니까, 돼지우리에 넣어서 거름으로 쓰게 돼지우리에 바락바락 부었습니까?)
103014 #3 아이아이, 바락바락 안 비왓어.(아니아니, 바락바락 안 부었어.)
103014 #4 비울 게 이서?(부울 게 있어?)
103014 #3 헤끔썩 주엇주게. 도새기덜이 하영 주어서?(조금씩 주었지. 돼지들이 많이 주었어?)
103014 @ 거의 도새기덜에 다 주엇구나예?(거의 돼지들에게 다 주었군요?)
103014 #3 아니.(아니.)
103014 #4 거프레긴 먹도 못허난.(꺼풀은 먹지도 못하니까.)
103014 #3 그 거프레기 도새기 주곡 그 보리도 저 무시거라 그 저 ᄀᆞ루 저 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엥에 헐 때는 도새기 줄게 경 엇어나서, 흔엇이.(그 꺼풀 돼지 주고 그 보리도 저 무엇이야 그 저 가루 저 맷돌에 갈아서 할 때는 돼지 줄게 그렇게 없었어, 별로.)
103014 @ 음.(음.)
103014 #3 그걸, 쏠 뒐수 시민 쏠을 멘들앙 밥을 헤 먹엇주.(그걸, 쌀 될 수 있으면 쌀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었지.)
103014 @ 게도 보리로 그 저 무시거꽈 그거 순다리가 아니라 그 멩질 때나 잔치 때

쓰는, 마시는 거 걸 뭐렌 헙니까? 그 보리 뭘로 만드는 거 엇엇수과? 보리 영 싹 나게 헤가지고 하는 거.(그래도 보리로 그 저 뭡니까 그거 '순다리'가 아니라 그 명질 때나 잔치 때 쓰는, 마시는 거 걸 뭐라고 합니까? 그 보리 뭐로 만드는 거 없었습니까? 보리 이렇게 싹 나게 해서 하는 거.)

103014 #3 감주? 감주.(감주? 가주.)

103014 @ 감주 만들 때 보리 뭘로 헷수과?(감주 만들 때 보리 뭐로 했습니까?)

103014 #3 골. 보리 골 놔.(엿기름. 보리 엿기름 넣어.)

103014 #4 골감지.(엿기름감주.)

103014 @ 골은 뭘로, 어느 상태에 걸로 골을 만들엇수과?(엿기름은 뭐로, 어느 상태에 걸로 엿기름을 만들었습니까?)

103014 #3 저, 줄보리로 골 만들엇주. 줄보리.(저, 맥주보리로 엿기름 만들었지. 맥주보리.)

103014 @ 줄보리로? 골을 만들 때 ᄀᆞᆯ아줍서, 어떵 헷수과?(맥주보리로? 엿기름을 만들 때 말해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03014 #3 물에 영 컷다가.(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103014 @ 예.(예.)

103014 #3 영 건정.(이렇게 건져서.)

103014 @ 예.(예.)

103014 #3 건정 뚯뚯허게 영 놔두민 순이 나, 싹이 나와.(건져서 따뜻하게 이렇게 놔두면 순이 나, 싹이 나와.)

103014 @ 예.(예.)

103014 #3 싹이 나오민, 싹이 요만썩도 나오고 것도 준 쉬엄발이 져. 싹은 말고.(싹이 나오면, 싹이 요만씩도 나오고 것도 잔 수염발이 생겨. 싹은 말고.)

103014 @ 뿌리.(뿌리.)

103014 #3 뿌리가 나와. 거 나와가면은 영 찌지멍 ᄆᆞᆯ리왓주게.(뿌리가 나와. 그거 나가면 이렇게 찢으면서 말렸지.)

103014 @ 음.(음.)

103014 #4 ᄃᆞᆯᄏᆞ름헤여.(달콤해.)

103014 #3 찌지멍 ᄆᆞᆯ류왕 걸 ᄀᆞᆯ미는 그 골이 뒈는 거라.(찢으면서 말려서 그걸 갈면 그 엿기름이 되는 거야.)

103014 @ 그게 골이 뒈는 거구나예?(그게 엿기름이 되는 거군요?)

103014 #4 골감지, 엿날엔 골감지엔 헷주.(엿기름감주, 옛날에는 엿기름감주라고 했지.)

103014 #3 경허민 좁쏠 개미는 죽 쑤워근엥에 그 골에 흔디 서터땅 그게 ᄒᆞ끔 발우가 뒈면은 걸러근엥에, 걸러근엥에 딸리민 감주가 뒈는 거주.(그러면 좁쌀 찌끼는 죽 쒀서 그 엿기름에 같이 섞었다가 그게 조금 발효가 되면 걸러서, 걸러서 다리면 감주가 되는 거지.)

103014 @ 감주가 뒈는 거구나예?(감주가 되는 거네요?)
103015 @ 어, 보리농사 지으멍, 특히 삼춘 같은 경우에 저기 남자어른 돌아가셔부난.(어, 보리농사 지으면서, 특히 삼촌 같은 경우에 저기 남자어른 돌아가셔버려서.)
103015 #3 에.(예.)
103015 @ 보리농사 지으멍 뭔가 막 그 재밋거나 아니면 막 힘들엇거나 슬픈 일 엇엇수과?(보리농사 지으면서 뭔가 막 그 재밌거나 아니면 막 힘들었거나 슬픈 일 없었습니까?)
103015 #3 하이고, 무사 엇어 말이라?(하이고, 왜 없을 말이야?)
103015 #4 아이고.(아이고.)
103015 @ 혼 가지만 골아줍서.(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103015 #3 게, 보리농서 허민게 시꺼오지도 못허고 집이게 시꺼오젠 허민 놈의 놈 바레기라도 빌어사.(그게, 보리농사 하면 실어오지도 못하고 집에 실어오려 하면 남의 남 마차라도 빌어야.)
103015 #4 맞아, 거기 데멋당.(맞아, 거기 쟁였다가.)
103015 @ 혼 사름씩 골아줍서예?(한 사람씩 말해주세요.)
103015 #3 눌엇다가 바레기 빌어사 시꺼왓주게. 놈의 바레기 빌엉 바레기, 마차. 그땐 바레기엔 골앗주.(가렸다가 마차 빌어야 실어왔지. 남의 마차 빌어서 마차, 마차. 그땐 '바레기'라고 말했지.)
103015 @ 예.(예.)
103015 #3 이젠 마차엔 허주.(이젠 마차라고 하지.)
103015 @ 물 무끈 거마씸? 쉐 무끈 거마씸?(말 맨 거요? 소 맨 거요?)
103015 #3 보리 무끈 거를.(보리 묶은 거를.)
103015 @ 아니, 그니까 마차에 뭐 무끈 거, 뭐 매단 거? 쉐 아니믄 물?(아니, 그러니까 마차에 뭐 맨 거, 뭐 매단 거? 소 아니면 말?)
103015 #3 물도 허곡 쉐도 허곡. 물도 허곡 쉐도 허곡 헤서.(말도 하고 소도 하고. 말도 하고 소도 하고 했어.)
103015 @ 물이나 쉐, 보리를 시끄면 몇 단 정도 시껏수과?(말이나 소, 보리를 실으면 몇 단 정도 실었습니까?)
103015 #3 하영 시끄믄 헤서.(많이 실키는 했어.)
103015 @ 하영 시껀예?(많이 실었어요?)
103015 #3 음.(음.)
103015 @ 게민 한 번 시껑 오민 돈으로 줫수과, 아니믄 뭐 쏠로 줫수과?(그러면 한 번 실어서 오면 돈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뭐 쌀로 줬습니까?)
103015 #3 그자 일도 대신 헤주고.(그저 일도 대신 해주고.)
103015 @ 수눌엉?(품앗이해서?)
103015 #3 응, 수눌엉도 데신 헤주고.(응, 품앗이도 대신 해주고.)
103015 @ 음.(음.)

103015 #3 그자, 돈이 엇엇어, 그땐 돈이 엇어.(그저 돈이 없었어, 그땐 돈이 없어.)
103015 #4 돈 출리국.(돈 차리고.)
103015 #3 돈이 어성 듹새기나 낭 풀지 아녀곡 듹이나 질쾅 풀지 아녀민 돈이 엇엇어 엿날엔.(돈이 없어서 달걀이나 낳아서 팔지 않고 닭이나 키워 팔지 않으면 돈이 없었어, 옛날엔.)
103015 #4 수눌엉 헷주게.(품앗이 했지.)
103015 #3 수눌엉 하영 헷주.(품앗이 많이 했지.)

조농사

103016 @ 알안예, 그다음엔 조농사에 데헤가지고 여쭤보크라예?(알았어요, 그다음엔 조농사에 대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03016 #3 음.(음.)
103016 @ 조농사를 헐 땐 어떤 준비가 필요허우꽈?(조농사를 할 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3 조농사헐 때에는 그, 밧을 쉐로 다 갈앙.(조농사할 때에는 그, 밭을 소로 다 갈아서.)
103016 @ 예.(예.)
103016 #3 초불 갈곡, 두불 갈곡 헤근엥에 물로 막 밧 불려서.(초벌 갈고, 두벌 갈고 해서 말로 마구 밭 밟았어.)
103016 @ 예.(예.)
103016 #3 이레 아자. 펜안히 아자.(이리로 앉아. 편히 앉아.)
103016 @ 예.(예.)
103016 #3 펜펜허게.(평평하게.)
103016 @ 예.(예.)
103016 #3 펜펜허게 혼 불 불려놩 그 좁씨를 또 삐엇주.(평평하게 한 벌 밟아놓고 그 좁씨를 또 뿌렸지.)
103016 @ 예.(예.)
103016 #3 좁씨를 삐민 또 불린 거라. 좁씨를 영 심어지게.(파종용 좁쌀을 뿌리면 또 밟은 거야. 좁씨를 이렇게 심어지게.)
103016 @ 예.(예.)
103016 #3 땅에 심어지게 또, 또 불려.(땅에 심어지게 또, 또 밟아.)
103016 @ 예.(예.)
103016 #3 경헤근엥에 막 멘짝허게 그 조가 이 흑이 흑싹흑싹 허민 조가 아니 염넨 허멍.(그렇게 해서 막 평평하게 그 조가 이 흙이 푸석푸석 하면 조가 아니 여문다고 하며.)
103016 @ 아.(아.)

103016 #3 땅땅허게 불리렝허멍 그거를 막 땅땅허게 불렷주게.(딴딴하게 밟으라고 하며 그거를 매우 딴딴하게 밟았지.)
102016 @ 음.(음.)
102016 #3 경형게, 검질이나 비나 와낭 검질메젠 허민 골개기 안 들어강 차륵차륵[80] 또 땅 팔 뒨 가민 닝끼르곡 경헤나서, 문 들어가지 아녕.(그렇게 해서, 김이나 비나 와나면 김매려 하면 호미 안 들어가서 '차륵차륵' 또 땅 팔 데는 가면 미끄럽고 그랬었어, 모두 들어가지 않아서.)
103016 @ 조농사 헐 땐 땅을 딴딴허게 헤근엥예?(조농사 할 땐 땅을 딴딴하게 해서요?)
103016 #3 어, 땅땅허게.(어, 딴딴하게.)
103017 @ 거문 조밧에는 거름은 어떤 거 헷수과?(그러면 조밭에는 거름은 어떤 거 했습니까?)
103017 #3 조는 그때는 거름이 어디 서서? 그자 헷주.(조는 그때는 거름이 어디 있었어? 그저 했지.)
103017 #4 기자 헷주.(그저 했지.)
103017 @ 조는예?(조는요?)
103017 #3 그루 후제가 옛날 후제가 비로가 나온 후제야 그 비로를 썻주.(그 후에야 옛날 후에가 비료가 나온 후에야 그 비료를 썼지.)
103017 @ 음.(음.)
103017 #3 그전에는 그 엿날 처첨은 보리 갈 때나, 조 불릴 때나 비로가 엇어낫어.(그전에는 그 옛날 처음에는 보리 갈 때나, 조 밟을 때나 비료가 없었어.)
103017 #4 기자 삐영 기자 헷주.(그저 뿌려서 그저 했지.)
103004 @ 그 보리는 언제 갈앗수과?(그 보리는 언제 갈았습니까?)
103004 #3 보리는 구시월에.(보리는 구시월에.)
103004 #4 구시월에.(구시월에.)
103004 @ 구시월에예. 양력으로예?(구시월에. 양력으로요.)
103004 #3 음력으로.(음력으로.)
103004 @ 음력으로?(음력으로?)
103018 @ 그럼 조는 몇 월에 갈앗수과?(그럼 조는 몇 월에 갈았습니까?)
103018 #3 조는 유월절 뒈영. 그민 유월절이 오월에 드느냐 유월에 드느냐.(조는 유월절 돼서. 그르면 유월절이 오월에 들었느냐 유월에 들었느냐.)
103018 @ 음.(음.)
103018 #3 그민 그 절기를 생각행 갈앗주, 절기.(그러면 그 절기를 생각해서 갈았지, 절기.)
103018 #4 혼 오월쯤에 허는 거주.(한 오월쯤에 하는 거지.)
103018 #3 게메는 저, 그 그 절기를 유월절 뒈어근에 유월절 혼 앞서 경헨 갈안.(그

80) '차륵차륵'은 비온 뒤 땅이 굳어 호미로 김을 매기에 미끄러운 상태를 말한다.

러면 저, 그 그 절기를 유월절 되어서 유월절 한 앞서 그래선 갈았어.)
103018 @ 게믄 그때 갈고예?(그러면 그때 갈고요?)
103018 #3 어.(어.)
103019 @ 그 보리씨는 막 걸름허곡 막 서꺼가지고 뿌린덴 헷잖아예?(그 보리씨는 막 거름하고 마구 섞어가지고 뿌린다고 했잖아요?)
103019 #3 음.(음.)
103019 @ 좁씨는 아까 땅땅헌 듸, 뿌려놩 땅땅허게 헷수과? 땅땅헌 듸 뿌렷수과?(좁씨는 아까 딴딴한 데, 뿌려놓고 딴딴하게 했습니까? 딴딴한 데 뿌렸습니까?)
103019 #4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19 #3 초불 불려놩.(초벌 밟아놓아서.)
103019 @ 불린다는 말은 뭐꽈?(밟는다는 말은 뭡니까?)
103019 #3 물로 막 불려놩.(말로 마구 밟아놓아서.)
103019 @ 아, 막 땅땅하게 헤놩.(아, 매우 딴딴하게 해놓아서.)
103019 #3 골라 놩. 펜펜허게 땅을 영 이추룩 그 밧을 쉐로 영 잠데로 갈앙.(고르게 해놓고. 평평하게 땅을 이렇게 이처럼 그 밭을 소로 이렇게 쟁기로 갈아서.)
103019 @ 예.(예.)
103019 #3 그거를 영 골라지게 ᄒᆞ쏠 어는 정도 높으고 낮아운 듸 엇인 때는 좁씨를 삔 거라.(그거를 이렇게 골고루 조금 어는 정도 높고 낮은 데 없는 때는 좁씨를 뿌린 거야.)
103019 @ 뿌리는 거구나예.(뿌리는 거군요.)
103019 #3 ᄌᆞ근ᄌᆞ근 불라.(자근자근 밟아.)
103019 #3 좁씨를 삐영, 또 이제는 그때는 또 불렷주.(좁씨 뿌려서, 또 이제는 그때는 또 밟았지.)
103019 @ 음.(음.)
103019 #3 불려근엥에 이꺼근엥에 물도 여남은 개썩 열댓 개썩 허멍, 쑤무남은 개썩 헹 다 불렷주.(밟아서 이끌어서 말도 여남은 마리씩 열댓 마리씩 하면서, 스무남은 마리씩 해서 다 밟았지.)
103019 @ 아, 조밧 불릴 때는 물 데려다근에 막 헷수과?(아, 조밭 밟을 때는 말 데려다가 마구 했습니까?)
103019 #3 으, 물로.(응, 말로.)
103020 @ 혹시 남테는?(혹시 남태는?)
103020 #3 남테 헤서.(남태 했어.)
103020 #4 남테도 헌다.(남태도 한다.)
103020 #3 그루 후젠 남테도 헤연.(그 후엔 남태도 했어.)
103020 @ 남테도 헤낫수과?(남태도 했었습니까?)
103020 #4 물 안 날 땐 남테 헷주.(말 안 날 땐 남태도 했지.)
103020 @ 남테하고 돌테하고, 돌테도 혹시 헤낫수과?(남태하고 돌태하고, 돌태도 혹

시 했었습니까?)
103020 #3 돌태는 아니 봐나서.(돌태는 아니 봤었어.)
103020 #3 남테.(남태.)
103020 @ 남태로예?(남태로요?)
103020 #3 낭 영 헤근엥에 고망 뚤르멍 영 영 다 멘들아낫어.(나무 이렇게 해서 구멍 뚫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
103020 @ 끙개라는 거 혹시 알아지쿠과? 들어봣수과?(끙개라는 거 혹시 알겠습니까? 들어봤습니까?)
103020 #4 끄슬퀴[81]!(끄서귀!)
103020 #3 끄서퀴주, 끄서퀴.(끄서귀지, 끄서귀.)
103020 @ 끄슬퀴꽈, 끄서퀴꽈?('끄슬퀴'꽈, '끄서퀴'꽈?)
103020 #3 끄설퀴, 끄슬퀴.('끄설퀴', '끄슬퀴'.)
103020 @ 끄슬퀴?('끄슬퀴'?)
103020 #4 그걸로 허영 몰로 매왕도, 멘짝헌 거.(그걸로 해서 말로 매어서도, 평평한 거.)
103020 #3 끄서 놩.(끄어 놓아서.)
103020 @ 끄서키, 끄설퀴.(끄서귀, 끄서귀.)
103020 #4 베나 벨 거 다 이서.(별이 별 것 다 있어.)
103020 #3 거 모물 갈뭬는 끄설키로 끗엇주게.(메밀 갈면 끄서귀로 끄었지.)
103020 @ 음, 끄설키로.(음, 끄서귀로.)
103020 #3 모물은 영 이추룩 즘지룽 허게 골 긋어.(메밀은 이렇게 이처럼 자잘하게 골 그어.)
103020 #4 쳅아놩.(집어넣어서.)
103020 #3 접아 놩. 거 막아지게 끗엇주게.(집어넣어. 거 막아지게 끄었지.)
103021 @ 조밧에는 검질은 몇 번 멧수과?(조밭에는 김은 몇 번 맸습니까?)
103021 #3 조는 서너 번 멧어.(조는 서너 번 맸어.)
103021 @ 아, 서너 번마씸?(아, 서너 번이요?)
103021 #3 초불 두불 세불도 메고.(초벌 두벌 세벌도 매고.)
103021 #4 아, 엿날엔 검질 짓어.(아, 옛날엔 김 깃었어.)
103021 #3 어.(어.)
103022 @ 그담엔 조밧딘 어떤 검질 나낫인디 혹시 기억남수과?(그담엔 조밭엔 어떤 김 났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3022 #3 조밧딘 제완지.(조밭엔 바랭이.)
103022 @ 제완지예?(바랭이요?)
103022 #4 모에제완지[82] 막 나난.(바랭이 마구 났었어.)

81) '끄설퀴'는 표준어 '끄서귀'를 이르는 말이나 '그서키', '끄슬퀴'등 발화자에 따라 발음이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82) '모에제완지'는 바랭이의 한 종류다.

103022 #3 그거 절완지, 절완지 허는 거. 우리 제완지, 제완지 헤나신디, 제완지도 모에제완지 춤제완지 헷주.(그거 바랭이, 바랭이 하는 거. 우리 바랭이, 바랭이 했었는데, 바랭이도 '모에제완지' '춤제완지[83]' 했지.)

103022 #4 민짝헌[84] 거.('민짝'한 거.)

103022 #3 쉐터럭.(김의털.)

103022 @ 잠깐만예? 제완지 중에서 모에제완지, 춤제완지예?(잠깐만요? 바랭이 중에서 '모에제완지', '춤제완지'요?)

103022 #4 쉐터럭도 나곡.(김의털도 나고.)

103022 @ 모에제완지, 춤제완지예?('모에제완지', '춤제완지'요?)

103022 #3 응.(응.)

103022 @ 쉐터럭예?(김의털요?)

103022 #3 쉐터럭도. 쉐터럭이엔 헌 거. 젠젠헌 거 꼬졸꼬졸[85]허게 막 나.(김의털도. 김의털이라고 한 거. 자잘한 거 '꼬졸꼬졸'하게 마구 나.)

103022 #4 젠젠헌 거, 빼쪽빼쪽헌 거.(자잘한 거, 뾰족뾰족한 거.)

103022 @ 그다음엔 제완지나 쉐터럭이나 또 다른 건 엇엇수과?(그다음엔 바랭이나 김의털이나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3022 #3 그 여름에는 그 조팟뒨 흔엇이 그런 거 벳긔 엇어난.(그 여름에는 그 조밭엔 별로 그런 거 밖에 없었어.)

103022 @ 그거 벳긔예?(그거 밖에요?)

103022 #3 그 ᄀᆞ라지 같은 거 서터젓주.(그 가라지 같은 거 섞여있지.)

103022 @ ᄀᆞ라지예?(가라지요?)

103022 #3 ᄀᆞ라지도 메어불곡. ᄀᆞ라지영.(가라지도 매버리고. 가라지하고.)

103023 @ 그다음엔예? 조, 이제는 그 수확을 헤야 뒈잖아예?(그다음은요? 조, 이제는 그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103023 #3 응.(응.)

103023 @ 거둬드려야 하잖아예?(거둬드려야 하잖아요?)

102023 #3 응.(응.)

102023 @ 거둬드릴 때는 어떻게 베어가지고 묶는 건 어떵 헷수과?(거둬드릴 때는 어떻게 베어가지고 묶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102023 #3 호미로 막 비엇주 다.(낫으로 마구 베었지 다.)

102023 @ 다 비엉예?(다 베어서요?)

102023 #3 호미로 다 비엉.(낫으로 다 베어서.)

102023 @ 예.(예.)

102023 #3 거 다 무껑.(다 묶어서.)

102023 @ 예.(예.)

---

83) '춤제완지'는 바랭이의 한 종류다.
84) '민짝ᄒᆞ다'는 '미끈하고 평평하다.'를 뜻하는 말이다.
85) '꼬졸꼬졸'은 새싹이 막 솟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02023 #3 것도 집이 실러 와야.(그것도 집에 실어 와야.)
102023 @ 그거 무끌 땐 좃단하고 보릿단하고는 구분 뒈마씸?(그거 묶을 땐 조단하고 보릿단하고는 구분 되나요?)
102023 #3 응. 조는 저 크게 무껏어.(응. 조는 저 크게 묶었어.)
103023 @ 보리보다?(보리보다?)
103023 #3 보리보다.(보리보다.)
103023 @ 음.(음.)
103023 #3 ᄋᆞ슷 단이 ᄒᆞᆫ 바리 헷수과?(여섯 단이 한 바리 했습니까?)
103023 #4 응. ᄋᆞ슷 단이.(응. 여섯 단이.)
103023 #3 거는 ᄒᆞᆫ 바리.(그거는 한 바리.)
103023 @ ᄋᆞ섯 단이 ᄒᆞᆫ 바리 헷수과?(여섯 단이 한 바리 했습니까?)
103023 #4 응, ᄋᆞ슷 단이 ᄒᆞᆫ 바리.(응, 여섯 단이 한 바리.)
103023 #3 보리는 ᄊᆞ물넉 단이 ᄒᆞᆫ 바리 헷수과?(보리는 스물넉 단이 한 바리 했습니까?)
103023 #4 응, ᄊᆞ물넉 단이 ᄒᆞᆫ 바리.(응, 스물넉 단이 한 바리.)
103023 #3 보리는 ᄊᆞ물넉 단이 ᄒᆞᆫ 바리허고, 조는 ᄋᆞ섯 단이 ᄒᆞᆫ 바리.(보리는 스물넉 단이 한 바리하고 조는 여섯 단이 한 바리.)
103023 @ 조는 ᄋᆞ섯 단이 ᄒᆞᆫ 바리고예?(조는 여섯 단이 한 바리하고요?)
103023 #3 응. 훅게 훅게 무꺼. 이만 썩 무꺼. 이만 썩 무꺼(두 팔을 벌려 크게 안으로 모으며).(응. 굴게 굵게 묶어. 이만 씩 묶어. 이만 씩 묶어(두 팔을 벌려 크게 안으로 모으며).)
103024 @ 그다음에는예 어, 조 타작헐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은요 어, 조 타작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24 #3 조도 그 톧아, 집이 오랑 경헹 톧아.(조도 그 뜯어, 집에 와서 그렇게 해서 뜯어.)
103024 @ 기냥 손으로 톧앗수과?(그냥 손으로 뜯었습니까?)
103024 #3 손으로 톧아, 건 손으로 톧아.(손으로 뜯어, 건 손으로 뜯어.)
103024 @ 도께 질헐 땐마씸?(도리께 질할 때는요?)
103024 #3 손으로 톧앙, 고고리만 헤영.(손으로 뜯어서, 이삭만 해서.)
103024 @ 예.(예.)
103024 #3 고고리만 마당에 널엉.(이삭만 마당에 널어서.)
103024 @ 예.(예.)
103024 #3 널엉 그때엔 도께로 두두리는 거.(널어서 그때엔 도리께로 두드리는 거.)
103024 @ 음, 도께로만 두두렷수과?(음, 도리께로만 두드렸습니까?)
103024 #3 도께로만 두두리주게.(도리께로만 두드렸지.)
103024 @ 혹시 뭐 덩드렁마께 같은 건 안 썻수과?(혹시 뭐 방망이 같은 건 안 썼습니까?)

103024 #3 이딘 던드렁마께[86] 안 써봔.(여긴 방망이 안 써봤어.)
103024 #4 던드렁마께도 쓰는 사름은 썻주.(방망이도 쓰는 사람은 썼지.)
103024 #3 그 저 ᄒᆞ끔씩 헌 거.(그 저 조금씩 한 거.)
103024 @ ᄒᆞ꼼씩 헌 거.(조금씩 한 것.)
103024 #3 응, 경헷주게.(응, 그렇게 했지.)
103025 @ 그다음엔 그거 이제 도께로 두둘겨근에.(그다음엔 그거 이제 도리께로 두들겨서.)
103025 #3 응.(응.)
103025 @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먹을 수 있게 조를, 그다음엔 어디 강 어떵 헷수과?(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먹을 수 있게 조를, 그다음엔 어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3025 #3 조, 그거를 불련 거주.(조, 그거를 불린 거지.)
103025 @ 예, 불령.(예, 불려서.)
103025 #3 불령.(불려서.)
103025 @ 예.(예.)
103025 #3 ᄆᆞᆯ류왕.(말려서.)
103025 @ 예, 예.(예, 예.)
103025 #3 햇빗듸 ᄆᆞᆯ류민, 그때도 기곗방이 안 난 때는 ᄀᆞ레에 ᄀᆞᆯ앙.(햇볕에 말리면, 그때도 방앗간이 안 생긴 때는 맷돌에 갈아서.)
103025 @ ᄀᆞ레에 ᄀᆞᆯ앙예.(맷돌에 갈아서요.)
103025 #3 ᄀᆞ레에 ᄀᆞᆯ민 그걸 저 그 조가 늬가 잇젠 허주. 조 이신 것 ᄀᆞᆯ아 늬 잇젠 ᄀᆞᆯ아.(맷돌에 갈면 그걸 저 그 조가 뉘가 있다고 하지. 조 있는 것 보고 뉘 있다고 말해.)
103025 #4 하하하(하하하.)
103025 @ 예.(예.)
103025 #3 조가 그 좁쏠에.(조가 그 좁쌀에.)
103025 @ 예.(예.)
103025 #3 아니 껍데기 안 벗어진 거 이서.(아니 껍데기 안 벗겨진 거 있어.)
103025 @ 예.(예.)
103025 #3 영 보민, 게민.(이렇게 보면, 그러면.)
103025 #4 늬엔 ᄀᆞᆫ주(뉘라고 말하지.)
103025 #3 아이고, 늬 잇저게 늬, 더 ᄀᆞᆯ아사키여.(아이고, 뉘 있지 뉘, 더 갈아야겠어.)
103025 @ 음.(음.)
103025 #3 막 침도 허곡.(마구 치기도 하고.)
103025 @ 음.(음.)

86) '던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103025 #4 엿날, 아이고, 게메.(옛날, 아이고, 그러게.)
103025 #3 게난, 에롭게 살앗주.(그러니, 어렵게 살았지.)
103026 @ 그러면은예? 좁쌀, 조로는 뭐 뭐 헤먹엇수과?(그러면요? 좁쌀, 조로는 뭐 뭐 해먹었습니까?)
103026 #3 조, 조팝 헤먹엇주게.(조, 조밥 해먹었지.)
103026 @ 조팝 해먹고.(조밥 해먹고.)
103026 #4 조팝도 헤먹곡, 죽도 쒀먹곡.(조밥도 해 먹고, 죽도 쒀먹고.)
103026 @ 또 뭐 헤먹엇수과?(또 뭐 해먹었습니까?)
103026 #3 아이구, 경헷주, 거 벳긔 안 헷주게.(아이고, 그랬지, 그것 밖에 안 했지.)
103026 #4 죽 쒀먹곡 기자 밥도 허곡 헷주게.(죽 쒀 먹고 그저 밥도 하고 했지.)
103026 #3 거고 흐린좁쏠은 골앙 범벅도 헤먹곡.(그리고 차조는 갈아서 범벅도 해먹고.)
103026 @ 감주나 술은 안 헤먹어봣수과?(감주나 술은 안 해먹어봤습니까?)
103026 #3 감주, 술도 허주. 무사 아녀?(감주, 술도 하지. 왜 안 해?)
103026 @ 술도 헤봣수과?(술도 빚어봤습니까?)
103026 #3 술도 헷주게.(술도 빚지.)
103026 #4 술도 허는 사람은 헤주.(술도 빚는 사람은 빚지.)
103026 #3 흐린좁쌀로 술 헤여. 우리 어머니넨 술을 막 헤난. 우리아버지 술 잡솨부난.(차조로 술 빚어. 우리 어머니네 술을 막 빚었었어. 우리아버지 술 잡숴버려서.)
103026 @ 삼춘은 안 헤봣수과?(삼촌은 안 빚어봤습니까?)
103026 #3 헤봔. 나도 우리 씨아방 둘앙 살젠 허난.(빚어봤어. 나도 우리 시아버지 데려서 살려고 하니까.)
103026 #4 청주 앗져근에, 아이구.(청주 안쳐서, 아이고.)
103026 #3 헤봣주게, 그 누룩에.(해봤지, 그 누룩에.)
103026 @ 청주 만들 때.(청주 만들 때.)
103026 #3 음.(음.)
103026 @ 그.(그.)
103026 #4 ᄀᆞ루 골앙.(가루 갈아서.)
103026 @ 도자기, 흑으로 뭰 그 만든 항아리를 뭐렌 골앗수과?(도자기, 흙으로 된 그 만든 항아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26 #3 그냥 항아리렌 헷주.(그냥 항아리라고 했지.)
103026 @ 항아리?(항아리?)
103026 #3 응.(응.)
103026 #4 항아리에 헤근엥에 오메기떡[87] 헤놔근엥에 쮜영 담아.(항아리에 해서 '오메기떡' 해놓고 쪄서 빚어.)

87)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 한 다음 둥그렇게 떡을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을 말한다. 팥고물을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술 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3026 @ 음.(음.)
103026 #3 누룩 헤영.(누룩 해서.)
103026 #4 서껑,(섞어서.)
103026 #3 보리쌀 거펴근엥에 누룩 만들앙 그 틔와.(보리쌀 거피해서 누룩 만들어서 그 틔워.)
103026 @ 예.(예.)
103026 #3 바로 식여, 그거 몰리왕 그거 바로 식이민 그 뿔긋뿔긋 노릿노릿 허주. 그 바로 식여진 것가. 게민 거 줄게 부시데경.(바로 삭혀, 그거 말려서 그거 바로 삭히면 그 뿔긋뿔긋 노릇노릇 하지. 그 바로 삭혀진 것이. 그러면 거 잘게 부스러뜨려서.)
103026 @ 음.(음.)
103026 #3 부시데경.(부스러뜨려서.)
103026 @ 음.(음.)
103026 #3 조도 찰조로 골아당 오메기떡 헤영 거 막 술떡이라고.(조도 차조로 갈아다가 '오메기떡' 해서 그거 막 술떡이라고.)
103026 @ 음.(음.)
103026 #3 걸 막 물 놩, 막 달방 훌훌허게.(그걸 마구 물 넣어, 마구 다려 훌훌하게.)
103026 @ 음.(음.)
103026 #3 달방, 거기에 누룩 서텅.(다려, 거기에 누룩 섞어서.)
103026 @ 음.(음.)
103026 #3 누룩 서터근엥에 영 항아리에 담앙 놔두민.(누룩 섞어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놔두면.)
103026 #4 팍싹허게.(파삭하게.)
103026 #3 혼 메칠 뒈민 바가기 올라와.(한 며칠 되면 보각하게 올라와.)
103026 @ 예.(예.)
103026 #3 그것가 그 부구락허게 버금 잇게 올라와가주게, 올라왕, 혼 오래 이서사헤여. 혼 쑤무날 정도나 이서사.(그것이 그 보각하게 거품 있게 올라와가지, 올라와서, 한 오래 있어야해. 한 스무날 정도나 있어야.)
103026 #4 바짝바짝 헨다.(바짝바짝 한다.)
103026 #3 청주가 뒈주. 그 우의가 노랑허게 그 뒌 술은 골라안곡 우의물이 올라와.(청주가 되지. 그 위가 노랑하게 그 된 술은 가라앉고 윗물이 올라와.)
103026 @ 음.(음.)
103026 #3 그 청주.(그 청주.)
103026 @ 걸 청주렌 헷구나예?(그걸 청주라고 했군요?)
103026 #3 응, 청주.(응, 청주.)
103027 @ 그다음엔 밥도 헤먹고 술도 헤먹고 헤신디다가 조찍으론 뭐 헤먹엇수과? 아니, 조찍으론 뭐 헷수과?(그다음엔 밥도 해먹고 술도 해먹고 했는데 조짚으론 뭐 해먹었습니까? 아니, 조짚으론 뭐 했습니까?)

103027 #4 것사 쉐 줫주.(그거야 소 줬지.)
103027 @ 조찍은 다 쉐 주엇수과?(조짚은 다 소 주었습니까?)
103027 #3 응, 쉐 줜.(응, 소 줬어.)
103028 @ 그다음엔예 그 조농사지을 때 막 가장 힘든 건 뭐엿수과? 조농사지을 때 힘들엇던 거.(그다음은요 그 조농사지을 때 매우 가장 힘든 건 뭐였습니까? 조농사지을 때 힘들었던 거.)
103028 #3 조농사지을 때는 밧만 갈아불곡 저 곧사ᄀᆞ찌 ᄆᆞᆯ 헤근엥에 좁씨 삐영 불려만 불민 힘든 건 엇엇주게. 기자 검질 메는 그거주.(조농사지을 때는 밭만 갈아버리고 저 아까같이 말 가지고 좁씨 뿌려 밟기만 해버리면 힘든 건 없었지. 그저 김을 매는 그거지.)
103028 @ 뭔가 특별나게 그거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엇수과?(뭔가 특별나게 그것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없습니까?)
103028 #3 그게 ᄆᆞᆯ 헤근에 불리젠 허민 소리치멍 막 불려, 어리역 떠리역[88] 허게시리.(그게 말 가지고 밟으려 하면 소리치면서 막 밟아, '어리역 떠리역' 하게끔.)
103028 @ 정말 소리치멍 헷수과?(정말 소리치면서 했습니까?)
103028 #3 경헷주게. 소리허멍 어리어려[89].(그랬지. 소리하면서 '어리어려'.)
103018 #4 어려 더 어려어려 ᄒᆞ여 가멍.('어려 더 어려어려' 해 가면서.)
103028 #3 성님, 소리헤봅서게. 그거게.(형님, 소리해보세요. 그거.)
103028 @ 소리 헤봅서게. 예?(소리해보세요. 예?)
103028 #4 에, 에. 나 그거 니 따문.(에, 에. 그거 너 때문.)
103028 @ 헤봅서. 웨냐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자료로 쓰게.(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자료로 쓰게.)
103028 #3 불리젠 ᄒᆞ면은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돌돌', 허멍.(밟으려 하면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돌돌', 하면서.)
103028 #4 그추룩.(그처럼.)
103028 #3 '요레 돌아오라 ᄆᆞᆯ들아', 허멍. '어려 어여 어려 돌돌', 허멍. 경허연게 허멍 막 소리치멍 ᄆᆞᆯ 밧 불릴 때 막 소리혀. 경 아녀민, 경허민 ᄆᆞᆯ덜토 귀가 고짝 고짝 허게시리 막 돌아 와.('요리로 돌아오라 말들아', 하면서. '어려 어여 어려 돌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하면서 마구 소리치면서 말 밭 밟을 때 마구 소리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말들도 귀가 곧장 곧장 하게끔 막 돌아 와.)
103028 @ 음.(음.)
103028 #4 이제도 그 무사 민속촌에서 그추룩 헨게.(이제도 그 왜 민속촌에서 그처럼 하던데.)
103028 #3 어려 돌돌 허멍 막 소리허여서 그추룩.('어려 돌돌' 하면서 막 소리 했어 그처럼.)

88) '어리역 떠리역'은 '어리어려' 말 모는 소리를 대신해서 전체를 가볍게 표현한 듯하다.
89) '어리어려'는 말을 모는 소리다.

103028 @ 게난 그 어려 돌돌 허는 게.(그러니까 그 '어려 돌돌'하는 게.)
103028 #3 음.(음.)
103028 @ 그 옛날에 헷던 그거하고 지금 뭐 다시 옛날 헷던 거를 다시 살린덴 헤가지고 헤근에.(그 옛날에 했던 그거하고 지금 뭐 다시 옛날 했던 거를 다시 살린다고 해가지고 해서.)
103028 #3 음.(음.)
103028 @ 게난 세화에서 삼춘 밧 불릴 땐 어떵 헷수과?(그러니 세화에서 삼촌 밭 밟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28 #3 밧 불릴 때게.(밭 밟을 때.)
103028 @ 아니, 아니. 조 불릴 때.(아니, 아니. 조 밟을 때.)
103028 #4 조 불릴 때게 게메게 그 어리어리 허멍 헷주게, 물로.(조 밟을 때 그러게 그 '어리어리' 하면서 했지, 말로.)
103028 @ 물로.(말로.)
103028 #3 물로 불렁.(말로 밟아.)
103028 #4 물로, 물로 응.(말로, 말로 응.)
103028 @ 한 번 더 골아봅서. 다시 한 번만.(한 번 더 말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103028 #4 노래로? 저 어려어려 허영? 하하하.(노래로? 저 '어려어려' 해서? 하하하.)
103028 @ 예. 아까 삼춘처럼.(예. 아까 삼촌처럼.)
103028 #4 '어려 어려 어려 어려둘둘', 허멍, 하하하.('어려 어려 어려 어려둘둘', 하면서, 하하하.)
103028 @ 아니, 헤봅서, 말로.(아니, 해보십시오, 말로.)
103028 #4 에구, 나 못허키여.(에고, 나 못하겠어.)
103028 @ 헤봅서, 한 번.(해보십시오, 한 번만.)
103028 #4 느 허라. 하하하.(네가 하라. 하하하.)
103028 #4 나 이, 설룬늬라 부난 못헤여. 늬가 빠져부난.(나 이, 의치라 버려서 못해. 이가 빠져버려서.)
103028 @ 아, 빠져부난.(아, 빠져버려서.)
103028 #3 어뤄졍 헤지쿠과게? 하하하.(어려워져서 해지겠어요? 하하하.)
103028 #4 무시거 어려울 거 이시니게? '어려 어려' 헤근에 '어려 돌돌'. 하하하.(뭐 어려울 거 있니? '어려 어려' 해서 '어려 돌돌'. 하하하.)
103028 #3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요놈의 망아지들아, 요레 벵벵 돌아오라, 요레 벵벵 돌라 어려어려 여려 돌돌', 경헷주.('어려 어려 어려 어려 요놈의 망아지들아, 요레 뱅뱅 돌아오라, 요레 뱅뱅 돌라, 어려어려 여려 돌돌', 그랬지.)
103028 #4 그거주게.(그거지.)
103028 @ 아니, 흐루 종일 일허젠 허면 막, 또 그 소리까지 허면 지치지 안헙디가?(아니, 하루 종일 일하려고 하면 매우, 또 그 소리까지 하면 지치지 안합디까?)
103028 #3 막 다리도 아파. 막 저물앙은 아녀여.(매우 다리도 아파. 막 저물도록은 안

해.)
103028 #4 져물앙은 아년다. 흔.(저물도록은 안한다. 한.)
103028 #3 져물앙은 아녕 밧 ᄒᆞ나민 멧 시간 ᄇᆞᆯ렁 나왓주.(저물도록은 않고 밭 하나면 몇 시간 밟아서 나왔지.)
103028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3028 #3 응.(응.)
103028 #4 ᄆᆞᆯ게 서너 댓 개 헤근엥에.(말 서너 다섯 마리 해서.)
103028 #3 ᄆᆞᆯ 여남은 개 열댓 개썩 헤서. 우리 아버지 열다슷 마리 쑤무 개썩도 헤서. 우리 아버지 ᄆᆞ치 테우리[90] 허레 뎅겨서. 막 밧 ᄇᆞᆯ리레 뎅기민 ᄆᆞᆯ ᄒᆞ나만 이꺼.(말 여남은 마리 열댓 마리씩 했어. 우리 아버지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씩도 했어. 우리 아버지 마침 '테우리' 하러 다녔어. 마구 밭 밟으러 다니면 말 하나만 이끌어.)
103028 @ 아 아.(아 아.)
103028 #3 ᄆᆞᆯ ᄒᆞ나만 탕 모력[91] 상 이끄민 앞이 이끄민 조름에는 둘리가 영 ᄆᆞᆯ ᄆᆞᆯ앗주, 소리허멍.(말 한마리만 타서 '모력' 서서 이끌면 앞에 이끌면 뒤에는 둘이가 이렇게 말 몰았지, 소리하면서.)
103028 #4 '어리어리' 허멍.('어리어리' 하면서.)
103028 @ 음.(음.)
103028 #3 그추룩 허멍, 양옘으로 상. 요레나 사라 보져, 허멍.(그처럼 하면서, 양옆으로 서서. '요리로나 서라 보자', 하면서.)
103028 @ 예, 이제 조농사는 그렇게 헷고예.(예, 이제 조농사는 그렇게 했고요.)
103028 #3 응.(응.)

콩농사

103029 @ 콩농사로 넘어 가쿠다예.(콩농사로 넘어 가겠습니다.)
103029 #3 엿날에는 콩을 잘 아이 갈앗어.(옛날에는 콩을 잘 아니 갈았어.)
103029 @ 경헤도 헷던 거 한 번 하영 안 헤도 헤난 거예?(그래도 했던 거 한 번 많이 안 해도 했던 거요?)
103029 #4 경헤도, 오게.(그래도, 그래.)
103029 @ 콩 갈 땐 뭘 준비헷수과?(콩 갈 땐 뭘 준비했습니까?)
103029 #3 그 콩은이? 콩 갈건 디는 오래지 아녀, 이 저 콩ᄂᆞ물 콩 허멍 허곤 데는 오래지 아년. 그때는 장콩만 헷어. 엿날엔.(그 콩은? 콩 갈건 데는 오래지 않아, 이 저 콩나물 콩 하면서 하는 데는 오래지 않았어. 그때는 메주콩만 했어. 옛날엔.)
103029 @ 게난, 장콩 헐 때.(그러니까, 메주콩 할 때.)
103029 #3 장콩만 허민 그 ᄯᅳ루 갈지덜 아녀곡, 조팟듸 ᄒᆞ나씩 놘덜 장콩들 헷주.(메

90) '테우리'는 주로 말과 소를 들에 놓아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목동을 말한다.
91) '모력'은 맨 앞에 주동이 되어 이끄는 사람, 혹은 그 상태를 말한다.

주콩만 하면 그 따로 갈지들 않고, 조밭에 하나씩 놓아서들 메주콩들 했지.)
103029 #4 강알[92]에.('강알'에.)
103029 #3 조 갈 때 ᄒᆞ나씩 삐민은 그게 아들락 아들락[93] ᄒᆞ나씩 이서.(조 갈 때 하나씩 뿌리면 그게 '아들락 아들락' 하나씩 있어.)
103029 @ 음.(음.)
103029 #3 경허민 그거 헤당 장 허곡.(그러면 그거 해다가 장 담그고.)
103029 @ 음.(음.)
103029 #3 또 흔 쪽들에 헷설만 갈앙, 조 영 볼리는 에염덜에 쪼끔만 갈앙, 이녁 장콩만 헤여난.(또 한 쪽들에 조금만 갈아서, 조 이렇게 밟는 옆에 조금만 갈아서, 이녁 메주콩만 했었어.)
103029 #4 장콩 하영 갈지 아녓저게. 엿날엔.(메주콩 많이 갈지 않았어. 옛날엔.)
103029 #3 엿날엔 경 콩 풀 거영 하영 갈아나지 아년.(옛날엔 그렇게 콩 팔 거라고 많이 갈아나지 않았어.)
103029 @ 아까 뭐렌 말씀하셧수과? 강알에 갈앗덴 헌 말은 무신 말이꽈?(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알'에 갈았다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29 #3 조 강알에.(조 사이에.)
103029 #4 조 강알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씨 삐영.(조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씨 뿌려서.)
103029 #3 조 알에.(조 밑에.)
103029 @ 아, 조 알에.(아, 조 밑에.)
103029 #4 야, 경허민 푸는체 만썩 헤라.(야, 그러면 키 만씩 해라.)
103029 #3 ᄒᆞᆫ아눔 썩 터박터박[94] 허주게.(한아름 씩 '터박터박' 하지.)
103029 @ 음.(음.)
103029 #3 저 웨로 이시니까 저 콩 ᄒᆞ나, 막 복짝 이신게 아니라 ᄒᆞ나 만씩 막 크주게.(저 별도로 있으니까 저 콩 하나, 막 박작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만씩 마구 크지.)
103029 #4 엿날엔 겡헷주. ᄯᅳ루 안 갈아봐서.(옛날엔 그랬지. 따로 안 갈아봤어.)
103029 #3 ᄯᅳ루 경 하영 안 갈아난.(따로 그렇게 많이 안 갈았어.)
103030 @ 그 콩, 어찻든 갈 때, 조 강알에 갈든 어떵하든 콩은 언제 갈앗수과?(그 콩, 어쨌든 갈 때, 조 사이에 갈든 어떻든 콩은 언제 갈았습니까?)
103030#3 아, 조영 ᄀᆞ찌.(아, 조랑 같이.)
103030 @ 아, ᄀᆞ찌, ᄀᆞ찌 갈앗구나예?(아, 같이, 같이 갈았군요?)
103030 #4 ᄀᆞ찌, ᄒᆞ나썩 삐여근에.(같이 하나씩 뿌려서.)
103030 #3 지금도 콩 가는 시기가 그거라. 조 볼리는 시기라. 이제도.(지금도 콩 가는 시기가 그거야. 조 밟는 시기야. 이제도.)
103031 @ 게민 콩밧 거름은?(그러면 콩밭 거름은?)
103031 #3 콩밧은 걸름 아녀.(콩밭은 거름 안 해.)

92) '강알'은 사타구니를 뜻하나 여기서는 다른 곡식이나 나무 사이 틈새를 말한다.
93) '아들락 아들락'은 촘촘하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씩 드문드문 싹이 돋아난 상태를 말한다.
94) '터박터박'은 자란 콩가지가 풍성한 모습 혹은 그 상태를 말한다.

103031 @ 하낫토 거름 안 헹예?(하나도 거름 안 해서요?)
103031 #3 걸름 안헤도 뒈.(거름 안 해도 돼.)
103031 #4 옛날에 걸름이 서서?(옛날에 거름이 있어서?)
103032 @ 콩씨는 게믄 아까 조 아래 하나씩 심어놓고예?(콩은 그러면 아까 조 아래 하나씩 심어놓고요?)
103032 #3 장콩, 이녁칩이 장콩만 허니까.(메주콩, 이녁집의 메주콩만 하니까.)
103033 @ 장콩만 허니까. 게민 콩밧 따로 검질메거나 경은 안 헤낫수과?(메주콩만 하니까. 그러면 콩밭 따로 김매거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103033 #4 그런 건 아녜난.(그런 건 않았었어.)
103033 #3 이제사 콩밧, 이제사 하영 갈곡 헴주. 콩덜이.(이제야 콩밭, 이제야 많이 갈고 하지. 콩들을.)
103033 #4 엿날엔, 이제사.(옛날엔, 이제야.)
103033 #3 나도 콩을 만 평썩, 구천 평썩 갈아낫인디.(나도 콩을 만 평씩, 구천 평씩 갈았었는데.)
103033 @ 그 만 평씩 구천 평씩은 콩나물 콩이꽈?(그 만 평씩 구천 평씩은 콩나물 콩입니까?)
103033 #3 콩나물 콩.(콩나물 콩.)
103034 @ 콩나물 콩 갈 때는, 검질 어떤 거 나낫수과?(콩나물 콩 갈 때는, 김은 어떤 거 났었습니까?)
103034 #3 그 콩 막 이제 여름에 나는 잡풀이 나지, 이것저것.(그 콩 막 이제 여름에 나는 잡풀이 나지, 이것저것.)
103034 @ 어떤 잡풀마씸?(어떤 잡풀이요?)
103034 #3 콩밧듸 검질은 저 콩이 줏게 가르믄 검질이 흔엇이 하영 안 나.(콩밭의 김은 저 콩이 잦게 갈면 김이 별로 많이 안 나.)
103034 @ 안 나고예?(안 나고요?)
103034 #3 어. 콩밧듸 거 뭐 시지그랑[95] 헌 거 나. 뭐 이것저것 기자 여름에 잡풀 나, 이것저것.(어. 콩밭에 거 뭐 '시지그랑' 한 거 나지. 뭐 이것저것 그저 여름에 잡풀 나지, 이것저것.)
103034 #4 잡풀.(잡풀.)
103034 @ 혼 번 생각들 헤봅써. 잡풀들 이름들.(한 번 생각들 해보세요. 잡풀들 이름들.)
103034 #3 잡풀 이름도 여름이난.(잡풀 이름도 여름이니까.)
103034 #4 제완지 ᄀᆞ튼 거 나느네.(바랭이 같은 거 나네.)
103034 #3 어, 그런 거 나. 제완지 ᄀᆞ튼 거. 여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이 잇주. 겨울에 나는 건 그 콩풀[96] 같은 거 나고, 여름엔 절완지 그 절완지 그런 게 나.(어, 그

95) '시지그랑'은 어지럽다는 뜻인데 좀 시시하게 어지러운 것을 표현한 듯하다.
96) '콩풀'은 유럽점나도나물을 말한다.

런 거 나. 바랭이 같은 거. 여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이 있지. 겨울에 나는 건 그 콩풀 같은 거 나고, 여름엔 바랭이 그 바랭이 그런 게 나지.)
103034 @ 절완지마씸?(바랭이요?)
103034 #3 콩밧듸나 조팟듸나 마찬가지 콩 허는 듸 메는 건.(콩밭에나 조밭에나 마찬가지 콩 하는 데 매는 건.)
103034 #4 엿날엔 콩 하영 안 갈아시네.(옛날엔 콩 많이 안 갈았어.)
103035 @ 먹을 만치 장 헐 만치 콩을 갈면, 그 콩은 또 어떵 수확 헷수과? 어떵 거뒷수과? 거둘 땐.(먹을 만치 장 할 만치 콩을 갈면, 그 콩은 또 어떻게 수확 했습니까? 어떻게 거뒀습니까? 거둘 땐.)
103035 #3 하이고, 거 ᄒᆞ쏠 거껏주게. 조 비어나민 다음에.(하이고, 거 조금 꺾었지. 조 베어나면 다음에.)
103035 @ 아, 조 비어나민 다음에 거껏수과?(아, 조 베어나면 다음에 꺾었습니까?)
103035 #3 어, 어어. 하나씩 뎅기멍.(어, 어어. 하나씩 다니며.)
103036 @ 이제 콩을 거껑 오잖아예? 거껑 어떵 털엇수과? 그땐.(이제 콩을 꺾어 오잖아요? 꺾어서 어떻게 털었습니까? 그땐.)
103036 #3 그땐 그 ᄒᆞ꼼만 헌 거난에 도께로도 두두리고.(그땐 그 조끔만 한 거니까 도리께로도 두드리고.)
103036 #4 막뎅이로도 허고.(막대기로도 하고.)
103036 @ 막뎅이로도 허고.(막대기로도 하고.)
103036 #4 워낙 하민 도께질 허고, 엿날엔 보리도 지둥 트멍에 접저근엥에 경 하영 허지도 아녓져.(워낙 많으면 도리께질하고, 옛날엔 보리도 기둥 틈에 끼어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지.)
103036 #3 그건 막 엿날, 그건 막 엿날이고.(그건 막 옛날, 그건 막 옛날이고.)
103036 #4 우리 나기 전에.(우리 낳기 전에.)
103036 #3 우리 난 후젠 경은 아년.(우리 태어난 후엔 그렇게는 않았지.)
103036#4 지둥 트멍에 접젼.(기둥 틈에 끼워서.)
103036 @ 게민 그 콩 꺼껑 오잖아예?(그러면 그 콩 꺾어서 오잖아요?)
103036 #3 응.(응.)
103036 @ 그 콩을 다 털면.(그 콩을 다 털면.)
103036 #3 응.(응.)
103036 @ 그 콩으로 뒌장 만들고 다른 건 뭐 안 만들엇수과?(그 콩으로 된장 만들고 다른 건 뭐 안 만들었습니까?)
103036 #3 뒌장만 아니, 물장을 헷주.(된장만 아니, 간장을 했지.)
103036 @ 물장?(간장?)
103036 #4 콩 솖앙.(콩 삶아서.)
103036 #3 콩을 솖앙 틔와.(콩을 삶아서 틔워.)
103036 @ 예.(예.)

103036 #3 틔왕 섣둘 나민 십이월 달 나민 장을 물로 듬그는 거라.(틔워서 섣달 나면 십이월 달 나면 장을 물로 담그는 거야.)
103036 @ 예.(예.)
103036 #3 소금이영, 소금 꼴아 놔근엥에, 이제도 우리 물장 헤 먹어. 사지 안 헹 먹어.(소금이랑, 소금 깔아 넣어서, 이제도 우리 간장 해 먹어. 사지 안 해서 먹어.)
103036 @ 맞아예. 맞수다.(맞아요. 맞습니다.)
103036 #3 우리 아이덜 상 먹지 아네여. 이디 장 먹주.(우리 아이들 사서 먹지 않아. 여기 장 먹지.)
103036 @ 맞수다게.(맞습니다.)
103036 #3 경헤나민 그거 헹 막끗데 그 이 삼월 나민 걸러, 물장을 갈랑.(그러고 나면 그거 해서 맨 마지막 그 이 삼월 되면 걸러, 간장을 갈라서.)
103036 @ 음.(음.)
103036 #3 그 그래 저 이제 막 꼰꼰허게 막 문지데경[97] 뒌장 만드는 거주.(그 그래 저 이제 막 깐깐하게 마구 '문지데경' 된장 만드는 거지.)
103036 @ 게, 지금 뒌장 만드는 콩도 ᄒᆞ꼼 갈아근에 헴수과? 사당 헴수과?(그래, 지금 된장 만드는 콩도 조금 갈아서 하십니까? 사다가 하십니까?)
103036 #3 우리?(우리?)
103036 @ 예.(예.)
103036 #3 우리 갈앗당. 집이서.
103036 @ 아이고, 기구나예.(아이고, 그렇군요.)
103036 #3 그거 ᄒᆞ꼼 갈앙. 갈앙 헤여.(그거 조금 갈아서. 갈아서 해.)
103037 @ 그다음엔예? 콩 털어난 다음에 콩찍으론 뭐 헷수과?(그다음은요? 콩 털어난 다음에 콩짚으론 뭐 했습니까?)
103037 #3 엿날에?(옛날에?)
103037 @ 예.(예.)
103037 #3 쉐 주엇주.(소 주었지.)
103037 @ 콩찍으로 쉐 주엇수과?(콩짚으로 소 주었습니까?)
103037 #3 어, 쉐 막 잘 먹어.(어, 소 막 잘 먹어.)
103037 @ 음.(음.)
103037 #3 물도 주곡 쉐도 주곡.(말도 주고 소도 주고.)
103037 @ 물도 주고 쉐도 주고예.(말도 주고 소도 주고요.)
103037 #3 응.(응.)
103038 @ 콩농사지을 때 뭐 특별나게시리 뭐 생각나는 거 엇수과? 특별난 기억. 콩 그거에 얽힌 특별난 기억.(콩농사지을 때 뭐 특별나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특별난 기억. 콩 그거에 얽힌 특별난 기억.)

97) '문지데경'은 '무르쥄다', '무르데기다'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짓무르게 주무르는 동작을 표현한 것이다.

103038 #3 콩농사는 저 다른 농사보다 쉬워 비여 난. 막 흔 만 평썩 갈아도 막 쉬언게.(콩농사는 저 다른 농사보다 쉬워 보여 난. 막 한 만 평씩 갈아도 막 쉬웠어.)
103038 @ 기꽈?(그래요?)
103038 #3 응.(응.)
103038 @ 그 만 평씩 간 거 다 풀젠 갈앗잖아예?(그 만 평씩 간 거 다 팔려고 갈았잖아요?)
103038 #3 풀앗주게. 다 풀안.(팔았지. 다 팔았어.)
103038 #4 건 흔엇이 엿날 아니아냐게.(그건 별로 옛날 아니잖아.)
103038 #3 건 하지아년, 오래지 아년 때주게. 흔 이십년 전에.(그건 많지 않았어, 오래지 않은 때지. 한 이십년 전에.)
103038 @ 콩ᄂᆞ물 콩은 비싸지 안헤마씸?(콩나물 콩은 비싸지 않아요?)
103038 #4 비싸낫주게.(비쌌었지.)
103038 @ 겐 돈 하영 벌엇수과?(그래선 돈 많이 벌었습니까?)
103038 #4 이제도 콩 하영 가는 사름은 하영 갈암 주게.(이제도 콩 많이 가는 사람은 많이 갈고 있지.)
103038 #3 그땐 하영 못 버실언. 하하하.(그땐 많이 못 벌었어. 하하하.)
103038 @ 경헷수과?(그랬습니까?)
103038 #3 태풍 불어불고, 쫀물 헤불곡 허민 하영 못 벌언.(태풍 불어버리고, 짠물 덮치고 하면 많이 못 벌었어.)
103038 #4 건 이제사 난 거고. 엿날엔 점, 콩 하영 안 갈아낫져.(건 이제야 난 거고. 옛날엔 참, 콩 많이 안 갈았었지.)
103038 #3 놉 빌엉 막 꺼끄민은 거 막 무끄고 눌고 경헹 매탁기로 두두리니까, 그때도 경헷주.(놉 빌어서 마구 꺾으면 그거 막 묶고 가리고 그렇게 해서 탈곡기로 두드리니까, 그때도 그랬지.)
103038 @ 아, 만 평 그추룩 헐 땐 매탁기가 이서낫수과?(아, 만 평 그처럼 할 땐 탈곡기가 있었습니까?)
103038 #3 어, 그땐 매탁기가 이서난.(어, 그땐 탈곡기가 있었어.)
103038 @ 맞아, 경이나 헤사예?(맞아, 그렇게나 해야지요?)
103038 #4 엿날에사.(옛날에야.)
103038 #3 엿날에 ᄒᆞ꼼썩 헐 때 이녁 장 허젠 저, 막대기로 두두리곡 저 도께로도 두두리곡 헷주마는 하영 갈 때는 매탁기 난. 보리도 매탁기 난 막끗데는.(옛날에 조금씩 할 때 이녁 된장 하려고 저, 막대기로 두드리고 저 도리께로도 두드리고 했지만 많이 갈 때는 탈곡기 나왔어. 보리도 탈곡기 나왔어 끝에는.)

밭벼농사

103039 @ 그다음엔 산듸, 여기는 산동네들은 산듸들 갈앗잖아예?(그다음엔 밭벼, 여

기는 산동네들은 밭벼들 갈았잖아요?)
103039 #3 응, 산듸 갈안.(응, 밭벼 갈았어.)
103039 @ 산듸도 갈아낫수과.(밭벼도 갈았었습니까.)
103039 #3 산듸, 갈앗주게.(밭벼, 갈았지.)
103039 @ 산듸 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헷수과?(밭벼 갈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103039 #3 산듸도 저, 조나 마찬가지. ᄒᆞ꼼 일찍 갈아, 산듸는.(밭벼도 저, 조나 마찬가지. 조금 일찍 갈았어, 밭벼는.)
103039 #4 쪼꼼 일찍 갈아.(조금 일찍 갈았어.)
103039 #3 초파일 넘으민 갈아신가? 그 산듸가?(초파일 넘으면 갈았는가? 그 밭벼가?)
103039 #4 응.(응.)
103039 #3 초파일 넘으민 간 거 닮아.(초파일 넘으면 간 거 같아.)
103039 #4 산듸는 헤다근엥 ᄆᆞᆫ 홀타낫주.(밭벼는 해다가 모두 홅았었지.)
103039 @ 음, 그다음엔예? 산듸 가는 거 초파일 그때쯤 갈고.(음, 그다음은요? 밭벼 가는 거 초파일 그때쯤 갈고.)
103041 @ 걸름은 어떵 준비헷수과?(거름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03041 #3 엿날에는 걸름 아녀난.(옛날에는 거름 안 했어.)
103041 #4 걸름 아년, 기자.(거름 안 했어, 그저.)
103041 @ 산듸도예?(밭벼도요?)
103041 #3,4 어.(응.)
103041 #3 걸름이, 비로가 엇어낫젠 허난. 엿날엔 비로가 엇어낫어.(거름이, 비료가 없었다고 하니까. 옛날엔 비료가 없었어.)
103041 @ 아니 거난, 그 저 무시거꽈? 아까 보리 갈 땐.(아니 그러니까, 그 저 뭡니까? 아까 보리 갈 땐.)
103041 #3 보리 갈 때는 돗걸름을 헤신디.(보리 갈 때는 돼지거름을 했는데.)
103041 @ 산듸는 안 헷수과?(밭벼는 안 했습니까?)
103041 #3 산듸는 아년.(밭벼는 않았지.)
103041 @ 아.(아.)
103041 #4 여름 농ᄉᆞ난에 비로 아녀도 뒈엇저게. 비로가 서서?(여름 농사니까 비료 안 해도 되었지. 비료가 있었어?)
103042 @ 그믄 산듸씨는 어떵 뿌렷수과?(그러면 밭벼씨는 어떻게 뿌렸습니까?)
103042 #3 산듸씨, 그자 좁씨 뿌리듯이 뿌렷지.(밭벼씨, 그저 좁씨 뿌리듯이 뿌렸지.)
103042 @ 아니, 조 갈 때는 밧 ᄇᆞᆯ령 헷덴 헤신디.(아니, 조 갈 때는 밭 밟아서 했다고 했는데.)
103042 #3 어, 산듸는 ᄇᆞᆯ리지 아네영.(어, 밭벼는 밟지 않아서.)
103042 @ ᄇᆞᆯ리지 아녕예?(밟지 않아서요?)

103042 #3 응, 산듸는 안 불려.(응. 밭벼는 안 밟아.)
103043 @ 그다음에 산듸는 검질 멧 번 멧수과? 산듸밧디는.(그다음에 밭벼는 김 몇 번 맸습니까? 밭벼밭에는.)
103043 #3 검질도 ᄋᆞ라 번 메서.(김 여러 번 맸어.)
103043 #4 건 ᄋᆞ라 번 메여.(그건 여러 번 매.)
103043 #3 세 번, 서너 번 메여.(세 번, 서너 번 매.)
103043 #4 서너 번 메여.(서너 번 매.)
103043 #3 서너 번 멧주.(서너 번 맸지.)
103044 @ 그 산듸왓에 검질들은 어떤 종류 나신지 혹시 알아지쿠과?(그 밭벼밭에 김들은 어떤 종류 났는지 혹시 알아지겠습니까?)
103044 #3 그 여름 검질은 마찬가지. 절완지 ᄀᆞ뜬 거, 히지렁헌[98] 그런 거 나.(그 여름 김은 마찬가지. 바랭이 같은 거, '히지렁헌' 그런 거 나.)
103044 @ 절와지 ᄀᆞ튼 거?(바랭이 같은 거?)
103044 #4 제완지 ᄀᆞ뜬 거 잘 낫주.(바랭이 같은 거 잘 났지.)
103044 #3 모에제완지[99] 춤제완지[100] 그런 거 난.('모에제완지', '춤제완지' 그런 거 났어.)
103044 @ 음.(음.)
103044 #3 그 히지렁헌 풀덜 기자.(그 '히지렁헌' 풀들 그저.)
103045 @ 그다음엔 산듸수확은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밭벼수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45 #3 산듸가, 것도 호미로 비여.(밭벼가, 그것도 호미로 베.)
103045 @ 비여.(베.)
103045 #3 익으면은.(익으면.)
103045 예.(예.)
103045 #3 이 상강일 뒈 가민 익주. 것도.(이 상강일 돼 가면 익지. 것도.)
103045 @ 예.(예.)
103045 #3 시월 나가민 익어.(시월 돼 가면 익어.)
103045 @ 예.(예.)
103045 #3 구시 단풍들어 그 익으면은 다 비어 경. 산듸 이 무끄문 보리 무끔만 썩벳긔 아녀. 존마롱ᄒᆞ게[101] 만큼씩 무껏주.(구시월 단풍들어 그 익으면 다 베어 그렇게. 밭벼 이 묶으면 보리 묶음만 씩밖에 않아. '존마롱ᄒᆞ게' 만큼씩 묶었지.)
103045 @ 음.(음.)
103045 #3 조 ᄀᆞ찌 크게 안 무끄고, 보릿단 만썩, 산딧단도.(조 같이 크게 안 묶고,

98) '히지렁'은 어지럽다는 뜻인데 좀 시시하게 어지러운 것을 표현한 듯하며, '시지그렁'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99) '모에제완지'는 바랭이의 일종이다.
100) '춤제완지'는 바랭이의 일종이다.
101) '존마롱ᄒᆞ다'는 한아름이 아니라 한아름에서 좀 작은 정도의 부피를 말한다.

보릿단 만씩, 밭벼단도.)
103045 #4 겡 영 홀타낫이네.(그래서 이렇게 홅아났었네.)
103045 #3 게, 집에 시꺼당 놩.(그, 집에 실어다 놓아서.)
103045 @ 음.(음.)
103045 #3 영 헌 클로 홀타.(이렇게 한 틀로 홅아.)
103045 @ 보리 홀트듯이?(보리 홅듯이?)
103045 #4 어.(어.)
103045 #3 응. 보리 홀트듯이 클로 홀탕, 도께로 두두리곡 저 발로도 보비곡 헤낫어. 고스락이 이서부난.(응. 보리 홅듯이 틀로 홅아서, 도리께로 두드리고 저 발로도 문지르고 했었어. 까끄라기 있어버려서.)
103045 #4 지넹이머리 홀트듯이.(지네머리 홅듯이.)
103045 @ 음.(음.)
103045 #4 그때서는 클이 이서, 엿날엔.(그때서는 틀이 있어, 옛날엔.)
103045 @ 음.(음.)
103045 #3 엿날엔 클이 이서, 영 헌.(옛날엔 틀이 있어, 이렇게 한.)
103045 #4 산듸 홀트는 거.(밭벼 홅는 거.)
103045 @ 경헹 도께 질 하고예?(그렇게 해서 도리께 질 하고요?)
103045 #3 어.(어.)
103045 #4 우리도 거 이서낫인디.(우리도 그거 있었는데.)
103045 @ 그다음엔 이것도 마찬가지 도께 질 한 다음 ᄀᆞ레에 강 ᄀᆞᆯ아왓수과?(그다음엔 이것도 마찬가지 도리께 질 한 다음 연자매에 가서 갈아왔습니까?)
103045 #3 어. 것도 ᄀᆞᆯ아완.(어. 것도 갈아왔어.)
103045 @ ᄀᆞᆯ아왓잖아예?(갈아왔잖아요?)
103045 #3 어.(어.)
103046 @ 산듸로는 뭐 뭐 헤먹엇수과?(밭벼로는 뭐 뭐 해먹었습니까?)
103046 #3 아이고, 산듸쏠이 밥, 식게 때나 밥 ᄒᆞ곡, 저 멩질 때나 밥 헤먹주. 곤밥을 헤 먹어져봐? 이디서는 곤밥을 못헤 먹어봔.(아이고, 밭벼쌀이 밥, 제사 때나 밥 하고, 저 명질 때나 밥 해먹지. 흰밥을 해 먹어봐질까? 여기서는 흰밥을 못해 먹어봤어.)
103046 #4 경 헤 먹어봐저?(그렇게 해 먹어봐질까?)
103046 @ 무사라예? 막 하영 갈문 뭴 건디.(왜일까요? 매우 많이 갈면 될 건데.)
103046 #3 하영을 갈질 못헤서, 그땐 어떵산디.(많이 갈질 못했어, 그땐 어째선지.)
103046 #4 하영을 갈질 못헤주 그땐.(많이 갈질 못했지 그땐.)
103046 #3 갈질 못헤여. 이녁 기자 저, 잔치 때나 그 보리쏠에, 보리쏠도 폿 놓아근에 솖아근엥에 곤쏠 서껀 밥헤난.(갈질 못했어. 이녁 그저 저, 잔치 때나 그 보리쌀에, 보리쌀도 팥 넣어서 삶아서 흰쌀 섞어서 밥했었어.)
103046 #4 헤끔썩.(조금씩.)
103046 #3 잔치 때.(잔치 때.)

103046 #4 잔치 때 보리쏠 서껑, 에고.(잔치 때 보리쌀 섞어서, 에고.)
103046 @ 산듸로 게민 떡 헤먹는 일은 그문.(밭벼로 그러면 떡 해먹는 일은 그러면.)
103046 #3 그, 그때, 떡도 방에에 쩐 헤낫주.(그, 그때, 떡도 방아에 찧어서 했었지.)
103046 #4 방에에 저 도귀에 져근엥에.(방아에 저 절굿공이에 찧어서.)
103046 #3 도귀방에에 졍. 방엣귀로 영 찍엉.(절구방아에 찧어서. 절굿공이로 이렇게 찧어서.)
103046 #4 엿날엔 방에가 이시난.(옛날엔 방아가 있으니까.)
103046 @ 음.(음.)
103046 #3 물에 것도 컷당, 방에에 지영 떡 헤낫주.(물에 그것도 담갔다가, 방아에 찧어서 떡 했었지.)
103046 @ 집에서?(집에서?)
103046 #3 집에서 멘들안.(집에서 만들었어.)
103046 #4 집에서 멘들앗주.(집에서 만들었지.)
103046 @ 어떤 떡 헷수과?(어떤 떡 했습니까?)
103046 #3 그때는 솔벤[102], 절벤.(그때는 '솔벤', 절편.)
103046 @ 솔벤, 절벤예.('솔벤' 절편이요.)
103046 #3 어, 인절미영 세 가지 헷주.(어, 인절미랑 세 가지 했지.)
103047 @ 그다음엔 산듸찍으론 뭐헷수과?(그다음엔 밭볏짚으론 뭐했습니까?)
103047 #3 산듸찝은 저 흔엇이 무시거 아녜서.(밭볏짚은 저 별로 뭐 않았어.)
103047 #4 산듸찝은 낫다근엥에 애기 날 때도 꼴곡,(웃음) 또 이제 그거, 죽으민 그 이녁 무시것도 허곡 관에 담앗주.(밭볏짚은 놔뒀다가 아기 날 때도 깔고,(웃음) 또 이제 그거, 죽으면 그 이녁 무엇도 하고 관에 담았지.)
103047 #3 관에 담앗주, ᄒᆞ꼼썩.(관에 담았지, 조금씩.)
103047 @ 관에도.(관에도.)
103047 #4 음, 정 헤라. 그 큰 걸로 헤라.(음, 그렇게 하더라. 그 큰 걸로 하더라.)
103047 @ 메주 매달 땐 뭘로 헷수과?(메주 매달 땐 뭐로 했습니까?)
103047 #3 거? 으, 산듸찍으로.(그거? 으, 밭볏짚으로.)
103047 @ 맞잖아예? 콩 솖을 때가 아까 섯달 때 헷잖아예?(맞잖아요? 콩 삶을 때가 아까 섣달 때 했잖아요?)
103047 #3 아니, 콩은 동짓덜 쯤에 솖앙, 섯덜 나민 장 ᄃᆞᆷ아.(아니, 콩은 동짓달 쯤에 삶아서, 섣달 되면 장 담가.)
103047 @ 아, 장 ᄃᆞᆷ아.(아, 장 담가.)
103047 #3 응, 섯덜 나민 장 ᄃᆞᆷ아.(응, 섣달 되면 장 담가.)
103047 @ 게민, 동짓달 솖을 때 그때 산듸찍이 이서낫수과?(그러면, 동짓달 삶을 때 그때 밭볏짚이 있었습니까?)
103047 # 어. 잇주게.(어. 있지.)

102) '솔벤'은 반월형(半月形)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희떡. = '솔변', '솔펜', '수랑곤떡'.

103047 @ 산듸가 언제쯤 수확 헷수과?(밭벼가 언제쯤 수확 했습니까?)
103047 #3 산듸도 조영 흔디 헤여.(밭벼도 조랑 같이 해.)
103047 @ 흔디 헤영에?(같이 해요?)
103047 #3 단풍들믄.(단풍들면.)
103047 @ 게믄 그거 놔뒷당, 눌 누렁 놔뒷당.(그러면 그거 놔뒀다가, 가리 가려 놔뒀다가.)
103047 #3 눌 누러 낫당.(가리 가려 놨다가.)
103047 @ 이제 메주에 쓰고예?(이제 메주에 쓰고요?)
103047 #3 응, 메주에 쓰고.(응, 메주에 쓰고.)
103047 @ 옛날엔 메주를 그냥 메주렌 골앗수과?(옛날엔 메주를 그냥 메주라고 말했습니까?)
103047 #3 응, 메주.(응, 메주.)
103047 #4 메주, 메주 맞주게. 요셋사름 몰를걸. 메주엔 허믄. 애기덜은.(메주, 메주 맞지. 요즘사람 모를걸. 메주엔 하면. 아기들은.)
103047 @ 압니다게.(압니다.)
103047 #3 알아. 겡헤도 메주는 알아.(알아. 그래도 메주는 알아.)
103048 @ 그다음엔 산듸농사지을 때.(그다음엔 밭벼농사지을 때.)
103048 #3 응.(응.)
103048 @ 보리농사나 콩농사하고 달라나서 산듸농사지을 때 뭔가 막 하영 거둬드리는 거, 뭔가 막 지꺼지고 헌 일은 엇엇수과?(보리농사나 콩농사하고 달라나서 밭벼농사지을 때 뭔가 매우 많이 거둬드리는 거, 뭔가 매우 기쁘고 한 일은 없었습니까?)
103048 #3 하영 갈진 안 헤낫어, 산듸는.(많이 갈진 안 했었어, 밭벼는.)
103048 @ 기라예? 무사라예?(그렇지요? 왜지요?)
103048 #4 하영 갈 씸, 흐끔 헤당 지둥 트멍에 다 줍저낫주.(많이 갈 심지는, 조금 해다가 기둥 틈에 다 끼웠었지.)
103048 #3 하영 안 갈앙 이녁 먹을 거나 흐쏠 갈곡, 기자 흐쏠 풀아도 쪼끔썩 풀앗주. 경 하영 거 막 하영 허진 아년.(많이 안 갈아서 이녁 먹을 거나 조금 갈고, 그저 조금 팔아도 조금씩 팔았지. 그렇게 많이 그거 매우 많이 하지는 않았어.)
103048 @ 게난, 저가 다른 마을도 강 물어보면 경헷다고 하드라고예.(그러니까, 제가 다른 마을도 가서 물어보면 그랬다고 하드라고요.)
103048 #3 음.(음.)
103048 @ 멩질 제사 헐 만큼만 허고.(명질 제사 할 만큼만 하고.)
103048 #3 응, 경현.(응, 그랬어.)
103048 @ 기냥 여벌로 씨앗 좀 허고. 경헷덴 허멍.(그냥 여벌로 씨앗 좀 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103048 #3 씨앗도 허곡, 경 하영 아녕 걸로 제서 때 뒈민 그 저 물에 영 컷당 도귀방에에 지영, 집에서 떡 헷주, 집이서.(씨앗도 하고, 그렇게 많이 않고 걸로 제사 때 되면

그 저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절구방아에 찧어서, 집에서 떡 했지, 집에서.)
103048 #4 산듸쏠도 엇엉 밀쏠 서껑 밥허고 헷져. 제서 때도.(밭벼쌀도 없어서 밀쌀 섞어서 밥하고 했지. 제사 때도.)
103048 @ 밀은 하영 헷수과?(밀은 많이 했습니까?)
103048 #3,4 밀도 하영 아녕.(밀도 많이 않고.)
103048 #3 보리가 하영 갈앗주. 밀도 하영 안 갈앙, 쪼끔.(보리가 많이 갈았지. 밀도 많이 안 갈아서, 조금.)
103048 #4 겡헹 그거 다 밀팝 헤먹고 헷이네.(그렇게 해서 그거 다 밀밥 해먹고 했네.)

고구마 농사

103049 @ 다음에는예? 감저 농사라예? 고구마예?(다음은요. 고구마 농사예요. 고구마요.)
103049 #3 고구마.(고구마.)
103049 @ 감저 농산데, 감저를 심젠 허민 뭘 준비헷수과?(고구마 농산데,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면 뭘 준비했습니까?)
103049 #3 그 엿날에, 지금은 비료도 놓고 그 중간에 헤신디.(그 옛날에, 지금은 비료도 놓고 그 중간에 했는데.)
103049 #4 이지금은 그자 헷주 그때. 감저 하영 안 헷져.(지금은 그저 했지 그때. 고구마 많이 안 했지.)
103049 #3 하영 안 놔도 먹을 거 엿날 토종감저가 잇져, 지금 웨감저가 아니고.(많이 안 놔도 먹을 거 옛날 토종고구마가 있지, 지금 왜고구마가 아니고.)
103049 @ 예.(예.)
103049 #3 엿날에 토종감저가.(옛날에 토종고구마가.)
103049 @ 예.(예.)
103049 #3 그거 헤근에, 고름도 막 나는 감저라 그때. 그거 허민은 걸름이 엇어. 그자 헷지.(그거 해서, 고름도 막 나는 고구마야 그때. 그거 하면 거름이 없어. 그저 했지.)
103049 #4 그자 찔럿주게.(그저 찔렀지.)
103049 #3 고사리[103] 비어근엥에.('고사리' 베어서.)
103049 @ 거름은 나중에 또 물어보크라예?(거름은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103049 #3 응. 그자 심거서.(응. 그저 심었어.)
103049 @ 감저 심그젠하면 감저 씨앗을 이제 어떵 준비하고 헌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감저 심으려하면 고구마 씨앗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3049 #3 감저씨앗은 그 입춘 저, 봄 나민 구감 놩. 구감[104] 놩 집 놓듯이 구감

103) 여기서 '고사리'는 고구마모종인 고구마기는줄기를 말한다.

놩.(고구마씨앗은 그 입춘 저, 봄 오면 해묵은고구마 놓아. '구감' 놓아서 집 놓듯이 해묵은고구마 놓아.)
103049 @ 구감은 어디 시민?('구감' 어디 있으면?)
103049 #3 우연네.(터알에.)
103049 @ 아, 우연네.(아, 터알에.)
103049 #3 우연네 이녁 밧, 우연네.(터알에 이녁 밭, 터알에.)
103049 @ 밧듸 그냥 내불문 이제.)밭에 그냥 내버리면 이제.)
103049 #3 심어, 그 때.(심어, 그 때.)
103049 @ 겨울동안은 어떵 헷수과?(겨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49 #3 겨울에는 구뎅이 판 묻엄주.(겨울에는 구덩이 파서 묻었지.)
103049 @ 게난, 구뎅이 팡 묻엇당, 그다음엔?(그러니까, 구덩이 파서 묻었다가, 그다음엔?)
103049 #4 헤싸근엥에.(헤쳐서.)
103049 #3 그걸 이추룩 봄 나민 그걸 파내영.(그걸 이처럼 봄 오면 그걸 파내서.)
103049 @ 예.(예.)
103049 #3 감저를 놔.(고구마를 넣어.)
103049 @ 예.(예.)
103049 #3 그 영 파니를 지서근에 감저를 놩, 원상ᄀᆞ찌[105] 놩.(그 이렇게 이랑을 지어서 고구마를 놓아, 원상ᄀᆞ찌 놓아.)
103049 @ 예.(예.)
103049 #3 흑 골령 그거 허민, 종자가 이거 순이 나오면은 그 싹이 크면은, 그 조 불릴 고비에 흔디 놔. 유월절 뒈민 흔디 놘.(흙 골라서 그거 하면, 종자가 이거 순이 나오면 그 싹이 크면, 그 조 밟을 고비에 같이 놓아. 유월절 되면 같이 놓았어.)
103049 @ 예.(예.)
103049 #3 경헹 감저 놔낫주게.(그렇게 해서 고구마 놓았었지.)
103049 #4 구뎅이 판 묻엄주, 씨.(구덩이 파서 묻었지, 씨.)
103049 @ 씨를예?(씨를요?)
103049 #3 구뎅이 판, 가을 뒈민 그것도 ᄀᆞ찌 파단 문 묻어나서, 구뎅이 판.(구덩이 파서, 가을 되면 그것도 같이 파다가 모두 묻었었어, 구덩이 파서.)
103049 @ 아까, 구감 놧다는 말은 무슨 말이꽈?(아까, '구감' 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49 #3 그거 감저 놓안 거ᄀᆞ라 구감이엔 ᄀᆞᆯ아.(그거 고구마 놓은 것보고 '구감'이라고 말해.)
103049 #4 그거 엿날엔 구감 놩 쭐 기차나면 문 숢아 먹어낫주.(그거 옛날엔 '구감'놓아서 줄기 잘라나면 모두 삶아 먹었었지.)

104) '구감'은 땅 속에 씨앗으로 사용한 해묵은 고구마를 말한다.
105) '원상ᄀᆞ찌'는 이랑 속에 이랑과 같이 놓았다는 말이다.

103049 @ 아, 구감 놩.(아, '구감' 놓아서.)
103049 #3 거 구감이엔 헷주.(그걸 '구감'이라고 했지.)
103049 #4 맛 좋덴 허멍 범벅도 헤 먹곡.(맛 좋다고 하면서 범벅도 해서 먹고.)
103049 #3 심심헤도, 경 맛 좋덴 헷수게. 심심헹 맛엇엉, 물 질질 나멍 맛엇엇수다. 줄 나부난.(심심해도, 그렇게 맛 좋다고 했지요. 심심해서 맛없어서, 물 질질 나면서 맛없었습니다. 줄기 나버려서.)
103049 #4 겡헤도 그걸 먹엇이네.(그래도 그걸 먹었네.)
103050 @ 고구마, 게난 이제 그거 구감에서 그 싹이 나잖아예?(고구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감'에서 그 싹이 나잖아요?)
103050 #3 응.(응.)
103050 @ 그거 짤랑 언제쯤 이제 또 땅에 묻엇수과?(그거 잘라서 언제쯤 이제 또 땅에 묻었습니까?)
103050 #3 게니까 조 불릴 ᄀᆞ리에 놧다니까.(그러니까 조 밟을 고비에 놓았다니까.)
103050 @ 조 불릴 ᄀᆞ리에.(조 밟을 고비에.)
103050 #3 어, 유월절 전후 셈 일로 놔서. 유월절 기준 잡앙.(어, 유월절 전후 셈 날로 놓았어. 유월절 기준 잡아서.)
103050 @ 조 불릴 ᄀᆞ리에예?(조 밟을 고비에요?)
103050 #3 응, 응. 조 불릴 ᄀᆞ리에.(응, 응. 조 밟을 고비에.)
103051 @ 그다음엔예? 감저 밧에 거름은 뭐헷수과?(그다음은요? 고구마 밭에 거름은 뭐했습니까?)
103051 #3 하이고, 그때 걸름이 어디 서서? 엿날에난 걸름 아녀난.(하이고, 그때 거름이 어디 있었어? 옛날이어서 거름 안 했어.)
103051 #4 걸름 아네난. 걸름 아네난.(거름 안 했어, 거름 안 했어.)
103051 @ 이것도 거름 안 허고예?(이것도 거름 안 하고요?)
103051 #4 걸름 아네난. 그자 찔르만 헷주.(거름 안했어. 그저 찌르기만 했지.)
103051 @ 그 영 헌 건 뭐렌 골앗수과?(그 이렇게 한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51 #3 파니? 파니.(이랑? 이랑.)
103051 @ 파니만 만들엉예?(이랑만 만들어서요?)
103051 #3 어, 파니 멘들앙.(어, 이랑 만들어서.)
103051 #4 파니 멘들앙.(이랑 만들어서.)
103051 #3 초불 갈곡 두불 갈앙 판이 멘드는 거주.(초벌 갈고 두벌 갈아서 이랑 만드는 거지.)
103051 @ 음.(음.)
103051 #3 거 흔 번에 못 갈아. 초불 갈아놧당, 또 두불 갈앙 그자 심엇주.(거 한 번에 못 갈아. 초벌 갈아놓았다가, 또 두벌 갈아서 그저 심었지.)
103051 #4 세벳데기[106]엔 헤근에. 하하하.('세벳데기'라고 해서. 하하하.)

106) '세벳데기'는 한 두둑을 세 개의 거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 법을 말한다.

103051 #3 세벳데기.(‘세벳데기’.)
103053 @ 그다음엔예, 감저 밭에는 검질 멧 번 멧수과?(그다음은요, 고구마 밭에는 김 몇 번 맸습니까?)
103053 #3 검질, 그자 흔 번 메민 뒈카? 감저 왓듸는. 그 저 거시기 꿀이 탁 더꺼져 부난 검질이 안 나.(김, 그저 한 번 매면 될까? 고구마 밭에는. 그 저 거시기 덩굴이 탁 덮어져버려서 김이 안 나.)
103053 @ 안 낭예?(안 나서요?)
103053 #3 어, 흔 불 멧주.(어, 한 벌 맸지.)
103054 @ 흔 불 멜 때는 어떤 검질이 나낫수과?(한 벌 맬 때는 어떤 김이 났었습니까?)
103054 #2 그때, 제완지도 나고, 버벌레기풀[107]도 나고.(그때, 바랭이도 나고, 버벌레기풀도 나고.)
103054 @ 버벌레기?(버벌레기?)
103054 #3 버벌레기풀ᄀᆞ라 거 무시거렌 ᄀᆞᆯ아낫이니? 그 썹은 너불너불 난 부트국 허는 거 이서낫주.(‘버벌레기풀’보고 거 뭐라고 말했었지? 그 잎은 넓적넓적 나서 붙고 하는 거 있었었지.)
103054 #4 옷에두 막 부트국 개바눙 닮은 거.(옷에도 막 붙고 도깨비바늘 닮은 거.)
103054 @ 도깨비바늘인가?(도깨비바늘인가?)
103054 #3 어, 도깨비바늘인가? 막 썹 너발너발 헌 거.(어, 도깨비바늘인가? 막 잎 넓적넓적 한 거.)
103054 #4 개바눙 맞아. 여름엔 그게 하.(도깨비바늘 맞아. 여름엔 그게 많아.)
103054 #3 그런 것도 막 하영 나오곡 헤낫주.(그런 것도 매우 많이 나오고 했었지.)
103054 @ 음.(음.)
103054 #4 옛날에 살멍말멍 아이구, 아이구.(옛날에 살며말며 아이고, 아이고.)
103054 @ 버블레기가 혹시 그 저, 속에 알맹이 이성 익으믄 먹는 거꽈?(‘버블레기’가 혹시 그 저, 속에 알맹이 있어서 익으면 먹는 겁니까?)
10354 #3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54 @ 버블레긴 뭐꽈?(‘버블레기’는 뭡니까?)
103054 #3 건 푸께지, 그건.(그건 꽈리지 그건.)
103054 #4 건 푸께.(그건 꽈리.)
103054 @ 아, 맞아, 맞아. 그건 푸께지예? 푸께허고 버블레긴 다른 거마씸?(아, 맞아, 맞아. 그건 꽈리지요? 꽈리하고 ‘버블레긴’ 다른 건가요?)
103054 #4 틀린 거. 푸껜 ᄀᆞ슬 틀민.(틀린 거. 꽈리는 가을 들면.)
103054 #3 푸껜 조 빌 때 먹는 거.(꽈리는 조 벨 때 먹는 거.)
103054 #4 조 빌 때 막 먹나. 간절기도 먹곡 다 헤낫저.(조 벨 때 막 먹는다. 개똥참외도 먹고 다 했었지.)

107) ‘버벌레기풀’은 도꼬마리를 말한 듯하나 도깨비바늘과 혼동해서 정확하지 않다.

103054 #3 구시월에 그 푸께가 익어나고, 그 검질 여름에 저, 유월 칠월에 검질을 메젠허면은 그 감저왓디도 저, 대게 제완지 많이 나. 쑥허고 쑥.(구시월에 그 꽈리가 익었었고, 그 김 여름에 저, 유월 칠월에 김을 매려하면 그 고구마밭에도 저, 대게 바랭이 많이 났어. 쑥하고 쑥.)

103054 @ 쑥 허고예?(쑥 하고요?)

103054 #3 쑥허고 제완지 그런 거 잘 낫주.(쑥하고 바랭이 그런 거 잘 났지.)

103054 #4 겐디 이젠 그런 거 잘 엇어. 그런 거이. 푸께 ᄀᆞ뜬 거.(그런데 이젠 그런 거 잘 없어. 그런 거. 꽈리 같은 거.)

103054 #3 예게, 이제 근사미[108] 치곡 헤가난 엇수퀘.(예게, 이제 근사미 뿌리고하니까 없지요.)

103054 #4 그 약덜 치곡 헤가난.(그 약들 뿌리고 해가니까.)

103055 @ 감저 수확은 언제 헷수과?(고구마 수확은 어제 했습니까?)

103055 #4 구시월에.(구시월에.)

103055 #3 감저 수확은 조 다 헤나민.(고구마 수확은 조 다 하고나면.)

103055 #4 구시월에 허느녜.(구시월에 하네.)

103055 #3 조 다 헤나민, 것도 흔디 조 헤나민 흔디 부쩡 팟주, 것도. 상강일 전에, 상강일 뒈 가민 헤서. 상강일 뒈민.(조 다 하고나면, 그것도 같이 조 하고나면 같이 붙여 팠지, 것도. 상강일 전에, 상강일 돼 가면 했어. 상강일 되면.)

103055 @ 상강일 뒈가민예? 그 감저 팔 때 어떤 식으로 팟수과?(상강일 돼 가면요? 그 고구마 팔 때 어떤 식으로 팠습니까?)

103055 #3,4 ᄀᆞᆯ갱이로.(호미로.)

103055 #3 ᄀᆞᆯ갱이로 영, 영. 꿀 거둬동.(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덩굴 거둬두고.)

103055 @ 꿀 거둬동 그 다음엔 ᄀᆞᆯ갱이로예?(덩굴 거둬두고 그 다음엔 호미로요?)

103055 #4 꿀을 걷지 아녕 기자 잡아뎅기멍 헷주게. 엿날사.(덩굴을 걷지 않고 그저 잡아당기면서 했지. 옛날에야.)

103055 #3 아이고, 그것 저, 그 엿날, 엿날엔 기자 그.(아이고, 그것 저, 그 옛날, 옛날엔 그저 그.)

103055 #4 엿날엔 그자 잡아뎅겻저게, 꿀이 그차시냐?(옛날엔 그저 잡아당겼지, 덩굴을 잘랐니?)

103055 #3 비루 안 헤부난 꿀이 쫄랏주게.(비료 안 해버려서 덩굴이 짧았지.)

103055 #4 쫄루난에 잡아뎅기멍 그자 헷주.(짧으니까 잡아당기면서 그저 했지.)

103056 @ 감저는 감저 보관헐 땐 어떵 헷수과?(고구마는 고구마 보관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56 #3 게난, 구뎅이 파근엥에 그 엠에 막, 어웍이나 조칩이나 막 영 세왕, 세왕 그예 놩.(그러니까, 구덩이 파서 그 옆에 막, 억새나 조짚이나 마구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거기에 넣어.)

---

108) '근사미'는 식물의 뿌리까지 죽이는 독한 농약을 말한다.

103056 #4 ᄂᆞ라미 더껑.(이엉 덮어서.)
103056 #3 흑 영 우트레 이렇게 뒈게시리 올령 영 멘들앙, 저 그레 흑 더퍼.(흙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되게끔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 거기에 흙 덮어.)
103056 @ 음.(음.)
103056 #3 흑 더평 ᄂᆞ람지 둘러청 새로 ᄂᆞ람지 여평.(흙 덮어 이엉 둘러쳐서 띠로 이엉 엮어서.)
103056 @ 예, 그거는 씨 헐 때 헐 거고 먹을 것?(예, 그거는 씨 할 때 할 거고 먹을 것?)
103056 #3 아니, 아니 파먹을 거.(아니, 아니 파먹을 것.)
103056 #4 먹을 것도 경 헤여.(먹을 것도 그렇게 해.)
103056 #3 썩어 불카부덴 파먹을 것도 그디 묻엇다근에 꺼내먹어서.(썩어 버릴까봐 파먹을 것도 거기에 묻었다가 꺼내먹었어.)
103056 #4 영 꺼내근에 먹어. 하하하.(이렇게 꺼내서 먹었어. 하하하.)
103056 #3 숣앙 먹고, ᄒᆞ나썩 파내멍.(삶아서 먹고, 하나씩 파내면서.)
103057 @ 그다음엔 감저로예 감저로는 어떤 것들을 헤먹엇수과?(그다음엔 고구마로요 고구마로는 어떤 것들을 해먹었습니까?)
103057 #3 하이고, 좁쏠에 놔근에 밥도 헹 먹고.(하이고, 좁쌀에 넣어서 밥도 해서 먹고.)
103057 @ 예.(예.)
103057 #4 죽도 쒀먹고.(죽도 쒀먹고.)
103057 #3 감저 썰어 놩 죽도 쒕 먹곡.(고구마 썰어 넣어 죽도 쒀서 먹고.)
103057 @ 예.(예.)
103057 #3 범벅도 헹 먹곡. 모물 ᄀᆞᆯ앙 모물ᄀᆞ루에 범벅도 헤먹곡 헤연.(범벅도 해서 먹고. 메밀 갈아서 메밀가루에 범벅도 해먹고 했어.)
103057 #4 ᄋᆞ라 가지 헤먹엇주.(여러 가지 해먹었지.)
103057 @ 그다음에 혹시 뻿데긴 안 만들엇수과?(그다음에 혹시 절간고구마는 안 만들었습니까?)
103057 #3 뻿데기는 그르후제[109] 헷주.(절간고구마는 '그르후제' 했지.)
103057 #4 그르후제 그건 막.('그르후제' 그건 매우.)
103057 #3 엿날 후제 헷주.(옛날 후에 했지.)
103057 @ 언제쯤 헷수과?(언제쯤 했습니까?)
103057 #4 그건 흔엇이 오래지 아녀서.(그건 한없이 오래지 않았어.)
103057 #3 오래지 아년. 뻿데기가 우리 시집 온 후제 허난에.(오래지 않았어. 절간고구마가 우리 시집 온 후에 하니까.)
103057 #4 음.(음.)
103057 #3 온 후제 허난에.(온 후에 하니까.)

109) '그르후제'는 '뒷날의 어느 때'를 말한다. 이를 달리 '그지후제', '글지후제'라고도 한다.

103057 #4 흔엇이 오래지 아녓저.(한없이 오래지 않았지.)
103057 #3 나가 쑤무 술에 오난에, 흔 쑤물댓 나난 그 젓, 뺏데기 헷어양?(내가 스무 살에 오니까, 한 스물 댓 난 그 젓, 절간고구마 했지요?)
103057 #4 응, 경 헷주.(응, 그렇게 했지.)
103057 @ 음.(음.)
103057 #4 겡헤실 거라.(그랬을 거야.)
103057 @ 아, 일제 땐 엇엇수과?(아, 일제강점기 땐 없었습니까?)
103057 #3 일제 때에 기리보시[110]라고 그때도 이서낫주.(일제강점기 때에 절간고구마라고 그때도 있었지.)
103057 #4 그때도 이서낫어.(그때도 있었어.)
103057 #3 이서낫어, 그때도. 기리보시렌 허멍.(있었어, 그때도. 기리보시라고 하면서.)
103057 #4 그때도 이서낫어. 그 시절은 감저 하영 놧어.(그때도 있었어. 그 시절은 고구마 많이 갈았어.)
103057 @ 예.(예.)
103057 #3 기계, 손으로 영 영 둘르는 걸로 썰엉, 영 영 뺏데기.(기계,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걸로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간고구마.)
103057 #4 하이고, 그땐 감절 하영 놩 뺏데길 하영 헤낫이녜.(하이고, 그땐 고구마를 많이 갈아 절간고구마 많이 했었네.)
103057 #3 일제 때부터 이선.(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어.)
103057 #4 우리 엿날엔 감절 경 하영 아니 놔뒀저게.(우리 옛날엔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아니 놔뒀지.)
103057 #3 뺏데기 헹 솖앙도 먹곡 헤낫주.(절간고그마 해서 삶아도 먹고 했었지.)
103057 @ 솖앙도 먹고예.(삶아서도 먹고요.)
103057 #3 응, 경헤낫주.(응, 그랬었지.)
103058 @ 그면 이때 감저줄기로는 뭐 헷수과? 줄기.(그러면 이때 고구마기는줄기로는 뭐 했습니까? 줄기.)
103058 #3 거 쉐 주엇주 쉐.(그거 고 주었지 소.)
103058 @ 다 쉐만 주엇수과?(다 소만 주었습니까?)
103058 #3,4 응.(응.)
103058 #3 그때는, 이파리 튿아당 베껴동 먹는 거 몰라낫수다게.(그때는, 이파리 뜯어다 벗기고 먹는 거 몰라났습니다.)
103058 #4 건 몰라난.(그건 몰랐었어.)
103058 #3 쉐허고 물허고 그런 거만 주어난. 물류왕, 눌엇당.(소하고 말하고 그런 거만 주었었어. 말려서, 가렸다가.)
103058 #4 무순 구어 먹어도 그건 먹을 줄 몰라낫어, 이?(무는 구어 먹어도 그건 먹

110) '기리보시'는 일본어 'きりぼし'인데 무나 고구마 등 가늘게 썰어 말린 것을 말한다.

을 줄 몰랐었어, 응?)
103058 #3 몰라. 난 안 먹어난.(몰라. 난 안 먹었었어.)
103058 @ 아, 무수를 구엉마씨?(아, 무를 구워서요?)
103058 #3 응. 엿날은, 엿날 숭년엔.(응. 옛날은, 옛날 흉년엔.)
103058 @ 예.(예.)
103058 #4 보리 숭년에.(보리 흉년에.)
103058 #3 그 보리, 엿날에는 우리 그 두린 때 닮아.(그 보리, 옛날에는 우리 그 어린 때 같아.)
103058 @ 예.(예.)
103058 #4 늰 두린 때.(넌 어린 때.)
103058 #3 열 설도 전에.(열 살도 전에.)
103058 @ 예.(예.)
103058 #4 나 시절엔 저런 오가리 헤연 구어난.(나 시절엔 저런 오가리 해서 구웠었어.)
103058 #4 나도 그 알력 집에서 헌 거 얻어먹어낫수다.(나도 그 아래 집에서 한 거 얻어먹었었습니다.)
103058 #4 경헤도 맛 아이고 ***.(그래도 맛 아이고 ***.)
103058#3 바당에 강 패 메어다가, 패 메당 그 물롯이엔 헌 거, 지금 이젠 근사미 치난 물롯도 다 엇는디, 그 물롯 헤근엥에 막 씨처근엥에 그레 헤근엥에 항아리 헤근엥에 ᄀᆞ스락불 헤근에 막 구어낫어양.(바다에 가서 패 매어다가, 패 매다가 그 무릇이라고 한 거, 지금 이젠 '근사미' 뿌리니까 무릇도 다 없는데, 그 무릇 해서 마구 씻어서 거기에 해서 항아리 해서 까끄라기 해서 마구 구웠었어.)
103058 #4 그것도 먹어낫이네, 하이고.(그것도 먹었었어, 하이고.)
103058 @ ᄀᆞ스락 불이 뭐꽈?(까끄라기 불이 뭡니까?)
103058 #3 보리 두드려난 ᄀᆞ스락.(보리 두드려난 까끄라기.)
103058 @ 아, 그걸로 불 지더근에?(아, 그걸로 불 지펴서?)
103058 #4 그 줄대[111]로 영 헤근엥에 감앙.(그 '줄대'로 이렇게 해서 감아서.)
103058 #3 항아리 감앙?(항아리 감아서?)
103058 #4 항아리 감앙.(항아리 감앙.)
103058 @ 항아리 감앙?(항아리 감앙?)
103058 #4 경헨에 먹어낫이네.(그렇게 해서 먹었었네.)
103058 @ 항아리 감앙 허믄?(항아리 감아서 하면?)
103058 #3 그레 ᄀᆞ스락에 불 살랑, 항아리 우트레 불이 그게 부뜨주 부떠. 경헤도 옹그랑허게 그게 벌러지진 아녀, 경허연.(거기에 까끄라기에 불 붙여서, 항아리 위에 불이 그게 붙지 붙어. 그렇게 해도 고스란하게 그게 깨지진 않아, 그렇게 했어.)
103058 @ 음, 경헷구나예.(음, 그랬었군요.)

111) '줄대'는 밭볏짚으로 만든 바를 말한다.

103058 #4 엿날엔 첨 험헤낫주.(옛날엔 참 험했었지.)
103058 @ 감저는 구원, 솖앙만 먹어낫수과? 구워근에는 안 먹엇수과?)고구마는 구원, 삶아서만 먹었었습니까? 구워서는 안 먹었습니까?)
103058 #4 구엉도 먹고.(구워서도 먹고.)
103058 @ 어떵 헹 구웡먹엇수과?(어떻게 해서 구워먹었습니까?)
103058 #4 불에 영 짇으민, ᄀᆞ싸 말짜간에라도 ᄀᆞ스락 불에도 쑥 짇어근엥에[112] 내불곡.(불에 이렇게 지피면, 아까 말했지만도 까끄라기 불에도 쑥 '짇어서' 내버리고.)
103058 @ 밥 헤나면 솟강알[113]에 집어넣고예?(밥 하고나면 '솟강알'에 집어넣고요?)
103058 #4 솟강알에 불 솜을 때 짇어근엥에 경 내여근엥에 둑둑[114] 먹어낫이네.('솟강알'에 불 땔 때 '짇어서' 그렇게 꺼내서 '둑둑' 먹었었네.)
103058 @ 음.(음.)
103058 #4 입가에도 가망, 손두 가망. 하하하 궈 먹엇주.(입가에도 깜장, 손도 깜장. 하하하 구어 먹었지.)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에는예, 고구마 농사까지 헷이난 혹시 수박도 갈아낫수과?(그다음은요, 고구마 농사까지 했으니까 혹시 수박도 갈았었습니까?)
103060 #4 수박 원, 우린 수박 안 갈아난.(수박 원, 우린 수박 안 갈았었어.)
103060 @ 혼두 개 따먹젠도 안 갈아낫수과?(한두 개 따먹으려고도 안 갈았었습니까?)
103060 #4 수박은 아녀나고.(수박은 안 했었고.)
103061 @ 참웨는마씨?(참외는요?)
103061 #4 웨 ᄀᆞ뜬 건 심거난 먹어낫져마는.(오이 같은 건 심어서 먹었었다만.)
103061 @ 웨는 일부러 씨앗을 심어낫수과?(오이는 일부러 씨앗을 심었었습니까?)
103061 #4 그 엿날엔 수박 싱그곡 하간 거, 수박 안 싱거낫져.(그 옛날엔 수박 심고 여러 가지 거, 수박 안 심었었어.)
103061 #3 웨도 싱그민 송뎅이[115] 먹어비여근에 뒈어시냐?(오이도 심으면 '송뎅이' 먹어버려서 되었겠니?)
103061 #4 송뎅이 먹어근에 웨도 안 뒈여.('송뎅이' 먹어서 오이도 안 돼.)
103061 @ 송뎅이가 뭐꽈?('송뎅이'가 뭡니까?)
103061 #4 버렝이.(벌레.)
103061 @ 아, 버렝이덜.(아, 벌레들.)

112) '짇어근엥에'는 기본형 '짇다' 즉 '때다', '방에 불을 놓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때는 곳에 집어넣다'의 의미로 쓰였다.
113) '솟강알'은 걸어놓은 솥 아래를 말한다. '강알'은 표준어 '사타구니'에 대응하는 말이다.
114) '둑둑'은 군고구마에 붙은 탄 부분을 툭툭 뜯어내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115) '송뎅이'는 나물을 먹는 애벌레를 말하는데, 달리 '송동이'라고도 한다.

103061 #4 우리시절엔 그런 거 엇어낫어.(우리시절엔 그런 거 없었어.)
103061 #3 그 놀개돋은 쩨끌락헌 게 불그랑 그 송뎅이 송뎅이 허멍 그 웨 영 싱그민, 이파리 나가민 다 가까 먹어부러 그것가.(그 날개달린 조그마한 게 발그레한 그 '송뎅이' '송뎅이' 하면서 그 오이 이렇게 심으면, 이파리 나가면 다 깎아 먹어버려 그것이.)
103061 #4 이제난 헴주, 엿날엔 웨랑 무시거 엇어낫져.(이제니까 하지, 옛날엔 오이랑 무엇 없었어.)
103061 @ 엇어난예?(없었어요?)
103061 #3 어.(어.)
103062 @ 고추 농산 어떵 헷수과?(고추 농산 어떻게 했습니까?)
103062 #4 고추도 그때 싱그지 아녓저게.(고추도 그때 심지 않았어.)
103062 #3 고추, 그때 이녁 먹을 거나 토종고치 젠젠헌 거 ᄒᆞ꼼 싱그나마나 헷주.(고추, 그때 이녁 먹을 거나 토종고추 자잘한 거 조금 심으나마나 했지.)
103062 #4 몰라, 고치 싱거나지 아녓저 난.(몰라, 고추 심지 않았지 난.)
103062 #3 고치 싱거낫수다게.(고추 심었었습니다.)
103062 @ 아니, 고치 싱거사, 고춧가루 이서사 김치 담글 거 아니꽈?(아니, 고추 심어야, 고춧가루 있어야 김치 담글 거 아닙니까?)
103062 #3 그때 ᄒᆞ끔 심그믄 헤낫수다. 엿날에.(그때 조금 심기는 했었습니다. 옛날에.)
103062 #4 아이고, 짐친 풀고치 헤근엥에 기냥 ᄂᆞ물 케다근엥에 헤 먹어낫주. 어디 고치가 서시카.(아이고, 김친 풋고추 해서 그냥 나물 캐다가 해 먹었었지. 어디 고추가 있었을까.)
103062 @ 아니 게난 풀고치, 풀고치 허젠허민 고칠 갈아야 헐 거 아니꽈?(아니 그러니까 풋고추, 풋고추 하려하면 고추를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3062 #4 고치 안 갈아난, 우리 고치 아이 갈아낫저.(고추 안 갈았었어, 우리 고추 아니 갈았었어.)
103062 @ 풀고치는 뭣꽈? 게문.(풋고추는 뭡니까? 그러면.)
103062 #3 풀고치는 퍼렁한 고친디.(풋고추는 파란 고춘데.)
103062 @ 아, 예.(아, 예.)
103062 #4 어디 간.(어디 가서.)
103062 #3 ᄒᆞ나씩은 이녁 먹을 거 헤낫수다게.(하나씩은 이녁 먹을 거 했었습니다.)
103062 #4 몰라. 난 아네서.(몰라. 난 안 했어.)
103062 @ 거믄 고치 묘종은 어떵 헷수과? 씨앗 다 받아 놧당마씨?(그러면 고추 모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씨앗 다 받아 놓았다가요?)
103062 #3 요새?(요새?)
103062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3062 #3 엿날 씨 받아놧다가.(옛날 씨 받아놓았다가.)
103062 @ 씨 받아나민 그 고치씨를 그냥 땅에다 묻으믄 고치가 나완마씨?(씨 받아놓

으면 그 고추씨를 그냥 땅에다 묻으면 고추가 나왔나요?)
103062 #3 어, 어.(어, 어.)
103062 @ 그냥 땅에다 묻으면?(그냥 땅에다 묻으면?)
103062 #3 봄 나민, 놧다가, 이제 지금 놔사는 거주.(봄 오면, 놓았다가, 이제 지금 놓아야하는 거지.)
103062 @ 지금 놔사야예, 음.(지금 놓아야, 음.)
103062 #3 응.(응.)
103062 #4 그때 엿날에 기자 소금.(그때 옛날에 그저 소금.)
103062 #3 소금 엇어부난 바당물에 강 ᄂᆞ물 씨어낫주.(소금 없어버려서 바닷물에 가서 나물 씻었었지.)
103062 #4 엿날에 바당물에 강 헤당 기자 먹어낫저.(옛날에 바닷물에 가서 해다가 그저 먹었었지.)
103063 @ 배추마씸?(배추요?)
103063 #3 바당에 강.(바다에 가서.)
103063 #4 드릇ᄂᆞ물 케영, 케영 바당에 강 싯청.(들나물 캐서, 캐서 바다에 가서 씻어서.)
103063 @ 예.(예.)
103063 #4 오랑 항아리에 담앙, 기자 그 쫍지그랑허게 기자 먹어낫어.(와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저 그 짭조름하게 그저 먹었었어.)
103063 @ 아, 바당물로 씻으민 그 짠 기운으로 항아리 놔가지고.(아, 바닷물로 씻으면 그 짠 기운으로 항아리 넣어가지고.)
103063 #4 어, 어어. 경헨 먹어낫저게.(어, 어어.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103063 @ 게믄 ᄂᆞ물은 어떵 싱거수과? 배추 같은 건.(그러면 나물은 어떻게 심었습니까? 배추 같은 건.)
103063 #4 드릇ᄂᆞ물 케당.(들나물 캐다가.)
103063 @ 아, 드릇ᄂᆞ물 케당.(아, 들나물 캐다가.)
103063 #4 야이 첨, 하하하하.(애가 참, 하하하하.)
103063 @ 아니, 드릇ᄂᆞ물도 어딘가 싱거나사.(아니, 들나물도 어딘가 심었어야.)
103063 #4 난 그거 나자 마눙도 케레 가오고.(난 그거 나자 마늘도 캐러 가오고.)
103063 #3 바께 가민 막 이서낫어.(밖에 가면 마구 있었어.)
103063 @ 아, 아.(아, 아.)
103063 #4 그자 비작비작[116] 겡 헤.(그저 '비작비작' 그렇게 해.)
103063 #3 그땐 드릇ᄂᆞ물이 막 하.(그땐 들나물이 매우 많아.)
103063 @ 항예.(많아서요.)
103063 #3 지금 드릇ᄂᆞ물 닮지 아녀. 그땐 드릇ᄂᆞ물이 맛이 서서.(지금 들나물 같지 않아. 그땐 들나물이 맛이 있었어.)

116) '비작비작'은 들나물들이 삐죽삐죽 여기저기 많이 솟아난 모습을 말한다.

103063 #4 맛도 좋아.(맛도 좋아.)
103063 #3 ᄏᆞ시롱헌 게 맛 좋아. 이 ᄂᆞ물이 꼬골꼬골헤서, 꼬골꼬골꼬골 헌 ᄂᆞ물 헤낫주게. 경헨 그게 막 맛이 서서. 지금 ᄂᆞ물 닮지 아녕, 하하하.(고소한 게 맛 좋아. 이 나물이 꼬골꼬골해서, 꼬골꼬골꼬골 한 나물 캤었지. 그렇게 해서 그게 막 맛이 있었어. 지금 나물 닮지 않아서, 하하하.)
103063 @ 음.(음.)
103063 #4 반 죽으민이, 그걸 항아리에 담앙.(반쯤 절여지면,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103063 @ 예.(예.)
103063 #4 허민 꺼냉은엥에 원, 세금세금 헤라.(하면 꺼내서 원, 새금새금 하더라.)
103063 @ 음.(음.)
103063 #4 그때. 세큼세큼, 경헹 감저 솖아근엥에 기자 먹어라. 기자 먹엇이녜, 하하하.(그때. 새큼새큼, 그렇게 해서 고구마 삶아서 그저 먹더라. 그저 먹었네, 하하하.)
103063 @ 음.(음.)
103063 #3 아니, 소곰 ᄒᆞ꼼 뿌렷수다게. 하하하.(아니, 소금 조금 뿌렸습니다. 하하하.)
103063 #4 소곰 ᄒᆞ꼼 뿌리는 축 헷주게. 하하하.(소금 조금 뿌리는 척 했지. 하하하.)
103063 #3 소곰 ᄒᆞ꼼 뿌렷주게. 하하하.(소금 조금 뿌렸지. 하하하.)
103064 @ 놈삐는 어떵 헷수과? 갈아근에.(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아서.)
103064 #3 허이고, 그땐 놈삐도이, 졸바로 아니 갈안. 먹어나지 아녀서. 토종ᄂᆞ물 그자.(하이고, 그땐 무도, 제대로 아니 갈았어. 먹어나지 않았어. 토종나물 그저.)
103064 #4 나, 아니 ᄀᆞᆯ암냐게. 드릇ᄂᆞ물 케당 먹곡, 마눙 케당 먹곡.(내가, 아니 말하니. 들나물 캐다가 먹고, 마늘 캐다가 먹고.)
103064 #3 놈삐도 잇긴 이서낫수다게.(무도 있긴 있었습니다.)
103064 @ 드르에서 막 낭?(들에서 막 나서?)
103064 #3 아니, 놈삐, 집이서 ᄒᆞ끔 갈긴 헤낫수다게, 엿날도게.(아니, 무, 집에서 조금 갈긴 했었습니다, 옛날도.)
103064 #4 몰라.(몰라.)
103064 #3 갈앗수다게. 엿날게 배추도게 그 소배치 집에서 갈안 먹언. 배추 뿔리도 솖안 먹으멍 헤낫수다게.(갈았습니다. 옛날에 배추도 그 속없는 배추 집에서 갈아서 먹었어. 배추 뿌리도 삶아서 먹고는 했었습니다.)
103064 #4 나, 마눙 케레 뎅기곡 거, 그건 알아져.(나, 마늘 캐러 다니고 그거, 그건 알지.)
103064 #3 배추도 집이 갈면은 엿날 당배추가 아니라.(배추도 집에 갈면 옛날 당배추가 아니야.)
103064 @ 음.(음.)
103064 #3 지금 배추가 아니랑.(지금 배추가 아니라서.)
103064 @ 음.(음.)

103064 #4 경 잘 안 뒈여. 갈믄 헤도.(그렇게 잘 안 돼. 갈기는 해도.)
103064 #3 포기 영 앗지 아녀는 거. 영 퍼닥퍼닥 헌 거라도 허민. (포기 이렇게 안지 않는 거. 이렇게 퍼덕퍼덕 한 거라도 많으면.)
103064 #4 잘 안 뒈라게.(잘 안 되더라.)
103064 #3 거 영 케민 그거 헤근엥에, 퍼닥퍼닥 허여, 짐치 허는 쳑 헹 먹곡, 그 뿌릴 솖안 먹어나서.(그거 이렇게 캐면 그거 해서, 퍼덕퍼덕 해, 김치 하는 척 해서 먹고, 그 뿌릴 삶아서 먹었었어.)
103064 @ 음.(음.)
103064 #3 뿌리, 배추 뿌리.(뿌리, 배추 뿌리.)
103064 @ 음.(음.)
103064 #3 뿌리도.(뿌리도.)
103064 #4 맛 좋아.(맛 좋아.)
103065 @ 지슬은 어떵 헷수과?(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65 #3 그 지슬은 놘먹어낫어. 그때 엿날, 엿날에도 그때 우리 두린 때 보면양?(그 감자는 놓아먹었었어. 그때 옛날, 옛날에도 그때 우리 어린 때 보면요?)
103065 #4 불치 놔근엥에.(재 넣어서.)
103065 #3 불치 놩. 검질 불솜앗주 그때.(재 넣어. 검불 불살랐지 그때.)
103065 #4 경헤도이 뒈질 안헤라게.(그래도 되지 않더라.)
103065 #3 검질 불솜으난에 불치 놔근엥에 지슬을 싱거서. 지슬 심그민.(검불 불사르니까 재 넣어서 감자를 심었어. 감자 심으면.)
103065 @ 음.(음.)
103065 #3 엿날, 지금 닮지 아녕, 저, 지슬이 저 ᄉᆞ롬ᄉᆞ롬[117] 헌 게 저 토종지슬이 이서낫주.(옛날, 지금 같지 않고, 저, 감자가 저 'ᄉᆞ롬ᄉᆞ롬' 한 게 저 토종감자가가 있었지.)
103065 #4 토종지슬 젠젠헌 거.(토종감자 자잘한 거.)
103065 #3 좀지그랑헌 거. 껍데기가 불구랑 헌 지슬 이서난.(자잘한 거. 껍데기가 발그스름한 감자 있었어.)
103065 @ 예.(예.)
103065 #3 그런 거 헤난.(그런 거 했었어.)
103065 @ 아까 불치에 어떤 헨마씨?(아까 재에 어떻게 했어요?)
103065 #3 불치에 영 뿌령.(재 이렇게 뿌려서.)
103065 @ 예.(예.)
103065 #3 고랑에 영 짝 뿌리민 그 위에 흑 올령, 그 지슬 영 싱것주 싱거.(고랑에 이렇게 짝 뿌리면 그 위에 흙 올려서, 그 감자 이렇게 심었지 심어.)
103065 @ 음.(음.)
103065 #3 꼭꼭 싱그민. 경허민게 거름이엔 엿날에 엇어부난게.(꼭꼭 심으면. 그러면

117) 'ᄉᆞ롬ᄉᆞ롬'은 조금 알맞게 긴 듯한 모양을 말하는데, 달리 'ᄉᆞ람ᄉᆞ람'이라고도 한다.

거름이라고 옛날에 없어버려서.)
103065 #4 비로가 이서시냐?(비료가 있었니?)
103065 #3 비료 나건디가 오래지 아녓주게, 경허난.(비료 나온 지가 오래지 않았지, 그러니까.)
103066 @ 혹시 피 농사도 헤낫수과?(혹시 피 농사도 했었습니까?)
103066 #3 그, 피도 물ᄀᆞᆯ르는 밧듸 피 갈아.(그, 피도 물괴는 밭에 피 갈아.)
103066 #4 엿날에 피도 헤낫저.(옛날에 피도 했었지.)
103066 @ 어떤 듸마씸?(어떤 데요?)
103066 #3 물 앉는 밧데.(물 고이는 밭에.)
103066 @ 아, 아.(아, 아.)
103066 #4 조 ᄇᆞᆯ릴 때.(조 밟을 때.)
103066 #3 조 못 ᄇᆞᆯ리는 밧듸.(모 못 밟는 밭에.)
103066 @ 물기 잇는데?(물기 있는데.)
103066 #3 조는 헤여근엥에 아니뒈주. 물ᄀᆞᆯ라 불민. 죽어부러.(조는 해서 안 되지. 물 고여 버리면. 죽어버려.)
103066 #4 피가 잘 뒈어.(피가 잘 돼.)
103066 #3 겐디 피는 뒈어.(그런데 피는 돼.)
103066 @ 음.(음.)
103066 #3 물, 수증끼 이신 밧듸 피 ᄇᆞᆯ려낫어.(물, 물기 있는 밭에 피 밟았었어.)
103066 #4 게민 기계도 아녕 방에에서 다 져.(그러면 기계도 않고 방아에서 다 찧지.)
103066 #3 ᄀᆞ레에서도 ᄀᆞᆯ고, ᄆᆞᆯᄀᆞ레에도 ᄀᆞᆯ곡.(맷돌에서도 갈고, 연자매에도 갈곡.)
103066 #4 정ᄀᆞ레도 ᄀᆞᆯ고.(풀맷돌에도 갈고.)
103066 @ 피로는 뭐 헤먹엇수과?(피로는 뭐 해먹었습니까?)
103066 #3 거, 죽도 써 먹국, 밥도 해먹곡 헤연.(거, 죽도 써 먹고, 밥도 해먹고 했어.)
103066 #4 야! 좁쏠 헤영 헌다 거, 피.(야! 좁쌀 해서 한다 그거, 피.)
103066 #3 피밥 막 맛디서. 복삭복삭[118] 헌 게.(피밥 매우 맛있어. '복삭복삭' 한 게.)
103066 #4 복삭복삭 헌 게, 아이고, 무시것도 헤낫저 첨.('복삭복삭' 한 게, 아이고, 무엇도 했었지 참.)
103067 @ 음. 그다음 아까 저기 어, 모믈?(음. 그다음 아까 저기 어, 메밀?)
103067 #3 모물.(메밀.)
103067 @ 여기선 모물이렌 ᄀᆞᆯ앗수과? 모ᄆᆞᆯ이렌 헷수과?(여기선 '모물'이라고 말했습니까? '모ᄆᆞᆯ'이라고 했습니까?)
103067 #3 모물이렌 헷주. 메밀이렌 안 ᄀᆞᆯ안.('모물'이라고 했지. 메밀이라고 안 말했어.)
103067 @ 모물 농산 어떵 헷수과?(메밀 농산 어떻게 했습니까?)

118) '복삭복삭'은 '폭삭폭삭' 혹은 '뽀송뽀송'한 상태를 말한다.

103067 #3 그 모물 농사는 그, 것도 불치에 서텅 좁아나놔서.(그 메밀 농사는 그, 그것도 재에 섞어서 집어놓았었어.)
103067 #4 좁아놧주게. 영 걸름을.(집어놓았지. 이렇게 거름을.)
103067 @ 걸름을예?(거름을요?)
103067 #3 모물씨를 불치에 영 서텅.(메밀 씨를 재에 이렇게 섞어서.)
103067 @ 예.(예.)
103067 #3 서터근엥에 구덕 옆구리 메근엥에 톡톡톡톡 접와 놔서.(섞어서 구덕 옆구리 매서 톡톡톡톡 집어 놓았어.)
103067 #4 게난 하영을 안 갈앗이녜게.(그러니 많이 안 갈았네.)
103067 #3 게도 혼 천 평씩 갈앗수다게, 그때도.(그래도 한 천 평씩 갈았습니다, 그때도.)
103067 #4 경 하영 간 사름도 잇곡 안 간 사름도 잇고.(그렇게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103067 @ 그 모물을 풀앗수과?(그 메밀을 팔았습니까?)
103067 #3 풀지아년. 그때 먹엇주. 골안 먹언. 제베기도 헹 먹곡.(팔지 않았어. 그때 먹었지. 갈아 먹었어.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3067 @ 제베기도 헹 먹고예?(수제비도 해서 먹고요?)
103067 #3 어.(어.)
103067 #4 영 접아놔시녜. 톡톡허게.(이렇게 집어넣었네. 톡톡하게.)
103067 #3 접아놘.(집어넣어.)
103068 @ 담베농사도 저낫수과?(담배농사도 지었었습니까?)
103068 #3 담베? 담베도 우리 아버지 막 이녁 먹을 거 헤난.(담배? 담배도 우리 아버지 막 이녁 먹을 것 했었어.)
103068 @ 기억남수과?(기억나십니까?)
103068 #3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세화리[119] 온 후제도 갈안. 세화리 온 후제도 헤연.(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세화리' 온 후도 갈았어. '세화리' 온 후도 했어.)
103068 #4 겁[120] 궤연.(겁 꿰어서.)
103068 #3 우리 아버진 담벨 잘 허난, 담베 헤근에 우연네 씨 거 담베 씨가 잰잰[121] 잰잰 허여.(우리 아버진 담밸 잘 하니까, 담배 해서 터앝에 씨 거 담배씨가 '잰잰' '잰잰' 해.)
103068 @ 예.(예.)
103068 #3 잰잰허민 거 헤영 낫당, 낫다가 그 씨 봄 나민 삐영 갈앙, 우연네 영 울왓에.('잰잰'하면 그거 해서 놔뒀다가, 놔뒀다가 그 씨 봄 나면 뿌려 갈아서, 터앝에 이렇게 터앝에.)
103068 @ 예.(예.)
103068 #3 갈아근에 그것가 나, 담베 썹이 더발더발 혹주, 영.(갈아서 그것이 나, 담배 잎이 더펄더펄 굵지, 이렇게.)

119) '세화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120) '겁'은 실 따위의 가닥을 말한다.
121) '잰잰'은 낱낱이 다 잘디잔, 아주 작을 것을 말한다.

103068 @ 예.(예.)
103068 #3 터박터박허민, 그 가무릉허게 메 아렛 썹으로 튿아.(더펄더펄하면, 그 거무스름하게 맨 아래 잎으로 뜯어서.)
103068 @ 예.(예.)
103068 #3 아렛 썹으로 튿앙.(아래 잎으로 뜯어서.)
103068 #4 것도 ᄉᆞ뭇 엿날 아니라, 하르방 거 담베 심은 거.(그것도 사뭇 옛날 아니라, 할아버지 그거 담배 심은 거.)
103068 #3 예. 엿날에도 우리 저 가스름[122] 살 때도 헤낫수다게, 그거.(예. 옛날에도 우리 저 가스름 살 때도 했었습니다, 그거.)
103068 @ 음.(음.)
103068 #4 아주 엿날은 아니주.(아주 옛날은 아니지.)
103068 #3 가스름 살 때도 그거 헙디다게. ᄉᆞ섬ᄉᆞ건 전이.('가스름' 살 때도 그거 합디다. 사삼사건 전에.)
103068 #4 하르방?(할아버지?)
103068 #3 ᄉᆞ섬ᄉᆞ건 날 때도.(사삼사건 날 때도.)
103068 #4 경 헤나난에 여기 ᄂᆞ려오란.(그렇게 했었으니까 여기 내려와서도.)
103068 #3 ᄂᆞ려와도 그걸 헌 거 아니꽈, 우리 아버지네 가스름 우연이 흔 천오백 펭 뒈. 막 커니까 울안이. 거난 그디 농서를 그런 거 헙디다. 담베 영 우연네 갈민.(내려와도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네 가스름 터앝에 한 천오백 평 돼. 막 크니까 울안이. 그러니 거기 농사를 그런 거 합디다. 담배 이렇게 터앝에 갈면.)
103068 #4 엿날엔 싱경 먹어낫주게.(옛날엔 심어서 먹었었지.)
103068 #3 싱경 허민 거 영 튿아근엥에 영 ᄂᆞ람지 읖이도 막 여평, 영 집지슬 에염에 돌아메영, 물류는 거지.(심어서 하면 그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이엉 옆에도 막 엮어, 이렇게 처맛기슭 옆에 달아매, 말리는 거지.)
103068 @ 예.(예.)
103068 #3 물류민 그것가 벌거케 발던 게 이추룩 이런 색깔 ᄀᆞ찌.(말리면 그것이 벌겋게 바래던 게 이처럼 이런 색깔 같이.)
103068 #4 노랑허주.(노랗지.)
103068 #3 불그릉허게 발민, 바싹 ᄆᆞ르민, 걸 영 뜯어근엥에 요만썩 흔 줌썩 헤근에 막 여평.(발그레하게 바래면, 바싹 마르면, 그걸 이렇게 뜯어서 요만씩 한 줌씩 해서 마구 엮어.)
103068 @ 예.(예.)
103068 #3 그거를 지금은 비니루지, 비니루 엇어부난 멩텡이에 담앙.(그거를 지금은 비닐이지, 비닐 없어서 망태기에 담아서.)
103068 @ 예,(예.)
103068 #3 멩텡이 알아져?(망태기 알아?)

122) '가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이다.

103068 @ 예.(예.)
103068 #3 멩텡이 헤근엥에 영 꼰꼰허게[123] 담앙 돌 탁! 지둘롸 놔뒨게.(망태기 해서 이렇게 '꼰꼰허게' 담아서 돌 탁! 지지러 놔두던데.)
103068 @ 예.(예.)
103068 #3 그거를 딴딴허게시리 헨에.(그거를 딴딴하게끔 해서.)
103068 @ 에.(예.)
103068 #3 그추륵 허연 헤연.(그처럼 해서 했어.)
103068 #4 자이 멩텡이 아라? 하하하.(쟤 망태기 알아? 하하하.)
103068 @ 예.(예.)
103068 #4 접 지사.(접 지어야.)
103068 #3 먹을 땐 썰엉 먹곤 헨게. 경형 막끗데 강, 막끗데 거는 그자 튼아근엥에 그자 썰엉 퍼렁허게 그자 물류왕 물려.(먹을 땐 썰어서 먹곤 하던데.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끝에 거는 그저 뜯어서 그저 썰어서 파랗게 그저 말려서 말려.)
103068 @ 음.(음.)
103068 #4 봉초로.(봉초로.)
103068 #3 입초, 입초 허멍.(입초, 입초하면서.)
103068 @ 음.(음.)
103068 #3 그추룩 헨게. 담베도.(그처럼 하던데. 담배도.)
103068 #4 보옥짝 썰어라 하르방덜.(복작 썰더라, 할아버지들.)
103068 @ 음.(음.)
103068 #3 우리 아버진양? 가스름 살 때부터 허난 그 거난 이디 완도 그거 헷수게 예.(우리 아버진요? '가스름' 살 때부터 하니까 그 그러니 여기 와서도 그거 했습니다.)
103068 #4 엿날부터 헷이네게.(옛날부터 했었네.)
103068 #3 예. 거 헙디다게.(예. 그거 합디다.)
103068 @ 예, 이제 그 농사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예.(예, 이제 그 농사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103068 #3 우리 승민이 담배 ᄒᆞ나 사단 헤단 싱거십디다, 지금.(우리 승민이 담배 하나 사다가 해다가 심었습디다, 지금.)
103068 #4 지금?(지금?)
103068 @ 예. 우연네.(네, 터앝에.)

4. 들일

소 기르기

123) '꼰꼰하게'는 차곡차곡 쌓은 담배 잎을 꼭꼭 눌러 담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104001 @ 지난번에 부탁드린 조사마을이랑 정말 고맙게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노인회장님 모시고 두 분이서예 들일에 데헤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 부탁드린 조사마을이랑 정말 고맙게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노인회장님 모시고 두 분이서요 들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4001 @ 들일에 보면 뭐 쉐 질루는 거하고예 아까 말씀헤 주신대로 말 질루는 그런 얘긴데 먼저 쉐 질루는 거부터 질문하겟습니다예. 그 쉐가 송아지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른쉐가 뒐 때까지 그 과정을 골아줍서.(들일에 보면 뭐 소 기르는 것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말 기르는 그런 얘긴데 먼저 소 기르는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가 송아지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른소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말해주세요.)

104001 #5 쉐, 쉐를 아, 처음부터?(소, 소를 아, 처음부터?)

104001 @ 예.(예.)

104001 #5 새끼를 나민.(새끼를 낳으면.)

104001 @ 예.(예.)

104001 #1 새끼 나민 금승 송아기.(새끼 낳으면 금승 송아지.)

104001 @ 아, 기꽈?(아, 그래요?)

104001 #5 처음에 난 송아지 보고 금승 송아기.(처음에 난 송아지 보고 금승 송아지.)

104001 @ 금송이꽈? 금승이꽈?('금송'입니까? '금승'입니까?)

104001 #5 송인가 승인가? 나 모르겟는데. 허허허.('송'인가 '승'인가? 나 모르겠는데. 허허허.)

104001 #1 금승이 맞일 거여, 금승.('금승'이 맞을 거야, '금승'.)

104001 @ 금승송아지예? 금승?('금승'송아지요? '금승'?)

104001 #1 음.(음.)

104001 @ 금승송아지엔 골으고 그다음엔마씨?('금승'송아지라고 말하고 그다음은요?)

104001 #5 그게 흔 일 년쯤 뒈면은 에미가 젓을 멕여, 일 년 동안을.(그게 한 일 년쯤 되면 어미가 젖을 먹여, 일 년 동안을.)

104001 @ 예.(예.)

104001 #5 일 년 동안을 새낄 나면은 에미가 젓을 멕영 키우주게.(일 년 동안을 새끼 낳으면 어미가 젖을 먹여서 키우지.)

104001 @ 예.(예.)

104001 #5 게민 우리는 기냥 목장에 가지다근에 여름철에 놔불민.(그러면 우리는 그냥 목장에 가져다가 여름철에 놔버리면.)

104001 @ 예.(예.)

104001 #5 거 그자 흔 둘에 흔 번 정도 가고, 진드기 약 그거나 헤주곡.(거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진드기 약 그거나 해주고.)

104001 @ 예.(예.)

104001 #5 그렇게 헤영 내비엇당.(그렇게 해서 내버렸다가.)

104001 @ 예.(예.)
104001 #5 농사철 뒈민.(농사철 되면.)
104001 @ 예.(예.)
104001 #5 밧 갈랴고.(밭 갈려고.)
104001 @ 일 년 지나민마씨? 한 살 지난 다음?(일 년 지나면요? 한 살 지난 다음?)
104001 #5 아니, 그 저 송아지, 봄에 보통 나니까.(아니, 그 저 송아지, 봄에 보통 낳으니까.)
104001 @ 예.(예.)
104001 #5 여름철에 농사철에 가근에 송아지영 데려다근에 밧 갈곡.(여름철에 농사철에 가서 송아지랑 데려다가 밭 갈고.)
104001 @ 아, 게민 벌써 봄에 난 송아지가 일을?(아, 그러면 벌써 봄에 난 송아지가 일을?)
104001 #5 아니, 아니 에미 소가 오면은 송아지도 ᄀᆞ찌 와야주게.(아니, 아니 어미 소가 오면 송아지도 같이 와야지.)
104001 @ 맞수다예.(맞습니다.)
104001 #5 게민 오라근에 이제 또 농사 끗나민 또 범목장[124]에 이제 올리고.(그러면 와서 이제 또 농사 끝나면 또 '범목장'에 이제 올리고.)
104001 @ 예.(예.)
104001 #5 그러다가 일 년 동안 젓 멕이면 젓을 떨어불어.(그러다가 일 년 동안 젖 먹이면 젖을 떼어버려.)
104001 @ 아, 기꽈?(아, 그래요?)
104001 #5 젓 떨어비도근에 또 새끼 베민 나고 게민 그 자연적으로, 옛날엔 지금은 뭐 수정허고 뭐 헷주마는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그 숫소들이 많이 목장에 이시니까 그 새낄 베여.(젖 떼고서는 또 새끼 배면 낳고,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옛날엔 지금은 뭐 수정하고 뭐 했지만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그 황소들이 많이 목장에 있으니까 그 새낄 배서.)
104001 @ 예.(예.)
104001 #5 일 년에 흔 번씩 낳는 소가 잇고, 또 이 년에 흔 번 새끼 나는 소가 이서.(일 년에 한 번씩 낳는 소가 있고, 또 한 이 년에 한 번 새끼 낳는 소가 있어.)
104001 @ 아.(아.)
104001 #5 게난 그거는 도움이 잘 안뒈지. 일 년에 흔 번 나 줘야 그게 돈이 뒈곡 허는데.(그러니 그거는 도움이 잘 안되지. 일 년에 한 번 나 줘야 그게 돈이 되고 하는데.)
104001 @ 맞다예.(맞네요.)
104001 #5 마 그래도 이 년에 흔 번 나는 소가 이서. 새끼를.(마 그래도 이 년에 한 번 나는 소가 있어. 새끼를.)
104001 @ 아.(아.)

124) '범목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마을 공동목장을 말한다.

104001 #5 경헤근에 흔 세 살.(그렇게 해서 한 세 살.)
104001 @ 예.(예.)
104001 #5 세 살쯤 뒈면 그 젓 떨어불민 자기대로 이제는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세 살쯤 되면 그 젖 떼어버리면 자기대로 이제는 풀 뜯어먹고 살아야지.)
104001 @ 예.(예.)
104001 #5 에미ᄒᆞ고 ᄀᆞ치 다녀 그래도.(어미하고 같이 다녀, 그래도.)
104001 @ 아.(아.)
104001 #5 ᄀᆞ치는 다니는데 젓만 안 멕이지. 게 놀아도 ᄀᆞ치 놀곡.(같이는 다니는데 젖만 안 먹이지. 그게 놀아도 같이 놀고.)
104001 @ 음.(음.)
104001 #5 물 먹으레 갈 때도 ᄀᆞ치 가곡 경은 ᄒᆞ는데 흔 세 설쯤 뒈면은 그때 ᄁᆞ지는 ᄀᆞ치 다녀.(물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는 하는데 한 세 살쯤 되면 그때까지는 같이 다녀.)
104001 @ 음.(음.)
104001 #5 ᄀᆞ치 다니다가 세 살쯤 뒈면은 새끼를 벤다고. 새끼가.(같이 다니다가 세 살쯤 되면 새끼를 밴다고. 새끼가.)
104001 @ 세 살 뒈면은예.(세 살 되면요.)
104001 #5 새끼가 또 새끼를 베면 또 그 식으로 헤서 키우고.(새끼가 또 새끼를 배면 또 그 식으로 해서 키우고.)
104001 @ 아.(아.)
104001 #5 게서 가을에 철 뒈면은 이제 촐, 겨울을 월동준비로 헌 촐 멕여.(그래서 가을에 철 되면 이제 꼴, 겨울을 월동준비로 한 꼴 먹여.)
104001 #1 겨울에 멕일 거. 촐 비여당 집에 눌어놩.(겨울에 먹일 거. 꼴 베어다가 집에 가려놓아.)
104001 #5 비어근에 밧듸 눌엇다가.(베서 밭에 가렸다가.)
104001 @ 예.(예.)
104001 #5 에, 근간에는 뭐 마차도 잇고 경운기도 잇고 차로 이렇게 실럿지마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엇엇단 말이어. 소에 질메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촐을 실러서 집에까지 운반을 헤서.(에, 근간에는 뭐 마차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차로 이렇게 실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소에 길마를 지워가지고 거기서 꼴을 실어서 집에까지 운반을 했어.)
104001 @ 놔돗당 겨울엔 멕엿구나예?(놔뒀다가 겨울엔 먹였군요?)
104001 #1 어.(어.)
104001 #5 경허영 집에 쌓여놧다가, 마 겨울철에 이제 동지 뒈면.(그렇게 해서 집에 쌓아놓았다가, 마 겨울철에 이제 동지 되면.)
104001 @ 예.(예.)
104001 #5 입동 뒈면은 목장에서 쉐를 내려다가 이제 쉐막에 메여서 그 촐 주곡, 또

낮 뒈면은 물 멕이러 또 ᄒᆞ루 ᄒᆞᆫ 번씩 내창에 강은에 물을 멕영 와. 경허멍 그 쉐를 질루주. 물도 마찬가지.(입동 되면 목장에서 소를 내려다가 이제 외양간에 매어서 그 꼴 주고, 또 낮 되면 물 먹이러 또 하루 한 번씩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 오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를 기르지. 말도 마찬가지.)

104001 @ 물도 마찬가지고예. 먹이에 데헤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크난예?(말도 마찬가지고요. 먹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더 여쭤볼 거니까요?)

104002 @ 쉐도 막 종류가 여럿 잇잖아예? 어떤 종류가 이서수가?(소도 막 종류가 여럿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4002 #1 엿날에는 토종도 토종 하나뿐.(옛날에는 토종도 토종 하나뿐.)

104002 #5 엿날에는 토종 ᄒᆞ나벳긘 엇엇는디 엿날엔 슥쉐가 이서. 슥쉐엔 헌 쉐가 이섯는디 그 후에는.(옛날에는 토종 하나밖에 없었는데 옛날엔 칡소가 있어. '칡소'라고 한 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104002 #1 슥쉐엔 허주, 슥쉐.(칡소라고 하지, 칡소.)

104002 @ 슥소?(칡소?)

104002 #1 응, 슥쉐, 혹우 그다음엔.(응, 칡소, 혹우 그다음엔.)

104002 #5 그다음엔 개량종들 브라만이니 뭐니 웨국서 들어온 무슨 싸루레니[125] 그런 것덜, 종류가 만히 이섯지이.(그다음엔 개량종들 브라만이니 뭐니 외국서 들어온 무슨 싸루레니 그런 것, 종류가 많이 있었지.)

104002 @ 맞수다.(맞습니다.)

104002 #1 건 해방 후에 들어완.(그건 해방 후에 들어왔어.)

104003 @ 해방 후에예?(해방 후요?)

104003 #1 응.(응.)

104003 @ 아까 그 말씀해주실 때 소를 밧 갈 때 이용헷덴 허는데예? 그 소를 밧 갈 때도 이용 헷주마는 또 다른 데, 쉐가 다른 데 어떤 데 또 이용헤낫수과?(아까 그 말씀해주실 때 소를 밭 갈 때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를 밭 갈 때도 이용 했지만 또 다른 데, 소가 다른 데 어떤 데 또 이용했었습니까?)

104003 #1 밧도 갈고, 짐 실으지.(밭도 갈고, 짐 싣지.)

104003 #5 밧 갈곡, 짐 실르곡.(밭 갈고, 짐 싣고.)

104003 @ 예.(예.)

104003 #5 옛날에 집 지을 때.(옛날에 집 지을 때.)

104003 @ 예.(예.)

104003 #5 흑질 허젠허면 그 흑을 헤서 물주멍 수세[126] 놓멍 헤근에.(흙질 하려하면 그 흙을 해서 물주면서 '수세' 놓으면서 해서.)

104003 #1 붋아야.(밟아야.)

104003 #5 붋으는 걸 쉐가 헷어. 쉐가.(밟는 걸 소가 했어, 소가.)

---

125) '싸루레니'는 외국 수입소의 한 종류를 말한다.

126) '수세'는 초가를 지을 때 흙질할 흙에 넣는 짚이나 까끄라기 따위를 말한다.

104003 #1 꼰다[127]고 헤.(‘꼰다’고 해.)
104003 @ 거믄 혹시 노인회장님 직접 쉐 이렇게 끄멍 밟으멍 집 짓어낫수과?(그러면 혹시 노인회장님 직접 소 이렇게 ‘깔면서’ 밟으면서 집 지었었습니까?)
104003 #5 겡헷주게.(그랬지.)
104003 #1 아이구, 그때 다.(아이고, 그때 다.)
104003 #5 집, 게. 초집 홀 때 다 헷주게.(집, 그래. 초가집 지을 때 다 했지.)
104003 @ 게민 나중에 집짓을 때 어떵 할 건지에 데헤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예?(그러면 나중에 집지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104004 @ 아, 문제는 쉐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가지고 에미 소 따랑 허멍 허문 뒈주마는 갑자기 어디서 큰 쉐를 사올 때도 잇잖아예?(아, 문제는 소가 송아지 때부터 키워가지고 어미 소 따라서 하면서 하면 되지만 갑자기 어디서 큰 소를 사올 때도 있잖아요?)
104004 #5 사올 때도 잇고 풀 때도 잇고.(사올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104004 @ 게문 그 사올 때 어떵 그 쉐를 길들이는 방법 이섯수과?(그러면 그 사올 때 어떻게 그 소를 길들이는 방법 있었습니까?)
104004 #1 아, 길들이는 건 집에서.(아, 길들이는 건 집에서.)
104004 @ 예.(예.)
104004 #1 만약에 쉐, 암쉐를 사오면은.(만약에 소, 암소를 사오면.)
104004 @ 예.(예.)
104004 #1 거 새끼 날 거 아녀.(거 새끼 낳을 거 아냐.)
104004 @ 예.(예.)
104004 #1 새끼 나면은, 부렝이 나면은.(새끼 낳으면, 부룩소 낳으면.)
104004 @ 예.(예.)
104004 #1 숫쉐 나면은 네 설만 세 설만 뒈면은.(황소 나면 네 살만 세 살만 되면.)
104004 @ 예.(예.)
104004 #1 저, 밧가는 거 가르쳐. 짐 실으는 것도 가리치고. 세 설만 뒈면은 쉐는.(저, 밭가는 거 가르쳐. 짐 싣는 것도 가르치고. 세 살만 되면 소는.)
104004 #5 그거는 필수적이니까 농사를 헬랴면은.(그거는 필수적이니까 농사를 하려면.)
104004 #5 그 일허는 걸 가르키지 아녀면은 안 뒈거든.(그 일하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
104004 #1 필료가 없주게.(필요가 없지.)
104004 #5 쟁기로 헤서 밧을 갈아야 뒈니까.(쟁기로 해서 밭을 갈아야 되니까.)
104004 @ 막 거친 쉐가 만일에 쉐가 막 거칠문 어떵헙니까?(막 거친 소가 만일에 소

127) ‘꼰다’는 ‘깔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새벽질할 흙에 ‘수세’라는 것을 넣어서 소로 밟는 것을 의미한다.

가 막 거칠면 어떡합니까?)
104004 #5 하, 거칠문, 삼 개월 사 개월씩 가르칠랴면은 거 그렇게 힘이 들어.(하, 거칠면, 삼 개월 사 개월씩 가르치려면 거 그렇게 힘이 들어.)
104004 #1 일 년 내내들어.(일 년 내내들어.)
104004 @ 예.(예.)
104004 #1 막 습관이 뒈야.(막 습관이 되야.)
104004 @ 음, 일 년 넘게예?(음, 일 년 넘게요?)
104004 #5 그 그게 그렇게 헤야 거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잘허지.(그 그게 그렇게 해야 거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잘하지.)
104005 @ 경헷구나예. 근데 그 쉐들은 혼 술 두 술 안 헤근에 따로 쉐 나이 메기는 소리가 잇지예?(그랬군요. 그런데 그 소들은 한 살 두 살 안 해서 따로 소 나이 매기는 소리가 있지요?)
104005 #1 어. 나이 메기는.(어. 나이 매기는.)
104005 @ 뭐렌 골읍니까?(무라고 말합니까?)
104005 #5 금승.(하릅.)
104005 @ 예, 금승.(예, 하릅.)
104005 #5 다간.(두습.)
104005 @ 다간.(두습.)
104005 #1,5 사릅.(사릅.)
104005 @ 사릅.(사릅.)
104005 # 1.5 나릅.(나릅.)
104005 @ 나릅.(나릅.)
104005 #5 그 이상은 뭐 엇어.(그 이상은 뭐 없어.)
104005 @ 그 이상은 그냥 쉐, 자이 나이 하영 먹엇져.(그 이상은 그냥 소, 쟤 나이 많이 먹었지.)
104005 #5 그때는 이빨 봐서.(그때는 이빨 봐서.)
104005 #1 네 설이 네 설.(네 살이 네 살.)
104005 @ 예.(예.)
104005 #1 사람 ᄀᆞ뜨면 만 네 설 뒈면은 나릅이엔 허주게.(사람 같으면 만 네 살 되면 나릅이라고 하지.)
104005 #5 나릅 이상은 뭐 불르는 게 엇어.(나릅 이상은 뭐 부르는 게 없어.)
104005 @ 몇 살까지, 나릅에서 몇 살까지 일을 시켜먹엇수과?(몇 살까지, 나릅에서 몇 살까지 일을 시켜먹었습니까?)
104005 #5 아이구, 일을 시키는 건 뭐.(아이고, 일을 시키는 건 뭐.)
104005 #1 보통 쉐 수명이 이십오 년.(보통 소 수명이 이십오 년.)
104005 #5 쑤무 설 난 쉐도 일헤서.(스무 살 난 소도 일했어.)
104005 @ 쑤무 살까지도 음, 예.(수무 살까지도 음, 예.)

104005 #5 집이 따라서 좀 여유 있는 집안은.(집에 따라서 좀 여유 있는 집안은.)
104005 @ 예.(예.)
104005 #5 교체헤가지고 좀 젊은 걸로 요렇게 교체헤서 허주마는, 없는 사름은 ᄒᆞ나 헤놓면은.(교체해가지고 좀 젊은 걸로 요렇게 교체해서 하지만, 없는 사람은 하나 해놓으면.)
104005 @ 예(예.)
104005 #5 걸 교체 헐 능력이 없으니까.(걸 교체 할 능력이 없으니까.)
104005 @ 예.(예.)
104005 #5 그걸로 계속 이제 헷다고.(그걸로 계속 이제 했다고.)
104005 @ 아이고,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4005 #5 어.(어.)
104006 @ 그다음에는 그 쉐 밧갈 때, 쟁기가 잇잖아예?(그다음에는 그 소 밭갈 때, 쟁기가 있잖아요?)
104006 #1 어, 쟁기.(어, 쟁기.)
104006 @ 그 쟁기들을 보면 명칭들이 다 이서예?(그 쟁기들을 보면 명칭들이 다 있어요?)
104006 #1 어, 명칭이 이서.(어, 명칭이 있어.)
104006 @ 그 명칭들을 아는 대로 ᄀᆞᆯ아줍서예?(그 명칭들을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104006 #5 어.(어.)
104006 #1 쟁기 이서? 그디?(쟁기 있어? 거기?)
104006 @ 예.(예.)
104006 #1 사진 찍어놩 잇구나. 물레도 잇네이.(사진 찍어놓아서 있구나. 물레도 있네.)
104006 @ 혹시 여기 세화리에도 직접 그 물레 차멍 비단이나 아, 그 저기 멩지나.(혹시 여기 '세화리'에도 직접 그 물레 차면서 비단이나 아, 그 저기 명주나.)
104006 #5 엿날에는 다 헤서.(옛날에는 다 했어.)
104006 #1 우리 집에도 헤낫어.(우리 집에도 했었어.)
104006 @ 기꽈.(그래요?)
104006 #5 엿날엔 다 헤주.(옛날엔 다 하지.)
104006 @ 사모님도 직접 헤난마씨?(사모님도 직접 했었나요?)
104006 #1 아니, 우리 어머니.(아니, 우리 어머니.)
104006 @ 혹시나 어머니.(혹시나 어머니.)
104006 #1 어머닌 돌아가셔부런.(어머닌 돌아가셔버렸어.)
104006 #5 그거 허단 분들은 살아계신 사름 엇어.(그거 하던 분들은 살아계신 사름 없어.)
104006 @ 음. 요정도 나왓수다. 요정도 나와신디예.(음. 요정도 나왔습니다. 요정도 나왔는데요.)

104006 #1 쟁기?(쟁기?)
104006 @ 예.(예.)
104006 #1 영 헤보라.(이렇게 해봐라.)
104006 @ 명칭들을 ᄀᆞᆯ아줍서.(명칭들을 말해주세요.)
104006 #5 베려지카? 쟁기를 ᄒᆞ젠ᄒᆞ민.(봐질까? 쟁기를 하려고하면.)
104006 #1 이 앞에, 앞에 이 젓 멍에, 이 또 저 멍에광 요 저 잠대 끗갱이 ᄁᆞ지 잇는 걸 저, 성에ᄁᆞ지 잇는 걸 ᄆᆞᆼᄀᆞᆯ.(이 앞에, 앞에 이 저 멍에, 이 또 저 멍에랑 요 저 쟁기 끝까지 잇는 걸 저, 성에까지 잇는 걸 쟁깃술.)
104006 #5 ᄆᆞᆼᄀᆞᆯ은 땅에 영 들어가멍 영 허는 게 ᄆᆞᆼᄀᆞᆯ이고.(쟁깃술은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쟁깃술이고.)
104006 #1 밑엣 게 ᄆᆞᆼᄀᆞᆯ이고 이건 저 성에.(밑엣 게 쟁깃술이고 이건 저 성에.)
104006 #5 쭉 허게 뻗어나간 거는 성에.(쭉 하게 뻗어나간 거는 성에.)
104006 #1 설칫은 그자 ᄆᆞᆼᄀᆞᆯ광 이거.(한마루는 그저 쟁깃술과 이거.)
104006 #5 ᄆᆞᆼᄀᆞᆯ광 성에허곡 ᄀᆞ찌 끼워진 게 설칫.(쟁깃술과 성에하고 같이 끼워진 게 한마루.)
104006 #1 또 그 밧 가는.(또 그 밭 가는.)
104006 #5 또 손잡이는 양줏머리.(또 손잡이는 양지머리.)
104006 @ 요 양쪽에 가는 건 양줏머리마씨?(요 양쪽에 가는 건 양지머리요?)
104006 #1 어, 양줏머리. 또 이 저 밑에 땅에 들어가는데 보섭이 이서.(어, 양지머리. 또 이 저 밑에 땅에 들어가는데 보습이 있어.)
104006 @ 보습예?(보습이요?)
104006 #1 보습이 잇고, 벳이 잇서.(보습이 있고, 볏이 있어.)
104006 @ 예.(예.)
104006 #1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104006 @ 음.(음.)
104006 #1 그러면 흑이 넘어갈 때에.(그러면 흙이 넘어갈 때에.)
104006 @ 예.(예.)
104006 #1 또 그 벳 받침이 또 요 쟁기에 부떠 잇서. 이렇게.(또 그 볏 받침이 또 요 쟁기에 붙어 있어. 이렇게.)
104006 #5 영 꼬부라진 거.(이렇게 꼬부라진 거.)
104006 #1 어, 꼬부라진 거.(어, 꼬부라진 거.)
104006 @ 건 뭐렌 ᄀᆞᆯ앗수과?(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6 #1 벳바침.(볏받침.)
104006 #5 벳밧침. 또 앞에.(볏받침. 또 앞에.)
104006 #1 또 앞에 요롱게 십자로 구멍 뚤러서 그 저, 에.(또 앞에 요렇게 십자로 구멍 뚫어서 그 저, 에.)
104006 #5 끈을 끼우는 걸 ᄃᆞᆯ벵이뿔이라.(끈을 끼우는 걸 까막머리.)

104006 #1 오리목을 끼우는 걸 어, 돌벵이뿔.(오리목을 끼우는 걸 어, 까막머리.)
104006 @ 나중에 잇잖아예?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때가 잇거든마씨?
그때랑 다시 한 번 여쭤볼게예?(나중에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랑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04007 @ 그믄 이제 길마는 뭐꽈? 길마.(그러면 이제 길마는 뭡니까?)
104007 #1 길마엔 아녕 질메엔 허주. 질메. 짐 실르는.(길마엔 않고 '질메'라고 하지. '질메'. 짐 싣는.)
104007 @ 예.(예.)
104007 #1 그 저 쉐우에다가 짐을 실르젠 허면은.(그 저 소위에다 짐을 실으려고 하면.)
104007 @ 예.(예.)
104007 #1 저, 노로 거기에 동여메야 뒐 거 아냐? 그러문 그 배, 배를 쉐앗배[128]렌 허주게이. 쉐앗배.(저, 노로 거기에 동여매야 될 거 아냐? 그러면 그 바, 바를 '쉐앗배'라고 하지. '쉐앗배'.)
104007 #5 질메예도 으라 가지가 잇주게.(길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104007 #1 쉐질메가 잇고 물질메가 잇고.(소길마가 있고 말길마가 있고.)
104007 #5 쉐도.(소도.)
104007 #1 쉐에 시끄는 거 하고.(소에 싣는 거하고.)
104007 @ 예.(예.)
104007 #1 물에 허는 거 허고 또 차이가 이서.(말에 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어.)
104007 @ 쉐는 별도로 사진 찍어 논 거 있는데 컴퓨터에서 화면 보면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마씨?(쉐는 별도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컴퓨터에서 화면 보면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104007 #1 어.(어.)
104007 @ 근데 오늘 컴퓨터 안 가져와부난 그거 질문할 땐 그거 보여드리멍 질문할게예.(그런데 오늘 컴퓨터 안 가져와버려서 그거 질문할 땐 그거 보여드리면서 질문할게요.)
104008 @ 그다음에 멍에, 아까 멍에엔 말씀하신 거?(그다음에 멍에, 아까 멍에엔 말씀하신 거?)
104008 #5 멍에엔 헌 거 앞에.(멍에라고 한 거.)
104008 #5 거는 밧 갈 때 허는 거.(그거는 밭 갈 때 하는 거.)
104008 @ 멍에부분 요 안에는 멍에라는 게 엇수과? 요것들 중에.(멍에부분 요 안에는 멍에라는 게 없습니까? 요것들 중에.)
104008 #1 아, 이건 거시기 저 물마차헐 때 질멘게.(아, 이건 거시기 저 말마차할 때 길마네.)

128) '쉐앗배'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밧줄을 말하는데, 달리 '수웻배', '쉣배', '쉐얏배'라고도 한다.

104008 #5 음, 물질메.(음, 말길마.)
104008 @ 음.(음.)
104008 #1 고리 물 저, 멍에가 이디 엇인게.(고리 말 저, 멍에가 여기 없네.)
104008 #5 멍에가 어신게. 이 쉐 야가기에 헌 게 멍에주게.(멍에가 없네. 이 소 모가지에 한 게 멍에지.)
104008 @ 아, 기꽈?(아, 그래요?)
104008 #1 음.(음.)
104008 #5 영, 뒷야가기 영 헌 거.(이렇게, 뒷모가지 이렇게 한 거.)
104008 #1 이건 물 등에 허는 거. 젓, 마차 거시긴게.(이건 말 등에 하는 거. 저, 마차 거시기네.)
104008 @ 나중에 이건 여쭤볼게예. 일단 이것도 봐긴 봐야 헐 거예.(나중에 이건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도 보긴 보아야 할 겁니다.)
104008 #1 여긴 엇다.(여긴 없다.)
104009 @ 그다음엔예, 아까 쉐를 맛긴덴 헷잖아예? 쉐 맛긴덴 헤신디.(그다음은요, 아까 소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소 맡긴다고 했는데.)
104009 #1 그 목장에 목감이 이서 목감.(그 목장에 목장감독이 있어 목장감독.)
104009 @ 목감, 목장도 옛날도 목장이렌 골앗수과?(목장감독, 목장도 옛날도 목장이라고 했습니까?)
104009 #1 어, 목장.(어, 목장.)
104009 #5 방목허는 듸.(방목하는 데.)
104009 #1 방목헤서 키우는 그 마장.(방목해서 키우는 그 마장.)
104009 @ 대신 키워주는 거마씸?(대신 키워주는 건가요?)
104009 #5 아니, 거 우리 땅에, 우리 땅에 가근에.(아니, 그거 우리 땅에, 우리 땅에 가서.)
104009 #1 마을 땅이 잇주게.(마을 땅이 있지.)
104009 #5 마을 공동목장에 아지당 놓는 거주. 놓면은 관리허는 사름, 혼 사름이 잇는 거주.(마을 공동목장에 가져다가 놓는 거지.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지.)
104009 #1 그게, 관리허는 사람이 책임져서, 그게 또 다른 데로 도망 가불 수가 잇거든.(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져서, 그게 또 다른 데로 도망 가버릴 수가 있거든.)
104009 @ 게난 그 관리허는 사름을 뭐렌 골앗수과?(그러니 그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9 #1,5 목감.(목장감독.)
104009 @ 목감. 목감은 마을에서 이렇게 정헤가지고 헤낫고마씸?(목장감독. 목장감독은 마을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고요?)
104009 #1,5 어, 어.(어, 어.)
104009 #1 혼 사름 그 목장에 가서 거기 살면서, 살면서 돌봐주는 거.(한 사람 그 목

장에 가서 거기 살면서, 살면서 돌봐주는 거.)
104009 @ 게문 그 사름 먹고 사는 건 마을에서 책임지고예?(그러면 그 사람 먹고 사는 건 마을에서 책임지고요?)
104009 #1 어. 거 우리 품 다줘.(어. 그거 우리 품 다줘.)
104009 #5 소 혼 ᄆᆞ리에 얼마썩 이렇게 주는 거라.(소 한 마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야.)
104010 @ 아, 기구나. 그다음엔예, 쉐 키우멍 송아지 나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쉐 키우멍 잘도 재미져라, 그때 생각하믄 잘도 재미져, 하는 어떤 그런 기억나는 거 엇수과? 쉐 키우멍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아, 그렇구나. 그다음은요, 소 키우면서 송아지 나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소 키우면서 잘도 재미있었어, 그때 생각하면 잘도 재미있었어, 하는 어떤 그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소 키우면서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104010 #5 특별나게는 그 뭐 그 중간에 송아지 부렝이 나면은.(특별나게는 그 뭐 그 중간에 송아지 부룩소 낳으면.)
104010 @ 예.(예.)
104010 #5 수송아지 나면은 돈을 많이 줫거든.(수송아지 낳으면 돈을 많이 줬거든.)
104010 @ 아.(아.)
104010 #5 암송아지는 돈을 얼마 안주고, 숫송아지는.(암송아지는 돈을 얼마 안주고, 수송아지는.)
104010 #1 암송아지는 더 번식용이고.(암송아지는 더 번식용이고.)
104010 @ 경헤도 새끼 나면은.(그래도 새끼 낳으면.)
104010 #5 게난 그 숫송아지만 나기를 기다려 하는 거야. 게민 그거 나면은 기분 좋아서. 거 숫송아지.(그러니 그 수송아지만 낳기를 기다려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낳으면 기분 좋아서. 거 수송아지.)
104010 #1 돈도 만히 밧주게.(돈도 많이 받지.)
104010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04010 #5 돈을 만히 주니까.(돈을 많이 주니까.)
104010 @ 그렇구나예? 아무 때나 새끼 하영 나고 하민 돈 더 벌 거 닮아도예?(그렇군요? 아무 때나 새끼 많이 나고 하면 돈 더 벌 거 닮아도요?)
104010 #5 암쉐허고 오십만 원 차이 돈이 이섯주.(암소하고 오십만 원 차이 돈이 있었지.)
104010 @ 예를 든다면 지금 이천십육 년이잖아예? 그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루쿠다마는예 일제 때 그때는 혹시 그 쉐 송아지, 부렝이 혼 마리 얼마 헌 거 혹시 기억남수과?(예를 든다면 지금 이천십육 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 그때는 혹시 그 소 송아지, 부룩소 한 마리 얼마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104010 #5 그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른들 ᄀᆞᆫ는 걸 생각헤보면, 혼 집이 쉐 혼 머리 잇는 듸가 그렇게 드물엇서.(그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른들 말하는 걸 생각해보면, 한 집에 소 한 마리 있는 데가 그렇게 드물었어.)

104010 @ 아, 예.(아, 예.)
104010 #5 게민 큰 부제라야 서너 머리, 두어 머리 질루지.(그러면 큰 부자라야 서너 마리, 두어 마리 기르지.)
104010 @ 예.(예.)
104010 #5 보통사름은 쉐를 못 질러봇주.(보통사름은 소를 못 길러봤지.)
104010 @ 그므는 노인회장님, 일제강점기 지나근에, 뭐 이제 사삼도 지나근에 쉐는 집에 계속 이서낫잖아예?(그러면 노인회장님, 일제강점기 지나서, 뭐 이제 사삼도 지나서 소는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104010 #1 겐디, 일제 시대도 쉐를 키와낫는디.(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도 소를 키워났는데.)
104010 @ 예.(예.)
104010 #1 사삼사건 때.(사삼사건 때.)
104010 @ 예.(예.)
104010 #1 쉐, 물.(소, 말.)
104010 @ 예.(예.)
104010 #1 이거 흔집에, 집에서 여러 마리 키우질 못헷거던.(이거 한집에, 집에서 여러 마리 키우질 못했거든.)
104010 @ 예.(예.)
104010 #1 보통 마을도 이삼십 마리 이렇게 키우면은 저, 어데 밧듸다 가두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키우고 이렇게 헷는데 사삼사건 때.(보통 마을도 이삼십 마리 이렇게 키우면 저, 어디 밭에다 가두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사삼사건 때.)
104010 @ 다 죽여 부런?(다 죽여 버려?)
104010 #1 전부 다 잡아먹고, 뭐 헤부럿잖아.(전부 다 잡아먹고, 뭐 해버렸잖아.)
104010 @ 그때 당시만 헤도 흔 마리에 얼마 헤신지 기억납니까?(그때 당시만 대도 한 마리에 얼마 했는지 기억납니까?)
104010 #5 사삼사건에는 그 웃드르[129] 사름덜이.(사삼사건에는 그 '웃드르'사람들이.)
104010 @ 예.(예.)
104010 #5 그 소탕 뒈버리니까 이레 내려올 때에 밧 ᄀᆞ튼 건 가정오지 못허거든.(그 소탕 돼버리니까 이리로 내려올 때에 밭 같은 건 가져오지 못하거든.)
104010 @ 맞수다예.(맞습니다.)
104010 #5 거난 보통사름은 못 가져오니까 쉐 가진 사름은 쉐 끌고 왓단 말이어. 거문 그때에 쉐 흔 마리는, 뭐 네 설, 다슷 설 나민 그 부렝이 숫소를 보리쏠 흔 말 정도로 바꾸면서 그렇게 어, 살앗다고.(그러니 보통사람은 못 가져오니까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끌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에 소 한 마리는, 뭐 네 살, 다섯 살 되면 그 부룩소 수소를 보리쌀 한 말 정도로 바꾸면서 그렇게 어, 살았다고.)

129) '웃드르'는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들이나 마을을 말한다.

104010 @ 아, 예.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4010 #1 심지어 우리 마을엔 사삼사건 때 소개를 아넷거든.(심지어 우리 마을엔 사삼사건 때 소개를 않았거든.)
104010 @ 맞수다.(맞습니다.)
104010 #1 아녀니까, 여기에서 경찰이 주둔 헷는디.(않으니까, 여기에서 경찰이 주둔했는데.)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1 경찰관을 마을에서 멕엿거든. 하루 쉐 잡으면서. 쉐 잡고 저, 요샌 쏠이 하주마는.(경찰관을 마을에서 먹였거든. 하루 소 잡으면서. 소 잡고 저, 요샌 쌀이 많지만.)
104010 @ 게난예.(그러니까요.)
104010 #1 집에서 제서 때나 쓰는 산듸쏠 잇자녀게.(집에서 제사 때나 쓰는 밭벼쌀 있잖아.)
10401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10 #1 산듸쏠 믄 내놔근에 그거 영 밥허멍 멕엿주. 멕이멍 살앗어. 그때 하영 잡아먹어버렷주.(밭벼쌀 모두 내놓아서 그거 이렇게 밥하면서 먹였지. 먹이면서 살았어. 그때 만히 잡아먹어버렸지.)
104010 @ 경헷구나예? 아이구. 보리쏠 혼 말에.(그랬군요? 아이고. 보리쌀 한 말에.)
104010 #1 물들은 저 집에 키와보지 못허고.(말들은 저 집에 키워보지 못하고.)
104010 @ 아, 기꽈?(아, 그래요?)
104010 #1 저, 들에 내부럿주. 들에 내불면은 다 잡아먹고 헤부럿주.(저, 들에 내버렸지. 들에 내버리면 다 잡아먹고 해버렸지.)

말 기르기

104011 @ 아까는 쉐 키우는 거주마는 이젠 물 키우는 것에 데헤 여쭤보쿠다예.(아까는 소 키우는 거지만 이젠 말 키우는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04011 #5 물은 키우멍.(말은 키우면서.)
104011 @ 예.(예.)
104011 #5 옛날에는 그 저 농사를 지으면은 그.(옛날에는 그 저 농사를 지으면 그.)
104011 #1 산듸, 조.(밭벼, 조.)
104011 #5 이 저 화산 토라놓니까.(이 저 화산 토니까.)
104011 @ 예, 예.(예, 예.)
104011 #5 붋아줘야 뒈 농사를 지으려면은.(밟아줘야 돼 농사를 지으려면.)
104011 @ 예.(예.)
104011 #5 게난 그 물들이 혼 열 무리 이렇게 헹 물아다 놔근에 그 붋미주는 물 만이 질루는 분이 잇서.(그러니까 그 말들이 한 열 마리 이렇게 해서 몰아다 놓아서 그 밟아주는 말 많이 기르는 분이 있어.)

104011 @ 아.(아.)
104011 #5 그 분이 거 첨, 그 밧을 불봐주곡 거시기 헤주곡, 춤 댓가로 뭐 기냥 검질 메는 거나 혼 메칠씩 헤드리고, 영.(그 분이 거 참, 그 밭을 봛아주고 거시기 해주고, 참 대가로 뭐 그냥 김매는 거나 한 며칠씩 해드리고, 이렇게.)
104011 @ 헤주고예.(해주고요.)
104011 #5 영 허곡, 개인적으로 흔나썩 질루는 거는 이제 마차, 운반용. 농사짓는 마차에 물 메와근에 들에 강 날라오곡, 그런 용으로 물들은 길롯주.(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씩 기르는 거는 이제 마차, 운반용. 농사짓는 마차에 말 매 들에 가서 실어오고, 그런 용으로 말들은 길렀지.)
104011 @ 음, 그면은 물허고 쉐허고 허면은 어느 것이 더 비쌋수과?(음 그러면 말하고 소하고 하면 어느 것이 더 비쌌습니까?)
104011 #1,5 쉐가 비쌋주게.(소가 비쌌지.)
204011 @ 쉐가 비쌋구나예?(소가 비쌌군요.)
204011 #1 음. 쉐가 비쌋주게.(음, 소가 비쌌지.)
104012 @ 그다음엔예 물도 쉐처럼 종류들이 이섯잖아예? 물들 종류 좀 셍각나는 대로 굴아줍서.(그다음은요 말도 소처럼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말들 종류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04012 #5 거의 조랑말덜이니까.(거의 조랑말들이니까.)
104012 @ 음.(음.)
104012 #5 옛날에 그.(옛날에 그.)
104012 #1 그 조랑말이엔 허는디, 저, 가라물.(그 조랑말이라고 하는데, 저, 가라말.)
104012 #5 건 색을 말허는 거.(그건 색을 말하는 거.)
104012 #1 가라물, 꺼믄물, 꺼멍헌 물을 가라물.(가라말, 검은말, 까만 말을 가라말.)
104012 @ 음.(음.)
104012 #1 적다물.(적다마.)
104012 @ 음.(음.)
104012 #5 거엔 등급이 잇서. '일을 가라.'라고 시커멍 그 깜둥이 물이 일등.(그거엔 등급이 있어. 일을 가라라고 시커먼 그 깜둥이 말이 일등.)
104012 @ 예.(예.)
104012 #5 일등으로 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청충이, 백도 아니고 검도 아녀고.(일등으로 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청총마, 백도 아니고 검지도 않고.)
104012 @ 청충이마씨?(청총마요?)
104012 #1,5 청충이.(청총마.)
104012 @ 음.(음.)
104012 #1 흰 거허고 검은 거허고 서꺼진 물.(흰 거하고 검은 거하고 섞어진 말.)
104012 @ 음.(음.)
104012 #5 그게 이등.

104012 @ 음.(음.)
104012 #5 또 빨간 적다마렌 헌 건 삼등. 삼적다, 색 ᄆᆞᆯ 다 이런 식으로 거 얘길 헷주게.(또 빨간 적다마라고 한 건 삼등. ‘삼적다’, 색 말 다 이런 식으로 거 얘길 했지.)
104012 @ 적다ᄆᆞᆯ예?(적다마요?)
104012 #1 적다ᄆᆞᆯ.(적다마.)
104012 #5 백마.(백마.)
104012 #1 그다음은 젓 백마, 백매. 백마 백마. 흰ᄆᆞᆯ.(그다음은 저 백마, 백마. 백마, 백마. 흰말.)
104013 @ 음, 아까 그 ᄆᆞᆯ들은 보통 운반하는 거나 밧 ᄇᆞᆯ리는 걸로 사용뒛구나예?(음, 아까 그 말들은 보통 운반하는 거나 밭 밟는 걸로 사용됐군요?)
104013 #1 밧 ᄇᆞᆯ리는 거. 운반 허는 거.(밭 밟는 거. 운반 하는 거.)
104013 #5 마차용.(마차용.)
104013 @ 마차용으로예?(마차용으로요?)
104013 #1 마차용하고, 마차용 아닌 건 질메 지왕은에 촐도 시끄곡.(마차용하고, 마차용 아닌 건 길마 지워서 꼴도 싣고.)
104013 @ 음.(음.)
104013 #1 이 곡식도 시끄곡.(이 곡식도 싣고.)
104013 #5 게민 마차가 엇일 때.(그러면 마차가 없을 때.)
104013 @ 엇일 때예.(없을 때요.)
104014 @ 그리고 ᄆᆞᆯ도 쉐처럼 나이가 이렇게 곧는 소리가 이섯수과?(그리고 말도 소처럼 나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104014 #1 보통.(보통.)
104014 #5 금승, 금승 ᄆᆞᆼ셍이, 이수 ᄆᆞᆼ셍이, 삼수.(‘금승’, ‘금승 망아지’, 이수 망아지, 삼수.)
104014 @ 아.(아.)
104014 #5 건 또, ᄉᆞ수, 영 오수 이렇게 허주게.(건 또, 사수, 이렇게 오수 이렇게 하지.)
104014 @ 이수 ᄆᆞᆼ셍이, 그믄 세 살은마씨?(이수 망아지, 그러면 세 살은요?)
104014 #1, 5 세 술은 삼수.(세 살은 삼수.)
104014 @ 아. 네 살은?(아. 네 살은?)
104014 #5 ᄉᆞ수.(사수.)
104014 #1 오, 육, 칠, 팔.(오, 육, 칠, 팔.)
104014 #5 오수, 육수, 예영 이렇게 ᄆᆞᆯ은.(오수, 육수, 이처럼 이렇게 말은.)
104014 @ 수로 헴구나예?(수로 하는군요?)
104014 #5 어, 그렇게.(어, 그렇게.)
104015 @ 그므는 저기 두 분은 혹시 ᄆᆞᆯ 길러낫수과?(그러면 저기 두 분은 혹시 말 길렀었습니까?)

104015 #5 어, 길러난.(어, 길렀었어.)
104015 #1 어.(어.)
104015 @ 길러낫수과? 물 길루멍 쉐 길럿을 때 이제, 무시거 아까 부렝이 낭 막 좋아헷덴 헷잖아예?(길렀었습니까? 말 기르면서 소 길렀을 때 이제, 무엇 아까 부룩소 나서 막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104015 #5 어.(어.)
104015 @ 물은 어떵 헷수과?(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104015 #5 물도 역시 웅매 난 걸 좋아헷주게.(말도 역시 웅마 난 걸 좋아했지.)
104015 @ 웅매는 뭣꽈?(웅마는 뭡니까?)
104015 #1,5 웅매는 숫 물.(웅마는 수컷 말.)
10415 #5 거는 마차용으로, 아멩헤도 숫물이 쎄니까 힘이.(그거는 마차용으로, 아무래도 수컷 말이 세니까 힘이.)
104015 @ 음.(음.)
104015 #1 마차용으로 만히 쓰지.(마차용으로 많이 쓰지.)
104015 #5 거 마차용으로 돈도 더 주고.(거 마차용으로 돈도 더 주고.)
104015 @ 돈도 더 주고예? 웅매렌 헹예?(돈도 더 주고요? 웅마라고 해서요?)
104015 #1 암말은 저, 보통 짐 만이 시끄고. 짐 시끄는 거.(암말은 저, 보통 짐 많이 싣고. 짐 싣는 거.)
104015 @ 암말은 따로 하는 말 엇엇수과? 암물은?(암말은 따로 하는 말 없었습니까? 암말은?)
104015 #1암물도 타, 숫물도 타고.(암말도 타, 수컷 말도 타고.)
104015 @ 숫물은 웅매렌 헷잖아예?(수컷 말은 웅마라고 했잖아요?)
104015 #1 응.(응.)
104015 @ 암물은 뭐렌 골앗수과?(암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15 #1,5 ᄌᆞ매.('ᄌᆞ매'.)
104015 @ ᄌᆞ매예, 아 그랬구나예.('ᄌᆞ매'요, 아 그랬군요.)
104015 #1 ᄌᆞ매, 자매주 자[130].(암말, 암말이지 암컷.)

먹이

104016 @ 그다음에는예, 그 물이나 쉐 먹엿던 거, 어떤 것들을 먹엿는지 골아줍서.(그다음은요, 그 말이나 소 먹였던 거, 어떤 것들을 먹였는지 말해주세요.)
104016 #5 그, 감저꿀.(그 고구마기는줄기.)
104016 @ 감저꿀.(고구마기는줄기.)
104016 #5 고구마줄.(고구마기는줄기.)
10401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30) 여기서 '자'는 암컷 자雌를 뜻한다.

104016 #1 고구마덩굴.(고구마기는줄기.)
105016 @ 게난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예, 저, 세화에서 사용헷던 우리말이라예. 그니까 고구마 꿀이 아니라 옛날에 감저꿀이니까 옛날말로 ᄀᆞᆯ아줍서.(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저, 세화에서 사용했던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꿀'이 아니라 옛날에 '감저꿀'이니까 옛날말로 말해주십시오.)
104016 #5 아, 기여. 하하하.(아, 그래. 하하하.)
104016 @ 모든 말들을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키워낫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웟을 때 어떵 키워낫저 헤가지고, 우리 목적은 세화에서 사용헤왓던 그 말들, 그 언어 그 말들을 조사하는 거라부난예. 꼭 여깃말로 ᄀᆞᆯ아줘예.(모든 말들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키워났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키웠을 때 어떻게 키웠었다 해가지고, 우리 목적은 세화에서 사용해왔던 그 말들, 그 언어 그 말들을 조사하는 거여서. 꼭 여기말로 말해주십시오.)
104016 #1 감저꿀, 조칩.(고구마기는줄기, 조짚.)
104016 @ 조칩이렌 헷수과 조찍이렌 헷수과?('조칩'이라고 했습니까? '조찍'이라고 했습니까?)
104016 #1,5 조칩.('조칩'.)
104016 @ 조칩, 예.(조짚. 예.)
104016 #5 또, 새꼴.(또, 띠.)
104016 #1 새꼴이렌 헌 건 저 들에 강 풀 새라든지, 진황[131]이라던지 그런 풀.(띠라고 한 건 저 들에 가서 풀 띠라든지, 사초라든지 그런 풀.)
104016 @ 풀예.(풀이요.)
104016 #1 풀 비어당 낫으로 비어당은에 시꺼온 게 그 새꼴이주.(풀 베어다가 낫으로 베어다가 실어온 게 그 띠지.)
104016 #5 그 웨예는 콩찍도 주고.(그 외에는 콩짚도 주고.)
104016 #1 그 웨에는 자굴.(그 외에는 자귀풀.)
104016 @ 무시거마씸? 콩찍?(무엇이라고요? 콩짚?)
104016 #5 콩찍, 콩찍.(콩짚, 콩짚.)
104016 #1 콩찍허고 자굴.(콩짚하고 자귀풀.)
104016 @ 자굴은 뭐꽈?(자귀풀은 뭡니까?)
104016 #5 자굴이엔 헌 거는.(자귀풀이라고 한 거는.)
104016 #1 저, 옛날 차풀이엔 허주, 차풀.(저, 옛날 자귀풀이라고 하지, 자귀풀.)
104016 @ 아. 차풀.(아, 자귀풀.)
104016 #1 으, 차풀이엔 헤근에.(응. 자귀풀이라고 해서.)
104016 @ 아.(아.)
104016 #1 딱! 까지는 거.(딱! 까지는 거.)

131) '진황'은 '사초'류를 통틀어 '진황'이라 표현했으며 발화자에 따라서는 '솔새'류도 '큰진황', 혹은 '족은진황'으로 말하기도 했다.

104016 @ 아, 그게 차풀. 것도 멕여낫구나예.(아, 그게 자귀풀. 것도 먹였었군요.)
104016 #5 쉐나 물이나 다.(소나 말이나 다.)
104016 #1 자굴 들이면은 또 그 여기 저 제완지.(자귀풀 들이면 또 그 여기 저 바랭이.)
104016 @ 음.(음.)
104016 #1 제완지왓디 자굴 흔디헤여근에게 들이주게. 겡헤근에 그걸 아주 특별히 저 밧 가는 쉐들이나 그거 멕여.(바랭이밭에 자귀풀 같이해서 거둬들이지.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특별히 저 밭 가는 소들이나 그거 먹여.)
104016 @ 제완지도 ᄀᆞ찌 멕엿수과?(바랭이도 같이 먹였습니까?)
104016 #1 으, 제완지허고.(응, 바랭이하고.)
104016 @ 그다음에 그 촐은, 촐 마련허젠허민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헤주셨지만 가을에 비어당 놔뒷당 겨울에 멕엿덴 헷잖아예?(그다음에 그 꼴은, 꼴 마련하려하면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가을에 베다가 놔뒀다가 겨울에 먹였다고 했잖아요?)
104016 #1 어.(어.)
104017 @ 그믄 이제 촐은 쉐, 촐은 게민 강 직접 강 베영 왓수과?(그러면 이제 꼴은 소, 꼴은 그러면 가서 직접 가서 베서 왔습니까?)
104017 #1 어, 촐밧이 잇주게.(어, 꼴밭이 있지.)
104017 @ 예.(예.)
104017 #1 들에. 풀이 나서 이렇게 자란, 뭐 저 고사리도 나고 거기 저 종류가 새도 나곡, 또 자굴도 나곡, 저, 진황이엔 헤근에.(들에. 풀이 나서 이렇게 자란, 뭐 저 고사리도 나고 거기 저 종류가 띠도 나고, 또 자귀풀도 나고, 저, 솔새라고 해서.)
104017 @ 예.(예.)
104017 #1 새 닮은 풀이 잇서.(띠 닮은 풀이 있어.)
104017 @ 예.(예.)
104017 #1 그것도 허곡 이제.(그것도 하고 이제.)
104017 #5 어욱이영 무신.(억새랑 무슨.)
104017 @ 어욱도 나고예.(억새도 나고요?)
104017 #1 이런 걸 언제 비느냐면은 팔월.(이런 걸 언제 베느냐면 팔월.)
104017 @ 예.(예.)
104017 #1 음력.(음력.)
104017 @ 예.(예.)
104017 #1 음력 팔월 뒈면은 하니보름 불기 시작허여.(음력 팔월 되면 하늬바람 불기 시작허여.)
104017 @ 예.(예.)
104017 #1 게, 그때 팔월에 비어당은에.(그게, 그때 팔월에 베다가.)
104017 @ 아.(아.)
104017 #1 말려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눌엇다가.(말려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가렸다가.)

104017 @ 음.(음.)
104017 #1 저, 다른 뭐 가을 뒈민 곡식 거더들이잖아이?(저, 다른 뭐 가을 되면 곡식 거둬들이잖아?)
104017 @ 예.(예.)
104017 #1 촐 비어서 눌어두고 다른 곡식덜 전부 들여온 다음에 그 촐을 또 실어 와. 집에 실어다가 눌엇다가 이제 그 쉐나 ᄆᆞᆯ, 집에 이제 몰아온 때에 그에 밤에 멕여.(꼴베서 가려두고 다른 곡식들 전부 거둬들여 온 다음에 그 꼴을 또 실어 와. 집에 실어다가 가렸다가 이제 그 소나 말, 집에 이제 몰아온 때에 그에 밤에 먹여.)
104018 @ 그 촐 베어난 얘기 ᄀᆞᆯ아줍서.(그 꼴 베었던 얘기 말해주세요.)
104018 #1 건 낫으로 비주.(그건 낫으로 베지.)
104018 @ 기냥?(그냥?)
104018 #1 큰낫[132].(‘큰낫’.)
104018 @ 옛날 저기 호미가 아니라 낫예?(옛날 저기 호미가 아니라 낫이요?)
104018 #1 음, 낫.(음, 낫.)
104018 #5 낫으로, 가근에.(낫으로, 가서.)
104018 @ 게민 그냥 그 낫 벨 땐 그민 서가지고 베어마씨?(그러면 그냥 그 낫 벨 땐 그러면 서가지고 베나요?)
104018 #1 멀게 이거곡 이렇게.(멀고 이거고 이렇게.)
104018 @ 아, 막 헨 다음에 그냥 영 무껑 오는 거구나예?(아, 마구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묶어서 오는 거군요?)
104018 #1,5 어.(어.)
104018 @ 아, 그건 그랬구나.(아, 그건 그랬구나.)
104019 @ 그다음엔 다 베어 놓고, 베어 논 다음엔 게민.(그다음엔 다 베어 놓고, 베어 놓은 다음엔 그러면.)
104019 #5 비어논 다음엔 말려.(베어 놓은 다음엔 말려.)
104019 #1 비면은 그걸, 그건 마른단말이어. 마르면 또 그걸 무꺼.(베면 그걸, 그건 마른단말이야. 마르면 또 그걸 묶어.)
104019 @ 무끈 걸 뭐렌 ᄀᆞᆯ앗수과?(묶은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19 #5 졸라메는 거주게 영.(졸라매는 거지 이렇게.)
104019 #1 무끈덴 허주게.(묶는다고 하지.)
104019 @ 졸라메는 걸 이제 그거 한 무끔이렌 ᄀᆞᆯ읍니까?(졸라매는 걸 이제 그걸 한 묶음이라고 합니까?)
104019 #1 단, 단.(단, 단.)
104019 @ ᄒᆞᆫ 단 두 단.(한 단 두 단.)
104019 #5 음, ᄒᆞᆫ 단이렌 허주.(음, 한 단이라고 하지.)
104020 @ 그믄 쉐 ᄒᆞᆫ ᄆᆞ리 키우젠 허민 멧 단정도? 겨울용으로.(그러면 소 한 마리

132) ‘큰낫’은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을 말한다.

키우려고 하면 몇 단정도? 겨울용으로.)
104020 #5 혼 서른 바리.(한 서른 바리.)
104020 #1 서른 바리.(서른 바리.)
104020 @ 서른 바리면?(서른 바리면?)
104020 #1 혼 바리가.(한 바리가.)
104020 @ 예.(예.)
104020 #1 촐 비여서 무끈, 이만씩 무끈 그 촐이.(꼴 베서 묶은, 이만씩 묶은 그 꼴이.)
104020 @ 예.(예.)
104020 #1 멧 단 뒈느냐ᄒᆞ민 서른 단.(몇 단 되느냐하면 서른 단.)
104020 @ 서른 단이 혼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20 #1 서른 단이 혼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20 @ 그믄 그걸 서른 바리, 서른 바리 헤야 뒈마씸?(그러면 그걸 서른 바리, 서른 바리 해야 돼요?)
104020 #5 에, 서른 바리 정도.(에, 서른 바리 정도.)
104020 @ 잘도 하키여예?(잘도 많겠네요.)
104020 #5 서른 바리도 더.(서른 바리도 더.)
104020 #1 아, 우린 이삼백 바리 헤낫는디.(아, 우린 이삼백 바리도 했었는데.)
104020 #5 쉐 혼 일고ᄋᆞ덜 머리 일 년, 겨울에 멕이젠 허민.(소 한 일고여덟 마리 일 년, 겨울에 먹이려고 하면.)
104020 @ 예.(예.)
104020 #5 혼 삼백 바리 정도는 헤야.(한 삼백 바리 정도는 해야.)
104020 @ 그믄, 눌을 멧 바리 정도헤야 ᄒᆞ나가 뒛수과?(그러면, 가리를 몇 바리 정도 해야 하나가 됐습니까?)
104020 #1 거 혼이 엇어.(그거 한이 없어.)
104020 @ 기꽈?(그래요?)
104020 #1 혼 삼백 바리도 잇고.(한 삼백 바리도 있고.)
104020 #1 그 쉐 혼두 개 ᄒᆞ면은 백 바리 이상 이삼백 바리 이상 헤당은에 헤야 둣날 그 다음해 ᄁᆞ지 멕이거던. 저 풀, 새 풀 날 때ᄁᆞ지 멕이니까.(그 소 한두 마리 하면 백 바리 이상 이삼백 바리 이상 해다가 해야 뒷날 그 다음해 까지 먹이거든. 저 풀, 새 풀 날 때까지 먹이니까.)
104019 @ 그걸 운반헐 땐 쉐나 ᄆᆞᆯ이나?(그걸 운반할 땐 소나 말이나?)
104019 #5 에.(어.)
104019 #1 어. 쉐, ᄆᆞᆯ로 움직거리고 그 다음에 마차 셍기니까 마차로 운반허고.(어. 소, 말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차 생기니까 마차로 운반하고.)
104019 @ 그 쉐로 움직이고 헐 때 혼 번에 멧 바리 정도 실을 수 이수과?(그 소로 움직이고 할 때 한 번에 몇 바리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104019 # 1 저, 마차에?(저, 마차에?)
104019 @ 예.(예.)
104019 #5 혼 읏듭 바리.(한 여덟 바리.)
104019 #1 읏듭 바리에서 열 바리 사이.(여덟 바리에서 열 바리 사이.)
104020 @ 그 다음엔 쉐 멕일 때, 쉐나 물 멕일 때 그때 촐만 멕이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걸 무시거 무시거 놔근에 어떵 헹 줫수과?(그 다음엔 소 먹일 때, 소나 말 먹일 때 그때 꼴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걸 무엇 무엇 넣어서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까?)
104020 #1,5 아니, 아니 그대로.(아니, 아니 그대로.)
104020 #1 거 촐단으로 기자 갖다 주민 먹어.(그거 꼴단으로 그저 갖다 주면 먹어.)
10402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4020 #5 게, 물만 ᄒᆞ루 혼 번 낮에 멕이주.(그게, 물만 하루 한 번 낮에 먹이지.)
104020 @ 아, 기구나예? 음.(아, 그렇군요? 음.)
104020 #1 또 그 저, 쉐 혼 머리만 키우는 사름은.(또 그 저, 소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은.)
104020 @ 예.(예.)
104020 #1 저, 밧이나 갈 때 밧갈쉐[133]라고 허거든 그걸.(저, 밭이나 갈 때 '밭갈쉐'라고 하거든 그걸.)
104020 @ 예.(예.)
104020 #1 밧갈쉐라고 ᄒᆞ주게.('밭갈쉐'라고 하지.)
104020 @ 예.(예.)
104020 #1밧갈쉐 저 ᄒᆞ는 사름은 저 그 자굴ᄒᆞ곡 제완지 헹 멕인덴 헤지 아네서?('밭갈쉐' 저 하는 사람은 저 그 자귀풀하고 바랭이 해서 먹인다고 하지 않았어?)
104020 @ 예, 예예.(예, 예예.)
104020 #1 자굴ᄒᆞ곡 제완지나 이런 걸 저 작두로 썰엉.(자귀풀하고 바랭이나 이런 걸 저 작두로 썰어서.)
104020 @ 예.(예.)
104020 #1 작두로 썰어가지고 그 저 큰 가마솟에 놔서 다른 거 놓고 헹은에 끌려가지고 조합헤서 쉐 멕이기도 헤낫어.(작두로 썰어가지고 그 저 큰 가마솥에 넣어서 다른 거 넣고 해서 끓여가지고 조합해서 소 먹이기도 했었어.)
104020 @ 그믄 쉐들은 어느 걸 더 좋아헤낫수과?(그러면 소들은 어느 걸 더 좋아했었습니까?)
104020 #1 건 일 헐 때.(그건 일할 때.)
104020 @ 일 헐 때 더 잘 멕이는 거구나예.(일 할 때 더 잘 먹이는 거군요.)
104020 #1 밧 갈 때 바령밧[134]이라 헤근에 갈 때는.(밭 갈 때 '바령밧'이라 해서 갈 때는.)

133) '밧갈쉐'는 밭을 갈 때 부리는 소를 말한다.
134) '바령밧'은 '바령', '바량' 즉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심을 돋우는 밭을 의미한다. = 바령팟.

104020 @ 음.(음.)
104020 #1 바령밧 몰르지?('바령밧' 모르지?)
104020 @ 예.(예.)
104020 #1 쉐나 몰을.(소나 말을.)
104020 @ 예.(예.)
104020 #1 들에다가 저 멕여서.(들에서 저 먹여서.)
104020 @ 예.(예.)
104020 #1 큰 밧데다가.(큰 밭에다가.)
104020 @ 음.(음.)
104020 #1 밤엔 가두어.(밤에 가두어.)
104020 @ 음.(음.)
104020 #1 가두면은 그 쉐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헌단 말이여.(가두면 그 소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한단 말이야.)
104020 @ 예, 예.(예, 예.)
104020 #1 그래서 허민 막 바레져.(그래서 하면 마구 바래지지.)
104020 @ 아, 아.(아, 아.)
104020 #5 걸름뒈민.(거름되면.)
104020 #1 경헹 걸름뒈게.(그렇게 해서 거름되게.)
104020 @ 아, 아.(아, 아.)
104020 #1 여름 내내 경헹 혼다, 가을꼬지.(여름 내내 그렇게 한다, 가을까지.)
104020 @ 음.(음.)
104020 #1 겡헌 다음에 그걸 갈젠 ᄒᆞ면은 쉐 두 개 아니면 ᄒᆞ나로 갈젠 ᄒᆞ면은 잘 멕여야 허거든 쉐.(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갈려고 하면 소 두 마리 아니면 한 마리로 갈려고 하면 잘 먹여야 하거든 소.)
104020 @ 아, 아.(아, 아.)
104020 #1 그럴 때 겡헹 딸령[135] 멕이는 수도 이서.(그럴 때 그렇게 끓여서 먹이는 수도 있어.)
104021 @ 예, 아. 그다음에는 그 촐 벨 때 막 특별나게시리 뭐 기억나는 게 엇수과? 뭐 누가 다친다든가 아니면 뭐 촐 베다가 무신 뭐 벰이라도 본다든가 하는.(예, 아. 그 다음에는 그 꼴 벨 때 막 특별나게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뭐 누가 다친다든가 아니면 뭐 꼴 베다가 무슨 뭐 뱀이라도 본다든가 하는.)
104021 #5 아, 그런 건 많이 잇주.(아, 그런 건 많이 있지.)
104021 @ ᄒᆞ나만 골아줍서.(하나만 말해주세요.)
104021 #5 그 촐 비당 보미는 독사.(그 꼴 배다가 보면 독사.)
104021 @ 예.(예.)
104021 #5 독사 게난 낫으로 짤라불어.(독사 그러니 낫으로 잘라버려.)

135) '딸리다'는 표준어 '다리다'에 대응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끓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104021 #1 이디, 이디선.(여기, 여기서는.)
104021 @ 경허민 어떵 헙니까?(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4021 #1 뭐 그믄 죽어 죽지. 하하하.(뭐 그러면 죽지, 하하하.)
104021 #5 그 옛날 말로 그 낫이 못쓰게 뒌다고 허면서, 그걸 짤라나면은.(그 옛날 말로 그 낫이 못쓰게 된다고 하면서, 그걸 잘라나면.)
104021 @ 음.(음.)
104021 #5 못쓰게 뒌다고 허면서 그냥 불에 가서 그거 막 그 독을 제헐랴고 불을 영 첨 혜영 사이에 영 혜영, 짤라난 듸.(못쓰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불에 가서 그거 막 그 독을 제거하려고 불을 이렇게 참, 해서 사이에 이렇게 해서, 잘랐던 데.)
104021 @ 음.(음.)
104021 #5 불로 기시려불곡.(불로 그을려버리고.)
104021 @ 노인회장님도 그런 경험이 이수과?(노인회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104021 #5 것 잇주게.(그것 있지.)
104021 @ 게민 막 물리거나 겁나지 안 헤마씸?(그러면 막 물리거나 겁나지 안 하나요?)
104021 #5 아니, 그런 건 물려보진 아녀고.(아니, 그런 건 물려보진 않고.)
104021 #1 그 독사를 여기선 뭐엔 허느냐 허면 물페기렌 허주게.(그 독사를 여기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페기'렌 하지.)
104021 @ 아, 기지예.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저 여기말로 뭐렌 곧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다시 질문 하쿠다예?(아, 그렇지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저 여기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다시 질문 할게요?)

땔감

104022 @ 어, 그다음은예 땔감인데예? 그니까 옛날에 막 낭허레도 다녀낫잖아예?(어, 그다음은예 땔감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나무하러 다녔잖아요?)
104022 #1 응.(응.)
104022 @ 그 땔감, 그 밥헤먹고 할 때 어떤 어떤 것들로, 땔감의 종류를 골아줍서.(그 땔감, 그 밥해먹고 할 때 어떤 어떤 것들로, 땔감의 종류를 말해주십시오.)
104022 #5 그 그거는 보리찍, 보리찍 헤근에 ᄒᆞ곡 또 그 보리찍이 족으면은 질레에 고사리, 고사리 핀 거, 셍고사리 그거를 비어다가 또 땔감ᄒᆞ고.(그 그거는 보릿짚, 보릿짚 해서 하고 또 그 보릿짚이 부족하면 길의 고사리, 고사리 핀 거, 생고사리 그거를 베다가 또 땔감하고.)
104022 @ 예.(예.)
104022 #1 또 하나는 그 저.(또 하나는 그 저.)
104022 #5 들에 가근에 나무 설피 그런 것도 끈어다가 이제 때곡 헤난, 경헷주.(들에 가서 나무 삭정이 그런 것도 배어다가 이제 때고 했었어, 그랬지.)

104022 #1 또 쉐 멕이단 나머지.(또 소먹이다 나머지.)
104022 @ 예.(예.)
104022 #1 그 풀을 멕엿거든. ᄆᆞ른풀.(그 풀을 먹였거든. 마른풀.)
104022 @ 예.(예.)
104022 #1 그 먹단 나머지 고사리도 거기에 잇고, 이따 뭐 쉐가 안 먹는 것이 잇거든. 그건 내중에 걷어다가 그것도 불로 때서.(그 먹다 나머지 고사리도 거기에 잇고, 이따 뭐 소가 안 먹는 것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걷어다가 그것도 불로 땠어.)
104022 @ 불로 때고예? 음. 다른 거 뭐 장작 같은 건?(불로 때고요? 음. 다른 거 뭐 장작 같은 건?)
104022 #5 장작도 때고.(장작도 때고.)
104022 @ 웨냐면 그 우리.(왜냐면 그 우리.)
104022 #1 (장작이나 때는 거는 큰일 때.)
104022 @ 큰일 때만(큰일 때만.)
104022 #1 어, 큰일 때만 쓰고 보통 가정에서는 기자 설피, 어웍이라든가 다른 거 비어당은에 오히려 땔감으로 헹은에 별도 나둬.(어, 큰일 때만 쓰고 보통 가정에서는 그저 삭정이, 억새라든가 다른 거 베다가 오히려 땔감으로 해서 별도로 놔둬.)
104022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4023 @ 그 쉐똥이나 ᄆᆞᆯ똥들 줏어당 안 땟수과?(그 소똥이나 말똥들 주어다가 안 땠습니까?)
104023 #5 거는 굴묵[136]에만 군불 때는 거.(그거는 '굴묵'에만 군불 때는 거.)
104023 #1 굴묵 때는 거.('굴묵' 때는 거.)
104023 @ 굴묵 지들 때 만예?('굴묵' 땔 때 만요?)
104023 #1 음. 방 뜨겁게 홀 때.(음. 방 뜨겁게 할 때.)
104024 @ 아까 설피가 혹시 저 그, 설피가 뭐꽈?(아까 삭정이가 혹시 저 그, 삭정이가 뭡니까?)
103024 #5 설피, 설피.(삭정이, 삭정이.)
103024 #1 설피.(설피.)
104024 @ 설피가 뭐꽈? 아까 쉐 먹당 남은 거?(삭정이가 뭡니까? 아까 소 먹다가 남은 거?)
104024 #5 아니, 들에 가근에.(아니, 들에 가서.)
104024 @ 예.(예.)
104024 #5 뭐 나뭇가지 ᄀᆞ튼 거 그런 걸 비어근에 무꺼오는 게 설피 그걸.(뭐 나뭇가지 같은 거 그런 걸 베어서 묶어오는 게 삭정이 그걸.)
104024 @ 아, 그냥 한꺼번에 설피렌 헴구나예?(아, 그냥 한꺼번에 삭정이라고 하는군요?)
104024 #1 삭다리.(삭정이.)

13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부분을 말한다.

104024 @ 삭다리?(삭정이?)
104024 #1 삭다리엔 잘허주.(삭정이라고 잘하지.)
104024 @ 아, 설피가 삭다리구나.(아, '설피'가 삭정이구나.)
104024 #1 옛날 삭다리. 그 저, 나무가지.(옛날 삭정이. 그 저, 나뭇가지.)
104024 @ 예.(예.)
104024 #1 삭은 거.(삭은 거.)
104024 #5 삭대기.(삭정이.)
104024 @ 삭대기.(삭정이.)
104024 #1 삭다리엔 곧주 삭다리. 죽은 나무가지.(삭정이라고 말하지 삭정이. 죽은 나뭇가지.)
104024 @ 어, 그 소나무 잎 잇잖아예?(어, 그 소나무 잎 있잖아요?)
103024 #5 솔입.(솔잎.)
104024 @ 예, 솔입.(예, 솔잎.)
104024 #5 것도 걷어다그근에.(것도 걷어다가.)
104024 @ 솔입 걷을 땐 어떵 헷수과?(솔잎 걷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4024 #1 그것 글겡이로 강은에.(그것 갈퀴로 가서.)
104024 #5 긁어.(긁어.)
104024 #1 소나무 밧 밑에 솔입이 쌓이잖아? 쌓이면은 그거 그 글겡이로, 지금도 글겡이 이서. 글겡이로 긁어근에 모아놩 져당.(소나무 맡 밑에 솔잎이 쌓이잖아? 쌓이면 그거 그 갈퀴로, 지금도 갈퀴 있어. 갈퀴로 긁어서 모아놓았다가 져다가.)
104024 @ 세화에도 소나무 밧 이서난마씨?(세화에도 소나무 밭 있었어요?)
104024 # 1 저 소낭 밧 하낫주게.(저 소나무밭 많았었지.)
104024 @ 음. 기구나예?(음, 그렇군요.)
104025 @ 그 다음에 아까 큰일 날 땐 장작 펜 헷잖아예? 그 낭들은 어디 강 어떵 헹 왓수과?(그 다음에 아까 큰일 생길 땐 장작 패서 했잖아요? 그 나무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104025 #5 낭은 죽은 낭들 뭐 어디, 소남 밧디 강 보미는 그중에서도 막 죽은 거 잇곡 허민 그 낭을 헤 왓어.(나무는 죽은 나무들 뭐 어디, 소나무 밭에 가서 보면 그중에서도 막 죽은 거 있고 하면 그 나무를 해 왔어.)
104025 #1 소낭밧디 가민 나무가지가.(소나무밭에 가면 나뭇가지가.)
104025 @ 예.(예.)
104025 #1 밑엣 건 이렇게 막 큰 걸 이 딱 가지 거시령 내불거든.(밑엣 건 이렇게 막 큰 걸 이 딱 가지 쳐 내버리거든.)
104025 @ 예.(예.)
104025 #1 그 나무를 키울랴고 ᄒᆞ면은.(그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104025 @ 예.(예.)
104025 #1 밑에 이렇게 굵어가면은 밑에 가지 거실려야 이게 올라가주게. 게서 그 거

시려서 내버린 게 잇서. 그런 것도 주어다 허고, 또 임자 없는 뭣에는 거 가지 거시리지 아녕은에 그대로 내불민 밑에 가지가 죽는다 말이여.(밑에 이렇게 굵어가면 밑에 가지 쳐야 이게 올라가지. 그래서 그 쳐서 내버린 게 있어. 그런 것도 주어다 하고, 또 임자 없는 뭐에는 그 가지 치지 않아서 그대로 내버리면 밑에 가지가 죽는다 말이야.)

104025 @ 예.(예.)

104025 #1 이 나무 커 가민 이게 밑에 거는 헷빗도 못 맞곡 좀 얻어먹기가 조금 얻어먹엄신디 그게 말라죽어.(이 나무 커 가면 이게 밑에 거는 햇빛도 못 맞고 좀 얻어먹기가 조금 얻어먹는지 그게 말라죽어.)

104025 @ 예.(예.)

104025 #1 죽으민 그거 꺼꺼다가 때기도 ᄒᆞ고. 또 그 웨예 소나무 밧데 이시면은 잡목 잇잖아?(죽으면 그거 꺾어다가 때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소나무 밭에 있으면 잡목 있잖아?)

104025 @ 예, 예.(예, 예.)

104025 #1 뭐 이디서 저 그 무시거니 복당낭.(뭐 여기서 저 그 뭐니 예덕나무.)

104025 @ 복당낭.(예덕나무.)

104025 #1 닥나문데 종이닥이 아니라 여기서 복당낭이렌 허주게, 닥나무.(예덕나문데 종이 닥이 아니라 여기서 '복당낭'이라고 하지, 예덕나무.)

104025 @ 예.(예.)

104025 #1 닥나무라든지, 그 웨예 잡목덜 그 나무에 비어도 나무에 지장이 없는 거.(예덕나무라든지, 그 외에 잡목들 그 나무에 베어도 나무에 지장이 없는 거.)

104025 @ 음.(음.)

104025 #1 그런 거는 다 비어다가 놔뒷다가 그걸로 땜질ᄒᆞ여.(그런 거는 다 베어다가 놔뒀다가 그걸로 땜질해.)

104025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4025 #1 땔감으로.(땔감으로.)

104026 @ 혹시 숫도 구워봣수과?(혹시 숯도 구워봤습니까?)

104026 #1 어, 숫도 구워.(어, 숯도 구웠어.)

104026 @ 아, 그 숫은 어디 강 어떤 낭으로?(아, 그 숯은 어디 가서 어떤 나무로?)

104026 #1 숫은 어떤 낭이나면 ᄎᆞ낭.(숯은 어떤 나무냐면 참나무.)

104026 #5 아무낭이나 뒈어, 숫은.(아무나무나 돼, 숯은.)

104026 #1 ᄎᆞ낭도 뒈고.(참나무도 되고.)

104026 @ 어떤 식으로 숫을 만들엇는지 낭 비는 걸로부터 ᄀᆞᆯ아줍서. 낭 비어당 그다음엔?(어떤 식으로 숯을 만들었는지 나무 베는 걸로부터 말해주세요. 나무 베다가 그다음엔?)

104026 #1 낭 비어당 쌓아 놩.(나무 베다가, 쌓아 놓아.)

104026 @ 예.(예.)

104026 #1 그 흑 더펑.(그 흙 덮어서.)

104026 @ 예.(예.)
104026 #1 전부 이 막아놩.(전부 이 막아놓아.)
104026 @ 예.(예.)
104026 #1 밑으로 구멍 내엉은에 저, 불을 부쩌.(밑으로 구멍 내서 저, 불을 붙여.)
104026 @ 예.(예.)
104026 #1 게, 그게 완전히 타면은 숨구멍이나 무시거나 연기 나가는 듸는 모두 막아버려. 다 탄줄 알면.(그래, 그게 완전히 타면 숨구멍이나 뭐나 연기 나가는 데는 모두 막아버려. 다 탄줄 알면.)
104026 #@ 예.(예.)
104026 #1 그러면 그대로 그게 숨 멕혀서 그대로 굳어져버리거든.(그러면 그대로 그게 숨 막혀서 그대로 굳어져버리거든.)
104026 @ 음.(음.)
104026 #1 그게 숫이주.(그게 숯이지.)
104026 @ 그 숫은 집집마다 그추룩 다 만들앗수과?(그 숯은 집집마다 그처럼 다 만들었습니까?)
104026 #1 아니, 다 만들지 못ᄒᆞ여.(아니, 다 만들지 못해.)
104026 #5 경은 아녀고.(그렇게는 않고.)
104026 @ 음.(음.)
104026 #5 그, 동아리헤여근에.(그, 동아리해서.)
104026 @ 아.(아.)
104026 #1 멧 멧이 동아리헤서, 남 많이 들거든.(몇 몇이 동아리해서, 나무 많이 들거든.)
104026 #5 나무도 끈어 오곡.(나무도 잘라 오고.)
104026 @ 그때 낭은 마른낭 끈어당 헷수과? 생낭 끈어당?(그때 나무는 마른나무 잘라다가 했습니까? 생나무 잘라다가?)
104026 #1 아니. 놀낭.(아니 날나무.)
104026 @ 놀낭으로. 놀낭 헤신디, 아까 무신 낭마씨?(날나무로. 날나무 했는데, 아까 무슨 나무요?)
104026 #5 ᄎᆞ낭이 췌고 좋은디.(참나무가 최고 좋은데.)
104026 @ ᄎᆞ낭이나.(참나무나.)
104026 #1 ᄎᆞ낭이 최고.(참나무가 최고.)
104026 #5 ᄎᆞ낭 엇이민 복당낭, 폭낭, 뭐 뭐 아무 잡나무 다 썻주.(참나무 없으면 예덕나무, 팽나무, 뭐 뭐 아무 잡나무 다 썼지.)
104026 @ 아, 예.(아, 예.)
104026 #1 주로 이, 폭낭 ᄀᆞ튼 거 많이 썻주.(주로 이, 팽나무 같은 거 많이 썼지.)
104026 @ 숫 구울 때 게믄, 막 이제 불 지드기 시작하잖아예?(숯 구울 때 그러면, 막 이제 불 지피기 시작하잖아요?)

104026 #1 음.(음.)
104026 @ 몇 시간쯤 걸려마씨?(몇 시간쯤 걸립니까?)
104026 #5 혼, 삼 일.(한, 삼일.)
104026 @ 삼일동안 계속 불 꺼지지 안헹 부쩌야헙니까?(삼일동안 계속 불 꺼지지 않고 붙여야합니까?)
104026 #5 어, 어.(어, 어).
104026 @ 게믄 잠은 언제 잡니까?(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104026 #5 잠은, 삼일로도 안 뒈지게. 이젯 숫구뎅이가 클수록 오래가.(잠은, 삼일로도 안 되지. 이제 숯가마가 클수록 오래가.)
104026 @ 그 좀은 언제 자고마씨?(그 잠은 언제 자고요?)
104026 #5 그난.(그러니까.)
104026 #1 아, 그기 불 때어도근에.(아, 거기 불 때놓고선.)
104026 #5 잘못허며느 삭아버려. 거 어지간히 탄 때 영 보면서 구멍을 막아주지 아녀민 때가 놓치면은 그게 복삭헤불민[137] 젯덩어리 뒈불어.(잘못하면 삭아버려. 거 어지간히 탄 때 이렇게 보면서 구멍을 막아주지 않으면 때가 놓치면 그게 '복삭헤불민' 잿더미 돼버려.)
104026 #1 그게 제 뒈버리거든.(그게 재 돼버리거든.)
104026 @ 아이고, 게난 그거 못뒈게 계속 지키는 거구나예.(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못되게 계속 지키는 거군요.)
104026 #5 지켜근에 아, 요게 어느 정도 요만이헌 구뎅이로 자꾸 보면서 그 불이 요기꼬지 돌아왓다, 경허민 아, 요고 멧 분 멧 시간이 잇으면은 막아야 뒈겟다 헤근에 거기서 연기가 안 나곡 파랑헌 연기가 살살 나올 때에 그 막아주는 거라.(지켜서 아, 요게 어느 정도 요만한 구덩이로 자꾸 보면서 그 불이 요기까지 돌아왔다, 그러면 아, 요고 몇 분 몇 시간이 있으면 막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연기가 안 나고 파란 연기가 살살 나올 때에 그 막아주는 거야.)
104026 @ 아 예, 그니까 그거를 뭐렌 골앗수과? 숫구뎅이?(아 예, 그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숯가마?)
104026 #1 구뎅이.(구덩이.)
104026 @ 숫구뎅이.(숯가마.)
104026 #1 숫가마지 요셋말로.(숯가마지, 요샛말로.)
104026 @ 숫구뎅이를 헤서 한 삼일 간 불을 부처야 뒐 거잖아예?(숯가마를 해서 한 삼일 간 불을 붙여야 될 거잖아요?)
104026 #5 아이, 혼 번 부쪄놓민 안내서 타는 게 혼.(아니, 한 번 붙여놓으면 안내서 타는 게 한.)
104026 #1 혼 이삼삼일 가.(한, 이삼삼일 가지.)
104026 @ 아, 난 계속.(아, 난 계속.)

137) '복삭ᄒᆞ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걸 말한다.

104026 #5 속에서 타는 게.(속에서 타는 게.)
104026 #1 계속 불 때는 게 아니라.(계속 불 때는 게 아니라.)
104026 @ 지네끼리 타는 거구나예?(자기네끼리 타는 거군요.)
104026 #5 어, 지네끼리.(어, 자기네끼리.)
104026 #1 아, 그걸 지켜봐야 뒈거든.(아,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
104026 @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4026 #5 게서 그게 완전히 막을랴면 흔 일주일쯤 뒈야. 일주일.(그래서 그게 완전히 막으려면 한 일주일쯤 돼야. 일주일.)
104026 @ 음, 그 그믄 지켜볼 때 주로 어디 가근에 헷수과?(음, 그 그러면 지켜볼 때 주로 어디 가서 했습니까?)
104026 #5 집 근처에.(집 근처에.)
104026 @ 집 근처에, 아.(집 근처에, 아.)
104026 #1 밧듸.(밭에.)
104026 #5 집 근처에 헤놩, 집이서 뭐 흔 멧 시간 자당도 가곡, 그렇게 계속 돌아봐야주.(집 근처에 해놓고, 집에서 뭐 한 몇 시간 자다가도 가고, 그렇게 계속 돌아봐야지.)
104026 @ 게서 그 다 뒛다싶으면 구멍을 막아버리면.(그래서 그 다 됐다싶으면 구멍을 막아버리면.)
104026 #1 어, 어어.(어, 어어.)
104026 @ 그 식으면 숫이 뒈는 거구나예?(그 식으면 숯이 되는 거군요?)
104026 #1 음.(음.)
104027 @ 혹시 그때 숫 구울 때, 숫이 뒐 때까지 기다리거나 숫 구우멍 혹시 뭔가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엇수과?(혹시 그때 숯 구울 때, 숯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숯 구우면서 혹시 뭔가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4027 #5 지금 뭐 기억나는 게.(지금 뭐 기억나는 게.)
104027 #1 이 딱, 그거 불 잘 안 돌밧다근에 그만.(이 딱, 그거 불 잘 안 돌봤다가 그만.)
104027 #5 이 저 숫이엔 헌 거는.(이 저 숯이라고 한 거는.)
104027 @ 예.(예.)
104027 #5 조끔 불을 일찍 막아불면은.(조끔 불을 일찍 막아버리면.)
104027 @ 예.(예.)
104027 #5 넹바리라고.(냉과리라고.)
104027 @ 예.(예.)
104027 #5 숫이 안 뒌 거. 타다가 남은 게 그게 만이저불면은 숫의 양이 족아지고.(숯이 안 된 거. 타다가 남은 게 그게 많아져버리면 숯의 양이 적어지고.)
104027 @ 아.(아.)
104027 #5 또 너무 게을리게 너무 늦게 막아부리면은 또 삭아부려.(또 너무 게으르게

너무 늦게 막아버리면 또 삭아버려.)
104027 @ 예. 삭아버리면 그믄 또 숫을 구워야 됩니까?(예. 삭아버리면 그러면 또 숯을 구워야 됩니까?)
104027 #1 삭아부리면은 그 숫이 족아저불지.(삭아버리면 그 숯이 적어져버리지.)
104027 @ 아, 족아지는 구나예?(아, 적어지는구나.)
104027 #1 겐디 나무가 저 불 부뜨면은 완전히 타면은 그대로 뻘겋게 헌 양 그대로 잇지 아녀게?(그런데 나무가 저 불 붙으면 완전히 타면 그대로 뻘겋게 한 상태로양 그대로 있지 않아?)
104027 @ 예, 예.(예, 예.)
104027 #1 그때에 딱,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탄 때에 막아불면은 그것이 까만 기자 숫이 뒈주게. 숫이 뒈는데 그것이 완전히 내중에 빨강 헷다가 제가 뒈불주게 나중엔.(그때에 딱,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탄 때에 막아버리면 그것이 까만 그저 숯이 되지. 숯이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중에 빨강 했다가 재가 돼버리지 나중엔.)
104027 @ 음.(음.)
104027 #5 아 게난, 그 막는, 구멍 막는 그게.(아 그러니, 그 막는, 구멍 막는 그게.)
104027 #1 그게 젤 중요ᄒᆞ주.(그게 제일 중요하지.)
104027 #5 게난 정신 바짝 출려근에.(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104027 @ 한 멧 설 때쯤 헤낫수과? 멧 설 때쯤.(한 몇 살 때쯤 했었습니까? 몇 살 때쯤.)
104027 #5 ᄒᆞᆫ, 나 ᄒᆞᆫ 삼ᄉᆞ 년 전에도 헤봣는디.(한, 나 한 삼사 년 전에도 해봤는데.)
104027 @ 아니, 그니깐 가장 처음 한 때가 멧 설쯤 뒛수과?(아니, 그니깐 가장 처음 한 때가 몇 살쯤 됐습니까?)
104027 #5 처음 홀 때는 어른들 허는 거 구경만 허고.(처음 할 때는 어른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104027 @ 구경만 허고.(구경만 하고.)
104027 #5 오.(어.)
104027 @ 음.(음.)
104027 #5 ᄒᆞᆫ 삼사 년 뒈실 거라. ᄒᆞᆫ 번 헤본다고 헤봣서. 헤난 뒈더라고.(한 삼사 년 됐을 거야. 한 번 해본다고 해봤어. 하니까 되더라고.)
104027 @ 아, 잘뒙디가? 그 숫 뭐에 썻수가?(아, 잘됩디까? 그 숯 뭐에 썼습니까?)
104027 #5 그 제서 때 고기 구울 때.(그 제사 때 고기 구울 때.)
104027 @ 고기 구울 때, 적 구울 때에? 우린 사당 허잖아예? 고기 구울 때.(고기 구울 때, 적 구울 때요? 우린 사다가 하잖아요? 고기 구울 때.)
104027 #1 고기 구울 때에 그거 많이 쓰주.(고기 구울 때에 그거 많이 쓰지.)
104027 #1 여기선 만약에 숫을 묻으면은.(여기선 만약에 숯을 묻으면.)
104027 @ 예.(예.)
104027 #5 엿날엔 톱으로 다 짤라난.(옛날엔 톱으로 다 잘라났어.)

104027 @ 예.(예.)
104027 #1 저 어디 살짝이 그 저 친촉이나 어른들안테 집이 제서 때나 씁쎙 흔 바구니씩 가져가곡 긩희연.(저 어디 살짝 그 저 친족이나 어른들한테 집에 제사 때나 쓰십사고 한 바구니씩 가져가고 그랬어.)
104027 @ 아, 경헷구나에? 음.(아, 그랬군요? 음.)
104027 #1 요샌 그런 인심이 엇주마는.(요샌 그런 인심이 없지만.)
104027 @ 예.(예.)

사냥

104028 @ 그다음에는예? 보니까 다른 마을에는 이런 게 잘 없긴 엇입디다 마는예? 혹시 사냥 헤낫수과?(그다음은요? 보니까 다른 마을에는 이런 게 잘 없긴 없습디다만? 혹시 사냥 했었습니까?)
104028 #1 사냥?(사냥?)
104028 #5 꿩 사냥은 헤낫어.(꿩 사냥은 했었어.)
104028 @ 꿩 사냥은 헤낫수과?(꿩 사냥은 했었습니까?)
104028 #1 꿩 사냥만 허고.(꿩 사냥만 하고.)
104028 @ 꿩 사냥만예?(꿩 사냥만이요?)
104028 #1 꿩 사냥만 허고 난 노루 사냥도 헤봣어.(꿩 사냥만 하고 난 노루 사냥도 해봤어.)
104028 @ 아, 노루 사냥도 헤낫수과? 꿩 사냥 헐 때, 꿩 사냥 노루 사냥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크라예. 꿩 사냥 헐 때 어떵 헷수과?(아, 노루 사냥도 했었습니까? 꿩 사냥 할 때, 꿩 사냥 노루 사냥 다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꿩 사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4028 #1 개 데령강.(개 데려가서.)
104028 @ 개 데령강?(개 데려가서?)
104028 #5 개 흔 ᄋᆞ슷 사름이면 ᄋᆞ슷 사름.(개 한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
104028 @ 예.(예.)
104028 #5 개 흔 ᄆᆞ리씩 데령강.(개 한 마리씩 데려가서.)
104028 @ 예.(예.)
104028 #5 꿩을 게민 그 망아진 개가 잇고, 일 놓는 개엔 헌 건 꿩을 앉아 잇는 걸 놀게 허는, 그걸 일 놓는 거엔 ᄒᆞ는디.(꿩을 그러면 그 망보는 개가 있고, 일 놓는 개라고 한 건 꿩을 앉아 있는 걸 날게 하는, 그걸 일 놓는 거라고 하는데.)
104028 @ 예.(예.)
104028 #5 거 일 놓면은 꿩이 이제 놀앙 어느 쪽으로 가면은 “어딜로 간다!” 희영 이제 웨민.(그 일 놓으면 꿩이 이제 날아서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 해서 이제 외치면.)

104028 #1 망보는 사름이 이서, 또.(망보는 사람이 있어, 또.)
104028 @ 예.(예.)
104028 #5 그 사름은 망보는 사름은 거 높은 동산이나 우에 영 아잣당 카! 꿩이 날아오는 것 닮으민.(그 사람은 망보는 사람은 그 높은 동산이나 위에 이렇게 앉았다가 카! 꿩이 날아오는 것 같으면.)
104028 #1 어디에 어느 밧듸 어느 구석 펜이 아잣저 허민.(어디에 어느 밭에 어느 구석 쪽에 앉았다 하면.)
104028 #5 어디 딱 앉는 거 보면은 개 데령강은에 기냥 강.(어디 딱 앉는 거 보면 개 데려가서 그냥 가서.)
104028 @ 개가 물어마씸?(개가 물어요?)
104028 #1 어. 개가 물어.(어. 개가 물어.)
104028 @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
104028 #5 개가 물어.(개가 물어.)
104028 #1 어, 총 쏘우는 거 없어.(어, 총 쏘는 거 없어.)
104028 #5 개가 물어오는 거주.(개가 물어오는 거지.)
104030 @ 개가 물어예.(개가 물어요.)
104030 @ 게민예? 노루 사냥은 어떵 헷수과?(그러면요? 노루 사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4030 #1 노루 사냥도 저, 개 데리고 개 데리고 가서.(노루 사냥도 저, 개 데리고 개 데리고 가서.)
104030 @ 예.(예.)
104030 #1 노루 잇는데 강.(노루 있는데 가서.)
104030 @ 예.(예.)
104030 #1 개가 물어야.(개가 물어야.)
104030 @ 아, 노루도 개가 물엇구나예?(아, 노루도 개가 물었군요?)
104030 #1 어.(어.)
104031 @ 혹시 지다리도 사냥헤낫수과?(혹시 오소리도 사냥했었습니까?)
104031 #5 우린 그런 거 아녜봔.(우린 그런 거 안 해봤어.)
104031 #1 지다리, 난 지다리 사냥은 아녜보고.(오소리, 난 오소리 사냥은 안 해보고.)
104031 @ 예.(예.)
104031 #1 여기서 지다리 잡는 사름은.(여기서 오소리 잡는 사람은.)
104031 @ 예.(예.)
104031 #1 그 개, 그 좋은 그 옛날 좋은 개 헤영은에.(그 개, 그 좋은 그 옛날 좋은 개 해다가.)
104031 @ 음.(음.)
104031 #1 일부 직업으로 그 잡는 사름, 그 사름 아니면 못헤여.(일부 직업으로 그 잡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 못해.)

104031 @ 아, 그런 사람도 이서낫구나예?(아, 그런 사람도 있었군요?)
104031 #1 어, 음.(어, 음.)
104031 #5 토산[138] 그 사름 이서낫어, 그 잡는 사름.('토산' 그 사람 있었어, 그 잡는 사람.)
104032 @ 아, 족제비는마씨?(아, 족제비는요?)
104032 #1 족제비는 아무나 ᄒᆞ고.(족제비는 아무나 잡고.)
104032 #5 족제비는 다들 잡아낫주.(족제비는 다들 잡았었지.)
104032 @ 뭘로 잡앗수과?(뭐로 잡았습니까?)
104032 #1 덧.(덫.)
104032 @ 덧 놔근에예?(덫 놔서요?)
104032 #1 거 덧을 만들어.(그 덫을 만들어.)
104032 #5 족제비가 돈을 하영 줫주.(족제비가 돈을 하영 줬지.)
104032 @ 족제비는 무시거에 사용헤신디 돈 하영 줫수과?(족제비는 무엇에 사용했는데 돈 많이 줬습니까?)
104032 #5 옛날 거 저 고급 사름덜 그 목도리.(옛날 거 저 고급 사람들 그 목도리.)
104032 #1 고급 사름덜 목도리라던지 뭐 이런 젓, 옷에 잠바나 요새 털 부뜨지 아녀?(고급 사람들 목도리라든지 뭐 이런 저, 옷에 점퍼나 요새 털 붙지 않아?)
10403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32 #1 그런 거라던지. 또 꼴리는 붓, 붓 감으로 많이 쓰고.(그런 거라든지. 또 꼬리는 붓, 붓 감으로 많이 쓰고.)
104032 #5 엿날에는 그 족제비 ᄒᆞᆫ ᄆᆞ리 잡으민.(옛날에는 그 족제비 한 마리 잡으면.)
104032 @ 예.(예.)
104032 #5 양복 ᄒᆞᆫ 불을 사 입어서.(양복 한 벌 사 입었어.)
104032 @ 아, 경헷구나예. 그믄 덧 만들 땐 뭘로 어떵 만들엇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 덫 만들 땐 뭐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4032 #5 요롱게 상클[139]이 뒌 건데.(요렇게 '상클'이 된 건데.)
104032 @ 예.(예.)
104032 #5 나무 요런 나무를 헤다가 밑에다가 요만 씩 요만 씩 대나무, 왕대나무 깨어근에 부쩌.(나무 요런 나무를 해다가 밑에다가 요만 씩 요만 씩 대나무, 왕대나무 깨어서 붙여.)
104032 @ 예.(예.)
104032 #5 부쩌서.(붙여서.)
104032 #1 게 요런 거림팍[140] 용 돋은 거 헤당. 대나무로 왕대로헹 얼거.(게 요런 '거림팍' 요렇게 돋은 거 해다가. 대나무로 왕대로 해서 얽어.)

---

138) '토산'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139) '상클'은 '거림패기'를 말하는데 ①나뭇가지가 돋아 벋어 나가서 갈려진 곳. 또는 ②외갈래에서 두 갈래로 갈려진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①에 해당한다. = '거림팍'
140) '거림팍'은 '거림패기'의 다른 표현이다.

104032 @ 예.(예.)
104032 #1 얼거근에 앞에 받침.(얽어서 앞에 받침.)
104032 #5 게난 요롷게 요롷게 들러지게 헤영.(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들뜨게 해서.)
104032 @ 예.(예.)
104032 #5 게민 요디다가 그 거 무슨 고기, 고깃덩어리 헹 요롷게 요기 놓고, 요걸 물엉 땡기면은 이게 탁!(그러면 요기다가 그 거 무슨 고기, 고깃덩어리 해서 요렇게 요기 놓고, 요걸 물어서 당기면 이게 탁!)
104032 @ 고깃덩어리는 무신 궤기로?(고깃덩어리는 무슨 고기로?)
104032 #5 닭고기나 뭐 그런.(닭고기나 뭐 그런.)
104032 @ 게믄 족제비 잡기 위해서 닭을 잡아마씨?(그러면 족제비 잡기 위해서 닭을 잡아요?)
104032 #5 닭 베설.(닭 창자.)
104032 @ 듹 베설을?(닭 창자를?)
104032 #5 듹 베설을 헤여근에 ᄒᆞ면은.(닭 창자를 해서 하면.)
104032 #1 뒈지 베설이나.(돼지 창자나.)
104032 @ 허이구야 게민 돈이 더 들큰게.(하이고야, 그러면 돈이 더 들겠네.)
104032 #5 듹 베설을 최고 좋아 허주게.(닭 창자를 최고 좋아 하지.)
104032 #1 듹 베설을 젤 좋아허주.(닭 창자를 제일 좋아하지.)
104032 #5 게난 그거 영 먹으레 들어와근에, 이 우에는 이만히 큰 돌이.(그러니 그거 이렇게 먹으러 들어와서, 이 위에는 이만큼 큰 돌이.)
104032 #1 큰 돌 헤당 지둘라.(큰 돌 해다가 지질러.)
104032 #5 여기 잇서. 우에.(여기 있어. 위에.)
104032 @ 예.(예.)
104032 #5 잇서. 게난 이 무게로 요걸 땡기면은 물엉 땡기면은 이게 탁 내려앉게 뒈엇단 말이어.(잇서. 게난 이 무게로 요걸 당기면 물어서 당기면 이게 탁 내려앉게 되었단 말이야.)
104032 @ 음.(음.)
104032 #5 경헹 꽉 지둘라근에 잡는 거지. 거, 우리도 잡아 밧는디 족제비 ᄒᆞᆫ 머리 잡으면 양복 ᄒᆞᆫ 벌 사 입엇다고.(그렇게 해서 꽉 지질러서 잡는 거지. 거, 우리도 잡아 봤는데 족제비 한 마리 잡으면 양복 한 벌 사 입었다고.)
104032 @ 멧 마리나 잡아봣수과?(몇 마리나 잡았었습니까?)
104032 #5 어, ᄒᆞᆫ 둬 ᄆᆞ리.(어, 한 두어 마리.)
104032 @ 아, 경헷수과? 그 족제비 잡을 때라든가 꿩 잡을 때 뭔가 특별나게시리 손지들안틔 옛날에 꿩 잡을 때 족제비 잡을 때 영 헤낫저, 하고 뭔가 재미잇는 추억 잇걸랑 ᄒᆞ나만 ᄀᆞᆯ아줍서.(아, 그랬습니까? 그 족제비 잡을 때라든가 꿩 잡을 때 뭔가 특별나게 손자들한테 옛날에 꿩 잡을 때 족제비 잡을 때 이렇게 했었어, 하고 뭔가 재미있는 추억 있걸랑 하나만 말해주십시오.)

104033 #5 재미잇는 소리는 뭐 꿩 사눙 가미는 읏라 머리 잡으면.(재미있는 소리는 뭐 꿩 사냥 가면 여러 마리 잡으면.)
104033 @ 예.(예.)
104033 #5 그걸 합동으로 풀아.(그걸 합동으로 팔아.)
104033 @ 아, 집에서 안 먹고마씸?(아, 집에서 안 먹고요?)
104033 #5 아니, 그 엿날에는 꿩병아리 혼 요만썩 헌 거.(아니, 그 옛날에는 꺼병이 한 요만씩 한 거.)
104033 @ 예.(예.)
104033 #5 어린애 세 ᄆᆞ리만 멕이면은 뭐 아주 건강 헌다고 헤서 궹장히 돈 많이 줫서. 큰 독 혼 ᄆᆞ리 값보단 더 줫다고.(어린애 세 마리만 먹이면 뭐 아주 건강 한다고 해서 굉장히 돈 많이 줬어. 큰 닭 한 마리 값보단 더 줬다고.)
104032 @ 아.(아.)
104032 #5 거, 그거 그런 거 혼 열 ᄆᆞ리, 열댓 ᄆᆞ리 잡안, 우리 뒈지 산 잡아먹어 낫다고.(그, 그거 그런 거 한 열 마리, 열댓 마리 잡아서, 우리 돼지 사서 잡아먹었었다고.)
104032 @ 아.(아.)
104032 #5 그 꿩 잡안 풀안에 사눙헤 오란에.(그 꿩 잡안 풀안에 사냥해 와서.)
104032 @ 꿩병아리를 꺼병이라고 하는 데예 여기선 뭐렌 골앗수과?(꿩병아리를 꺼병이라고 하는 데요 여기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32 #1,5 꿩비애기.(‘꿩비애기’.)
104032 @ 꿩비애기 그걸로 어떵 헤근에 멕연마씨? 아이들에게.(꺼병이 그걸로 어떻게 해서 먹였나요? 아이들에게.)
104032 #5 아이들 그거 헤어근에 참지름에 보까근에 딸령 멕이주.(아이들 그거 해서 참기름에 볶아서 다려서 먹이지.)
104032 #1 푹 딸령.(푹 다려서.)
104032 @ 아, 경헤낫구나예. 예, 알앗습니다. 일단 들일에 데헤서 여기까지 하겟습니다예.(아, 그랬군요. 예, 알았습니다. 일든 들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무신 일 허는지에 데헤서 지금부터 여쭤보겟습니다. 별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대답헤주시면 뒈어예.(바다에서 무슨 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별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대답해주시면 되어요.)
105001 @ 삼춘, 바당에선 주로 어떤 일 헷수과? 이제까지.(삼촌, 바다에선 주로 어떤 일 했습니까? 이제까지.)
105001 #8 바다에서 난, 여기서 나고 바다에서 체암은 메역.(바다에서 난, 여기서 나고 바다에서 처음은 미역.)

105001 @ 예.(예.)
105001 #8 메역 막 ᄌᆞ물앙 그것 엿날엔 속곳만 입엉.(미역 막 캐서 그것 옛날엔 속곳만 입어서.)
105001 @ 예.(예.)
105001 #8 옷도 안 입고.(옷도 안 입고.)
105001 @ 맞수다.(맞습니다.)
105001 #8 그거만 입어근엥에 메역 ᄌᆞ물앙 다 여기 헹 다 ᄆᆞᆯ류왕 다 홈치 ᄆᆞᆫ딱 모다근에 기자 야미장시 왓이민.(그것만 입어서 미역 캐서 다 여기 해서 다 말려서 다 한꺼번에 모두 모아서 그저 뒷거래장수 왔으면.)
105001 @ 풀앙예.(팔아요.)
105001 #8 다 저울로 다 풀아근엥에 그걸로 다, 엿날엔 밧도 사곡 다 무시거 먹을 거 어시민 그걸로 양식도 받아먹곡.(다 저울로 다 팔아서 그걸로 다, 옛날엔 밭도 사고 다 무엇 먹을 거 없으면 그걸로 양식도 받아먹고.)
105001 @ 예.(예.)
105001 #8 그거 풀앙.(그거 팔아서.)
105001 @ 경헨예.(그랬지요.)
105001 #8 경허멍 다 살앗주.(그러면서 다 살았지.)
105001 @ 맞수다.(맞습니다.)
105001 #8 무신 엿날에 촌에서 이디서 무시걸 헤여.(무슨 옛날에 촌에서 여기서 무엇을 해.)
105001 @ 맞수다.(맞습니다.)
105001 #8 겨난 그걸로 밧도 ᄆᆞᆫ 사곡, 다 이 그걸로 다 ᄊᆞᆯ 받아먹곡.(그러니 그걸로 밭도 무두 사고, 다 이 그걸로 다 쌀 받아먹고.)
105001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5001 #8 다 경허멍 이제 메역 ᄌᆞ무는 시철은 또 넘어가곡.(다 그러면서 이제 미역 캐는 시절은 또 넘어가고.)
105001 @ 넘어가불고예?(넘어가버리고요.)
105001 #8 넘어가부난.(넘어가버려서.)
105002 @ 그믄 듬북하고 감텐 어떵 ᄌᆞ물앗수과? 듬북하고 감테 조물 땐.(그러면 듬북하고 감탠 어떻게 캤습니까? 듬북하고 감태 캘 땐.)
105002 #8 이 망사리[141] 테왁[142]헤영.(이 '망사리' '테왁'해서.)
105002 @ 예.(예.)
105002 #8 호미 헤영 물아래 강 박박 비영.(낫 해서 물속에 가서 박박 베서.)
105002 @ 예.(예.)
105002 #8 땅 ᄉᆞᆸ박허민.(따서 가득하면.)

141)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142)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105002 @ 예.(예.)
105002 #8 여기 오랑 파싹 몰량.(여기 와서 파삭 말려서.)
105002 @ 예.(예.)
105002 #8 다 눌로 영 눌엇당.(다 가리로 이렇게 가렸다가.)
105002 @ 예.(예.)
105002 #8 눌엇당, 감테 메칠 날 받으레 온다허민 거 다 이제 뜨레 오랑 그걸로 다 생활허멍 살앗주.(가렸다가, 감태 며칠 날 받으러 온다하면 거 다 이제 뜨러 와서 그걸로 다 생활하면서 살았지.)
105002 @ 감테하고 그.(감태하고 그.)
105002 #8 또 파도쳐 가민.(또 파도쳐 가면.)
105002 @ 맞수다.(맞습니다.)
105002 #8 아이고, 놈보다 모녀 강 만히 허젠 듬북.(아이고, 남보다 먼저 가서 많이 하려고 뜸부기.)
105002 @ 아.(아.)
105002 #8 듬북 만히 허젠. 아이고, 엿날엔 바당에 듬북이 민짝허게 나낫어, 바당에.(듬북 많이 하려고. 아이고, 옛날엔 바다에 듬북이 밋밋하게 났었어, 바다에.)
105002 @ 공동으론 안헷수과?(공동으론 안 했습니까?)
105002 #8 이젠 그거 엇어.(이젠 그거 없어.)
105002 @ 엇언예.(없어서요.)
105002 #8 그거 헤근엥에.(그거 해서.)
105002 @ 예.(예.)
105002 #8 또 문 이제 또 감젓구감[143].(또 모두 이제 또 '감젓구감'.)
105002 @ 예.(예.)
105002 #8 밧디 강 그거 꼴앙.(밭에 가서 그거 깔아서.)
105002 @ 예.(예.)
105002 #8 감젓구감 혹 올리멍 다, 영 영 듬북 꼴아놩 감잣구감 달롸, 또 밧듸 가근엥에 또 감저 다 놩.(해묵은고구마 흙 올리면서 다, 이렇게 이렇게 뜸부기 깔아놓고 해묵은고구마 다뤄, 또 밭에 가서 또 고구마 다 놓아.)
105002 @ 예.(예.)
105002 #8 또 그 고구마도.(또 그 고구마도.)
105002 @ 예.(예)
105002 #8 다 파멍 망사리에 이런 것에 담으멍 다 감저공장에 다 강 풀아.(다 파면서 '망사리'에 이런 것에 담으면서 다 고구마전분공장에 다 가서 팔아.)
105002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5003 @ ᄀᆞ메기나 보말은 어떵 잡앗수과?(개울타리고둥이나 보말고둥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143) '감젓구감'은 씨앗으로 땅 속에 심었던 해묵은 고구마를 말한다.

105003 #8 아, ᄀᆞ메기도 물싸민.(아, 개울타리고둥도 물써면.)
105003 @ 물싸민.(물써면.)
105003 #8 물싸민 돌 일렁 잡아당 그거 다 이녁 먹고, 이녁 먹고.(물써면 돌 일으켜서 잡아다가 그거 다 이녁 먹고, 이녁 먹고.)
105003 @ 물에 들멍은 안 잡앗수과?(자맥질해서는 안 잡았습니까?)
105003 #8 어?(뭐?)
105003 @ 물에 들엉은 안 잡앗수과?(자맥질해서는 안 잡았습니까?)
105003 #8 물에 들엉은 그 시절엔 물에 들엉은 ᄀᆞ메기 안 잡앗어.(자맥질해서는 그 시절엔 자맥질해서는 개울타리고둥 안 잡았어.)
105005 @ 거민 여기서 겡이는 겡이렌 헙니까 깅이렌 헙니까?(그러면 여기서 게는 겡이렌 합니까 깅이라고 합니까?)
105005 #8 겡이, 겡이.('겡이', '겡이'.)
105005 @ 겡이는 어떵 잡앗수과?(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105005 #8 겡인 저 가마리[144] 저 바닷가에 벳긔 겡이가 엇어.(게는 저 '가마리' 저 바닷가에 밖에 게가 없어.)
105005 @ 예.(예.)
105005 #8 게민,막 돌 이만이 쌓민.(그러면, 막 돌 이만큼 쌓으면.)
105005 @ 예.(예.)
105005 #8 벵벵벵벵 에염에 다 헤여근엥에.(뱅뱅뱅뱅 가에 다 해서.)
105005 @ 예.(예.)
105005 #8 모두록허게 헤놩, 요만이 남으민 퀴가 다 요듸 기어들어.(모도록하게 해놓아, 요만큼 남으면 게가 다 요기 기어들어.)
105005 @ 예.(예.)
105005 #8 요듸 기어들민.(요기 기어들면.)
105005 @ 예.(예.)
105005 #8 븍작허게 그거 다 심어다근에 집이 가근엥에.(박작하게 그거 다 잡아다가 집에 가서.)
105005 @ 예.(예.)
105005 #8 다 단지에 담앙.(모두 단지에 담아서.)
105005 @ 예.(예.)
105005 #8 그 츤물 다 울라동 그거 다 보까도 먹국 ᄲᅡ상 엿날에 죽두 써 먹국.(그 짠물 다 우리고 그거 다 볶아도 먹고 빻아서 옛날에 죽도 써 먹고.)
105005 @ 죽도 써 먹고. 예, 경헷지예?(죽도 써 먹고. 예, 그랬지요?)
105005 #8 으.(어.)
105005 @ 게민 혹시 겡이 종류가 어떤 거 이서나신디 ᄀᆞᆯ아지쿠과?(그러면 혹시 게 종류가 어떤 거 있었는지 말해지겠습니까?)

144) '가마리'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를 말한다.

105005 #8 겡이 종룬 그디서 께우멍 그디서 다 산걸 종룰 어떵 헹?(게 종류는 거기서 알 까며 거기서 다 산걸 종률 어떻게 해서?)
105005 @ 겡이 이름을 뭐렌 골아낫수과?(게 이름을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5005 #8 겡이, 겡이. 그건 그자 겡이.(게, 게. 그건 그자 게.)
105005 @ 다 겡이렌 골아낫수과?(모두 게라고 말했었습니까?)
105005 #8 어. 똥겡이[145]도 잇곡, 춤겡이도 이시민.(어. '똥겡이'도 있고, 참게도 있으면.)
105005 @ 예.(예.)
105005 #8 잡을 때 똥겡이는 우리 안 잡아난.(잡을 때 '똥겡이'는 우리 안 잡았었어.)
105005 @ 안 잡아난?(안 잡았었어?)
105005 #8 나빠근에.(나빠서.)
105005 @ 지름겡이[146]도 이섯수과? 지름겡이.('지름겡이'도 있었습니까? '지름겡이'.)
105005 #8 어, 지름겡이. 지름겡이도 잇곡.(어, '지름겡이'. '지름겡이'도 잇곡.)
105005 @ 예.(예.)
105005 #8 겡이가 멧 가지. 매 우인 지름겡이.(게가 몇 가지. 맨 위에는 '지름겡이'.)
105005 @ 예.(예.)
105005 #8 밑에, 밑에 가민 춤겡이.(밑에, 밑에 가면 참게.)
105005 @ 예.(예.)
105005 #8 경허민 매 우의 건 우리 잡으레 아니 와가고. 그 이추룩 까망헌 겡이.(그러면 맨 위에 건 우리 잡으러 아니 와갔고. 그 이처럼 까만 게.)
105005 @ 예, 예예. 그 까망한 겡이는 뭐렌 골앗수과?(예, 예예. 그 까만 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05 #8 기자 겡이.(그저 게.)
105005 @ 겡이, 그냥?(게, 그냥?)
105005 #8 기자 겡이.(그저 게.)
105005 @ 예, 예예.(예, 예예.)
105005 #8 경허민 돌이 이만이 쌓여져.(그러면 돌이 이만큼 쌓여져.)
105005 @ 예.(예.)
105005 #8 경허민 벵 허게시리 둘랑 이만이 무륵허민 겡이가 다 이 안에 기어들어.(그러면 뱅 하게끔 도려내 이만큼 모록하면 게가 다 이 안에 기어들어.)
105005 @ 예.(예.)
105005 #8 경허민 젤 많이 잡주게. 겡일.(그러면 젤 많이 잡지. 게를.)
105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05 #8 엿날에 뭐 먹을 거가 이서서. 그런 거 바닷가 강 뭐 헤다근엥에 먹곡 헷주. 돈 나볼게 이서?(옛날에 뭐 먹을 것이 있어. 그런 거 바닷가 가서 뭐 해다가 먹고는

145) '똥겡이'는 먹을 수 없는 게를 말한다.
146) '지름겡이'는 조간대 상층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이다.

했지. 돈 나올게 있어?)
105005 @ 맞수다.(맞습니다.)
105005 #8 돈 벌어볼 것이 엇어.(돈 벌어볼 것이 없어.)
105005 @ 맞수다.(맞습니다.)
105005 #8 다 그 노력허멍.(다 그 노력하면서.)
105005 @ 맞수다게.(맞습니다.)
105005 #8 간세헌 사름은 그런 것도 잡으레도 못 가.(게으른 사람은 그런 것도 잡으려고도 안 가.)
105006 @ 맞수다. 옛날에도 혹시나 밤에 이런 횃불 같은 거 이용헤근에 뭐 잡아낫수과?(맞습니다. 옛날에도 혹시나 밤에 이런 횃불 같은 거 이용해서 뭐 잡았었습니까?)
105006 #8 밤이?(밤에?)
105006 @ 예.(예.)
105006 #8 밤이, 이 조금 때에.(밤에, 이 조금 때에.)
105006 @ 예.(예.)
105006 #8 저 문 새 헤근엥에.(저 모두 띠 해서.)
105006 @ 예.(예.)
105006 #8 훼 무껑.(홰 묶어.)
105006 @ 예.(예.)
105006 #8 훼 무껑 바닷가에 강 불 쌍, 그것 들러근엥에 이디 ᄀᆞ메기 나민 강 다 줏어 와.(홰 묶어서 바닷가에 가서 불 붙여서, 그것 들고서 여기 개울타리고둥 나오면 가서 다 주어 와.)
105006 @ 예.(예.)
105006 #8 경허멍 게도 난 그때 난 어린 때 언니덜 강 다 헤두 난 그 시절엔 나가 어려부난.(그러면서 그래도 난 그때 난 어린 때 언니들 가서 다 해도 난 그 시절엔 내가 어려버려서.)
105006 @ 예.(예.)
105006 #8 잡으렐 잘 못 갓어. 언니덜 허는 것만 봣주.(잡으러 잘 못 갔어. 언니들 하는 것만 봤지.)
105006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5006 #8 아이구, 그때 나 게도 밤ᄀᆞ메기 잡으레 난 잘 안 뎅겨난.(아이구, 그때 나는 그래도 밤고둥 잡으러 난 잘 안 다녔어.)
105006 @ 안 가봣수과?(안 가봤습니까?)
105006 #8 언니덜.(언니들.)
105006 @ 언니덜.(언니들.)
105006 #8 우루 성제가 이시난 거 언니덜만 잡으레 가왓주. 난 밤ᄀᆞ메기 잡으레 난 잘 아이 가.(위로 형제가 있으니까 그 언니들만 잡으러 가왔지. 난 밤고둥 잡으러 난 잘 아니 갔어.)

105007 @ 혹시, 여기도 원담[147] 다아근에 그 저 들어온 멜이나 이런 거 거려낫수과[148]? 원담 다아근에?(혹시, 여기도 '원담' 쌓아서 그 저 들어온 멸치나 이런 것 '거렸었습니까?' '원담' 쌓아서?)

105009 #8 아 아, 우리 저 막, 멜 기냥, 치대겨베여.(아 아, 우리 저 막, 멸치 그냥, 흩뿌려버려.)

105009 @ 치데겨부러?(흩뿌려버려?)

105009 #8 문딱 바닷가에 잇엇당.(모두 바닷가에 있었다가.)

105009 @ 예.(예.)

105009 #8 긋들에.(뭍쪽으로.)

105009 @ 예.(예.)

105009 #8 치데기민 잰 사름은 그것 강 줏어 오곡.(흩뿌리면 잰 사람은 그것 가서 주워 오고.)

105009 @ 예.(예.)

105009 #8 날ᄀᆞ찌 뜬 사름은 그것 강 못 줏어 와.(나같이 뜬 사람은 그것 가서 못 주워 와.)

105007 @ 원담은 따로 닿진 안앗수과?('원담'은 따로 쌓진 않았습니까?)

105007 #8 아니, 우리 시절엔 그 원담 다진 아녀서.(아니, 우리 시절엔 그 '원담' 쌓진 않았어.)

105007 @ 안 헤근에 그냥 저.(안 해서 그냥 저.)

105007 #8 아니, 또 그 보민 막 원담덜 다근에 허는 거 보기는 헷어.(아니, 또 그 보면 막 '원담'들 쌓아서 하는 거 보기는 했어.)

105009 @ 그믄 멜 들엇져! 허민 그 멜은 어디 들어낫수과?(그러면 '멸치 들었다!' 하면 그 멸치는 어디 들었었습니까?)

105009 #8 '멜 들엇져!' 허민 저 서어레[149]엔 헌 듸.('멸치 들었다!' 하면 저 '서어레'라고 한 데.)

105009 @ 아, 서어레.(아, '서어레'.)

105009 #8 서어레 오랑헤도 나중 뜬 뜬허민 강 멜도 무시거 두어 개 강 줏어 오나마나 허곡.('서어레'에 오고해도 나중 뜬 뜨면 가서 멸치도 무엇 두어 마리 가서 주워 오나마나 하고.)

105009 @ 기구나양. 게 멜치 잡을 때, 집에서 멜 잡을 때, 게믄 멜 들엉 잡앗수과 따로 멜 잡으레 가낫수과?(그렇군요. 그래 멸치 잡을 때, 집에서 멸치 잡을 때, 그러면 멸치 들어서 잡았습니까 따로 멸치 잡으러 갔었습니까?)

105009 #8 아니, 멜 잡으렌 아이 가고 바당가에서 멜 영 치데겨.(아니, 멸치 잡으려는

147)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148) '거리다'는 자잘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49) '서어레'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202번지 남쪽바닷가를 말하는데, 마을에서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어레' 또는 '서코지'라고 했다.

아니 가고 바닷가에서 멀치 이렇게 흩뿌려.)
105009 @ 치데길 때 만예?(흩뿌릴 때 만요.)
105009 #8 어, 막 그 몽땅 뎅기당근에 막 치데겨불민 것 강, 아이고 잰 사름 강 문 줏어불민 뜬 사름 가민 ᄒᆞ나 참녀 못 헤낫어.(어, 막 그 몽땅 다니다가 마구 흩뿌려버리면 그것 가서, 아이고 잰 사람 가서 모두 주워버리면 뜬 사람 가면 하나 참여 못 했었어.)
105009 @ 아하, 경헤낫구나예?(아하, 그랬었군요?)
105009 #8 그 ᄒᆞ나 참녀 못헤낫어.(그 하나 참여 못했었어.)
105010 @ 이거는 남자 어른들이 주로 허는 거우다마는 궤기 나끌 때는 어떵 헙니까?(이거는 남자 어른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만 고기 낚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5010 #8 고기도 그때 고망우럭이엔 헤여, 고망우럭.(고기도 그때 구멍우럭볼락이라고 해, 구멍우럭볼락.)
105010 @ 예.(예.)
105010 #8 저 까망한 우럭.(저 까만 우럭볼락.)
105010 @ 예.(예.)
105010 #8 욜로 요만썩(손바닥을 보이며) 헌 거.(욜로 요만씩(손바닥을 보이며) 한 거.)
105010 @ 예, 예.(예, 예.)
105010 #8 그거 그거 나까당으넹에 다 반찬 헤먹고, 그건 아무나 헤젓어?(그거 그거 낚아다가 다 반찬 해먹고, 그건 아무나 해졌어?)
105010 @ 게난예.(그러게요.)
105010 #8 그 고망우럭 나끄레.(그 구멍우럭볼락 낚으러.)
105011 @ 그 혹시 남자 어른은 낙시 헤낫수과?(그 혹시 남자 어른은 낚시 했었습니까?)
105011 #8 어?(뭐?)
105011 @ 남자어른은 낙시 헤낫수과?(남자 어른은 낚시 했었습니까?)
105011 #8 남자 어룬덜?(남자 어른들?)
105011 @ 아니, 삼춘네 남자삼춘 낙시 헤낫수과? 안 헤봇수과?(아니, 삼촌네 남자삼촌 낚시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105011 #8 아니, 무산[150]이 하르방 아무 것도 아녀난.(아니, 무산이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었어.)
105011 @ 게민예? 낙싯대나 낙싯줄 같은 거는 무시걸로 헤낫수과? 낙싯대.(그러면요? 낚싯대나 낚싯줄 같은 거는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낚싯대.)
105011 #8 낙싯대? 대루.(낚싯대? 대로.)
105011 @ 대로예?(대로요?)
105011 #8 대루. 춤대, 춤대.(대로. 낚싯대, 낚싯대.)

150) '무산이'는 발화자 손주 이름이다.

105011 @ 츰대로예? 낙싯줄은마씨?(낚싯대로요? 낚싯줄은요?)
105011 #8 츰대 만들앙.(낚싯대 만들어서.)
105011 @ 예.(예.)
105011 #8 그거 헤근에 다 고기 나끄레 가곡 ᄉᆞ뭇 헷주.(그거 해서 다 고기 낚으러 가고 사뭇 했지.)
105011@ 낙싯줄은 뭘로 헤낫수과?(낚싯줄은 뭐로 했었습니까?)
105011 #8 낙싯대?(낚싯대?)
105011 @ 줄은, 낙싯줄은 뭘로 헤낫수과? 줄.(줄은, 낚싯줄은 뭐로 했었습니까? 줄.)
105011 #8 아, 줄? 씰로 헤근엥에.(아, 줄? 실로 해서.)
105011 @ 예.(예.)
105011 #8 그땐 멘서가 그땐 노끗 그때 이섯수과? 씰로 헤근엥에.(그땐 면사가 그땐 노끈 그때 있었습니까? 실로 해서.)
105011 @ 예.(예.)
105011 #8 영 영 꼬아근엥에 대에 영 돌아메근엥에 낙시 요영 허영 고망트레 드리청.(이렇게 이렇게 꼬아서 대에 이렇게 달아매서 낚시 요렇게 해서 구멍들에 집어넣어.)
105011 @ 낙시는 무시걸로 헷수과?(낚시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105011 #8 낙신 다 사당 헤낫어.(낚신 다 사다가 했었어.)
105011 @ 옛날에도 다 쒜로 낙신 이서낫수과?(옛날에도 다 쇠로 낚신 있었습니까?)
105011 #8 낙신 이서낫어.(낚신 있었어.)
105011 @ 게민 뽕똘은 뭘로 헷수과?(그러면 봉돌은 뭐로 했습니까?)
105011 #8 뽕똘, 뽕똘 그런 거 잘 우린 아녀낫주마는 다 집에서 만들앙.(봉돌, 봉돌 그런 거 잘 우린 않았었지만 다 집에서 만들어서.)
105011 @ 무시걸로 만들앙?(무엇으로 만들어서?)
105011 #8 연철로.(연철로.)
105011 @ 연철로.(연철로.)
105011 #8 연철로 다 만들앙.(연철로 다 만들어서.)
105011 @ 연철 녹여근에마씸?(연철 녹여서요?)
105011 #8 으, 녹영, 불에 녹여근엥에 다 만들아난.(응, 녹여서, 불에 녹여서 다 만들었었어.)
105011 @ 아이구,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5012 @ 삼춘, 물에 들 때 작살로 궤기 잡아낫수과?(삼촌, 물에 들 때 작살로 고기 잡았었습니까?)
105012 #8 어, 우린 고기 나끄레 그런 거.(어, 우린 고기 낚으러 그런 거.)
105012 #즘수1 고기 쏘아납디겐?(고기 쏘으셨었냐고?)
105012 #8 아, 고기, 작살로 고기 쏘아납디겐? 아이고, 난 그런 거 그땐 못헷단에.(아, 고기, 작살로 고기 쏘아나셨냐고? 아이고, 난 그런 거 그땐 못했다가.)
105012 @ 예.(예.)

105012 #8 이제사 그 작살 베완 그 바닷가에 아전뎅기는 거뿐이주. 난 그런 것 잘 못 헤.(이제야 그 작살 배워서 그 바닷가에 가져다니는 거뿐이지. 난 그런 것 잘 못해.)

105012 @ 아까 소살예? 여기선 소살이렌 ᄀᆞᆯ앗수과?(아까 작살이요? 여기선 작살이라고 말했습니까?)

105012 #8 소살, 소살 다 언니덜 이딧 헌 거 다 빌엉.(작살, 작살 다 언니들 여기 한 거 다 빌어서.)

105013 @ 세화리[151]에는 고깃베가 어떤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세화리'에는 고깃배가 어떤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5013 #8 서화리 고깃베?(세화리 고깃배?)

105013 @ 예.(예.)

105013 #8 서화린 고깃베 엇엇낫어.(세화리는 고깃배 없었어.)

105013 @ 가마리엔 풍선 말고 고깃베 뭐 이섯수과? 풍선 말고 궤깃베 다른 거 뭐 이섯수과? 궤깃베, 가마리에서.('가마리'에는 풍선 말고 고깃배 뭐 있었습니까? 풍선 말고 고깃배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고깃배, '가마리'에서.)

105013 #8 오, 가마리 ᄒᆞ는 거? 가마리 ᄒᆞ는 것도 저추룩 고깃베 헤영, 다 헤영, 그때 주낫, 주낫.(오, '가마리' 하는 거? '가마리' 하는 것도 저처럼 고깃배 해서, 다 해서, 그때 주낙, 주낙.)

105013 @ 주낫.(주낙.)

105013 #8 주낫, 주낫 ᄒᆞᆫ 상자가.(주낙, 주낙 한 상자가.)

105013 @ 베이름, 베이름.(배이름, 배이름.)

105013 #8 베이름은 기냥 베옌만 ᄀᆞᆯ아낫주.(배이름은 그냥 배라고만 말했었지.)

105013 @ 아, 그니깐 풍선이렌 헷잖아예?(아, 그러니깐 풍선이라고 했잖아요?)

105013 #8 풍선?(풍선?)

105013 @ 예. 풍선 말고 무신 테우 같은 거 엇엇낫수과?(예. 풍선 말고 무신 떼 같은 거 없었습니까?)

105013 #8 아, 터베, 터베.(아, 떼배, 떼배.)

105013 @ 터베?(떼배?)

105013 #8 터베로 헤근엥에.(떼배로 해서.)

105013 @ 예.(예.)

105013 #8 거 것도 아무나 헤저게? 이디서 베운 사름만 터베 탕, 저 밧ᄆᆞ루[152] 강 자리 거려[153]오곡 ᄒᆞ민, 우린 ᄒᆞ꼼 중간에 사난.(그 그것도 아무나 해지나? 여기서 배운 사람만 떼배 타서, 저 '밧ᄆᆞ루' 가서 자리돔 '거려'오고 하면, 우린 조금 중간에 사니까.)

105013 @ 예.(예.)

105013 #8 그 자리도 이디 오라근엥에 사단 먹엇주.(그 자리돔도 여기 와서 사다가

151) 여기서 '세화리'는 발화자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로 받아드린 것 같다. 세화2리에서 한라산 쪽인 중산간마을을 말한다.

152) '밧ᄆᆞ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앞바다를 말하다.

153) '거려'는 기본형이 '거리다'이다.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먹었지.)
105013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5013 #8 이 바닷가에 저디 저 개맛 저디 저거.(이 바닷가에 저기 저 포구 저기 저거.)
105013 @ 저 개맛듸.(저 포구.)
105013 #8 개맛듸 저듸 오랑, 그 저 자리도 사단 먹엇주.(포구 저기 와서, 그 저 자리돔도 사다가 먹었지.)
105013 @ 게믄예? 그다음에는 그 저기, 삼춘, 그 궤깃베 종류들이 이실 거 아니꽈예? 풍선도 잇고, 아까 무시거?(그러면요? 그다음에는 그 저기, 삼촌, 그 고깃배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선도 있고, 아까 무엇?)
105013 #8 터베.(떼배.)
105013 @ 터베도 잇고 또?(떼배도 있고 또?)
105013 #8 터베 허고, 또 베엥만 곧주 무시거 엇엇낫어.(떼배 하고, 또 배라고만 말하지 무엇 없었어.)
105013 @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5013 #8 터베, 거 터베, 낭으로만 이추룩 짓엉, 요 우이 상다리 요만이 지성.(떼배, 그 떼배, 나무로만 이처럼 지어서, 요 위에 상다리 요만큼 지어서.)
105013 @ 예.(예.)
105013 #8 그디 아자.(거기 앉아.)
103013 @ 예. 경헨예?(예, 그랬지요?)
103014 @ 그문 이젠예? 어, 해녀들이 그 잡는 거 이거 귀 말고 또 무시거 무시거 이서낫수과?(그러면 이제는요? 어, 해녀들이 그 잡는 거 이거 성게 말고 또 무엇 무엇 있었습니까?)
105014 #8 엿날에?(옛날에?)
105014 @ 예.(예.)
105014 #8 전북이.(전복이.)
105014 @ 예.(예.)
105014 #8 지픈 듸만 가민 전북 이만썩 헌 거.(깊은 데만 가면 전복 이만큼 한 거.)
105014 @ 예, 또 뭐 이섯수과?(예, 또 뭐 있었습니까?)
105014 #8 고동도 잡곡.(소라도 잡고.)
105014 @ 예.(예.)
105014 #8 지픈 듸 가민 전북.(깊은 데 가면 전복.)
105014 @ 예.(예.)
105014 #8 널렝이가 이만썩 헌 거.(넓이가 이만큼 한 거.)
105014 @ 예.(예.)
105014 #8 돌에 영 탁탁 부터낫주. 탁탁 부터나민.(돌에 이렇게 탁탁 붙었었지. 탁탁 붙으면.)
105014 @ 그거 말고, 전복 말고 뭐 이서낫수과?(그거 말고, 전복 말고 뭐 있었습니

까?)
105014 #8 고동, 구젱기.(소라, 소라.)
105014 @ 구젱기 떼고, 그다음엔?(소라 캐고, 그다음엔?)
105014 #8 구젱기허곡, 전복허곡벳긔 안 잡안.(소라하고, 전복하고밖에 안 캤어.)
105014 @ 조갠 안 잡앗수과?(오분자기는 안 잡았습니까?)
105014 #8 조개?(오분자기?)
105014 @ 오분재기, 조갠 안 잡앗수과?(오분자기, 오분자기는 안 잡았습니까?)
105014 #8 아, 그땐 물 바짝 싸민 ᄀᆞᆺ으로 와근엥에 잡주. 오분재긴 물에 들엉 그 엿날엔 안 잡아낫어.(아, 그땐 물 바짝 써면 가로 와서 잡지. 오분자긴 자맥질해서는 그 옛날엔 안 잡았었어.)
105014 @ 게민 그 저, 그 뭘로는 메역 허고 감테 허고 또 뭐 이섯수과? 듬북 말고 또?(그러면 그 저, 그 뭐로는 미역 하고 감태 하고 또 뭐 있었습니까? 듬북 말고 또?)
105014 #8 고지기, 고지기.(듬북, 듬북.)
105014 @ 고지기는 무시거꽈?(듬북은 뭡니까?)
105014 #8 듬북.(듬북.)
105014 @ 듬북? 아.(듬북? 아.)
105014 #8 고지기 나는 시기가 이서.(듬북 나는 시기가 있어.)
105014 @ 아, 기꽈?(아, 그래요?)
105014 #8 고지기 나는 시기가 이시난.(듬북 나는 시기가 있으니까.)
105014 @ 예.(예.)
105014 #8 그 시기에만 고지기도 다 ᄌᆞ물앙 밧듸 꼴앙 보리도 갈곡.(그 시기에만 듬북도 다 캐서 밭에 깔아서 보리도 갈고.)
10501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5014 #8 보리 갈민, 것도 아무나 고지기도 ᄌᆞ물어저? 이거 배운, 바닷가에 배운 사름만 고지기도 ᄌᆞ물앗주.(보리 갈면, 것도 아무나 듬북도 캐지나? 이거 배운, 바닷가에 배운 사람만 듬북도 캤지.)
105014 @ 다른 건 엇엇수과 무사? ᄆᆞᆯ망도 헷지예?(다른 건 없었습니까, 왜? 모자반도 했지요?)
105014 #8 으. ᄆᆞᆯ망 헤영. 이런 것가 어디 이서(‘망사리를 가리키며)?(응. 모자반 했어. 이런 것이 어디 있어(‘망사리를 가리키며)?)
105014 @ 아니, ᄆᆞᆯ망.(아니, 모자반.)
105014 #8 오. 아, ᄆᆞᆯ망도 그때 민짝[154] ᄌᆞ물민 그때 이제, ᄆᆞᆯ망 이제 난 때지.(그래. 아, 모자반도 그때 ‘민짝’ 캐면 그때 이제, 모자반 이제 난 때지.)
105014 @ 예.(예.)
105014 #8 이제 나민, 이제 그 ᄆᆞᆯ망도 ᄌᆞ물아. ᄆᆞᆯ망도 아무디나 안 나. 나는 듸벳긔.(이제 나면, 이제 그 모자반도 캐어. 모자반도 아무데나 안 나. 나오는 데밖에.)

154) ‘민짝’은 깨끗하게 모두를 말한다.

105014 @ 기꽈?(그래요?)
105014 #8 으, 나는 듸벳긔 안 나. 아무디나 안 나. 그 경허민 물망두 ᄌᆞ물아다근엥에.(응, 나는 데밖에 안 나. 아무데나 안 나. 그 그러면 모자반도 캐다가.)
105014 @ 허고예?(하고요?)
105014 #8 그 궤앞[155]이엔 헌 듸벳긔 물망도 안 나. 이 바닷가에 이디도 물망 안 나곡, 저 궤 앞이벳긔 물망도 안 나.(그 '궤앞'이라고 한 데밖에 모자반도 안 나. 이 바닷가에 여기도 모자반 안 나, 저 '궤앞'에밖에 모자반도 안 나.)
105014 @ 톨은 안 헷수과? 톨.(톳은 안 했습니까? 톳.)
105014 #8 무사, 톨도 그것 톨도 엿날엔 이젠 어촌계로 톨도 요 중간엔 문 헤낫저마는 엿날엔 어촌계도 아녕 기자 허민 그 아침이 강 물 바짝 싸민, 그것 비어당 지붕 우의 널엉 다 발레엉, 발레민 들영 낫다근엥에 여름에 밧디 검질멜 때, 물에 당갓당 그거 헤영 저, 밥에 ᄀᆞ찌 숭키로 먹어나곡.(왜, 톳도 그것 톳도 옛날엔 이젠 어촌계로 톳도 요 중간엔 모두 했었다만 옛날엔 어촌계도 않고 그저 하면 그 아침에 가서 물 바짝 써면, 그것 베다가 지붕 위에 널어서 다 바래어서, 바래면 들여서 나뒀다가 여름에 밭에 김맬 때, 물에 담갔다가 그거 해서 저, 밥에 같이 푸성귀로 먹었었고.)
105014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5014 #8 아이구, 엿날에 무시것가 이서낫어?(아이고, 옛날에 무엇이 있었어?)
105016 @ 게민 삼춘, 옛날에 물질헐 때 허던 삶하고, 지금 물질헐 때 하고.(그러면 삼촌, 옛날에 물질할 때 하던 삶하고, 지금 물질할 때 하고.)
105016 #8 아, 지금 물질허는 건 호강이라.(아, 지금 물질하는 건 호강이야.)
105016 @ 호강이라?(호강이야?)
105017 #8 고무옷 다 입곡, 엿날엔 속곳만 입엉.(고무옷 다 입고, 옛날엔 속곳만 입어서.)
105017 @ 옛날 속곳이렌 안헷지예? 무시거렌 ᄀᆞᆯ앗수과?(옛날 속곳이라고 안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17 #8 아, 쏘중의[156], 쏘중의만 이 물적삼[157], 부젯칩 사름이나 요 물적삼 헤영 헌 거 입어낫주. 가난헌 사름은 물적삼도 엇엉 못 입어서, 엇언.(아, '소중의', '소중의'만이 '물적삼', 부잣집 사람이나 요 '물적삼' 해서 한 거 입었었지. 가난한 사람은 '물적삼'도 없어서 못 입었어, 없어서.)
105017 @ 어선예?(없어서요?)
105017 #8 거 물적삼도 아무나 입어져? 그 시절에. 것도 못 입어낫주. 어디 시민? 물적삼.(거 '물적삼'도 아무나 입어져? 그 시절에. 것도 못 입었었지. 어디 있으면? '물적삼'.)
105017 @ 처음에 소중의부터 시작헤가지고 지금 고무옷까지, 처음엔 소중의 입고 그 다음에 물적삼 입고?(처음에 '소중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무옷까지, 처음엔 '소중

155) '궤앞'은 표선면 세화2리 1563번지 남쪽 바닷가를 말한다.
156) '소종의'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쏘중의'는 '소중의'를 발화자가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다.
157) '물적삼'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한다.

의’ 입고 그 다음에 ‘물적삼’ 입고?)

105017 #8 어, 그다음은 게난 그때도 이 수건[158], 광목혜영 이 수건만 영 써.(어,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때도 이 수건, 광목해서 이 수건만 이렇게 써.)

105017 @ 지금은 뭐 썸수과?(지금은 뭐 쓰고 있나요?)

105017 #8 지금은 고무모저.(지금은 고무모자.)

105017 @ 고무모자 쓰고예?(고무모자 쓰고요?)

105017 #8 다 써근엥에 헤불민 무신 경 어려운 것이 혼엇이 엇어.(다 써서 해버리면 무슨 그렇게 어려운 것이 한없이 없어.)

105017 @ 예.(예.)

105017 #8 중간엔 까부리[159] 써나고. 수건 썻단 욜로 이젠 얼굴 캄덴 저 까부리 멘들안에 귀낑지 더꺼지게.(중간엔 ‘까부리’ 썼었고. 수건 썼다가 요리로 이젠 얼굴 탄다고 저 ‘까부리’ 만들어서 귀까지 덮어지게.)

105017 @ 아, 기꽈?(아, 그래요?)

105017 @ 옛날 톨, 톨은 개인적으로 영 ᄌᆞ물아수과? 아니믄 톨 허채 헷수과?(옛날 톳, 톳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캤습니까? 아니면 톳 허채 했습니까?)

105018 #8 아, 기자 엿날은 기자 내블믄 톨 금허지도 아녜영.(아, 그저 옛날은 기자 내버리면 톳 금하지도 않았어.)

105018 @ 아, 경헤낫수과?(아, 그랬습니까?)

105018 #8 요, 어촌계 시절 나사.(요, 어촌계 시설 생겨야.)

105018 @ 예.(예.)

105018 #8 문 어촌계 튼 사름만. 것도 아무나 헤저? 어촌계 튼 사름만 톨도 문 허채[160]헤야.(모두 어촌계 튼 사람만.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어? 어촌계 튼 사람만 톳도 모두 허채해야.)

105018 @ 허채헤야.(허채해야.)

105018 #8 문딱 ᄆᆞ여근엥에 물 바짝 싸민 그거 비어당 홈치 문딱 널엉, 경허민 그걸 다헤영 조합에 다 바쪄. 풀곡. 겡헤낫주.(모두 모여서 물 바짝 써면 그거 베다가 한꺼번에 모두 널어서, 그러면 그걸 다해서 조합에 다 바쳐. 팔고. 그랬었지.)

105019 @ 그다음엔예? 우미도 헤낫지예? 우미, 우미 우미.(그다음은요? 우뭇가사리도 했었지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105019 #8 아, 우민 여기 안 ᄌᆞ물아나서.(아, 우뭇가사리는 여기 안 캤었어.)

105019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

158) 여기서 ‘수건’은 ‘물수건’을 말한다. 잠녀가 무자맥질해서 작업할 때 쓰는 하얀 수건을 말한다. 무자맥질할 때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며,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에는 햇볕을 가려준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며, 대체로 폭 30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 정도이다.

159) ‘까부리’는 잠녀가 작업할 때 쓰는 모자의 한 가지로, 머리와 뒷목덜미와 양 뺨을 덮을 수 있게 꾸며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양쪽 귀 높이에 구멍이 뚫어져 무자맥질했을 때 여기로 물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부 지방에서 잠녀들 스스로 만들어 썼지만, 고무모자가 나오면서 사라졌다. 달리 ‘끼부리’, ‘까불이’, ‘풍뎅이’라 한다.

160) ‘허채’는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달리 ‘대ᄌᆞ문’이라 한다.

105019 #8 저, 우민 여기 아년.(저, 우뭇가사리는 여기 안 했어.)
105020 @ 게믄 삼춘, 아까 골아난 말이우다마는 흔번만 더 골아줍서예. 전복은 여기서 옛날부터 전복이렌 헷수과? 생복이렌 헷수과?(그러면 삼촌, 아까 말했던 말입니다만 한번만 더 말해주십시오. 전복은 여기서 옛날부터 전복이라고 했습니까? 생복이이라고 했습니까?)
105020 #8 아이고 아, 기자 저 생복.(아이고 아, 그저 생복)
105020 @ 옛날엔 생복이렌 헷지예?(옛날엔 생복이라고 했지요?)
105020 #8 엿날에 생복.(옛날엔 생복.)
105020 @ 생복 하고 구젱기.(생복 하고 소라.)
105020 #8 구젱기, 고동이엔도 잘 안 골아낫어. 그자 구젱기허곡 전복, 생복.('구젱기', '고동'이라고도 잘 안 말했었어. 그저 '구젱기'하고 전복, 생복.)
105020 @ 생복 허고 구젱기 켈 땐 개인으로 헷수과? 공동으로 헷수과?(생복 하고 소라 캘 땐 개인으로 했습니까? 공동으로 했습니까?)
105020 #8 그땐 개인으로. 개인, 이녁 만히 잡은 사름은 만히.(그땐 개인으로. 개인, 이녁 많이 잡은 사람은 많이.)
105020 @ 경헷지예?(그랬지요?)
105020 #8 하영 헌, 못 못헌 사름은 전복 못 잡은 사름은 ᄒᆞ낫토 못 잡고, 만히 잡은 사름은 하영 잡고 겡헤낫주.(많이 한, 못 못한 사람은 전복 못 잡은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많이 잡은 사람은 많이 잡고 그랬었지.)
105021 @ 삼춘, 생복허고 구젱기, 종류가 이섯지예?(삼촌, 생복하고 소라, 종류가 있었지요?)
105021 #8 으.(응.)
105021 @ 생복에 종류, 막 오래 살앙 큰 거는 무시거렌 골으고, 어린 건 뭐렌 골으고 헷수과?(생복의 종류, 매우 오래 살아서 큰 거는 뭐라고 말했고, 어린 건 뭐라고 말하고 했습니까?)
105021 #8 아, 어린 건?(아, 어린 건?)
105021 @ 예. 생복 족은 건 뭐렌 골앗수과?(예. 생복 작은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1 #8 저 거시기 꺼끄막[161]이엔 허곡.(저 거시기 '꺼끄막'이라고 하고.)
105021 @ 예.(예.)
105021 #8 또 큰 줌복은 줌복이엔 허곡. 생복이엔도 허곡.(또 큰 전복은 '줌복'이라고 하고. '생복'이라고도 하고.)
105021 #8 암첨복[162], 숫첨복[163].('암첨복', '숫첨복'.)
105021 @ 암첨복, 숫첨복예?('암천복', '숫첨복'이요?)
105021 #8 겐디 우리 어머니넨, 저 거시기 아 ᄀᆞ싸 골앗단 잊어먹어 부럿져.(그런데 우리 어머니넨, 저 거시기 아 아까 말했다가 잊어먹어 버렸지.)

161) '꺼끄막'은 어린 전복을 말한다. 달리 '꺼끄먹'이라 한다.
162) '암첨복'은 전복의 암컷을 말한다.
163) '숫첨복'은 전복의 수컷을 말한다.

105021 @ 꺼끄막?(‘꺼끄막’?)
105021 #8 저 거시기 점북.(저 거시기 전복.)
105021 @ 생복?(생복?)
105021 #8 생복, 생복.(생복, 생복.)
105021 @ 생복을 큰 건 그냥 생복이렌 허고, 족은 건 꺼끄막이렌마씨?(생복을 큰 건 그냥 ‘생복’이라고 하고, 작은 건 ‘꺼끄막’이라고요?)
105021 #8 어, 꺼끄막이엔.(어, ‘꺼끄막’이라고.)
105021 @ 아, 꺼끄막.(아, ‘꺼끄막’.)
105021 #8 어, 꺼끄막, 꺼끄막.(어, ‘꺼끄막’, ‘꺼끄막’.)
105021 @ 구젱긴마씨?(소라는요?)
105021 #8 고동.(고동.)
105021 @ 큰 건 뭐렌 골앗수과?(큰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1 #8 민둥구젱기[164].(‘민둥구젱기’.)
105021 @ 족은 건?(작은 건?)
105021 #8 쌀고동[165]. 셍겡이[166].(‘쌀고동’, ‘셍겡이’.)
105021 @ 무시거마씨? 아까 셍겡이?(뭐라고요? 아까 ‘셍겡이’?)
105021 #9 할망, 확 골아붑서게. 녹음헴수게.(관객.)(할머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녹음하고 있습니다.(관객.))
105021 #8 아이고, 성게도 못 까키여.(아이고, 성게도 못 까겠네.)
105022 @ 아까 무시거 테베? 터베? 터베엔 주로 무시거 무시거 잡앗수과?(아까 뭐 떼배? 떼배? 떼배엔 주로 무엇 무엇 잡았습니까?)
105022 #8 자리 거리레[167].(자리돔 ‘거리레’.)
105022 @ 자리 거리레 갈 때.(자리돔 ‘거리러’ 갈 때.)
105022 #8 어, 자리 거리레. 터베론 자리 거리레 갈 때벳긔 안 갓주.(어, 자리돔 ‘거리러’, 떼론 자리돔 ‘거리러’ 갈 때밖에 안 갔지.)
10502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23 @ 게민 터베 말고 돛배 잇잖아예? 돛 달앙 하는 거.(그러면 떼 말고 돛배 있잖아요? 돛 달아서 하는 거.)
105023 #8 돛 달앙 하는 건 거시기.(돛 달아서 하는 건 거시기.)
105023 @ 풍선.(풍선.)
105023 #8 거시기 문 저 생성.(거시기 모두 저 옥돔.)
105023 @ 예.(예.)
105023 #8 생성허고.(옥돔하고.)

164) ‘민둥구젱기’는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문둥구젱이’, ‘민둥구제기’, ‘민둥구젱이’라고 한다.
165) ‘쌀고동’은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구제기’, ‘쌀구젱이’라고 한다.
166) ‘셍겡이’는 어린 소라를 말한다.
167) ‘거리다’는 자잘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05023 @ 예.(예.)
105023 #8 그때 젓, 고기도 그때 두 가지라. 젓, 생성ᄒᆞ곡 또 거 무시거니 술레기, 그땐 술레기엔 ᄒᆞ곡 또시 그때 또 ᄒᆞ나 무시거니 보구치, 보구치 ᄒᆞ곡 두 가지 잡앙 와.(그때 저, 고기도 그때 두 가지야. 저, 옥돔하고 또 거 뭐니 옥돔, 그땐 '술레기'라고 하고 또 그때 또 하나 뭐니 조기, 조기하고 두 가지 잡아서 왔어.)
105023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5023 #8 문 주낫헤영.(모두 주낙해서.)
105023 @ 예.(예.)
105023 #8 주낫 강 놓앙.(주낙 가서 놓아.)
105023 @ 예.(예.)
105023 #8 거 걷엉 허민 다 고기 다 낙시에 벵 허게 돌아지민 그거 다 떼어근에 아정오민 우리 겨민 긋, 고기 잡아온 사름덜이 문 노끗 헹 다 꿰영 요걸 얼만에치, 얼만에치 다 꿰영 요거 얼만에치, 얼만에치 다 꿰영 풀아낫어.(거 걷어서 하면 다 고기 다 낚시에 뱅 하게 매달리면 그거 다 떼어서 가져오면 우리 그러면 그, 고기 잡아온 사람들이 모두 노끈 해서 다 꿰어서 요걸 얼마어치, 얼마어치 다 꿰어서 요거 얼마어치, 얼마어치 다 꿰어서 팔았었어.)
105023 @ 예.(예.)
105023 #8 꿰연.(꿰어서.)
105024 @ 그다음엔예? 이 저 아까 풍선에 달던 그 천으로 뭰 건 뭐렌 골앗수과?(그 다음은요? 이 저 아까 풍선에 달던 그 천으로 된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4 #8 돗, 돗.(돛, 돛.)
105024 @ 돗이렌 헷수과? 옛날도 돗이렌?(돛이라고 했습니까? 옛날도 돛이라고?)
105024 #8 어, 돗 돌앙 갓덴.(어, 돛 달아서 갔다고.)
105024 @ 돛 돌앙 갓덴 헷수과?(돛 달아서 갔다고 했습니까?)
105024 #8 으, 그 그땐 엿날엔 영 헤근에 문 돗 돌아.(응, 그 그땐 옛날엔 이렇게 해서 모두 돛 달아.)
105024 @ 돗 돌앙예? 영 저으는 건 뭐렌 골앗수과?(돛 달아서요? 이렇게 젓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4 #8 네이.(노.)
105024 @ 네이.(노.)
105024 #8 네이, 영 젓느 거.(노, 이렇게 젓는 거.)
105024 @ 네이, 젓는 거잖아예? 네이 저을 때 영 바당에 닿는 제일 끗 부분은 뭐렌 골앗수과?(노, 젓는 거잖아요? 노 저을 때 이렇게 바다에 닿는 제일 끝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5024 #8 난 네이벳긔 안 들어낫인디.(난 노밖에 안 들었었는데.)
105024 @ 네이 손잡이는 뭐렌 골앗수과? 네이 손잡이는.(노 손잡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 손잡이는.)

105024 #8 치, 치.(키, 키.)
105024 @ 치?(키?)
105024 #8 아, 치 치 잡으라.(아, 키 키 잡으라.)
105024 @ 그다음엔 풍선에 맨 앞에 부분은 뭐렌 골앗수과? 베 영 나갈 때 앞에 부분, 뾰족한 부분.(그다음엔 풍선에 맨 앞의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 이렇게 나갈 때 앞의 부분, 뾰족한 부분.)
105024 #8 아, 이물에나 고물에나 허는 거. 앞에 건 이물, 또꼬망엣 건 고물. 아이고, 머리가 히여뜩허다.(아, 이물에나 고물에나 하는 거. 앞에 건 이물, 똥구멍엣 건 고물. 아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105024 @ 삼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예. 한 가지만 허문 끗날 거예.(삼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끝날 거예요.)
105024 #8 혼 가지만 무시거 물을 거라?(한 가지만 무엇 물을 거야?)
105024 @ 지금 계속 물질허멍, 물질허멍 계속 평생 사셧잖아예?(지금 계속 물질하면서, 물질하면서 계속 평생 사셨잖아요?)
105024 으.(응.)
105024 @ 그게 살안 보난 막 좋아라, 라든가. 물질헌 거 저기 좋은 거 기억나는 거 골아줍서.(그게 살아서 보니까 막 좋아라, 라든가. 물질한 거 저기 좋은 거 기억나는 거 말해주십시오.)
105024 #8 아, 난 그때 젓 물질헐 땐 막 그땐 젊을 때난 좋게 살앗는디.(아, 난 그때 저 물질할 땐 막 그땐 젊을 때난 좋게 살았는데.)
105024 @ 예.(예.)
105024 #8 이젠 막 힘들게 살암서. 게난 애기들이 다 나가부난.(이젠 막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 아기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105024 @ 크멍 돈 다 써부렷구나게.(크면서 돈 다 써버렸군요.)
105024 #8 예. 경헷수다.(예, 그랬습니다.)
105024 @ 경헤도 아무튼 잘도 건강하게 잘 하셤수다.(그래도 아무튼 잘도 건강하게 잘 하십니다.)
105024 #8 예.(예.)
105024 @ 고맙습니다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예.(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5024 #8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히여뜩ᄒᆞ다. 이말 곧젠 허난 나 머리가 히여뜩ᄒᆞ다. 하하하. 엿날 말 곧젠허민 이저비언 튼네지도 못허곡.(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이말 하려고 하니까 내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하하하. 옛날 말 말하려면 잊어버려 떠올리지도 못하고.)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오늘은 옷감에 종류라든가.(오늘은 옷감의 종류라든가.)
106001 #1 어.(어.)
106001 @ 아니면 그걸 어떻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들에 데헤 여쭤보쿠다예? 거난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아시는 대로 골아주시믄 뒈여예? 몰르믄 몰라부난 곧는 거난예?(아니면 그걸 어떻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해 여쭤볼게요? 그러니 이제, 교장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모르면 몰라버려서 말하는 거니까요?)
106001 #1 음.(음.)
106001 @ 어, 우선예? 그 옛날에 여기서 만들엇던 옷감의 종류에 대헹 골아줍서. 어떤 옷감들이 이섯수과?(어, 우선요? 그 옛날에 여기서 만들었던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어떤 옷감들이 있었습니까?)
106001 #1 옷감의 종류가 무시거 이서, 저.(옷감의 종류가 무엇 있어, 저.)
106001 #2 멩지ᄒᆞ고, 미녕ᄒᆞ고, 베허고 세 가지 뿐이주.(명주하고, 무명하고, 베하고 세 가지 뿐이지.)
106001 #1 미녕ᄒᆞ고, 멩지, 멩지. 요샌말론 요샌 비단이엔 ᄒᆞ주.(무명하고, 명주, 명주. 요새말론 요샌 비단이라고 하지.)
106001 #2 에 에, 요새도 멩진 멩지엔 골음니다게.(에 에, 요새도 명준 명주라고 말합니다.)
106001 #1 멩지ᄒᆞ고 비 저, 미녕ᄒᆞ고, 베.(명주하고 비 저, 무명하고, 베.)
106001 @ 베하고예?(베하고요?)
106001 #1 그 옛날에는 삼베 전에는.(그 옛날에는 삼베 전에는.)
106001 @ 예.(예.)
106001 #1 칙베 헤낫어, 칙베.(칡배 했었어, 칡베.)
106001 @ 칙베예?(칡베요?)
106001 #1 칙 헤당 숢앙, 그 거죽 베껑, 그걸 씰 뽑앙, 헤서 칙으로 칙꺼죽으로 헤영 은에 ᄒᆞᆫ 베가 옷감 짠게 칙베엔 허주게.(칡 해다가 삶아서, 그 거죽 벗겨서, 그걸 씰 뽑아서, 해서 칡으로 칡껍질로 해서 한 베가 옷감 짠 게 칡베라고 하지.)
106001 @ 예, 그건 그때 가서 여쭤보쿠다예? 옷감에는 멩지허고 미녕허고 베나 칙베 그거예.(예, 그건 그때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옷감에는 명주하고 무명하고 베나 칡베 그거요.)
106001 #1 어, 그거뿐이주.(어, 그것뿐이지.)

명주

106002 @ 그믄 우선예, 멩지에 데헤가지고 여쭤보쿠다예?(그러면 우선요, 명주에 대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06002 #1 어.(어.)
106002 @ 어, 그 멩지씰 만드는 과정에 데헹 골아줍서.(어, 그 명주실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06002 #1 멩지씰은 그 누웨.(명주실은 그 누에.)
106002 #2 누웨꼬치, 누웨꼬치가 잇주게.(누에고치, 누에고치가 있지.)
106002 @ 예.(예.)
106002 #2 이맛썩 헌 꼬추.(이만씩 한 고치.)
106002 @ 예, 예.(예, 예.)
106002 #1 누웨를 키왕.(누에를 키워서.)
106002 @ 예.(예.)
106002 #1 여기선 젓 누웨부터 키왓주게.(여기선 저 누에부터 키웠지.)
106002 @ 예, 예.(예, 예.)
106002 #1 누웨 헤당은에 맨 처음엔 그 저 알, 누웨알 부뜬 걸 사당.(누에 구해다가 맨 처음엔 그 저 알, 누에알 붙은 걸 사다가.)
106002 @ 예.(예.)
106002 #1 저 다른 듸서 사왓어 그때.(다른 데서 사왔어 그때.)
106002 @ 예.(예.)
106002 #1 문 보급도 헤주고. 그거 사당은에 그 알 까면은.(모두 보급도 해주고. 그거 사다가 그 알 까면.)
106002 @ 예.(예.)
106002 #1 거기에 뽕나무를 이파리, 뽕낭 이파리 타당.(거기에 뽕나무를 이파리, 뽕나무 이파리 따다가.)
106002 @ 예.(예.)
106002 #1 그걸 썰엉은에, 그 저 누웨꼬치 누웨가 아주 작은 때는.(그걸 썰어서, 그 저 누에고치 누에가 아주 작은 때는.)
106002 @ 예.(예.)
106002 #1 칼로 얇게 썰엉은에 주고.(칼로 얇게 썰어서 주고.)
106002 @ 예.(예.)
106002 #1 커 가면은.(커 가면.)
106002 @ 예.(예.)
106002 #1 그대로 이파리 차 전부 주어도 그 다 먹주게.(그대로 이파리 째 전부 주어도 그 다 먹지.)
106002 @ 예, 예.(예, 예.)
106002 #1 겡헹은에 에, 누웨를 에, 저 어느 정도 크면은 줌잔덴 헤여.(그래서는 에, 누에를 에, 저 어느 정도 크면 잠잔다고 해.)

106002 @ 예.(예.)
106002 #1 흔 즘. 두 즘, 석 즘 헹은에 내중에 다 자라면은.(한 잠. 두 잠, 석 잠 해서 나중에 다 자라면.)
106002 @ 예.(예.)
106002 #1 요게 입으로 씰 헹은에 저 그.(요게 입으로 실 해서 저 그.)
106002 #2 거미줄ᄀᆞ찌 집을 지어.(거미줄같이 집을 지어.)
106002 #1 집 지엉은에 들어가젠 허주게.(집 지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106002 @ 예.(예.)
106002 #1 경허면은 여기에서는 새 비어당 놔뒁당은에 그걸 새를 요만씩 짤랑 그기에 꼬면서 새 그저 그 이파리를 이렇게 벌어지게시리 만들어. 그 누웨가 거기에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 잇도록히.(그러면 여기에서는 띠 베다가 놔뒀다가 그걸 띠를 요만큼씩 잘라서 거기에 꼬면서 띠 그저 그 이파리를 이렇게 벌어지게끔 만들어. 그 누에가 거기에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06002 @ 예.(예.)
106002 #1 그래서 집을 만들엉은에 놓면은 내중엔 그게 집을 만들어서 들어간 것이 고추주게. 고치.(그래서 집을 만들어서 놓으면 누중엔 그게 집을 만들어서 들어간 것이 고지지. 고치.)
106002 @ 예.(예.)
106002 #1 누웨꼬치.(누에고치.)
106002 @ 예.(예.)
106002 #1 누웨꼬치를 이젠 어떻게 허느냐면은 물에 놔서.(누에고치를 이젠 어떻게 하느냐면 물에 넣어서.)
106002 @ 예.(예.)
106002 #1 저 밑으로 불 때고, 따뜻하게 헤서 솟데 자그마한 솟데 헤서 누웨고치를 놔서 물에 적진 다음에.(저 밑으로 불 때고, 따뜻하게 해서 솥에 자그마한 솥에 해서 누에고치를 넣어서 물에 적신 다음에.)
106002 #2 졸바로 ᄀᆞᆯ아삽니다게. 화릿불에, 화덕 만들앙.(똑바로 말해야합니다. 화롯불에, 화덕 만들어서.)
106002 #1 아이 확, 내불라게. 부섭에 시난, 부섭에.(아이 확, 내버려라. 화로에 있으니까, 화로에.)
106002 #2 부섭이나 화리나 마찬가지. 경헹 놓앙, 조그만 냄빌 놓앙.(화로나나 화화로나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놓아서, 조그만 냄빌 놓아서.)
106002 @ 예.(예.)
106002 #2 물 놔근에 그레 불 땡 놔두민 물이 뜨뜻이 뀀 시작허민 누웨꼬칠 놩게.(물 넣어서 거기에 불 때어 놓아두면 물이 뜨뜻이 끓기 시작하면 누에고칠 넣어서는.)
106002 @ 예.(예.)
106002 #2 누웨꼬칠 놔민 그것이 저, 막뎅이로 심엉.(누에고치를 넣으면 그것이 저,

막대기로 잡아서.)
106002 @ 예.(예.)
106002 #2 나뭇가지 심어근에 빙빙빙 둘러가 가민 그디서 씨게 어떻게 헤서 씰이 나오라 나뭇가지에 걸어정 나오민.(나뭇가지 잡아서 빙빙빙 둘러 가면 거기서 세게 어떻게 해서 실이 나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오면.)
106002 @ 예.(예.)
106002 #2 그걸 ᄒᆞ나 뽑아근에 그 틀러레.(그걸 하나 뽑아서 그 틀에.)
106002 @ 예.(예.)
106002 #2 틀 허민 물레에다.(틀 하면 물레에다.)
106002 @ 틀이렌 헷수과, 클이렌 헷수과?(틀이라고 했습니까, '클'이라고 했습니까?)
106002 #2 그때 것ᄀᆞ라 무시거렌 ᄀᆞᆯ앗수과?(그때 그것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2 #1 클.('클'.)
106002 #2 클이렌 헷일 거라. 클 만들앙.('클'이라고 했을 거야. 틀 만들어.)
106002 @ 예.(예.)
106002 #2 나가 보난에 클 만들안에 여기 사진 이실 거라. 아까 거. 그 씰 뽑는 거. 요고, 요고.(내가 보니까 틀 만들어서 여기 사진 있을 거야. 아까 그거. 그 실 뽑는 거. 요거, 요거.)
106002 @ 예.(예.)
106002 #2 누에고치 씰 뽑는 틀이주게.(누에고치 실 뽑는 틀이지.)
106002 @ 예.(예.)
106002 #2 여기서, 여기서 영 허민.(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6002 @ 예.(예.)
106002 #2 빙빙빙빙 허게시리.((빙빙빙빙 하게끔.)
106002 #1 여기 헤근에 요기 젓 다른 솟듸서 헤근에.(여기 해서 요기 저 다른 솥에서 해서.)
106002 @ 예.(예.)
106002 #1 다른 저 어디 요기에 그 저 씰을 걸쳐져서 이렇게 나오겟ᄀᆞ롬.(다른 저 어디 요기에 그 저 실을 걸쳐져서 이렇게 나오게끔.)
106002 @ 예.(예.)
106002 #1 톡을 만들어. 겡헤가지고 요걸 돌려 가면은 저 물에서 나온 게 씰이 그대로 여기에 감아지주게.(턱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걸 돌려 가면 저 물에서 나온 것이 실이 그대로 여기에 감아지지.)
106002 @ 예.(예.)
106002 #1 감아, 경헹 씰을 뽑아내어.(감아, 그렇게 해서 실을 뽑아내.)
106003 @ 예. 어, 그다음에는예? 그 씰을 뽑잖아예? 그 뽑은 거는 이제 멩지, 그걸로 천을 만들면은 멩지렌 허잖아예?(예. 어, 그다음은요? 그 실을 뽑잖아요? 그 뽑은 거는 이제 명주, 그걸로 천을 만들면 명주라고 하잖아요?)

106003 #1 어.(어.)
106003 @ 그믄 멩지의 종류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이수과?(그러면 명주의 종류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03 #1 멩지 종류는 거 흔 가지주원, 멩지 ᄒᆞ나.(명주 종류는 그거 한 가지지원, 명주 하나.)
106003 #2 엿날에는 멩지 종루가 흔 가지벳긔 엇어.(옛날에는 명주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106003 @ 셍멩지니 뭐.(생명주니 뭐.)
106003 #1 아, 셍멩지엔 흔 건.
106003 @ 예.(예.)
106003 #1 그 저.(그 저.)
106003 #2 짜멍싸라 ᄀᆞ는 건 셍멩지.(짜면서 바로 까는 건 생명주.)
106003 @ 예.(예.)
106003 #2 짜멍싸라 그 풀 멕이멍 놀주게, 마당에서 영.(짜면서 바로 그 풀 먹이며 날지, 마당에서 이렇게.)
106003 @ 예.(예.)
106003 #2 씨** 헤영 놀아.(씨** 해서 날아.)
106003 @ 예.(예.)
106003 #2 그ᄀᆞ라 ᄇᆞ리는 걸 논덴 헤영.(그것보고 바래는 걸 난다고 해.)
106003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6003 #2 놀앙 붓으로 영 헹 칠허멍 다끄멍 그 거난 풀.(날아서 붓으로 이렇게 해서 칠하면서 닦으면서 그 그러니까 풀.)
106003 @ 예.(예.)
106003 #2 가시리풀, 요새 밀풀 헹은 안 뒈어.(불등풀가사리풀, 요새 밀가루풀 해서는 안 돼.
106003 @ 예.(예.)
106003 #2 가시리풀로 헤영 막 헤영 놀아근에 허영 감앙 허영 짠 거는.(불들풀가사리풀로 해서 마구 해서 날아서 해서 감아서 해서 짠 거는.)
106003 @ 예.(예.)
106003 #2 셍멩지.(생명주.)
106003 @ 셍멩지.(생명주.)
106003 #2 요새 저 멩지는 그 저 양잿물 놔근에 솖아불민 모랑허게 쎈 거.(요새 저 명주는 그 저 양잿물 넣어서 삶아버리면 말랑하게 센 거.)
106003 @ 그걸 뭐렌 골읍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106003 #2 것ᄀᆞ라 눤 멩지[168].(그것보고 누인 명주.)
106003 @ 눤 멩지예?(누인 명주요?)

168) '눤 멩지'는 양잿물에 삶은 명주를 말한다. '눤'은 기본형이 '눼다'인데 표준어 '누이다'에 대응한다.

106003 #2 응. 그자는 셍멩지가 뒈주게.(응. 그저는 생명주가 되지.)
106004 @ 그다음, 멩지로는 주로 어떤 옷을 만들엇수과?(그다음, 명주로는 주로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04 #2 멩지로는 그 시철에는 옷 만드난에 그자.(명주로는 그 시절에는 옷 만드니까 그저.)
106004 #1 멩지로는 바지저고리.(명주로는 바지저고리.)
106004 @ 예.(예.)
106004 #1 또 두루마기.(또 두루마기.)
106004 @ 예.(예.)
106004 #1 또 다른 이 제례복, 그런 것도 만들아서.(또 다른 이 예복, 그런 것도 만들었어.)
106004 #2 치메저고리도 허곡, 요새 어떵허민 저 그 죽음이 옷덜.(치마저고리도 하고, 요새 어떠냐면 저 그 수의들.)
106004 @ 예, 예.(예, 예.)
106004 #2 그런 것덜 다 그런 멩지로 멘들아. 육지 사름은 베로 헌덴 헤도.(그런 것들 다 그런 명주로 만들어. 육지 사람은 배로 한다고 해도.)
106004 @ 예.(예.)
106004 #2 이 제주도 사람은 다 엿날 멩지로.(이 제주도 사람은 다 옛날 명주로.)
106004 @ 멩지로예.(명주로요.)
106004 #2 경헌디 요새 이 젓, 멩질 때 입는 옷덜 멩지 사당 허는 사름덜 보민 생멩지.(그런데 요새 이 저, 명질 때 입는 옷들 명지 사다가 하는 사람들 보면 생명주.)
106004 @ 예.(예.)
106004 #2 팔월에 입는 건 셍멩지로 허곡.(팔월에 입는 건 생명주로 하고.)
106004 @ 예.(예.)
106004 #2 베ᄀᆞ찌 ᄉᆞ락헌[169] ***지 셍멩지로. 또 경아녕 기자 치메 저고리 만드는 거는 양잿물에 헹 숢아근에 뉀 멩지로 경 만들앙 입곡.(배처럼 '스락한' ***지 생명주로. 또 그렇지 않고 그저 치마저고리 만드는 거는 양잿물에 해서 삶아서 누인 명주로 그렇게 만들어 입고.)
106004 @ 뉀 멩지꽈 넨 멩지꽈?('뉀' 멩지입니까, '넨' 명주입니까?)
106004 #2 눼엇다는 거주.(누였다는 거지.)
106004 @ 아, 뉀 멩지.(아, 누인 명주.)
106004 #2 어. 뉀 멩지. 양잿물에서 뉀 거. 숢은 거.(어. 누인 명주. 양잿물에 누인 거. 삶은 거.)
106004 @ 예.(예.)

무명

169) 'ᄉᆞ락ᄒᆞ다'는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을 말한다.

106007 @ 그다음은예. 미녕에 들어가쿠다예?(그다음은요? 무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06007 #1 어.(어.)
106007 @ 미녕에는 종류가 어떤 게 이수과?(무명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106007 #1 미녕은 우리 집이선 저.(무명은 우리 집에선 저.)
106007 #2 혼 가지벳긔 더 헷수과?(한 가지밖에 더 했습니까?)
106007 #1 우리 집이선 두 가지 헷어. ᄒᆞ나는 기자 하얀 목화로 헌 저 거시기 미녕이고.(우리 집에선 두 가지 했어. 하나는 그저 하얀 목화로 한 저 거시기 무명이고.)
106007 @ 예.(예.)
106007 #1 ᄒᆞ나는 골미녕[170]이엔 헤영은에.(하나는 '골미녕'이라고 해서.)
106007 @ 예.(예.)
106007 #1 노란면화가 이서서.(노란면화가 있었어.)
106007 @ 예.(예.)
106007 #1 우리 집이.(우리 집에.)
106007 @ 예.(예.)
106007 #1 노란면화를 헤가지고.(노란면화를 해가지고.)
106007 @ 예.(예.)
106007 #1 그걸 노란면화허고 흰면화허고 씰을 뚜두뚜루 빼어서.(그걸 노란면화하고 흰면화하고 실을 따로따로 빼서.)
106007 @ 예.(예.)
106007 #1 그걸 사이사이에 끼어서 만든 게 골미녕.(그걸 사이사이에 끼어서 만든 게 '골미녕'.)
106007 @ 골미녕, 아아 골미녕마씨?('골미녕', 아아 '골미녕'요?)
106007 #1 어. 골 잇게시리 만든 거.(어. 골 있게끔 만든 거.)
106007 @ 예.(예.)
106007 #1 거 두 가지벳긴 엇엇어, 미녕은.(거 두 가지밖엔 없었어, 무명은.)
106007 #2 미녕은 두 가지벳긘 엇주. 골미녕 허곡 그냥 미녕허고.(무명은 두 가지밖에 없지. '골미녕' 하고 그냥 무명하고.)
106008 @ 미녕으론 어떤 옷을 만들앗수과?(무명으론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08 #1 에, 바지저고리도 뭣도 허고.(에, 바지저고리도 뭣도 하고.)
106008 #2 갈옷(갈옷.)
106008 #1 또 갈옷[171]도 만들고. 또 이 치마.(또 '갈옷'도 만들고. 또 이 치마.)
106008 @ 바지저고리나 치마나 갈옷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이라예?(바지저고리나 치마나 '갈옷'은 지금 사용하는 말들이잖아요?)
106008 #1,2 어.(어.)

170) '골미녕'은 흰목화실과 노란목화실을 사이사이 섞어서 짠 무명천을 말한다.
171) '갈옷'은 감물을 들인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달리 '감옷'이라고도 한다.

106008 @ 옛날엔.(옛날엔.)
106008 1,2 옛날도 갈옷.(옛날도 '갈옷'.)
106008 #2 어, 감옷. 노동복 허젠허민 다른 물이 엇이난에.(어, '감옷'. 노동복 하려하면 다른 물감이 없으니까.)
106008 @ 음.(음.)
106008 #2 감 들여근에 감옷으로 입언.(감물 들여서 '감옷'으로 입었어.)
106008 #1 갈옷보다 더 좋은 게 엇어.('갈옷'보다 더 좋은 게 없어.)
106008 @ 갈옷이렌 헷수과, 감옷이렌 헷수과?('갈옷'이렌 했습니까, '감옷'이라고 했습니까?)
106008 #2 감옷.('감옷')
106008 #1 갈옷.('갈옷'.)
106008 #2 갈옷이렌 안 헷수다게. 감옷이렌 헷수다게.('갈옷'이렌 안 했습니다. '감옷'이라고 했습니다.)
106008 #1 갈옷이렌 헤서, 우린.('갈옷'이라고 했어, 우린.)
106008 @ 옛날엔 바지저고리도 바지렌 골앗수과?(옛날엔 바지저고리도 바지라고 말했습니까?)
106008 #1 어, 바지. 바지저고리.(어, 바지. 바지저고리.)
106008 #2 어, 바지. 바지저고리(어, 바지. 바지저고리)
106008 #1 치메.(치마.)
106008 @ 그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헤주신 골미녕 말고.(그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해주신 '골미녕' 말고.)
106008 #1 어.(어.)
106008 @ 노란 미녕이 혹시 토목이꽈? 토목은 뭐꽈? 토목. 미녕 종류엔 토목이 잇고 생목이 잇고 광목이 잇고예?(노란 무명이 혹시 토목입니까? 토목은 뭡니까? 토목. 무명 종류엔 토목이 있고 생목이 있고 광목이 있고요?)
106008 #2 아, 광목은 일본에서 나온 거.(아, 광목은 일본에서 나온 거야.)
106008 @ 여기선 안 만들앗수과?(여기선 안 만들었습니까?)
106008 #2 안 만들앗어.(만 만들었어.)
106008 #1 광목은 이디서 만들지 못허고.(광목은 여기서 만들지 못하고.)
106008 @ 예.(예.)
106008 #1 집이서 만드는 건 미녕이고.(집에서 만드는 건 무명이고.)
106009 #2 미녕 중에 ᄒᆞ썰 들들헌 걸 거라게. ᄒᆞ꼼 두텁게 짠 거.(무명 중에 조금 들들한 걸 거야. 조금 두텁게 짠 거.)
106009 #1 토목이엔 헌 건 젓, 거시기 그 씰이 홀근 걸로 짠 거.(토목이라고 한 건 저, 거시기 그 실이 굵은 걸로 짠 거.)
106009 @ 아, 그렇구나예.(아, 그렇군요.)
106009 #2 거, 거시기 솜도 초불 것에 거 탄 거는 곱고.(거, 거시기 솜도 초벌 것에

그 탄 그거는 곱고.)
106009 @ 예.(예.)
106009 #2 막물에 가믄 조금 엉기고 궂어게.(막물에 가면 조금 엉기고 궂어.)
106009 @ 목화가.(목화가.)
106009 #2 꽃도 목화도.(꽃도 목화도.)
106009 @ 기구나예.(그렇군요.)
106009 #2 경허난 그걸로 ᄒᆞ쏠 궂게 한 건 일헐 때 입젠 엉기게 시리 기냥 짠 거는 긋ᄀᆞ라 토미녕이엔.(그러니까 그걸로 조금 궂게 한 건 일할 때 입으려고 엉기게 그냥 짠 거는 그것보고 토목이라고.)
106010 @ 토미녕이엔, 음. 게믄 광목은 사당 썻수과?(토목이라고, 음. 그러면 광목은 사다가 썼습니까?)
106010 #1 광목은 건 기계로 헤서 기계로 제작 헌 거.(광목은 그건 기계로 해서 기계로 제작 한 거.)
106010 #2 광목은 엿날이 이디 엇엇어. 웨정 시대.(광목은 옛날에 여기 없었어. 일제 강점기 때.)
106010 @ 게민예? 홍세미녕은 뭐꽈? 홍세미녕.(그러면요? '홍세미녕'은 뭡니까? '홍세미녕'.)
106010 #2 아, 그건 결혼할 때예.(아, 그건 결혼할 때.)
106010 #1 홍세[172]렌 헌 건 결혼헐 때에 그 미녕을 저 그 뭐냐.('홍세'라고 한 건 결혼할 때에 그 무명을 저 그 뭐야.)
106010 #2 두 필 놓주게. 여장 썽 놓는 이런 박스에, 경헤근에 홍세엔 헤근에 미녕을 놓아.(두 필 놓지. 예장 써서 넣는 이런 상자에, 그렇게 해서 '홍세'라고 해서 무명을 넣어.)
106010 @ 미녕은 그냥 집에서 짠 그냥 하얀 미녕마씨?(무명은 그냥 집에서 짠 그 하얀 무명이요?)
106010 #1 어, 어. 그 미녕.(어, 어. 그 무명.)
106010 #2 하얀 미녕. 요새는 미녕 엇이난 멩지로 놓고.(하얀 무명. 요새는 무명 없으니까 명주로 넣고.)
106010 #1 결혼헐 때 쓰는 미녕이 홍세미녕[173]이주.(결혼할 때 쓰는 무명이 '홍세미녕'이지.)
106011 @ 맞수다. 그믄예, 목화?(맞습니다. 그러면요, 목화?)
106011 #1 응.(응.)
106011 @ 목화는 뭐렌 골앗수과?(목화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11 #2,1 멘네.('멘네'.)
106011 @ 멘네는 씨는 어디서 구헤시며 어떵 갈앙 어떤 식으로 경작헷수과?(면화는

172) '홍세'는 '홍세함'을 말하는데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을 말한다.
173)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을 말한다.

씨는 어디서 구했으며 어떻게 갈아서 어떤 식으로 경작했습니까?)
106011 #1 아, 멘네는 흔 번 저 거시기 그땐 집집마다, 우리 집엔 언제나 그 씨로 그대로 이용헷어.(아, 면화는 한 번 저 거시기 그땐 집집마다, 우리 집엔 언제나 그 씨로 그대로 이용했어.)
106011 #2 게난 어디로 주문해온 건지 우린 모르고.(그러니 어디로 주문해온 건지 우린 모르고.)
106011 @ 받아놧다근에 그대로 헷구나예?(받아놓았다가 그대로 했군요?)
106011 #2 응.(응.)
106011 @ 음.(음.)
106011 #1 우리 집에서 그것 저 멘네 재배허면은, 재배허면은 가을에 그것 따지 아네여?(우리 집에서 그것 저 면화 재배하면, 재배하면 가을에 그것 따지 않아?)
106011 @ 예.(예.)
106011 #1 멘네를 따면은.(면화를 따면.)
106011 @ 예.(예.)
106011 #1 따당은에 집에서 씨 갈르는.(따다가 집에서 씨 가르는.)
106011 #2 기계가 이서. 나무로.(기계가 있어. 나무로.)
106011 #1 물레가 이서.(물레가 있어.)
106011 @ 그걸 뭐렌 골앗수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11 #1 씨 갈르는 그 저 씨앗.(씨 가르는 그 저 씨앗.)
106011 @ 씨아마씨? 씨아?(씨아요? 씨아?)
106011 #1 아이고, 씨 무시거 물레엔 허는디.(아이고, 씨 무슨 물레라고 하는데.)
106011 #2 씨 갈르는 물레가 이서서. 납작헌 나무로 뭰 거.(씨 가르는 물레가 있었어. 납작한 나무로 된 거.)
106011 #1 씨 갈르는 물레가 이서. 삑삑 소리 나메.(씨 가르는 물레가 있어. 삑삑 소리 나지.)
106011 #2 씨 갈르는 그것도 영 물리민 씨만 똑똑 허게시리 이렇게 돌려근에.(씨 가르는 그것도 이렇게 물리면 씨만 똑똑 하게끔 이렇게 돌려서.)
106011 #1 나무가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가면은 그 사이로 밀리면은.(나무가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가면 그 사이로 밀리면.)
106011 #2 씨만 털어지고 솜만 나오주게.(씨만 떨어지고 솜만 나오지.)
106011 #1 씨만 떨어지고 이쪽으로는 멘네만 나오주게.(씨만 떨어지고 이쪽으로는 면화만 나오지.)
106011 @ 게, 그 기구 이름은?(그래, 그 기구 이름은?)
106011 #1 씨앗? 씨틀? 씨, 아이고, 씨 무시거엔 골앗는디. 허허허 이제 잊어부릿져.(씨앗? 씨틀? 씨, 아이고, 씨 뭐라고 말했는데. 허허허 이제 잊어버렸네.)
106011 @ 기구나예.(그렇군요.)
106011 #2 씨 갈르는 거.(씨 가르는 거.)

106011 #1 어. 씨 갈르는 거엔 허주.(어, 씨 가르는 거라고 하지.)
106011 @ 음.(음.)

모시

106012 @ 모시는 안 만들어나부난 모르고예?(모시는 안 만들어 버리니까 모르고요?)
106012 #1 으.(그래.)

삼

106016 @ 베 잇잖아예?(베 있잖아요?)
106016 #1 어.(어.)
106016 @ 삼에 데헤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엇인지 골아줍서.(삼에 대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말해주십시오.)
106016 #1 삼은 집에서 재배헤영.(삼은 집에서 재배해서.)
106016 @ 예.(예.)
106016 #1 재배헤영은에 그걸 또 삼 껍질을 벳겨이.(재배해서 그걸 또 삼 껍질을 벗겨.)
106016 @ 예.(예.)
106016 #1 껍질 벳경은에.
106016 #2 젯물에 숢곡 양젯물에 듬갓당.(잿물에 삶고 양잿물에 담갔다가.)
106016 #1 그걸 또 젯물에 숢아.(그걸 또 잿물에 삶아.)
106016 @ 예.(예.)
106016 #1 젯물이엥 ᄒᆞ면은 나무나 저 이런 거.(잿물이라고 하면 나무나 저 이런 그.)
106016 #2 모물찍 ᄉᆞ라낫수게 그때도.(메밀짚 태워났지요 그때도.)
106016 #1 모물찍이나.
106016 @ 예.(예.)
106016 #1 그렛지 아녀면 다른 저.(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
106016 #2 불 껑은 안뒈여.(불 꺼서는 안되.)
106016 #1 거시기 나무 제.(거시기 나무 재.)
106016 #2 좋은 걸로만 제도.(좋은 걸로만 재도.)
106016 @ 예.(예.)
106016 #1 술아난 그 제를 가지고 그걸 물에 놩, 그 물에 그 삼을 숢는 거라.(살랐던 그 재를 가지고 그걸 물에 넣어, 그 물에 그 삼을 삶는 거야.)
106016 #2 게난 그 숢으는 제가 모물체라.(그러니까 그 삶는 재가 메밀겉겨야.)
106016 @ 모물체.(메밀겉겨.)
106016 #2 으, 메밀 메밀체, 껍데기.(응, 메밀 메밀겉겨, 껍데기.)

106016 @ 모믈체 껍데기 술아근에.(메밀겉겨 껍데기 살라서.)
106016 #2 으, 그거 그거. 대중은 그거 숣아. 그걸 헤근에 부섭에 헤근에 계속 불을. 엿날에 하각도 엇곡 허난에 그 부섭에 헤근에 헤영 그거 놘에 허민, 붉두룩도 불이 그대로 잇주게.(응, 그거 그거. 대체로 그거 삶아. 그걸 해서 화로에 해서 계속 불을. 옛날에 성냥도 없고 하니까 그 화로에 해서 해서 그거 넣어서 하면, 밝도록 불이 그대로 있지.)
106016 @ 아, 예.(아, 예.)
106016 #2 경허민 그 제가 너믜 높아게가민 ᄐᆞ루 헹 낫당.(그러면 그 재가 너무 쌓여져 가면 따로 해서 놔뒀다가.)
106016 @ 예.(예.)
106016 #2 고옵게시리 헤낫당 물에 놓아근에 그레 듬과, 숣앙.(곱게 해놓았다가 물에 넣어서 거기에 담가, 삶아서.)
106016 #1 그 제가 좋주.(그 재가 좋지.)
106016 #2 다른 거는 안 뒈.(다른 거는 안 돼.)
106016 @ 옛날에는 그 제를 제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에는 그 재를 재라고 말했습니까?)
106016 #2 겡헤근에 그 물ᄀᆞ라 젯물, 젯물.(그렇게 해서 그 물보고 잿물, 잿물.)
106016 @ 젯물, 젯물.(잿물, 잿물.)
106016 #1 응, 젯물에 숣넨 허주. 젯물에 숣아은에.(응, 잿물에 삶는다고 하지. 잿물에 삶아서.)
106016 @ 예.(예.)
106016 #1 젯물에 숣앙.(잿물에 삶아서.)
106016 @ 예.(예.)
106016 #1 그다음에 숣은 다음에는 어떻게 허느냐면은 저, 에, 베 칼로.(그다음에 삶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 에, 베 칼로.)
106016 @ 예.(예.)
106016 #1 베 칼로 이거 저 뭐 헤근에 짝짝 긁어.(베 칼로 이거 저 뭐 해서 짝짝 긁어.)
106016 #2 내창에, 줄바로 ᄀᆞᆯ아 줘삽니다게. 내에 강, 그 강 믄 젯물을 뿔아.(냇가에, 똑바로 말해 줘야합니다. 내에 가서, 거기 가서 모두 잿물을 빨아.)
106016 @ 예.(예.)
106016 #1 아, 게메, 그걸랑 내불곡.(아, 그러게, 그걸랑 내버리고.)
106016 #2 물에 믄 뿔앙, 뿔앙 가져왕, 가져오라근에 그걸 따시 저, 나무산지 무시거 놔근에, 나무통 놔근에 나무칼로 이렇게 만들앙 짝 짝 *** 껍데기 벳기는 거.(물에 모두 빨아서, 빨아서 가져와서, 가져와서는 그걸 다시 저, 나무인지 무엇 놓아서, 나무통 놓아서 나무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짝 짝 *** 껍데기 벗기는 거.)
106016 @ 예.(예.)
106016 #2 껍데기 짝짝 허게시리 벳겨근에 벳 바싹 걸엉 ᄒᆞᆫ 두어 번쯤은 서너 번 숣

아내사 그것이 고와.(껍데기 짝짝 하게끔 벗겨서 볕 바싹 걸어서 한 두어 번쯤은 서너 번 삶아내야 그것이 고와.)
106016 @ 예.(예.)
106016 #2 서너 불 솖아네근에 그것이 고민 그땐 그것을 씰을 만들젠 ᄒᆞ민 나무통 이렇게 놓곡, 이 저 나무판대기 닮은 걸로 바짝 밀멍 그 껍데길.(서너 벌 삶아내서 그것이 고우면 그땐 그것을 실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통 이렇게 놓고, 이 저 나무판대기 닮은 걸로 바짝 밀면서 그 껍데길.)
106016 @ 예.(예.)
106016 #2 문딱 벳겨놩 널엇당 물류미는 그때는 이제 씰을 할마님들이 아자둠서 영 무릅에 놔서 ᄒᆞ나썩 아스멍 찌지멍 다 영영 갈라 다 이렇게 놔근에 짝짝 보비멍 씰을 뽑아네여.(모두 벗겨놓고 널었다가 마르면 그때는 이제 실을 할머님들이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무릎에 놓아서 하나씩 가지면서 찢으면서 다 이렇게이렇게 갈라 다 이렇게 놓아서 짝짝 비비면서 실을 뽑아내.)
106016 #1 다시 ᄀᆞᆯ으민이.(다시 말하면.)
106016 @ 예.(예.)
106016 #1 젯물에 솖을 거 아냐?(잿물에 삶을 거 아냐?)
106016 @ 예.(예.)
106016 #1 게 솖으민, 그걸 널리 저 물에, 큰물에 강은에.(그게 삶으면, 그걸 널리 저 물에, 큰물에 가서.)
106016 @ 예.(예.)
106016 #1 막 뿔아당.(마구 빨아다가.)
106016 @ 예.(예.)
106016 #1 파싹 물류와.(바짝 말려.)
106016 @ 예.(예.)
106016 #1 물륜 다음에는 이거 하나 하나 그 저 삼헤서 이렇게 가죽 벳긴 거니까.(말린 다음에는 이거 하나 하나 그 저 삼해서 이렇게 가죽 벗긴 거니까.)
106016 @ 예.(예.)
106016 #1 만히, 요만이 ᄒᆞᆫ 거 길쭉ᄒᆞᆫ 거 아니라.(많이, 요만 한 거 길쭉한 거 아니라.)
106016 @ 예.(예.)
106016 #1 길어야 ᄒᆞᆫ 발이주게.(길어야 한 발이지.)
106016 @ 예.(예.)
106016 #1 젤 긴 게 ᄒᆞᆫ 발이고, 겡아닌 건 ᄍᆞᆲ은 건디. 그걸 이젠 이 나무돔베.(젤 긴 게 한 발이고, 그렇지 않은 건 짧은 건데. 그걸 이젠 이 나무도마.)
106016 @ 예.(예.)
106016 #1 돔베 놩은에 그 우에서 이제 그.(도마 놓아서 그 위에서 이제 그.)
106016 #2 나무, 남칼이엔 헤근에 나무칼.(나무, 나무칼이라고 해서, 나무칼.)

106016 #1 쉐칼이라도.(쇠칼이라도.)
106016 #2 끈어지지 않으게시리 헤영.(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106016 #1 끈어지지 않는 이제 놀이 나지 아녕 끈어지지 않게시리 헹은에.(끊어지지 않는 이제 날이 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106016 @ 예.(예.)
106016 #1 이걸로 삼을 전부 껍질을 벳기는 거라. ᄒᆞ나ᄒᆞ나.(이걸로 삼을 전부 껍질을 벗기는 거라. 하나하나.)
106016 @ 음.(음.)
106016 #1 전부 벳겨. 다 벳긴 다음에는 그것이 요만이 넓을 거 아니?(전부 벗겨. 다 벗긴 다음에는 그것이 요만큼 넓을 거 아니?)
106016 @ 예.(예.)
106016 #1 거죽이?(껍질이?)
106016 @ 예.(예.)
106016 #1 그걸 이젠 가늘게 다 찢어.
106016 @ 찌지멍, 예.(찢으면서, 예.)
106016 #1 찌저놩은에 그 찌진걸 가지고 ᄒᆞ나ᄒᆞ나 이젠 끗으로.(찢어놓아서 그 찢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젠 끝으로.)
106016 #1 이빨로 찌지멍.(이로 찢으면서.)
106016 #1 끗으로 이렇게 헤가지고 두 가달로 요롱게 만들아서 그 하나를 이제 그 사이에 놓고 요 무릅에서 이렇게 비비는 거여.(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닥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를 이제 그 사이에 놓고 요 무릎에서 이렇게 비비는 거야.)
106016 @ 예.(예.)
106016 #1 게, 잇는 거지 잇는 거.(그래, 잇는 거지 잇는 거.)
106016 @ 예.(예.)
106016 #1 그래서 이으면서 요롱게 허는 게 삼 삼는 거주.(그래서 이으면서 요렇게 하는 게 삼 삼는 거지.)
106016 @ 예.(예.)
106016 #1 삼는다고 헤여. 삼 삼아 놩은에 요롱게 삼아 논 다음에는 저, 길게 젓 그 거리가 베를 이제 그 씰을 놀아.(삼는다고 해. 삼 삼아 놓아서 요렇게 삼아 놓은 다음에는 저, 길게 저 그 거리가 베를 이제 그 실을 날아.)
106016 @ 예.(예.)
106016 #1 논덴 허는디, 아까.(난다고 하는데, 아까.)
106016 #2 ᄒᆞᆫ 필 지럭시주, 베 ᄒᆞᆫ 필 지럭시. 마당에 놩.(한 필 길이지, 베 한 필 길이. 마당에 놓아..)
106016 @ 예.(예.)
106016 #1 이와 같이 헤영. 이와 같이 헹은에 씰을 ᄋᆞ라 개 이렇게 헤놩, 요롱게 헤서 한쪽에 감으면서 풀칠헤여.(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해서는 실을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서 한쪽에 감으면서 풀칠해.)
106016 @ 혼 사름이마씨? 아니면?(한 사람이요? 아니면?)
106016 #1 아니, 혼 사름이 안 뒈여. 두 사름이 헤야주. 두 사름이 허는디, 이걸 여러 날 걸려.(아니, 한 사람이 안 되어. 두 사람이 해야지. 두 사람이 하는데, 이걸 여러 날 걸려.)
106016 @ 예.(예.)
106016 #1 이걸 웨 그 풀칠허느냐면은 요롷게 헤서 꼬아 놧잖아.(이걸 왜 그 풀칠하느냐면 요렇게 해서 꼬아 놓았잖아.)
106016 @ 예.(예.)
106016 #1 꼬아놓니까 거꾸로 헤버리면은.(꼬아놓으니까 거꾸로 해버리면.)
106016 @ 예.(예.)
106016 #1 이거 벳겨저버려.(이게 벗겨져버려.)
106016 @ 예.(예.)
106016 #1 게니까 놀 때도 꼭 저쪽에서 영 ᄒᆞ면은 이렇게만 가도록히 그 뭐 헌 것이 꼭 요롷게 가도록히 잡고 요롷게 이어야주게.(그러니까 날 때도 꼭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가도록 그 뭐 한 것이 꼭 요렇게 가도록 잡고 요렇게 이어야지.)
106016 @ 예.(예.)
106016 #1 그렇게 헤서 요롷게 헤영 풀 멕영 놀아 놩.(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풀 먹여서 날아 놓아.)
106016 @ 예.(예.)
106016 #1 그다음 베틀에 올령 짜는 거.(그다음 베틀에 올려서 짜는 거.)
106016 @ 천으로 나오게시리예? 경헷구나예.(천으로 나오게요? 그랬군요.)
106016 #1 응.(응.)
106016 @ 그다음엔예, 아까 그 칙베에 대헹 골아줍서, 칙베.(그다음은요, 아까 그 칡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칡베.)
106016 #1 칙베도 그와 ᄀᆞ치 허는디.(칡베도 그와 같이 하는데.)
106016 @ 예, 건 칙으로 허는 거마씸?(예, 건 칡으로 하는 건가요?)
106016 #1 어, 칙으로 끅.(어, 칡으로 칡.)
106016 @ 끅으로.(칡으로.)
106016 #1 응, 끅 헤당은에 솖앙.(응, 칡 해다가 삶아서.)
106016 @ 예.(예.)
106016 #1 솖앙, 그거 거죽 벳경.(삶아서, 그거 껍질 벗겨서.)
106016 @ 예.(예.)
106016 #1 거죽 벳경은에 그거 아까 삼 모냥으로 이거 거죽도 긁어.(껍질 벗겨서 그거 아까 삼 모양으로 이거 껍질도 긁어.)
106017 @ 게믄 아까 베로는 뭐헹 입고, 칙베로는 뭐헹 입엇수과?(그러면 아까 베로는 뭐해서 입고, 칡베로는 뭐해서 입었습니까?)

106017 #2 저, 베로는 곱게시리 ᄒᆞ민 곤 옷으로 만들아근에 중의적삼으로 치멧저구리 적삼 ᄀᆞ뜬 거, 여름에 옷 만들앙 입고.(저, 베로는 곱게 하면 고운 옷으로 만들어서 중의적삼으로 치마저고리 적삼 같은 거, 여름에 옷 만들어서 입고.)
106017 @ 예.(예.)
106017 #2 또 경 아녀민 훅게시리 짠 것들은.(또 그렇게 않으면 굵게 짠 것들은.)
106017 @ 예.(예.)
106017 #2 여름에 기자 기자 의복으로 만들앗주.(여름에 그저 그저 의복으로 만들었지.)
106017 #1 미녕 나기 저 베 나기, 삼베 나기 시작헨에 칙베는 없어저불고.(무명 나기 저 베 나기, 삼베 나기 시작해서 칡베는 없어져버리고.)
106017 @ 없어저불고예?(없어져버리고요?)
106017 #1 삼베 나오기 전에 칙으로 헤서 베를 짜서 사람이 입엇고.(삼베 나오기 전에 칡으로 해서 베를 짜서 사람이 입었고.)
106017 @ 칙베로 한 옷도 아까 중의적삼으로 입엇수과?(칡베로 한 옷도 아까 중의적삼으로 입었습니까?)
106017 #1 어, 어. 그렇게 헤서.(어, 어. 그렇게 했어.)
106017 @ 입어낫수과?(입었었어요?)
106017 #1 어, 그때 다른 옷이 없어.(어, 그때 다른 옷이 없어.)
106017 #2 어, 어어. 꺼멍. 옷이 얼룽얼룽얼룽얼룽 허여, 칙베는.(어, 어어. 까매. 옷이 얼룩얼룩얼룩얼룩 해, 칡베는.)
106017 #1 그게 깨끗지 못허주게.(그게 깨끗하지 못하지.)
106017 @ 원례 칙은 검은 거난예?(원례 칡은 검은 거니까요?)
106017 #1 어, 좀 붉으수루, 좀 검붉어, 검붉어.(어, 좀 불그스레, 좀 검붉어, 검붉어.)
106017 #2 쩜쩜쩜[174]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175] 뒈어.('쩜쩜쩜' 짠 것도 '쩜쩜쩜쩜' '까물까물까물' 되어.)
106017 @ 아.(아.)
106017 #2 나도 그런 것 입어보지는 아넷는디 말만 들언에.(나도 그런 것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말만 들어서.)
106018 @ 게믄 이젠 삼, 베를 짜젠허민 삼이 이서야 뭴 거 아니꽈예? 삼은 어떵 제배헷수과?(그러면 이젠 삼, 베를 짜려하면 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은 어떻게 재배했습니까?)
106018 #1 삼은 이 젓 밧데 씨 뿌령은에.(삼은 이 저 밭에 씨 뿌려서.)
106018 @ 예.(예.)
106018 #1 뭐ᄒᆞ면은 그 삼 나면 커, 그대로.(뭐하면 그 삼 나면 커, 그대로.)
106018 @ 컹예?(커서요?)

174) '쩜쩜쩜'은 색이 선명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175) '까물까물까물'은 색이 선명하지 않아 얼룩이 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106018 #1 커미는 흔 질쯤 크주게. 흔 질쯤 크미는 봄 뒈면은.(크면 한 길쯤 크지. 한 길쯤 크면 봄 되면.)
106018 #2 시방 시방도 제초제 헤부난이주, 삼이 막 하나서. 밧데 마다.(시방 시방도 제초제 해버리니까, 삼이 막 많았어. 밭에 마다.)
106018 @ 음.(음.)
106018 #2 흔 질썩 헤여, 흔 질썩.(한 길씩 해, 한 길씩.)
106018 @ 음.(음.)
106018 #1 젓, 삼이엔 허는 게 이제야보니까 그 대마.(저, 삼이라고 하는 게 이제야보니까 그 대마.)
106018 @ 그니깐예, 대마.(그러니까요, 대마.)
106018 #1 대마가 삼이라.(대마가 삼이라.)
106018 @ 옛날 어른덜은 이 삼으로 헤가지고 담베 피우거나 경 안 헤낫수과?(옛날 어른들은 이 삼으로 해가지고 담배 피우거나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106018 #1 아, 그 걸룬 담베 안 피와낫어.(아, 그 걸로는 담배 안 피웠었어.)
106018 @ 음.(음.)
106018 #1 겐디, 그 삼 껍질 벳긴 거.(그런데, 그 삼 껍질 벗긴 거.)
106018 @ 예.(예.)
106018 #1 낭댕이 잇잖에.(줄기 있잖아.)
106018 @ 예, 예.(예, 예.)
106018 #1 그걸로 불부찌면은.(그걸로 불붙이면.)
106018 @ 예.(예.)
106018 #1 하루 종일 요고 다 부뜰 때ᄁᆞ지 처음부터 부떠.(하루 종일 요거 다 붙을 때까지 처음부터 붙어.)
106018 #2 끄지 아녕, 끄지 아녕.(꺼지지 않아, 꺼지지 않아.)
106018 #1 그래서 그 불찍으로 대신 이용ᄒᆞ메.(그래서 그 부싯깃으로 대신 이용하지.)
106018 @ 아, 아.(아, 아.)
106018 #2 그 시절에 하각이 엇인 때난.(그 시절에 성냥이 없을 때여서.)
106018 @ 맞수다예.(맞습니다.)
106018 #1 거, 들에 갈 때, 저 그거 톡ᄒᆞ게 불부쩌근에 가정가주게.(거, 들에 갈 때, 저 그거 톡하게 불붙여서 가져가지.)
106018 @ 예.(예.)
106018 #1 가정가면은 그 불이 하르버지덜 담베도 피우고.(가져가면 그 불에 할아버지들 담배도 피우고.)
106018 @ 아, 예.(아, 예.)
106018 #1 경허다근에 요고 비나 오라근에 뭐 헴직 허면은 어떤 걸 허면은 저, 억새 잇잖에이.(그러다가 요거 비나 와서 뭐함직 하면 어떤 걸 하냐면 저, 억새 있잖아.)
106018 @ 예, 예.(예, 예.)

106018 #1 억새 뻬이.(억새 삘기.)
106018 @ 예.(예.)
106018 #1 억새 뻬이 빼면은 억새꽂 잇잖녀.(억새 삘기 뽑으면 억새꽃 있잖아.)
106018 @ 옛날엔 억새렌 안헷지예?(옛날엔 억새라고 안 했지요?)
106018 #1 어, 어웍 어웍. 어웍 뻬이.(어, 억새 억새. 억새 삘기.)
106018 @ 예.(예.)
106018 #1 어웍 뻬이로 헤근에.(억새 삘기로 해서.)
106018 @ 미우젱이마씨?(억새꽃이요?)
106018 #2 미뿌쟁이 뽑아근에.(억새꽃 뽑아서.)
106018 #1 미뿌쟁이, 미뿌쟁이로 요만이 굵게시리 쭉 허게 길게 헤여. 그것ᄀᆞ라 화심이엔 허메.(억새꽃, 억새꽃으로 요만큼 굵게 쭉 하게 길게 해. 그것보고 화승이라고 해.)
106018 @ 맞수다예.(맞습니다.)
106018 #1 게, 그걸 불부쩡은에 칙으로 헹 감앙 ᄒᆞ면은 저 비가 와도 ᄀᆞ만이 이렇게 거꾸로 들어 헤불미는 비 맞아도 불 안 꺼져.(그래, 그걸 불붙여서 칡으로 해서 감아서 하면 저 비가 와도 가만히 이렇게 거꾸로 들어 해버리면 비 맞아도 불 안 꺼져.)
106018 #2 안 꺼져.(안 꺼져.)
106018 @ 불 안 꺼정예?(불 안 꺼져서요?)

도구

106019 @ 그 아까 이제 삼까지는 다 허고예.(그 아까 이제 삼까지는 다 하고요.)
106019 #2 응.(응.)
106019 @ 그 삼이니, 미녕이니, 이제 어 뭐꽈 그거. 멩지니 허젠허면 아까 그 베틀이니 뭐 클이니 이런 거 필요헷엇잖아예?(그 삼이니, 무명이니, 이제 어 뭡니까 그거. 명주니 하려하면 아까 그 베틀이니 뭐 틀이니 이런 거 필요했었잖아요?)
106019 #1 어, 베틀.(어, 베틀.)
106019 @ 거민예? 그 도구들 중에서 씨아에 대헤서 골아줍서, 씨아. 씨아가 무시거꽈?(그러면요? 그 도구들 중에서 씨아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씨아. 씨아가 뭡니까?)
106019 #2 도구 이름이 씨아가 이서? 엇주 엇어. 씨아엔 헌 말은 들어본 적 엇어.(도구 이름이 씨아가 있어? 없지 없어. 씨아라고 한 말은 들어본 적 없어.)
106019 #1 베틀에?(베틀에?)
106019 @ 우리가 멘네를 헤가지고 씨를 빼고, 그다음엔 솜을 만들거나 씰을 만들거나 하잖아예? 그때 그 도구들이 쭉 필요하잖아예?(우리가 면화를 해가지고 씨를 빼고, 그다음엔 솜을 만들거나 실을 만들거나 하잖아요? 그때 그 도구들이 쭉 필요하잖아요?)
106019 #2 기계, 기계들.(기계, 기계들.)
106019 @ 기계들.(기계들.)
106019 #2 영 미녕 짜는 기계, 기계ᄀᆞ라 뭣이엔 헙니까? 것ᄀᆞ라. 요고는 요고는 가례

기고.(이렇게 무명 짜는 기계, 기계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요거는 요거는 가락이고.)
106019 #1 가레기로 헤근에 씰 뽑는 거.(가락으로 해서 실 뽑는 거.)
106019 #2 씰 뽑아근에 영 ᄒᆞ는 거.(실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106019 #1 멘화. 멘화씨 뽑는 거. (면화, 면화씨 뽑는 거.)
106019 @ 멘네, 그 씨앗허고 솜허고 분리하는 거 엇수과?(면화, 그 씨앗하고 솜하고 분리하는 거 없습니까?)
106019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19 #1 그건 엇어, 건.(그건 없어, 그건.)
106019 #2 경허고 또 씨 거, 잊어부런.(그러고 또 씨 그거, 잊어버렸어.)
106019 #1 씨아, 그게 씨 불르는 거엔 헤근에 씨앗이가 무시거엔 골아낫어.(씨아, 그게 씨 바르는 거라고 해서 '씨앗이'인가 뭐라고 말했었어.)
106019 #2 견디, 요, 요고는 가레기고.(그런데, 요, 요거는 가락이고.)
106019 #1 아니, 가레기엔 헌 건.(아니, 가락이라고 한 건.)
106019 #2 이영 감는 거ᄀᆞ라 가레기엔 허고.(이렇게 감는 것보고 가락이라고 하고.)
106019 #1 가레기냐? 그 물레엔 근다, 것ᄀᆞ라. 물레엔 골아.(가락이냐? 그 물레라고 말한다, 그것보고. 물레라고 말해.)
106019 #2 물레고. 요듸 마라, 족은 거 이성, 요듸 족은 거 도르르 허게시리 돌아가는 거 이수다게.(물레고, 요기 말고, 작은 거 있어서, 요기 작은 거 도르르 하게끔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106019 #1 그게 가레기주.(그게 가락이지.)
106019 #2 게메, 게난. 요 요듸 걸쳐 놔근에, 멩지 빠는디 요 걸쳐 놩 씨 뽑는 건 쮀 끌락헌 거 도르르허게 돌아 간 건 가레기고.(글쎄, 그러니까. 요 요기 걸쳐 놓아서, 명주 뽑는데 요 걸쳐 놓아서 씨 뽑는 건 아주 작은 거 도르르하게 돌아 간 건 가락이고.)
106019 #1 가레긴 쒜.(가락은 쇠.)
106019 @ 게난 아마 그, 이 세화에서는 씨아를 멘네 씨 뽑는 그.(그러니까 아마 그, 이 세화에서는 씨아를 면화 씨 뽑는 그.)
106019 #1 아, 그게 그게 씨아야.(아, 그게 그게 씨아야.)
106019 @ 그난 그게 씨아니까 그 씨아를 여기선 뭐렌 골아신고 헤가지고예?(그러니 그게 씨아니까 그 씨아를 여기선 뭐라고 말 했는가 해가지고요?)
106019 #1 아, 그 이름을 잊어부릿져.(아,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106019 @ 씨아레는 안 근셍이어예?(씨아라고는 안 말했나 봐요?)
106019 #1 으, 씨 무시거엔 골아낫어.(으, '씨' 뭐라고 말했었어.)
106019 #2 씨 불르는 기계가 이서낫주게.(씨 바르는 기계가 있었었지.)
106020 @ 그다음에는 그.(그다음에는 그.)
106019 #1 씨 불르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낫거든?(씨 바르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었거든?)

106019 @ 아, 기꽈?(아, 그래요?)
106019 #2 목시난에.(목수니까.)
106019 @ 게, 분명 뭐렌 골멍 만들긴 헷일 건디예?(그게, 분명 뭐라고 말하면서 만들긴 했을 건데요?)
106019 #2 음, 겐디 그건 잊어분 거시, 씨 불르는 게.(음, 그런데 그건 잊어버린 것이, 씨 바르는 게.)
106019 #1 보통 씨 불르는, 씨 불르는 물레엔도 곧주게.(보통 씨 바르는, 씨 바르는 물레라고도 말하지.)
106019 @ 씨 불르는 물레예?(씨 바르는 물레요?)
106019 #1 으. 씨 불르는 물레.(응, 씨 바르는 물레.)
106020 @ 예. 그거는 무신 물레꽈? 그거.(예. 그거는 무신 물렙니까? 그거.)
106020 #1 이건 저, 씨 저 거시기 면화ᄒᆞ면은.(이건 저, 씨 저 거시기 면화하면.)
106020 #2 게메, 경허난 요기 돌아가는 것ᄀᆞ라.(글쎄, 그러니까 요기 돌아가는 것보고.)
106020 #1 게메, ᄀᆞ만시라 보게. 면화 허면은.(글쎄, 가만있어라 보게. 면화 하면.)
106020 @ 예.(예.)
106020 #1 면활 저.(면활 저.)
106020 @ 멘네 멘네예?(면화, 면화요?)
106020 #1 어, 멘네를.(어, 면화를.)
106020 @ 예.(예.)
106020 #1 조그만 씩 저 빙떡 모냥으로.(조그만 씩 저 빙떡 모양으로.)
106020 @ 예.(예.)
106020 #1 정기떡 모냥으로 ᄉᆞ랑허게 만들어.(빙떡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106020 @ 예.(예.)
106020 #1 깅헹은에 요기에 가레기 부쩡은에.(그렇게 해서 요기에 가락 붙여서.)
106020 @ 예.(예.)
106020 #1 가레기로 요 물레로 헹은에 요고 쒜로 헹은에, 아 줄로, 노끈으로 헹은에 영 잇주게.(가락으로 요 물레로 해서 요거 쇠로 해서, 아 줄로, 노끈으로 해서 이렇게 잇지.)
106020 @ 예.(예.)
106020 #1 이엉, 요고 돌려 가면은 가레기가 돌아.(이어서, 요거 돌려 가면 가락이 돌아.)
106020 @ 예.(예.)
106020 #1 깅헤은에 씰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엉, 가레기에 탁 부쪙, 요걸 돌려 가면은.(그렇게 해서 실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락에 탁 붙여서, 요걸 돌려 가면.)
106020 #2 씰 감아놓는 게 요만씩.(실 감아놓는 게 요만씩.)
106020 #1 그게 그걸로 헹은에 영 사람이 손으로 뽑는 거야.(그게 그걸로 해서 이렇

게 사람이 손으로 뽑는 거야.)
106020 #2 손으로 손으로 밤이 아장, 기자 안 아자. 그자 아자둠서 손으로 손으로 감주게.(손으로 손으로 밤에 앉아서, 그저 안 앉아. 그저 앉아있으면서 손으로 손으로 감지.)
106020 @ 예.(예.)
106020 #2 문딱 문딱 저 요만썩(주먹을 보이며) 허게시리.(모두 모두 저 요만큼씩(주먹을 보이며) 하게끔.)
106020 @ 예.(예.)
106020 #2 경헹 소쿠리로, 소쿠리로 ᄒᆞ나 씩 만들아 놔.(그렇게 해서 소쿠리로, 소쿠리로 하나 씩 만들어 놓아.)
106020 @ 예.(예.)
106020 #2 멧 날 메틀 감아 놔. 겡헤근에 요레 요레(그림을 보며) 헹 톡 ᄒᆞ게 걸어. 요레 쒜, 쯔꼴락헌 쒜 영 헤영 놓아근에 헤근에 헹 그ᄀᆞ라 가레기엔 허는디. 요 차롱을 요레 놔둠서 요레 헤당 톡 걸민 요기서 가레기가 졸졸졸졸, 이 저 물레에서 돌려가민 가레기가 불불불불 불불불불 돌아.(몇 날 며칠 감아 놓아. 그렇게 해서 요리로 요리로(그림을 보며) 해서 톡 하게 걸어. 요리로 쇠, 아주 작은 쇠 이렇게 해서 놓아서 해서 해서 그것보고 가락이라고 하는데. 요 채롱을 요리로 놓아두면서 요리로 해다가 톡 걸면 요기서 가락이 졸졸졸졸, 이 저 물레에서 돌려 가면 가락이 발발발발 발발발발 돌지.)
106020 @ 돌면서 씰이 감아지고예?(돌면서 실이 감아지고요?)
106020 #2 응. 씰이 감아져.(응, 실이 감아지지.)
106020 @ 예.(예.)
106021 @ 그다음에는 아까 그 저기 멩지, 멩지 짤 때 베틀 잇잖아예? 베틀도 그믄 직접 만들앗수과?(그다음에는 아까 그 저기 명주, 명주 짤 때 베틀 있잖아요? 베틀도 그러면 직접 만들었습니까?)
106021 #1 베틀, 베틀도 그거이? 멩지틀이냐?(베틀, 베틀도 그거? 명주틀이니?)
106021 @ 멩지클이렌 헷수과? 멩지틀이렌 헷수과?('멩지클'이라고 했습니까? '멩지틀'이라고 했습니까?)
106021 #1 틀, 틀.(틀, 틀.)
106021 @ 틀이렌 헷수과? 클이라고 안 헷수과?(틀이라고 했습니까? '클'이라고 안 했습니까?))
106021 #1 클이렌 아녀. 멩지틀.('클'이라고 않아. 명주틀.)
106021 예.(예.)
106021 #1 멩지틀이나 미녕틀이나 우린 ᄀᆞ찌 헷는디.(명주틀이나 무명틀이나 우린 같이 했는데.)
106021 #1 ᄀᆞ찌, ᄀᆞ찌. 다 ᄀᆞ따.(같이, 같이. 다 같아.)
106021 @ 아, ᄀᆞ찌헷구나. 씰 짜는 건 마찬가지난예?(아, 같이했구나. 실 짜는 건 마

찬가지니까요?)
106021 #1 짜는 건 마찬가지. 겨고 요 저 ᄇᆞ디, ᄇᆞ디도 똑ᄀᆞ뜨고.(짜는 건 마찬가지. 그리고 요 저 바디, 바디도 똑같고.)
106021 @ 예.(예.)
106021 #2 다, 똑ᄀᆞ따.(모두 똑같아.)
106021 #1 ᄇᆞ디도 ᄀᆞ뜨고 요 저 거시기 미신 통이엔 헌다마는 요고.(바디도 같고 요 저 거시기 무슨 통이라고 한다마는 요거.)
106021 #2 씰 놓는 통.(실 넣는 통.)
106021 #1 어.(어.)
106021 #2 준준헌 씰 놩, 통.(자잘한 실 넣어서, 통.)
106021 #1 에, 이 저 요 씰ᄀᆞ라.(에, 이 저 요 실보고.)
106021 #2 무시거엔 ᄀᆞᆫ나마는 가레, 가레기가 아니고.(뭐라고 말한다만 가레, 가락이 아니고.)
106021 #1 요기에 네모나게시리 똑 ᄒᆞ게 들어가게시리 영 감는 것도.(요기에 네모나게끔 똑 하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감는 것도.)
106021 @ 예.(예.)
106021 #1 아무나 못 감아.(아무나 못 감아.)
106021 #2 기술적으로. 벗어져 불카부덴.(기술적으로. 벗겨져 버릴까봐.)
106021 #1 꼭, 요롷게 네모나게시리 감주게.(꼭, 요렇게 네모나게끔 감지.)
106021 @ 예, 예예.(예, 예예.)
108021 #1 깅헹 감앙, 이건 옆으로 영 헹 ᄒᆞ멍 젓, 치는 거난에.(그렇게 해서 감아서, 이건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저, 차는 거니까.)
106021 @ 예. 이걸 전체적으로 합청 ᄇᆞ디렌 허는 거꽈?(예.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바디라고 하는 겁니까?)
106021 #1 ᄇᆞ디는 요디, 요고 요고 요고(그림을 보며). 요 요 손 심엉은에 이것 갓당 영 ᄒᆞ게 ᄒᆞ곡도 ᄒᆞ는 거.(바디는 요기, 요거 요거 요거(그림을 보며). 요 요 손 잡아서 이것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는 거.)
106021 @ 아, 게 그거는예 따로예 물레에 그 어.(아, 그 그거는요 따로요 물레에 그 어.)
106021 #1 아, 물레 아니 이건 이거, 틀에 잇는 거.(아, 물레 아니 이건 이거, 틀에 있는 거.)
106021 @ 게난, 틀에든 물레든 그 부분 부분 한 명칭은 나중에 다시 여쭤볼 때 여쭤볼게예? 여쭤볼 또 기회가 이서부난예?(그러니, 틀에든 물레든 그 부분 부분 한 명칭은 나중에 다시 여쭤볼 때 여쭤볼게요? 여쭤볼 또 기회가 있어버려서요?)

바느질

106022 @ 그다음에 바느질에 데헤 여쭤보쿠다예. 옛날 바느질을 바눙질이렌 헷수

과?(그다음에 바느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바느질을 '바눙질'이라고 했습니까?)
106022 #1,2 응, 바눙질.(응, 바느질.)
106022 @ 그믄 그 바눙질 헐 때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 뭐 우선 바눙쌍지가 이서낫지예?(그러면 그 바느질 할 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우선 반짇고리가 있었었지요?)
106022 #2 바눙쌍지.(반짇고리.)
106022 @ 바눙싼지렌 헷수과, 쌍지렌 헷수과?('바눙싼지'라고 했습니까, '쌍지'라고 했습니까?)
106022 #2 바눙쌍지.(반짇고리.)
106022 @ 바눙쌍지예? 거믄 바눙쌍지 안엔 어떤 것들이 들어져 이섯수과?('반짇고리'요? 그러면 반짇고리 안엔 어떤 것들이 들어져 있었습니까?)
106022 #2 바눙쌍지, ᄀᆞ세ᄒᆞ고, 바눙꿰는 것ᄀᆞ라 아이고, 바눙주멩이 만들아.(반짇고리, 가위하고, 바늘 꿰는 것보고 아이고, 바늘주머니 만들어.)
106022 @ 바눙주멩이예?(바늘주머니요?)
106022 #2 으, 으. 엿날에 머리 빗어나민 머리 빠진 거 뭉쿠렁, 그것이 바눙을 일 년을 꼽앙 나둬도 안 불려, 희안허게.(으, 으. 옛날에 머리 빗어나면 머리 빠진 거 뭉뚱그려서, 그것이 바늘을 일 년을 꼽아서 나둬도 안 바라, 희한하게.)
106022 @ 예.(예.)
106022 #2 경헹 바눙쌍지 구덕 바의에 만들앙 ᄃᆞ렝이 둘아메둠서 그레 꼽앗주.(그렇게 해서 반짇고리 구덕 가장자리에 만들어서 달랑하게 달아매두고서 그리로 꼽았지.)
106022 #1 바늘꽂이.(바늘꽂이.)
106022 @ 바눙쌍지 안에 바늘꽂이가 잇고 또 뭐가 이섯수과?(반짇고리 안에 바늘꽂이가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106022 #2 ᄀᆞ세.(가위.)
106022 @ ᄀᆞ세 잇고 또?(가위 있고 또?)
106022 #2 ᄀᆞ세 잇고 씰, 거벳긔 더 이서서?(가위 있고 실, 그것밖에 더 있었어?)
106022 @ 거벳긔 엇엇수과?(거밖에 없었습니까?)
106022 #1 ᄀᆞ세ᄒᆞ고 씰, 그다음은 잘잘한 옷감.(가위하고 실, 그다음은 자잘한 옷감.)
106022 @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잘잘한 옷감덜을?(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잘한 옷감들을?)
106022 #2 옷감, 그 아이고.(옷감, 그 아이고.)
106022 @ 그 자치덜 ᄀᆞᆫ는 소리가 잇엇잖아예? 옷감 자치덜안틔 ᄀᆞᆫ는 소리.(그 자투리들 말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옷감 자투리들보고 말하는 소리.)
106022 #2 옷 ᄆᆞᆯ르던 자치렌 ᄀᆞᆯ앗주.(옷 마르던 자투리라고 말했지.)
106022 @ 그냥 자치?(그냥 자투리?)
106022 #1 응, 즌 자치덜.(응, 잔 자투리들.)
106022 @ 즌 자치덜예?(잔 자투리들이요?)

106023 @ 그 담엔 바느질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잇잖아예? 어떤 어떤 게 이수과?(그 다음엔 바느질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106023 #1 호는 거 잇고, 즘질이 줍는 거 잇고.(호는 거 있고, 자잘하게 줍는 거 있고.)
106023 #2 그때는 미싱이 엇인 때난.(그때는 재봉틀이 없을 때니까.)
106023 @ 예.(예.)
106023 #2 또 여름에 입는 적삼 ᄀᆞ튼 거 만들 때는 이 도련, 도련 박젠 ᄒᆞ민 이것이 실거라. 박음질이엔 헤여. 박아.(또 여름에 입는 적삼 같은 것 만들 때는 이 도련, 도련 박으려고 하면 이것이 있을 거야. 박음질이라고 해. 박아.)
106023 @ 박음질.(박음질.)
106023 #2 꿰영 나오랑 따시 그 고망드레 찔령 또 나오곡, 그 고망드레 찔령 또 나오곡.(꿰어서 나와서 다시 그 구멍에 찔러서 또 나오고, 그 구멍에 찔러서 또 나오고.)
106023 @ 음.(음.)
106023 #2 게난 긋ᄀᆞ라 박음질이엔, 박음질이엔 허곡, 기냥 이렇게 허는 건 호옴질이렌.(그러니 것보고 박음질이라고, 박음질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홈질이라고.)
106023 @ 홈질.(홈질.)
106023 #2 호옴질이엔 ᄒᆞ곡 그자 영 줏게시리 ᄒᆞ는 건 돈돈ᄒᆞ게 ᄒᆞ는 건 박음질.(홈질이라고 하고 그자 이렇게 잦게끔 호는 건 단단하게 호는 건 박음질.)
106023 @ 그믄은 이제 옷 만들다근에 소매, 요기가 안 뒛잖아예?(그러면 이제 옷 만들다가 소매, 요기가 안 됐잖아요?)
106023 #2 응.(응.)
106023 @ 게민 이 소매 잇는 이 이거 무시거 허라, 헙니까? 게민. 홈질은 아니지 않으꽈? 이거 박음질 허라, 경은 안 하잖아예?(그러면 이 소매 잇는 이 이거 무엇 하라, 합니까? 그러면. 홈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박음질 하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106023 #2 아니 여.(안 해.)
106023 @ 거민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3 #2 이거 그 그레 젓, 아이고 것ᄀᆞ라 무시거엔 ᄀᆞᆫ나마는. 헌옷 ᄀᆞ튼 거 데여근에 줍젠허민 이거 그레 헤어근에 헌 조가기.(이거 그 거기에 저, 아이고 그것보고 뭐라고 말한다만. 헌옷 같은 거 대여서 깁고자하면 이거 거기에 해서 헌 조각.)
106023 @ 예.(예.)
106023 #2 헌 조개기 데여근에 그디 맞처근에 주렌 경 ᄀᆞᆯ아.(헌 조각 대어서 거기 맞춰서 기우라고 그렇게 말해.)
106023 @ 주렌만 헤여.(기우라고만 해요.)
106023 #2 응, 주렌만 헤여.(응, 기우라고만 해.)
106023 @ 주어불라, 그렇게마씨?(기워버려라, 그렇게요?)
106023 #2 응.(응.)
106023 #1 그레 헝겊 대영 주라.(그리 헝겊 대서 기우라.)

106023 #2 헌 조개기엔도 곧곡, 이 헌옷 줄 때는 헌옷 갖다당, 그때는.(헌 조각이라고도 말하고, 이 헌옷 기울 때는 헌옷 갖다가, 그때는.)
106023 @ 만약 누빌 때는 뭐렌 골앗수과?(만약 누빌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3 #2 누빌 때는 누비옷이엔 그때 아네신가?(누빌 때는 누비옷이라고 그때 않았나?)
106023 @ 아니, 애들 씨러질 거잖아예? 씨러정 와근에 무룹이 터졌다, 동무룹 터지민 거기다가 헝겊 대근에.(아니, 애들 쓰러질 거잖아요? 쓰러져서 오면 무릎이 터졌다, 무릎 터지면 거기다가 헝겊 대어서.)
106023 #2 헝겊 데근에 돈돈허게 박으렌 혜여.(헝겊 대서 단단하게 박으라고 해.)
106023 @ 그냥 돈돈허게 박으렌 골앗수과?(그냥 단단하게 박으라고 말했습니까?)
106023 #1 음.(음.)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엔 옷 종류에 데헤가지고 저가 여쭤볼게예? 어, 그 남자 분들의 옷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그다음엔 옷 종류에 대해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어, 그 남자 분들의 옷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6024 #2 그때는 보통은 중의적삼.(그때는 보통은 중의적삼.)
106024 @ 중의적삼.(중의적삼.)
106024 #2 응, 바지저구리.(응, 바지저고리.)
106024 @ 바지저구리예?(바지저고리요?)
106024 #2 응, 그거.(응, 그거.)
106024 #1바지저구리, 쮀께.(바지저고리, 조끼.)
106024 #2 쮀께 하나 더 여름에는. 우선 쮀께 멘들앙 쮀께. 헤사 그디 담베도 놓곡, 경허는 떡분에.(조끼 하나 더 여름에는. 우선 조끼 만들어서 조끼. 해야 거기 담배도 놓고, 그러는 때문에.)
106024 @ 음, 맞수다.(음, 맞습니다.)
106025 @ 여자 옷들은마씨?(여자 옷들은요?)
106025 #2 여자덜토, 중의적삼 만들고, 치마저구리 ᄒᆞ곡.(여자들도, 중의적삼 만들고, 치마저고리 하고.)
106025 @ 치마렌 골앗수과? 치메렌 골앗수과?(치마라고 말했습니까? '치메'라고 말했습니까?)
106025 #1,2 치메.('치메')
106025 @ 저고리는 그냥 저고리꽈? 저구리렌 헷수과?(저고리는 그냥 저고리입니까? '저구리'라고 했습니까?)
106025 #2 저고리 아니고 저구리, 저구리.('저구리', '저구리'.)
106025 @ 치메저구리예?('치메저구리'요?)

106025 #2 치메저구리허곡 저 여저들은 겨울 틀에는 저, 것ᄀᆞ라 꼬장중의[176]렌 허주게, 꼬장중의.(치마저고리하고 저 여자들은 겨울 들면 저, 그것보고 고쟁이라고 하지, 고쟁이.)
106025 @ 고장중의?(고쟁이?)
106025 #2 응.(응.)
106025 @ 뜨뜻허게 우의 입는 거마씨?(따뜻하게 위에 입는 건가요?)
106025 #2 소곱에, 소곱에.(속에, 속에.)
106025 #1 소곱에 입는 거.(속에 입는 거.)
106025 @ 누벼가지고마씨?(누벼가지고요?)
106025 #2 굴중의[177] 잇고 꼬장중의 잇고.('굴중의' 있고 고쟁이 있고.)
106025 @ 굴중의 뭐고, 꼬장중의는?('굴중의'는 뭐고 고쟁이는?)
106025 #2 굴중의는 속치마 데신.('굴중의'는 속치마 대신.)
106025 @ 예.(예.)
106025 #2 속치마 데신 이디 이만큼 넙게시리.(속치마 대신 여기 이만큼 넓게끔.)
106025 @ 예.(예.)
106025 #2 소곱에 꼬장중의 입어근에 굴중의 입곡.(속에 고쟁이 입어서 '굴중의' 입고.)
106025 @ 예.(예.)
106025 #1 그 우에 치마 입곡.(그 위에 치마 입고.)
106025 @ 그믄 옛날엔 그 저 맨 속에 입는 팬티를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면 옛날에는 그 저 맨 속에 입는 팬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5 #1 속곳.(속곳.)
106025 @ 그냥 속곳?(그냥 속곳?)
106025 #2 속곳.(속곳.)
106025 #1 어.(어.)
106025 @ 남자도 속곳, 여자도 속곳?(남자도 속곳, 여자도 속곳?)
106025 #1 어, 속곳.(어, 속곳.)
106025 #2 아주 엿날엔 속곳이엔 헌, 요새 팬티여 무시거여, 그런 거 팬티 안 입어낫어.(아주 옛날엔 속곳이이라고 한, 요새 팬티여 무엇이야, 그런 거 팬티 안 입었었어.)
106025 @ 안 입어난예?(안 입었다고요?)
106025 #2 아무것도 안 입어난.(아무것도 안 입어난.)
106025 #1 요 중간에사.(요 중간에야.)
106025 #2 겨난 이 안내, 안내 가려진 안내 꼬장중의가 그것이 안내 가려진 속옷이나 다름없는 거.(그러니 이 속에, 속에 가려진 속에 고쟁이가 그것이 속에 가려진 속옷이나 다름없는 거.)

176) '꼬장중의'는 '고장중의'의 된소리다. 표준어 '고쟁이'를 말한다.
177) '굴중의'는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06025 @ 예.(예.)
106025 #2 아장 소벤 볼 때도 영 심엉 기냥 아장.(앉아 소변 볼 때도 이렇게 잡고 그냥 앉아서.)
106025 #1 특히 남자는 그 속곳이 잘 안 입엇는데.(특히 남자는 그 속곳을 잘 안 입었는데.)
106025 @ 예.(예.)
106025 #1 여자는 입엇어. 여자는 뭐이냐면은 소중의.(여자는 입었어. 여자는 뭐냐면 속곳.)
106025 @ 소중의예?(속곳이요?)
106025 #1 소중의 옷이 젓 지금의 여자들 해녀들 입는 팬티주게.(속곳 옷이 저 지금의 여자들 잠녀들 입는 팬티지.)
106025 #2 견디 웃드르[178]는 소중의 안 입어봐서.(그런데 '웃드르'는 속곳 안 입어봤어.)
106025 #1 그게 소중의라.(그게 속곳이야.)
106025 #2 우리 시어머니도 소중의 안 입어봔.(우리 시어머니도 속곳 안 입어봤어.)
106025 @ 음.(음.)
106025 #2 엿날 꼬장중의 그거 입언.(옛날 고쟁이 그거 입었어.)
106025 @ 꼬장중의 입어가지고예.(고쟁이 입어가지고요.)
106025 #2 응.(응.)
106026 @ 그다음 아이들 옷은 어른들 옷이랑 조금 달르잖아예? 어떤 식이어낫수과?(그다음 아이들 옷은 어른들 옷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식이었었습니까?)
106026 #2 아이들 옷도 다 그거 마찬가지주. 저, 바지 입을 때난 바지저구리 그자 멘들아 입고.(아이들 옷도 다 그거 마찬가지지. 저, 바지 입을 때니까 바지저고리 그저 만들어 입고.)
106026 @ 음.(음.)
106026 #2 겨울에는 추우면은 솜 놓아근에 손으로 누병.(겨울에는 추우면 솜 넣어서 손으로 누벼서.)
106026 #1 강알 터진 바지 입짐도 ᄒᆞ곡.(사타구니 터진 바지 입히기도 하고.)
106026 @ 거난 그니까 꼬장중의를 입게 뒈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고, 우리 교장선생님 계셔도, 일단 이거는 질문헤야 헐 거난예 여쭤보쿠다예. 그면 만일에 생리가 오게 뒈면?(그러니 그러니까 고쟁이를 입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이고, 우리 교장선생님 계셔도, 일단 이거는 질문해야 헐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생리가 오게 되면?)
106026 #2 그대로 흘러 내려.(그대로 흘러 내려.)
106026 @ 그냥 흘려내렁.(그냥 흘러내려.)
106026 #2 응.(응.)

178)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6026 @ 따까서 살앗구나예?(닦아서 살았군요?)
106026 #1 어.(어.)
106026 @ 별도로 뭐 엇이예?(별도로 뭐 없이요?)
106026 #2 그것이 어려와.(그것이 어려워.)
106026 @ 어려웡예?(어려워서요?)
106062 #2 경ᄒᆞ난에 저 꼬장중의 입곡 굴중의 우터레 입는 거는 그때 그거는 아래 강알 막아진 거.(그러니까 저 고쟁이 입고 '굴중의' 위에 입는 거는 그때 그거는 아래 사타구니 막아진 거.)
106026 @ 막아진 걸로, 음. 아이 옷들은 특별난 게 엇이 마찬가지로예?(막아진 걸로, 음. 아이 옷들은 특별난 게 없이 마찬가지로요?)
106026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26 @ 음, 그다음 물애기 옷, 금방 태어낫을 때는 뭐 그런 옷들은 따로 잇엇지예?(음, 그다음 신생아 옷, 금방 태어났을 때는 뭐 그런 옷들은 따로 있었지요?)
106026 #2 미녕.(무명.)
106026 @ 미녕으로, 그 옷은 뭐렌 골앗수과?(무명으로, 그 옷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6 #1 삼베로도 허주.(삼베로도 하지.)
106026 #2 베넷저구리.(배냇저고리.)
106026 #1 베넷저구리는 삼베로도 헷주.(배냇저고리는 삼배로도 했지.)
106026 #2 그때도 베넷저구리렌 헤실거라양?(그때도 배냇저고리라고 했겠지요?)
106026 #1 베넷저구리, 베넷저구리.(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106026 @ 혹시 봇뎃옷이라는 말은 안 써낫수과?(혹시 '봇뎃옷'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까?)
106026 #1 봇뎃옷[179]이엥도 허여.('봇뎃옷'이라고도 해.)
106026 #2 베넷저구리렌도 ᄒᆞ고, 봇뎃옷이렌도 ᄒᆞ고.(배냇저고리라고도 하고, '봇뎃옷'이라고도 하고.)
106026 #1 그 두 가지 써낫져.(그 두 가지 썼었어.)
106027 @ 옷을 만들젠 허면 이제 그 본이 이서야 뒈잖아예?(옷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106027 #2 본 아이 출련.(본 안 차렸어.)
106027 @ 게 안 출렷잖아예?(그래 안 차렸잖아요?)
106027 #2 어, 엿날엔 손짐작으로. 본 아이 출려.(어, 옛날엔 손짐작으로. 본 안 차려.)
106027 @ 안 출리민 네 개 반듯한 천이 잇다 헤근에. 만일에 이제, 거기다가 중의적삼을 만들젠 허면 게민 어떵 헷수과? 처음에.(안 차리면 네 개 반듯한 천이 있다 하면. 만일에 이제, 거기다가 중의적삼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179) '봇뎃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한다. = '베창옷', '봇뎃창옷', '봇뒤옷', '봇뒤적삼', '봇딧옷', '봇딧창옷', '붓딧적삼', '붓딧창옷'. '봇뒤창옷'.

106027 #1 자, 자 시난에 영 그 사람 키.(자, 자 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 키.)
106027 @ 예.(예.)
106027 #1 키 헤근엥 자로 영 헹 어느 자 높이, 길이.(키 재서 자로 이렇게 재서 어느 자 높이, 길이.)
106027 #2 이, 멩지나 미녕이나 짜민.(이, 명주나 무명이나 짜면.)
106027 @ 예.(예.)
106027 #2 그 너비가 딱 지정 뒝 이서, 기계에.(그 너비가 딱 지정 되어 있어, 기계에.)
106027 @ 예.(예.)
106027 #2 너비가 지정 뒝 딱 이시민 다슷 치 으슷 치, 보통 으슷 치.(너비가 지정돼 딱 있으면 다섯 치 여섯 치, 보통 여섯 치.)
106027 @ 예.(예.)
106027 #2 으슷 치 으슷 치 반 뒈면 조금 널른 거고.(여섯 치 여섯 치 반 되면 조금 넓은 거고.)
106027 @ 예.(예.)
106027 #2 으슷 치에 딱 허게 누누면은 남저 품 큰 사름은 바지 만들 듸는 쪼꼼 족으미는 밋 부찌는디 쪼꼼 넙게 부찌국.(여섯 치에 딱 하게 나누면 남자 품 큰 사람은 바지 만들 데는 조금 작으면 밑 붙이는데 조금 넓게 붙이고.)
106027 @ 예.(예.)
106027 #2 지정이 서 딱. 경허민 그거 싹 페와 놓면은 여저 치메 ᄀᆞ트민 멧 폭 치메.(지정돼 있어 딱. 그러면 그거 싹 펴서 놓으면 여자 치마 같으면 몇 폭 치마.)
106027 @ 예.(예.)
106027 #2 으슷 폭 치메, 으둡 폭 치메.(여섯 폭 치마, 여덟 폭 치마.)
106027 @ 음.(음.)
106027 #2 경헹 허곡.(그렇게 해서 하고.)
106027 @ 예.(예.)
106027 #2 경허난 그 지정이 시난 그것에 옷 몰르문 문제가 아니.(그러니까 그 지정돼 있으니까 그것에 옷 마름은 문제가 아니야.)
106027 @ 문제가 아니. 아, 겅헷구나예. 경헹 그냥 손짐작으로 헤놔근에 바로 꼬멧수과?(문제가 아니. 아,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손짐작으로 해놓고 바로 꿰맸습니까?)
106027 #2 응.(응.)
106027 @ 꼬멜 때도 웨 기본적으로 탁 틀만 꼬멧당 나중에 자세히 꼬메고 경 안 헷수과?(꿰맬 때도 왜 기본적으로 탁 틀만 꿰맸다가 나중에 자세히 꿰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106027 #1 거시기 대강 영 허게, 서툰 사름 홀 때엔.(거시기 대강 이렇게 하게, 서툰 사람 할 때엔.)
106027 @ 예.(예.)

106027 #1 서툰 사름 홀 땐 대강만 영 허게 시꺼근에 크게, 시꺼근에 줘낭은에 요 발라 영 헹 주렌 허주게.(서툰 사람 할 땐 대강만 이렇게 하게 징거서 크게, 징거서 기운 다음 요 방향 이렇게 해서 기우라고 하지.)

106027 #2 조선옷 만듦은, 시방 입는 옷 만드는 것ᄀᆞ찌 까다랍질 아녀.(조선옷 만듦은, 시방 입는 옷 만드는 것같이 까다롭질 않아.)

106027 @ 기구나예?(그렇군요?)

106027 #2 응.(응.)

106027 @ 맞수다.(맞습니다.)

106027 #2 기자 질쓰민 질수록 짝 허게시리 ᄒᆞ곡.(그저 길면 길수록 그저 짝 하게끔 하고.)

106027 @ 예.(예.)

106027 #2 이 이, 저구리 옷 만드는 것도 꼬그려근에 딱 보여 놓민 일루 이레 딱 박앗당 이 우트레 다가가민 보기 좋게 요영 허꺼지게 홀타지게시리 허영. 경허난 까다랍질 아녀.(이 이, 저고리 옷 만드는 것도 오그려서 딱 보여 놓으면 일로 이리 딱 박았다가 이 위로 다가가면 보기 좋게 요렇게 섞여지게 홀가매게 해서. 그러니까 까다롭질 않아.)

106027 @ 경헷구나예?(그랬었군요.)

106027 #2 응.(응.)

106028 @ 그다음엔예? 어, 바지가 잇고 저고리가 잇고, 치메가 잇고 이제 보선이 이섯잖아예?(그다음은요? 어, 바지가 있고 저고리가 있고, 치마가 잇고 이제 보선이 있었잖아요?)

106028 #2 으.(응.)

106028 @ 보선이 있으면은 그 바지 있을 때 허리부분은 남자어른은 그 바지 허리부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보선이 있으면 그 바지 있을 때 허리부분은 남자어른은 그 바지 허리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허리, 허리띠 ᄐᆞ루 만들아.(허리, 허리띠 따로 만들어.)

106028 @ ᄐᆞ루 만들아.(따로 만들어.)

106028 #2 허리띤 ᄄᆞ루 만들아.(허리띤 따로 만들어.)

106028 @ 그냥 허리렌 하고예?(그냥 허리라고 하고요?)

106028 #1 응.(응.)

106028 @ 바지 같은 경우에 요런 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바지 같은 경우에 요런 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영 헌디ᄀᆞ라 정겡이엔 ᄀᆞᆯ아, 이것ᄀᆞ라 정겡이엔 ᄀᆞᆯ앗수과? 이거 다님 지는 정강다님이엔 안 ᄀᆞᆯ읍네까? 여기 중간에 메는 건 정강다님이엔 ᄀᆞᆫ고.(이렇게 한데보고 정강이라고 말해, 이것보고 정강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대님 매는 정강 대님이라고 안 말합니까? 여기 중간에 매는 건 정강대님이라고 말하고.)

106028 @ 아, 정강다님.(아, 정강대님.)

106028 #2 요기, 요기 메는 때는 이 헐 때는 보통 갈옷 입어근에 남저 어른덜 일허레 가젠허민 요걸 메니까 정강다님이엔.(요기, 요기 매는 때는 이 할 때는 보통 갈옷 입어서 남자 어른들 일하러 가려하면 요걸 매니까 정강대님이라고.)
106028 #1 이디 정겡이니까 정강다님이엔.(여기 정강이니까 정강대님이라고.)
106028 #2 요레 치는 건, 다님이엔 ᄒᆞ곡.(요리로 치는 건, 대님이라고 하고.)
106028 @ 다님이엔 허고예?(대님이라고 하고요?)
106028 #2 응. 요디 치는 건 정강다님이엔 ᄒᆞ고.(응. 요기 치는 건 정강대님이라고 하고.)
106028 @ 그면은 저고리는, 저고리 여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면 저고리는, 저고리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짓.(깃.)
106028 @ 짓이고예? 깃이꽈, 짓이꽈?(깃이고요? 깃입니까, '짓'입니까?)
106028 #2 짓.(깃.)
106028 @ 짓.(깃.)
106028 #2 응.(응.)
106028 @ 그다음엔 짓 중에서 요건마씨?(그다음은 깃 중에서 요건은요?)
106028 #2 그건 앞섭.(그건 앞섶.)
106028 @ 그다음엔 여긴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다음엔 여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저구리 우문.(저고리 배래.)
106028 @ 우문, 그다음엔 여기는마씨?(배래, 그다음엔 여기는요?)
106028 #2 여기까지 우문이렌 ᄀᆞᆫ주.(여기까지 배래라고 말하지.)
106028 @ 여기까지 우문예?(여기까지 배래요?)
106028 #2 요 저껭이로 풀꿈치ᄁᆞ지 영 ᄒᆞ민, 이것이 우문. 저구릿단 우문.(요 겨드랑이로 팔꿈치까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배래. 저고리소매 배래.)
106028 #1 요, 요 앞에건 ᄉᆞᄆᆡ고.(요, 요 앞에건 소매고.)
106028 #2 이 이딘 ᄉᆞᄆᆡ고.(여 여긴 소매고.)
106028 @ 저고리 단허고 ᄉᆞᄆᆡ, ᄉᆞ민 우리말이꽈? ᄉᆞᄆᆡ가.(저고리 단하고 소매, 소매 우리말입니까? 소매가.)
106028 #1 으.(응.)
106028 #2 ᄉᆞᄆᆡ엔 ᄒᆞᆫ 건 우리말이고 여기 이디 ᄀᆞ추룩 허민, 거 ᄒᆞ쏠 ᄉᆞ미 ᄒᆞ쏠 걷으라.(소매라고 한 건 우리말이고 여기 여기 그처럼 하면, 거 조금 소매 조금 걷으라.)
106028 @ᄉᆞ믜, ᄉᆞᄆᆡ? ᄉᆞ미?('ᄉᆞ믜', 'ᄉᆞᄆᆡ'? 'ᄉᆞ미'?)
106028 #1 으.(응.)
106028 #2 ᄉᆞ믜 ᄒᆞ쏠 걷으라 하고 요기는 우문이, 우문이. 저껭이 우문이.(소매 조금 걷으라 하고 요기는 배래, 배래. 겨드랑이 배래.)
106028 #1 요기부터 요기까지. 요 앞에 거는 ᄉᆞ미고.(요기부터 요기까지. 요 앞의 거는 소매고.)

106028 @ 그담에 저고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헤가지고 무끄잖아예?(그담에 저고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묶잖아요?)
106028 #2 저구릿 곰.(저고리 고름.)
106028 @ 저고리 곰이잖아예? 요기서 영 허는 건마씨?(저고리 고름이잖아요? 요기서 이렇게 하는 건요?)
106028 #2 젓곰.(안고름.)
106028 @ 젓곰이꽈? 적곰이과?(젓고름인가요? 적고름인가요?)
106028 #1,2 젓, 젓곰.('젓', '안고름'.)
106028 @ 지읏예?(ㅈ이요?)
106028 #1 응.(응.)
106028 @ 젖곰이고 그다음엔 이거는 그냥.(젖곰이고 그다음엔 이거는 그냥.)
106028 #1 젓곰이고, 저에다가 그냥 ㅅ헐 거여.('젓곰'이고, 저에다가 그냥 ㅅ할 거야.)
106028 @ 젓곰예?(안고름이요?)
106028 #2 이 짓허곡, 앞에는 앞섭.(이 짓하고, 앞에는 앞섶.)
106028 @ 앞섭하고예. 그다음 무끄는 건마씨?(앞섶하고요. 그다음 묶는 건요?)
106028 #2 무끄는 짓광 영 헹놔근에 저구리곰.(묶는 짓과 이렇게 해놓아서 저고리고름.)
106028 #1 곰.(고름.)
106028 @ 아, 이건 젓곰, 이건 곰.(아, 이건 안고름, 이건 고름.)
106028 #2 응, 벳그뒨 곰.(응, 밖엔 고름.)
106028 @ 곰예.(고름이요.)
106028 #2 안내 거는 젓곰.(안에 거는 안고름.)
106028 @ 예. 그다음엔예? 버선 잇잖아예?(예. 그다음은요? 버선 있잖아요?)
106028 #2 응.(응.)
106028 @ 버선 이시면 버선 요 부분은 뭐렌 골앗수과?(버선 있으면 버선 요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무시거엔 안 골아. 버선은 버선이주.(뭐라고 안 말해. 버선은 버선이지.)
106028 @ 여기는 뭐렌 골앗수과?(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이디 ᄀᆞ라 뒤꿈치, 뒤꿈치 툭.(여기 보고 뒤꿈치, 뒤꿈치 뒤축.)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앞ᄏᆞ지, 버선ᄏᆞ지.(앞코, 버선코.)
106028 @ 여기 우에는마씨? 여기 전체적으로.(여기 위에는요? 여기 전체적으로.)
106028 #2 영, 이 전체는 보선발 발이주 기자. 여 여깃 ᄀᆞ란 발목이엔 곧고.(이렇게, 이 전체는 버선발 발이지 그저. 여 여기 보고는 발목이라고 말하고.)
106028 @ 발목예? 여기는마씨?(발목이요? 여기는요?)
106028 #1 보선목.(버선목.)

106028 #2 발창.(발바닥.)
106028 @ 발창예?(발바닥이요?)
106028 #2 응.(응.)
106028 @ 버선발창예?(버선발바닥.)
106028 #1 보선창.(버선발바닥.)
106029 @ 어, 그다음엔예? 단추에 데헤가지고 여쭤볼게예? 옛날엔 요런 단추가 엇엇잖아예?(어, 그다음은요? 단추에 대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옛날엔 요런 단추가 없었잖아요?)
106029 #1 볼ᄆᆞ작.(매듭단추.)
106029 @ 볼ᄆᆞ작 만들앙 헷수과?(매듭단추 만들어서 했습니까?)
106029 #1,2 으.(응.)
106029 @ 다?(다?)
106029 #2 응, 다 볼ᄆᆞ작.(응, 다 매듭단추.)
106029 #1 대부분 볼ᄆᆞ작이 많주.(대부분 매듭단추가 많지.)
106029 @ 볼ᄆᆞ작도 종류가 잇잖으꽈?(매듭단추도 종류가 있잖아요?)
106029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29 #1 볼ᄆᆞ작은 다 ᄒᆞ나라. 큰 거, 족은 거뿐이주.(매듭단추는 다 하나야. 큰 거, 작은 거뿐이지.)
106029 @ 다 볼모작이엔예?(다 매듭단추라고요?)
106029 #1 크민 크곡, 족으 것엔 족곡.(크면 크고, 작은 것엔 작고.)
106029 #2 ᄋᆞ라게 돌게 뒈어도 볼ᄆᆞ작이엔.(여러게 달게 되어도 매듭단추라고.)
106029 @ 볼ᄆᆞ작예?(매듭단추요?)
106029 #1 볼ᄆᆞ작.(매듭단추.)
106029 #2 돈 들게 ᄒᆞ나토 엇주게, 다 지녁대로 멘들엉.(돈 들게 하나도 없지, 다 이녁대로 만들어서)
106029 #1 겐디, 볼ᄆᆞ작, 그 단추 나온 것이 일제시대에 나온 거라.(그런데, 매듭단추, 그 단추 나온 것이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거야.)
106029 @ 이제 단추가예?(이제 단추가요?)
106029 #2 볼모작, 다 볼ᄆᆞ작.(매듭단추, 다 매듭단추.)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믄 재단허고 염색할 때 재단은 아까 뭐 그냥 다 짐작으로 헷덴 하고예? 그믄예? 옷감을 미녕이나 멩지나 하잖아예? 그거를 손질할 땐 어떵 헷수과? 옷 만들기 짝 전까지 네모반듯한 천 만들젠 허민. 씰로 짠 다음.(그러면 재단하고 염색할 때 재단은 아까 뭐 그냥 다 짐작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요? 옷감을 무명이이나 명주나 만들잖아요? 그거를 손질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옷 만들기 짝 전까지 네모반듯한 천 만

들려고 하면. 실로 짠 다음.)
106030 #2 으, 씰루 헹 딱 짱 나오미는.(응, 실로 해서 딱 짜서 나오면.)
106030 @ 예.(예.)
106030 #2 필루 만들주게. 필루.(필로 만들지. 필로.)
106030 @ 필로.(필로.)
106030 #2 혼필. 멩지는 저것이 마흔 자.(한 필. 명주는 저것이 마흔 자.)
106030 @ 마흔 자.(마흔 자.)
106030 #2 멩지는 마흔 자고 베와 미녕은 쑤물두 자.(명주는 마흔 자고 베와 무명은 스물두 자.)
106030 @ 게믄 아까.(그러면 아까.)
106030 #2 딱 길이가 경 뒈어.(딱 길이가 그렇게 되어.)
106030 @ 저 바지 할 때 혼 ᄋᆞ슷 자 든덴 헷잖아예? 남자 어른 바지 할 때, 아까.(저 바지 할 때 한 여섯 자 든다고 했잖아요? 남자 어른 바지 만들 때, 아까.)
106030 #2 바지 헤엿든 간에 남저 어른덜 중의적삼 만들젠 ᄒᆞ민 쑤무 자.(바지 하였든 간에 남자 어른들 중의적삼 만들려고 하면 스무 자.)
106030 @ 쑤무 자.(스무 자.)
106030 #2 쑤무자. 좀 몸 키나 큰 사름은 쑤물혼 자, 쑤물두 자 들어가.(스무 자. 좀 몸 키나 큰 사람은 스물한 자, 스물두 자 들어가.)
106030 #1 기자 혼 필 들어간데는 말.(그저 한 필 들어간다는 말.)
106030 #2 혼 필, 딱 들어.(한 필 딱 들어.)
106030 @ 아까 사십 필이렌 허멍.(아까 사십 필이라고 하면서요.)
106030 #1 아니, 그건 멩지.(안, 그건 저 명주.)
106030 #2 멩지는 기럭시가.(명주는 길이가.)
106030 @ 예.(예.)
106030 #2 마흔 자주게.(마흔 자지.)
106030 @ 마흔 자?(마흔 자?)
106030 #2 으, 자루.(응, 자로.)
106030 @ 마흔 자가 혼 필?(아, 마흔 자가 한 필?)
106030 #2 마흔 자가 혼 자, 두 자 헤영 재는 거.(마흔 자가 한 자, 두 자 해서 재는 거.)
106030 @ 예.(예.)
106030 #1 마흔 자가 혼 필.(마흔 자가 한 필.)
106030 #2 그것이 마흔 개, 마흔 개라사 마흔 자.(그것이 마흔 개, 마흔 개여야 마흔 자.)
106030 @ 경헤야 그걸로.(그래야 그걸로.)
106030 #2 경 ᄒᆞ곡, 또 쓰무 자는 중의적삼 ᄀᆞ튼 거 만들 때, 남저 어른덜은 저, 바지 ᄒᆞ고 저구리 만드는 디 쓰무 자 딱 들어가.(그렇게 하고, 또 스무 자는 중의적삼 같은 것 만들 때, 남자 어른들은 저, 바지하고 저고리 만드는 데 스무 자 딱 들어가.)

106030 #1 흔 필은 두 개, 쑤물 두 자벳긔 안 들어가.(한 필은 두 개, 스물 두 자밖에 안 들어가.)
106030 @ 아버지 거 허고 아들 거 허젠 하면 그 흔 필 다 들어가키여예?(아버지 것 하고 아들 것 하려고 하면 그 한 필 다 들어가겠네요?)
106030 #2 응.(응.)
106030 #1 에이고, 흔 필로 모지레주.(아이고, 한 필로 모자라지.)
106030 #2 어, 경헌디 남저어른 거 다 출리젠 ᄒᆞ민 남저 어른은 쪼께가 들어가지.(어, 그런데 남자어른 거 다 차리려고 하면 남자 어른은 조끼가 들어가지.)
106030 @ 맞아, 맞아, 맞아. 경 헤부난.(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버려서.)
106030 #2 쪼께가 들어가지.(조끼가 들어가지.)
106031 @ 염색을 안 헤가지는 안헐 거잖아마씨?(염색을 안 해가지는 안할 거잖아요?)
106031 #2 그 당시 염색이엔 ᄒᆞ민 엇이난에, 검은색도 엇고 ᄒᆞ난에. 요새 저 까끄레기, 해변 가에 가민 까끄레기엔 흔 낭이 이서.(그 당시 염색이라고 하면 없으니까, 검은색도 없고 하니까. 요새 저 사스레피나무, 해변 가에 가민 사스레피나무라고 한 나무가 있어.)
106031 @ 예.(예.)
106031 #2 그 낭에 가망헌 열매가 ᄃᆞᆯ아정 이시메. 까끄레기 열매엔 헌 거.(그 나무에 까만 열매가 달려 있어. 사스레피 열매라고 한 거.)
106031 @ 까끄레기 열매마씨?(사스레피 열매요?)
106031 #2 시방 올아신가? 시방 꽃 피어신가 하여튼 간에.(시방 열었을까? 시방 꽃 피었는가 하여튼 간에.)
106031 @ 음.(음.)
106031 #2 경헹 그거 헤어당은에 ᄲᅡ사근에 물헤영 짜근에 그걸로 염색 시기민 껌지도 아니ᄒᆞ고 저 긋ᄀᆞ라 청색 비심칙헤여.(그렇게 해서 그거 해다가 빻아서 물 해서 짜서 그걸로 염색 들이면 껌지도 아니하고 저 것보고 청색 비슷해.)
106031 @ 아, 게민 감물 드리는 거 하고 까끄레기 염색하고?(아, 그러면 감물 드리는 거 하고 사스레피 염색하고?)
106031 #2 응. 어, 두 가지벳긘 엇어.(응. 어, 두 가지밖에 없어.)
106031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6031 #2 응.(응.)
106031 @ 게민 시집 갈 때 막 색깔 잇게 허젠 허믄 어떵 헷수과?(그러면 시집 갈 때 막 색깔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6031 #2 색깔 잇게 허젠 헤도 엇어.(색깔 있게 하려고 해도 없어.)
106031 @ 경헷수과?(그랬습니까?)
106031 #2 응.(응.)
106031 @ 음.(음.)

106031 #2 시집 갈 때 색깔 입젠 허민 그 붉은 멩지 푸린 멩지 ᄀᆞ튼 건 그 장옷 멘들젠 허민 어디사가 그 물을 헤 왓는지, 건 어디서 주문헤 온 것산디 그거는 몰라.(시집 갈 때 색깔 입히려고 하면 그 붉은 명주 푸른 명주 같은 건 그 장옷 만들려고 하면 어디에서 그 물감을 해 왔는지, 건 어디서 주문해 온 건지 그거는 몰라.)
106031 @ 일단 버스랑 보내불게예? 세 시 차랑 보내불고예, 이제 몇 분 안 남아시난 토산까지는 제가 모셔다드리쿠다예.(일단 버스랑 보내버리게요? 세 시 차랑 보내버리고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토산까지는 제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신발

106032 @ 신발인데예? 신발 종류 뭐 뭐 이섯수과?(신발인데요? 신발 종류 뭐 뭐 있었습니까?)
106032 #1 신발?(신발?)
106032 @ 예.(예.)
106032 #1 가죽신.(가죽신.)
106032 @ 예, 가죽신. 가죽신이렌 헷수과? 뭐렌 ᄀᆞᆯ앗수과?(예, 가죽신. 가죽신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32 #1 가죽신.(가죽신.)
106032 @ 그냥 가죽신?(그냥 가죽신?)
106032 #2 응.(응.)
106032 @ 그다음 또 뭐 이섯수과?(그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106032 #2 엿날에사 무신 초신벳긔 더 이서서?(옛날에야 무슨 짚신밖에 더 있었어?)
106032 #1 가죽신, 초신, 짚신. 짚신ᄀᆞ라 초신이엔 ᄒᆞ주게.(가죽신, 짚신, 짚신. 짚신 보고 '초신'이라고 하지.)
106032 @ 예.(예.)
106032 #1 또 젓, 초신도.(또 저, 짚신도.)
106032 @ 예.(예.)
106032 #1 젓 북세기[180]가 이서. 북세기는 아주 깍 보벼근에 뭐ᄒᆞᆫ 거는 초신이고.(저 '북세기'가 있어. '북세기'는 아주 총을 비벼서 뭐한 거는 짚신이고.)
106032 @ 예.(예.)
106032 #1 북세긴 기자 깍 메면서 그대로 만든 게 북세기고.('북세긴' 그저 총을 매면서 그대로 만든 게 '북세기'고.)
106032 #2 그자 뭍데로 신엉 뎅기는 거. 엿날에 신이 원 엇이난게. 씨집갈 때는 막, 정성들영 만들안.(그저 뭍으로 신어서 다니는 거. 옛날에 신이 원 없으니까. 시집갈 때는 막, 정성들여서 만들었어.)
106032 #1 초신벳긔 엇어, 짚신.(짚신밖에 없어, 짚신.)

180) '북세기'는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총을 매면서 바로 만드는 짚신을 말한다.

106033 @ 게난 이제 초신에 데헹 다시 여쭤볼 거고예? 가죽신은 어떵 만들앗수과? 무신 걸로.(그러니 이제 짚신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 거고요? 가죽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걸로.)
106033 #1 가죽신은 저, 쉐가죽이나.(가죽신은 저, 소가죽이나.)
106033 @ 예.(예.)
106033 #2 쉐가죽벳긔 더 이서게.(소가죽밖에 더 있어?)
106033 #1 게 아니민 개가죽이나.(그렇지 않으면 개가죽이나.)
106033 @ 게, 거 만들 때 어떵 만들엇수과?(그래, 그거 만들 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33 #2 아이고, 그거 만드는 딘 저 때 몰르는디.(아이고, 그거 만드는 데는 저 그때 모르는데.)
106033 #1 야, 거 만드는 건 그거 거 만드는 거 다 ᄒᆞ젱 ᄒᆞ면은 쉐가죽 헹은에 그거 믄 저, 그 털 다 테와근에 그시렁 뭐 헤놩은에 그거 다루는 건 우리 다 설명 못허크라 거.(야, 거 만드는 건 그거 거 만드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소가죽 해서 그거 모두 저, 그 털 다 태워서 그을려서 뭐 해놓고 그거 다루는 건 우리 다 설명 못하겠어, 거.)
106033 @ 보긴, 직접 하긴 헤낫수과?(보기는, 직접 만들기는 했었습니까?)
106033 #1 어, 보긴 봐낫는디.(어, 보기는 봤었는데.)
106033 @ 예.(예.)
106033 #1 거 바짝 땡경은에.(그거 바짝 당겨서.)
106033 @ 예.(예.)
106033 #1 막 ᄆᆞᆯ류곡. 내중엔 막 쒜 뭣으로 헹은에 막 긁어놓곡, 긁어근에 그거 얇게 시리 ᄒᆞ주게.(막 말리고. 나중엔 막 쇠 뭣으로 해서 막 긁어놓고, 긁어서 그거 얇게끔 하지.)
106033 @ 예.(예.)
106033 #1 겨는디 아이고, 그거 힘들어.(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힘들어.)
106033 #2 근디 그때 그 무신 지름사 ᄇᆞᆯ르멍사 게신디 지름 ᄇᆞᆯ랑 헤 놧당, ᄒᆞ쏠 ᄆᆞ랑허민 ᄆᆞᆯ라가민 바짝 허주게.(그런데 그때 그 무슨 기름이야 바르면서 그랬는데 기름 발라서 해 놓았다가, 조금 말랑하면 말라가면 바짝 하지.)
105033 @ 음.(음.)
106033 #2 과즐ᄀᆞ찌 바짝 ᄒᆞ미는 그걸 다시 ᄆᆞᆯ르곡 헷주.(과줄처럼 바짝 하면 그걸 다시 마르고 했지.)
106033 #1 깅헤근에 ᄆᆞᆯ 타근에 ᄆᆞᆯ안장에 옆에 ᄆᆞᆯ돌레도 허곡.(그렇게 해서 말 타서 말안장에 옆에 말다래도 하고.)
106033 @ 음.(음.)
106033 #1 ᄆᆞᆯ안장에 거시기 우에도 씌우곡 게 경 헤난는디.(말안장에 거시기 위에도 씌우고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106033 @ 가죽신을 만들면 우리 신발모양, 지금처럼 신발모양은 낫수과? 아니면 버

선추룩 헷수과?(가죽신을 만들면 우리 신발모양, 지금처럼 신발모양은 났습니까? 아니면 버선처럼 했습니까?)
106033 #2 보손ᄀᆞ찌 만들아신지.(버선처럼 만들었는지.)
106033 #1 긴디 보손도 잇고.(그런데 버선도 있고.)
106033 @ 예.(예.)
106033 #1 가죽신은 거 이디서 못 만들아서.(가죽신은 그거 여기서 못 만들었어.)
106033 @ 가죽 보손은 신어낫고예?(가죽 버선은 신었었고요?)
106033 #1 보손은 경 헨에 보손 만들주게.(버선은 그렇게 해서 버선 만들지.)
106034 @ 나막신은 어떵 만들앗수과?(나막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34 #1 나막신은 남신이주게. 이디서 남신이엔 헷주.(나막신은 나무신이지. 여기서 나무신이라고 했지.)
106034 #2 나막신은 무신 낭으로 만드는 건고? 아무 낭이나 안 뒈어.(나막신은 무슨 나무로 만드는 거지? 아무 나무나 안 되어.)
106034 @ 예.(예.)
106034 #1 저 거시기, 에, 마주목.(저 거시기 에, 멀구슬나무.)
106034 @ 마주목마씨? 마주목이 마가목이꽈? 마가목이 마주목이꽈?(마주목이요? 마주목이 마가목입니까? 마가목이 마주목입니까?)
106034 #1 마주목이 이디서 ᄆᆞᆯ쿠실낭.(마주목이 여기서 멀구슬나무.)
106034 @ 아.(아.)
106034 #1 ᄆᆞᆯ쿠실낭이 마주목이주게.(멀구슬나무가 마주목이지.)
106034 @ 음.(음.)
106034 #1 말구술, 구술 주자.(멀구슬, 구슬 주자.)
106034 @ 예.(예.)
106034 #1 ᄆᆞᆯ 마자, 마주목.(말 마자, 마주목.)
106034 @ 마주목이엔 헷구나게.(마주목이라고 했구나.)
106034 #1 ᄆᆞᆯ쿠슬낭. 여기선 ᄆᆞᆯ쿠실낭이엔 허여.(멀구슬나무. 여기선 'ᄆᆞᆯ쿠실낭'이라고 해.)
106034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34 #2 나막신도 파는 어른이 잘 팟주. 아무나 파질 못헤여. 나막신두.(나막신도 파는 어른이 잘 팠지. 아무나 파질 못해. 나막신도.)
106034 @ 것도 신어낫수과?(것도 신었었습니까?)
106034 #1 난, 신어낫어. 나 만들어, 나도.(난, 신었었어. 나 만들어, 나도.)
106034 #2 나도 멘들어 ᄂᆞᆫ 거. 엿날에 비오곡 허민 초신만 신엉 뎅기민 옆집에 가젠 헤도 비가 좀 처 오면은 나막신 신엉 투박투박 걸엉 가나서.(나도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비오고 하면 짚신만 신어서 다니면 옆집에 가려고해도 비가 좀 처 오면 나막신 신어서 터벅터벅 걸어서 갔었어.)
106034 #1 난 나대로 그거 만들아낫어.(난 나대로 그거 만들었었어.)
106034 @ 경헤낫수과?(그랬었습니까?)

106034 #1 어.(어.)
106034 @ 막 발 아프지 안 헤마씸?(매우 발 아프지 안 해요?)
106034 #1 아니, 발 아니 아파 원. 발에 딱 맞촹 허민, 그거 신엉은에 막 뜀도 허는디.(아니, 발 아니 아파 원. 발에 딱 맞춰서 하면, 그거 신어서 막 뜀도 하는데.)
106034 #2 그 발에 맞춰 흔 집에 멧 흔 집에 ᄒᆞ나썩 신 집이가 베랑 엇어.(그 발에 맞춰서 한집에 몇 한집에 하나씩 있는 집이 별로 없어.)
106035 @ 그다음에는예? 아까 그 초신예?(그다음은요? 아까 그 짚신이요?)
106035 #1 음.(음.)
106035 @ 초신 만들 때 아까 잠깐 말씀헤주셧잖아예?(짚신 만들 때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잖아요?)
106035 #1 음.(음.)
106035 @ 한번만 더 ᄀᆞᆯ아줍서.(한번만 더 말해주십시오.)
106035 #2 거 곱게 만드는 건 깍 내는 거.(그거 곱게 만드는 건 총을 내는 거.)
106035 #1 초신은, 깍은.(짚신은, 총은.)
106035 @ 예.(예.)
106035 #1 저.(저.)
106035 #2 좀질허게 만드는 건 그 신사라도 좀 헤낫주.(아주 잘게 만드는 건 그 뉴질랜드삼도 좀 했었지.)
106035 #1 산듸, 산듸찍 잇자녀.(밭벼, 밭볏짚 있잖아.)
106035 @ 산듸찍, 예.(밭볏짚, 예.)
106035 #1 산듸찍 우에 그 이삭 달려난듸 잇지?(밭볏짚 위에 그 이삭 달렸던데 있지?)
106035 @ 예.(예.)
106035 #1 젤 윗부분만.(제일 윗부분만.)
106035 @ 예.(예.)
106035 #1 그것만 끈어가지고.(그것만 끊어가지고.)
106035 @ 예.(예.)
106035 #1 그걸 젯물에 솖앙.(그걸 잿물에 삶아.)
106035 @ 아. 솖앙.(아, 삶아.)
106035 #1 그걸 비벼서 깍을 만들어.(그걸 비벼서 총을 만들어.)
106035 @ 예.(예.)
106035 #1 신 옆에 이렇게 그 저 바위 부찌는 걸 그걸 만들아.(신 옆에 이렇게 그 저 가장자리에 붙이는 걸 그걸 만들어.)
106035 @ 예.(예.)
106035 #1 그거 만들앙, 그 다음엔 놀은 뭘로 하느냐면은 미[181], 저 억새.(그거 만들어서, 그 다음엔 날은 뭐로 하냐면 '미', 저 억새.)
106035 @ 예.(예.)

181) '미'는 참억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106035 #1 뻥이, 뻥이.(삘기, 삘기.)
106035 @ 예.(예.)
106035 #1 억새 뻥이 뽑아다가 물류면은, 그 거 잇잖아, 속엣 거 빼불미는.(억새 삘기 뽑아다가 말리면, 그 거 있잖아, 속엣 거 빼버리면.)
106035 @ 예.(예.)
106035 #1 이렇게 뭉크러진 거, 완전히 나온 거 ᄒᆞ민 안 뒈어.(이렇게 뭉크러진 거, 완전히 나온 거하면 안 되어.)
106035 @ 예.(예.)
106035 #1 나오는 거 빼어야 요게 굵을 거잖아?(나오는 거 뽑아야 요게 굵을 거잖아?)
106035 @ 예.(예.)
106035 #1 그걸 물려가지고 그 속을 빼어두고.(그걸 말려가지고 그 속을 뽑아두고.)
106035 @ 음.(음.)
106035 #1 그걸 가늘다랗게 이젠 찌어가지고 그걸로 노 꼰 것이 미라.(그걸 가느다랗게 이젠 찢어가지고 그걸로 노 꼰 것이 '미'야.)
106035 @ 아, 예.(아, 예.)
106035 #1 그걸로 헹은에 놀네영 찝으로.(그걸로 해서 날내서 짚으로.)
106035 @ 예.(예.)
106035 #1 산듸찍 젓, 두두려가지고 젓, 멍석이나 뭐 멕이나 절 때.(밭볏짚 저, 두드려가지고 저, 멍석이나 뭐 멱서리나 결 때.)
106035 @ 예.(예.)
106035 #1 이렇게 뚜두려 가지고 허잖아이. 그렇게 만들 듯 짚신 창을.(이렇게 뚜드려 가지고 하잖아. 그렇게 만들 듯 짚신 창을.)
106035 @ 예.(예.)
106035 #1 그걸로 만드는 거야. 깍을 옆에 부찌멍.(그걸로 만드는 거야. 총을 옆에 붙이면서.)
106035 #2 ᄒᆞ루 ᄒᆞᆫ 배 못 만들아. 경 곤 건. ᄒᆞ루 ᄒᆞᆫ번 못 만들아.(하루 한 배 못 만들아. 그렇게 고운 건. 하루 한번 못 만들어.)
106035 @ ᄒᆞ루 ᄒᆞᆫ 배 못 만들잖아예? 게민 그거는 신을 땐 얼만큼 신읍니까?(하루 한 켤레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을 땐 얼마동안 신습니까?)
106035 #2 아이구, 그거 일 년이나 아껑 신주.(아이고, 그거 일 년이나 아껴서 신지.)
106035 @ 예를 든다면 제주시 걸엉 갓다 왓다.(예를 든다면 제주시 걸어서 갔다가 왔다.)
106035 #1 걸엉 갓다 와도 그것.(걸어서 갔다 와도 그것.)
106035 #2 그럴 때, 걸엉 갈 때는 안 신어. 아까와근에.(그럴 때, 걸어서 갈 때는 안 신어. 아까워서.)
106035 @ 게민 뭘 신엇수과? 북신?(그러면 뭘 신었습니까? 북신?)
106035 #2 북데기. 으, 북데기 닮은 신 신엉 가주.(북데기. 응, 북데기 닮은 신 신어서

가지.)
106035 #1 가벼운 거.(가벼운 거.)
106035 @ 응.(응.)
106035 #2 게분 거 신주. 그런 신은 만들민 어디 시집가는 사름이나 그런 거 신주.(가벼운 것 신지. 그런 신은 만들면 어디 시집가는 사람이나 그런 것 신지.)
106035 #1 시집가는 사름들이나 그렇게 헹 만들앙 헹 좀 신주게.(시집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헤서 만들어서 해서 좀 신지.)
106035 #2 아무상 엇이 그런 초신 못 신어.(이유 없이 그런 짚신 못 신어.)
106035 @ 그렇구나예. 아까 그 초신에다가 아까 아무상 엇이 막 신는 걸 북신?(그렇군요. 아까 그 짚신에다가 아까 이유 없이 막 신는 걸 북신?)
106035 #1 어. 북데기. 북데기로 만든 거주. 북신, 북신.(어. 북데기. 북데기로 만든 거지. 북신, 북신.)
106035 #2 산듸찍 기자 턱턱 두두려근에 털어돈에 그걸로 헹 만드는 거주, 북신.(밭볏짚 그저 턱턱 두드려서 털어두고 그걸로 해서 만드는 거지, 북신.)
106035 #1 그걸로 깍도 네곡.(그걸로 총도 내고.)
106035 #2 초신은 제라헌 초신은 산듸찍 꼭대기옛 거 그거 뽑아넹 허곡.(짚신은 온전한 짚신은 밭볏짚 꼭대기엣 거 그거 뽑아내서 하고.)
106035 #1 그거 ᄒᆞ면은 씨집가는 사름도 그걸로 헹은에 고옵게 헤서 그거 신고 가낫어.(그거 하면 시집가는 사람도 그걸로 해서 곱게 해서 그거 신고 갔었어.)
106035 @ 맞수다.(맞습니다.)
106035 #1 나도 시집가는 누님 신을 거 삼아 드려낫는데.(나도 시집가는 누님 신을 것 삼아 드렸었는데.)
106035 @ 아이고,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모자

106037 @ 다음은 모자라예. 옛날 어른들 모자들은 어떤 걸 썻인고 헤가지고예? 거 여쭤보쿠다.(다음은 모자예요. 옛날 어른들 모자들은 어떤 걸 썼는지 해서요? 거 여쭤볼게요.)
106037 #1 모자?(모자?)
106037 @ 예. 모자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예. 모자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6037 #1 모자? 휘양.(모자? 휘양.)
106037 @ 휘양? 예.(휘양? 예.)
106037 #1 어, 저 상퉁이에 없는 거시기 헌 이렇게 쓰는 저 어린아이덜 거시기 휘양 모냥으로 쓰는 그게 하나의 우리 어린 때 그 모자엿고.(어, 저 상투에 없는 거시기 한 이렇게 쓰는 저 어린아이들 거시기 휘양 모양으로 쓰는 그게 하나의 우리 어린 때 그 모자였고.)

106037 @ 후양? 이름 뭐마씸?(후양? 뭐라고요?)
106037 #1 휘양.(휘양.)
106037 @ 휘양.(휘양.)
106037 @ 또 뭐 이섯수과? 모자 종류가, 휘양 잇엇고.(또 뭐 있었습니까? 모자 종류가, 휘양 있었고.)
106037 #1 휘양 말고는 가죽감티.(휘양 말고는 가죽감투.)
106037 @ 가죽감티예?(가죽감투요?)
106037 #1 어. 가죽으로 이렇게 헹은에 주엉은에 머리에 쓰는 거, 겨울에 거, 겨울 모저로.(어.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기워서 머리에 쓰는 거, 겨울에 거, 겨울 모자로.)
106037 @ 휘양은 여름 모저에 속허는 거꽈?(휘양은 여름 모자에 속하는 겁니까?)
106037 #1 휘양은 저, 천으로.(휘양은 저, 천으로.)
106037 @ 천으로?(천으로?)
106037 #1 어.(어.)
106037 @ 예, 거난 여름에?(예, 그러니까 여름에?)
106037 #1 무명이나 그걸로 헹은에.(무명이나 그걸로 해서.)
106037 #2 양반칩이나 허주 아무나 아녀.(양반집이나 하지 아무나 안 해.)
106037 @ 예.(예.)
106037 #1 그 안내 저 거시기 솜 놓고 헤가지고 이렇게 헤서 뒤에 쪼꼼 이 이런 뒤에 가려지게 만들언.(그 안내 저 거시기 솜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조금 이 이런 뒤에 가려지게 만들었어.)
106037 #2 겨울에 눈 온 때나 헤영 거 아무 집이나 경 멘들앙 쓰지 아녕, 그 시절엔.(겨울에 눈 온 때나 해서 거 아무 집이나 그렇게 만들어서 쓰지 않아, 그 시절에는.)
106037 #1 머리 우웨는 터저.(머리 위에는 터져.)
106037 @ 터정예?(터져서요?)
106037 #1 터진 **라.(터진 **라.)
106038 @ 여름 모자엔 어떤 것이 이섯수과?(여름 모자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6038 #1 여름 모저는 페렝이벳긘 더 이서?(여름 모자는 패랭이밖에 더 있어?)
106038 @ 페렝이예?(패랭이요?)
106038 #1 페렝이도.(패랭이도.)
106038 @ 예.(예.)
106038 #1 밀찝이나 보리찝으로 집에서 만들엇어.(밀짚이나 보릿짚으로 집에서 만들었어.)
106038 @ 예. 옛날엔 밀찝이나 보리찝을 찝이렌 헷수과? 찍이렌 헷수과?(예. 옛날엔 밀짚이나 보릿짚을 '찝'이라고 했습니까? '찍'이라고 했습니까?)
106038 #1,2 찍, 찍.('찍', '찍'.)
106038 @ 찍예?('찍'이요?)
106038 #1 찍.('찍'.)

106038 @ 그때도 페렝이는 페렝이렌 골앗수과?(그때도 패랭이는 패랭이라고 말했습니까?)
106038 #1 어, 페렝이.(어, 패랭이.)
106038 @ 아까 겨울 모저는?(아까 겨울 모자는?)
106038 #1 휘양.(휘양.)
106038 @ 휘양예? 휘양 하고.(휘양이요? 휘양 쓰고.)
106038 #1 거 집에서 하르버지덜이나 쓰는 모자주, 아무나 못썻어.(그거 집에서 할아버지들이나 쓰는 모자지, 아무나 못썼어.)
106038 #2 아무나 못썻어.(아무나 못썼어.)
106040 @ 양태는 뭐꽈? 양태.(양태는 뭡니까? 양태.)
106040 #2 양태가 뭣에 데헨 건고? 양태가. 이 제주도도 지방마다 다 틀리난에 말이 틀리난.(양태가 무엇에 대한 거지? 양태가. 이 제주도도 지방마다 다 다르니까 말이 다르니까.)
106040 @ 이걸 하젠 하면, 양태를 만들젠 하면 어떤 식으로?(이걸 하려고 하면, 양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106040 #2 양태면 저 거시기 말 아녀꽈양? 익자[182], 익자 만드는 듸 말 아닌가?(양태면 저 거시기 말 아닌가요? 익자, 익자 만드는 데 말 아닌가?)
106040 #1 양태는 양태엔 ᄒᆞ민 놀개 신 듸, 페렝이 모냥으로 무시거 이거 이신 건디 헌디.(양태는 양태라고 하면 날개 있는 데, 패랭이 모양으로 무엇 이거 있는 건데 한데.)
106040 #2 그런 건 어디 본 적 엇는디.(그런 건 어디 본 적 없는데.)
106040 @ 양태는, 모자 일단 직접 만들아 봣수과?(양태는, 모자 일단 직접 만들아 봤습니까?)
106040 #1 아니, 그런 거는. 그 웨로는 저 무시거 벙것, 털벙것이 이서, 털벙것. 건 비 올 때나 그런 때 쓰는 거.(아니, 그런 거는. 그 외로는 저 무엇 벙거지, 털벙거지가 있어, 털벙거지. 건 비 올 때나 그런 때 쓰는 거.)
106040 @ 예.(예.)
106040 #1 털페렝이 모냥으로.(털패랭이 모양으로.)
106040 @ 털페렝이 모냥으로예?(털패랭이 모양으로요?)
106040 #1 어, 털벙것.(어, 털벙거지.)
106041 @ 총모자는 뭐꽈? 총모자.(총모자는 뭡니까? 총모자.)
106041 #1어?(어?)
106041 @ 이거는 말 뭘로 만드는 것 닮은 디예? 총모자.(이거는 말 뭐로 만드는 것 닮은 데요? 총모자.)
106041 #1 총모저는 ᄆᆞᆯ총으로 만드는디 우린 ᄆᆞᆯ총으로 만든 모자 못 써봣어.(총모자는 말총으로 만드는데 우린 말총으로 만든 모자 못 써봤어.)
106042 @ 만드는 거도 안 봐보고예?(만드는 것도 안 봐보고요?)

182) '익자'는 사람이름이다.

106042 #1 어.(어.)
106042 @탕건은 만들아봣지예?(탕건은 만들어봤지요?)
106042 #1 탕건은 저 이디서.(탕건은 저 여기서.)
106042 #2 이 근처선 만드는 사름 엇엇어.(이 근처에서는 만드는 사람 없었어.)
106042 @ 엇엇어예.(없었어요.)
106042 #1 옛날에 우리 두린 때 누게 만들아낫젠 허는디 그다음엔 그런 거 못 보고, 저, 어디 제주시에 어디 한림[183] 이런 쪽에서 만들아가지고 우리 사오는 건 늘 봐낫주. 사당은에 그거 씀도 허고.(옛날에 우리 어린 때 누가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그다음엔 그런 거 못 보고, 저, 어디 제주시에 어디 한림 이런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오는 건 늘 봤었지. 사다가 그거 쓰기도 하고.)
106043 @ 그믄 탕건은 만드는 거 안 봐시민 망건도 마찬가지여예?(그러면 탕건은 만드는 거 안 보았으면 망건도 마찬가지네요?)
106043 #1 탕건이나 망건이나 마찬가지.(탕건이나 망건이나 마찬가지.)
106043 #2 안내 쓰고 벳긔듸 쓰는 거라.(안에 쓰고 밖에 쓰는 거야.)
106044 @ 비올 때 막 그 찍으로 짠 걸 뭐렌 골앗수과?(비올 때 막 그 짚으로 짠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44 #1,2 우장.(우장.)
106044 @ 우장 만드는 건 봣수과?(우장 만드는 건 봤습니까?)
106044 #1 어. 나도 만들아 봣어.(어, 나도 만들어 봤어.)
106044 @ 우장은 어떵 만들앗수과?(우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44 #1 새루.(띠로.)
106044 @ 새로예.(띠로요.)
106044 #1 새 헤당은에.(띠 해다가.)
106044 @ 예.(예.)
106044 #1 저 그 낭뎅이 짝 허게 그거 볼랑.(저 그 줄기 짝 하게 그거 발라내어.)
106044 @ 예.(예.)
106044 #1 이파리만 헤서.(잎만 해서.)
106044 @ 이파리렌 헷수과?('이파리'라고 했습니까?)
106044 #2 새 썹.('띠 잎'.)
106044 #1 새 썹.(띠 잎.)
106044 @ 예.(예.)
106044 #1 새 썹만 쭉 허게 모앙 그걸 ᄒᆞ나씩 요롱게 여끄면서.(띠 잎만 쭉 하게 모아서 그걸 하나씩 요렇게 엮으면서.)
106044 #2 여펴가는 거주, 여펴.(엮어가는 거지. 엮어.)
106044 #1 그걸 하나씩 요롱게 여끄면서 이어서 만드는 거주.(그걸 하나씩 요렇게 엮으면서 이어서 만드는 거지.)

183) 제주 제주시 한림읍 읍소재지를 말한다.

106044 @ 여끄는 걸 여핀다고 헷지예? 여펴근에예?(엮는 걸 '여핀'다고 했지요? 엮어서요?)
106044 #1 어, 여평 허는 거.(어, 엮어서 하는 거.)
106044 @ 그것도 짧은 거 잇고 긴 거 이신디예?(그것도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는데요?)
106044 #2 아, 겨난 그거 우장 만들젠 ᄒᆞ민 새가 존 거라사.(아, 그러니까 그거 우장 만들려고 하면 띠가 좋은 거라야.)
106044 #1 새 하영 들어.(띠 많이 들어.)
106044 #2 하영 들어. 존 거라사. 새 썹 가운디 ᄆᆞᆯ가리[184]가 시난, ᄆᆞᆯ가리 떼어비동 썹 만헐 거라부난.(많이 들어. 좋은 거라야. 띠 잎 가운데 나부랭이가 있으니까, 나부랭이를 떼어내고 잎 만할 거여서.)
106044 #1 ᄆᆞᆯ가리 그거 떼여동은에 허는 거난에.(나부랭이 그거 떼어내서 하는 거니까.)
106044 @ 음, 게 그거는.(음, 그래 그거는.)
106044 #1 새 좋은 거 헤야 헤. 긴 거.(띠 좋은 것 해야 해. 긴 것.)
106044 @ 그믄 새가 좋은 건데 다 말랏덴 헙니까? 봄에 싹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예?(그러면 띠가 좋은 건데 다 말랐다고 합니까? 봄에 싹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106044 #1 봄에 싹 아니, 가을 틀어근에 새 비여당.(봄에 싹 아니, 가을 들어서 띠 베다가.)
106044 #2 가을 틀어근엥 십이월 달 뒈사.(가을 들어 십이월 달 돼야.)
106044 @ 음.(음.)
106044 #2 첫눈 올 거리에 때 새 비주게. 눈 맞이멍 새 비는 거난.(첫눈 올 즈음에 때 띠 베지. 눈 맞으면서 띠 베는 거니까.)
106044 @ 음. 아, 기구나예.(음. 아, 그렇군요.)
106044 #2 응.(응.)
106044 #1 섣ᄃᆞᆯ에. 섣ᄃᆞᆯ 뒈사.(섣달에, 섣달 돼야.)
106044 @ 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106044 #1 어.(어.)
106044 @ 허당 보난 그만 세 신 확 지나부런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예.(하다가 보니까 그만 세 신 확 지나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6044 #1,2 예, 아이고.(예, 아이고.)

7. 식생활

밥과 국

184) '물가리'는 '물흐레기'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물흐레기'는 표준어 '나부랭이'에 대응한다.

107001 @ 이제부터는예? 밥헤 먹어난 거라예? 밥헤 먹어난 거에 데헤가지고 저기 말씀드리크라예?(이제부터는요? 밥해 먹었던 거예요? 밥해 먹었던 거에 대해가지고 저기 말씀드리겠어요?)
107001 #8 어, 밥헤 먹어난 거?(어, 밥해 먹었었던 거?)
107001 @ 예, 예. 옛날에 밥은 어떤 어떤 밥 이섯수과?(예, 예. 옛날에 밥은 어떤 어떤 밥 있었습니까?)
107001 #8 그때 보리쏠.(그때 보리쌀.)
107001 @ 예.(예.)
107001 #8 보리쏠.(보리쌀.)
107001 @ 보리밥 잇고.(보리밥 있고.)
107001 #8 보리밥.(보리밥.)
107001 @ 예, 그 다음엔?(예, 그 다음엔?)
107001 #8 보리밥 헤근엥에 그 거 먹곡.(보리밥 해서 그 거 먹고.)
107001 @ 예, 또 무신 밥 이섯수과?(예, 또 무슨 밥 있었습니까?)
107001 #8 또, 그땐 무신 큰쏠이 산듸, 산듸쏠이엔 헤여이.(또, 그땐 무슨 볍쌀이 밭벼, 밭벼쌀이라고 해.)
107001 @ 예.(예.)
107001 #8 이젠 나룩쏠이주마는, 엿날은 그 나룩쏠 이디 엇엉 산듸쏠이 곤밥.(이젠 볍쌀이지만, 옛날은 그 볍쌀이 여기 없어서 밭벼쌀이 흰밥.)
107001 @ 곤밥 말고 또 무신 밥이 이섯수과?(흰밥 말고 또 무슨 밥이 있었습니까?)
107001 #8 보보보리쏠, 조팝.(보보보리쌀, 조밥.)
107001 @ 조팝이 잇고 또?(조밥이 있고 또?)
107001 #8 희린조팝, 모인조팝. 또 모ᄆᆞᆯ, 모ᄆᆞᆯ팝은 안 헹 먹어. 모ᄆᆞᆯᄀᆞ루로 수제비 헤 먹는 거.(차조밥, 메조밥. 또 메밀, 메밀밥은 안 해서 먹었어. 메밀가루로 수제비 해 먹는 거.)
107001 @ 수제비헐 때는 또 물어볼 거라예.(수제비할 때는 또 물어볼 거예요.)
107001 #8 으.(응.)
107001 @ 밥 종류만 ᄀᆞᆯ아줍서. 보리밥 잇고, 곤밥 잇고.(밥 종류만 말해주세요. 보리밥 있고, 흰밥 있고.)
107001 #8 으.(응.)
107001 @ 조팝 잇고.(조밥 있고.)
107001 #8 으.(응.)
107001 @ 흐린 조팝 잇고.(차조밥 있고.)
107001 #8 으.(응.)
107001 @ 또 뭐 이섯수과.(또 뭐 있었습니까?)
107001 #8 뭐, 거벳긔 엇엇어.(거밖에 없었어.)
107001 #8 늬젱이 조팝.(나깨 조밥.)

107002 @ 밥을 헤먹을 때 쏠 종류는 뭐 뭐 이섯수과? 보리쏠 이섯고, 아까 나룩 말고 산듸 이섯고, 또.(밥을 해먹을 때 쌀 종류는 뭐 뭐 있었습니까? 보리쌀 있었고, 아까 벼 말고 밭벼 있었고, 또.)
107002 #8 어, 어. 산듸쏠. 부젯칩이벳긔 산듸쏠 엇엇어.(어, 어. 밭벼쌀. 부잣집밖에 밭벼쌀 없었어.)
107002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02 #8 보리쏠만, 이 여름엔 여름엔 보리쏠만 헤영 먹곡.(보리쌀만, 이 여름에는 여름에는 보리쌀만 해서 먹고.)
107002 @ 먹곡예.(먹고요.)
107002 #8 겨울엔 또 조 갈앙.(겨울엔 또 조 갈아서.)
107002 @ 예, 예.(예, 예.)
107002 #8 희린좁쏠도 잘 엇인 모윈조팝, 모윈좁쏠 밥만 그거 헹 먹곡.(차조도 잘 없는 메조밥, 메조로 밥만 그거 해서 먹고.)
107002 @ 예, 예.(예, 예.)
107002 #8 밥 종룬 그거 뿐.(밥 종류는 그것 뿐.)
107003 @ 예, 알앗수다. 맞수다. 게믄예, 보리밥은 어떵 헷수과? 보리밥 헐 땐?(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다. 그러면요, 보리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밥 할 때는?)
107003 #8 보리밥, 보리쏠 낭푼에 흔 멧 낭푼에 놔근에.(보리밥, 보리쌀 양푼에 한 몇 양푼에 넣어서.)
107003 @ 예.(예.)
107003 #8 싯거근엥에 놩 학생덜 흔 저 막 일칙 헤영 그걸 낭불 땡 솖당 봐도 그디 뭐 서끌 것이 엇이난.(씻어서 넣어서 학생들 한 저 막 일찍 해서 그걸 나무불 때서 삶다 봐도 거기 뭐 섞을 것이 없으니까.)
107003 @ 예.(예.)
107003 #8 보리쏠만.(보리쌀만.)
107003 @ 예, 예예.(예, 예예.)
107003 #8 보리쏠만 우리 먹엇어.(보리쌀만 우리 먹었어.)
107003 @ 보리쏠만.(보리쌀만.)
107003 #8 보리쏠만 허민 학생덜 거렁 주젠허민 다르르허게시리게 밥이 뒐 거라?(보리쌀만 하면 학생들 떠서 주려하면 다르르하게 밥이 될 거야?)
107003 @ 예.(예.)
107003 #8 보리쏠만이난.(보리쌀만이니까.)
107003 @ 예, 예예.(예, 예예.)
107003 #8 게난 그것만 헤영 먹엉 살곡. 겨울에 또 보리쏠 엇어. 다 먹어비영.(그러니 그것만 해서 먹어서 살고. 겨울에 또 보리쌀 없어. 다 먹어버려서.)
107003 @ 예.(예.)
107003 #8 게민 또 좁쏠.(그러면 또 좁쌀.)

107003 @ 조팝은 또 나중에 물어보쿠다예?(조밥은 또 나중에 물어 볼게요?)
107003 #8 어.(어.)
107004 @ 그다음엔예, 반지기밥은 무시거꽈?(그다음은요, 반지기는 뭡니까?)
107004 #8 반지기밥?(반지기?)
107004 @ 예.(예.)
107004 #8 반지기밥, 산듸쏠에 보리쏠에 서껑, 그 부젯칩 사름이나 그거 영 반지기밥은 서꺼근에 헹 먹는 거.(반지기, 밭벼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그 부잣집 사람이나 그거 이렇게 반지기는 섞어서 해서 먹는 거.)
107005 @ 그다음은 곤밥은마씨?(그다음은 흰밥은요?)
107005 #8 곤밥은 그거 그 산듸쏠이 곤밥.(흰밥은 그거 그 밭벼쌀이 흰밥.)
107006 @ 조팝은 어떵 헷수과?(조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7006 #8 조팝은 모인좁쏠 살락헌 거, 희린좁쏠은 찰찰 흐리지이.(조밥은 메좁쌀 메인 거, 차조는 찰찰 차지지.)
107006 @ 예, 예.(예, 예.)
107006 #8 게난 그거 두 가지 조.(그러니 그거 두 가지 조.)
107006 @ 두 가지 조.(두 가지 조.)
107006 #8 모인조, 흐린조, 산듸 산듸도 갈앙.(메조, 차조, 밭벼 밭벼도 갈아서.)
107006 @ 예.(예.)
107006 #8 산듸도 갈앙 그 곤쏠은 제서 때나.(밭벼도 갈아서 그 흰쌀은 제사 때나.)
107006 @ 예, 예예.(예, 예예.)
107006 #8 그거 곤밥헹 먹주 미신 메 때 서껑 먹을 것이 엇어.(그거 흰밥해서 먹지 무슨 매 때 섞어 먹을 것이 없어.)
107007 @ 맞수다. 혹시 픗밥도 이수과? 픗밥.(맞습니다. 혹시 팥밥도 있습니까? 팥밥.)
107007 #8 어?(어?)
107007 @ 픗으로 하는 밥 픗밥. 픗은 언제 놩 밥헤 먹엇수과? 픗밥, 픗, 픗.(팥으로 하는 밥 팥밥. 팥은 언제 넣어 밥해 먹었습니까? 팥밥, 팥, 팥.)
107007 #8 픗?
107007 @ 예.(예.)
107007 #8 아, 픗도 그땐 막 어려운 시절이난 아무나 갈지 아녀.(아, 팥도 그땐 막 어려운 시절이어서 아무나 갈지 않아.)
107007 @ 갈지 아녀?(갈지 않아?)
107007 #8 막 땅이 한 사름만.(매우 땅이 많은 사람만.)
107007 @ 예.(예.)
107007 #8 픗 갈앗당은엥에 겨을에. 가을 땐 그거 장만헤영, 죽도 썽 먹곡, 제서 때에.(팥 갈았다가 겨울에. 가을 땐 그거 장만해서, 죽도 써서 먹고, 제사 때에.)
107001 #9 음, 픗이렌 골지 말고 그 때 이름을 말혀. 돔비, 돔비라고 헤가지고.(음, 팥

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때 이름을 말해. 동부, 동부라고 해가지고.)
107001 @ 돔비로?(동부로?)
107001 #9 음, 돔비.(음, 동부.)
107001 #8 겨난 저, 제서 때나 솖앙, 쉬허젠 아꼉 먹질 아녀. 하도 어려운 때라놓난.(그러니 저, 제사 때나 삶아서, 소하려고 아껴서 먹질 않아. 하도 어려운 때여서.)
107008 @ 게민예 피밥은 헹 먹엇수과?(그러면요 피밥은 해서 먹었습니까?)
107008 #8 아, 피. 피밥은 엿날에 그 저 조 갈 때 여름에 이디 물 아지민 조가 녹아 비어.(아, 피. 피밥은 옛날에 그 저 조 갈 때 여름에 여기 물 고이면 조가 녹아버려.)
107008 @ 예, 예.(예, 예.)
107008 #8 게민 피씨를 이레 삐어.(그러면 피씨를 이리로 뿌려.)
107008 @ 예.(예.)
107008 #8 경허민 피가 그레 조영 ᄀᆞ찌 빌 땐 ᄀᆞ찌 비어.(그러면 피가 거기에 조하고 같이 벨 땐 같이 베어.)
107008 @ 아.(아.)
107008 #8 이디 물 ᄀᆞᆯ라불민 조가 안 뒈어.(여기 물 고이면 조가 안 되어.)
107008 #9 좁쏠은 노랗고 피는 하양허여.(좁쌀은 노랗고 피는 하얘.)
107008 @ 그때도 피렌 ᄀᆞᆯ앗수과.(그때도 피라고 말했습니까?)
107008 #8 으. 피, 피.(응. 피, 피.)
107008 @ 게난 피밥?(그러니 피밥?)
107008 #8 으, 피밥.(응, 피밥.)
107008 @ 기냥 피밥예?(그냥 피밥이요?)
107008 #9 피밥은 하양허여.(피밥은 하얘.)
107009 @ 게민 감저밥은 뭐꽈?(그러면 고구마밥은 뭡니까?)
107009 #8 아, 감저. 고구마, 고구마 그땐 대충 고구마, 그 좁쏠에 고구마 하영.(아,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그땐 대충 고구마, 그 좁쌀에 고구마 많이.)
107009 @ 감저, 감저 옛날말로 ᄀᆞᆯ아줍서예.(‘감저’, ‘감저’ 옛날말로 말해주세요.)
107009 #8 어, 감저. 엿날엔 밧 두 개썩 놓아. 꿀 기창.(어, 고구마. 옛날엔 밭 두 개씩 놓아. 줄기 잘라서.)
107009 @ 예.(예.)
107009 #8 경ᄒᆞ민 그 땅 파근엥에 그 감저 묻엇당.(그러면 그 땅 파서 그 고구마 묻어두었다가)
107009 @ 예, 예.(예, 예.)
107009 #8 그거 파네영, 밥 헐 땐 싯엉, 솟듸다 썰어 놩 궤영 익으민 좁쏠 놔근엥에 밥 헤여.(그거 파내서, 밥 할 땐 씻어서, 솥에다 썰어 넣어서 끓어서 익으면 좁쌀 넣어서 밥 해.)
107009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7009 #8 어, 경 헹 감저에 좁쏠에 서껑은엥에 밥 뒈주게.(어, 그렇게 해서 감저에

좁쌀에 섞어서 밥 되지.)
107010 @ 경헷구나예? 놈삐 썰어놩 놈삐밥도 헤낫수과?(그랬었군요? 무 썰어 넣어서 무밥도 했었습니까?)
107010 #8 놈삔 겨울에 국 끌려먹어.(무는 겨울에 국 끓여먹어.)
107010 @ 국만 끌려먹엇수과?(국만 끓여먹었습니까?)
107010 #8 으.(응.)
107010 @ 쏠에 서꺼 먹진 안 헷수과?(쌀에 섞어 먹진 안 했습니까?)
107010 #8 서꺼 먹진 안 헤낫어. 놈삐에 서꺼 먹진 안 헤낫어, 우리 대엔.(섞어 먹진 안 했었어. 무에 섞어 먹진 안 했었어, 우리 시대엔.)
107011 @ 아까, 저 갯그시서 말헐 때 저 톨 헤다근에.(아까, 저 바닷가에서 말할 때 저 톳 해다가.)
107011 #8 아, 톨.(아, 톳.)
107011 @ 톨로 헌 밥은 뭐렌 골앗수과?(톳으로 한 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11 #8 톨밥, 톨밥.(톳밥, 톳밥.)
107011 @ 예,(예.)
107011 #8 그때 우리 대엔 톨밥을 아이 먹엇는디.(그때 우리 시대엔 톳밥을 아니 먹었는데.)
107011 @ 예.(예.)
107011 #8 우리 웃대 어른덜.(우리 윗대 어른들.)
107011 @ 예.(예.)
107011 #8 얼마나 힘들어시코이?(얼마나 힘들었을까?)
107011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11 #8 톨밥, 우린 톨밥 안 먹어 봔. 우리 대엔.(톳밥, 우린 톳밥 안 먹어 봤어. 우리 시대엔.)
107011 @ 안 먹어 봣수과?(안 먹어 봤습니까?)
107011 #8 우리 대엔.(우리 시대에는.)
107011 @ 기꽈?(그래요?)
107011 #8 게난 우리 웃대에 톨밥을 먹엇주.(그러니까 우리 윗대에 톳밥을 먹었지.)
107011 @ 톨밥은 어떵 헙니까?(톳밥은 어떻게 짓습니까?)
107011 #8 톨밥은?(톳밥은?)
107011 @ 예.(예.)
107011 #8 그 톨 영 널엉낫당, 널엉 나두민 발강허게 헤옇게 발아.(그 톳 이렇게 널어놓았다가, 널어서 놓아두면 발갛게 허옇게 발아.)
107011 @ 예.(예.)
107011 #8 게민 깨끗헤여. 경ᄒᆞ민 그거 영 썰어근엥에 솟듸 놩 궤민.(그러면 깨끗해. 그러면 그거 이렇게 썰어서 솥에 넣어 끓으면.)
107011 @ 예.(예.)

107011 #8 아마도 그 좁쏠을 또 놓앙 영영 헹 물 맞촹 밥을 만드는 셍이라, 할망덜.(아마도 그 좁쌀을 또 놓아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물 맞춰서 밥을 만드는 모양이이야, 할머니들.)
107011 @ 예.(예.)
107011 #8 겡 헨, 할망덜. 우리 대엔 톨밥이 것가 엇엇는디 엿날 우리 웃대에 경 헨 먹언 살앗어.(그렇게 했어, 할머니들. 우리 시대엔 톳밥이 그것이 없었는데 옛날 우리 윗대에 그렇게 해서 먹어서 살았어.)
107011 @ 기꽈?(그래요?)
107011 #8 어.(어.)
107012 @ 게민 패밥은 무시거꽈? 패밥.(그러면 패밥은 무엇입니까? 패밥.)
107012 #8 무시거?(뭐?)
107012 @ 패.(패.)
107012 #8 아, 패? 팬 뭇 거, 밧듸 뭇 줏어다근엥에.(아, 패? 패는 무릇 그거, 밭에 무릇 주어다가.)
107012 @ 예.(예.)
107012 #8 줏어다근엥에 이 장마 때.(주어다가 이 장마 때.)
107012 @ 예.(예.)
107012 #8 밧 갈아근엥에 비 오라나사 요만썩 요만썩 헌 것가 막 헤영게 밧듸 이서.(밭 갈아다가 비 와나야 요만씩 요만씩 한 것이 막 하얗게 밭에 있어.)
107012 @ 예.(예.)
107012 #8 겐 그거 줏어 오민, 요 꼭지게 똑똑 쫄라당 곱닥허게 이제 냇가에 강 씻어당은엥에 요추륵 항에 막 담아 놩.(그렇게 그거 주워 오면, 요 꼭지 똑똑 잘라다가 곱게 이제 냇가에 가서 씻어다가 요처럼 항아리에 막 담아 넣어.)
107012 @ 예.(예.)
107012 #8 바당에 패 놔.(바다의 패를 넣어.)
107012 @ 예.(예.)
107012 #8 게민 패 막 씻어근엥에 그 바글바글 경ᄒᆞ민 이디 그 저 ᄀᆞ스락.(그러면 패 마구 씻어서 그 바글바글 그러면 여기 그 저 까끄라기.)
107012 @ 예.(예.)
107012 #8 보리 장만헤난 거 담앙 놧당, 이디 불살랑ᄒᆞ민, 이것가 그 저 뭇, 겨민 이추룩 이디서 구어.(보리 장만했던 거 담아서 넣었다가, 여기 불사르면, 이것이 그 저 무릇, 그러면 이처럼 여기서 구워.)
107012 @ 뭇?(무릇?)
107012 #8 뭇, 뭇 뭇.(무릇, 무릇 무릇.)
107012 @ 예.(예.)
107012 #8 밧듸 강 줏어당.(밭에 가서 주워다가.)
107012 @ 예, 줏어당.(예, 주워다가.)

107012 #8 게난 난 아녀 반디, 우리 어머니덜.(그러니까 난 안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들.)
107012 @ 예.(예.)
107012 #8 어머닌 그거 몬딱 헤서.(어머닌 그거 모두 했어.)
107012 @ 예.(예.)
107012 #8 경허민 게난 그거.(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107012 @ 게, 뭇. 뭇에다가 패 놔근에 끌렷수과?(그래, 무릇. 무릇에다가 패 넣어서 끓였습니까?)
107012 #8 으, 으. 바글바글 헤영 궤 가민 그 바당에 패 메당, 씻엉 혼 불 영 논 건 버려동.(으, 으. 바글바글 해서 끓어 가면 그 바다에 패 캐다가, 씻어서 한 벌 이렇게 넣은 건 버려두고.)
107012 @ 예.(예.)
107012 #8 또 씻엉 이제 또로 또 놓앙, 그거 먹곡, 그거 익으민 거 걷엉 먹어.(또 씻어서 이제 다시 또 놓아서, 그거 먹고, 그거 익으면 거 걷어서 먹었어.)
107012 @ 아.(아.)
107012 #8 또 이제 또 다음 또 패 쓰당 세 번 놓민 이디 뭇이 익어.(또 이제 또 다음 또 패를 쓰다가 세 번 놓으면 여기 무릇이 익어.)
107012 @ 익어, 아.(익어, 아.)
107012 #8 또 패 세 번을 골아.(또 패 세 번을 갈아.)
107012 @ 갈아, 아.(갈아, 아.)
107012 #8 쳇 번 건 버려불곡, 두 번차 거 먹곡 세 번차 것도 먹곡, 그다음 아렌 뭇이 그땐 익어.(첫 번 건 버려버리고, 두 번째 건 먹고 세 번차 것도 먹고, 그다음 아래 무릇이 그땐 익어.)
107012 @ 예.(예.)
107012 #8 이디 영 헤영 불살라.(여기 이렇게 해서 불사르지.)
107012 @ 예.(예.)
107012 #8 불살랑, 예를 들어서 이거 항이민 여기 놀 거주.(불살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항아리면 여기 놓을 거지.)
107012 @ 예, 예.(예, 예.)
107012 #8 경ᄒᆞ민 난 그거 아녀 밧는디.(그러면 난 그거 안 해봤는데.)
107012 @ 예.(예.)
107012 #8 어머니덜은 그거 헷어, 어머니덜.(어머니들은 그거 했어, 어머니들.)
107012 @ 예. 경헷수나예?(예, 그랬었군요.)
107012 #8 어.(어.)
107013 @ 그 다음엔 국에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그 다음엔 국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7013 #8 국? 국은 베추나 썰어 놓곡, 뒌장.(국? 국은 배추나 썰어 놓고, 된장.)

107013 @ 옛날엔 베추렌 안 헷지예?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에는 배추라고 안 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13 #8 ᄂᆞᄆᆞᆯ, ᄂᆞᄆᆞᆯ.(나물, 나물.)
107013 @ ᄂᆞᄆᆞᆯ국예?(나물국이요?)
107013 #8 어, ᄂᆞᄆᆞᆯ쿡.(어, 나물국.)
107013 @ 예.(예.)
107013 #8 겡 헹 국 끌려.(그렇게 해서 국 끓였어.)
107013 @ 다른 국은?(다른 국은?)
107013 #8 다른 국은, 저 또 메역 철나민, 바닷가에 강 메역 ᄌᆞ물아다근에 거 뿔앙 썰어 놩, 또 메역국.(다른 국은, 저 또 미역 철나면, 바닷가에 가서 미역 캐다가 그거 빨아서 썰어 넣어, 또 미역국.)
107013 @ 메역국 잇고예.(미역국 있고요.)
107013 #8 메역국 낄령, 그자 그것에 먹주. 반찬이 어디 서? 반찬.(미역국 끓여서, 그저 그것에 먹지. 반찬이 어디 있어? 반찬.)
107014 @ ᄂᆞᄆᆞᆯ쿡 끌릴 때 어떵 끌렷수과?(나물국 끓일 때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4 #8 ᄂᆞᄆᆞᆯ쿡?(나물국?)
107014 @ 예.(예.)
107014 #8 ᄂᆞᄆᆞᆯ 씻어다근엥에.(나물 씻어다가.)
107014 @ 예.(예.)
107014 #8 궤민, 예를 들어서 이거 솟이민 이레 놓곡, 저 뭰장이나 간장이나 이래 타 놩.(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솥이면 이리 넣고, 저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리 타 넣어.)
107014 @ 타 놩.(타 넣어.)
107014 #8 겡 형, 간 맞촹. 겡 형 또 궤영, ᄂᆞᄆᆞᆯ이나 ᄂᆞᆷ삐나 익으민 거 국 뒈는 거.(그렇게 해서, 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또 끓으면, 나물이나 무나 익으면 거 국 되는 거.)
107015 @ 게난. 콩나물국도 끌령 먹어봣수과?(그러니. 콩나물국도 끓여서 먹어보셨습니까?)
107015 #8 아이고, 그때 콩ᄂᆞᄆᆞᆯ, 제서 때나 콩ᄂᆞᄆᆞᆯ 먹주. 기자 때 콩ᄂᆞᄆᆞᆯ 먹을 수가 엇엇주. 그 시절에.(아이고, 그때 콩나물, 제사 때나 콩나물 먹지. 그저 때 콩나물 먹을 수가 없었지. 그 시절에.)
107016 @ 아까 그 뭇 세 번 헤근에 마지막엔 먹엇덴 헷잖아예?(아까 그 무릇 세 번 해서 마지막엔 먹었다고 했잖아요?)
107016 #8 으.(응.)
107016 @ 뭇은 국은 안 끌려 먹엇수과?(무릇은 국은 안 끓여 먹었습니까?)
107016 #8 아니, 아니. 먹지 못허는 거.(아니, 아니. 먹지 못하는 거.)
107016 @ 그건 먹지 못허는 거.(그건 먹지 못하는 거.)
107016 #8 아이구, 건 못 먹는 거. 경 세 번은 헤영 그 팰 ᄀᆞᆯ아놔사 이디 뭇이 먹주.

독헤근엥에 먹지 못허는 거.(아이고, 그건 못 먹는 거. 그렇게 세 번은 해서 그 패를 갈아 넣어야 여기 무릇을 먹지. 독해서 먹지 못하는 거.)
107016 @ 놈삐국은 어떵 끌령 먹엇수과?(무국은 어떻게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16 #8 아, 놈삔게 놈삔 밧듸, 이 땅에 갈앗당은에 놈삐 메영 싯거근엥에, 게, 영영 썰어근엥에.(아, 무는 무는 밭에, 이 땅에 갈았다가 무 뽑아서 씻어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107016 @ 뒌장에?(된장에?)
107016 #8 뒌장 이추룩 카 놓곡 헤영, 영 썰어 놩, 놈삐 익으민 국 간 맞게 헤영 국 뒈는 거.(된장 이처럼 타 넣고 해서, 이렇게 썰어 넣어, 무 익으면 국 간 맞게 해서 국 되는 거지.)
107016 @ 옛날엔 뒌장국 끌릴 때 ᄂᆞᄆᆞᆯ국에다가, 놈삐국 끌릴 때.(옛날엔 된장국 끌릴 때 나물국에다, 무국 끓일 때.)
107016 #8 응.(응.)
107016 @ 이제는 멜치라도 놩.(이제는 멸치라도 넣어서.)
107016 #8 아이고, 메리치가 어디 서? 메리치가.(아이고, 멸치가 어디 있어? 멸치가.)
107016 @ 아, 아.(아, 아.)
107016 #8 이제사 메리치 육지 가민, 이 제주도도 메리치 안 나.(이제야 멸치 육지 가면, 이 제주도도 멸치 안 나지.)
107017 @ 콩국 끌릴 땐 어떵 헷수과?(콩국 끓일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7017 #8 어떵?(어떻게?)
107017 @ 콩국 끌릴 때.(콩국 끓일 때.)
107017 #8 콩국?(콩국?)
107017 @ 예.(예.)
107017 #8 아, 콩국 끌릴 때엔 언물에서 그 콩ᄀᆞ룰 낭푼에서 탕.(아, 콩국 끓일 때엔 찬물에서 그 콩가루를 양푼에서 타서.)
107017 @ 예.(예.)
107017 #8 이거 솟이민 이 물을 끌릴 거 아냐?(이거 솥이면 이 물을 끓일 거 아냐?)
107017 @ 예.(예.)
107017 #8 끌리민 영 이리 비와근엥에 젓지도 아녜사.(끓으면 이렇게 이리 부어서 젓지도 않아야.)
107017 @ 예.(예.)
107017 #8 ᄀᆞ만히 비와근엥에 그대로 불 막 족게 영 놓민, 우의 두부 ᄀᆞ찌 뒈여.(가만히 부어서 그대로 불 매우 작게 이렇게 놓으면, 위에 두부처럼 되지.)
107017 @ 예.(예.)
107017 #8 경ᄒᆞ민 이거 두부 이거 막 오래 딸려야 돼.(그러면 이거 두부 이거 매우 오래 다려야 돼.)
107017 @ 예.(예.)

107017 #8 콩국은.(콩국은.)
107017 @ 예.(예.)
107017 #8 이제 경 국 거, 다 딸려지민 요레 베추나 늠삐나 흔 짝더레.(이제 그렇게 국 그거, 다 다려지면 여기에 배추나 무나 한 쪽으로.)
107017 @ 예.(예.)
107017 #8 톡톡 놓아근엥에 그 늠삐 익으민 콩국이 뒈여.(톡톡 넣어서 그 무 익으면 콩국이 돼.)
107017 @ 예.(예.)
107017 #8 경ᄒᆞ민 그때, 이제 ᄀᆞ뜨민 엿날에 국자라이.(그러면 그때, 이제 같으면 옛날에 국자야.)
107017 @ 예, 예.(예, 예.)
107017 #8 이젠 삭구[185], 다 걸이는 거 나오주마는 것가 어디 서, 낭국자.(이젠 국자, 다 뜨는 거 나오지만 그것이 어디 있어, 나무국자.)
107107 @ 예.(예.)
107017 #8 낭으로 영 헹 만들앙, 영 헹 영 사발러레 거려 놩 그때 막 밥 먹을 때, 아이고.(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발에 떠 놓아서 그때 막 밥 먹을 때, 아이고.)
107018 @ 호박입국은 어떵 헷수과?(호박잎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07018 #8 호박입? 호박입국은 튿아당 그 씰 영영영 베껴베동.(호박잎? 호박잎국은 뜯어다가 그 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벗겨버리고.)
107018 @ 예.(예.)
107018 #8 물에 놩 우터레 서도 싯그지 아녀, 영 판찍 싯거동 물에서 복 복, 복 복, 이렇게 모지려 영. 이대로 영영영 모지렁.(물에 넣어서 위에 있어도 씻지 않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두고 물에서 복 복, 복 복, 이렇게 무질러서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무질러서.)
107018 @ 예, 호박썹을?(예, 호박잎을?)
107018 #8 으, 으. 호박썹을.(응, 응. 호박잎을.)
107018 @ 썹 튿아당.(잎 뜯어다가.)
107018 #8 경 헹 ᄆᆞ지렁 솟드레 영 놓아근엥에 놓앙, 호박썹은 익으민 그레 ᄀᆞ루 또 영 타근엥에 또 이레 비와야.(그렇게 해서 무질러서 솥에 이렇게 넣어서 넣어, 호박잎은 익으면 거기에 가루 또 이렇게 타서 또 여기에 부어야.)
107018 @ 밀ᄀᆞ루마씨?(밀가루요?)
107018 #8 어, 밀ᄀᆞ루. 그땐 밀ᄀᆞ루도 젱ᄀᆞ레에, 이젠 웨 밀ᄏᆞ루도 시장, 마트에 가민 막 천지. 그땐 그것도 엇어, 정ᄀᆞ레에 영 골아사 ᄀᆞ루가 나올 거 아니? 밀.(어, 밀가루. 그땐 밀가루도 풀맷돌에, 이젠 외국 밀가루도 시장, 마트에 가면 막 천지. 그땐 그것도

185) '삭구'는 일본어 'しゃくし'를 말하는데 표준어 '국자'에 대응한다.

없어, 풀맷돌에 이렇게 갈아야 가루가 나올 거 아니? 밀.)
107018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18 #8 경허민 그거에 체로 쳐근엥에 이디 우읫 건 버려도 이디 ᄀᆞ루 앚졍. 거 아무집이나 그것도 엇엇어.(그러면 그것에 체로 쳐서 여기 위 건 버려도 여기 가루 앉혀서. 그거 아무집이나 그것도 없었어.)
107018 @ 음.(음.)
107018 #8 막 얼마나 힘들게 우리 웃대에 살아서. 우리 웃대. 나 대에 ᄁᆞ진 궨치아년디.(막 얼마나 힘들게 우리 윗대에 살았어. 우리 윗대. 내 시대에 까진 괜찮은데.)
107018 @ 예.(예.)
107018 #8 그 보리쏠만 먹어도.(그 보리쌀만 먹어도.)
107018 @ 예.(예.)
107018 #8 보리쏠만 먹어도 궨치아녀는디, 우리 어머니네 대에 우리도 할마니네 대에 ᄁᆞ장은 웬간이 힘들엇주 살기가.(보리쌀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니네 대에 우리도 할머니네 대에 까지는 어지간히 힘들었지 살기가.)
107019 @ 몰망국은 어떵 끌렷수과?(모자반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9 #8 몰망국?(모자반국?)
107019 @ 예.(예.)
107019 #8 몰망, 바닷가에 이제 아무데나 엇어. 거 몰망도 나는 듸만.(모자반, 바닷가에 이제 아무 데나 없어. 그거 모자반도 나는 데만.)
107019 @ 예.(예.)
107019 #8 바닷가에 나는 듸만.(바닷가에 나는 데만.)
107019 @ 예.(예.)
107019 #8 거 우리 거 오늘 그 저 바닷가 ᄒᆞ는 딘 몰망 안 나.(그 우리 그 오늘 그 저 바닷가 하는 데는 모자반 안 나와.)
107019 @ 안 나.(안 나와.)
107019 #8 요쪽으로만 거 나민, 똑 것도 겨울에만 나이. 겨울에 몰망.(요쪽으로만 그거 나오면, 꼭 그것도 겨울에만 나지. 겨울에 모자반.)
107019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19 #8 우터레 민짝ᄒᆞ민 그거 막 비어당. 그때 영영 속곳만 입엉 강 ᄌᆞ물 때라. 그 몰망 ᄌᆞ물 땐.(위쪽에 밋밋하면 그거 마구 베어다가. 그때 이렇게이렇게 속곳만 입어서 가서 캘 때라. 그 모자반 캘 때는.)
107019 @ 소중의, 속곳 소중의.('소중의', 속곳 '소중의'.)
107019 #8 어, 소중의[186] 소중의.(어, '소중의', '소중의'.)
107019 @ 예.(예.)
107019 #8 소중의만 입엉, 그거 몰망 ᄌᆞ물아다근에 널엉 놧당 몰루민 또 씻거.('소중의'만 입어서, 그거 모자반 캐다가 널어서 놓았다가 마르면 또 씻어.)

186) '소중의'는 물질할 때 잠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107019 @ 예.(예.)
107019 #8 판칙 뿔아.(깨끗이 빨아.)
107019 @ 예.(예.)
107019 #8 뿔아근엥에 썰엉 국 끌령 먹는 거.(빨아서 썰어서 국 끓여서 먹는 거지.)
107019 @ 물망국엔 뭐 뭐 놩 헷수과?(모자반국엔 뭐 뭐 넣어서 했습니까?)
107019 #8 ᄀᆞ루, ᄀᆞ루.(가루, 가루.)
107019 @ 것도 ᄀᆞ루.(그것도 가루.)
107019 #8 ᄀᆞ루, ᄀᆞ루. ᄀᆞ루 서꺼야 것두.(가루, 가루. 가루 섞어야 그것도.)
107019 @ 음.(음.)
107019 #8 기잔 못 먹어. 찌르륵탁[187] 헹은에 맛이 엇어.(그저는 못 먹어. '찌르륵탁' 해서 맛이 없어.)
107020 @ 게민 그다음엔예.(그러면 그다음은요.)
107020 #8 으.(응.)
107020 @ 물궤기, 궤기들은 무시걸로 국 끌려낫수과?(물고기, 고기들은 무엇으로 국 끓였었습니까?)
107020 #8 아이고, 그때 궤기덜은 우리 저 성게 까난듸 잇지? 저디 매 멘듸.(아이고, 그때 물고기들은 우리 저 성게 깠었던데 잇지? 저기 메 맨데.)
107020 @ 예, 예에.(예, 예예.)
107020 #8 그듸가 개맛이라. 개맛이영 ᄒᆞ여, 개맛.(거기가 포구야. 포구라고 해, 포구.)
107020 @ 예.(예.)
107020 #8 베 메는 듸가 개맛 ᄒᆞ민. 그 보제기덜이 궤기 잡아당.(배 매는 데가 포구하면.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아다가.)
107020 @ 무신 궤기?(무슨 고기?)
107020 #8 생성.(옥돔.)
107020 @ 예.(예.)
107020 #8 우럭(우럭볼락.)
107020 @ 예.(예.)
107020 #8 조기, 겡 헹 주낫 헹 강, 주낫.(조기, 그렇게 해서 주낙 해서 가서, 주낙.)
107020 @ 예.(예.)
107020 #8 그거 헹 강 잡아 오민, 그것도 부젯칩 돈 이신 사름이나 그디 가근에 궤기 멧 꿰연지로, 꿰영 풀아.(그거 해서 가서 잡아 오면, 그것도 부잣집 돈 있는 사람이나 거기 가서 고기 몇 꿰미로, 꿰어서 팔아.)
107020 @ 게, 무신 국 무신 국 끌려낫수과? 그걸로.(그래, 무슨 국 무슨 국 끓였었습니까? 그걸로.)
107020 #8 게난 그것이, 그거 헹 사당.(그러니까 그것이, 그거 해서 사다가.)

187) '찌르륵탁'은 익힌 모자반이 입 속에서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느낌을 말한다.

107020 @ 생선 말고 다른 국 안 끌려낫수과?(생선 말고 다른 국 안 끌렸었습니까?)
107020 #8 다른 거 무신 물망국이나 ᄂᆞ물쿡?(다른 거 무슨 모자반국이나 나물국?)
107020 @ 아니, 아니. 물고기 종류로?(아니, 아니. 물고기 종류로?)
107020 #8 아, 그, 물고기 종루로? 그거 헤당 거 사당 생성 사당 메역 빨아 놓곡 국 끌려.(아, 그, 물고기 종류로? 그거 해다가 거 사다가 옥돔 사다가 미역 빨아 놓고 국 끓여.)
107020 @ 생성 말고 다른 말 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옥돔 말고 다른 말 걸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20 #8 딴 거? 우럭.(딴 거? 우럭.)
107020 @ 아니, 생성을 옛날엔 뭐렌 ᄀᆞᆯ앗수과?(아니, 옥돔을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20 #8 생성ᄀᆞ란 올퉤미, 올퉤미.(옥돔보고 '올퉤미', '올퉤미'.)
107020 @ 올퉤미예?(옥돔이요?)
107020 #8 이젠 옥돔이엔 ᄀᆞᆯ아도 그땐 올퉤미.(이젠 옥돔이라고 말해도 그땐 '올퉤미'.)
107021 @ 올테미예?('올퉤미'요?)
107021 #8 응, 그땐 올퉤미.(응, 그땐 '올퉤미'.)
107021 @ 음. 그다음엔 메역으로 국 끌릴 땐 어떵 끌렷수과?(음, 그다음엔 미역으로 국 끓일 땐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1 #8 메역 뿔아근에게 이거민 장 이디 놓아근엥 믄 간 맞촹.(미역 빨아서 이거면 간장 여기 넣어서 모두 간 맞춰.)
107021 @ 장물로?(간장으로?)
107021 #8 어, 장물이나 뒌장이나 건 이녁 자유.(어, 간장이나 된장이나 건 이녁 자유.)
107021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21 #8 막 물에 판찍 뿔앙 파닥허게 접지랑 똑똑똑 썰엉, 요레 톡ᄒᆞ게 놩, 끌리민 메역국 뒐 거.(막 물에 깨끗이 빨아서 파닥하게 짜서 똑똑똑 썰어서, 요리로 톡하게 넣어, 끓이면 미역국 될 거.)
107022 @ 그담엔 넹국에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그담엔 냉국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22 #8 아, 넹국?(아, 냉국?)
17022 @ 예.(예.)
107022 #8 넹국은 그 메역 뿔앙.(냉국은 그 미역 빨아서.)
107022 @ 그게 아니고, 넹국엔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서수과?(그게 아니고, 냉국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22 #8 아, 그거 기자 넹수에 엿날에.(아, 그거 그저 냉수에 옛날에.)
107022 @ 종류가, 넹국 종류.(종류가, 냉국 종류.)

107022 #8 넹수 기자 기자 저, 내창에 강 물 질어당.(냉수 그저 그저 저, 냇가에 가서 물 길어다가.)
107022 @ 넹국에 종류, 메역국이 잇고 또.(냉국의 종류, 미역국이 있고 또.)
107022 #8 메역국ᄒᆞ곡, ᄂᆞᄆᆞᆯ쿡허곡, 무시거 또.(미역국하고, 나물국하고, 무엇 또.)
107022 @ 물웨 ᄀᆞ튼 거 타당 안 헷수과?(물외 같은 거 따다가 안 했습니까?)
107022 #8 아, 여름엔 여름엔 그 웨도.(아, 여름엔 여름엔 그 오이도.)
107022 @ 예.(예.)
107022 #8 마트도 엇이난 웨도 엇엇어. 이 부젯칩 사름이나 그거 이 영 헌, 우연네 웨도 여름에 영 놧당 그거 타당 웨 썰엉 넹국, 넹국.(마트도 없으니까 오이도 없었어. 이 부잣집 사람이나 그거 이 이렇게 한, 텃밭에 오이도 여름에 이렇게 놓았다가 그거 따다가 오이 썰어서 냉국, 냉국.)
107022 @ 게난예. 웨넹국 게난 아까 메역넹국 잇고예, 웨넹국 잇고예, 그다음 냉국 종류 뭐 이수과?(그러니까요. 오이냉국 그러니 아까 미역냉국 있고요, 오이냉국 있고요, 그다음 냉국 종류 뭐가 있습니까?)
107022 #8 무시거 종루 그것뿐. 거주, 무시거 이서? ᄒᆞ젱ᄒᆞ민.(무엇 종류 그것뿐. 거지, 무엇 있어? 하려고하면.)
107023 @ 게난. 성게국은 어떵 끌려 먹엇수과?(그러니. 성게국은 어떻게 끓여 먹어었습니까?)
107023 #8 이제 성게 하도 비싸놓난.(이제 성게 하도 비싸놓아서.)
107023 @ 옛날에.(옛날에.)
107023 #8 아, 엿날에 성기가 그 아이고, 기자 그 물싸민.(아, 옛날에 성게가 그 아이고, 그저 그 물써면.)
107023 @ 예.(예.)
107023 #8 바닷가 그 물싸민 ᄀᆞᆺ으로 가근에 거 잡아당은넹에.(바닷가 그 물써면 가로 가서 그거 잡아다가.)
107023 @ 성게가 아니라 뭐렌 ᄀᆞᆯ앗수과? 그때.(성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107023 #8 성기, 저 거시기 귀, 귀.(성게, 저 거시기 '귀', '귀'.)
107023 @ 귀이름도 다른 거 잇잖아예?(성게이름도 다른 거 있잖아요?)
107023 #9 솜, 솜.(솜, 솜.)
107023 #8 솜은 쪼꼴락헌 게 솜이고.(솜은 조그마한 게 말똥성게고.)
107023 @ 아, 족은 게 솜이고? 가시 와작헌 건?(아, 작은 게 말똥성게고? 가시 와작한 건?)
107023 #8 우리 까는 건 그건 엿날엔 귀.(우리 까는 건 그건 옛날엔 성게.)
107023 @ 게난 귀국 끌릴 때 어떵 끌렷수과?(그러니 성게국 끓일 때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3 #8 어떵 그거 아이고, 그 여물만 똥은 버려두곡.(어떻게 그거 아이고, 그 속만

똥은 버려두고.)
107023 @ 예.(예.)
107023 #8 여물만 사발에 놔근에게 메역 뿔아놓곡 이제 끌려, 이제 막 팔팔 끌려 가민 그거 영 솟드레 비영, 영영 젓으민 성귀국 뒈는 거.(속만 사발에 넣어서 미역 빨아놓고 이제 끓여, 이제 막 팔팔 끓어 가면 그거 이렇게 솥에 부어, 이렇게이렇게 저으면 성게국 되는 거.)
107023 @ 그담에 보말국은 어떵 끌리는 거꽈?(그다음에 보말국은 어떻 끓이는 겁니까?)
107023 #8 보말국은 물싸민 막 영 돌 일러사 그 보말이 이서, 엿날은.(보말고둥국은 물써면 막 이렇게 돌 이르집어야 그 보말고둥이 있어, 옛날은.)
107023 @ 예.(예.)
107023 #8 이젠 나와도 그땐 안 나와라이.(이젠 나와도 그땐 안 나오더라.)
107023 @ 기꽈?(그래요?)
107023 #9 그 ** ᄀᆞ메기라는 게 잇지.(그 ** 개울타리고둥이라는 게 있지.)
107023 #8 ᄀᆞ메기 그거 잡아당 막 영 몰싹몰싹 몰싹몰싹 물 놓곡, 저 양재기에 놩 영영 헤영, 헤영 이레 비와사, 또 메역 뿔앙.(개울타리고둥 그거 잡아다가 마구 이렇게 몰씬몰씬 몰씬몰씬 물 넣고, 저 양재기에 넣어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서 여기에 부어야, 또 미역 빨아서.)
107023 @ 거믄 간은 뭐로 헷수과?(그러면 간은 뭐로 했습니까?)
107023 #8 간? 간장으로 간장 놓곡 헹 간은 그거 뿐.(간? 간장으로 간장 넣고 해서 간은 그거 뿐.)
107023 @ 너패국은 어떵 끌렷수과?(넓패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3 #8 아, 엿날에 너패도 바다에 막 나낫져. 잘 아람져이?(아, 옛날에 넓패도 바다에 마구 났었어. 잘 아네?)
107023 @ 너패국은 어떵 끌렷수과?(넓패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3 #8 아, 너패국은 너패 메당, 긋 막 보벼근엥에 그거 저, 든물에 뿔아.(아, 넓패국은 넓패 매다가, 그것 막 부벼서 그거 저, 단물에 빨아.)
107023 @ 예.(예.)
107023 #8 뿔아당 솟디 흔 솟 놩, 낭불 때영 딸리민 그것이 문데기 익어.(빨아다가 솥에 한 솥 넣어, 나무불 때서 다리면 그것이 문드러지게 익어.)
107023 @ 예, 예예.(예, 예예.)
107023 #8 겨민 그자 놧당, 국 끌릴 땐 영 거려 놩 이레 영 비와놓곡, 기자 많이 끌리젠 ᄒᆞ민 그걸 영 하영 거려놓곡.
107023 @ 예.(예.)
107023 #8 족게 끌리젠 허민 쪼꼼만 거려 놩 족게 낄리국, 경헹 너패국 끌리는 거 경형.(조금 끓이려고 하면 조금만 떠 놓아서 조금 끓이고, 그렇게 해서 넓패국 끓이는 거 그렇게 해서.)

107023 @ 너패국엔 간은 뭘로 헷수과?(넓패국엔 간은 뭐로 했습니까?)
107023 #8 ᄀᆞ루 카 놓곡 저 간장 놓곡.(가루 타 놓고 저 간장 놓고.)
107023 @ 간장 놓고.(간장 넣고.)
107023 #8 어, ᄀᆞ루 카 놓곡 간 간 간장, 간은 간장.(어, 가루 타 넣고 간 간 간장, 간은 간장.)
107023 @ 가시리로도 국 끌려낫수과?(우뭇가사리로도 국 끓였었습니까?)
107023 #8 어, 엿날에 가시리도.(어, 옛날에 가시리도.)
107023 @ 가시린 뭐렌 골앗수과, 가시린?(우뭇가사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뭇가사리는?)
107023 #8 가시리ᄀᆞ라 저 그때 가시리엔 헷주. 무시거 엇어 건.(우뭇가사리보고 저 그때 '가시리'라고 했지. 무엇 없어 그건.)
107023 #9 직거리엔 헷주, 직거리.('직거리'라고 했지, '직거리'.)
107023 @ 무시거마씸?(뭐라고요?)
107023 #9 직거리.('직거리'.)
107023 #8 직거리? 난 그 말은 잘 몰라 난 안 들어나부난.('직거리'? 난 그 말은 잘 몰라 난 안 들었었어.)
107023 #9 풀허곡.(풀하고.)
107023 @ 맞수다.(맞습니다.)
107023 #9 막 딸려서.(막 다려서.)
107023 #8 이젠 그거 바당에 안 나.(이젠 그거 바다에 안 나.)
107023 @ 옛날에 가시리국 어떵 끌렷수과?(옛날에 우뭇가사리국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3 #8 게메, 국 끌렁 먹는 거, 이젠 안 난덴 ᄒᆞ난.(글쎄, 국 끓여서 먹는 거, 이젠 안 난다고 하니까.)
107023 @ 게난, 옛날에 어떵 끌려 먹엇수과?(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끓여 먹었습니까?)
107023 #8 아 아, 그때 뿔앙.(아 아, 그때 씻어서.)
107023 @ 예.(예.)
107023 #8 영 솟더레 놩 기자 간 맞촹 기자 먹엇주.(이렇게 솥에 넣어 그저 간 맞춰서 그저 먹었지.)
107023 @ 예.(예.)
107012 #8 간 맞촹 기자 먹엇주 무신, 어떵은 어떵.(간 맞춰 그저 먹었지 무슨, 어떻게는 어떻게.)
107023 @ 저 혹시 파래도 이서수과?(저 혹시 파래도 있었습니까?)
107023 #8 파래? 바당에 이서, 이제도.(파래? 바다에 있어, 이제도.)
107023 @ 파래는 뭐렌 골앗수과?(파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23 #8 파래? 이제도 ᄑᆞ레.(파래? 이제도 'ᄑᆞ레'.)

107023 @ ᄑᆞ레국 끌릴 땐 어떵 헷수과?(파래국 끓일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7023 #8 아니, 아니. ᄑᆞ레국은 아년.(아니, 아니. 파래국은 않았어.)
107023 @ 안 끌련?(안 끓여?)
107023 #8 아, 나 영 그 보난, 엿날 할망덜 지붕 우의.(아, 나 이렇게 그 보니까, 옛날 할머니들 지붕 위에.)
107023 @ 예.(예.)
107023 #8 막 널엇당.(마구 널었다가.)
107023 @ 예.(예.)
107023 #8 비오민 것가 헤영케 바라.(비오면 그것이 하얗게 바래.)
107023 @ 예.(예.)
107023 #9 막 먹엄직 헤여.(막 먹음직 해.)
107023 @ 예.(예.)
107023 #8 경허민 밥 건줌 다 뒈가민 그 ᄑᆞ레 거더다근엥에 막 판찍 뿔아ᄃᆞ근엥에 밥 우터레 솟 영 올앙 우터레 막 써꺼.(그러면 밥 거의 다 되가면 그 파래 거둬다가 막 깨끗이 씻어서 밥 위에 솥 이렇게 열어서 위에 마구 섞어.)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8 우린 거 안 먹어봔.(우린 안 먹어봤어.)
107023 @ 안 먹어봔?(안, 먹어봤어요?)
107023 #8 할망덜 허는 거만 봣주.(할머니들 하는 것만 봤지.)
107023 @ 음.(음.)
107023 #8 ᄒᆞ민, 밥 풀 땐 박박 젓어.(하면, 밥 풀 땐 박박 저어.)
106023 @ 젓어, 음.(저어, 음.)
107023 #8 막 영 서터근엥에 걸 ᄒᆞ민 우린 못 먹어.(마구 이렇게 섞어서 그걸 하면 우린 못 먹었어.)
107023 @ 음.(음.)
107023 #8 어릴 때난 맛엇엉.(어릴 때여서 맛없어서.)
107023 @ 맛어성예?(맛없어서요?)
107023 #8 어, 못 먹어. 게 봄만 히서 건.(어, 못 먹었어. 그 보기만 했어 그건.)
107023 @ 그다음 자리물훼[188] 같은 거 이섯잖아예?(그다음 자리물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107023 #8 어, 자리물훼 잇주게.(어, 자리물회 있지.)
107023 @ 물훼 무시거 뭐뭐 헤낫수과?(물회 무엇 뭐뭐 했었습니까?)
107023 #8 어느 훼?(어느 회?)
107023 @ 자리물훼 말고 또 뭐 이수과?(자리물회 말고 또 뭐 있습니까?)
107023 #8 아, 저 비께. 엿날엔 바닷가에 비께, 비께. 비껠 경 우리어머니도 막 해녀라.(아, 저 수염상어. 옛날엔 바닷가에 수염상어, 수염상어. 수염상어를 그렇게 우리 어

188) '자리물회'는 자리돔을 잘게 썬 것에 채소 따위를 넣어서 식초를 곁들여 만든 냉국이다.

머니도 막 잠녀야.)
107023 @ 예.(예.)
107023 #8 막 잘 헤낫어. 그 쏩는 거 소살 잇지?(막 잘 했었어. 그 쏘는 거 작살 있지?)
107023 @ 예.(예.)
107023 #8 그런 거로, 가근엥에 쏘아다근엥에 가죽 벳경, 그 휏거리덜 헤영 동넷 어른덜 다 안네여.(그런 거로, 가서 쏘아서 가죽 벗겨서, 그 횟감들 해서. 동네 어른들 다 드렸어.)
107023 @ 비께가 무신 거꽈?(비께가 뭡니까?)
107023 #8 비께, 비께. 휏거리. 이제 그거 엇어.(수염상어, 수염상어. 횟감. 이제 그거 없어.)
107023 #9 상어여 상어. 상어 새끼.(상어야 상어. 상어 새끼.)
107023 @ 아, 존다니마씨? 존단이꽈? 그게?(아, 존단이요? 존단이꽈? 그게?)
107023 #8 어?(어?)
107023 @ 그 상어새끼가 존단이렌 한 거꽈? 그게?(그 상어새끼가 존단이라고 한 겁니까? 그게?)
107023 #8 아니,아니.(아니, 아니.)
107023 @ 비께하고 존단인 달른 거꽈?(수염상어하고 존단인 다른 겁니까?)
107023 #8 어, 달라. 이제 비께 씨 져서.(어, 달라. 이제 수염상어 씨 말랐어.)
107023 @ 아, 엇어예?(아, 없어요?)
107023 #8 씨 젼. 이만썩(두 팔을 벌리며.) ᄒᆞ주, 큰 거.(씨 말랐어. 이만씩(두 팔을 벌리며.) 하지, 큰 거는.)
107023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23 #8 이만이 커. 이만이(두 팔 벌리며.)커.(이만큼 커. 이만이(두 팔 벌리며.)커.)
107023 @ 음.(음.)
107023 #8 경ᄒᆞ민 그것이. 사름 물민 안 내비어.(그러면 그것이. 사람 물면 안 놓아.)
107023 #9 하이튼 상어 종류주, 상어.(하여튼 상어 종류지, 상어.)
107023 @ 음.(음.)
107023 #8 그 술 키차정 나와야.(그 살 뜯어져 나와야.)
107023 @ 아, 음.(아, 음.)
107023 #8 겨민 거 봐저도 서시지[189] 못헤여, ᄆᆞ수와. 물어 불카부덴.(그러면 그거 보여도 '서시지' 못해, 무서워. 물어 버릴까봐.)
107023 @ 물어 불카부덴.(물어 버릴까봐.)
107023 #8 으, 우리 어머니넨 소살로 쏘왕 헤와낫어.(응, 우리 어머니는 작살로 쏘아서 잡아왔었어.)

189) '서시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부러 건드리다'의 뜻이며 달리 '거스다', '거슬다', '거시다', '거실다', '거찌다' 등으로도 쓰인다.

107023 @ 거 잡아당 동네 갈랑 물훼 헤 먹엇구나예?(그거 잡아다가 동네 나눠서 물회 해 먹었었군요?)
107023 #8 으, 물훼 헤먹곡, 이디 우리 아바지 산 때 깅ᄒᆞ민 ᄀᆞᆯ으민 문 가죽 벳경 그 막, 아바지가 엿날에 돌아가비도 젊을 땐 걸 막 좋아헤나난.(응, 물회 해먹고, 여기 우리 아버지 산 때 그러면 말하면 모두 가죽 벗겨서 그 막,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어도 젊을 땐 그걸 막 좋아했었어.)
107023 @ 아.(아.)
107023 #8 ᄀᆞᆯ으민 우리 어머니가 ᄀᆞᆯ으민 아바지가 강 가죽 벳겨근에 거 저 비께 가죽 벳경 아바지도 아저와낭거 나 얼뭇이 알아저.(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아버지가 가서 가죽 벗겨서 그거 저 수염상어 가죽 벗겨서 아버지도 가져왔었던 거 내가 어렴풋이 알아지지.)
107023 @ 기구나예.(그렇군요.)

죽류

107024 @ 이제는 죽에 데헤서 여쭤보크라예.(이제는 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7024 #8 어?(어?)
107024 @ 죽, 죽.(죽, 죽.)
107024 #8 죽 쑬 때?(죽 쑬 때?)
107024 @ 예. 죽은 어떤 종류덜이 이서수과? 죽 종류덜.(예. 죽은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죽 종류들.)
107024 #8 아이고, 죽. 보리쏠 놩 돔비죽도 쒕 먹곡.(아이고, 죽. 보리쌀 넣어 동부죽도 쒀서 먹고.)
107024 @ 예.(예.)
107024 #8 픗죽도 픗을 솖앙 영 뀌영, 산듸쏠 놩 죽 쑤민 맛이 좋주마는.(팥죽도 팥을 삶아 이렇게 반죽해서, 밭벼쌀 넣어 죽 쑤면 맛이 좋지만.)
107024 @ 예.(예.)
107024 #8 산듸쏠이 엇어.(밭벼쌀이 없어.)
107024 @ 예.(예.)
107024 #8 보리쏠 놩 쑤민 그 기자 픗 달각달각헹 죽도 맛이 엇어.(보리쌀 넣어 쑤면 그 그저 팥 달그락달그락해서 죽도 맛이 없어.)
107024 @ 맛이 엇어?(맛이 없어요?)
107024 #8 경헤도 그거 혼 때 먹엉 넘어가는 거라. 넘어 가.(그래도 그거 한 끼 먹어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 가.)
107024 @ 그믄예, 이제 죽 종류 쭉 여쭤보크라예?(그러면요, 이제 죽 종류 쭉 여쭤볼게요?)
107024 #8 어.(어.)

107025 @ 곤죽, 곤죽은 어떵 쑵니까?(흰죽, 흰죽은 어떻게 쑵니까?)
107025 #8 곤죽?(흰죽?)
107025 @ 예.(예.)
107025 #8 곤쏠, 건 흰죽이엔 허여 흰죽.(흰쌀, 건 흰죽이라고 해, 흰죽.)
107025 @ 맞수다, 흰죽.(맞습니다, 흰죽.)
107025 #8 그건 뭐, 저 아픈 때나 그거 쒕 먹주. 영 성헌 때 그거 쒕 아이 먹어.(그건 뭐, 저 아픈 때나 그거 쒀서 먹지. 이렇게 건강한 때 그거 쒀서 안 먹어.)
107026 @ 조축은 어떵 끌렷수과?(조죽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6 #8 조축도 그거 쑬 때에 기자 기냥 놓아근에, 물 하영 놩 좁쏠 놓민, 막 오래 딸려가민 죽이 뒈여.(조죽도 그거 쑬 때에 그저 그냥 넣어서, 물 많이 넣어 좁쌀 넣으면, 막 오래 다리면 죽이 돼.)
107026 @ 예.(예.)
107026 #8 경허민 죽 썽, 겐디 우리 저 그거 잘 아이 먹언디, 우리 웃대에 어머니덜은 경현 먹엇어.(그러면 죽 쒀서, 그런데 우리 저 그거 잘 안 먹었는데, 우리 윗대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27 @ 풋죽은마씨?(팥죽은요?)
107027 #8 풋죽도 폿 쏠마근엥에 물싹물싹 무르데겨근엥에 젓, 물 막 하영 놔근엥에 쏠도 그때 씻엉 곤쏠만 놩 좋주마는 보리쏠 놓곡, 곤쏠 놓곡 헹 죽 쑤민 맛이 엇어. 곤쏠만 놩 쒐시민 맛이 이섯주마는. 견디 우린 두린 때라부난에 먹지 못헹 안 먹어낫어.(팥죽도 팥 삶아서 물씬물씬 짓이겨서 저, 물 매우 많이 넣어서 쌀도 그때 씻어서 흰쌀만 넣으면 좋지마는 보리쌀 넣고, 흰쌀 넣고 해서 죽 쑤면 맛이 없어. 흰쌀만 넣어서 쑤면 맛이 있었지마는. 그런데 우린 어린 때여서 먹지 못해서 안 먹었었어.)
107027 @ 게도 이젠 동지 때, 지금 풋죽은 드셤수과? 동짓날.(그래도 이젠 동지 때, 지금 팥죽은 드시나요? 동짓날.)
107027 #8 동짓날?(동짓날?)
107027 @ 예.(예.)
107027 #8 아니, 우린 못 쑤어도.(아니, 우린 못 쑤어도.)
107027 @ 예.(예.)
107027 #8 절에서.(절에서.)
107027 @ 아.(아.)
17027 #8 노인덜이엔 우리 영 둘리 이시민 여기 톡톡헌 그릇에 두 개 아져와.(노인들이라고 우리 이렇게 둘이 있으면 여기 톡톡한 그릇에 두 개 가져오지.)
107027 @ 아, 풋죽을예?(아, 팥죽을요?)
107027 #8 경 아져오건 듸 흔 삼년 뒈서. 저 절에서.(그렇게 가져오는 게 한 삼년 됐어. 저 절에서.)
107028 @ 음, 콩죽은 쒀먹어 봣수과?(음, 콩죽은 쒀먹어 봤습니까?)
107028 #8 어?(어?)

107028 @ 콩죽.(콩죽.)
107028 #8 콩죽?(콩죽?)
107028 @ 예.(예.)
107028 #8 콩ᄀᆞ루 ᄀᆞᆯ아당.(콩가루 갈아다가.)
107028 @ 예.(예.)
107028 #8 콩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엥에 저 영영 ᄀᆞ루 카.(콩가루 갈아다가 저 이렇게이렇게 가루 타.)
107028 @ 예.(예.)
107028 #8 우터레 톡 허게 비왕, 젓지 말아사.(위에 톡 하게 부어, 젓지 말아야.)
107028 @ 예.(예.)
107028 #8 젓으민 저 콩ᄀᆞ루가 어디 간중 몰라.(저으면 저 콩가루가 어디 간줄 몰라.)
107028 @ 예, 콩죽에 거민 콩ᄀᆞ루 말고 ᄊᆞᆯ은 뭐 놧수과?(예, 콩죽에 그러면 콩가루 말고 쌀은 뭐 놓았습니까?)
107028 #8 무시거?(뭐라고?)
107028 @ 콩죽 끓일 때?(콩죽 끓일 때?)
107028 #8 곤ᄊᆞᆯ.(흰쌀.)
107028 @ 아, 곤ᄊᆞᆯ.(아, 흰쌀.)
107028 #8 곤ᄊᆞᆯ 이시민 곤ᄊᆞᆯ도 놓곡, 보리ᄊᆞᆯ 놓곡, 저 좁ᄊᆞᆯ도 놓앙 쑤곡.(흰쌀 있으면 흰쌀도 넣고, 보리쌀 넣고, 저 좁쌀도 넣어 쑤고.)
107028 @ 아, 놓앙 쓰고.(아, 넣어서 쓰고.)
107028 #8 으, 좁ᄊᆞᆯ에 보리ᄊᆞᆯ에 놓앙 쑤민 원, 난 두린 때 그거 얼뭇이 알아지는디 난 맛엇엉 안 먹어난.(응, 좁쌀에 보리쌀에 넣어 쑤면 원, 난 어린 때 그거 어렴풋이 알아지는데 난 맛없어서 안 먹었었어.)
107028 @ 게 삼춘은 콩죽 안 쒓수과? 나중에? 삼춘은 콩죽 안 끌령 드셧수과?(그래 삼촌은 콩죽 안 쑤었습니까? 나중에? 삼촌은 콩죽 안 끓여 드셨습니까?)
107028 #8 콩국?(콩국?)
107028 @ 콩죽.(콩죽.)
107028 #8 콩죽 무사 안 쑤어?(콩죽 왜 안 쑤어?)
107028 @ 삼춘 쑬 땐 어떵 헷수과?(삼춘 쑬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7028 #8 나 쑬 땐 저 곤ᄊᆞᆯ만 놩 영 ᄀᆞᆯ아근엥에 죽 저 콩ᄀᆞ루 영 타근엥에.(나 쑬 땐 저 흰쌀만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죽 저 콩가루 이렇게 타서.)
107028 @ 예.(예.)
107028 #8 영 놓아근엥에 잘 젓지 말아사.(이렇게 넣어서 잘 젓지 말아야.)
107028 @ 것도, 콩죽도예?(그것도, 콩죽도요?)
107028 #8 막 저서불민 그 콩ᄀᆞ루가 어디간줄 몰라.(막 저어버리면 그 콩가루가 어디 간줄 몰라.)
107028 @ 콩죽은 ᄊᆞᆯ 다 익은 다음에 놓는 거꽈? 콩ᄀᆞ루는?(콩죽은 쌀 다 익은 다음

에 넣는 겁니까? 콩가루는?)
107028 #8 아니, 미리 놩 딸려야 뒈여.(아니, 미리 넣어서 다려야 돼.)
107028 @ 딸려야 뒈여.(다려야 돼.)
107028 #8 딸려야 코씽허주.(다려야 고소하지.)
107028 @ 딸려난 다음에 쏠 놓는 거꽈?(라려난 다음에 쌀 넣는 겁니까?)
107028 #8 어. 딸린 다음에 쏠 씻엉 놔사.(어. 딸린 다음에 쌀 씻어서 넣어야.)
107028 @ 예.(예.)
107028 #8 저 죽도 ᄒᆞ주. 원 맛엇어.(저 죽도 하지. 원 맛없어.)
107029 @ 모물죽은 어떵 끌렷수과?(메밀죽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9 #8 아, 모물축?(아, 메밀죽?)
107029 @ 예.(예.)
107029 #8 모물축 쑬 때?(메밀죽 쑬 때?)
107029 @ 예.(예.)
107029 #8 막 시워.(매우 쉬워.)
107029 @ 예.(예.)
107029 #8 물 끌리민 모물 놔근에 ᄒᆞ쏠 딸리민 모물축 뒈주. ᄒᆞ쏠 끌리민.(물 끓으면 메밀 넣어서 조금 다리면 메밀죽 되지. 조금 끓으면.)
107029 @ 예.(예.)
107029 #8 아이고, 모물축 아무나 이서서? 그때 엿날에.(아이고, 메밀죽 아무나 있었어? 그때 옛날에.)
107029 @ 아, 모물이 귀한 거엿수과?(아, 메밀이 귀한 거였습니까?)
107029 #8 으, 농사지어근에겐 땅이 이서사 농사질 거 아니?(응, 농사지어서는 땅이 있어야 농사지을 거 아니?)
107029 @ 예, 예.(예, 예.)
107029 #8 땅 이신 사름이 멧 개라? 땅, 땅 엇엉 농사짓지 못ᄒᆞ주.(땅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땅, 땅 없어서 농사짓지 못하지.)
107030 @ 게난예. 기구나예. 그 녹듸로는 죽 끌려낫지예?(그러게요. 그렇군요. 그 녹두로는 죽 끓였었지요?)
107030 #8 녹듸?(녹두?)
107030 @ 예.(예.)
107030 #8 으, 녹듸도 이서낫주게.(응, 녹두도 있었었지.)
107030 @ 옛날 녹듸는 녹디렌 ᄀᆞᆯ앗수과? 여기선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 녹두는 녹디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30 #8 기자 녹듸. 엿날은 ᄋᆞ라 가지 녹듸 일름이 엇어, 녹듸.(그저 녹두. 옛날은 여러 가지 녹두 이름이 없어. '녹디'.)
107030 @ 녹듸론 어떵 죽 끌림니까?(녹두론 어떻게 죽 끓입니까?)
107030 #8 이제도 솖아.(이제도 삶아.)

107030 @ 숢아.(삶아.)
107030 #8 숢아근엥에 푹허게 익으민 또시 물 ᄒᆞ꼼 영 많이 놓곡, 쏠 씨껑 그레 놩게 막 끌리민 녹듸죽 뒈는 거. 간단헤 녹듸죽은.(삶아서 푹하게 익으면 또 물 조금 이렇게 많이 넣고, 쌀 씻어서 거기에 넣어서 마구 끓이면 녹두죽 되는 거지.)
107031 @ 독죽은 끌령 드셤수과? 요즘.(닭죽은 끓여서 드십니까? 요즘.)
107031 #8 풋죽?(팥죽?)
107031 @ 독, 독. 독으로 끌리는 거.(닭, 닭. 닭으로 끓이는 거.)
107031 #8 아, 독.(아, 닭.)
107031 @ 예.(예.)
107031 #8 아이고, 엿날엔 빙아리.(아이고, 옛날에는 병아리.)
107031 @ 예.(예.)
107031 #8 집이서.(집에서.)
107031 @ 예.(예.)
107031 #8 영 께왕.(이렇게 알을 낳게 해서.)
107031 @ 예.(예.)
107031 #8 그 빙아리 키왕.(그 병아리 키워서.)
107031 @ 예.(예.)
107031 #8 유월 쑤무날, 그땐 독 잡아먹는 날 아니?(유월 스무날, 그땐 닭 잡아먹는 날 아니야?)
107031 @ 맞수다.(맞습니다.)
107031 #8 유월, 경허민 검질메당도 그날 ᄒᆞ룬 쉬어.(유월, 그러면 김매다가도 그날 하루는 쉬지.)
107031 @ 아.(아.)
107031 #8 독 잡아먹젠.(닭 잡아먹으려고.)
107031 @ 아.(아.)
107031 #8 저, 어머니덜투 저 쉬렌허곡.(어머니들도 저 쉬라고 하고.)
107031 @ 예.(예.)
107031 #8 그날 ᄒᆞ룬. 게 그날은 독 서너 ᄆᆞ리 집이서 질루다근에 서너 머리 잡앙.(그날 하루는. 그래 그날은 닭 서너 마리 집에서 기르다가 서너 마리 잡아서.)
107031 @ 서너 머리씩이나?(서너 마리씩이나?)
107031 #8 응, 숙구가 멧 개라?(응, 식구가 몇 사람이야?)
107031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31 #8 ᄒᆞᆫ 대ᄋᆞ슷 식구 뒈는디.(한 대여섯 식구 되는데.)
107031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31 #8 우리 두린 때난 아기덜 우리 클 때난에 언니덜투 시집 아이 가곡.(우리 어린 때니까 아기들 우리 클 때니까 언니들도 시집 안 가고.)
107031 @ 게, 독은 누가 잡앗수과?(그래, 닭은 누가 잡았습니까?)

107031 #8 어?(어?)
107031 @ 듹은 누가 잡앗수과? 잡을 때.(닭은 누가 잡았습니까? 잡을 때.)
107031 #8 어머니.(어머니.)
107031 @ 어머니가?(어머니가?)
107031 #8 아바진 나 열 솔에 아바진 돌아가부런.(아버진 내가 열 살에 아버진 돌아가셔버렸어.)
107031 @ 아이고, 어머니가 게민 멧 오누이 키웟수과?(아이고, 어머니가 그러면 몇 오누이 키웠습니까?)
107031 #8 어머니가 물질을 경 잘흐여.(어머니가 물질을 그렇게 잘해.)
107031 @ 아.(아.)
107031 #8 경 허민, 겐디 우리 성할마니가 경 좋아.(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 친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107031 @ 음.(음.)
107031 #8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셋 메누리라.(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둘째 며리야.)
107031 @ 예.(예.)
107031 #8 게도 그 씨어멍이 우리 성할망이 똑 바닷가에 가렝만 헤여.(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우리 친할머니가 꼭 바닷가에 가라고만 해.)
107031 @ 음.(음.)
107031 #8 그 유월에 그 보리 ᄒᆞ 때라도.(그 유월에 그 보리 할 때라도.)
107031 @ 음.(음.)
107031 #8 네비동 가렌.(놔두고 가라고.)
107031 @ 음.(음.)
107031 #8 하도 어려운 때난게. 겨민 그때 전북도 막 지픈디 가근에 막 이만썩 ᄒᆞ주.(하도 어려운 때니까. 그러면 그때 전복도 매우 깊은데 가서 막 이만씩 하지.)
107031 @ 게메, 경 헷뎅 허멍예?(그러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요?)
107031 #8 경 ᄒᆞ민 그땐 ᄒᆞᆫ 냥쭝, 두 냥쭝 헤서. 어머니네 전복 잡앙 풀 때엔.(그렇게 하면 그땐 한 냥쭝, 두 냥쭝 했어. 어머니네 전복 캐서 팔 때엔.)
107031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31 #8 겨민 할머니가 어머니 와시민 '오널은 멧 냥쭝이나 헤시니?' ᄒᆞ민 '닷 냥쭝 헷수다.' 할마니신듸 어머니가 메누리라도 다 ᄀᆞᆯ아, 씨어멍신듸.(그러면 할머니가 어머니 왔으면 '오늘은 몇 냥쭝이나 했니?' 하면 '닷 냥쭝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머니가 며느리여도 다 말했어, 시어머니에게.)
107031 @ 음.(음.)
107031 #8 경, 게난 막 의가 좋아, 할망덜이.(그렇게, 그러니 막 의가 좋아, 할머니들이.)
107031 @ 아.(아.)
107031 #8 저 셋 메누리영. 셋 아들, 어린 때 아바지 죽어비연.(저 둘째 며느리랑. 둘

째 아들, 어린 때 아버지 죽어버렸어.)
107031 @ 게믄 독은 잡으면 그 시집 식구덜이영 다 불렁 ᄀᆞ찌 먹엇수과?(그러면 닭은 잡으면 그 시집 식구들이랑 다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까?)
107031 #8 엉, 다 불렁 다 ᄀᆞ찌.(응, 다 불러서 다 같이.)
107031 @ 아이구,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7031 #8 경허멍 그 시절에 경헷주.
107031 @ 게난.(그러게.)
107031 #8 겨난 일 년에 그때 흔 때 그날ᄒᆞ루 쉬는 거라.(그러니 일 년에 그때 한 때 그날하루 쉬는 거야.)
107031 @ 음.(음.)
107031 #8 일허레만 가비언. 무신 우리 학교 뎅기곡 헤서?(일하러만 가버렸어. 무슨 우리 학교 다니고 했어?)
107031 @ 갱죽은 끌려 먹어봣수과?(갱죽은 끓여 먹어봤습니까?)
107031 #8 겡이죽, 무사 아녀. 겡이도 잡아당 물에 ᄒᆞ룻밤 요레 놩 ᄃᆞᆼ강.(게죽, 왜 안 해. 게도 잡아다가 물에 하룻밤 요기에 넣어 담가.)
107031 @ 겡이죽 말고 갱죽이렌 헤근에 막 저 풀 같은 거랑 막 뜯어당 풀죽처럼 헹 먹는 거.(게죽 말고 갱죽이라고 해서 막 저 풀 같은 거랑 마구 뜯어다가 풀죽처럼 해서 먹는 거.)
107031 #8 아니, 그런 건 우리 엇어낫는디.(아니, 그런 건 우리 없었었는데.)
107031 @ 엇엇수과? 음, 경헷구나예?(없었습니까? 음, 그랬군요?)
107031 #8 어.(어.)
107032 @ 아까 겡이죽에 대헹 ᄀᆞᆯ아줍서. 어떵 썻수과?(아까 게죽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떻게 쑤었습니까?)
107032 #8 겡이죽? 물에 ᄃᆞᆷ갓당.(게죽? 물에 담갔다가.)
107032 @ 예.(예.)
107032 #8 영 차반지에 걸엉 물 빠지우민 방혹에 겡이를 영 막 ᄲᅥ사.(이렇게 차반지에 걸러서 물 빠지면 방아확에 게를 이렇게 막 빻지.)
107032 @ ᄃᆞᆫ물에 담갓당?(단물에 담갔다가?)
107032 #8 으, 으으. 이제 물에 ᄃᆞᆷ괏당, 싱거운 물에.(으, 으으. 이제 물에 담갔다가, 싱거운 물에.)
107032 @ 예.(예.)
107032 #8 ᄒᆞ룻밤만 헷당 건저근엥에 막 영 복짝[190] ᄲᅥ상 그 물 짜 놔.(하룻밤만 했다가 건져서 마구 이렇게 박산 바수어서 그 물 짜 놓아.)
107032 @ 아, 물로만.(아 물로만.)
107032 #8 응, 그 물 영 헹, 그 주시사 까닥까닥[191] 헹 먹어저게?(응, 그 물 이렇게

190) '복짝'은 게를 방아확으로 으깨어 산산이 부저지게 하는 그 과정 혹은 상태를 말하는데 표준어 '박산'에 대응한다.
191) '까닥까닥'은 딱딱해서 거칠다는 의미이다.

해서. 그 찌꺼기 '까닥까닥' 해서 먹어지나?)
10703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32 #8 물 영 헹 짱, 요레 비우곡 또시 영 헹 시껑 물 또시 솟드레 비우곡 혜영, 그 물로만 뻐사. 그 껍데기사 먹어저게? 빠들락빠들락[192] 혜영.(물 이렇게 해서 짜서, 요리로 붓고 다시 이렇게 해서 씻어서 물 다시 솥에 붓고 해서, 그 물로만 빻아. 그 껍데기야 먹을 수 있어? '빠들락빠들락' 해서.)
107032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32 #8 으, 으. 경 헹 ᄒᆞ민 경 헹 저 그레 쏠 씻어 놓민, 딸령 오래영 낭불 뗑 딸리민 겡이죽이 뒈는 거.(으, 으.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저 그리로 쌀 씻어 놓으면, 달려서 오래면 나무불 때서 다리면 게죽이 되는 거.)
107032 @ 맞수다.(맞습니다.)
107032 #8 무시거 딴 거 안 놔.(무엇 다른 거 안 넣어.)
107032 @ 맞수다.(맞습니다.)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엔예, 범벅하고 수제비에 데헹 여쭤보크라예?(그다음은요,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7034 #8 아, 범벅.(아, 범벅.)
107034 @ 예.(예.)
107034 #8 범벅은 젓, 겨울에 구뎅이에 감저 팡 영영 묻엇당.(범벅은 저, 겨울에 구덩이에 고구마 파서 이렇게이렇게 묻었다가.)
107034 @ 예, 예.(예, 예.)
107034 #8 막 영영 팡 뭐 우린 것, 형제간들 여라이난 난 실펑 잘 아녜난. 언니덜 이선.(마구 이렇게이렇게 파서 뭐 우린 그것, 형제간들 여럿이라서 난 싫어서 잘 안 했어. 언니들 있어서.)
107034 @ 예.(예.)
107034 #8 영 이영 헌 소곱에 묻엇당 막 집 영영영 ᄒᆞ나썩 파네엉 씻거근엥에 곱닥 ᄒᆞ게 벳겨근엥에 이만썩.(이렇게 이렇게 한 속에 묻었다가 마구 집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나씩 파내서 씻어서 곱게 벗겨서 이만씩.)
107034 @ 예.(예.)
107034 #8 이거민 두 개썩 썰엉 솟듸 놔근엥에 푹 숢아.(이거면 두 개씩 썰어서 솥에 넣어서 푹 삶아.)
107034 @ 예.(예.)
107034 #8 푹 숢아근엥에 그 감저가 익으민.(푹 삶아서 그 고구마가가 익으면.)
107034 @ 예.(예.)

192) '빠들락빠들락' '까닥까닥'과 비슷한 의미이다.

107034 #8 물 하민 똘라 동.(물 많으면 딸아 두고.)
107034 @ 예.(예.)
107034 #8 똘라 동 이 우터레 ᄀᆞ루 놔.(딸아 두고 이 위에 가루 넣어.)
107034 @ 예.(예.)
107034 38 ᄀᆞ루 놩 아뭬도.(가루 넣어 아무래도.)
107034 @ 무신 ᄀᆞ루마씨? 그냥 밀ᄀᆞ루?(무슨 가루요? 그냥 밀가루?)
107034 #8 그때 밀ᄀᆞ루. 밀ᄀᆞ루 정ᄀᆞ레에 ᄀᆞᆯ아.(그때 밀가루. 밀가루 풀맷돌에 갈아서.)
107034 @ 예.(예.)
107034 #8 거 밀도 아무집이나 엇어.(거 밀도 아무집이나 없어.)
107034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34 #8 아무집이나 엇어. 그 엿날에 보린 아무집이나 이서도.(아무집이나 없어. 그 옛날에 보린 아무집이나 있어도.)
107034 @ 음.(음.)
107034 #8 정ᄀᆞ레에 ᄀᆞᆯ앙 욜로 ᄀᆞ루 나오민 헷당 체로 쳥, 그 ᄀᆞ루에 물캉 이레 영, 놔비연.(풀맷돌에 갈아서 요리로 가루 나오면 했다가 체로 쳐서, 그 가루에 물 타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버려.)
107034 @ 경 헹 범벅 헹 먹엇구나예?(그렇게 해서 범벅 해서 먹었군요?)
107034 #8 으.(응.)
107034 @ 저, 감저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안 헹먹엇수과?(저, 고구마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안 해먹었습니까?)
107034 #8 아, 감저범벅은 젓, 우리 나 대엔 잘 안 먹어봔.(아, 고구마범벅은 저, 우리 내 대에는 잘 안 먹어봤어.)
107034 @ 거난, 감저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엇엇수과?(그러니, 고구마범벅 말고 다른 범벅은 없었습니까?)
107034 #8 무사? 모ᄆᆞᆯᄏᆞ루로, 모ᄆᆞᆯ코루로 저, 느젱이. 모ᄆᆞᆯ 정ᄀᆞ레에 ᄀᆞᆯ아나민 그디 느젱이가 이서.(왜? 메밀가루로, 메밀가루로 저, 나께. 메밀 풀맷돌에 갈아나면 거기 나께가 있어.)
107034 @ 예.(예.)
107034 #8 그걸로 감저 놓곡 감저 놩 막 익으민, 느젱이ᄀᆞ루 이레 놔근엥에 이제 ᄀᆞ트민 혼 삼 분 헤영 궤민 또시 남죽으로, 남죽 이만이 헌 걸로.(그걸로 고구마 넣고 고구마 넣어 막 익으면, 나깨가루 이리 넣어서 이제 같으면 한 삼 분해서 끓으면 다시 죽젓개로, 죽젓개 이만큼 한 걸로.)
107034 @ 예.(예.)
107034 #8 솟디서 막 영 젓엉 빙빙빙 ᄒᆞ민 그 범벅이 뒈여.(솥에서 마구 이렇게 저어 빙빙빙 하면 그 범벅이 돼.)
107034 @ 거민 느젱이범벅이 맛좋앗수과? 감저범벅이 맛 좋앗수과?(그러면 나깨범벅

이 맛좋았습니까, 고구마범벅이 맛이 좋았습니까?)
107034 #8 그, 느젱이가, 느젱이로 놓앙, 느젱이로 놔근엥 ᄒᆞ주.(그, 나깨가, 나깨로 놓아서, 나깨로 넣어서 하지.)
107034 @ 게, 어느 게 맛 좋앗수과?(그래, 어느 게 맛이 좋았습니까?)
107034 #8 아이고, 느젱이에 감저 범벅은 맛 잘 엇어.(아이고, 나깨 고구마범벅은 맛 잘 없어.)
107034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34 #8 느젱인 거 모ᄆᆞᆯ쏠 ᄀᆞᆯ아난 찌께기라.(나깨는 거 메밀쌀 갈았던 찌꺼기야.)
107034 @ 예. 예.(예, 예.)
107034 #8 찌께기.(찌꺼기.)
107034 @ 맞수다.(맞습니다.)
107034 #8 거 ᄒᆞ민 것도 경 아무집이나 이서?(그거 하면 그것도 그렇게 아무집이나 있어?)
107034 @ 게난예.(그러게요.)
107034 #8 ᄒᆞ꼼 영 살앙, 땅이영 이서사 그런 것도 잇주.(조금 이렇게 살아서, 땅이랑 있어야 그런 것도 있지.)
107034 @ 잇주, 맞수다.(있지, 맞습니다.)
107034 #8 잘 엇엇어, 그거.(잘 없었어, 그거.)
107035 @ 여기서는 수제비를 뭐렌 ᄀᆞᆯ앗수과?(여기서는 수제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35 #8 수제비? 저베기.(수제비? ‘저베기’.)
107035 @ 저베기. 저베기는 어떵 헹 먹엇수과?(수제비, 수제비는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7035 #8 이, 저베기. 모ᄆᆞᆯᄏᆞ루로, 모ᄆᆞᆯ코루로 저베기 ᄒᆞ젠 ᄒᆞ민 솟듸 물만 놩, 삭삭 궤민.(이, 수제비. 메밀가루로, 메밀가루로 수제비 하려고 하면 솥에 물만 넣어, 삭삭 끓으면.)
107035 @ 예.(예.)
107035 #8 궤민, ᄀᆞ루 이레 놩 영영 저성, 영 또막또막 기차 놓곡.(끓으면, 가루 이리 넣어 이렇게이렇게 저어,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 넣고.)
107035 @ 모믈저베기 말고 다른 저베긴 뭐 이서수과?(메밀수제비 말고 다른 수제비는 뭐 있었습니까?)
107035 #8 다른 저베기 미시거 엇엇어. 엇어, 딴 저베기. 모ᄆᆞᆯ처베기벳긔.(다른 수제비 무엇 없었어. 없어, 딴 수제비. 메밀수제비밖에.)
107036 @ 모ᄆᆞᆯ저베기벳긔.(메밀수제비밖에.)
107033 #8 딴 걸로 저베기 허젠 헤도 엇어.(딴 걸로 수제비 하려고 해도 없어)
107033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7033 #8 거 저 또시 모ᄆᆞᆯ쏠 ᄀᆞᆯ앙은에 허젠 ᄒᆞ민 건 칼국.(거 저 또 메밀쌀 갈아서

하려고 하면 그건 칼국수.)
107036 @ 칼국에 데헹 ᄀᆞᆯ아줍서. 칼국은 어떵 헷수과?(칼국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칼국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36 #8 물 삭삭 궤민 ᄀᆞ루 이레 영 비왕. 박박 이레 영 ᄆᆞᆯ민.(물 싹싹 끓으면 가루 이리 이렇게 부어. 박박 이리 이렇게 말면.)
107036 @ 음.(음.)
107036 #8 이 손주먹 ᄀᆞ찌 땅땅헐 거 아냐?(이 주먹처럼 딴딴할 거 아냐?)
107036 @ 예.(예.)
107036 #8 게민, 영영영 밀엉, 딱딱 짤랑게, 칼로.(그러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밀어서, 딱딱 잘라, 칼로.)
107036 @ 예.(예.)
107036 #8 똑똑똑 영영영 썰어.(똑똑똑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썰어.)
107036 @ 칼국에는 뭐 놓아근에 먹엇수과? 맹물 말고.(칼국수에는 뭐 넣어서 먹었습니까? 맹물 말고.)
107036 #8 아이고, 간장.(아이고, 간장.)
107036 @ 간장만?(간장만?)
107036 #8 간장, 놀 것이 엇이난 간장벳긔 놀 거 엇어. 아, ᄂᆞᆷ삐 ᄂᆞᆷ삐.(간장, 넣을 것이 없으니까 간장밖에 넣을 것이 없어. 아, 무, 무.)
107035 @ ᄂᆞᆷ삐 놓고.(무 넣고.)
107035 #8 ᄂᆞᆷ삐 ᄒᆞ쏠 놓곡.(무 조금 넣고.)
107035 @ 닭이나 꿩, 이런 건 안 놧수과?(닭이나 꿩, 이런 건 안 넣었습니까?)
107035 #8 어, 그거 뿐. 모ᄆᆞᆯ칼국 헐 때, ᄂᆞᆷ삐나 그레 놓주.(어, 그거 뿐. 메밀칼국수 할 때, 무나 그리 넣지.)
107035 @ 음.(음.)
107035 #8 그거 뿐 놔. 무시거 놀 거 엇어.(그거 뿐 넣어. 무엇 넣을 거 없어.)

김치

107037 @ 그다음 김치에 데헤 여쭈쿠다예?(그다음 김치에 대해 여쭐 게요?)
107037 #8 아, 김치?(아, 김치?)
107037 @ 김치는 무신 무신 김치 헤 먹어봣수과?(김치는 무슨 무슨 김치 해 먹어봤습니까?)
107038 #8 아이고, 그 때 우연네 배추 갈아.(아이고, 그 때 텃밭에 배추 갈아서.)
107038 @ 배추? 배치?(배추? 배치?)
107038 #8 원, 우린 잘. 배추두 갈앙, 아무집이나 엇어.(원, 우린 잘. 배추도 갈아서, 아무집이나 없어.)
107038 @ 배추? 아니면 배치렌 ᄀᆞᆯ앗수과?(배추? 아니면 '배치'라고 말했습니까?)

107038 #8 어, ᄂᆞᄆᆞᆯ ᄂᆞᄆᆞᆯ.(어, 나물 나물.)
107038 @ ᄂᆞᄆᆞᆯ예?(나물이요?)
107038 #8 으, 으. ᄂᆞᄆᆞᆯ.(응, 응. 나물.)
107038 #8 ᄂᆞᄆᆞᆯ, 우연네 갈아근엥에, 거 아무집이나 이서? 그 김치ᄂᆞᄆᆞᆯ. 엿날 징뀌엔 헤서.(나물, 텃밭에 갈아서, 거 아무집이나 있어? 그 김치나물. 옛날 '징뀌'라고 했어.)
107037 @ 징뀌예?(김치요?)
107038 #8 이젠 김치렌 헤도 징뀌, 징뀌.(이젠 김치라고 해도 '징뀌', '징뀌'.)
107038 @ 징뀌예?(김치요?)
107038 #8 징뀌.(김치.)
107038 @ 예.(예.)
107038 #8 징뀌엔 헤근엥에 저, 소금에 죽엿당 바닷가에 강, 이디 물도 엇엇어.(김치라고 해서 저, 소금에 죽였다가 바닷가에 가서, 여기 물도 없었어.)
107038 @ 맞수다.(맞습니다.)
107038 #8 지엉 강, 바닷가에 강 지엉 강 바닷가에 강 싯어.(져서 가서, 바닷가에 가서 져서 가서 바닷가에 가서 씻어.)
107038 @ 예.(예.)
107038 #8 싯엉 오랑, 무신 저 고치ᄀᆞ루도 솟듸서 보깡 고치.(씻어서 와서, 무슨 저 고춧가루도 솥에서 볶아, 고추.)
107033 @ 예.(예.)
107033 #8 깅 형, 방우루게 ᄲᅳ사.(그렇게 해서, 방아로 빻아.)
107033 @ 예.(예.)
107033 #8 체루 쳐.(체로 쳐.)
107033 @ 예.(예.)
107033 #8 경 형 고칫ᄀᆞ루도 경 헤근에 고칫ᄀᆞ루도 만들앙. 이젠 김치엔 헤도 그땐 짐뀌.(그렇게 해서 고춧가루도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도 만들었어. 이젠 김치라고 해도 그땐 '짐뀌'.)
107033 @ 예.(예.)
107033 #8 경 헹 영 헹 항에 담앗당. 대산인 그때 땅만 시민 심그난. 대사니 허곡 고치만 놓주, 무시거 놀 거가 이서.(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담았다가. 마늘은 그때 땅만 있으면 심으니까. 마늘 하고 고추만 넣지, 무엇 놀 것이 있어.)
107039 @ 어, 열무짐뀌도 잇잖아예?(어, 열무김치도 있었잖아요?)
107039 #8 아, 열무?(아, 열무?)
107039 @ 예.(예.)
107039 #8 열무 이제 여름에 갈앗당 헤두, 열무두.(열무 이제 여름에 갈았다가 해도, 열무도.)
107039 @ 옛날엔 열무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엔 열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39 #8 엿날에 열무 엇엇나서.(옛날엔 열무 없었어.)

107039 @ 아, 엇엇수과?(아, 없었습니까?)
107039 #8 엿날엔 우리 두린 땐.(옛날에 우리 어린 땐.)
107039 @ 이젠 열무렌 헴주마는 요 얼만 전까지만 헤도.(이젠 열무라고 하지마는 요 얼만 전까지만 해도.)
107039 #8 놈삐, 놈삐.(무, 무.)
107039 @ 놈삐?(무?)
107039 #8 여름에 가는 놈삐. 놈삐엔만 헤나서.(여름에 가는 무. 무라고만 했었어.)
107039 @ 기꽈? 놈삐김치는 나중에 물어보고, 그믄 열무김치는?(그래요? 무김치는 나중에 물어보고, 그러면 열무김치는?)
107039 #8 아이고, 열무김치 우리 아녀 봔.(아이고, 열무김치 우리 안 해봤어.)
107039 @ 안 헤 먹어봔예?(안 해 먹어봤어요?)
107039 #8 이서사 만들주.(있어야 만들지.)
107040 @ 물김치는 어떵 헷수과?(물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40 #8 아, 물김치도 우리 잘 만들 충 몰란게 똑똑 얇게 썰어근에게 소곰물.(아, 물김치도 우리 잘 만들 줄 몰라서 똑똑 얇게 썰어서 소금물.)
107040 @ 무시거 얇게 썰어? 놈삐?(무엇을 얇게 썰어? 무?)
107040 #8 놈삐.(무.)
107040 @ 예.(예.)
107040 #8 놈삐 똑똑 요추룩 썰어.(무 똑똑 요처럼 썰어.)
107040 @ 예.(예.)
107040 #8 이추룩 썰어근엥에 저, 영영 소금을 탕 그레 빕곡, 무시거 양념은 무시거 이서? 소금물 타곡 그레 놈삐 썰어 놓곡, 경 형 영 물 비우곡 경 어떵 어떵 헹 먹엇주.(이처럼 썰어서 저, 이렇게이렇게 소금을 타서 그리 붓고, 무엇 양념은 무엇이 있어? 소금물 타고 그리 무 썰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 부우고 그렇게 어떻데 어떻게 해서 먹지.)
107040 @ 게메.(그러게.)
107040 #8 그때 무신 미원이 나서 무시것가 이서? 고추도 잘 엇엇낫는디.(그때 무슨 미원이 나왔어 무엇이 있어? 고추도 잘 없었었는데.)
107041 @ 나물 동지짐치는 어떵 헷수과?(나물 장다리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41 #8 아, 동지짐치도 마찬가지. 이 소곰에 죽엿다근에.(아, 장다리김치도 마찬가지. 이 소금에 죽였다가.)
107041 @ 예.(예.)
107041 #8 건저근엥에 기자 고치나 ᄒᆞ쏠 버무리곡 헤근엥에 저, 그 대사니 그 저 대사니ᄀᆞ라 저, 콥대사니.(건져서 그저 고추나 조금 버무리고 해서 저, 그 마늘 그 저 마늘보고 저, '콥대사니'.)
107041 @ 예.(예.)
107041 #8 콥대사니에 고치 기자 ᄒᆞ쏠 서껑, 영영 헹 버므령 먹엇주, 엿날엔 무신 양

넘이 이서서?(마늘에 고추 그저 조금 섞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먹었지, 옛날에는 무슨 양념이 있었어?)
107042 @ 놈삐김친 어떵 헷수과?(무김친 어떻게 했습니까?)
107042 #8 놈삐김치도 그땐 이젠 요 크게 썰어.(무김치도 그땐 이젠 요 크게 썰어.)
107042 @ 예.(예.)
107042 #8 크게 썰엉, 소곰에 담갓당, 건정, 이제 또시 물 빠지민 기자 그디 고치ᄀᆞ루 ᄒᆞ쏠 놓곡, 소곰 영영 버무령 무시거 대사니나, 콥대사니 ᄇᆞᆺ사근에 ᄒᆞ쏠 놓곡. 놀 것가 무시거 이서시니? 그때.(크게 썰어서, 소금에 담갔다가, 건져서, 이제 또 물 빠지면 그저 거기에 고춧가루 조금 넣고, 소금 이렇게이렇게 버무려서 무엇 마늘이나, 마늘 빻아서 조금 넣고. 넣을 것이 무엇이 있니? 그때.)
107042 @ 맞수다.(맞습니다.)
107042 #8 대사니ᄒᆞ곡, 이제 콥대사니ᄒᆞ곡 소곰벳긔 그때 엇엇주.(마늘하고, 이제 마늘하고 소금밖에 그때 없었지.)
107043 @ 맞수다. 저기 파김치, 파를 옛날 뭐렌 ᄀᆞᆯ앗수과?(맞습니다. 저기 파김치, 파를 옛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43 #8 저기 거시기 패마농 패마농.(저기 거시기 '패마농', '패마농'.)
107043 @ 패마농으론 김치 어떵 담가수과?(쪽파로는 김치 어떻게 담갔습니까?)
107043 #8 패마농김치도 아년 먹어서 아년.(파김치도 안 해 먹었어, 않았어.)
107043 @ 안 헤 먹어서?(안 해 먹었어요?)
107043 #8 응, 엇어, 엇어.(응, 없어, 없어.)
107044 @ 그믄 꿩마농으론?(그러면 달래로는?)
107044 #8 어?(어?)
107044 @ 꿩마농.(달래.)
107044 #8 아, 들엣마농 그땐 막 하.(아, 달래는 그때는 매우 많았어.)
107044 @ 그때, 들엣마농은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때, 달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44 #8 그땐 드릇마농.(그땐 '드릇마농'.)
107044 @ 드릇마농 맞아.('드릇마농' 맞아요.)
107044 #8 그땐 밧듸 막 좋안 그것가.(그땐 밭에 매우 좋았어, 그것이.)
107044 @ 아, 드릇마농이?(아, 달래가?)
107044 #8 어, 게민 구덕으로 ᄒᆞ나썩 케당 저 바닷가에 강 싯어근엥에 기냥 ᄒᆞᆫ 줌썩 헤영 기냥 깍깍 담아.(어, 그러면 구덕으로 하나씩 캐다가 저 바닷가에 가서 씻어서 그냥 한줌씩 해서 그냥 꽉꽉 담그지.)
107044 @ 음.(음.)
107044 #8 집에 오랑 단지에.(집애 와서 단지에.)
107044 @ 예.(예.)
107044 #8 담앙, 그 우터레 소곰을 탕 영 우터레 ᄒᆞ꼼 영 비왕 ᄀᆞ만이 나두민 ᄒᆞ꼼 노리룽허게 익으민 기자 먹엇주. 양념이 어디 서, 어이고.(담아서, 그 위에 소금을 타서

이렇게 위에 조금 이렇게 부어서 가만히 놔두면 조금 노르스름하게 익으면 그저 먹었지. 양념이 어디 있어, 아이고.)
107045 @ 그다음 혹시 갯ᄂᆞ물로 김치 헤 먹어봣수과?(그다음 혹시 갓으로 김치 해먹어봤습니까?)
107045 #8 아, 갯ᄂᆞᆯ? 갯ᄂᆞᆯ도 난 잘 헤보지 아년. 갯ᄂᆞᆯ도 물, 기자 단지에 썰어 근에 담아.(아, 갓? 갓도 난 잘 해보지 않았어. 갓도 물, 그저 단지에 썰어서 담그지.)
107045 @ 예.(예.)
107045 #8 물, 소곰물.
107045 @ 예.(예.)
107045 #8 탁 끌려근엥에 요레 비왕 두께 더껑 놔둬동 ᄒᆞᆫ 이틀이나 이시민 게민 영 그거 노리룽ᄒᆞ민 기자, 기자 먹는 거.(탁 끓여서 요리로 부어서 뚜껑 닫아서 놔두고 한 이틀이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그거 노르스름하면 그저, 그저 먹는 거.)
107045 @ 갯ᄂᆞ물도 기자 갯ᄂᆞ물이렌 ᄀᆞᆯ앗수과?(갓도 그저 '갯ᄂᆞ물'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45 #8 갯ᄂᆞᆯ 기자 갯ᄂᆞᆯ, 딴 거 무시거 엇어.('갯ᄂᆞᆯ' 그저 '갯ᄂᆞᆯ', 딴 거 무엇 없어.)
107046 @ 세우리론 김치 헤 먹어봣지예?(부추론 김치 해 먹어봤지요?)
107046 #8 아, 세우리?(아, 부추?)
107046 @ 예.(예.)
107046 #8 아이고, 세우리김치 홀 생각? 거 튿아당 ᄒᆞ루 ᄒᆞᆫ 번썩 장 뭬와사. 그때 뭰장만 먹을 때난.(아이고, 부추김치 할 생각? 거 뜯어다가 하루 한 번씩 된장 모아야. 그때 된장만 먹을 때니까.)
107046 @ 예.(예.)
107046 #8 무시거 서?(무엇 있어?)
107046 @ 뭰장에 게믄?(된장에 그러면.)
107046 #8 세우리 썰어 놩.(부추 썰어 넣어.)
107046 @ 아, 아.(아, 아.)
107046 #8 세우리 썰어 놩, 나 두린 때 얼뭇이 알아저. 똑 난 그때 두린 때난 밧듸도 아이가민 꼭 어둑어 가민 세우리 튿아당 장, 항에 큰 항에 듬으민, 그 뭰장에 ᄒᆞ끔 뭰장 ᄒᆞ나 거려다 놓곡, 형 그 세우리 썰어 놩 장 뭬왕 놔둬사.(부추 썰어 넣어서, 내가 어린 때 어렴풋이 알아지지. 똑 난 그때 어린 때니까 밭에도 안가면 꼭 어두워 가면 부추 뜯어다가 된장, 항아리에 큰 항아리에 담으면, 그 된장에 조금 된장 하나 퍼다 놓고, 해서 그 부추 썰어 넣어 된장 모아서 놔둬야.)
107046 @ 음.(음.)
107046 #8 뭬왕 놔둬사, 언니덜 밧듸 강 왕 저냑 먹고.(모아서 놔둬야, 언니들 밭에 갔다가 와서 저녁 먹고.)
107046 @ 음.(음.)

107046 #8 둣날 아치기 아침밥 먹곡.(뒷날 아침 아침밥 먹고.)
107046 @ 예.(예.)
107046 #8 게 무시거 먹을 게 이서, 그것뿐이주.(그래 무엇 먹을 게 있어, 그것뿐이지.)
107046 @ 맞수다예.(맞습니다.)
107046 #8 물 ᄒᆞ곡.(물 하고.)
107046 @ 맞수다.(맞습니다.)
107046 #8 물에 보리쏠.(물에 보리쌀.)
107046 @ 맞수다.(맞습니다.)

젓갈

107048 @ 그다음,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니까.(그다음, 여기는 바닷가 마을이니까.)
107048 #8 으.(으.)
107048 @ 그 젓갈 같은 거 자리젓 같은 거 담앙 먹엇지예?(그 젓갈 같은 거 자리젓 같은 거 담아서 먹었지요?)
107048 #8 무시거?(무엇?)
107049 @ 자리젓.(자리젓.)
107049 #8 아, 자리젓도 그땐, 우리 그땐 잘 엇엉, 막 우리 ᄒᆞ꼼 욱아사 그 자리젓도, 기자 자리 놀차 그땐 막 거려다근에[193], 그땐 자리도 바당에 하난 셍이라.(아, 자리젓도 그땐, 우리 그땐 잘 없어서, 막 우리 조금 역어야 그 자리젓도, 그저 자리 날짜 그땐 막 '거려다가', 그땐 자리돔도 바다에 많았던 모양이야.)
107049 @ 예.(예.)
107049 #8 자리, 그땐 것도 우린 이거 웃드르난 잘 엇엉 바당, 그 개맛듸 사레 가사, 그거.(자리돔, 그땐 우리 이거 '웃드르'니까 잘 없어서 바다, 그 포구에 사러가야, 그거.)
107049 @ 예, 맞수다.(맞습니다.)
107049 #8 가민, 서너 말 사다근엥에 소곰 버무령 항에 깍깍 담앙 놔두민 자리젓, 그 젓.(가면, 서너 말 사다가 소금 버무려서 항아리에 꽉꽉 담아서 놔두면 자리젓, 그 젓.)
107050 @ 멜젓은 안 담갓수과?(멸치젓은 안 담갔습니까?)
107050 멜첫, 멜첫. 멜 들엇젱 ᄒᆞ민 들아강 보민 문 헤비영 귀경도 못헷젠 ᄒᆞ난, 우린.(멸치젓, 멸치젓. 멸치 들었다고 하면 뛰어가서 보면 모두 해버려서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107051 @ 맞수다예. 근데 혹시 아가미, 아감젓이라고 헤서 안 헤봣고예?(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가미, 아감젓이라고 해서 안 해봤고요?)
107051 #8 아, 그런 것도.(아, 그런 것도.)
107051 @ 안 해봔예?(안 해봤고요?)

193) '거려다근에'는 기본형이 '거리다'이며 '자잘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다'는 뜻이다.

107052 #8 엇엇어, 이딘.(없었어, 여긴.)
107052 @ 그다음엔예? 겡이로 젓 헤낫수과?(그다음은요? 게로 젓 했었습니까?)
107052 #8 어, 겡이젓도 ᄒᆞ주.(어, 게젓도 하지.)
107052 @ 겡이젓은 어떵 헷수과?(게젓은 어떻게 했습니까?)
107052 #8 겡이, 저게 물에 담갓당게 방학에 딱딱 ᄲᅳ상, 소곰 이레 놩 버무령, 요레 담앙 놔두민 겡이젓 뒈는 거.(게, 저게 물에 담갔다가 방아확에 딱딱 빻아, 소금 이리 넣어 버무려서, 요리 담아서 놔두면 게젓 되는 거.)
107052 @ 예.(예.)
107052 #8 경 ᄒᆞ민 기자 먹는 거. 그 무시거 나놔서.(그렇게 하면 그저 먹는 거야. 그 무엇 넣었었어.)
107054 @ 게민 밥상에 출레론 뭐뭐 놔낫수과?(그러면 밥상에 반찬으론 뭐 뭐 놓았었습니까?)
107054 #8 아이고, 김치 ᄒᆞ곡 국 ᄒᆞ곡, 상 출리젠 ᄒᆞ민 간장이나 놓곡.(아이고, 김치 하고 국 하고, 상 차리려고 하면 간장이나 놓고.)
107054 @ 예.(예.(예.)
107054 #8 김치 놓곡, 국 허곡, 밥 허곡.(김치 놓고, 국 하고, 밥 하고.)
107054 @ 자리젓 이실 땐 자리 놓고.(자리젓 있을 땐 자리젓 놓고.)
107054 #8 어, 자리젓 시민, 어 것도 부젯칩이나 자리젓 싯주, 가난헌 딘 자리젓도 엇어.(어, 자리젓 있으면, 어 그것도 부잣집이나 자리젓 있지, 가난한 데는 자리젓도 없어.)
107054 @ 자리젓도 엇어낫수과?(자리젓도 없었습니까?)
107054 #8 젓갈 이시민 젓갈이나 ᄒᆞ쏠 놓곡. 상 출릴 땐 그것 뿐.(젓갈 있으면 젓갈이나 조금 놓고. 상 차릴 땐 그것 뿐.)
107054 @ 게난.(그러니까.)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믄 이제는예, 장아찌도 담강 먹어낫잖아예?(그러면 이제는요, 장아찌도 담가서 먹었었잖아요?)
107055 #8 아이고, 그때 장아찌 엇어난.(아이고, 그때 장아찌 없었어.)
107055 @ 아무것도 엇엇수과?(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107055 #8 응. 엇엇언, 장아찌.(응, 없었어, 장아찌.)
107055 @ 무신 마눙장아찌나, 대사니장아찌도 엇엇수과?(무슨 마늘장아찌나, 마늘장아찌도 없었습니까?)
107056 #8 마눙, 마눙지, 그땐 마눙지엔 헷어.(마늘, 마늘장아찌, 그땐 '마눙지'라고 했어.)
107056 @ 마눙지면 마눙 그 저.(마늘장아찌면 마늘 그 저.)
107056 #8 그 들에 강 마눙, 막 그땐 막 드르에 마눙[194]이 경 좋아난.(그 들에 가서

마늘, 막 그땐 막 들에 달래가 그렇게 좋았었어.)
107056 @ 음.(음.)
107056 #8 집이 안 싱거도 경 좋아난. 이젠 저레 다 하우스 헤부난 땅이 원 엇주마는 그땐 우리 오라난 저펜이 경, 그때 조 갈아낭 그 땅을 기냥 내비어. 조만 헤 앗앙.(집에 안 심어도 그렇게 좋았었어. 이젠 저리 다 하우스 해버리니까 땅이 원 없지마는 그땐 우리 왔었던 저편에 그렇게, 그때 조 갈았었던 그 땅을 그냥 내버려. 조만 해 앗아서.)
107056 @ 예.(예.)
107056 #8 그 땅.(그 땅.)
107056 @ 예.(예.)
107056 #8 겨민 그디 마눙이 막 미앗헤여[195].(그러면 거기 마늘이 매우 '미앗해'.)
107056 @ 그거 얘기하면 마눙은 아까 드릇마눙 얘기허는 거지예?(그거 얘기하면 마늘은 아까 달래 얘기하는 거지요?)
107056 #8 어, 드릇마눙 그거.(어, 달래 그거.)
107056 @ 드릇마눙으로만 장아찌 헨예?(달래로만 장아찌 했어요?)
107056 #8 으, 으. 드릇마눙으로만 그것 그거 장아찌 헹 ᄒᆞ주, 집이 마농으로 장아찌 잘 아녀 반.(응, 응. 달래로만 그것 그거 장아찌 해서 하지, 집의 마늘로 장아찌 잘 안 해봤어.)
107057 @ 훼 종류는 뭐 이서수과?(회 종류는 뭐 있었습니까?)
107057 #8 훼 종룬 그 자리 젓 나 사다근엥에 자리훼나 ᄒᆞ주.(회 종류는 그 자리돔 저 내가 사다가 자리회나 하지.)
107057 @ 아까 무신훼?(아까 무슨 회?)
107057 #8 자리훼.(자리회.)
107057 @ 자리훼 말고 또 하나 뭐 이섯수게?(자리회 말고 또 하나 있었잖습니까?)
107057 #8 빗개훼.(수염상어회.)
107057 @ 아, 빗개훼.(아, 수염상어회.)
107057 #8 이젠 빗개, 바당에 빗개 씨 졋주. 엿날에 바당에 빗개두 잇곡, 페선[196]이 시장에두 가민 그 막 빗개가 이섯는디 이젠 그 씨 져비언.(이젠 수염상어, 바다에 수염상어 씨가 졌지. 옛날에 바다에 수염상어도 있고, 표선에 시장에도 가면 그 막 수염상어가 있었는데 이젠 그 씨가 져버렸어.)
107057 @ 게민예, 그다음엔 그 물고기로 헤가지고 궤기 잡앙오면 아까 빗개로 훼나 저기 물훼로나 헤 먹엇덴 헷잖아예?(그러면요, 그다음엔 그 물고기로 해가지고 고기 잡아오면 아까 수염상어로 회나 저기 물회로 해먹었다고 했잖아요?)
107057 #8 으, 으으. 물훼 헤먹엇주.(응, 응응. 물회 해먹었지.)
107058 @ 그믄 우럭 ᄀᆞ튼 건 안 잡아 먹엇수과?(그러면 우럭 같은 건 안 잡아먹었습니까?)

194) '마눙'은 마늘인데, 여기서는 달래를 말한다.
195) '미앗하다'는 아주 많아 가득하다는 뜻이다.
196) '페선'은 표선을 말하는데, 표선은 서귀포시 표선면 면소재지를 말한다.

107058 #8 우럭, 여름에 두린 때.(우럭, 여름에 어린 때.)
107058 @ 예.(예.)
107058 #8 나까당.(낚아다가.)
107058 @ 예.(예.)
107058 #8 나까다근에, 그 말 ᄀᆞᆯ아붑서. ᄀᆞ망우럭 나까난 거.(낚아다가, 그 말 말해버리세요. 구멍우럭 낚았던 거.)
107058 @ ᄀᆞᆯ아봅서.(말해보세요.)
107058 #9 옛날에는 저 코셍이란 게 서, 코셍이.(옛날에는 저 용치놀래기란 게 있어, 용치놀래기.)
107058 @ 예.(예.)
107058 #8 이젠 코셍이 엇입니다, 바당에.(이젠 용치놀래기 없습니다, 바다에.)
107058 #9 게메, 코셍이 이서가지고.(그러게, 용치놀래기 있어가지고.)
107058 @ 예.(예.)
107058 #9 바늘로 낙시 멘들어가지고.(바늘로 낚시 만들어가지고.)
107058 #8 요만썩 헌 거, 요만썩.(요만씩 한 거. 요만씩,)
107058 #9 게민 낙시 요 줄에다가 세 개나 두 개나 이제 이어가지고.(그러면 낚시 요 줄에다가 세 개나 두 개나 이제 이어가지고.)
107058 @ 예.(예.)
107058 #9 바당에 가서 걸 낙는데.(바다에 가서 그걸 낚는데.)
107058 @ 예.(예.)
107058 #9 잘 낙는 사름은 그 굉장히 많이 나까.(잘 낚는 사람은 그 굉장히 많아 낚지.)
107058 @ 나깡 왕 걸로 졸여먹엇수과?(낚아 와서 걸로 졸여먹었습니까?)
107058 #9 그렇게 들이치민 확 모여드니까.(그렇게 들이뜨리면 확 모여드니까.)
107058 @ 거니까 졸여 먹언마씨? 집에 왕. 보깐먹언?(그니까 졸여 먹었나요? 집에 와서. 볶아서 먹었나요?)
107058 #8 어, 어. 졸여. 간장 놓고 졸여.(어, 어. 졸여. 간장 넣고 졸여.)
107058 @ 간장 놓고 졸연예?(간장 넣고 졸여서요?)
107058 #8 으, 그때 간장은 집에 듬으난 실피 먹고, 간장은.(응, 그때 간장은 집에 담으니까 실컷 먹고, 간장은.)
107058 @ 예. 그다음 고사리는 케다근에 고사리는 어떵 보깟수과?(예. 그다음 고사리는 캐다가 고사리는 어떻게 볶았습니까?)
105058 #8 고사리? 물량게 원 그 겐 또 ᄒᆞᆫ 서너 번 솟듸 놩 솖앙. 물 빼영.(고사리? 말려서 원 그 그래서 또 한 서너 번 솥에 넣어 삶아서. 물 빼서.)
105058 @ 예.(예.)
105058 #8 내영 또 솖곡, 또 솖곡 헤사 고사리 먹주.(꺼내서 또 삶고, 또 삶고 해야 고사리 먹지.)

107058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58 #9 고사리가 고급 요리가 뒈놔서.(고사리가 고급 요리가 되어서.)
107058 @ 고사린 막 흔하지 안헷수과?(고사린 막 흔하지 않았습니까?)
107058 #8 아니, 엿날은 고지 가. 고지.(아니, 옛날은 고지 갔어, 고지.)
107058 @ 아.(아.)
107058 #9 저, 산에.(저, 산에.)
107058 #8 고지, 우리도 서너 번 가왓주마는 고지 고사리가 좋민 큰 멩텡이, 그 나룩찍, 이제 ᄀᆞ트민 나룩찍이주게.(고지, 우리도 서너 번 가왔지만 고지 고사리가 좋으면 큰 망태기, 그 볏짚, 이제 같으면 볏짚이지.)
107058 @ 예, 예예.(예, 예예.)
107058 #9 멩텡이엔 ᄀᆞᆯ으민 알아?(망태기라고 말하면 알까?)
107058 @ 알아집니다게.(압니다.)
107058 #8 막 이만히 큰 멩텡이 지엉 가근에, 고지 가민 ᄒᆞᆫ 멩텡이썩 꺼꺼와 고사리. 게난 고사리 어두어 가민 집이 잇당, 고사리 마중 저 산에 가주.(막 이만큼 큰 망태기 지고 가서, 고지 가면 한 망태기씩 꺾어오지 고사리. 그러니 고사리 어두워 가면 집에 있다가, 고사리 마중 저 산에 가지.)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8 거, 산에 마줌 헤여사주, 기자 지어오지 못헤여.(그거, 산에 마중해야지, 그저 져오지 못해.)
107058 @ 그추룩 하영 이신 걸 무사 귀한 음식으로만 먹어신고예? 집에서 막 보까먹어도 뒐 거 아니꽈?(그처럼 많이 있는 걸 왜 귀한 음식으로만 먹었을까요? 집에서 막 볶아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107058 #8 보까먹을 생각? 기자 ᄆᆞᆯ랴근에 그때 풀앙 돈 요멘이라도 사젠 헷주.(볶아먹을 생각? 그저 말려서 그때 팔아서 돈 요만큼이라도 벌려고 했지.)
107058 @ 아, 풀앙. 옛날에도 풀앗구나예?(아, 팔았어. 옛날에도 팔았군요?)
107058 #8 으, 풀안 믄 썬. 엿날에도.(응, 팔아서 모두 썼어. 옛날에도.)
107058 @ 그거 보끌 땐 어떵 보깟수과?(그거 볶을 땐 어떻게 볶았습니까?)
107058 #8 보끌 때? 그거 막 세 번 솖아야.(볶을 때? 그거 막 세 번 삶아야.)
107058 @ 예.(예.)
107058 #8 고사리 세 번 솖앙 담갓당, 또 솖곡 또 솖곡 헤영, 물에 담갓다근에 물 영 싹 빠지민 그레 간장 놓아근엥에 또 불 때영 바글바글 헤영게 그 간 맞게.(고사리 세 번 삶아서 담갔다가, 또 삶고 또 삶고 해서, 물에 담갔다가 물 이렇게 싹 빠지면 거기에 간장 넣어서 또 불 때서 바글바글 해서는 그 간 맞게.)
107058 @ 예.(예.)
107058 #8 겡 형 바글바글 헷주.(그렇게 해서 바글바글 했지.)
107058 @ 간장만 놩?(간장만 넣어?)
107058 #8 어, 간장만 놓앗주, 무시거 놀 거 엇어 엿날엔.(어, 간장만 넣었지, 무엇 넣

을 거 없어 옛날에는.)
107058 @ 호박 잇잖아예? 호박으론 뭐헤 먹어낫수과?(호박 있잖아요? 호박으론 뭐해 먹었었습니까?)
107058 #8 호박두 마찬가지. 호박두 제서 때나 보끄주.(호박도 마찬가지. 호박도 제사 때나 볶지.)
107058 @ 호박도 제사 때?(호박도 제사 때?)
107058 #8 호박도 가죽 베껴도근엥에 요만썩 토막토막 썰어근엥에.(호박도 가죽 벗겨서 요만씩 토막토막 썰어서.)
107058 @ 예.(예.)
107058 #8 그 젓, 물 ᄒᆞ쏠 놓곡 간장 놓곡 헤민 그것도 확 헤근에 확 건저베사주 ᄒᆞ꼼 오래 딸리민 탁 카져근엥에.(그 저, 물 조금 놓고 간장 놓고 하면 그것도 확 해서 확 건져버려야지 조금 오래 다리면 탁 부서져서.)
107058 @ 카져근에.(부서져서.)
107058 #8 제서 때도 긋 도글도글 헤사. 제서 땐, 이 집이 솝박ᄒᆞ주. 제 먹으레 오민.(제서 때도 그것 도글도글 해야. 제사 땐, 이 집이 가득하지. 제 먹으러 오면.)
107058 @ 음.(음.)
107058 #8 저 부엌에 ᄁᆞ장. 다 솝박ᄒᆞ민, 거 다 갈라. 고사리영, 콩나물도 놓아. 거 엿날엔.(저 부엌에 까지. 다 가득하면, 거 다 나눠. 고사리랑, 콩나물도 넣어. 그거 옛날에는.)
107058 @ 예.(예.)
107058 #8 제서 돌아오민.(제사 돌아오면.)
107058 @ 음.(음.)
107058 #8 겡 놓아근에 ᄒᆞ민, 그때 엿날에도 식게 먹으레, 식게주, 엿날엔. 제서엔도 안 골앙 식게.(그렇게 넣어서 하면, 그때 옛날에도 제사 먹으러, '식게'지, 옛날엔. 제사라고도 안 말해서 '식게'.)
107058 @ 음.(음.)
107058 #8 경ᄒᆞ민 그 식게 먹으레 문딱 방상[197]에서 오민 그거 문 갈라 먹곡, 갈 때 문 싸 주국.(그러면 그 제사 먹으러 모두 '방상'에서 오면 그거 모두 나눠 먹고, 갈 때 모두 싸서 주고.)
107058 @ 음.(음.)
107058 #8 경헤낫주, 엿날에.(그랬었지, 옛날에.)
107058 @ 음, 경 헤낫구나예.(음, 그렇게 했었군요.)

장 담그기

107059 @ 이젠예 장 담그는 거 ᄒᆞᆫ 번 여쭤보크라예?(이제는요 장 담그는 거 한번 여

197) '방상'은 '일가붙이 집안'을 말한다.

쭤볼게요?)
107059 #8 어? (어?)
107059 @ 장, 뭰장 담그는 거예.(장, 된장 담그는 거요.)
107059 #8 아, 당글 때.(아, 담글 때.)
107059 @ 장은 언제 담금니까?(장은 언제 담습니까?)
107059 #8 당글 때? 저, 거시기 이 겨울 돌아오라 가민.(담글 때? 저, 거시기 이 겨울 돌아와 가면.)
107059 @ 겨울 돌아와 가민예?(겨울 돌아와 가면요?)
107059 #8 겨울 돌아오라 가민 장, 봄이난에 이제 막 듬앙, 이제 장 익엉 먹을 때, 이제. 이제 시절에.(겨울 돌아와 가면 장, 봄이니까 이제 막 담아서, 이제 장 익어서 먹을 때, 이제. 이제 시절에.)
107059 @ 장 담글 때는 뭰장만 담갓수과?(장 담글 때는 된장만 담갔습니까?)
107059 #8 아, 소곰물 타근에.(아, 소금물 타서.)
107059 @ 아, 건 나중에 물어 보크라예? 뭰장만 담갓수과?(아, 건 나중에 물어 볼게요? 된장만 담갔습니까?)
107059 #8 아니, 아니. 그때 뭰장만 듬아나지 아네서. 그때 소곰잘리에 컹.(아니, 아니. 그때 된장만 담았었지 않았어. 그때 소금자루에 잠가서.)
107059 @ 예.(예.)
107059 #8 메주 놓곡 물 놓곡 큰 항의 소곰잘리 이만헌 것에 허영 이추룩 컹 이추룩.(메주 놓고 물 놓고 큰 항의 소금자루 이만한 것에 해서 이처럼 잠가 이처럼.)
107059 @ 예, 예 예.(예, 예예.)
107061 #8 영 커근엥에 ᄒᆞ민 이추룩 메주 우러나가민 영 발강ᄒᆞ민, 이거 또시 헤베도근엥에.(이렇게 잠가서 하면 이처럼 메주 우러나면 이렇게 발그스름하면, 이거 또 해버린 다음에.)
107061 @ 예.(예.)
107061 #8 또 잘리 이에 소곰을 담앙 또 이추룩 담그곡, 멧 번 듬그민 이 간장이 간 맞아.(또 자루 이것에 소금을 담아서 또 이처럼 담그고, 몇 번 담그면 이 간장이 간 맞아.)
107061 @ 예.(예.)
107061 #8 경 ᄒᆞ민 따시 간 맞이민 소곰 안 놩 따신 이추룩 크지 아녀. ᄒᆞᆫ 서너네 번 듬그민.(그렇게 하면 다시 간 맞으면 소금 안 넣어 다시는 이처럼 잠그지 아녀. 한 서너네 번 담그면.)
107061 @ 음.(음.)
107061 #8 소곰을 이거 다 녹으민 또 이 잘리터레 또. 그땐 소곰도 막 가마니로 사야. 그 장 듬그젠 ᄒᆞ민.(소금을 이거 다 녹으면 또 이 자루에 또. 그땐 소금도 막 가마니로 사야. 그 장 담그려고 하면.)
107061 @ 장 듬그젠 ᄒᆞ민예?(장 담그려고 하면요?)

107061 #8 응.(응.)
107061 고추장은 안 담갓수과?(고추장은 안 담았습니까?)
107061 #8 어느 하가이, 고추장 담곡.(어느 겨를에, 고추장 담고.)
107061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7061 #8 어, 고추장은 안 돔아봔.(어, 고추장은 안 담아봤어.)
107062 @ 메주는 언제 술믑니까?(메주는 언제 삶습니까?)
107062 #8 메주는 게, 솟듸 놩 콩.(메주는 그게, 솥에 넣어 콩.)
107062 @ 언제 술믑니까?(언제 삶습니까?)
107062 #8 겨을 틀어가민.(겨울 들어가면.)
107062 @ 겨울 틀어가민 숢아.(겨울 들어가면 삶아.)
107062 #8 겨을 틀어가민 거 메주콩이라고 솟듸 막 으라 솟 숢주, 콩은.(겨울 들어가면 거 메주콩이라고 솥에 막 여러 솥 삶지, 콩은.)
107062 @ 음.(음.)
107062 #8 메주 많이 ᄒᆞ젠 ᄒᆞ민. 콩 이젯말로 ᄒᆞᆫ 닷 말썩은 숢아, 콩.(메주 많이 하려고 하면. 콩 이젯말로 한 닷 말씩은 삶아, 콩.)
107061 @ 게난예.(그러게요.)
107062 #8 콩 엇이민 거 다 돈 주엉 사당.(콩 없으면 거 다 돈 주고 사다가.)
107062 @ 사당예?(사다가요?)
107062 #8 저 부젯칩인 그거 이녁 땅이 시난에. 거 영 헤도 땅 신 사름이 멧 사름이 엇이난.(저 부잣집은 그거 이녁 땅이 있으니까. 거 이렇게 해도 땅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으니까.)
107062 @ 맞수다.(맞습니다.)
107062 #8 엇이난에 기자 헤당 콩 장만 헹 이녁대로 ᄒᆞ곡. 거 엇인 사름은 그 막 어렵게 헤근엥에 고사리 헤영 다 풀곡, 막 거 모다근엥에 그 콩을 혼 댓 말 경 사사.(없으니까 그저 해다가 콩 장만 해서 이녁대로 하고. 거 없는 사람은 그 막 어렵게 해서 고사리 해다가 다 팔고, 마구 그거 모아서 그 콩을 혼 댓 말 그렇게 사야.)
107062 @ 사사.(사야.)
107062 #8 그 장도, 엿날은 매 집이 경 장 아이 돔은 집이 엇어.(그 장도, 옛날은 매 집이 그렇게 장 아니 담은 집이 없어.)
107062 @ 엇엇어예.(없었어요.)
107062 #8 그 장으로만 사난.(그 장으로만 사니까.)
107062 @ 맞수다.(맞습니다.)
107062 #8 먹는 것이.(먹는 것이.)
107063 @ 장 담글 때.(장 담글 때.)
107062 #8 어.(어.)
107062 @ 혹시 멩심헐 거는 엇엇낫수과? 뭔가 멩심헤야 뒌다는 말 엇엇수과?(혹시 명심할 거는 없었습니까? 뭔가 명심해야 된다는 말 없었습니까?)

107063 #8 아니, 미시거 아니, 아니, 그런 거 엇어. 기자 우리도 어멍덜 경 장 듬을 때 나민 이추룩 소곰만 이추룩 커근에 영 헨 듬강게.(아니, 무엇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그저 우리도 어머니들 그렇게 장 담글 때 되면 이처럼 소금만 이처럼 잠가서 이렇게 해서 담그던데.)

107063 @ 삼춘은 장 안 담가낫수과?(삼춘은 장 안 다갔었습니까?)

107063 #8 아니, 난 우리 시대엔 우리도 ᄒᆞ꼼 담아나도 어멍네 만이 경 장 안 듬아봔. 우리 세엔, 우리 대엔.(아니, 난 우리 시대엔 우리도 조금 담았어도 어머니네 만큼 그렇게 장 안 담가 봤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엔.)

107063 @ 예.(예.)

떡류

107064 @ 이젠 떡에 데헤근에 여쭤보크라예.(이젠 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7064 #8 떡?(떡?)

107064 @ 아까 떡 종류 쭉 ᄀᆞᆯ아봅서. 친떡 잇고.(아까 떡 종류 쭉 말해보세요. 시루떡 있고.)

107064 #8 어, 떡. 솔벤[198].('솔편'.)

107064 @ 솔벤.('솔편.)

107064 #8 젤벤[199].('절편'.)

107064 @ 젤벤.('절편'.)

107064 #8 제펜[200].('제펜')

107064 @ 제펜.('제펜'.)

107064 #8 중궤, 약궤.(중계, 약과.)

107065 @ 침떡은 엇엇수과? 침떡.(시루떡은 없었습니까? 시루떡.)

107065 #8 아니, 그것뿐 헤영 상에 올리는 거.(아니, 그것뿐 해서 상에 올리는 거지.)

107065 @ 아.(아.)

107065 #9 일굽 가지 헤여, 일굽 가지.(일곱 가지 해, 일곱 가지.)

107065 @ 전부 다 ᄀᆞᆯ아봅서. 입곱 가지? 겐디 지금 여섯 가지. 웃찍떡 까진가? 침떡은 안 헤신가?(전부 말해 보세요. 일곱 가지? 그런데 지금 여섯 가지. 웃기떡 까진가? 시루떡은 안 했는가?)

107065 #8 친 떡은 상에 제펜 올리민 쉬는 떡은 상에 안 올려낫어.(찐 떡은 상에 '제편' 올리면 쉬는 떡은 상에 안 올려났어.)

107065 @ 경헷수과?(그랬어요?)

107065 #8 어.(어.)

198) '솔벤'은 쌀가루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삶거나 쪄낸 떡을 말한다.

199) '절벤'은 쌀가루로 둥그렇게 만들어 삶아낸 다음에 둥그렇게 만든 떡 두 개를 붙여서 떡쌀로 찍어 낸 떡을 말한다.

200) '제펜'은 제에 쓰는 편이라는 말로, 보통 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107065 @ 그믄예, 침떡부터 저기 물어보크라예. 시루떡, 시루떡이 침떡이지예?(그러면요, 시루떡부터 저기 물어보겠습니다. 시루떡, 시루떡이 '침떡'이지요?)
107065 #8 어, 어. 시리로 다 쪙.(어, 어. 시루로 다 쪘어.)
107065 @시리떡, 시리떡.(시루떡, 시루떡.)
107065 #8 시리떡, 대썹 놓곡 칭칭 ᄒᆞ젠 ᄒᆞ민.(시루떡, 댓잎 넣고 켜켜 하려고 하면.)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8 이디 대썹.(여기 댓잎.)
107065 @ 예.(예.)
107065 #8 저 대 아무 듸나 것도 엇어. 거 썹 톡톡톡 쫄라당 제펜 ᄒᆞ젠 ᄒᆞ민.(저 대 아무 데나 것도 없어. 그거 잎 톡톡톡 잘라다가 '제편' 하려고 하면.)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8 이추룩 칭ᄒᆞ게 영 놓앙, 대썹 코칭ᄒᆞ게 영 놩, ᄀᆞ루 ᄯᅮ시 요레 영 허껑, 제펜.(이처럼 층지게 이렇게 놓아서, 댓잎 나란하게 이렇게 놓아서, 가루 다시 요리로 이렇게 흩뿌려, '제편'.)
107065 @ 예.(예.)
107065 #8 제펜 찌젠 ᄒᆞ민 겡 헹 그걸로 대썹으로 다 익으민 붸민 그 대썹 톡톡 떼어불민 꼽닥헌 친떡이 뒈어.('제편' 찌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걸로 댓잎으로 다 익으면 보이면 그 댓잎 톡톡 떼어버리면 곱다란 시루떡이 돼.)
107066 @ 침떡이 뒈는구나예?(시루떡이 되는군요?)
107066 #8 어. 그거 제펜(어. 그거 '제편'.)
107066 @ 그다음엔예, 어, 송편은 여기서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다음은요, 어, 송편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66 #8 솔펜.('솔펜'.)
107066 @ 솔펜? 영영 줍아가지고 쪼끌락 허게 만드는 송편.('솔편'? 이렇게이렇게 집어가지고 조그마하게 만드는 송편.)
107066 #8 절벤?(절편?)
107066 @ 절벤, 예.(절편, 예.)
107066 #8 절벤도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엥에.(절편도 가루 갈아다가.)
107066 @ 예.(예.)
107066 #8 떡 요만썩 만들엉 솟디 놩.(떡 요만씩 만들어서 솥에 넣어.)
107066 @ 예.(예.)
107066 #8 막 숢앙, 그 절벤떡 요만썩 흔 거.(마구 삶아서, 그 절편떡 요만씩 한 거.)
107066 @ 예.(예.)
107066 #8 다 익으민 건져근엥에 다라에 놩 막 뛰영, 꼽딱허게 춤지름 이레 비우멍.(다 익으면 건져서 대야에 넣어 막 떼어서, 곱다랗게 참기름 이리 부으면서.)
107066 @ 예.(예.)
107066 #8 영영 달롱 꼽딱ᄒᆞ민 또막또막 요만썩 요만썩 똥꼴똥꼴 영ᄒᆞ게 헤 놓민, 두

개 영 톡톡 부찌민 그 절벤본으로 이축 헹.(이렇게이렇게 다루어 곱다라면 토막토막 요만씩 요만씩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놓으면, 두 개 이렇게 톡톡 붙이면 그 절편판으로 이처럼 해서.)

107066 @ 아니, 그거 말고.(아니, 그거 말고.)

107066 #8 게 거 거 거 그거주게, 젤벤.(그래, 거 거 거 그거지, 절편.)

107066 @ 속에 영 팥 놔가지고 만듸처럼 만드는 떡.(속에 이렇게 팥 넣어가지고 만두처럼 만드는 떡.)

107066 #8 아, 거 제펜, 만두추룩 만드는 건, 건 만듸[201].(아, 거 제펜, 만두처럼 만드는 건, 건 '만두'.)

107066 @ 아, 건 만뒤. 떡을 만뒤렌 헷수과?(아, 건 만두. 떡을 만두떡이라고 했습니까?)

107066 #8 건 만듸, 엿날 만듸.(그건 '만듸', 옛날 '만두떡')

107066 @ 만뒨 어떵 만들앗수과? 만뒤 만들 땐?('만두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두떡' 만들 땐?)

107066 #8 만뒨, 이거 큰 거민 영 헹 텅.('만두떡'은, 이거 큰 거면 이렇게 해서 떠서.)

107066 @ 예.(예.)

107066 #8 터근엥에 동글랑허게 나오면은 영 줍앙, 영 똑 허게 두 개 부찌민.(떠서 동그랗게 나오면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톡 하게 두 개 붙이면.)

107066 @ 속에 뭐 놩?(속에 뭐 넣어서?)

107066 #8 속에 놈삐 솖앙. 놈삐 솖앙 소곱에 담앙 영영 꼭꼭 줍아. 모물ᄀᆞ루 ᄀᆞᆯ아당. 모물ᄀᆞ루.(속에 무 삶아서. 무 삶아서 속에 담아서 이렇게이렇게 꼭꼭 집어. 메밀가루 갈아다가, 메밀가루.)

107066 @ 아니, 그거 말고.(아니, 그거 말고.)

107066 #8 게, ᄀᆞᆯ아당 그걸 헤영 만듸떡 만들엇젠 ᄒᆞ난.(그래, 갈아다가 그걸 해서 '만두떡' 만들었다고 하니까.)

107066 @ 게, 건 만뒤떡인디 쏠ᄀᆞ루로 저기 뜨거운 물 놓앙 반죽헹 허는 거.(그래, 그건 '만두떡'인데 쌀가루로 저기 뜨거운 물 넣어서 반죽해서 하는 거.)

107066 #8 아, 거 송펜.(아, 그거, 송편.)

107066 @ 거난 송펜. 송펜을 어떵 만들앗수과?(그러니까 송편. 송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66 #8 거 솔벤이주.(그거 '솔편'이지.)

107066 @ 아, 거 솔벤이꽈?(아, 그거 '솔편'입니까?)

107066 #8 어, 거 솔벤. ᄀᆞ루 ᄀᆞᆯ아당 영 떡본이 이서.(어, 거 '솔편'. 가루 갈아다가 이렇게 떡살이 있어.)

---

201) '만듸'는 여기서는 '만뒤떡'을 이르는 말인데,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을 말한다.

107066 @ 예.(예.)
107066 #8 똑똑 뜨는 건 솔벤.(똑똑 뜨는 건 '솔편'.)
107066 @ 예.(예.)
107066 #8 젤벤은 동글레기 ᄆᆞᆯ랑 두 개 부떵 똑똑 ᄒᆞ는 거.('절편'은 동그랗게 말아 두 개 붙여 꼭꼭 붙이는 거.)
107066 @ 게, 건 절벤이고.(그래, 그건 절편이고.)
107066 #8 솔벤, 절벤 그 두 가지고. 또시 중궤, 약궤.('솔편', 절편 그 두 가지고. 또 중계, 약과.)
107067 @ 중궤, 약궤는 나중에 물어보고예.(중계, 약과는 나중에 물어보고요.)
107067 #8 으.(응.)
107067 @ 저 그 모ᄆᆞᆯᄀᆞ루, 모ᄆᆞᆯᄀᆞ루로 얇게 지저근에 속에 놈삐 놩 허는 떡은 뭐렌 ᄀᆞᆯ앗수과?(저 그 메밀가루, 메밀가루로 얇게 지져서 속에 무 넣어 하는 떡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67 #8 거 만듸.(거 '만두떡'.)
107067 @ 아니, 길게 하는 거.(아니, 길게 하는 거.)
107067 #8 아, 전기떡[202].(아, '전기떡'.)
107067 @ 전기떡?('전기떡'?)
107067 #8 어, 엿날에 그거 전기떡.(어, 옛날에 그거 '전기떡'.)
107067 @ 전기떡은 어떵 만들아마씨?('전기떡'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107067 #8 전기떡은 전기ᄀᆞ루 놩 이디 물 놔근엥에 막 영 영 뜨려근엥에 얇궤.('전기떡'은 메밀가루 넣어 여기 물 넣어서 마구 이렇게 이렇게 다뤄서 얇게.)
107067 @ 예.(예.)
107067 #8 막 뒈민 그것이 딱딱 벌러정 안 뒈어.(막 되면 그것이 딱딱 벌어져서 안 돼.)
107067 @ 예.(예.)
107067 #8 경허민 엿날에 솟뚜껑에 그듸 불 때영.(그러면 옛날에 솥뚜껑에 거기 불 때서.)
107067 @ 예.(예.)
107067 #8 불 때영 솟뚜껭이 싯엉, 영 헤영 안쪄근엥에 낭께기.(불 때서 솥뚜껑 씻어서, 이렇게 해서 앉혀서 나뭇가지.)
107067 @ 예.(예.)
107067 #8 집에 낭께기가 이서? 어디 저 산에 쯤 가근에에 낭께기 헤당근에 불 때영, 전기떡 영 거리 놩 지져근에.(집에 나뭇가지가 있어? 어디 저 산에 쯤 가서 나뭇가지 해다가 불 때서, '전기떡' 이렇게 거려 놓아 지져서.)
107067 @ 예.(예.)

202) '전기떡'은 '기름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둥글넓적하게 지지고, 거기에 무채나 팥소를 넣어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말한다. '전기떡'은 정의지역에서 쓰는 말인데 '빙떡'으로 잘 알려져 있다.

107067 #8 쏘곱에 놈삐 담아근에. 이제 저디 픈는 거 요만썩 헤도 그땐 전기떡 요만썩 걸게 헤여.(속에 무 담아서. 이제 저기 파는 거 요만씩 해도 그땐 '전기떡' 요만씩 걸게 해.)

107067 @ 맞아예, 맞수다.(맞아요, 맞습니다.)

107067 #8 이만썩 걸게 헤여.(이만씩 걸게 해.)

107067 @ 맞수다. 흔나 먹으믄 배 불어나난 거 기억 남수다.(맞습니다. 하나 먹으면 배 불었었던 거 기억 납니다.)

107067 #8 어, 경헤여.(어, 그랬어.)

107068 @ 그다음엔 상웨떡[203]은 어떵헷수과?(그다음엔 '상웨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68 #8 아, 상웨떡은 밀ᄀᆞ루, 문 밀 정ᄀᆞ레에 골아.(아, '상웨떡'은 밀가루, 모두 밀 풀맷돌에 갈아.)

107068 @ 예.(예.)

107068 #8 이젠 기곗방에 나주마는 그땐 기곗방 안나주. 정ᄀᆞ레에 골앙 ᄀᆞ루 빠근엥에.(이제는 방앗간이 있지마는 그땐 방앗간이 없었어. 풀맷돌에 갈아서 가루 빻아서.)

107068 @ 예.(예.)

107068 #8 거 또 저 피는 거, 상웨떡 피는 거, 엿날엔 기지엔 헤여.(거 또 저 띄우는 거, '상웨떡' 띄우는 거, 옛날엔 기주라고 해.)

107068 @ 음.(음.)

107068 #8 거 뭐 이젠 쉰다리[204]라도. 기지 헤 놔근엥에 상웨떡 그 물루 ᄆᆞᆯ아근엥에, 것도 아무상 엇이 잘 피는 사름.(거 뭐 이제는 '쉰다리'어도. 기주 해 넣어서 '상웨떡' 그 물로 반죽해서, 것도 아무 일없이 잘 띄우는 사람.)

107068 @ 음.(음.)

107068 #8 아니 피민 기자 납작헤불고, 잘 피민 요만썩 에쁘게 나오곡.(아니 띄우면 그저 납작해버리고, 잘 띄우면 요만씩 예쁘게 나오고.)

107068 @ 예.(예.)

107068 #8 아니 피민 이 닮아비어(손바닥을 내밀며.), 아니 피민.(아니 띄우면 이 닮아버려(손바닥을 내밀며), 아니 띄우면.)

107068 @ 삼춘은 막 잘 피어낫수과?(삼촌은 매우 잘 띄어났습니까?)

107068 #8 아니, 나도 잘못헌 때도 잇곡 잘헌 때도 잇곡 헤난, 나도.(아냐, 나도 잘못한 때도 있고 잘한 때도 있고 했었어, 나도.)

107068 @ 경헤낫구나예.(그랬군요.)

107068 #8 우리 대도. 어머니넨 거 잘 헤낫주마는.(우리 때도. 어머니는 그거 잘 했었지만.)

107069 @ 제사떡에는 어떤 어떤 떡들이 이서수과?(제사떡에는 어떤 어떤 떡들이 있

203) '상웨떡'은 밀가루에 기주를 넣은 다음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면 둥그렇게 만들어 겅그레 위에 넣고 찐 떡을 이르는데, 달리 '삼메떡'이라고도 한다.

204) '쉰다리'는 쉰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을 말하는데, 달리 '순다리'라고도 한다.

었습니까?)
107069 #8 제서?(제사?)
107069 @ 예, 제사할 때 무신 떡 무신 떡 헷수과?(예, 제사할 때 무슨 떡 무슨 떡 했습니까?)
107069 #8 난, 아바지 돌아 가부난, 그 젤벤, 솔벤, 제펜, 거시기 중궤 약궤, 솔벤 고찐 이 삭제 때라도.(난,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절편', '솔편', '제편', 거시기 중계, 약과 같이는 이 삭제 때라도.)
107069 @ 하나 더 무시거?(하나 더 무엇?)
107069 #8 그거 다 못헤여.(그거 다 못해.)
107069 @ 아.(아.)
107069 #8 못헤영 조개솔펜.(못해서 조개송편.)
107069 @ 예.(예.)
107069 #8 조개솔펜으로 간단허게.(조개송편으로 간단하게.)
107069 @ 예.(예.)
107069 #8 산듸쏠 혼 말 물에 컹, 그때 저 페선[205]이 가사 거 ᄀᆞ루 ᄀᆞᆯ아와.(밭벼쌀 한 말 물에 잠가, 그때 저 표선에 가야 그거 가루 갈아왔어.)
107069 @ 예.(예.)
107069 #8 ᄀᆞ루 그거 기곗방에 강 ᄀᆞᆯ아당 집이 오라근엥 그 쏠 혼 말은 커사. 거 숙구가 많이 이서 그때.(그루 그거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집에 와서 그 쌀 한 말은 잠가야. 거 식구가 많이 있어 그때는.)
107069 @ 음.(음.)
107069 #8 혼 말헤영 그 조개송펜 만들아도 다 이디서 갈랑 먹어불민.(한 말 해서 그 조개송편 만들어도 다 여기서 나눠 먹어버리면.)
107070 @ 송펜 얘기하는 건 다시 나중에 여쭤볼게요. 상례에 허는 떡은 어떤 거꽈?(송편 얘기하는 건 다시 나중에 여쭤볼게요. 상례에 하는 떡은 어떤 겁니까?)
107070 #8 상웨떡?('상웨떡?)
107070 @ 아니, 상날 때 허는 떡.(아니, 초상날 때 하는 떡.)
107070 #8 상웨떡 말아 무신?('상웨떡' 말고 무슨?)
107070 @ 상날 땐 무신 떡 헷수과?(초상날 땐 무슨 떡 했습니까?)
107070 #8 어, 장난 땐?(어, 초상난 때?)
107070 @ 예, 예.(예.)
107070 #8 어, 장난 땐 게게, 설벤, 절벤, 제펜, 중궤, 약궤 또시 제펜. 그거 다 만들엉 헷젠 허난. 엿날에 장 난 땐.(어, 초상난 때는 그래, '설편', '절편', '제편', 중계, 약과 또 '제편'. 그거 다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옛날에 초상난 때에는.)
107070 @ 장날 때나 제사헐 때나 별 차이 엇엇수과?(초상날 때나 제사할 때나 별 차이 없었습니까?)

205) '표선'은 서귀포시 표선면 면소재지를 말한다.

107070 #8 제사헐 땐 그거 불펜헨 다 아이 만들아, 다 아니 연.(제사할 땐 그거 불편해서 다 아니 만들어, 다 안 했어.)
107070 @ 겅헷구나예?(그랬군요?)
107070 #8 으, 크게 대소상 때 그거 다 만들아.(응, 크게 대소상 때 그거 다 만들어.)
107070 @ 예.(예.)
107070 #8 겐디 뚤덜 이시민 그거 다 맡아가.(그런데 딸들 있으면 다 맡아가지.)
107070 @ 음.(음.)
107070 #8 솔벤 맡아가는 사름, 절벤 맡아가는 사름, 엿날엔.('솔편' 맡아가는 사람, '절편' 맡아가는 사람, 옛날엔.)
107071 @ 설기떡이 뭐꽈? 설기떡.(설기떡이 뭡니까? 설기떡?)
107071 #8 어?(어?)
107071 @ 설기떡.(설기떡.)
107071 #8 설기떡은 이디 엇엇낫는디.(설기떡은 없었었는데.)
107071 @ 설기떡.(설기떡.)
107071 #8 설기떡?(설기떡?)
107071 @ 예.(예.)
107071 #8 설기떡 건 여기 엇엇낫는디.(설기떡은 여기 없었었는데.)
107071 @ 엇엇낫수과?(없었습니까?)
107071 #9 미신 떡?(무슨 떡?)
107071 @ 설기.(설기.)
107071 #9 엉?(엉?)
107071 #8 설기떡. 설기떡.(설기떡, 설기떡.)
107071 #9 설기?(설기?)
107071 #8 거? 엇엇수다.(그거? 없었습니다.)
107071 @ 백설기떡, 백설기. 하얀쌀 가루 갈아당 만드는 떡.(백설기떡, 백설기. 흰쌀 가루 갈아다가 만드는 떡.)
107071 #8 쏠가루 만드는 건 게 솔벤, 절벤, 제펜, 중궤, 약궤. 대소상 때나 그거ᄒᆞ주. 제서헐 땐 그거 복잡헤영 아네여.(쌀가루 만드는 건 그 '솔편', '절편', '제편', 중계, 약과. 대소상 때나 그거 하지. 제사할 땐 그거 복잡해서 안 해.)
107072 @ 인절미는 어떵 헷수과?(인절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7072 #8 아, 은절미는 영 ᄆᆞᆯ앙 요추룩 칼로 쫄랑 이거 이거 이거.(아, 인절미는 이렇게 말아서 요처럼 칼로 잘라 이거 이거 이거.)
107072 @ 예, 예.(예, 예.)
107072 #8 이것이 은절미.(이것이 인절미.)
107072 @ 은절미 무치는 ᄀᆞ루는 뭘로 무쳣수과?(인절미 묻히는 가루는 뭐로 묻혔습니까?)
107072 #8 은절미는 모ᄆᆞᆯᄏᆞ루로도 ᄒᆞ곡 산듸ᄀᆞ루로도 ᄒᆞ곡 희여 그건.(인절미는 메밀

가루로도 하고 밭벼가루로도 하고 해 그건.)
107072 @ 은절미 부트지 말게 뿌리는 ᄀᆞ루.(인절미 붙지 말게 뿌리는 가루.)
107072 #8 아, 춤지름.(아, 참기름.)
107072 @ 춤지름으로.(참기름으로.)
107072 #8 부트지 말게 춤지름. 영 헹 부트지. 쪙 나오민 물에 판찍, 이거 싯어근엥에 이레 다 춤지름 불랑 영 영 놔사 부트지 아니여 이레.(붙지 않게 참기름. 이렇게 해서 붙지. 쪄서 나오면 물에 깨끗이, 이거 씻어서 여기에 다 참기름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야 붙지 않아 여기에.)
107072 @ 음.(음.)
107072 #8 그때 고령차반지[206].(그때 '고령차반지'.)
107073 @ 절편은마씨?('절편'은요?)
107073 #8 절벤?('절편'?)
107073 @ 예, 절벤.(예, '절편'.)
107073 #8 절벤도 마찬가지, 절벤도.('절편'도 마찬가지, '절편'도.)
107073 @ 절벤 헐 땐 뭐뭐가 필요헷수과?('절편'할 때는 뭐 뭐가 필요했습니까?)
107073 #8 아, 산듸ᄀᆞ루, 산듸ᄀᆞ루.(아, 밭벼가루, 밭벼가루.)
107073 @ ᄀᆞ루는 이서야 뒈는데 그거 자르는 거라든가 본뜨는 거라든가 그거는 뭘로 헷수과?(가루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르는 거라든가 본뜨는 거라든가 그거는 뭐로 했습니까?)
107073 #8 무시거 ᄂᆞᆫ 거 엇인디 건.(무엇 놓은 거 없는데 그건.)
107073 @ 논 게 아니라 짜를 때.(놓은 게 자를 때.)
107073 #8 아, 짜를 때 칼로, 칼로.(아, 자를 때 칼로, 칼로.)
107073 @ 칼로만.(칼로만.)
107073 #8 칼로 막 영 돔베 밀엉.(칼로 마구 이렇게 도마 밀어서.)
107073 @ 예.(예.)
107073 #8 칼로 똑 요만썩, 요만썩 짤라. ᄒᆞ민 똑 요만썩 쫄라.(칼로 똑 요만씩, 요만씩 잘라. 하면 똑 요만씩 잘라.)
107073 @ 절변 하고 인절미 하고 크기가 다르꽈?('절편' 하고 인절미 하고 크기가 다른가요?)
107073 #8 절벤ᄒᆞ고 은절민 달르주게. 저 절벤은 돌글랑ᄒᆞ게 헤근엥에 그 본.('절편' 하고 인절미는 다르지. 저 '절편'은 동그랗게 해서 그 떡살.)
107073 @ 예.(예.)
107073 #8 똑똑 짤랑 동글랑ᄒᆞ고, 이건 거시기 요추룩 ᄒᆞ는 건 저 은절미.(똑똑 잘라서 동그랗고, 이건 거시기 요처럼 하는 건 저 인절미.)
107073 @ 예.(예.)

206) '고령차반지'는 대오리나 차풀의 줄기로 엮어서, 채롱보다 통이 아주 얕고 작게 만든 뚜껑 있는 그릇을 말한다.

107073 #8 요건 은절미고, 저 솔벤은 또 영 헤영 본 이서.(요건 인절미고, 저 '솔편'은 또 이렇게 해서 떡살 있어.)
107073 @ 예.(예.)
107073 #8 짝짝 밀엉 본으로 딱딱 떵.(좍좍 밀러서 떡살로 딱딱 떠서.)
107073 @ 떤근에예.(떠서요.)
107073 #8 떠근엥 솟듸 놩 그 저, 소남 소남썹 ᄀᆞ루 ᄀᆞ루 아니 썹 기차다근엥에 영 ᄂᆞ멍 영 놔사, 거 떼멍 솟듸 놩 쳐.(떠서 솥에 넣어서 그 저, 소나무 솔잎가루 가루 아니, 잎 잘라다가 이렇게 놓으며 이렇게 놓아야, 거 떼면서 솥에 넣어 쪄.)
107073 @ 쳐근에예.(쪄서요.)
107073 #8 응, 쳐근에 엿날에 어떵 떡 ᄒᆞ젠ᄒᆞ민 얼마나 복잡ᄒᆞ게 헤낫이니.(응, 쪄서 옛날에 어떻게 떡 하려고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했었니.)
107075 @ 우찍은 안헷수과? 우찍떡?(웃기떡은 안 했습니까? 웃기떡.)
107075 #8 무사, 우찍. 거 대소상 때.(왜, 웃기떡. 그거 대소상 때.)
107075 @ 음.(음.)
107075 #8 영장 때나 소상 대상, 엿날엔 다 ᄒᆞ난. 우찍, 우찍이영.(영장 때나 소상 대상, 옛날엔 다 하니까. 웃기떡, 웃기떡이랑.)
107075 @ 우찍은 어떵 만들앗수과?(웃기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75 #8 우찍은 요만이, 본 이서.(웃기떡은 요만큼, 떡살 있어.)
107075 @ 예.(예.)
107075 #8 요멘이ᄒᆞᆫ 거.(요만한 거.)
107075 @ 예.(예.)
107075 #8 건 본 이서. 건 상에 올릴 거벳긔 아니여.(그건 떡살 있어. 그건 상에 올릴 거밖에 안 해.)
107075 @ 아, 그냥 먹을 건 안 헤마씨?(아, 그냥 먹을 건 안 해요?)
107075 #8 먹을 건 아니여, 건. 상에 올릴 거 뿐 우찍. 건 상에 올릴 때 다 쓰는 거난.(먹을 건 안 해, 그건. 상에 올릴 거 뿐 웃기떡. 그건 상에 올릴 때 다 쓰는 거니까.)
107075 @ 기름떡도 헤낫수과?(기름떡도 했습니까?)
107075 #8 지름떡은 요 춥쏠 ᄀᆞᆯ아다근에 요 중간에사 지름떡, 춥쏠 ᄀᆞᆯ아다근엥에 지름에 튀겨.(기름떡은 요 찹쌀 갈아다가 요 중간에야 기름떡, 찹쌀 갈아다가 기름에 튀겨.)
107075 @ 튀경예? 그 지름떡헐 때도 별모양으로 딱 뜰 때는 어떵 것도 본이 이서수과?(튀겨서요? 그 기름떡 할 때도 별모양으로 딱 뜰 때는 어떻게 것도 본이 있었습니까?)
107075 #8 아니, 그건 본으로 딱딱 떠근에 지름에 튀겨.(아니, 그건 본으로 딱딱 떠서 기름에 튀겨.)
107075 @ 아, 튀경 그걸.(아, 튀겨서 그걸.)
107075 #8 어, 겨민 찰 쌀떡 흐리는 거난 조심헤영 헤사.(어, 그러면 찰진 쌀떡 흘리

는 거여서 조심해서 해야.)
107075 @ 그때 본뜨젠 허민 본뜨는 그거는 어떵 헹 만들앗수과?(그때 본뜨려 하면 본뜨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107075 #8 무시거?(무엇?)
107075 @ 본, 본.(본, 본.)
107075 #8 아, 본. 거시기 본은 양철.(아, 본. 거시기 본은 양철.)
107075 @ 양철? 양철, 집에서 만들앙?(양철? 양철, 집에서 만들어서?)
107075 #8 양철 쒜로헤근엥에 영 헤근엥에 그 떡 본을 만들민, 걸로 영 밀엉 딱 ᄒᆞ게 트민 그 솔벤 나오주게.(양철 쇠로해서 이렇게 해서 그 떡 본을 만들면, 걸로 이렇게 밀어서 딱 하게 뜨면 그 '솔편' 나오지.)
107075 @ 본도 삼춘네가 만들앗수과?(본도 삼촌네가 만들었습니까?)
107075 #8 어, 만들아.(어, 만들어.)
107075 @ 누게가 만들앗수과?(누가 만들었습니까?)
107075 #8 아바지네 산 때.(아버지 살았을 때.)
107075 @ 살 때.(살았을 때.)
107075 #8 아바지네 산 때 만들앗단 아바지 젊은 때 돌아가부난 걸로 허단에, 기자 대소상 때 걸로 쓰단에 저 제서 땐 거 아니 히여, 아니 히여. 그자 넘어가.(아버지 살았을 때 만들었다가 아버지 젊은 때 돌아가셔서 걸로 하다가, 그저 대소상 때 걸로 쓰다가 저 제사 땐 거 안 해, 안 해. 그저 넘어가.)
107076 @ 그문 바당에나 아니문 당에, 본향당 잇잖아예? 당, 당에 강 제사 지낼 때, 굿허는 당.(그러면 바다에나 아니면 당집에, 본향당 있잖아요? 당집, 당집에 가서 제사 지낼 때, 굿하는 당집.)
107076 #8 어, 어. 우리 그런 거 아네여.(어, 어. 우린 그런 거 안 해.)
107076 @ 안 해봣수과?(안 해봤습니까?)
107076 #8 우린 성당. 엿날부터 성당.(우린 성당. 옛날부터 성당.)
107076 @ 성당 다녓수과?(성당 다녔습니까?)
107076 #8 성당, 이제두 성당. 어머니가 성당에 일셍, 세 술 적에부터 어머니가 그 성당에 뎅기단 돌아가부난에 미사드리국 허당보난에 우리두 성당.(성당, 이제도 성당. 어머니가 성당에 일생, 세 살적부터 어머니가 그 성당에 다니다가 돌아가셔서 미사 드리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성당.)
107076 @ 여기 어른덜은 그 당에 제사 할 때 무신 떡 헴신고예?(여기 어른들은 그 당에 제사 할 때 무슨 떡 할까요?)
107076 #8 다 그거, 그거.(다 그거, 그거.)
107076 @ 그냥 똑 같이?(그냥 똑 같이?)
107076 #8 으.(응.)
107076 @ 기냥 흰떡만?(그냥 흰떡만?)
107076 #8 이 이젠 아니여. 엿날에 ᄒᆞ주, 이젠 아니여.(이 이젠 안 해. 옛날에 하지,

이젠 안 해.)
107076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7076 #8 엿날에 기자 나 ᄀᆞᆯ은 거 다 헤낫어.(옛날에 그저 내가 말한 거 다 했었어.)
107076 @ 다데가 뭐꽈? 다데.(다데가 뭡니까? 다데.)
107076 #8 무시거?(무엇?)
107076 @ 다데.(다데.)
107076 #8 거 떡 일름 아니라 다데[207]. 거 ᄆᆞ을 일름인디, 저디.(그거 떡 이름 아니야 다데. 그거 마을 이름인데, 저기.)
107076 @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107076 #8 다데?('다데'?)
107076 @ 예.(예.)
107076 #8 다덴 저.('다데'는 저.)
107076 @ 당이나 이렇게 그.(당집이나 이렇게 그.)
107076 #8 장의사?(장의사?)
107076 @ 아니, 아니 아니. 신방허는 그 당이라든가 바당에 가근에.(아니, 아니 아니. 굿하는 그 당집이라든가 바다에 가서.)
107076 #8 아, 우리 성당에 뎅겨부난 그런 걸 아녀 나부난.(아, 우리 성당에 다녀버려서 그런 걸 안 해버려서.)
107076 @ 봐난 적도 엇수과?(봤었던 적도 없습니까?)
107076 #8 어, 어. 그런 걸 아녀난, 우린.(어, 어. 그런 걸 안 했었어, 우린.)
107077 @ 그믄 굿 떡도 무시거 허는 지 모르쿠과?(그러면 굿 떡도 무엇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107077 #8 무시거?(무엇?)
107077 @ 굿헐 때 허는 거.(굿할 때 하는 거.)
107077 #8 아, 굿허젠 헤도 우리 구경은 헤낫어. 게 소곰도 안 놓곡.(아, 굿하려고 해도 우리 구경은 했었어. 그 소금도 안 넣고.)
107077 @ 소금도 안 놩.(소금도 안 넣고.)
107077 #8 저, 쏠 물에 컷당, 담갓당, 기곗방에 강 ᄀᆞ루 ᄀᆞᆯ아당.(저, 쌀 물에 잠갔다가, 담갔다가, 방앗간에 가서 가루 갈아다가.)
107077 @ 예.(예.)
107077 #8 소곰도 아이 놩, 기자 뀌는 물에 기자 ᄆᆞᆯ루왕, 돌레떡[208] 만들아. 똥글랑허게.(소금도 안 넣고, 그저 끓는 물에 그저 반죽해서, '돌레떡' 만들어. 동그랗게.)
107077 @ 아, 돌레떡 만들앙, 돌레떡으로.(아, '돌레떡' 만들어서, '돌레떡'으로.)
107077 #8 어, 돌레떡 만들앙 굿 떡 거 ᄒᆞ는 거.(어, '돌레떡' 만들어서 굿 떡 그 하는 거.)

207) '다데'는 당집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을 이르는데, 달리 '다데떡', '당다데'라고 말한다.
208)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

107077 @ 아, 굿떡은 돌레떡예?(아, 굿 떡은 '돌레떡'이요?)
107077 #8 어, 거 소곰 안 놩 허주게.(아, 거 소금 안 넣어서 하지.)
107077 @ 음.(음.)
107077 #8 경ᄒᆞ민 다 올라 나민, 심방덜이 그 굿 거 ᄆᆞ까 나민, 그디 구경ᄒᆞ는 사름덜 ᄒᆞ나썩 다 테와주어.(그러면 다 올리고 나면, 무당들이 그 굿 마치고 나면,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 하나씩 다 나눠주어.)
107077 @ 아, 아.(아, 아.)
107077 #8 겨민 그거 얻어먹젠 다 아자.(그러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모두 앉아.)
107077 @ 아, 그렛구나예.(아, 그랬군요.)
107077 #8 거 얻어먹젠.(그거 얻어먹으려고.)
107077 @ 거민예? 아까 그 얘기헌 뭐 일곱 가지 떡, 우찍까지, 돌레떡 까지 빼놓고 다른 떡 더 엇엇수과?(그러면요? 아까 그 얘기한 뭐 일곱 가지 떡, 웃기떡까지, '돌레떡' 까지 빼놓고 다른 떡 더 없었습니까?)
107078 #8 무시거 다른 떡?(뭐 다른 떡?)
107078 @ 그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여기.(그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여기.)
107078 #8 아, 우리 먹는 떡은 기자 저 만듸떡[209].(아, 우리 먹는 떡은 그저 저 '만두떡'.)
107078 @ 만듸떡.(만두떡.)
107078 #8 경 헌 땐 기자 영 ᄆᆞᆯ앙 거 빨리 헤지는 걸로. 영헹 기자 좁앙 모ᄆᆞᆯᄏᆞ루로 영 헹 만띄떡 만들앙 기자 확, 숣아네영.(그렇게 했을 땐 그저 이렇게 반죽해서 그거 빨리 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저 집어서 메밀가루로 이렇게 해서 '만두떡' 만들어서 그저 확, 삶아내서.)
107078 @ 확, 숣아네영예? 만듸떡도 안에는 놈삐 넣고예?(확, 삶아내서요? '만두떡'도 안에는 무 넣고요?)
107078 #8 으.(응.)
107078 @ 저 아까 정기떡도 놈삐 넣고예?(저 아까 빙떡도 무 넣고요?)
107078 #8 으, 정기떡두 이젠 아네여.(응, 빙떡도 이젠 안 해.)
107078 @ 안 헤여예?(안 해요?)
107078 #8 이제 잔치 때벳긔 정기떡 아니 혀, 잔치 때. 요만썩 허게.(이제 잔치 때밖에 빙떡 안 해, 잔치 때. 요만씩 하게.)

소와 고물

107079 @ 이젠 떡 헐 때 그저 아까 송편 같은 거 속에 뭐 놓는 거에 데헤 한번 여쭤보쿠다예.(이젠 떡 할 때 그저 아까 송편 같은 거 속에 뭐 놓는 거에 대해 한번 여쭤보

209) '만듸떡'은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

겠습니다.)
107079 #8 어, 놓는 거? 놈삐벳긔 엇어, 놈삐. 놈삐 솖앙 싹 건졍.(어, 넣는 거? 무밖에 없어, 무. 무 삶아서 싹 건져서.)
107079 @ 겨난 그게 정기떡이나.(그러니까 그게 빙떡이나.)
107079 #8 으.(응.)
107079 @ 만디 헐 때 놈삐 놓주마는 저, 무시거헐 때게 송편, 송편 헐 때.('만두떡' 할 때 무 넣지마는 저, 무엇할 때에 송편, 송편 할 때.)
107079 #8 아, 솔편 홀 땐게 그거 밀엉 곧.(아, 송편 할 때는 그거 밀어서 곧.)
107079 @ 솔편 속에, 속에.(송편 속에, 속에.)
107079 #8 아, 건 밀엉 기자 솔입 걷어당 솔입 것에 놩, 기자 놩게 영 납작헌 거 기자 찐덴 ᄒᆞ난.(아, 그건 밀어서 그저 솔잎 걷어다가 솔잎 그것에 그저 놓아, 그저 놓아서 이렇게 납작한 그거 그저 찐다고 하니까.)
107079 @ 아, 그게 무신 떡이꽈? 이 저 쌀가루.(아, 그게 무신 떡입니까? 이 저 쌀가루.)
107079 #8 아, 상웨떡[210]?(아, '상웨떡?)
107079 @ 아니, 속에다가 떡 속에다가.(아니, 속에다가 떡 속에다가.)
107079 #8 거 만듸벳긔.(그거 '만두떡'밖에.)
107079 @ 아니, 만듸 말고.(아니, '만두떡' 말고.)
107079 #8 무시거?(무엇?)
107079 @ 송편, 그냥 우리가 먹는 송편인데.(송편, 그냥 우리가 먹는 송편인데.)
107079 #8 으.(응.)
107079 @ 저 쌀 갈아다근에 뜨거운 물 놩 반죽하잖아예?(저, 쌀 갈아다가 뜨거운 물 넣어 반죽하잖아요?)
107079 #8 응.(응.)
107079 @ 반죽 헹 손으로 영 뜯으멍 이 속에 뭐 설탕이나 깨나 놓고 허는 건 뭐꽈?(반죽 해서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이 속에 뭐 설탕이나 깨나 놓고 하는 건 뭡니까?)
107079 #8 어, 그건 우리 잘 아이 만들아 봐신디이.(어, 그건 우리 잘 안 만들어 봤는데.)
107079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79 #8 솔펜, 기자 그것도 기자 저 솔펜이엔 골아.(송편, 그저 그것도 기자 저 '송편'이이라고 말해.)
107079 @ 솔펜이엔 골앗수과?(송편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79 #8 송펜 송펜.(송편, 송편.)
107079 @ 송펜.(송편.)
107079 #8 어, 송펜, 송펜.(어, 송편, 송편.)

---

210) '상웨떡'은 밀가루에 기주를 넣은 다음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면 둥그렇게 만들어 겅그레 위에 넣고 찐 떡을 이르는데, 달리 '삼메떡'이라고도 한다.

107079 @ 송펜 속엔 뭐 놧수과?(송편 속에는 뭐 넣었습니까?)
107079 #8 그거, 그때 꿰 보깡도 놓곡 저, 풋도 솖아근엥에 놓곡 경흐연 그때.(그거, 그때 참깨 볶아서도 넣고 저, 팥도 삶아서 넣고 그랬어, 그때.)
107079 @ 경헤낫수과?(그랬었습니까?)
107079 #8 이신 거 기자 이신 거.(있는 거 그저 있는 거.)
107079 @ 이신 거.(있는 거.)
107080 @ 그다음엔예, 아까 그 저 은절미나 이거 하면은 은절미는 참기름 말고.(그다음은요, 아까 그 저 인절미나 이거 하면은 인절미는 참기름 말고.)
107080 #8 춤지름벳긔 불르는게 뭐 엇어. 기자 영 헹 칼로 삭삭 기차근엥에.(참기름밖에 뭐 없어. 그저 이렇게 해서 칼로 삭삭 잘라서.)
107080 @ 녹두가루나 콩가루는 안 발랏수과?(녹두가루나 콩가루는 안 발랐습니까?)
107080 #8 아니, 기자 곱닥ᄒᆞ게 기자 헤여.(아니, 그저 곱게 그저 해.)
107081 @ 그다음엔예?(그다음은요?)
107081 #8 으.(응.)
107081 @ 떡에 관련뒈어 가지고예?(떡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107081 #8 으.(응.)
107081 @ 무신 속담 같은 거 엇엇수과?(무슨 속단 같은 거 없었습니까?)
107081 #8 무시거?(무엇?)
107081 @ 떡, 떡에 대한 속담. 아니면 떡 만들 때 뭐 조심헤야 뒈는 거라든가.(떡, 떡에 대한 속담. 아니면 떡 만들 때 뭐 조심해야 되는 거라든가.)
107081 #8 아, 그 그런 거?(아, 그 그런 거?)
107081 @ 예.(예.)
107081 #8 조심 게, 게 시리떡 칠 때엔.(조심 그, 그 시루떡 찔 때에는.)
107081 @ 예.(예.)
107081 #8 그 부엌에 들어가민 그 떡이 안 익어.(그 부엌에 들어가면 그 떡이 안 익어.)
107081 @ 아, 아.(아, 아.)
107081 #8 그 떡이 안 익엉 시리에 파식파식 ᄒᆞ멍 게난 요거 부엌이민 그 딱 그 불 때는 어른만 ᄀᆞ만이 그듸 아점주. 일로 사름도 들어가지 못ᄒᆞ국.(그 떡이 안 익어서 시루에 파식파식 하면서 그러니 요게 부엌이면 그 딱 그 불 때는 어른만 가만히 거기 앉지. 이리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107081 @ 음.(음.)
107081 #8 사름, 시리 영 아진 때에 사름 들어가민 떡이 안 익엉 경 저둘라. 파식파식 올로 파식파식 물 나오멍 사름 들어가민 부정 헤근엥에.(사람, 시루를 이렇게 앉힌 때에 사람 들어가면 떡이 안 익어서 그렇게 근심시켜. 파식파식 요리로 파식파식 물 나오면서 사람 들어가면 부정 타서.)
107081 @ 아, 사름 들어가민.(아, 사람 들어가면.)

107081 #8 경흔뎅 ᄒᆞ멍 ᄂᆞ시 안 익엉.(그런다면서 도저히 안 익어서.)
107081 @ 음.(음.)
107081 #8 경ᄒᆞ멍 우린 시리떡 난 아녀 봣주. 난 기자 영 구경만 헤여. 게난 시리떡 할망 헐 때 이딧당 들어가지도 아녀.(그러면서 우린 시루떡 난 안 해봤지. 난 그저 이렇게 구경만 해. 그러니 시루떡 할머니 할 때 여기 있다가 들어가지도 않아.)
107081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7081 #8 떡이 안 익어.(떡이 안 익어.)
107081 @ 안 익어근에예?(안 익어서요?)
107081 #8 아, 거 조심헤야 뒈는 거, 시리떡 칠 땐.(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시루떡 찔 때는.)
107081 @ 기구나예?(그렇군요?)

별식

107082 @ 그다음엔예, 혹시 순대 같은 거 담앙 먹어봣수과?(그다음은요, 혹시 순대 같은 거 담아서 먹어봤습니까?)
107082 #8 아이, 순대 아바지 생신 때.(아니, 순대 시아버지 생신 때.)
107082 @ 예.(예.)
107082 #8 아바지 생신 때 나 시집오난에 도새기 잡앙.(시아버지 생신 때 나 시집오니까 돼지 잡아서.)
107082 @ 예, 도새기 잡앙.(예, 돼지 잡아서.)
107082 #8 도새기 잡아근에 그듸 순대, 경 헹 막 이것저것 놔, 아바지가.(돼지 잡아서 거기에 순대, 그렇게 해서 마구 이것저것 넣어, 시아버지가.)
107082 @ 무시거 무시거 놧수과?(무엇 무엇 넣었습니까?)
107082 #8 몰라. 그때 양념은 무시것사 놔신디 우린 먹음만 헤부난. 모ᄆᆞᆯᄏᆞ루 놓곡.(몰라. 그때 양념은 뭐야 넣었는지 우린 먹기만 해버려서. 메밀가루 넣고.)
107082 @ 예.(예.)
107082 #8 그듸에 대사니도 ᄲᅥ사놓곡, 양념 다헤 놔.(거기에 마늘도 찧어 넣고, 양념 다해 넣어.)
107082 @ 아.(아.)
107082 #8 다 영 헹 순대 담아.(다, 이렇게 순대 담아.)
107082 @ 예.(예.)
107082 #8 담앙 저 그땐 솟듸서 찌도 아녀고 어머니가, 보난 솖안게.(담아서 저 그땐 솥에서 찌도 않고 어머니가, 보니까 삶던데.)
107082 @ 아, 예.(아, 예.)
107082 #8 물 끌령, 영 형, 솖앙 터지민 막 헹 무시거 허곡. 어머니가 순대 담안 우리 주난 먹엇주. 우리 손으론 아녀 보고.(물 끓여서, 이렇게 해서, 삶아서 터지면 막 해서

무엇 하고. 어머니가 순대 담아서 우리 주니까 먹었지. 우리 손으로는 안 해보고.)
107082 @ 안 헨 먹어봣구나예.(안 해서 먹어봤군요.)
107082 #8 아녀 보고 그건.(안 해보고 그건.)
107083 @ 두부는 혹시 만들어 먹어봣수과?(두부는 혹시 만들어 먹어봤습니까?)
107083 #8 어?(어?)
107083 @ 두부, 두부.(두부, 두부.)
107083 #8 두부, 두부두 우린 아니 만들어봔.(두부, 두부도 우린 아니 만들어 봤어.)
107083 @ 안 만들아 봣수과?(만 만들어봤습니까?)
107083 #8 으.(응.)
107084 @ 게민 저 모물쏠로 모물묵은 헤봣지예?(그러면 저 메밀쌀로 메밀묵은 해봤지요?)
107084 #8 으, 그거 우리 우리 아이고, 제서 때에 모물ᄀᆞ루 사다근엥에 솟듸 놔근엥에 파윽! 힘 다 넹 저서야 뒈여, 저서야.(으, 그거 우리 우리 아이고, 제사 때에 메밀가루 사다가 솥에 넣어서 파윽! 힘 다 내서 저어야 돼, 저어야.)
107084 @ 흔 멧 시간정도마씸?(한 몇 시간 정도요?)
107084 #8 저성 막 익으민 다라 터레 이디 퍼 놩, 막 짝 ᄒᆞ게 이디 영 만들아근엥에 동글락 영 ᄒᆞ민, 거 다 식으민 영 네모나게 싹싹 베민.(저어서 막 익으면 대야 속에 여기 퍼 넣어서, 막 쫙 하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거 다 식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싹싹 베면.)
107084 @ 음.(음.)
107084 #8 베엿다근에 ᄒᆞ민 말젯 돔베에 놔근에 요추룩 다 짤랑, 고젱이에 꿰영.(베었다가 하면 나중에는 도마에 놓아서 요처럼 다 잘라서, 꼬챙이에 꿰어서.)
107084 @ 멧 시간정도 저서야 됩니까?(몇 시간 정도 저어야 됩니까?)
107084 #8 저슬 때? 흔 시간 이상이라.(저을 때? 한 시간 이상이야.)
107084 @ 음.(음.)
107084 #8 아이고, 겨민 ᄉᆞ뭇 여름엔 뜸이 이레 닥닥 털어지민 수건 이디 놓곡, 뜸이레 들어 가카부덴 수건 이디 놓곡 저서사 뒈여.(아이고, 그러면 사뭇 여름엔 땀이 이리 툭툭 떨어지면 수건 여기 놓고, 땀 이리로 들어 갈까봐 수건 여기 놓고 저어야 돼.)
107084 @ 삼춘 저슬 때 남자삼춘 안 도와 줍디가?(삼촌 저을 때 남자삼촌 안 도와주었습니까?)
107084 #8 무시거?(무엇?)
107084 @ 그거 막, 모물떡 헐 때, 묵 헐 때 저슬 때, 도와주지 안헙디가?(그거 막, 메밀떡 할 때, 묵 할 때 저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107084 #8 에, 이 어른 그때 시에 강 살아불민, 겨곡 남저덜 도와주지 아녀, 경헌 때.(에, 이 어른 그때 시에 가서 살아버리면, 그리고 남자들 도와주지 않아, 그럴 때.)
107084 @ 음, 경헷구나.(음, 그랬구나.)
107084 #8 여저덜만 ᄒᆞ주 남저 안 도와주어. 안 도와주어, 남저덜.(여자들만 하지 남

자 안 도와주어. 안 도와주어, 남자들.)
107085 @ 청묵은 끌려봣수과?(청묵은 끓여봤습니까?)
107085 #8 아, 청묵[211]은 우리 안 끌려봔.(아, '청묵'은 우리 안 끓여봤어.)
107085 @ 안 끌려봔.(아, 안 끓여봤어요.)
107084 #8 어, 우리 기자 그 ᄆᆞ멀코루 제서 때 사당, 딴 건 못헤도 묵은 똑 헤야.(어, 우리 그저 그 메밀가루 제사 때 사다가, 딴 건 못해도 묵은 꼭 해야.)
107084 @ 모물묵 헐 땐예?(메밀묵 할 때는요?)
107084 #8 어, 묵.(어, 묵.)
107084 @ 모물묵 헐 땐 무시거 가까이 가면 안 뒈곡 허는 이런 거 엇엇수과?(메밀묵 할 땐 무엇 가까이 가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거 없었습니까?)
107084 #8 아이, 그 묵 헐 때, 그 저슬 땐 그거 엇고.(아니, 그 묵 할 때, 저을 땐 그거 없고.)
107084 @ 엇고.(없고.)
107084 #8 시리떡만 딴 사름 가까이 가면 안 뒈영. 팍, 일루두 팍 터지국, 절루두 터지국 ᄒᆞ멍 아이 경 숭봐.(시루떡만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팍, 이리도 팍 터지고, 저리로도 터지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흉봐.)
107084 @ 숭봐.(흉봐.)
107084 #8 으, 시리떡 홀 때. 똑 그 할망만, 이디 사름 못 뎅겨.(응, 시루떡 할 때. 꼭 그 할머니만, 여기 사람 못 다녔어.)
107086 @ 개역은 헹 먹어 봣수과?(미숫가루는 해서 먹어봤습니까?)
107086 #8 어, 개역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 비두 개역은 막 헹 먹어봔. 개역.(어, 미숫가루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 버려도 미숫가루는 많이 해서 먹어봤어. 미숫가루.)
107086 @ 언제까지 헤 먹어봣수과?(언제까지 해 먹어봤었습니까?)
107086 #8 개역, 보리, 솟듸 놩 보끄민.(미숫가루, 보리, 솥에 넣어 볶으면.)
107086 @ 예.(예.)
107086 #8 그거 헤옇게 딱딱 벌러져 다.(그거 허옇게 딱딱 벌어져 모두.)
107086 @ 예.(예.)
107086 #8 겨민 그걸 더 걸경 이레 놔동, 또 보리 솟더레 놩 또 저섯다 저섯다 ᄒᆞ민, 그거 헤옇게 피영 다 보까지민 이레 박세기로 막 솟듸 거영 이레 거려 놔동, 또 이레. 그거 보끄젠 허민 ᄉᆞᄆᆞᆺ 똠이.(그러면 그걸 더 긁어서 이리로 놔두고, 또 보리 솥에 넣어 또 젓고 젓고 하면, 그거 허옇게 피어서 다 볶아지면 여기에 바가지로 막 솥에 거하고 여기에 펴 놓고는, 또 여기에. 그거 볶으려고 하면 사뭇 땀이.)
107086 @ 갈 땐 뭘로 갈앗수과?(갈 때는 뭐로 갈았습니까?)
107086 #8 어?(어?)
107086 @ 예, 갈 때.(갈 때.)
107086 #8 갈 때? ᄀᆞ레예, 정ᄀᆞ레예.(갈 때? 맷돌에, 풀맷돌에.)

211) '청묵'은 메밀쌀을 물과 함께 자루에 담아 놀려서 나온 묽은 물로 만든 묵.

107086 @ 정ᄀᆞ레예.(풀맷돌에.)
107086 #8 정ᄀᆞ레예 아자근엥에. ᄒᆞ민 버청, 그때 이 어른은 엇인 때라도 ᄆᆞᆫ 아이덜이라도 도와주어사 ᄒᆞ주, 혼자 못 ᄀᆞᆯ아, 버청.(풀맷돌에 앉아서. 하면 부쳐서, 그때 이 어른은 없는 때라도 모두 아이들이라도 도와주어야 하지, 혼자 못 갈아, 부쳐서.)
107086 @ 음.(음.)
107086 #8 영 형 ᄀᆞᆯ젠 ᄒᆞ민. ᄀᆞ레에 ᄀᆞᆯ젠 ᄒᆞ민. 원 그 ᄀᆞ레 다 어디사 가신디 몰라.(이렇게 해서 갈려고 하면. 맷돌에 갈려고 하면. 원 그 맷돌 다 어디야 갔는지 모르겠어.)
107086 @ 게난예, 진짜.(그러게요, 진짜.)
107087 #8 오, 그 ᄀᆞ레 다 어디사 가신디 몰라, 이제.(오, 그 맷돌 다 어디야 갔는지 모르겠어, 이제.)
107087 @ 지짐이는 혜 먹어봣수과?(지짐이는 해서 먹어봤습니까?)
107087 #8 어? 지짐이?(어? 지짐이?)
107087 @ 여긴 뭐렌 ᄀᆞᆯ읍니까? 저 뗀뿌라를.(여긴 뭐라고 말합니까? 지짐이를.)
107087 #8 아, 뗀뿌라[212]? 기자 기자 뗀뿌라 그땐 뗀뿌라 생각 어느 하가의, 아년 먹어봔.(지짐이? 그저 그저 지짐이 그땐 지짐이 생각 어느 겨를에, 안 해 먹어봤어.)
107087 @ 아이들안틔 안 혜 줘봣수과?(아이들한테 안 해 주어봤습니까?)
107087#8 어, 애기덜앞이도 아녜주고, 보리쏠 솖앙만, 그때 어느 하가의 뗀뿌라 지지곡? 경 무신 ᄀᆞ룰 경 멘들아저서? 아이덜 ᄋᆞ슷 개라도 ᄒᆞ교에 갈 때 듯날 아치기 보리쏠, 나가 막 인칙 일어낭 밥ᄒᆞ당 봐도 거 보리쏠만 놩, 보리쏠만.(어, 아기들에게도 안 해주고, 보리쌀 삶아서만, 그때 어느 겨를에 지짐이 지지고? 그렇게 무슨 가루를 그렇게 만들어졌어? 아이들 여섯 명이라도 학교에 갈 때 뒷날 아침에 보리쌀, 내가 막 일찍 일어나서 밥하다가 봐도 거 보리쌀만 넣어서, 보리쌀만.)
107087 @ 음.(음.)
107087 #8 무신 딴 거 놀 것가 이서? 무시 것가.(무슨 딴 거 넣을 것이 있어? 무슨 것이.)
107087 @ 아니, 무사 옛날에 영 어릴 때 생각헤보면 도새기기름 영 두껍게 혜 놧당, 비오는 날 막 헤주고, 전 기억 나거든예.(아니, 왜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해보면 돼지기름 이렇게 두껍게 해 놓았다가, 비오는 날 막 해주고, 전 기억나거든요.)
107087 #8 아니, 그 그런 거 우린 아녀봔. 도새기지름으로 경 우린 아녀봔.(아니, 그 그런 거 우린 안 해봤어. 돼지기름으로 그렇게 우린 안 해봤어.)
107087 @ 안 헤바봔예?(안 해봤다고요?)
107087 #8 어, 우린 우리 대엔. 우리 헤본 것만 ᄀᆞᆯ앗주.(어, 우린 우리 시대엔. 우리 해본 것만 말했지.)
107088 @ 게민예? 오메기술은 혜 먹어봣수과?(그러면요? '오메기술'은 해 먹어봤습니까?)

212) '뗀뿌라'는 일본어 てんぷら이며 표준어 튀김에 대응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지짐이를 말한다.

107088 #8 어, 오메기[213], 어머니 ᄒᆞ는 거 구경만 헷주, 난 잘 ᄒᆞᆯ 줄 몰라.(어, '오메기', 어머니 하는 거 구경만 했지, 난 잘 할 줄 몰라.)

107088 @ 그거 어떵 만듭니까?(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107088 #8 오메기떡, 물 꿰왕 좁쏠, 희린좁쏠 물에 컷당, 어머니 살 땐, 아바지영 살 땐, 물ᄀᆞ레에 ᄀᆞᆯ아.('오메기떡', 물 끓여 좁쌀, 차조 물에 잠갔다가, 어머니 살았을 땐, 아버지랑 살 땐, 연자매에 갈아서.)

107088 @ 예.(예.)

107088 #8 물ᄀᆞ레영 이디 서나서. 겨민 막 헹 ᄀᆞ루 ᄀᆞᆯ앙, 치멍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엥에 물 꿰와근에 그걸 막 영영 만들앙, 오메기떡 몬털몬털 여디 꼭꼭 누루뜨멍, 솟듸 놩 남불 엇이민 검질로 솜아야 뒈어. 그땐 낭 잘 엇인 땐.(연자매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막 해서 가루 갈아서, 치면서 가루 갈아다가 물 끓여서 그걸 마구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서, '오메기떡' '몬털몬털' 여기 꼭꼭 누르면서, 솥에 넣어 나무불 없으면 검불로 때야 돼. 그땐 나무 잘 없을 때는.)

107088 @ 예.(예.)

107088 #8 검질로 어멍 똠 찰찰 ᄒᆞ멍, 그거 ᄒᆞ민 우리도 불 도와 영 검질로 도와. 그땐 낭이 경 어디 어려완 남풀이 경 엇어라게 원.(검불로 어머니 땀 철철 흐르며, 그거 하면 우리도 불 도와서 이렇게 검불로 도왔어. 그땐 나무가 그렇게 어디 어려워서 장작불이 그렇게 없더라고, 원.)

107088 @ 게난예.(그러게요.)

107088 #8 검질, 검질 기자 경ᄒᆞ민 그 떡 ᄒᆞᆯ 때도 검질불 솜앙 ᄒᆞ민, 불치 하난 조심헹 허영, 영 불치 올라가지 못 허게시리, 영영영 솟강알 이디 ᄀᆞ득으민 막뎅이루 이디 영영 끌어불국 ᄒᆞ멍.(검불, 검불 기자 그러면 그 떡 할 때도 검불로 때서 하면, 재 많으니까 조심해서 해서, 이렇게 재 올라가지 못 하게시리,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솥 아래 여기 가득하면 막대기로 여기 이렇게이렇게 끌어내버리고 하면서.)

107088 @ 게민 오메기술은 오메기술이엔 ᄀᆞᆯ앗수과?(그러면 '오메기술'은 '오메기술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88 #8 어, 어. 어멍 잘 헷저, 우리.(어, 어. 어머니 잘 했어, 우리.)

107088 @ 그 술 이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술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8 #8 저, 것이 막걸리.(저, 그것이 막걸리.)

107088 @ 막걸리렌 ᄀᆞᆯ앗수과?(막걸리라고 말했습니까?)

107088 #8 어, 어어. 막걸리, 막걸리엔 ᄀᆞᆯ앗지양?(어, 어어. 막걸리, 막걸리라고 말했지요?)

107088 #9 응?(응?)

107088 #8 오메기술ᄀᆞ라 막걸리엔 ᄀᆞᆯ앗수궤? 딴 말은 엇숫궤?('오메기술'보고 막걸리라고 말했지요? 딴 말은 없지요?)

---

213)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

107088 #9 탁베기.(막걸리.)
107088 #8 오, 탁베기, 탁베기. 탁베기, 어머니 경 그런 걸 잘 만들아낫어. 겨민 어머니만 헷주. 난 아니 만들아 봔.(오,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어머니 그렇게 그런 걸 잘 만들었었어. 그러면 어머니만 했지. 난 안 만들어 봤어.)
107089 @ 쉰다리는 만들아 봣수과?('쉰다리'는 만들어 봤습니까?)
107089 #8 무시거?(무엇?)
107089 @ 쉰다리.('쉰다리'.)
107089 #8 어, 쉰다리[214]도 어머니가 경 잘 만들앙. 난 잘 못 만들아.(어, '쉰다리'도 어머니가 그렇게 잘 만들었어. 난 잘 못 만들었어.)
107089 @ 순다리엔 헙니까? 쉰다리엔 헙니까? 순다리꽈? 쉰다리꽈?('순다리'라고 합니까? '쉰다리'라고 합니까? '순다리'입니까? '쉰다리'입니까?)
107089 #8 쉰다리.('쉰다리'.)
107089 @음.(음.)
107089 #8 거 엿날엔, 어머니가 엿날엔 막 이디 잘 살아난. 사름, 검질멜 때에, 흔 오십 명썩 빌엉.(그거 옛날엔, 어머니가 옛날엔 매우 여기 잘 살았었어. 사람, 김맬 때에, 한 오십 명씩 빌어서.)
107089 @ 허이고.(허이고.)
107089 #8 경ᄒᆞ민 그것 다 상웨떡 어머니가 잘 만들아. 경ᄒᆞ민 검질메는 사름 점심 전의.(그러면 그것 다 '상웨떡' 어머니가 잘 만들었어. 그러면 김매는 사람 점심 전에.)
107089 @ 예.(예.)
107089 #8 그 떡 흔 빗[215]썩 검질메는 사름 아지렝 헤영 ᄆᆞᆫ 테와줘.(그 떡 한 '빗'씩 김매는 사람 앉으라고 해서 모두 나눠줘.)
107089 @ 음.(음.)
107089 #8 그 떡 얻어먹젠 오십 명, 삼십 명 온덴 ᄒᆞ난.(그 떡 얻어먹으려고 오십 명, 삼십 명 온다고 하니까.)
107089 @ 아이고, 게난.
107089 #8 그 떡 얻어먹젠, 게 놉 아이 빌어도. 어멍은 경 잘 살아나서, 어멍은. 엿날에도 그 대에.(그 떡 얻어먹으려고, 그 놉 안 빌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잘 살았었어, 어머니는. 옛날에도 그 시대에.)
107089 @ 게난예.(그러게요.)
107089 #8 어머니가 대판서 오란 땅을 만이 아바지가 산.(어머니가 대판서 와서 땅을 많이 아버지가 샀어.)
107089 @ 아.(아.)
107089 #8 땅을 산에.(땅을 샀어.)
107089 @ 예.(예.)

214)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
215)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를 세는 말. 여기서는 '상웨떡'을 세는 말.

107089 #8 경 저 검질 정, 그 떡, 어머니 떡을 경 상웨떡을 경 잘 만들앙.(그렇게 저 잡풀 져서, 그 떡, 어머니 떡을 그렇게 '상웨떡'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
107089 @ 잘 만들어가지고예.(잘 만들어가지고요.)
107089 #8 검질 경 ᄒᆞ루에 다 메여. 동네사름 다 왕.(김 그렇게 하루에 다 매. 동네사람 모두 와서.)
107089 @ 예.(예.)
107089 #8 ᄒᆞ루 오십 멧썩 삼십 멧썩, 그 떡 얻어먹젠게. 그 떡 ᄒᆞᆫ 빗 얻어먹젠. 경 놉 안 빌어도 다 오랑 경 헤낫젠 ᄒᆞ난, 어멍.(하루 오십 몇씩 삼십 몇씩, 그 떡 얻어먹으려고. 그 떡 한 '빗'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놉 안 빌어도 모두 와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니까, 어머니.)
107090 @ 누룩은 만들아 봣수과?(누룩은 만들어 봤습니까?)
107090 #8 어? 술?(어? 술?)
107090 @ 누룩.(누룩.)
107090 #8 게 술도, 경.(그래 술도, 그렇게.)
107090 @ 아니. 누룩 누룩, 누룩.(아니. 누룩 누룩, 누룩.)
107090 #8 어, 누룩게. 누룩도 경 어머니 잘 만들앙.(어, 누룩. 누룩도 그렇게 어머니 잘 만들었어.)
107090 @ 누룩은 어떵 만들엇수과?(누룩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90 #8 누룩은 난 아이 만들안디 누룩도 보리쏠 ᄀᆞᆯ아근엥에 물 버므려근엥에 영영.(누룩은 난 안 만들었는데 누룩도 보리쌀 갈아서 물 버무려서 이렇게이렇게.)
107090 #9 누룩은 밀로 만들앗주.(누룩은 밀로 만들었지.)
107090 @ 밀로? 누룩도 옛날, 누룩이렌 ᄀᆞᆯ앗수과?(밀로? 누룩도 옛날, 누룩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90 #8 어, 어. 그때도 누룩. 경 영 형 그레 막 돌 지둘롱 놔둬.(어, 어. 그때도 누룩. 그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막 돌 지지러 놔두지.)
107090 @ 밀로?(밀로?)
107090 #8 어, 밀로 ᄀᆞᆯ앙 영 막 영 막 동글랑ᄒᆞ게 떡ᄀᆞ찌 만들아.(어, 밀로 갈아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마구 동그랗게 떡같이 만들어.)
107090 @ 음. 밀, 가루?(음. 밀, 가루?)
107090 #8 아니, 밀도 ᄀᆞ레에 저 검펴. 정ᄀᆞ레에 밀 영 검펴, 검폇젱 흐여.(아니, 밀도 맷돌에 저 거피해. 풀맷돌에 밀 이렇게 거피해, 거피했다고 해.)
107090 @ 예.(예.)
107090 #8 반 검피여. ᄀᆞ루 반, 쏠 반. 겡 흐영, 젱ᄀᆞ레에 영 검펴근에 누룩, 경 어머니 잘 만들앙 막걸리, 이젠 막걸리엔 ᄒᆞ주마는 그땐 저 기자 술.(반 거피해. 가루 반, 쌀 반. 그렇게 해서, 풀맷돌에 이렇게 거피해서 누룩, 그렇게 어머니 잘 만들어서 막걸리, 이젠 막걸리라고 하지마는 그땐 저 그저 술.)
107090 @ 음.(음.)

107090 #9 탁베기.(막걸리.)
107090 #8 어, 탁베기.(어, 막걸리.)
107090 @ 음.(음.)
107090 #8 탁베기 헹 헷자 난 어멍 정 헌 거 봐나도 난 잘 못 만들아.(막걸리 해서 했지만 난 어머니 그렇게 한 거 봤어도 난 잘 못 만들어.)
107091 @ 엿은 안 만들아 봣수과?(엿은 안 만들어 봤습니까?)
107091 #8 엿, 무사 엿 아녀? 엿은 나도 잘 만들아.(여, 왜 엿 않아? 엿은 나도 잘 만들어.)
107091 @ 엿 만들앗던 거 골아줍서. 어떵 만들아신디.(엿 만들었던 거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지.)
107091 #8 흰좁쏠, 희린좁쏠 저 기자 죽 반, 밥 반 풀탁ᄒᆞ게 쒀.(차좁쌀, 차좁쌀 저 그저 죽 반, 밥 반 풀풀하게 쒀.)
107091 @ 예.(예.)
107091 #8 쒕 거 어렵지 아녀. 이젠 그 희린좁쏠이 잘 엇어부난 아니 만들암주. 풀탁ᄒᆞ게 쑤어근에 거 식으민, 골 사다근엥에 그레 영 서끄민, 골만 아지 가민, 자르르르륵, 팔팔 헷당.(쒀서 거 어렵지 않아. 이젠 그 차좁쌀이 잘 없어버려서 안 만들지. 풀풀하게 쒀서 그거 식으면, 엿기름 사다가 거기에 이렇게 섞으면, 엿기름만 섞여 가면, 자르르르륵, 풀풀 했다가.)
107091 @ 아.(아.)
107091 #8 그자 그 쏠로 다 세여져.(그저 그 쌀을 모두 셀 수 있어.)
107091 @ 음.(음.)
109091 #8 골만 그레 다 들어가민.(엿기름만 거기에 들어가면.)
107091 @ 아.(아.)
107091 #8 사르륵 ᄒᆞ게시리.(사르륵 하게끔.)
107091 @ 음.(음.)
107091 #8 ᄒᆞ민 ᄀᆞ만이 낫다근엥에 흔 서너 시간, 서너네 시간 놔두민 그 골이영 거 복젝이 궤어.(하면 가만히 놔뒀다가 한 서너 시간, 서너네 시간 놓아두면 그 엿기름이랑 거 부걱부걱하게 괴어올라.)
107091 @ 예.(예.)
107091 #8 어, ᄯᅳᆺ홀 때 헹 나두민. 복젝이 궤민 그거 문달문달문달 영 쏠도 영영 허곡 영영 허곡 헹, 우의 걸 체로 걸러.(어, 따뜻할 때 해서 놔두면. 부걱부걱하게 괴어오르면 그거 문달문달문달 이렇게 쌀도 이렇게이렇게 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해서, 위엣 걸 체로 거르지.)
107091 @ 예.(예.)
107091 #8 체 알아지지이? ᄀᆞ는체 걸음체[216].(체 알지? 가는체 '걸음체'.)
107091 @ 예.(예.)

216) '걸음체'는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밭거나 거르는데 쓰는 기구인 '체'를 말한다.

107091 #8 걸음체 걸음체.(‘걸음체’, ‘걸음체’.)
107091 @ 예.(예.)
107091 #8 걸음체로 쏠 이디 거 물 받앙 이 솟더레 비우곡, 또 쏠 문작문작 헤근엥에 두 번쯤은 헤영, 체로 물이 보속속 ᄒᆞ게 나오주게.(‘걸음체’로 쌀 여기 거 물 받아서 이 솥에 비우고, 또 쌀 문적문적 해서 두 번쯤은 해서, 체로 물이 ‘보속속’ 하게 나오지.)
107091 @ 예, 예.(예, 예.)
107091 #8 겨민 체로 걸렁 솟더레 비우곡 솟더레 비우곡 ᄒᆞ민 솟으로 ᄒᆞᆫ 솟 뒈주 물이. 거 하영 홈치 경 ᄒᆞ무로 가, 그건.(그러면 체로 걸러서 솥에 부우고 솥에 부우고 하면 솥으로 한 솥 되지 물이. 그거 많이 한꺼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가지, 그건.)
107091 @ 예.(예.)
107091 #8 깅헹 반 솟 헐 때도 잇곡, ᄒᆞᆫ 솟 헐 때도 잇곡. 난 거 어머니 돌아가벼도 그 엿은 잘 만들어저나고 나, 그거 엿은. 그 저 골감쥐[217]는 골감쥐.(그렇게 반 솥 할 때도 있고, 한 솥 할 때도 있고. 난 거 어머니 돌아가 버려도 그 엿은 잘 만들어졌었고 내가, 그거 엿은. 그 저 감주는 감주.)
107091 @ 예.(예.)
107091 #8 골감쥐 경 만들아근엥에 불 때영게 것도게 영 접지랑 버려도 그 물만, ᄒᆞᆫ 서너 시간 불루 딸려야, 딸려야 ᄃᆞᆯᄒᆞ주.(감주 그렇게 만들어서 불 때서 그것도 이렇게 짜서 버려도 그 물만, 한 서너 시간 불로 다려야, 다려야 달콤하지.)
107091 @ 아이고, 경헷구나.(아이고, 그랬구나.)
107091 #8 뚤리지 아녀민 싱거왕 못 먹어.(다리지 않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
107091 @ 딸리지 않으민예?(다리지 않으면요?)
107091 #8 경 서너 시간 딸리민 것가 ᄃᆞᆯ헤여게. 경허민 멩질 때 정월 멩질 때. 나 이제 아이 만들아, 늙어부난.(그렇게 서너 시간 다리면 그것이 달콤해. 그러면 명질 때 정월 명질 때. 내가 이제는 아니 만들어, 늙어버려서.)
107091 @ 게민 삼춘 아까 골감쥐 잘 만들앗젠 헷잖아예?(그러니 삼촌 아까 감주 잘 만들앗젠 헷잖아예?)
107091 #8 으, 나 그거 골감쥐 잘 만들아지주.(응, 내가 그거 감주 잘 만들지.)
107091 @ 골감쥐 만드는 방법을 ᄀᆞᆯ아줍서.(감주 만드는 방법 말해주세요.)
107091 #8 골감쥐 만드는 방법?(감주 만드는 방법?)
107091 @ 예.(예.)
107091 #8 게메, 희린좁쏠 사당.(그러니까, 차좁쌀 사다가.)
107091 @ 아니, 엿 말고. 골감지.(아니, 엿 말고 감주.)
107091 #8 게메, 골감쥐. 희린좁쏠 사당 죽 쑤엉 죽 쑤엉.(그러니까, 감주. 차좁쌀사다가 죽 쑤어서, 죽 쑤어서.)
107091 @ 예.(예.)
107091 #8 죽 팔딱팔딱 죽 쑤어근엥에 그 죽 숙어사. 식어사, 골도 저디 강 사당.(죽

217) ‘골감지’는 ‘골’즉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를 말한다.

팔딱팔딱 죽 쑤어서 그 죽 식어야. 식어야, 엿기름도 저기 가서 사다가.)
107091 @ 예.(예.)
107091 #8 좁쏠 관뒈로 ᄒᆞ나민 저, 그 거시기 골도 관뒈로 ᄒᆞ나치썩 풀아.(좁쌀 되로 하나면 저, 그 거시기 엿기름도 되로 한 되씩 팔아.)
107091 @ 예.(예.)
107091 #8 경ᄒᆞ민 죽두 영 ᄒᆞ꼼 얇지랑ᄒᆞ게 놓앙 식어사.(그러면 죽도 이렇게 조금 얄팍하게 놓아서 식어야.)
107091 @ 예.(예.)
107091 #8 식어사 그 골을 그레 비왕, 영영영 저스민 이 물ᄀᆞ찌.(식어야 그 엿기름을 그리로 부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저으면, 이 물처럼.)
107091 @ 예.(예.)
107091 #8 이치룩 사륵헤여.(이처럼 사륵해.)
107091 @ 예.(예.)
107091 #8 사륵ᄒᆞ민 ᄀᆞ만히 경 나둬. 나두민 이 물이 복젝이 궤여.(사륵하면 가만히 그렇게 나둬. 놔두면 이 물이 박작하게 괴지.)
107091 @ 예.(예.)
107091 #8 ᄒᆞᆫ 서너 시간 뒈민.(한 서너 시간 되면.)
107091 @ 예.(예.)
107091 #8 궤민, 싹싹 저서근엥에 체로 그 물을 받청, 이디 또 체 우의 난 건 또 영영영영 접지랑은엥에 꽉 바닥바닥 접지랑 저 쏠이영 ᄀᆞᆯ이영 여기 주셍이 잇주게.(괴면, 싹싹 저어서 체로 그 물을 받쳐서, 여기 또 체 위에 난 건 또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짜서 꽉 바드득바드득 짜서 저 쌀이랑 엿기름이랑 여기 찌꺼기 있지.)
107091 @ 예.(예.)
107091 #8 버려두곡 또시 헹. 두 번 헤여 두 번.(버려두고 또 해. 두 번 해, 두 번.)
107091 @ 예.(예.)
107091 #8 두 번 헤영 그 물 솟드레 놓곡, 솟드레 놓곡 두 번 헤영 그 주셍인 영 버려동 그 물은 하영 ᄒᆞ민 막 두 말 띄기 큰 솟으로 ᄒᆞ나 뒈주게.(두 번 해서 그 물 솥에 넣고, 솥에 넣고 두 번 해서 그 찌꺼기는 이렇게 버려두고 그 물은 많이 하면 막 두 말 띄기 큰 솥으로 하나 되지.)
107091 @ 예.(예.)
107091 #8 경ᄒᆞ민 ᄒᆞ나민 딸릴 때에 세 시간 네 시간은 딸려.(그러면 하나면 다릴 때에 세 시간 네 시간은 다리지.)
107091 @ 예.(예.)
107091 #8 남불 때영.(나무불 때서.)
107091 @ 예.(예.)
107091 #8 솟 앚정, 남불 때영 딸리민 그것이 풀풀ᄒᆞ곡 엿ᄀᆞ찌 ᄃᆞᆯ헤여 것가.(솥 얹어, 나무불 때서 다리면 그것이 풀풀하고 엿처럼 달해 그것이.)

107091 @ 예.(예.)
107091 #8 미시거 안 놔도.(뭐 안 넣어도.)
107091 @ 아.(아.)
107091 #8 안 놔도 이 물이 돌ᄒᆞ민 그것이 감쥐 뒈여.(안 넣어도 이 물이 달면 그것이 감주 돼.)
107091 @ 음.(음.)
107091 #8 것가 감쥐.(그것이 감주.)
107091 @ 음. 건 감쥐 뒈고.(음, 그건 감주 되고.)
107091 #8 엿은 또시 그것가 감쥘ᄒᆞ젠[218] ᄒᆞ민 더 오래 딸려야. 더 오래 딸려. 혼 댓 시간 딸리주.(엿은 또 그것이 감주하려고 하면 더 오래 다려야. 더 오래 다려. 한 댓 시간 다리지.)
107091 @ 음.(음.)
107091 #8 댓 시간 딸려야 솟듸 놩.(댓 시간 다려야 솥에 넣어서.)
107091 @ 음.(음.)
107091 #8 나 엿두 잘헤저.(내가 엿도 잘해.)
107091 @ 기꽈.(그래요?)
107091 #8 엿두 잘 ᄒᆞ곡, 감쥐도 잘 허곡. 잘 헤저도 이젠 늙어부난 간세로 안 헴주. 것도 댓 시간 딸리민 풀풀 솟듸서 ᄒᆞ민 ᄀᆞ만이 놔두민 엿 뒈어 식으민.(엿도 잘 하고, 감주도 잘 하고. 잘할 수 있어도 이젠 늙어버려서 게으름으로 안 하지. 것도 댓 시간 다리면 풀풀 솥에서 하면 가만히 놔두면 엿 돼 식으면.)
107091 @ 예.(예.)
107091 #8 식으민 엿 뒈민 긁엉 무시것더레 영 담앙 봣다근엥에 그거 떡이라도 무시거 이시민 거 거려내영 영 찍엉 먹곡, 그 시절에, 그 시절에.(식으면 엿 되면 긁어서 무엇에 이렇게 담아서 넣었다가 그거 떡이라도 무엇 있으면 거 떠내서 이렇게 찍어서 먹고, 그 시절에, 그 시절에.)
107091 @ 그 시절에예?(그 시절에요?)
107091 #8 그 시절에 든거 거벳긔 엇엇주게, 이젠 설탕도 많이 잇곡.(그 시절에 단거 그것밖에 없었지, 이젠 설탕도 많이 있고.)
10709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7091 #8 무시거 이섯주, 그땐 설탕이 어디 시니?(무엇 있었지, 그땐 설탕이 어디 있니?)
107091 @ 설탕 대신에 썻구나예? 그걸예?(설탕 대신에 썼군요? 그거를요?)
107091 #8 설탕 엇엇어, 그 시절에.(설탕 없었어, 그 시절에는.)
107091 @ 게난 그걸로 설탕 대신에 썻구나예?(그러니 그걸로 설탕 대신에 썼군요?)
107091 #8 오게, 그걸로 제서 때, 제서 때 똑 골감쥐 헤사.(그럼, 그걸로 제사 때, 제사 때 꼭 감주 만들어야.)

218) '엿'인데 '감쥐'라고 말이 헛 나온 듯하다.

107091 @ 골감쥐 헤사, 음.(감주 만들어야, 음.)
107091 #8 골감쥐 꼭 떨어진 때 엇어. 이젠 무신 골감쥐 헴서?(감주 꼭 떨어진 때 없어. 이제 무슨 감주 해?)
107091 @ 음.(음.)
107091 #8 설탕물 타근엥에 흔 직 헹 상에 올리곡.(설탕물 타서 한 수저 해서 상에 올리고.)
107091 @ 경헷구나예? 아이고, 고맙수다예. 오늘, 먹는 것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우다예.(그랬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먹는 것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107091 #8 게, 게. 잘 골앗지이?(그래, 그래. 잘 말했지?)
107091 @ 예, 예. 고맙수다예.(예, 예. 고맙습니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어, 이번에는 주생활인데예? 아까 우리 그 저, 들일 할 때 잠깐 그 저가 말씀드렷잖아예? 집을 혹시 직접 지으셔낫냐고예? 지금부턴예, 집 짓는 거, 구조는 어떻게 뒛는지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하여 질문하겟습니다예.(어, 이번에는 주생활인데요? 아까 우리 그 저, 들일 할 때 잠깐 그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혹시 직접 지으셨었냐고? 지금부턴요 집 짓는 거,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처음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8002 @ 두 분 다 직접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잇다 그렛잖아예? 그믄 그때 지은 집이 초가집이엇수과?(두 분 다 직접 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은 집이 초가집이었습니까?)
108002 #1 다 초가집.(다 초가집.)
108002 @ 지은 지 언제쯤 뒈엇수과?(지은 지 언제쯤 되었습니까?)
108002 #5 음, 흔 오십 년.(음, 한 오십 년.)
108002 @ 한 오십 년? 오십 년예?(한 오십 년? 오십 년요?)
108002 #5 오십 년 더 뒘주.(오십 년 더 되지.)
108002 @ 더 뒈언예?(더 되었어요?)
108002 #1 난, 우리 집 지은 때가, 에, 오십팔 년도[219]에 지어시난 오십팔 년부터 오십구 년꼬지 지엇구나. 사삼사건, 바로 지언에 흑질헨 들어가난에 젓, 사삼사건 일어나부난.(난, 우리 집 지은 때가, 에, 오십팔 년도에 지었으니까 오십팔 년부터 오십구 년까지 지었구나. 사삼사건, 바로 지언에 흙질해서 들어가니까 저, 사삼사건 일어나버려서.)

219) 48년을 58년으로 잘못 말한 듯하다. 4·3은 1948년에 일어났다.

108002 @ 그믄예? 어, 교장선생님부터 집 그 지엇던예, 낭은 어떵 헹 준비헷고, 바닥은 어떵 다졋고, 일단 그 집 짓게 뭰 동기로부터 시작헤 가지고 쭉, 지엇던 이야기 흔 번 골아줍서.(그러면요? 어, 교장선생님부터 집 그 지었던, 나무는 어떻게 해서 준비했고, 바닥은 어떻게 다졌고, 일단 그 집 짓게 된 동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었던 이야기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8002 #1 에, 오십. 천구백오십칠 년돈가, 여기 큰 홍수가 나서.(에, 오십. 천구백오십칠 년돈가, 여기 큰 홍수가 났어.)

108002 @ 예.(예.)

108002 #1홍수가 난에, 집에 거의 그 뭐할 정도 뒈가지고 이젯,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울타리에 잇던 그 당시에 그 살던 집, 물로 끗어 부난 살던 집 울타리에 나무들이 많이 이섯는데 그.(홍수가 나서, 집에 거의 그 뭐할 정도 되가지고 이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울타리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살던 집, 물에 떠내려가 버리니까 살던 집 울타리에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108002 @ 무신 낭마씨?(무슨 나무요?)

108002 #1 여러 가지 종류 나무가 이섯주.(여러 가지 종류 나무가 있었지.)

108002 @ 예.(예.)

108002 #1 나무가 이섯는데 주로 그런 거는 그 오려가지고 그 벡선, 이 초가집에 마루에 옆에 나무로 판자 모냥으로 이렇게 들여낫주게. 그것을 이용ᄒᆞ고 저, 다른 나무는 저 의귀리 가가지고 소나무, 소나무ᄒᆞ고 젓, 숙데나무ᄒᆞ고 사단에, 사단 집을 지엇주. 근데 집은 보통 멧 펭이냐 ᄒᆞ믄 그때 삼 칸.(나무가 있었는데 주로 그런 거는 그 오려가지고 그 벽선, 이 초가집에 마루에 옆에 나무로 판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였었지. 그것을 이용하고 저, 다른 나무는 저 의귀리 가서 소나무, 소나무하고 저, 삼나무하고 사다가, 사다가 집을 지었지. 그런데 집은 보통 몇 평이냐 하면 그때 삼 칸.)

108002 @ 예.(예.)

108002 #1 삼칸집, 보통 가정에는 삼칸집이주게.(삼간집, 보통 가정에는 삼간집이지.)

108002 @ 세칸집예?(삼간집요?)

108002 #1 응. 좀 크게 어디 종손집이나 큰집에 거시기 ᄒᆞ면은 사칸을 ᄒᆞ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사칸을 안 지어. 삼칸집 ᄒᆞ주게. 게 안거리 밖거리 헤 이렇게 짓고, 한쪽에는 소, 저 소 메는 소막. 소 길루는.(응. 좀 크게 어디 종손집이나 큰집에 거시기 하면은 네 칸을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네 칸을 안 지어. 삼간집 하지. 그 안채 바깥채 해서 이렇게 짓고, 한쪽에는 소, 저 소 매는 외양간. 소 기르는.)

108002 @ 쉐막마씨?(외양간이요?)

108002 #1 어, 쉐막. 그걸 짓고 헷는데, 그 나무는 사단ᄒᆞ고. 서리도, 그 소나무 서리를 썻는데 서리도 다른데 강 사단 헤서. 사다가 이제 우리 집 지어서. 다 지은다음에 또 옆에 옛날 초가집은 우에는 이렇게 나무로 헤서 나무 기둥에 나무 서리에 전부 헹은에 나무로 ᄒᆞ는데 그 울타리는 돌.(어, 외양간. 그걸 짓고 했는데, 그 나무는 사다가하고. 서까래도, 그 소나무 서까래를 썼는데 서까래도 다른데 가서 사다가 했어. 사다가

이제 우리 집 지었어. 다 지은다음에 또 옆에 옛날 초가집은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서 나무 기둥에 나무 서까래에 전부 해서 나무로 하는데 그 울타리는 돌.)
108002 @ 예.(예.)
108002 #1 돌로 헤근에 다와. 이렇게 집 모양으로.(돌로 해서 쌓아. 이렇게 집 모양으로.)
108002 @ 예.(예.)
108002 #1 저, 돌로 다와서. 그 돌은 구멍 날 거 아니?(저, 돌로 쌓았어. 그 돌은 구멍 날 거 아냐?)
108002 @ 예.(예.)
108002 #1 구멍 나니까 그 구멍 난 걸 메꾸기 위헤서 흙을 파가지고 저, 보릿찝.(구멍 나니까 그 구멍 난 걸 메꾸기 위해서 흙을 파가지고 저, 보릿짚.)
108002 @ 예.(예.)
108002 #1 보릿찝을 많이 썻주.(보릿짚을 많이 썼지.)
108002 @ 예. 옛날 보릿찝이꽈 보릿찍이꽈?(예. 옛날 '보릿찝'입니까? '보릿찍'입니까?)
108002 #1 보릿찍.('보릿찍'.)
108002 @ 찍?(찍?)
108002 #1 어.(어.)
108002 @ 예.(예.)
108002 #1 보릿찍이엔도 ᄒᆞ곡, 보릿칙이엔도 ᄒᆞ곡. 보릿찝을 거기에 놓아근에 막 소 여러 마리 헤다근에 막 볼려.('보릿찍'이라고도 하고, '보릿칙'이라고도 하고. 보릿짚을 거기에 놓아서 막 소 여러 마리 해다가 마구 밟아.)
108002 @ 예.(예.)
108002 #1 그러면 막 흑이, 물도 동네사람들이 물 그 부조로 헤가지고, 전부 물 허벅으로 물 지어다가 전부 부어.(그러면 막 흙이, 물도 동네사람들이 물 그 부조로 해가지고, 전부 물동이로 물 지어다가 전부 부어.)
108002 @ 음.(음.)
108002 #1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부어서 다진 다음에는 또 긋, 또 뒤집지.(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부어서 다진 다음에는 또 그, 또 뒤집지.)
108002 @ 음.(음.)
108002 #1 건 쉐스렁으로 헤서 이 찝ᄒᆞ고 그 흑ᄒᆞ고 물ᄒᆞ고 이게 막 범벅이 뒈잖아. 범벅이 뒈니까 또 뒤집어서 또 밟는단 말이어. 그래가지고 그 흑을 갖다가 벽에다가 발라. 게서 구멍을 막거든. 게고 안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붕 우에는 저 그 안내 저 앙토를 ᄒᆞ젠 ᄒᆞ면은 그 서리에 흔 다음에 옆이에 여꺼서.(건 쇠스랑으로 헤서 이 짚하고 그 흙하고 물하고 이게 막 범벅이 되잖아. 범벅이 되니까 또 뒤집어서 또 밟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벽에다가 발라. 그래서 구멍을 막거든. 그리고 안내는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에는 저 그 안내 저 앙토를 하려고 하면 그 서까래에 한 다음에

옆에 엮어서.)
108002 @ 예.(예.)
108002 #1 여꺼서 지붕을 만들어. 지금 ᄀᆞ트면은 뭐 그 구물망 구물 갖다 씨와서 허는 것 모냥으로, 그 지붕이 이렇게 뒈면은 이 서리, 저 나무로 중간 중간에 서리가 잇잖아이?(엮어서 지붕을 만들어. 지금 같으면 뭐 그 그물망 그물 갖다 씌워서 하는 것 모양으로, 그 지붕이 이렇게 되면 이 서까래, 저 나무로 중간 중간에 서까래가 있잖아?)
108002 @ 예.(예.)
108002 #1 이 걸쳐진 듸, 요기에 대나무나 이런 걸로 헤서 전부 나무 쪼겐다든지 이렇게 헤가지고 전부 내거든.(이 걸쳐진 데, 요기에 대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쪼갠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내거든.)
108002 @ 예.(예.)
108002 #1 저, 세지 말게 구멍을 막아야 뒐 거 아냐?(저, 새지 말게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냐?)
108002 @ 예.(예.)
108002 #1 아주 작은 구멍이 나지만은 그렇게 헤서 흔 다음에 여기에 저 억새를 헹 깔아.(아주 작은 구멍이 나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저 억새를 해서 깔아.)
108002 @ 억새를 한꺼번에 다 비어당마씨? 그걸?(억새를 한꺼번에 다 베어다가요? 그걸?)
108002 #1 어, 억새 비어당 말린 거. 말린 거 억새를 헤서 전부 흔 번 끼우고, 그 우에는 새 잇잖아?(어, 억새 베어다가 말린 거. 말린 거 억새를 해서 전부 한 번 끼우고, 그 위에는 띠 있잖아?)
108002 @ 예, 새. 지붕 하는 거마씸?(예, 띠. 지붕 하는 거요?)
108002 #1 지붕 이는 새 새로 헤서, 헹 지붕을 저 더프는 그게 초가집이주게.(지붕 이는 띠 띠로 해서, 해서 지붕을 저 덮는 그게 초가집이지.)
108002 @ 음.(음.)
108002 #1 게 안에 내부는 방, 온돌방. 온돌방은 굴묵[220]을 때어. 방 안내는 저 얇은 저 돌, 돌 헤다가 깔아가지고, 그 밑으론 불 때면은 돌이 뜨거워지잖아?(그 안에 내부는 방, 온돌방. 온돌방은 '굴묵'을 때. 방 안내는 저 얇은 저 돌, 돌 해다가 깔아가지고, 그 밑으론 불 때면 돌이 뜨거워지잖아?)
108002 @ 예.(예.)
108003 #1 그러면 그 돌 우에는 흙으로 이제 아주 얇게 헤놩, 그 우에다가 종이나 무시거 다른 걸 발르거든. 발라서 방을 절루는 거라. 그렇게 ᄒᆞ고. 흔 쪽에는 그 삼칸집이면은 흔쪽에 방ᄒᆞ고 양쪽에 방ᄒᆞ는 듸도 잇고. 또 저 흔쪽에는 고팡.(그러면 그 돌 위에는 흙으로 이제 아주 얇게 해놓아, 그 위에다가 종이나 무엇 다른 걸 바르거든. 발라서 방을 겯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한쪽에는 그 삼간집이면 한쪽에 방하고 양쪽에 방하는 데도 있고. 또 저 한쪽에는 고방.)

220)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부분이다.

108003 @ 예.(예.)
108003 #1 창고, 창고에 쌀 ᄀᆞ튼 거 먹는.(창고, 창고에 쌀 같은 거 먹는.)
108003 @ 예.(예.)
108003 #1 거만 놓는 듸, 그런 고팡이 잇고. 흔쪽에는 부엌.(그것만 놓는 데, 그런 고방이 있고, 한쪽에는 부엌.)
108004 @ 정지예?(정지요?)
108004 #1 어, 정지, 정지. 그렇게 ᄒᆞ고.(어, '정지', '정지' 그렇게 하고.)
108004 @ 노인회장님도 초가집 지을 때 지금 사는 집 하고는 거리가 먼듸랏수과?(노인회장님도 초가집 지을 때 지금 사는 집 하고는 거리가 먼데였습니까?)
108004 #5 그 터예, 그 터예 지금 사는 집을 지엇는디.(그 터에 지금 사는 집을 지었는데.)
108005 @ 처음에 집 지을 때 그 저 네귓돌이렌 헙니까? 주춧돌 놓는 거. 땅 다져난 다음에 이제 돌 놓잖아예? 네귓돌. 어떤 지역엔 네귓돌이렌 헙디다마는, 여긴 뭐렌 ᄀᆞᆯ아나신디 모르쿠다마는 그 맨 처음에 중심이 뒈는 기둥하고 지둥이지예?(처음에 집 지을 때 그 저 네귓돌이라고 합니까? 주춧돌 놓는 거. 땅 다져난 다음에 이제 돌 놓잖아요? 네귓돌. 어떤 지역엔 네귓돌이라고 합디다만, 여긴 뭐라고 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맨 처음에 중심이 되는 기둥하고 '지둥'이지요?)
108005 #1 네 기둥이주. 기둥이 네 개라.(네 기둥이지. 기둥이 네 개라.)
108005 @ 게난 거 기둥 세우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예? 자세히 ᄀᆞᆯ아줍서.(그러니 거 기둥 세우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세히 말해주십시오.)
108005 #5 지둥굽이엔 허주, 지둥굽.(기둥뿌리라고 하지, 기둥뿌리.)
108005 @ 지둥굽이렌 헴구나예?(기둥뿌리라고 하는군요?)
108005 #1 굽돌.(주춧돌)
108005 #5 저, 그 옛날에는.(저, 그 옛날에는.)
108005 @ 예.(예.)
108005 #5 그 집을 지으젱 ᄒᆞ면은.(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8005 @ 예.(예.)
108005 #5 이 담 닫는 날.(이 담 쌓는 날.)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5 흑질ᄒᆞ는 날.(흙질하는 날.)
108005 @ 예.(예.)
108005 #5 서슬[221]ᄒᆞ는 날.('서슬'하는 날.)
108005 @ 예.(예.)
108005 #5 삼일을 의무적으로 가서 ᄎᆞᆷ 저 봉사를 ᄒᆞ는 거여, 동네사름 전부가.(삼일을 의무적으로 가서 참 저 봉사를 하는 거야, 동네사람 전부가.)
108005 @ 예.(예.)

221)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108005 #1 다 도와줘.(다 도와주지.)
108005 #5 다 도와줘. 건 품도 안 받고.(다 도와줘. 건 품도 안 받고.)
108005 @ 음.(음.)
108005 #5 삼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헤주고. 여자는 흑질ᄒᆞ는 날 물 질어다주는 게 또 그게 부주로 헤주는 거.(삼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고. 여자는 흙질하는 날 물 길어다주는 게 또 그게 부조로 해주는 거지.)
108005 @ 예.(예.)
108005 #5 그렇게 헤서 집을 이제 짓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집을 이제 짓는 거지.)
108005 @ 음.(음.)
108005 #5 게난 아까 이 츰 형님 얘기 헷주마는 구조는.(그러니 아까 이 참 형님 얘기 했지마는 구조는.)
108005 @ 예.(예.)
108005 #5 거의가 백 프로 ᄀᆞ타. 집 구조는.(거의가 백 프로 같지. 집 구조는.)
108005 @ 집 구조는예?(집 구조는요?)
108005 #5 집 구조는 다 ᄀᆞ트고.(집 구조는 다 같고.)
108005 @ 예.(예.)
108005 #5 짓는 방법도 다 꼭 ᄀᆞ튼 거라.(짓는 방법도 다 꼭 같은 거야.)
108005 @ 음.(음.)
108005 #5 동네사름 무조건 삼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헤주는 거고, 여자는 물허벅 져 근에 그 흑질ᄒᆞ는 날은 그 물 질어당 비우는 거.(동네사람 무조건 삼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고, 여자는 물동이 져서 그 흙질하는 날은 그 물 길어다가 부우는 거지.)
108005 @ 그 저 쉐 빌어당 아니믄 질루는 쉐로 헤가지고? 이제 막 다질 때.(그 저 소 빌어다가 아니면 기르는 소로 해가지고? 이제 막 다질 때.)
108005 #5 다질 때 것도 암쉐는 안 뒈어.(다질 때 것도 암소는 안 돼.)
108005 @ 다질 때도 다지는 거를 전문적으로 허는 사름덜도 잇지 아네낫수과?(다질 때도 다지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108005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5 #1 아니, 아니. 동네사람들 다 부주로 왕 헷주.(아니, 아니. 동네사람들 다 부주로 와서 했지.)
108005 #5 쉐도 거 암쉐는 거 못 불려.(소도 그 암소는 못 밟아.)
108005 @ 아.(아.)
108005 #5 거 막 거 실헌 막 막 힘쎈 밧갈쉐[222].(그거 매우 그거 실한 매우 매우 힘센 '밭갈소'.)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5 그 밧갈쉐덜이 그 거기를 걸어 다니지?(그 '밭갈소'들이 그 거기를 걸어 다니지?)

222)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108005 @ 예.(예.)
108005 #5 거기에 빠져가지고.(거기에 빠져가지고.)
108005 @ 예.(예.)
108005 #5 힘없는 거는.(힘없는 거는.)
108005 @ 음.(음.)
108005 #5 걷질 못ᄒᆞ주.(걷지를 못하지.)
108005 #1 ᄂᆞ시 걷질 못ᄒᆞᆯ 정도로.(도저히 걷질 못할 정도로.)
108005 @ 그 쉐, 땅 막 다지기 헐 때 옛날에, 걸 다짐땐 ᄀᆞᆯ앗수과?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소, 땅 마구 다지기 할 때 옛날에, 그걸 다진다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5 #5 ᄇᆞᆯ린덴 ᄒᆞ주, ᄒᆞᆨ ᄇᆞᆯ린덴.(밟는다고 하지, ᄒᆞᆱ 밟는다고.)
108005 #1 ᄒᆞᆨ ᄇᆞᆯ린덴 ᄒᆞ주.(ᄒᆞᆱ 밟는다고 하지.)
108005 @ ᄒᆞᆨ ᄇᆞᆯ렷잖아예? ᄒᆞᆨ ᄇᆞᆯ릴 때 막 그 노래도 불르멍 헷덴 허멍예?(ᄒᆞᆱ 밟았잖아요? ᄒᆞᆱ 밟을 때 막 그 노래도 부르면서 했다고 하면서요?)
108005 #5 거 노래는 밧 ᄇᆞᆯ리는 소리 헷주게.(그 노래는 밭 밟는 소리 했지.)
108005 @ 아, ᄒᆞᆨ ᄇᆞᆯ릴 때도 밧 ᄇᆞᆯ리는 소리 헷수과?(아, ᄒᆞᆱ 밟을 때도 밭 밟는 소리 했습니까?)
108005 #1 쉐 ᄆᆞ는 소리.(소 모는 소리.)
108005 @ 아, 기구나예. 게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ᄀᆞ튼 방법으로.(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다 같은 방법으로.)
108005 #5 산태[223]라고 이서, 산태.(산태라고 있어, '산태'.)
108005 @ 예.(예.)
108005 #5 산태로 앞 뒤 사름이 이렇게 긴 거에 ᄒᆞᆨ을 이제 그 다져 논 것을 퍼놓면은.('산태'로 앞 뒤 사람이 이렇게 긴 것에 ᄒᆞᆱ을 이제 그 다져 놓은 것을 펴놓으면.)
108005 @ 예.(예.)
108005 #5 그걸 집 안에 들러당, 이 주위에 비와놔야 그걸 또 부찌는 사람은 이제 ᄇᆞᆯ를 거난에, 들르는 사름은 또 것도 이제 또 힘쎈 사름이, 뭐 늙은이나 이런 사름들은 안 뒈어.(그걸 집 안에 들어다가, 이 주위에 부어놔야 그걸 또 붙이는 사람은 이제 바를 거니까, 드는 사람은 또 것도 이제 또 힘센 사람이, 뭐 늙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돼.)
108005 @ 음.(음.)
108005 #5 걸 들렁, 그 무거운 것들을 들러다근에 둘리가 앞뒤로 영 들렁 가근에 영 비와야 뒈니까.(걸 들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어다가 둘이가 앞뒤로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부어야 되니까.)
108005 @ 음.(음.)
108005 #5 그렇게 하면서 엿날에는 인심도 좋앗고.(그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인심도

223)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를 말한다.

좋았고.)
108005 @ 게난예.(그러게요.)
108005 #5 서로 도우면서 엿날엔 살앗는디.(서로 두우면서 옛날에는 살았는데.)
108005 #1 그 집 짓넹 ᄒᆞ면은 동네 아, 그디 언제 무시고 헴신고 헹 다 도울 생각ᄒᆞ주.(그 집 짓는다고 하면 동네 아, 거기 언제 무엇 하는지 해서 다 도울 생각하지.)
108005 #5 아, 그디 내일 서슬 헴저 ᄒᆞ민, 으무적으로 그 서슬이엔 ᄒᆞᆫ 거는 서까래를 영 서리를 다 헤놓믄 그 우일 촘촘허게시리 이렇게 헹 허는 걸 서리라고 ᄒᆞ주게. 그거를 다 동네사름이 다 헤주고 헷주.(아, 거기 내일 '서슬'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그 '서슬'이라고 한 거는 서까래를 이렇게 서까래를 다 해놓으면 그 위에를 촘촘하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서까래라고 하지. 그거를 다 동네사람이 다 해주고는 했지.)
108005 #1 또 이 저.(또 이 저.)
108005 #5 집주인은 점심 ᄒᆞᆫ 때 헤주는 거벳긔 뭐 돈도 아니 주고.(집주인은 점심 한 때 해주는 거밖에 뭐 돈도 안 주고.)
108005 #1 저 벽도 나무와 나무사이 여기에 저 흑을 바르는디 거기에도 대나무나 겨 아니민 나무 쪼가리 깬 거 헤가지고 이추룩 긴 쪼가리로 헤가지고 얽은다 말이여.(저 벽도 나무와 나무사이 여기에 저 흙을 바르는데 거기에도 대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 쪼가리 깬 거 해가지고 이처럼 긴 쪼가리로 해가지고 얽는다 말이야.)
108005 #5 건 테기.(건 외椳.)
108005 #1 테기.(외.)
108005 #5 테기라고 ᄒᆞ는 건디.(외라고 하는 건데.)
108005 @ 테기.(외.)
108005 #5 어. 거는 사름이 양쪽에서 사름이 양쪽에서 사서 서로 ᄀᆞ찌 안 허민 안 뒈어. ᄒᆞᆫ 사름만은 안 뒈니까, 저쪽에서 사름이 사고, 이쪽에서 사곡헹, 같이 이렇게 사름이 상 헤야지.(어. 거는 사람이 양쪽에서 사람이 양쪽에서 서서 서로 같이 안 하면 안 돼. 한 사람만은 안 되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서고, 이쪽에서 서고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이 서서 해야지.)
108005 #1 두 사름이 이렇게 헤야지.(두 사람이 해야지.)
108006 @ 부찐다는 건 중심엔 뭐가 돌, 뭐 돌담.(붙인다는 건 중심엔 뭐가 돌, 뭐 돌담.)
108006 #5 중심엔 나무.(중심엔 나무.)
108006 #1 나무 쪼가리 팬 거헤야 이렇게 헷잖아.(나무 쪼가리 팬 거해야, 이렇게 했잖아.)
108006 @ 아.(아.)
108006 #5 촘촘허게 저 얽어 논 게 잇주게.(촘촘하게 저 얽어 논 게 있지.)
108006 @ 아, 거기에다.(아, 거기에다.)
108006 #1 거기에 흑을 부찌는 거야.(거기에다가 흙을 붙이는 거야.)
108006 @ 안팍에서 부찐다는 거구나예?(안팎에서 붙인다는 거군요?)

108006 #1 어, 어.(어, 어.)
108006 @ 아, 아. 맞아예.(아, 아. 맞아요.)
108006 #5 거 바로 둘레를.(그거 바로 둘레를.)
108006 @ 예.(예.)
108006 #5 전부 그렇게 헨 부쩐 흔 거지. 요즘ᄀᆞ찌 무신 베니다 부찌고 그런 게 아니거든.(전부 그렇게 해서 붙여서 한 거지. 요즘처럼 무슨 베니어 붙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
108006 #1 게, 주먹으로 쎈 사름은 탁 박으민 그거 무너나.(그래, 주먹으로 센 사람은 탁 박으면 그거 무너져.)
108006 @ 한 번 집 짓으젠 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렷수과?(한 번 집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108006 #5 아이고, 오래 걸렷주.(아이고, 오래 걸렸지.)
108006 #1 일 년 내내 걸려.(일 년 내내 걸려.)
108006 #5 오래 걸려.(오래 걸려.)
108006 @ 게난예.(그러게요.)
108006 #1 우리.(우리.)
108006 #5 목수가 빨리 헤주면은 빨리 뒈는데.(목수가 빨리 해주면 빨리 되는데.)
108006 @ 음.(음.)
106006 #5 목수가 그렇게 빨리 잘 헤질 못헤여.(목수가 그렇게 빨리 잘 하질 못해.)
106006 @ 음.(음.)
106006 #5 목수가.(목수가.)
108006 @ 게, 동시에 여러 채들은 못 짓어시키여예?(그럼 동시에 여러 채들은 못 지었겠네요.)
108006 #5 엿날에는 막.(옛날에는 막.)
108006 #1 옛날에는 ᄒᆞ나 끈는 데도 영 한 톱이거든.(옛날에는 하나 자르는 데도 이렇게 한 톱이거든.)
108006 @ 맞수다.(맞습니다.)
108006 #1 요센 기계톱으로 헤서 나무 끈는 데도 강 ᄒᆞ루에도 강 끈어 오주만은.(요사인 기계톱으로 해서 나무 자르는 데도 가서 하루에도 가서 잘라 오지만.)
108006 @ 게난예.(그러게요.)
108006 #5 옛날에는 나무 ᄒᆞ나에 이정도 술진 거를 메달앙 기둥을 세우나 뭐허게 중요허게 쓰는 나무는 ᄒᆞ나에 뭐 요즘은 경 아녓주만은 엿날엔 일을 흔 삼일 씩, 나무 ᄒᆞ나에 일을 흔 삼일씩 가서 헷어.(옛날에는 나무 하나에 이정도 굵은 거를 매달아서 기둥을 세우나 뭐하게 중요하게 쓰는 나무는 하나에 뭐 요즘은 그렇게 않지만 옛날엔 일을 한 삼일 씩, 나무 하나에 일을 한 삼일씩 가서 했어.)
108002 @ 아이고, 진짜 어떵 헤신고게 하이고. 그다음엔 초가집 말고, 초가집도 잇주마는 집에 종류들 ᄀᆞᆯ아줍서. 초가집 말고 우리 영 보당 보믄 이제 그 돌로 뒈근에 흑

부친 집들도 잇잖아예?(아이고, 진짜 어떻게 했을까 하이고. 그다음엔 초가집 말고, 초가집도 있지만 집의 종류들 말해주세요. 초가집 말고 우리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제 그 돌로 돼서 흙 붙인 집들도 있잖아요?)

108002 #5 돌로? 엿날엔 다 돌에다가 다 흑 부쳣주.(돌로? 옛날엔 다 돌에다가 다 흙 붙였지.)

108002 #1 다, 돌에 흑 부쳣지.(다, 돌에 흙 붙였지.)

108002 @ 그런 집을 무슨 집이렌 헷수과? 것도 초가집이렌 헷수과?(그런 집을 무슨 집이라고 했습니까? 것도 초가집이라고 했습니까?)

108002 #5 초가집, 초가집.(초가집, 초가집.)

108002 #1 우에 지붕 ᄒᆞ면은 초가집이고.(위에 지붕 하면 초가집이고.)

108002 @ 예.(예.)

108002 #1 경 아녀민 도당[224] 갖다 부찌민 도당집이고.(그렇지 않으면 함석 갖다 붙이면 함석집이고.)

108002 #5 아, 엿날에는 도당 그런 것도 엇엇거든, 전부 초가집.(아, 옛날에는 도당 그런 것도 없었거든, 전부 초가집.)

108002 #1 도당은 내중에 나와시난.(함석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108002 @ 맞수다.(맞습니다.)

108003 @ 그다음엔예, 집에 집채에 어떤 그 종류 잇잖아예? 뭐 안커리가 잇고 박거리가 잇고.(그다음은요, 집에 집채에 어떤 그 종류 있잖아요? 뭐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잇고.)

108003 #5 어.(어.)

108003 @ 또 무슨.(또 무슨.)

108003 #5 쉐막.(외양간.)

108003 @ 쉐막도 잇고.(외양간도 있고.)

108003 #5 불칫막[225].('불칫막'.)

108003 @ 음, 보통 안거리 밧거리, 이렇게 집을 짓어낫잖아예?(음, 보통 안채 바깥채, 이렇게 집을 지었었잖아요?)

108003 #1 어.(어.)

108003 @ 모커리는 뭐꽈? 모커리.(곁채는 뭡니까? 곁채.)

108003 #5 모커린 또 모에 잇는 거.(곁채는 또 모퉁이에 있는 거.)

108003 #1 요롱게 ᄒᆞ면은 요기에 집 짓고.(요렇게 하면 요기에 집 짓고.)

108003 @ 예.(예.)

108003 #1 요건 요기에 지으면은 이건 들어가는 밧거리.(요건 요기에 지으면 이건 들어가는 바깥채.)

108003 @ 예.(예.)

---

224) '도당'은 일본어 'トタン'로 표준어 '함석'에 대응한다.

225) '불칫막'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집인데, 달리 옛날에는 주로 검부러기 따위의 재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한다.

108003 #1 요, 요 이쪽에 모에 잇는 건 모커리.(요, 요 이쪽에 있는 건 곁채.)
108003 #5 모에 잇는 건 모커리라.(모퉁이에 있는 건 곁채.)
108003 @ 모커리, 경헷구나예.(곁채, 그랬군요.)
108004 @ 어, 아까 그 삼칸집 지엇덴 헷잖아예?(어, 아까 그 삼간집 지었다고 했잖아요?)
108004 #1 어 삼 칸.(어, 삼 칸.)
108004 @ 삼칸집 짓는 과정.(삼간집 짓는 과정.)
108004 #1 경 아녀민 저, 기둥 ᄒᆞ나헤서 저 짓는 집은 두 칸.(그렇지 않으면 저, 기둥 하나해서 저 짓는 집은 두 칸.)
108004 @ 예, 이 칸이랑 삼 칸은 그 집 짓으젠 하면은 지금처럼 막 뭐 돈 좀 뭐 사거나, 경 안 하난 대체적으로 다 그냥.(예, 이 칸이랑 삼 칸은 그 집 지으려 하면은 지금처럼 막 뭐 돈 좀 뭐 사거나, 그렇게 안 하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냥.)
108004 #5 먹는 거벳긴, 목수 품 ᄒᆞ고.(먹는 거밖에, 목수 품 하고.)
108004 @ 아, 목수 품이 엇이민 세칸집 짓으기 어려우키여예?(아, 목수 품이 없으면 삼간집 짓기 어렵겠네요?)
108004 #5 목수 품은 목수 빌어야, 목수는 돈을 주어야, 일단 돈 줭 비는 거고.(목수 품은 목수를 빌어야, 목수는 돈을 주어야, 일단 돈 줘서 비는 거고.)
108004 @ 맞수다.(맞습니다.)
108004 #5 딴 뭐는 잡부덜은 동네사름덜이 오는 건 도와주는 거.(딴 뭐는 잡부들은 동네사람들이 오는 건 도와주는 거.)
108004 @ 경 세칸집 짓젠 허면 구분은 어떵 짓고, 아까 방 두 개 안방하고, 안방 말고 다른 방은 게민 뭐렌 ᄀᆞᆯ앗수과? 고팡 말고.(그렇게 삼간집 지으려고 하면 구분은 어떻게 짓고, 아까 방 두 개 안방하고, 안방 말고 다른 방은 그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방 말고.)
108004 #1 방 두 개 ᄒᆞᆯ 수도 잇주게.(방 두 개 할 수도 있지.)
108004 @ 아까 얘기한 삼칸집은 방 하나, 마루 하나, 고팡 및 정제 그것꽈?(아까 얘기한 삼간집은 방 하나, 마루 하나, 고방 및 부엌 그것입니까?)
108004 #1 아니, 방 두 개 ᄒᆞᆯ 수도 이서.(아니, 방 두 개 할 수도 있어.)
108004 @ 방 두 개.(방 두 개.)
108004 #1 방 두 개, 고팡, 부엌 ᄒᆞ는 수. 부엌은 ᄒᆞᆫ 쪽 갈랑 조그맣게 ᄒᆞ고.(방 두 개, 고방, 부엌 하는 수. 부엌은 한 쪽 갈라서 조그맣게 하고.)
108004 @ 방하고 방 사이에 잇는 건 뭐렌 ᄀᆞᆯ앗수과?(방하고 방 사이에 있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4 #1 마루.(마루.)
108004 @ 마루엔 ᄀᆞᆯ앗수과 옛날에?(마루라고 말했습니까?)
108004 #1 마리.(마리.)
108004 @ 마리예. 마리까지 합처근에 삼 칸이 아니꽈?(마루요. 마루까지 합쳐서 삼

칸이 아닌가요?)
108004 #1 음. 합청 삼 칸.(음. 합쳐서 삼 칸.)
108004 @ 합청 삼 칸이지예?(합쳐서 삼 칸이지요?)
108005 @ 그다음엔예, 집을 지을 때 이제 주춧돌이나 지둥, 보, 도리, 서리.(그다음은요, 집을 지을 때 이제 주춧돌이나 기둥, 보, 도리, 서까래.)
108005 #1 어.(어.)
108005 @ 서까래 이런 거 잇잖아예?(서까래 이런 거 있잖아요?)
108005 #1 어.(어.)
108005 @ 아까 그 말씀해 주신대로 주춧돌 아까 무신 거마씨?(아까 그 말씀해 주신대로 주춧돌 아까 무슨 거라고요?)
108005 #5 지둥굽.(기둥뿌리.)
108005 @ 지둥굽, 지둥돌, 그다음엔 지둥예? 그다음엔 또 뭐가 이수과?(기둥뿌리, 주춧돌, 그다음은 기둥이요? 그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108005 #5 무시거?(무엇?)
108005 @ 그 이쪽 지둥.(그 이쪽 기둥.)
108005 #1 상ᄆᆞ루[226], 중ᄆᆞ루[227], 도리.(용마루, 중도리, 도리.)
108005 @ 도리.(도리.)
108005 #1 도리는 젤 벳긔듸.(고리는 제일 밖에.)
108005 @ 벳긔듸 잇는 거고예?(밖에 있는 거고요?)
108005 #1 중간 건 중ᄆᆞ루.(중간 건 중도리.)
108005 @ 중간 거는 중ᄆᆞ루이고예?(중간 거는 중도리고요?)
108005 #1 젤 우에 모루 요롷게 헤서 우옛 게 상ᄆᆞ루.(제일 위에 요렇게 해서 위의 것이 용마루.)
108005 @ 예, 상ᄆᆞ루예?(예, 용마루요?)
108005 #1 또 저, 상ᄆᆞ루에서 비스듬히 요건 저 서리 중에 긴 서리. 아이고, 건 무시거엔 아이고, 잊어버릿저.(또 저, 용마루에서 비스듬히 요건 저 서까래 중에 긴 서까래. 아이고, 그건 뭐라고 아이고, 잊어버렸어.)
108005 #5 저 옆에 허는 거?(저 옆에 하는 거?)
108005 #1 서리, 긴 서리. 네 귀에 ᄒᆞ는 서리.(서까래, 긴 서까래, 네 모서리에 하는 서까래.)
108005 @ 서리 잇고예? 그다음엔.(서까래 있고요? 그다음엔.)
108005 #1 그 가운데는 서리.(그 가운데는 서까래.)
108005 @ 서리예? 그다음엔?(서까래 있고요? 그다음엔?)
108005 #5 추년, 추년.(추녀, 추녀.)
108005 #1 아, 추년서리.(아, 추녀.)

226) '상ᄆᆞ루'는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며 달리 '상ᄆᆞ로', '상ᄆᆞ를'이라고도 한다.
227) '중ᄆᆞ루'는 지중의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 높은 곳을 말하며 달리 '중ᄆᆞ로', '중ᄆᆞ를'이라고도 한다.

108005 @ 아, 추년서리는?(아, 추녀는?)
108005 #5 모예, 모예. 네 모예.(모서리, 모서리. 네 모서리에.)
108005 @ 네 모에. 아, 추년서리.(네 모서리에. 아, 추녀.)
108005 #1 가운데건 그대로 서리고.(가운데 건 그대로 서까래고.)
108005 @ 아, 서리고.(아, 서리고.)
108005 #5 겐, 긴 낭을 대는 거주. 실허고, 긴 낭을 대는 거주.(그래서, 긴 나무를 대는 거지. 실하고 긴 나무를 대는 거지.)
108005 @ 음, 그다음에는 지붕이꽈?(음, 그다음에는 지붕입니까?)
108005 #1 음.(음.)
108005 @ 그 다음엔?(그다음엔?)
108005 #1 서슬[228].('서슬')
108005 @ 서슬도 잇고, 사이사이에?('서슬'도 있고, 사이사이에?)
108005 #1 서슬 우에 저 찝 헹은에 더프는 거.('서슬' 위에 저 짚 해서 덮는 거.)
108012 @ 문들도 잇잖우꽈? 문.(문들도 있잖습니까? 문.)
108012 #1 문사.(문이야.)
108012 #5 문이사 대문, 창문, 정짓문 뭐 다 잇주게.(문이야 대문, 창문, 부엌문, 뭐 다 있지.)
108012 @ 정짓문예?(부엌문이요?)
108012 #5 음.(음.)
108012 @ 아까 그 말씀한 거 잇잖아예? 예를 든다면 요기 지붕하고 지붕 잇는데.(아까 그 말씀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요기 지붕하고 지붕 잇는데.)
108012 #1 요기이?(요기?)
108012 @ 예.(예.)
108012 #1 욜로 요게 추년서리주게.(욜로 요게 추녀거든.)
108012 @ 예.(예.)
108012 #1 요 귀따지로부떠 요듸ᄒᆞ고.(요 모서리로부터 요기하고.)
108012 @ 예.(예.)
108012 #1 또 요기로부떠 요기.(또 요기로부터 요기.)
108012 @ 예.(예.)
108012 #1 요쪽 귀따지부떠 요기까지가 기고.(요쪽 모퉁이부터 요기까지가 그렇고.)
108012 @ 예.(예.)
108012 #1 저, 주로 큰 기둥은 요쪽에 ᄒᆞ나 요쪽에 ᄒᆞ나.(저, 주로 큰 기둥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108012 @ 예.(예.)
108012 #1 요쪽에 ᄒᆞ나, 요쪽에 ᄒᆞ나.(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108012 @ 예.(예.)

228)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108012 #1 요고 추년서리 끝에가 이제 욜로 요사이는 보통 마루ᄒᆞ주, 마루.(요고 추녀 끝에가 이제 욜로 요사이는 보통 마루하지, 마루.)
108012 @ 마루예?(마루요?)
108012 #1 마루, 음. 대문은 요기, 창문, 저 족은 저 아이고, 무신 문이엔 ᄒᆞ느니? 족은 문ᄀᆞ라.(마루, 음. 대문은 요기, 창문, 저 작은 저 아이고, 무슨 문이라고 하니? 작은 문보고.)
108012 #5 것ᄀᆞ라.(그것보고.)
108012 @ 요건 뭐렌 헙니까? 요건. 이건 정지문이고.(요건 뭐라고 합니까? 요건. 이건 부엌문이고.)
108012 #1 부엌 홀 때는, 이쪽 보통 부엌은 요쪽에 잘 ᄒᆞ주게?(부엌 할 때는, 이쪽 보통 부엌은 요쪽에 잘 하지?)
108012 @ 음.(음.)
108012 #1 여기 욜로 만약에 요것이 요 저 평면도를 그린다면은, 요롷게 집이 뒈지 아녀서이?(여기 욜로 만약에 요것이 요 저 평면도를 그린다면, 요렇게 집이 되지 않았어?)
108012 @ 예.(예.)
108005 #1 요롷게 뒈면은 요기로 부터 요기는 기둥 네 기둥이 잇거든, 네 기둥.(요렇게 되면 요기로부터 요기는 기둥 네 기둥이 있거든, 네 기둥.)
108005 @ 예.(예.)
108005 #1 네 기둥사이가 요기에 것이 포라 포.(네 기둥사이가 요기에 것이 보야 보.)
108005 @ 예.(예.)
108005 #1 포엔 허주게. 큰 저 나무로 헹 포.(보라고 하지. 큰 저 나무로 해서 보.)
108005 @ 예.(예.)
108005 #1 요 젤 가운데로 요롷게 이어진 게 저 상ᄆᆞ루.(요 젤 가운데로 요렇게 이어진 게 저 용마루.)
108005 @ 상ᄆᆞ루.(용마루.)
108005 #1 욜로 요롷게 헌 것이 추년서리.(욜로 요렇게 한 것이 추녀.)
108005 @ 예.(예.)
108005 #1 다른 것도 이렇게 전부 요롷게 서리가 잇주마는 요것이 추년서리.(다른 것도 이렇게 전부 요렇게 서까래가 있지만 요것이 추녀.)
108005 @ 예.(예.)
108005 #1 또 요것이 기둥이고 방은 어떻게 뒈는냐 하면, 요것이 평면도라고 하면은.(또 요것이 기둥이고 방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요것이 평면도라고 하면.)
108005 @ 예.(예.)
108005 #1 요롷게 나눠서 요기는 온돌방.(요렇게 나눠서 요기는 온돌방.)
108005 @ 예.(예.)
108014 @ 굴묵은?(‘굴묵은?)

108014 #1 어, 온돌방 ᄒᆞ면은,(어, 온돌방을 하면.)
108014 @ 굴묵은?('굴묵은'?)
108014 #1 굴묵[229]은 요쪽으로 헤근에 요롱게 옆으로 헤근에 때거든.('굴묵'은 요쪽으로 해서 요렇게 옆으로 해서 때거든.)
108014 @ 예.(예.)
108014 #1 때고, 요기는 보통 고팡 잘 하주게.(때고, 요기는 보통 고방 잘 하지.)
108014 @ 예.(예.)
108014 #1 고팡이엔 ᄒᆞ주, 고팡.(고방이라고 하지, 고방.)
108014 @ 예.(예.)
108014 #1 방인디 고팡.(방인데 고방.)
108014 @ 예.(예.)
104014 #1 요기는 요롱게 남앙 요기는 또 방 허는 듸가 잇고, 요기 부엌 허는 듸가 잇곡.(요기는 요렇게 남아서 요기는 또 방 하는 데가 있고, 요기 부엌 하는 데가 있고.)
104014 @ 우리, 여기 세화리 식으로 ᄀᆞᆯ아줍서예?(우리, 여기 세화리 식으로 말해주십시오?)
104014 #1 응, 부엌.(응, 부엌.)
108010 @ 세화리 사람들은 부엌이렌 ᄀᆞᆯ앗수과 정지렌 ᄀᆞᆯ앗수과?(세화리 사람들은 부엌이라고 말했습니까 '정지'라고 말했습니까?)
108010 #1 정지, 정지. 겐디 정지를 앞에 ᄒᆞ는 듸도 이서.('정지', '정지'. 그런데 부엌을 앞에 하는 데도 있어.)
108010 @ 예.(예.)
108010 #1 앞에 정지 ᄒᆞ고 뒤에 방 ᄒᆞ는 듸도 잇고.(앞에 부엌 하고 뒤에 방 하는 데도 있고.)
108010 @ 예, 예.(예, 예.)
108008 #1 요기는 상방이라 상방, 마루.(요기는 대청이라 대청, 마루.)
108008 @ 상방이잖아예? 이 상방 앞에 이제 그 문 큰 문이 잇잖아예? 큰 문이 이시민 큰문 앞에도 또 하나 작은 걸터안지는 마루 잇잖아예?(대청이잖아요? 이 대청 앞에 이제 그 문 큰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이 있으면 큰문 앞에도 또 하나 작은 걸터앉는 마루 있잖아요?)
108008 #1 건, 거시기 난간.(그건, 거시기 난간.)
108008 @ 난간이렌 헷수과?(난간이라고 했습니까?)
108008 #1 어, 난간.(어, 난간.)
108008 @ 그다음엔 또예? 우리 보다보면 난간에 올라가젠 허민, 요기가 난간이면 올라가젠 허면 무신 돌 이렇게 놧잖아예?(그다음엔 또요? 우리 보다보면 난간에 올라가려고 하면, 요기가 난간이면 올라가려고 하면 무슨 돌 이렇게 놓았잖아요?)
108008 #1 디딤돌, 디딜팡.(디딤돌, 디딤돌.)

229)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부분을 말한다.

108008 @ 그것이 디딜팡이꽈?(그것이 디딤돌입니까?)
108008 #1 잇돌이엔 ᄒᆞ느냐? 잇돌?(디딤돌이라고 하니? 디딤돌?)
108008 #5 잇돌은 영 쭉 허게 박은 돌을 잇돌이엔 ᄒᆞ고.(디딤돌은 이렇게 쭉 하게 박은 돌을 디딤돌이라고 하고.)
108008 @ 잇돌이고예?(디딤돌이고요?)
108006 @ 어, 이제 흑을 발라야 뒐 거잖아예?(어, 이제 흙을 발라야 될 거잖아요?)
108006 #1 응.(응.)
108006 @ 흑 볼를 때?(흙 바를 때.)
108006 #1 흑질 혼덴.(흙질 한다고.)
108006 @ 흑질헌덴 허잖아예?(흙질한다고 하잖아요?)
108006 #1 응.(응.)
108006 @ 흑질허는데 여기서는 흑이렌 헷수과? ᄒᆞ기렌 헷수과?(흙질하는데 여기서는 '흑'이라고 했습니까? 'ᄒᆞ기'라고 했습니까?)
108006 #5 흑, ᄒᆞ기질.('흑' 'ᄒᆞ기질'.)
108006 @ ᄒᆞ기질헐 때, 그 저 뭐 외가 잇고 산자가 잇고, 인방, 반자틀 이런 것들이 이서예?(흙질할 때, 그 저 뭐 외가 있고 산자가 있고, 인방, 반자틀 이런 것들이 있지요?)
108006 #1 무시거?(무엇?)
108006 @ ᄒᆞ기질할 때. 외, 산자, 인방, 반자틀인데 그게 무시거냐면 아까 ᄒᆞ기질허젠하면 요 뭔가 세워져 잇서야 뒈잖아예? 이게 벽이라예? 지금은 벽이라고 하고 옛날엔 뭐라고 골앗수과?(흙질할 때. 외, 산자, 인방, 반자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흙질하려고 하면 요 뭔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벽이에요? 지금은 벽이라고 하고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6 #1 빈지.(빈지.)
108006 @ 빈지 잇잖아예, 거난 빈지를 만들기 위헤서, 완전한 빈지를 만들기 위헤서 양쪽에서 흑을 부쩌야 뒐 거잖아예?(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서 흙을 붙여야 될 거잖아요?)
108006 #1 어.(어.)
108006 @ 그믄 흑 부찔 때 다 부찌고 난 다음에 거를 빈지라고 헷잖아예?(그러면 흙 붙일 때 다 붙이고 나서 다음에 그거를 빈지라고 했잖아요?)
108006 #5 다 헹, 다 볼라 놩.(다 해서, 다 발라 놓고.)
108006 #1 볼라 논 게 빈지주.(발라 놓은 게 빈지지.)
108006 @ 기잖아예? 그믄은 그 볼를 때 그 속에 들어져 잇는 거. 빈지 속에 들어져 잇는 것이 뭐 뭐엿수과?(그렇지요? 그러면 그 바를 때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 빈지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 뭐 뭐였습니까?)
108006 #5 퉤기, 퉤기.(설외, 설외.)
108006 @ 퉤기?(설외?)
108006 #5 응, 퉤기라고.(응, 설외라고.)

108006 #1 퉤기를 헤놩 흑을 불르는 거주.(설외를 해놓고 흙을 바르는 거지.)
108006 # 5 흑을 불르는 거주.(흙을 바르는 거지.)
108006 #1 퉤기터레 흑을 불르는 거주.(설외에 흙을 바르는 거지.)
108006 @ 퉤기가 뭐 뭐로 뒈 이서수과?(설외는 뭐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108006 #5 나무로.(나무로.)
108006 #1 나무로, 나무나 대나.(나무로, 나무나 대나.)
108006 #5 나무나 대나무든 헤영, 요만씩 구멍 나게.(나무나 대나무든 해서, 요만씩 구멍 나게.)
108006 @ 예.(예.)
108006 #5 촘촘허게 경 여끄는 거라.(촘촘하게 그렇게 엮는 거야.)
108006 #1 여꺼, 여꺼.(엮어, 엮어.)
108006 #5 요만씩 구멍나게 영 여꺼근에 양쪽에서 흑을 불라부는 거.(요만씩 구멍나게 이렇게 엮어서 양쪽에서 흙을 발라버리는 거지.)
108006 @ 아.(아.)
108006 #1 그거 설명을 ᄒᆞ지. 종이 요디 요.(그거 설명을 하지. 종이 요기 요.)
108006 @ 여기 헙서.(여기 하십시오.)
108006 #1 요게 만약에 벽 아니냐이?(요게 만약에 벽 아니야?)
108006 @ 예, 예예.(예, 예예.)
108006 #1 요건 저 포로 영 헌.(요건 저 보로 이렇게 한.)
108006 @ 예.(예.)
108006 #1 요게 집이고.(요게 집이고.)
108006 @ 예.(예.)
108006 #1 요 밑에는 저 판자로 이튼, 옛날엔 판자로 헷어. 판자로 헷는데 이곳이 그 저 벡선이엔 ᄒᆞ주, 벡선.(요 밑에는 저 판자로 하여튼, 옛날엔 판자로 했어. 판자로 했는데 이곳이 그 저 벽선이라고 하지, 벽선.)
108006 @ 벡선예?(벽선이요?)
108006 #1 기둥.(기둥.)
108006 @ 예,(예.)
108006 #1 벡선 기둥인데, 요 기둥과 요 사이에 중간에 가느다란 나무로 헤근에 요롷게 작은 나무로 헤근에 요롷게 헤줘.(벽선 기둥인데, 요 기둥과 요 사이에 중간에 가느다란 나무로 해서 요렇게 작은 나무로 해서 요렇게 해주지.)
108006 @ 예.(예.)
108006 #1 그러면은 내중에 대나무나 무시걸로 헤서 요롷게 헹은에 ᄀᆞ치 얽어.(그러면 나중에 대나무나 무엇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같이 얽어.)
108006 @ 예.(예.)
108006 #5 게난 흑 떨어지지 말라고 저렇게 ᄒᆞ는 거.(그러니까 흙 떨어지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 거지.)

108006 @ 음.(음.)
108006 #1 이렇게 얽는다고.(이렇게 엮는다고.)
108006 @ 예.(예.)
108006 #1 십자 식으로 이렇게.(십자 식으로 이렇게.)
108006 @ 음.(음.)
108006 #1 겡 ᄒᆞ면은 양쪽에서 상은에 서로. ᄒᆞᆫ 쪽만 헹은에 ᄒᆞ면 저레 밀려나버리거든.(그렇게 하면 양쪽에서 서서 서로. 한 쪽만 해서 하면 저리로 밀려나버리거든.)
108006 @ 음.(음.)
108006 #5 게난 요거 ᄒᆞᆯ 때도 새로 노 꼬앙.(그러니 띠로 노 꼬아서.)
108006 @ 예.(예.)
108006 #5 새로 노 꼬앙 놓는 거.(띠로 노 꼬아서 놓는 거야.)
108006 @ 음.(음.)
108006 #5 뭐 엿날엔, 요즘은 뭐 무슨 나이롱 끈 그런 거 잇주마는 엿날엔 거런 거 엇이난.(뭐 옛날에는, 요즘은 뭐 무슨 나일론 끈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108006 @ 엇이난예.(없어서요.)
108006 #5 새 헤근에 두드렁.(띠 해서 두드려서.)
108006 @ 예.(예.)
108006 #5 저 노 꼬아근에 이걸로 다으는 거라.(저 노 꼬아서 이걸로 쌓는 거야.)
108006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8006 #5 거난 서슬[230] 노가 엄청 많이 들주게.(그러니 '서슬' 노가 엄청 많이 들지.)
108006 @ 예, 서슬허는 노가예?(예, '서슬'하는 노가요?)
108006 #1 ᄀᆞ느다란 노가 아니면, 막 솔진 거 꼬아도 안 뒈주게.(가느다란 노가 아니면, 막 굵은 거 꼬아도 안 되지.)
108007 @ 이제 삼 칸 방이 만들어지잖아예? 만들게 뒈면 아까 그 안방이 큰방이지예?(이제 삼 칸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게 되면 아까 그 안방이 큰방이지요?)
108007 #1 어.(어.)
108007 @ 그다음엔 부엌 붙은 방이 족은방예?(그다음엔 부엌 붙은 방이 작은방이요?)
108007 #1 어.(어.)
108007 @ 그다음에 시렁은 어느 방에 많이 헷수과?(그다음에 시렁은 어느 방에 많이 했습니까?)
108007 #1 방에, 방.(방에, 방.)
108007 #5 시렁은 방에 다 헷주. 방마다.(시렁은 방에 다 했지. 방마다.)
108007 @ 시렁은 방에, 다 헷고예?(시렁은 방에, 다 했고요?)

230)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108007 #1 겐디 시렁 밑에는 굴묵 살리는 듸가 뒈여.(그런데 시렁 밑에는 '굴묵' 살리는 데가 돼.)
108007 @ 아, 시렁 밑에 가마씸?(아, 시렁 밑에 가요?)
108007 #1 음.(음.)
108007 @ 아, 시렁 밑에서 굴묵 살리민 시렁 이쪽에가 따뜻한 데가 뒛구나예?(아, 시렁 밑에서 '굴묵' 살리면 시렁 이쪽에가 따뜻한 데가 됐군요?)
108007 #1 어.(어.)
108007 #5 시렁은 방, 방 안에 잇는 거고, 시렁은.(시렁은 방, 방 안에 있는 거고, 시렁은.)
108007 @ 예.(예.)
108007 #1 만약에 요게, 요게 방이라고 ᄒᆞ면은.(만약에 요게, 요게 방이라고 하면.)
108007 @ 예.(예.)
108007 #1 요게 방이라고 ᄒᆞ면은 저, 요롷게 헹은에 칭게를 만들어 놔, 요롷게. 이 옆으로 보면은 요게 방이면은, 요게 방이면은 요정도 헹은에, 요기 굴뜨주게.(요게 방이라고 하면 저, 요렇게 해서 층계를 만들어 놔, 요렇게. 이 옆으로 보면 요게 방이면, 요게 방이면 요정도 해서, 요기 들뜨지.)
108007 @ 예.(예.)
108007 #1 게민, 이듸서 헹은에 굴묵을 때여.(그러면, 여기서 해서 '굴묵'을 때.)
108007 @ 예.(예.)
108007 #1 굴묵을 때면은 방이 영 시면은 요건 요롷게 헹은에 요기는 욜로부떠 우터렌 요기엔 뭐 궤 ᄀᆞ뜬 거 올려놓주게.('굴묵'을 때면 방이 이렇게 있으면 요건 요렇게 해서 요기는 요기로부터 위로는 요기엔 뭐 궤 같은 거 올려놓지.)
108007 @ 맞수다. 그 시렁하고 벽장 하고는 다른 말이지예?(맞수다. 그 시렁하고 벽장 하고는 다른 말이지요?)
108007 #1 어.(어.)
108007 #5 다른 말.(다른 말.)
108007 #1 어. 시렁은 이거 저 궤 ᄀᆞ뜬 거 올려놓는 듸.(어. 시렁은 이거 저 궤 같은 거 올려놓는 데.)
108007 #5 궤 올려놓는 듸 시렁이고.(궤 올려놓는 데 시렁이고.)
108007 @ 벽장은 따로 만들앗수과?(벽장은 따로 만들었습니까?)
108007 #5 벡장이렌 헌 게 이런 거 보고 벽이엔 헷주게.(벽장이라고 한 게 이런 거 보고 벽이라고 했지.)
108007 @ 게난 빈지, 아까 얘기한 벽.(그러니까 빈지, 아까 얘기한 벽.)
108007 #5 빈지, 벽.(빈지, 벽.)
108007 #1 벽장은, 벽장은 벽에다가 굴루이 또 그 저, 벽을 이렇게 크게 만들엉, 일부러 만들아야 뒈여, 벽장은 만들젠 ᄒᆞ면.(벽장은, 벽장은 벽에다가 별도로 또 그 저, 벽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야 돼, 벽장은 만들려고 하면.)

108007 @ 아.(아.)
108007 #1 겐디 요기에 시렁에다가 직접 벽장 ᄒᆞ는 듸도 잇주게.(그런데 요기에 시렁에다가 직접 벽장 하는 데도 있지.)
108007 @ 시렁에 문 달앙예?(시렁에 문 달아서요?)
108007 #1 음, 문 달앙. 시렁 우에다가 그대로. 엿날에는 그건 아년.(음, 문 달아서. 시렁 위에다가 그대로. 옛날에는 그건 안 했어.)
108007 #5 지금나니까 벽장이여 무시거여 헷지, 엿날에는 그런 게 엇어.(지금이니까 벽장이야 무엇이야 했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108007 #1 그런 게 엇어.(그런 게 없어.)
108007 @ 다 시렁이엇잖아예?(다 시렁이었잖아요?)
108007 #1 어, 다 궤나 놓주.(어, 다 궤나 놓지.)
108007 @ 그리고예, 그 이불 같은 것은 이불 상 따로 이서수과?(그리고요, 그 이불 같은 것은 이불 상 따로 있었습니까?)
108007 #5 아니, 시렁에 놓주게 시렁에.(아니, 시렁에 넣지 시렁에.)
108007 @ 시렁에예?(시렁에요?)
108007 #1 시렁.(시렁.)
108007 @ 그다음 여기다 굴묵[231] 지들 거 아니꽈예? 여기가 시렁이엔 헷잖아예?(그다음 여기다 '굴묵' 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시렁이라고 했잖아요?)
108007 #1 어.(어.)
108007 @ 여기가 방이잖아에?(여기가 방이잖아요?)
108007 #1 응, 이쪽엔 방.(응, 이쪽엔 방.)
108007 @ 따뜻한 데를 뭐렌 골앗수과?(따뜻한 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7 #5 것ᄀᆞ라.(그것보고.)
108007 @ 윗목 아랫목 헐 때, 옛날 윗목 아랫목 헐 때 다른 말 엇엇수과? ᄯᅳ뜻헌 듸 난 저 아랫목에 강 안지라, ᄯᅳ뜻ᄒᆞᆫ다. 그런 말 엇엇수과? 다른 말 제주도 말로 엇엇수과?(윗목 아랫목 할 때, 옛날 윗목 아랫목 할 때 다른 말 없었습니까? 따뜻한 데니까 저 아랫목에 가서 앉아라, 따뜻하다. 그런 말 없었습니까? 다른 말 제주도 말로 없었습니까?)
108007 #5 다른 말로 뭐 이서낫는디.(다른 말로 뭐 있었었는데.)
108007 @ 뭐렌 안 헷수과?(뭐라고 안 했습니까?)
108007 #1 요 ᄯᅳ뜻ᄒᆞᆫ 듸로 오라, ᄒᆞ멍 무시거엔 ᄀᆞᆫ는디, 갑자기 ᄒᆞ난 잊어부릿져.(요 따뜻한 데로 오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니까 잊어버렸네.)
108008 @ 예, 게민 건 그냥 넘어 가고예? 그다음 아까 그 방하고 방 사이에 마루가 이섯덴 헷잖아예?(예,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 가고요? 그다음 아까 그 방하고 방 사이에 마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08008 #1 어.(어.)

231)'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부분을 말한다.

108008 @ 옛날엔 그 마루를 뭐렌 골앗수과?(옛날엔 마루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8 #1,5 마리.('마리'.)
108008 @ 마리. 상방은 뭣과? 게민.(마루. 대청은 뭡니까? 그러면.)
108008 #5 상방, 그게 상방.(대청, 그게 대청.)
108008 #1 상방이 마리.(대청이 마루)
108008 #5 마리엔 헌 건, 널을 놓난 거고.(마루라고 한 건, 널을 놓으니까 그런 거고.)
108008 @ 예.(예.)
108008 #5 또 그거 놓지 못헹 기냥 북데기 방에 기냥 헹 이섯주게.(또 그거 놓지 못해서 그냥 북데기 방에 그냥 해서 있었지.)
108008 @ 그걸 상방이렌 허고예?(그걸 대청이라고 하고요?)
108008 #1 옛날엔 마리도 이.(옛날엔 마루도 응.)
108008 @ 예.(예.)
108008 #1 귀틀마리라이.(귀틀마루야.)
108008 @ 예.(예.)
108008 #1 만약에 요것이 마루 아니?(만약에 요것이 마루 아니?)
108008 @ 예.(예.)
108008 #1 이?(응?)
108008 @ 예.(예.)
108008 #1 마루면은, 귀틀이엔 헹은에 밑에 요롷게 헹은에 저, 나무가 긴 나무가 놔. 긴 나무 이렇게 헹은에 놓면은 요 나무광 요 사이에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갖다 끼워놔.(마루면, 귀틀이라고 해서 밑에 요렇게 해서 저, 나무가 긴 나무를 놓아. 긴 나무 이렇게 해서 놓으면 요 나무와 요 사이에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갖다 끼워놔.)
108008 @ 음.(음.)
108008 #1 이게 귀틀마리라.(이게 귀틀마루야.)
108008 #5 이게 귀틀마리라고 허는 건데 이게 톱으로 오려낸 게 아니고 도치로 깨어낸 널판지라 이게.(이게 귀틀마루라고 하는 건데 이게 톱으로 오려낸 게 아니고 도끼로 깨어낸 널빤지야 이게.)
108008 @ 아.(아.)
108008 #5 그렇게 헤서 이제 그게 만들지 못헌 거지.(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만들지 못한 거지.)
108008 #1 이렇게 헹은에 사이에 끼우게 뒈이서.(이렇게 해서 사이에 끼우게 돼있어.)
108008 @ 영 조립하게예?(이렇게 조립하게요?)
108008 #5 거 들러네면은 ᄒᆞ나ᄒᆞ나 다 들러네지게꼼.(거 들어내면 하나하나 다 들어지게끔.)
108008 @ 거믄 그건 더 만들기 어려워실 거 담다예?(그러면 그건 더 만들기 어려웠을 거 같네요?)

108008 #1 그 이 요 귀틀마리는 어떤 식으로 ᄒᆞ냐면은 어떤 식으로 뒀냐면은 요런 식으로 쭉 ᄒᆞ게 나무가 뒈잇어. 요 판자를 요 사이에 다 끼우는 거야.(그 이 요 귀틀마루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식으로 됐느냐면 요런 식으로 쭉 하게 나무가 돼있어. 요 판자를 요 사이에 다 끼우는 거야.)

108008 @ 아, 그렇게. 그리고 그 저기 상방마리엔 뭐 뭐가 들어가낫수과?(아, 그렇게. 그리고 그 저기 대청마루엔 뭐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108008 #5 부섭.(화로.)

108008 @ 부섭예?(화로요?)

108008 #5 부섭이 들어가낫주.(화로가 들어갔었지.)

108008 @ 부섭, 부섭은 뭘로 뭰 부섭마씨?(화로, 화로는 뭐로 된 화로요?)

108008 #1 돌로, 돌로 만들어.(돌로, 돌로 만들어.)

108008 @ 아예 부섭을 만들엇지예?(아예 화로를 만들었지요?)

108008 #5 돌로 요롷게 네모나게 영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불을 부쳣주.(돌로 요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불을 붙였지.)

108008 #1 요롷게 헤가지고 이거 돌로, 돌로.(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돌로, 돌로.)

108008 @ 돌로예.(돌로요.)

108009 @ 그다음엔 아까 그 고팡.(그다음엔 아까 그 고방.)

108009 #1 음.(음.)

108009 @ 고팡엔 뭐 뭐가 이서수과?(고방엔 뭐 뭐가 있었습니까?)

108009 #5 고팡엔 쏠, 쏠항아리. 쏠항, 뭐 장항 뭐.(고방엔 쌀, 쌀항아리. 쌀항아리, 뭐 장항아리 뭐.)

108009 @ 그 쏠항들 쏠항이 잇고, 그다음 혹시나 이 세화쪽에는 안칠성이라고 엇엇수과? 칠성.(그 쌀항아리들 쌀항아리가 있고, 그다음 혹시나 이 세화 쪽에는 '안칠성'이라고 없었습니까? 칠성.)

108009 #5 아, 거는 집집마다는 다 엇고, 잇는 집은 잇고.(아, 그거는 집집마다는 다 없고, 있는 집은 있고.)

108009 @ 잇는 집은 잇고예?(있는 집은 있고요?)

108009 #1 칠성[232]이믄 바깟듸에 뭐 ᄒᆞ주.(칠성이면 바깥에 뭐 하지.)

108009 #5 겐디, 제서 때는 그기 뭐 칠성이라고 헤서, 그 안칠성[233]이라고 헤서 그 저 뭐 뭐 밥ᄒᆞ고 뭐 고기 그런 거 헤근에 고팡에 차반지에 아지당 놧다근에 기냥 앗아불곡 ᄒᆞ는 거. 건 보통은 다 그래.(그런데, 제사 때는 거기 뭐 '칠성'이라고 해서, 그 '안칠성'이라고 해서 그 저 뭐 뭐 밥하고 뭐 고기 그런 거 해서 고방에 차반지에 가져다가 놓았다가 그냥 치워버리고 하는 거. 건 보통은 다 그래.)

108009 @ 예, 다 경헨예?(다 그랬다고요?)

108010 @ 아, 그다음 정지엔 어, 정지에는 뭐 뭐가 이서수과?(아, 그다음 부엌엔 어,

232) '칠성'은 집안의 부를 가져다준다는 뱀신을 일컫는 말이다.
233) '안칠성'은 고방에 모시는 뱀신을 말한다.

부엌에는 뭐 뭐가 있었습니까?)
108010 #5 살레[234].('살레'.)
108010 @ 살레가 잇섯고예?('살레'가 있었고요?)
108010 #1 살레 알아지크라?('살레' 알아지는가?)
108010 @ 예게.(예.)
108010 #1 살레, 물항, 솟.('살레' 물항아리, 솥.)
108010 @ 솟, 그 솟 안칠 때, 아까 굴묵 지드는 거, 밖에 따로 굴묵을 만들엇젠 헷잖아예?(그 솥 앉힐 때, 아까 '굴묵' 때는 거, 밖에 따로 '굴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08010 #1 어.(어.)
108010 @ 저는 어릴 때 잇잖아예?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잠깐 그 기억이 할머니네 집에 가보면 웨할머니가 이렇게 솟덕 잇고예, 그 우에 솟 안처근에 밥도 헤주고 반찬도 헤주엇거든마씨, 부엌 안에서, 정지 안에서. 그면은 헤주면 이제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면 정지에서 밥 헤난 그쪽이 아렛목이 뒈가지고 따뜻헤낫거든예.(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잠깐 그 기억이 할머니네 집에 가보면 외할머니가 이렇게 봇돌 있고요, 그 위에 솥 앉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었거든요, 부엌 안에서, 부엌 안에서. 그러면 해주면 이제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밥 했던 그쪽이 아랫목이 되가지고 따뜻했었거든요.)
108010 #5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8010 @ 예.(예.)
108010 #5 그런 구조가 헌 듸도 이서.(그런 구조로 한 데도 있어.)
108010 #1 그런 구조도 ᄒᆞ주게. 그런 구조 ᄒᆞ젠 ᄒᆞ민.(그런 구조도 하지. 그런 구조 하려고 하면.)
108010 @ 예.(예.)
108010 #1 옛날에는 그게 어려와서.(옛날에는 그게 어려웠어.)
108010 @ 아, 기꽈?(아, 그래요?)
108010 #1 옛날엔 그게 위험헤.(옛날엔 그게 위험해.)
108010 @ 아, 기구나.(아, 그렇군요.)
108010 #5 그런 구조도 밥헤영.(그런 구조도 밥해서.)
108010 #1 건 내중에.(그건 나중에.)
108010 @ 예.(예.)
108010 #1 어느 때부터냐면은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시멘트 나오기 시작ᄒᆞ니까 그게 이서서.(어느 때부터냐면 해방 후에, 해방 후에 시멘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있었어.)
108010 @ 아. 시멘트.(아, 시멘트.)
108010 #5 우리가 집지슬 때는 그런 게 엇엇고.(우리가 집지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108011 @ 엇엇구나나예? 경헷구나예? 그리고 그다음에는예? 문설주 잇잖아예? 문설주.(없었었군요? 그랬군요? 그리고 그다음은요? 문설주 있잖아요? 문설주.)

234) '살레'는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을 말한다.

108011 #1 응?(응?)
108011 @ 문설주, 문설주. 문지방, 문.(문설주, 문설주. 문지방, 문.)
108011 #1 어, 문설주?(어, 문설주?)
108011 @ 문지방.(문지방.)
108011 #1 주는 기둥이고.(주는 기둥이고.)
108011 @ 예.(예.)
108011 #1 설치는 거시기 ᄀᆞ는 거시기 문설치고.(설주는 거시기 말하는 거시기 문설주고.)
108011 @ 어, 게난 문지방.(어, 그러니까 문지방.)
108011 #1 문지방은 밑엣 거고.(문지방은 밑의 거고.)
108011 @ 밑엣 거고예?(밑의 거고요?)
108011 #5 알지방 웃지방 경 헤서.(아래문지방 위문지방 그렇게 했어.)
108011 @ 돌쩌귄 뭐꽈?(돌쩌귄 뭡니까?)
108011 #1 어?(어?)
108011 @ 돌쩌귀.(돌쩌귀.)
108011 #1 어?(어?)
108011 @ 돌쩌귀.(돌쩌귀.)
108011 #1 돌쩌귀?(돌쩌귀?)
108011 @ 예.(예.)
108011 #1 도절귀.(‘돌쩌귀’.)
108011 #5 도절귀, 도절귀.(‘돌쩌귀’, ‘돌쩌귀’.)
108011 #1 도절귀, 문 ᄃᆞ는 거.(돌쩌귀, 문을 다는 것.)
108011 @ 문 ᄃᆞ는 거? 어떵 ᄃᆞᆯ아마씨?(문을 다는 거? 어떻게 달아요?)
108011 #1 저, 만약에 문이 요롷게 뒈 잇잖아이?(저, 만약에 문이 요렇게 돼 있잖아?)
108011 @ 예.(예.)
108011 #1 문광 기둥 사이에 저 쒜, 고리 헤가지고, 갖다 끼우게 뒈이서.(문과 기둥 사이에 저 쇠, 고리 해가지고, 갖다 끼우게 돼있어.)
108011 #5 문을 끼와서 ᄋᆞ랏다 닫앗다 허게.(문을 끼워서 열었다 닫았다 하게.)
108011 @ 아, 도절귀. 경칩 같은 거 얘기하는 거꽈, 경첩인가?(아, 돌쩌귀. 경칩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경첩인가?)
108011 #1 어, 정첩.(어, 경첩.)
108011 @ 아, 정첩.(아, 경첩.)
108011 #1 정첩 모냥으로 ᄒᆞ뒈, 도절귀는 저 쒜 고망 난걸 이 기둥에 찔르고, 또 요롷게 요듸 들어가게꼬롬 ᄒᆞᆫ 건 문에 달곡 헹은에 갖당 문 그레 끼우민 뒈어.(경첩 모양으로 하되, 돌쩌귀는 저 쇠 구멍 난걸 이 기둥에 끼우고, 또 요렇게 요기 들어가게끔 한 건 문에 달고 해서 갖다가 문 거기에 끼우면 돼.)
108011 @ 돌쩌귀가 아니라 도절귀예?(돌쩌귀가 아니라 ‘도절귀’요?)

108011 #1 도절귀.(‘돌쩌귀’.)
108011 @ 예. 문얼굴은 뭐꽈? 문얼굴.(예. 문얼굴은 뭡니까? 문얼굴.)
108011 #5 문얼굴? 문얼굴이엔 헌 말은?(문얼굴? 문얼굴이라고 한 말은?)
108011 @ 그니까 이게 문이면 아까 뭐렌 헷수과? 이 밑엣게, 문지방.(그러니까 이게 문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밑의 것, 문지방.)
108011 #1 아렛지방, 윗지방.(아래문지방, 위문지방.)
108011 @ 요기를 뭐렌 골앗수과?(요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1 #1 아, 문틀.(아, 문틀.)
108011 @ 아니, 요 틀 말고.(아니, 요 틀 말고.)
108011 #5 가운듸? 것사 방이주게.(가운데? 그거야 방이지.)
108011 #1 지게문도 잇고, 지게문, 쌀문.(지게문도 있고, 지게문, 살문.)
108011 @ 창오지 붙은 그 곳.(창호지 붙은 그 곳.)
108011 #5 아, 문. 그건 지게문. 창오지 부찌는 거는 지게문.(아, 문. 그건 지게문. 창호지 붙이는 거는 지게문.)
108011 @ 문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오지를 붙이는 그 부위를 뭐렌 골앗수과?(문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호지를 붙이는 그 부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1 #1 문쌀.(문살.)
108011 @ 문쌀? 문쌀. 그 문쌀을 전체적으로, 문쌀들 잇잖아예?(문살? 문살. 그 문살을 전체적으로, 문살들 있잖아요?)
108011 #1 문쌀이 지게문은 이렇게 헹은에 이게 전부 문쌀이주게. 문쌀인데 그듸 무늬를 요롷게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저 십자로 흔 거시기만 헹은에 다른 건 안 써서.(문살이 지게문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문살이지. 문살인데 거기 무늬를 요렇게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저 십자로 한 거시기만 해서 다른 건 안 사용했어.)
108012 @ 아, 그렇구나예. 그다음엔예?(아, 그렇군요. 그다음은요?)
108012 #1 요새 나오난에 요롷게 가늘게시리 헤서 모냥내서 ᄒᆞ주.(요새 나오니까 요렇게 가늘게끔 해서 모양내서 하지.)
108012 @ 문, 아까 지게문이라고 헷잖아예?(문, 아까 지게문이라고 했잖아요?)
108012 #1 어.(어.)
108012 @ 지게문 말고 문 종류는 뭐 뭐가 이서낫수과?(지게문 말고 문 종류는 뭐 뭐가 있었습니까?)
108012 #5 널문.(널문.)
108012 #1 널문, 판자로.(널문, 판자로.)
108012 @ 널문, 마리에 들어갈 때 큰문예?(널문, 마루에 들어갈 때 큰문이요?)
108012 #5 으, 으. 그게 널문.(응, 응. 그게 널문.)
108012 @ 그다음엔 정지 들어갈 때 문은?(그다음엔 부엌 들어갈 때 문은?)
108012 #5 그것도 정지에도 널문.(그것도 부엌에도 널문.)
108012 #1 다, 널문이라.(다, 널문이야.)

108012 @ 널문? 이름을 널문이엔 헷수과?(널문? 이름을 널문이라고 했습니까?)
108012 #1 어.(어.)
108012 #5 으, 대문.(응, 대문.)
108012 #1 대문, 창문.(대문, 창문.)
108012 @ 창문은 그냥 창문이렌 골앗수과?(창문은 그냥 창문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12 #1 창문도 구들문 이런 저 지게문이 잇고, 저 그 집에 그 상방에.(창문도 구들방문 이런 저 지게문이 있고, 저 그 집에 그 대청에.)
108012 @ 예.(예.)
108012 #1 그 잇는 문이 들어가는 문은 대문이고.(그 있는 문이 들어가는 문은 대문이고.)
108012 @ 예.(예.)
108012 #1 조그맣게 흔 그 저 널문이 잇서.(조그맣게 한 그 저 널문이 있어.)
108012 @ 예.(예.)
108012 #1 요건 창문이엔 헷서.(요건 창문이라고 했어.)
108012 @ 요건 창문이렌 헷다는 말이구나예?(요건 창문이라고 했다는 말이군요?)
108012 #1 음, 음.(음, 음.)
108012 @ 여긴 창문예?(여긴 창문이요?)
108012 #1 또 방에 잇는 그 저 문은 널문으로 많이 헷주게.(또 방에 있는 그 저 문은 널문으로 많이 했지.)
108012 @ 창 바를 땐 그 창살에 부치는 종이는 뭐렌 헷수과?(창 바를 땐 그 창살에 붙이는 종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108012 #5 창오지.(창호지.)
108012 #1 종이는 저, 창오지.(종이는 저, 창호지.)
108012 @ 창오지 엇일 땐 어떵 헷수과?(창호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2 #5 창오지 엇일 때는 저, 뭐, 건 아주 엿날인디 천, 무싱거 이 저.(창호지 없을 때는 저, 뭐, 건 아주 옛날인데 천, 무엇 이 저.)
108012 @ 미녕마씨?(무명이요?)
108012 #5 음, 미녕 그런 천으로도 불르곡, 종이 엇일 때.(음, 무명 그런 천으로도 바르고, 종이 없을 때.)
108012 @ 종이 엇일 땐.(종이 없을 땐.)
108013 @ 어, 그러면은 호령창은 무시거꽈? 호령창.(어, 그러면 '호령창'은 무엇입니까? '호령창'.)
108013 #5 호령창[235]이 이거라 이거.(호령창이 이거라 이거.)
108013 @ 이걸 호령창이렌 헷수과?(이걸 '호령창'이라고 했습니까?)
108013 #1 거 창문이 호령 ᄒᆞ는 듸주게.(그 창문이 호령하는 데지.)
108013 @ 호령허는 듸난.(호령하는 데니까.)

235) '호령창'은 마루방인 대청마루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을 말한다.

108013 #5 거긴 양반덜 거기 아잣다근에 ‘어험’ 헤여근에.(거긴 양반들 거기 앉았다가 ‘어험’ 해서.)
108013 @ 음.(음.)
108013 #1 ‘야, 누게 이레 오라.’ 헤영.(‘야, 누게오라.’ 해서.)
108014 @ 아까 굴묵에 데헤선 충분히 전에 말씀헤 주셧는데예? 굴묵 짇을 때 쉐똥, 물똥 그거 말고 또 굴묵에는 뭐 뭐로 짇어낫수과?(아까 ‘굴묵’에 대해선 충분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굴묵’ 땔 때 소똥, 말똥 그거 말고 또 ‘굴묵’에는 뭐 뭐로 땠습니까?)
108014 #5 ᄀᆞ스락 ᄀᆞ튼 것도 헤영 ᄒᆞ고.(까끄라기 같은 것도 해서 하고.)
108014 #1 ᄀᆞ스락, 기자 몬독이.(까끄라기, 그저 진애.)
108014 @ 몬독이? 몬독이가 뭐꽈?(‘몬독이’? ‘몬독이’가 뭡니까?)
108014 #1 쓰레기.(쓰레기.)
108014 @ 아, 이것저것들 다.(아, 이것저것들 다.)
108014 #1 어, 다.(어, 다.)
108014 @ 아, 경헤낫구나예?(아, 그랬었군요?)
108014 #1 남도 때나고.(나무도 땠었고.)
108014 @ 낭도예?(나무도요?)
108015 @ 풍체에 데헹 ᄀᆞᆯ아줍서.(차양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108015 #1 풍체는 대문 앞에 비가림, 가지로 헤서 바람막이.(차양은 대문 앞에 비가림, 가지로 해서 바람막이.)
108015 @ 그때도 풍체렌 ᄀᆞᆯ앗수과?(그때도 ‘풍체’라고 말했습니까?)
108015 #1 어, 풍체. 거기 받치는 걸 풍체 작대기.(어, ‘풍체’. 거기 받치는 걸 차양 작대기.)
108016 @ 그다음엔예? 음, 아까 보다보면 물구덕이 잇고.(그다음은요? 음, 아까 보다보면 ‘물구덕’이 있고.)
108016 #1 어.(어.)
108016 #5 물허벅.(물동이.)
108016 @ 물허벅이 잇고.(물동이가 있고.)
108016 #1 물팡[236].(‘물팡’.)
108016 @ 물팡은 어떵 헤근에 어떵.(‘물팡’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108016 #1 물허벅 부리는 듸.(물동이 내려놓는 데.)
108016 @ 부리는 데잖아예?(내려놓는 데잖아요?)
108016 #1 어.(어.)
108016 @ 부리는 데 높이 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만들앗수과?(내려놓는 데 높이 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만들었습니까?)
108016 #1 높이는 이 저 거시기 사람의 엉덩이 높이.(높이는 이 저 거시기 사람의 엉덩이 높이.)

236)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놓는 대臺를 말한다.

108016 @ 엉덩이 높이로.(엉덩이 높이로.)
108016 #1 어.(어.)
108016 @ 그믄 그 집에 그 집 어머니 엉덩이 높이로 헷겟다예?(그러면 그 집에 그 집 어머니 엉덩이 높이로 했겠네요?)
108016 #1 어, 대강 다 비슷헤여.(어, 대강 다 비슷해.)
108016 @ 예.(예.)
108016 #1 이건 츰[237], 츰항.(이건 '츰', '츰항아리'.)
108016 @ 츰에 데헤선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예.('츰'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108016 #1 이거 물허벅인게. 이거 츰항. 츰 부찌고.(이거 물동이네. 이거 '츰항아리'. '츰' 붙이고.)
108017 @ 어, 올레 잇잖아예? 올레.(어, '올레' 있잖아요? '올레'.)
108017 #1 어.(어.)
108017 #5 다 올레[238] 잇주게.(다 '올레' 있지.)
108017 @ 보면, 어 모든 집들이 다 올레가 이서낫잖아예?(보면, 어 모든 집들이 다 '올레'가 있었잖아요?)
108017 #1 어.(어.)
108017 @ 지금처럼 질옆에 짓진 안헷잖아예?(지금처럼 길옆에 짓진 않았잖아요?)
108017 #1 집광 큰길 사이예 집에 들어가는 듸를 올레라 ᄒᆞ주.(집과 큰길 사이에 집에 들어가는 데를 '올레'라고 하지.)
108017 @ 올레를 무사 만들앗수가? 기냥 길옆에 집 안 지성.('올레'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길옆에 집 안 지어서.)
108017 #5 올레는 자기 집이 들어가젠 ᄒᆞ민 올렐 만들어사주, 놈의 땅으로 들어가저게?('올레'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올레'를 만들어야지, 남의 땅으로 들어가지는가?)
108017 @ 아니, 그게 아니고.(아니, 그게 아니고.)
108017 #5 길가에 집을 안 지엇느냐?(길가에 집을 안 지었느냐?)
108017 @ 예, 예.(예, 예.)
108017 #5 거는 이녁 땅이 없으니까 안내 땅 자기가 사용ᄒᆞᆯ 수 잇는 땅은 안쪽에 잇스니까.(거는 이녁 땅이 없으니까 안에 땅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안쪽에 있으니까.)
108017 @ 음.(음.)
108017 #5 ᄒᆞᆯ 수 엇이 거기 짓고, 올레는 없으니까.(할 수 없이 거기 짓고, '올레'는 없으니까.)
108017 @ 예.(예.)

237) '츰'은 새를 땋아 동백나무 따위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을 따위를 항아리에 받아 넣는 물건을 말한다. 달리 '물메누리'라고도 한다.
238)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을 말한다.

108017 #5 들어갈 땅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요 막아진 땅을 자기가 올레 헐 걸로 사서 담 다와근에 올레로 뎅기곡 헷주게.(들어갈 땅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요 막아진 땅을 자기가 '올레' 할 걸로 사서 담 쌓아서 '올레'로 다니고 했지.)

108017 @ 아니, 길가에 이게 길이면 길가에도 자기 땅이 잇을 수 잇잖아예?(아니, 길가에 이게 길이면 길가에도 자기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8017 #5 어.(어.)

108017 @ 집은 옛날에 보면 꼭 바로 길가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이서도 ᄒᆞ꼼 이렇게 올레를 만들앙 집을 지엇는지?(집은 옛날에 보면 꼭 바로 길가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있어도 조금 이렇게 '올레'를 만들어서 집을 지었는지?)

108017 #1 안네 강 짓지.(안에 가서 짓지.)

108017 @ 예. 게, 무사 경 헷수과?(예. 그래, 왜 그렇게 했습니까?)

108017 #5 아마 조용ᄒᆞ게 뭐 헐려고 그러는 걸 테지.(아마 조용하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걸 테지.)

108018 @ 게메양, 경헴구나예. 그다음엔 문간채, 이문간 잇잖아예?(그러게요, 그랬군요. 그다음엔 문간채, '이문간' 있잖아요?)

108018 #5 이문간은 그 우리 서화리[239]는 이문을 잘 아녜서.(문간채는 그 우리 세화리는 대문을 잘 안 했어.)

108018 #1 저, 거시기 내가 잇고.(저 거시기 내가 있고.)

108018 @ 예.(예.)

108018 #1 저 가세오름[240]이 잇는디 세화리는 가세오름이 대문이나 마찬가지다 헤가지고.(저 '가세오름'이 있는데 '세화리'는 '가세오름'이 대문이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108018 @ 아.(아.)

108018 #1 문 안 단다고 헤여.(문 안 단다고 해.)

108019 @ 예. 아, 그다음은 가리 잇잖아예? 눌 잇잖아예?(예. 아, 그다음은 가리 있잖아요? 가리 있잖아요?)

108019 #1 눌, 우년네 눌.(가리, 텃밭에 가리.)

108019 @ 우연네 눌을 눌잖아예?(텃밭에 가리를 가리잖아요?)

108019 #1 응.(응.)

108019 @ 눌을 눌면, 그 눌 눌어놓고 이제 눌에 아이들 숨바꼭질하게 눌도 꽉 채운 게 아니라 이제 그.(가리를 가리면, 그 가리 가리어놓고 이제 가리에 아이들 숨바꼭질하게 가리도 꽉 채운 게 아니라 이제 그.)

108019 #1 눌광 눌 사이에 트멍 잇주게.(가리와 가리 사이에 틈이 있지.)

108019 @ 예, 예예. 트멍 잇잖아예?(예, 예예. 틈이 있잖아요?)

108019 #1 음.(음.)

---

239) '서화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를 말한다.

240) '가세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사이에 위치한 표고 202m, 넓이 30정보의 오름이다. 오름 모양이 중이 갓 쓴 정국,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가위처럼 생겼다는데 붙여진 이름이다.

108019 @ 그거는 어, 눌과 눌 사이에 무사 트멍을 냇수과?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눌 사이예 트멍을.(그거는 어, 가리와 가리 사이에 왜 틈을 냈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리 사이의 틈을.)

108019 #1 트멍, 무시거엔 안 ᄀᆞᆯ아.(틈, 뭐라고 안 말해.)

108019 @ 그냥 트멍이렌만 ᄀᆞᆯ앗수과?(그냥 틈이라고만 말했습니까?)

108019 #1 게난 만약에 눌이 웨 트멍 나게 ᄒᆞ냐면은, 이게 먼저 촐 헤당은에 촐눌이 잇주게.(그러니까 만약에 가리가 왜 틈이 나게 하냐면, 이게 먼저 꼴 해다가 꼴가리가 있지.)

108019 @ 예, 예예.(예, 예예.)

108019 #1 촐눌이 이서. 촐눌이 잇고, 곡식은 곡식대로, ᄯᅮ루 눌어야주게.(꼴가리가 있어. 꼴가리가 있고, 곡식은 곡식대로, 따로 가려야지.)

108019 @ 아니, 그래서 옛날에 애기들.(아니, 그래서 옛날에 아기들.)

108019 #1 눌 트멍에 강은에 ᄀᆞᆸ앗젠 헤낫주게.(가리 틈에 가서 숨었다고 했었지.)

108019 @ 예, 예.(예, 예.)

108019 #1 눌 트멍이엔 ᄒᆞ주게.(가리 틈이라고 하지.)

108019 @ 눌 트멍이엔예?(가리 틈이라고요?)

108019 #1 어.(어.)

108019 @ 예, 거기 강 숨바꼭질, ᄀᆞᆸ을락 헤낫지예?(예, 거기 사서 숨바꼭질, 숨바꼭질 했었지요?)

108019 #1 경 ᄒᆞ주.(그렇게 하지.)

108019 @ 그래서 물어본 거예?(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108019 #1 겨난 그 눌이 저 대부분 겨울에 잇는 눌이 촐눌.(그러니 그 가리가 저 대부분 겨울에 있는 가리가 꼴가리.)

108019 @ 예.(예.)

108019 #1 그다음에는 저 곡식 헤당은에 눌어 놔두는 거. 그 즉시 장만 못ᄒᆞ면은 경 ᄒᆞ주게.(그다음에는 저 곡식 해다가 가려 놓아두는 거. 그 즉시 장만 못하면 그렇게 하지.)

108019 @ 아.(아.)

108019 #5 경 ᄒᆞ난 조칩 ᄀᆞ튼 것도 나중에는 또 눌고, ᄒᆞ민 ᄋᆞ라 개 영.(그렇게 하니까 조짚 같은 것도 나중에는 또 가리고, 하면 여러 개 이렇게.)

108019 @ 경허민 그 사이사이가 틈이 잇엇구나예?(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틈이 있었군요?)

108019 #5 음.(음.)

108019 #1 또, 그 옛날 고구마줄도 ᄆᆞᆯ ᄀᆞ튼 거 멕여낫거든.(또, 그 옛날 고구마기는줄기도 말 같은 거 먹였었거든.)

108019 @ 음.(음.)

108019 #1 그것도 무꺼당은에 ᄆᆞᆯ류면은 무꺼당은에 ᄒᆞᆫ짝에 누렁 놔뒷당은에 ᄆᆞᆯ 멕이

고 헤엿주게.(그것도 묶어다가 마르면 묶어다가 한쪽에 가려서 놓아뒀다가 말 먹이고 했지.)

108020 @ 맞수다. 그다음엔예, 그 뒈지우리 뭐렌 ᄀᆞᆯ앗수과?(맞습니다. 그다음은요, 그 돼지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0 #1 돗통.('돗통'.)

108020 @ 돗통에 데헤 가지고, 돗통은.(돼지우리에 대해 가지고, 돼지우리는.)

108020 #1 통시.(뒷간.)

108020 @ 돗통은 대체로 어디다 지엇고, 어느 정도 크기에 지엇으며 그 돗통 속에는 뭐 뭐가 이서신지 ᄀᆞᆯ아줍서.(돼지우리는 대체로 어디에다 지었고, 어느 정도 크기로 지었으며 그 돼지우리 속에는 뭐 뭐가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108020 #1 돗통? 뒈지ᄒᆞ고 돌토구리[241]벳긘 더 이서서?)(돼지우리? 돼지하고 '돌토구리'밖에는 더 있어?)

108020 @ 음.(음.)

108020 #5 돗집[242].('돗집'.)

108020 @ 돗집 이섯잖아예?('돗집' 있었잖아요?)

108020 #1 음.(음.)

108020 @ 그다음 또 이서나지 않앗수과?(그다음 또 있었었지 않습니까?)

108021 #5 또 드들팡, 드들팡이라고 똥 싸는 듸.(또 부춘돌, 부춘돌이라고 똥 사는데.)

108021 @ 음, 드들팡예?(음, 부춘돌이요?)

108021 #1 으.(응.)

108021 #5 똥 싸는 듸 그기벳긔 엇주게.(똥 싸는 데 거기밖에 없지.)

108021 #1 그게 화장실이주게.(그게 화장실이지.)

108021 @ 화장실예? 혹시 옛날에 무슨 집에 문제가 잇덴 헤가지고 옛날 뭐 이제 그 통시, 돗통을 뛰어넘는 뭐 그런 방쉬 ᄀᆞ튼 거 이서수과?(화장실이요? 혹시 옛날에 무슨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 뭐 이제 그 뒷간, 돼지우리를 뛰어넘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8021 #5 동투라고 헤서 그거 뭐 잘못 건드리민 동투 걸렷저 무시거헷저 허멍 허는 그런 거.(동티라고해서 그거 뭐 잘못 건드리면 동티 걸렸지 무엇했지 하면서 하는 그런 거.)

108021 @ 음.(음.)

108021 #1 동티엔 ᄒᆞ주, 동티.(동티라고 하지, 동티.)

108021 @ 음.(음.)

108021 #1 거 동티낫저.(그거 동티났다.)

---

241) '돌토구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인데, 달리 '돗도고리'라고 한다.

242) '돗집'은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기 한 막을 말한다. 달리 '돗막'이라고 한다.

108021 #5 음.(음.)
108021 @ 동티낫저 한 것이 동티가 게믄 뒈지, 돗통 이렇게.(동티났지 한 것이 동티가 그러면 돼지, 돼지우리 이렇게.)
108021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08021 @ 음.(음.)
108021 #5 동티, 저 돗통 뛰어넘으민 무시거 허는 건 엇어.(동티, 저 돼지우리 뛰어넘으면 무엇 하는 건 없어.)
108021 @ 그면 이제 옛날에 돗통에 통시에 드들팡이 잇고예?(그면 이제 옛날에 돼지우리에 변소에 부춘돌이 있고요?)
108021 #1 음.(음.)
108021 @ 그담엔 변을 보거나 이렇게 헤난 다음에는 뭘로 따까낫수과?(그담엔 변을 보거나 이렇게 헤난 다음에는 뭐로 닦았었습니까?)
108021 #5 검질.(검불.)
108021 @ 검질은 거기다 이성 뽑으멍 헨마씨?(검불은 거기에 있어서 뽑으면서 했나요?)
108021 #5 아니, 그기 아지당 놔동, 검질을.(아니, 거기 가져다가 놓아두면서, 검불을.)
108021 @ 그 드들팡 옆이예.(그 부춘돌 옆에요.)
108021 #5 으, 거기 놧당 그 검질을. 그 무슨 종이가 이서서?(으, 거기 놓아뒀다가 그 검불을. 그 무슨 종이가 있었어?)
108021 @ 맞수다. 여기 질문이 이서부난 다시 여쭤보크라예? 게문예, 설사 날 땐 어떵 헷수과?(맞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버려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설사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8021 #5 설사 나면 계속 갓다왓다홀 수벳긔.(설사나면 계속 갔다왔다할 수밖에.)
108021 @ 설사 날 때 그 검질로 어떵 따끄면은?(설사 날 때 그 검불로 어떻게 닦으면?)
108021 #5 검질로 헤주. 뭐 방법이 엇어.(검불로 하지. 뭐 방법이 없어.)
108023 @ 그담엔 쉐막예, 옛날엔 쉐막을 뭐렌 골앗수과?(그다음 외양간이요, 옛날엔 외양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3 #1 쉐막이주게.('쉐막'이지.)
108023 @ 그냥 쉐막예?(그냥 '쉐막'이요?)
108023 #1 응.(응.)
108023 @ 쉐막에는 어떤 것들을 놓앗고 누가 살앗수과?(외양간에는 어떤 것들을 놓았고 누가 살았습니까?)
108023 #5 쉐막엔 쉐가 살주게.(외양간에는 소가 살지.)
108023 #1 쉐가 살주.(소가 살지.)
108022 @ 쉐만 살앗수과?(소만 살았습니까?)

108022 #1 응.(응.)
108022 #5 으, 쉐막엔 쉐만 살주게.(응, 외양간에 소만 살지.)
108022 #1 쉐막에 여유가 이시면은 방아를 갖다 놔나서.(외양간에 여유가 있으면 방아를 갖다 놨었어.)
108022 @ 아.(아.)
108022 #1 혼쪽에.(한쪽에.)
108022 @ 혼쪽에.(한쪽에.)
108022 #1 혼쪽에는 소 쭉 메고.(한쪽에는 소 쭉 매고.)
108022 @ 음.(음.)
108022 #1 만약에 집이 요롱게 이잖아이.(만약에 집이 요렇게 있잖아.)
108022 @ 예.(예.)
108022 #1 가운듸 나눠서 소들을 요듸도 혼 ᄆᆞ리 요롱게, 요롱게 메는 수가 잇주게.(가운데 나눠서 소들을 요기도 한 마리 요렇게, 요렇게 매는 수가 있지.)
108022 @ 예.(예.)
108022 #1 여러 마리 ᄒᆞ면 여러 마리 메는 수가 잇고.(여러 마리 하면 여러 마리 매는 수가 있고.)
108022 @ 예.(예.)
108022 #1 여유가 이시면은 혼쪽에는 저 방아, 방에 놔둬.(여유가 있으면 한쪽에는 저 방아, 방아 놔둬.)
108022 @ 방에 놧잖아예? 어, 게믄 저가 아까 그 쉐막에 뭐, 뭐 놔낫수과? 물어보는 여쭈는 것은 헛간이 따로 이서수과?(방아 놓았잖아요? 어, 그러면 저가 아까 그 외양간에 뭐, 뭐 놨었습니까? 물어보는 여쭤보는 것은 헛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108022 #1 밧가는 잠대.(밭가는 쟁기.)
108022 @ 밧가는.(밭가는.)
108022 #1 잠대, 잠대도 거기 놔두고.(쟁기, 쟁기도 거기 놔두고.)
108022 @ 헛간이 따로 이서수과? 골갱이, 삽 ᄀᆞ튼 거 놓는 거. 헛간이 따로 이서수과?(헛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호미, 삽 같은 거 놓는 거. 헛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108022 #1 아, 기니까 이 저 거시기 이 쉐막에 일 거시기 일 기구덜, 그거 놔두주게.(아, 그러니까 이 저 거시기 이 외양간에 일 거시기 일 기구들, 그거 놔두지.)
108022 @ 거난예, 그거 물어보젠 헤난예. 어디다 놔나신고 헨.(그러니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어디다 놨었는지 해서.)
108022 #1 그듸가 헛간 뒈는 거지.(거기가 헛간 되는 거지.)
108022 @ 맞수다.(맞습니다.)
108024 @ 옛날에 장항이리영, 간장, 뒌장항아리덜 어디다 놔낫수과?(옛날에 장항이리랑, 간장, 된장항아리들 어디다 놨었습니까?)
108024 #1 거, 뒤예도 놓는 듸 잇고, 옆에도 놓는 듸 잇고.(그거, 뒤에도 놓는 데 있고, 옆에도 놓는 데 있고.)

108024 @ 그걸 뭐렌 골앗수과? 항하리 놓는 데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아리 놓는 데를.)
108024 #1 장독대, 장독대를 별도로 만든 데가 엇어.(장독대, 장독대를 별도로 만든 데가 없어.)
108024 @ 경헷수과?(그랬습니까?)
108024 #1 어.(어.)
108024 #5 고팡에도 놓곡, 뭐 벳긔듸도 놓곡.(고방에도 놓고, 뭐 밖에도 놓고.)
108025 @ 아까 춤하고 춤항 말씀하셧잖아예?(아까 '춤'하고 '춤항아리' 말씀하셨잖아요?)
108025 #1 어.(어.)
108025 @ 그 춤항이영 춤에 대해서 무슨 나무에 뭘로 어떻게 헷는지 그거를 자세히 골아줍서.(그 '춤항아리'랑 '춤'에 대해서 무슨 나무에 뭐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자세히 말해주세요.)
108025 #5 춤항[243]은.('춤항아리'는.)
108025 @ 예.(예.)
108025 #5 이 이파리가 겨울철에 아니 떨어지는 나무는 아무 나무라도 헤사.(이 이파리가 겨울철에 아니 떨어지는 나무는 아무 나무라도 해야.)
108025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8025 #5 아무나무라도 허곡 새로 헤근에 좀 여꺼.(아무나무라도 하고 띠로 해서 좀 엮어.)
108025 @ 예.(예.)
108025 #5 영 요마니 여꺼근에 나무예 강 무껑.(이렇게 요만큼 엮어서 나무에 가서 묶어서.)
108025 @ 예.(예.)
108025 #5 무꺼 놩, 여자 머리 따듯이.(묶어 놓고, 여자 머리 땋듯이.)
108025 @ 예.(예.)
108025 #5 따 놔나근에 항아리를 혜영 그레 물이 들어가게.(땋아 놓고 항아리를 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108025 #1 게난 물이 그 새로 인헤가지고 게난 더러운 건덕지는 그 새에서 다 걸러져근에 이레 떨어지주게.(그러니까 물이 그 띠로 인해서 그러니 더러운 건더기는 그 띠에서 다 걸러져서 이리로 떨어지지.)
108025 @ 춤항예? 춤항은 집집마다 다 이서수과?('춤항아리요'? '춤항아리'는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까?)
108025 #5 다 잇주.(다 있지.)
108025 #1 다 잇주. 나무, 그래서 울타리에 나무 심는 거. 상록수 심는 거.(다 있지. 나무, 그래서 울타리에 나무 심는 거야. 상록수 심는 거야.)

243) '춤항'은 '춤항아리'를 말하는데 나무 따위에 매달아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띠로 땋아 만든 물건인 '춤'과 그 항아리를 말한다.

108025 @ 상록수 심었구나예.(상록수 심었군요.)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어, 이제는예, 집을 다 지섯잖아예? 다 짓어근에 장독대도 잇고, 무신 저 아까 그 쉐막도 잇고, 뭐 돗통시도 다 잇고 한데, 초가집은 지붕을 다시 새로 이엇잖아예?(어, 이제는요, 집을 다 지었잖아요? 다 지어서 장독대도 있고, 무슨 저 아까 그 외양간도 있고, 뭐 돼지우리도 다 있고 한데, 초가집은 지붕을 다시 띠로 이었잖아요?)
108026 #1 어.(어.)
108026 @ 초가지붕.(초가지붕.)
108026 #1 어, 일 년에 흔 번.(어, 일 년에 한 번.)
108026 @ 일 년에 흔 번헷수과?(일 년에 한 번했습니까?)
108026 #1 일 년에 흔 번 이시난. 매 헤.(일 년에 한 번 이었으니까. 매 해.)
108026 @ 음, 기구나예.(음, 그렇군요.)
108026 #1 겐데 다른 딘 이 년에 흔 번도 이는디 특히나 요 표선면에는 장마가 잇기 때문에 일 년에 흔 번씩 일어.(그런데 다른 데는 이 년에 한 번도 이는데 특히나 요 표선면에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일지.)
108026 @ 아, 예.(아, 예.)
108026 #5 새 더프는 거는 새 긴 걸로 헹 집 인덴 허주.(띠 덮는 거는 띠 긴 걸로 해서, 집 인다고 하지.)
108027 @ 그걸 어떵 준비헨마씨?(그걸 어떻게 준비했나요?)
108027 #5 거 기냥 새왓덜이 이섯주게.(그거 그냥 띠밭들이 있었지.)
108027 #1 새, 저 들에다가 새 들인 밧이 이서. 새 잇는 밧.(띠, 저 들에다 띠 든 밭이 있어. 띠 있는 밭.)
108027 #5 그거 헤다근에 ᄒᆞ곡 각단[244]이라고.(그거 해다가 하고 '각단'이라고.)
108027 @ 예.(예.)
108027 #1 각단은 ᄌᆞᆱ은 거.('각단'은 짧은 거.)
108027 #5 ᄌᆞᆱ은 거, 줄 놓는 거 잇주.(짧은 거, 줄 놓는 거 있지.)
108027 @ 아, 새 중에서 짧은 새구나예?(아, 띠 중에도 짧은 띠군요?)
108027 #1 으, 응.(으, 응.)
108027 #5 각단.('각단'.)
108027 #1 각단으로 줄 놓주.('각단'으로 줄 놓지.)
108028 @ 아까 말씀하신 줄 놀 때, 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앗수과?(아까 말씀하신 줄 놓을 때, 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8028 #1 줄 놓는 사람, 비는 사람. 두 사람씩 아, 저 네 사람이 빌주.(줄 놓는 사람,

244) '각단'은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집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하는데, 달리 '각다니'라고도 한다.

베는 사람. 두 사람씩 아, 저 네 사람을 빌지.)
108028 @ 아, 그러면 짧은 새로는 쫄른 줄 만들고 긴 새로는 긴 줄 만들앗수과?(아, 그러면 짧은 띠로는 짧은 줄 만들고 긴 띠로는 긴 줄 만들었습니까?)
108028 #1 아니, 아니. 각단은 무조건 줄 놓는 걸로.(아니, 아니. '각단'은 무조건 줄 놓는 걸로.)
108028 @ 아, 각단은 무조건 줄 놓는 거로.(아, '각단'은 무조건 줄 놓는 거로.)
108028 #1 긴 새는 지붕 이는 거.(긴 띠는 지붕 이는 거.)
108028 #5 겨난 긴 새로 지붕은 홀 수 잇주만은 각단으로 지붕은 못 더퍼.(그러니 긴 띠로 지붕은 할 수 있지만 '각단'으로 지붕은 못 덮지.)
108028 @ 아, 기구나예. 근데 집줄 만들 때는 진 줄이 잇고 쫇은 줄이 잇잖아예?(아, 그렇군요. 그런데 집줄 만들 때는 긴 줄이 있고 짧은 줄이 있잖아요?)
108028 #1 어.(어.)
108028 @ 어, 진 줄은 보통 어디다?(어, 긴 줄은 보통 어디에다?)
108028 #1 긴 줄은 이 저 삼칸집이며는 저 젤 긴 게 잇잖아.(긴 줄은 이 저 삼간집이면 저 제일 긴 게 있잖아.)
108028 @ 예.(예.)
108028 #1 길게 들잖아.(길게 들잖아.)
108028 @ 예.(예.)
108028 #1 쯧른 줄은 가로 놓는 거.(짧은 줄은 가로 놓는 거.)
108028 @ 예. 아, 기구나. 그믄 만일에 이게 이렇게 헤서 지붕이라고 쳤을 때예? 요기는 요기하고, 요기하고 무끄잖아에?(예. 아, 기구나. 그러면 만일에 이게 이렇게 해서 지붕이라고 쳤을 때요? 요기는 요기하고, 요기하고 묶잖아요?)
108028 #1 요롷게 헤서, 요롷게 헤서 요롷게 이게 지붕이지?(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지붕이지?)
108028 @ 예.(예.)
108028 #1 욜로부떠 요롷게 요롷게 놓앙 놓단 말이야.(요기부터 요렇게 요렇게 놓아서 놓는단 말이야.)
108028 @ 이게 진 줄이꽈?(이게 긴 줄입니까?)
108028 #1 응. 요롷게 헹은에 욜로 요롷게 흔 건 쫇은 줄.(응. 요렇게 해서 요리로 요렇게 한 건 짧은 줄.)
108028 @ 그면은 그 줄을.(그러면 그 줄을.)
108028 #1 겐디 이거 놓는 것도 요 긴 줄 ᄒᆞ나 놓면은 그다음에 쯧른 줄 두 개라든지 이렇게 어나들영 놓메.(그런데 이거 놓는 것도 요 긴 줄 하나 놓으면 그다음에 짧은 줄 두 개라든지 이렇게 갈마들면서 놓지.)
108028 @ 어나들영예?(갈마들면서요?)
108028 #1 어.(어.)
108028 @ 요 줄을 무껏잖아예? 요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무꺼지는 듸.(요 줄을 묶었잖아

요? 요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묶여지는 데.)
108030 #1 거왕대[245].(평고대.)
108030 #5 거왕.(평고대.)
108030 #1 대로 보통 ᄒᆞ주게.(보통 대로 하지.)
108030 @ 거왕대.(평고대.)
108030 #1 거왕이렌 ᄒᆞ주. 대로 ᄒᆞ면은 거왕대고.(평고대라고 하지. 대로 하면 평고대고.)
108030 @ 음.(음.)
108030 #1 보통 대로, 왕대로 잘 ᄒᆞ는디.(보통 대로, 왕대로 잘 하는데.)
108030 #5 왕대 ᄒᆞ민 오래 가곡.(왕대로 하면 오래 가고.)
108028 @ 음. 집줄 만들 때 걸 줄이렌 ᄀᆞᆯ앗수과?(음. 집줄 만들 때 걸 줄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29 #1 어.(어.)
108029 @ 집줄 만들 땐 어떵 어떵?(집줄 만들 땐 어떻게 어떻게?)
108029 #1 집줄 빈덴[246] ᄒᆞ주. 놓는 사람 요걸. 비는 사람.(집줄 '빈다'고 하지. 놓는 사람 요걸. '비는' 사람.)
108029 #5 데우는 거, 요렇게 돌리는 거.(뒤트는 거, 요렇게 돌리는 거.)
108029 #1 호렝이[247].(호렝이.)
108029 @ 돌리는 건 호렝이잖아예? 붙잡는 건?(돌리는 건 '호렝이'잖아요? 붙잡는 건?)
108029 #5 뒤치기[248].('뒤치기')
108030 @ 대나무, 긴 대나무나 긴 막대기 혹은 철사 같은 걸로.(대나무, 긴 대나무나 긴 막대기 혹은 철사 같은 걸로.)
108030 #1 아, 아. 거왕, 거왕.(아, 아. 평고대, 평고대.)
108030 #5 그게 거왕이주게.(그게 평고대지.)
108030 #1 평고대가 아니라 거왕이엔.(평고대가 아니라 '거왕'이라고.)
108031 @ 거왕에 그 저 집줄을 무끌 땐 뭘로 무껏수과?(평고대에 그 저 집 줄을 묶을 땐 뭐로 묶었습니까?)
108031 #5 줄로게.(줄로.)
108031 @ 그것 자체로?(그거 자체로?)
108031 #1 어. 그걸 그대로. 평고대엔 표준어 그거 잘 만들어놧저 평고대엔.(어. 그걸 그대로. 평고대라고 표준어 그거 잘 만들어놨네 평고대라고.)
108031 @ 집줄 멜 때 집줄은 몇 번 감앗수과? 거왕에.(집줄 맬 때 집줄은 몇 번 감

245) '거왕대'는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하는데, 달리 '멩두암', '벵두암'이라고 한다.
246) '비다'는 집줄을 뒤트는 것을 말한다.
247) '호렝이'는 줄, 참바, 집줄 따위를 뒤트는 기구를 말하는데, 달리 '호롱이', '훼롱이', '훼롱'이라고 한다.
248)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말한다.

았습니까? 평고대에.)
108031 #5 거왕에?(평고대에?)
108031 #1 아, 혼 번 감앙은에 딱.(아, 한 번 감아서 딱.)
108031 #5 삼커리[249].('삼커리'.)
108031 @ 예.(예.)
108031 #5 삼커리로 영 요롷게 ᄒᆞ면 바끗딜로 영 들어가근에 일루 나와근에 또 일루 들어강 일루 나오민.('삼커리'로 이렇게 요렇게 하면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로 나와서 또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면.)
108031 #1 이레 ᄃᆞᆼ겨불민.(이리로 당겨버리면.)
108031 @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8031 #1 아, 졸라메는 식? 졸라메는 식, 맞아.(아, 졸라매는 식? 졸라매는 식, 맞아.)
108031 @ 그다음엔예? 그 집줄 쓰다가 남는 건 뭐 헷수과?(그다음은요? 그 집줄 쓰다가 남는 건 뭐 했습니까?)
108031 #1 줄 메는 건 요영 헹은에.(줄 매는 건 요렇게 해서.)
108031 @ 예.(예.)
108031 #1 요영 헹 요영 헤당 욜로 헹은에 영 ᄒᆞ주. 영 뒈어.(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다가 요리로 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돼.)
108031 @ 아. (아.)
108031 #5 경ᄒᆞ면은 이 저 누* **질 아녀주게.(그러게 하면 이 저 누* **질 않지.)
108031 @ 아.(아.)
108031 #1 그렇지 아녀면은 맨 처음 그것도 처음에 ᄒᆞ는 게 아니라.(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 그것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108031 @ 예.(예.)
108031 #1 맨 처음 일 때는 영 헤당은에 영 ᄒᆞ게 이레 접정 내부릿당.(맨 처음 일 때는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하게 이리 끼워 내버렸다가.)
108031 @ 예.(예.)
108031 #1 좀 비가 와나곡 춤허게 가라앉이면은.(좀 비가 와나고 참하게 가라앉으면.)
108031 @ 예.(예.)
108031 #1 가라앉이면은 그때예 요걸 땡긴단 말이야.(가라앉으면 그때 요걸 당긴단 말이야.)
108031 @ 예.(예.)
108031 #1 땡겨가지고 요 안으로 요롷게 와서 요걸 땡긴단 말이여. 땡겨서 요롷게 헤놔.(당겨가지고 요 안으로 요렇게 와서 요걸 당긴단 말이야. 당겨서 요렇게 해놓아.)
108031 @ 예.(예.)

249) '삼커리'는 띠로 지붕을 인 다음 지붕 전체를 가로줄과 세로줄로 집줄을 평고대에 묶는데 그 묶는 방법을 말한다.

108031 #1 게 헤놩 그다음 일로 헹은에 요롷게 헹 잡아메엉 끈어부려.(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이리로 해서 요렇게 해서 잡아매어서 끊어버려.)
108031 @ 그것도 잘 안 헤불민 흘락흘락 헤불믄.(그것도 잘 안 해버리면 헐렁헐렁 해버리면.)
108031 #1 겨난 두 번에 무끈덴 허난. 처음 집 지어 일 때는 임시로 건즘 메고.(그러니 두 번에 묶는다고 하니까. 처음 집 지어서 일 때는 임시로 거의 매고.)
108031 @ 그렇구나예.(그렇군요.)
108032 @이제는 쓰다 남은 집 줄론 뭐 만들앗수과?(이제는 쓰다 남은 집 줄로는 뭘 만들었습니까?)
108032 #5,1 방석.(방석.)
108032 @ 정지방석예.(부엌방석이요.)
108032 #1 이런 거 헤당 남지?(이런 거 하다가 남지?)
108032 @ 예.(예.)
108032 #1 남으면은 그걸로 똥그랗게 헤놩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꼬면은 가운데는 구멍 뚤러지고. (남으면 그걸로 똥그랗게 해놓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꼬면 가운데는 구멍 뚫어지고.)
108032 #5 게, 거 멘들아근에 정짓일 허멍덜 꼴앙 앚곡.(거 만들어서 부엌일 하면서들 깔아서 앉고.)
108032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8032 #1 것ᄀᆞ라 도리방석이엔 허주.(그것보고 도리방석이라고 하지.)
108032 @ 아, 도리방석이엔 헷수과? 줄방석이 아니라 도리방석.(아, 도리방석이라고 했습니까? 줄방석이 아니라 도리방석.)
108032 #1 게, 줄방석이주.(그래, 줄방석이지.)
108032 @ 아.(아.)
108032 #1 영 똥그랗게 만든 방석을 도리방석.(이렇게 똥그랗게 만든 방석을 도리방석.)
108032 @ 예.(예.)
108032 #1 겐디 줄로 만들민 줄방석.(그런데 줄로 만들면 줄방석.)
108032 @ 게난예.(그러니까요.)

연장

108033 @ 집지슬 때 연장들이 필요하잖아예? 집지슬 때 어떤 어떤 연장들이 필요헷수과?(집지을 때 연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집지을 때 어떤 어떤 연장들이 필요했습니까?)
108033 #5 목수가 다 가정 오는 거니까.(목수가 다 가져서 오는 거니까.)
108033 @ 게, 생각나는 대로 게도 골아줍서.(그럼,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말해주십시

오.)
108033 #5 에, 톱.(에, 톱.)
108033 @ 톱.(톱.)
108033 #5 자귀, 끌, 데페, 홈베기.(자귀, 끌, 대패, 홈대패.)
108033 #1 끌도 으라 가지라.(끌도 여러 가지야.)
108033 #5 또 이 저 뭐 낭 까끄는 귀자귀[250].(또 이 저 뭐 나무 깎는 '귀자귀'.)
108033 @ 귀자기 그런 것.('귀자귀' 그런 것.)
108033 #5 그런 것들 잇주.(그런 것들 있지.)
108033 @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저, 여쭤볼게예?(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저, 여쭤볼게요?)
108034 @ 어, 톱은 어떤 데 사용하고 톱의 종류는 뭐가 이수과?(어, 톱은 어떤 데 사용하고 톱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08034 #5 톱은 무조건 낭 짤르는 거.(톱은 무조건 나무 자르는 거.)
108034 @ 예.(예.)
108034 #5 낭 끈는 게 톱이고, 영.(나무 자르는 게 톱이고, 이렇게.)
108034 @ 톱도 한 쪽으로만 톱날이 뭰 거 잇고, 양쪽으로 톱날이 뭰 거 잇고.(톱도 한 쪽으로만 톱날이 된 거 있고, 양쪽으로 톱날이 된 거 있고.)
108034 #1 웨날 톱도 잇고, 쌍날 톱도 잇는데.(외날 톱도 있고, 쌍날 톱도 있는데.)
108034 @ 예.(예.)
108034 #1 보통 톱 ᄒᆞ면은 ᄒᆞᆫ 쪽에는 저 그대로 끈는 거.(보통 톱 하면 한 쪽에는 저 그대로 자르는 거.)
108034 @ 예.(예.)
108034 #1 ᄒᆞ나는 저 무늬 좋게시리 곱게 끈을 때 쓰는 거.(하나는 저 무늬 좋게끔 곱게 자를 때 쓰는 거.)
108034 @ 톱 이름이 뭐꽈?(톱 이름이 뭡니까?)
108034 #1 좀진 톱이 잇주게. 좀진톱, 큰톱 잇주. 큰톱 족은톱 ᄒᆞ는디.(작은톱이 있지. 작은톱, 큰톱이 있지. 큰톱 작은톱 하는데.)
108035 @ 그다음엔예, 못 뽑을 땐 뭘로 뽑앗수과?(그다음은요, 못 뽑을 땐 뭐로 뽑았습니까?)
108035 #1 못빼기.(노루발장도리.)
108035 @ 못빼기를 다른 말로는 엇엇수과? 그냥 못빼기?(노루발장도리를 다른 말로는 없었습니까? 그냥 노루발장도리?)
108035 #5 요사인 빠룬[251]디, 엿날엔 못빼기엔.(요사인 '빠루'인데 옛날엔 '못빼기'라고.)
108036 @ 그다음엔 아까 데페 말씀하셧잖아예? 옛날에는 데펜 어떤 종류가 이수과?

250)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한다.
251) '빠루'는 영어 'bar'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며 표준어 '못뽑이'에 대응한다.

(그다음엔 아까 대패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대패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8036 #1 데페?(대패?)
108036 @ 예.(예.)
108036 #1 밀데페가 잇고, 그대로 데페가 잇고, 홈 지우는 홈 파는 데페가 이서.(밀대패가 있고, 그대로 대패가 있고, 홈 만드는 홈파는 대패가 있어.)
108036 @ 그 이름은 뭐렌 헙니까?(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108036 #1 홈베기.(홈대패.)
108036 @ 홈베기, 아, 홈베기가 홈파는 데페구나예?(홈대패, 아, 홈대패는 홈파는 대패군요?)
108036 #1 어.(어.)
108037 @ 그다음엔 이제 그 자, 지금은 줄자주마는 옛날엔 자를 어떤 거를 자로 사용헷수과?(그다음엔 이제 그 자, 지금은 줄자지만 옛날엔 자를 어떤 거를 자로 사용했습니까?)
108037 #1,5 곱은자.(곱자.)
108037 @ 곱은자 잇고, 또?(곱자 있고, 또?)
108037 #5 곱은자벳긴 엇엇주게.(곱자밖에 없었지.)
108037 #1 보통 목수들은 곱은자벳긴, 줄자는 엇엇어.(보통 목수들은 곱자밖에는, 줄자는 없었어.)
108037 @ 줄자는 엇엇잖아예? 게믄 곱은자가 할 수 잇는 건 한계가 잇잖아예? 긴 거 헐 땐 뭘로 헷수과?(줄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곱자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긴 거 할 땐 뭐로 했습니까?)
108037 #5 건 엇엇어.(그건 없었어.)
108037 #1 무시거 긴 거 진 그 끈이나 헹은에 재영은에 요거 얼마여.(무엇 긴 거 긴 그 끈이나 해서 재서 요거 얼마야.)
108038 @ 혹시 먹통이나 먹줄 그런 거 엇엇수과?(혹시 먹통이나 먹줄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8038 #1 먹통 이서. 먹줄.(먹통 있어. 먹줄.)
108038 #5 먹통 그런 거 다.(먹통 그런 거 다.)
108038 @ 먹줄 먹통 이섯지예?(먹줄 먹통 있었지요?)
108038 #1 그런 거 이서.(그런 거 있어.)
108038 @ 옛날에도 먹통 먹줄이엔 헷수과?(옛날에도 먹통 먹줄이라고 했습니까?)
108038 #1 어.(어.)
108038 @ 먹통 먹줄은 어떤데 사용헷수과?(먹통 먹줄은 어떤데 사용했습니까?)
108038 #1 먹통은 먹통에 그 줄이 이성은에.(먹통은 먹통에 그 줄이 있어서.)
108038 @ 예.(예.)
108038 #1 그 흑 무처정은에.(그 흙 묻혀서.)
108038 @ 예.(예.)

108033 #1 먹 무처정 영, 요롷게 눌러불민 무처정 딩기면은 그게 뗑겨져.(먹 묻어져서 이렇게, 요렇게 눌러버리면 묻어져 당기면 그게 당겨져.)
108033 @ 예.(예.)
108033 #1 그래서 딱 거기 강 꼽으면은 요것 탕 텡구리면 줄 짝허게 나오지.(그래서 딱 거기 가서 꼽으면 요것 탕 튕기면 줄 짝하게 나오지.)
108038 #5 줄 그어정.(줄 그어져서.)
108038 @ 자 역활을 헤나신게예?(자 역할을 했네요?)
108038 #1 어. 긴 자 역활 헤서. 것ᄀᆞ라 먹술이렌 ᄒᆞ주.(어. 긴 자 역할 했어. 그것보고 '먹술'이라고 하지.)
108038 @ 먹술?(먹줄?)
108038 #1 어.(어.)
108038 @ 거 봅서. 게난 먹술 이수게, 다른 말이. 먹술예?(그것 보십시오. 그러니 먹줄 있잖습니까, 다른 말이. '먹술'이요?)
108038 #1 먹술 텡겨보라, 헤낫주.(먹줄 튕겨보라, 했었지.)
10803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8038 #1 옛날 저 그 사또 잇잖아?(옛날 저 그 사또 있잖아?)
108038 @ 예, 예.(예, 예.)
108038 #1 사또가 저, 귀자귀 자귀로 이제 나무를 짝, 깍고 잇거든.(사또가 저, '귀자귀' 자귀로 이제 나무를 짝, 깎고 있거든.)
108038 @ 예.(예.)
108038 #1 짝 깍고 잇스니까 그 저, 길게 거시기 뭐 헤놓고 어떻게 얼마나 그걸 잘 ᄒᆞ느냐고.(짝 깎고 있으니까 그 저, 길게 거시기 뭐 해놓고 어떻게 얼마나 그걸 잘 하느냐고.)
108038 @ 예.(예.)
108038 #1 겡 ᄒᆞ니까 자귀질 ᄒᆞ다가 저, 그 사또 입은 그 저 관리가 입은 저 그 옷에다가 게춤을 탁 ᄒᆞ게 바탓어. 바트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웨 그런지 볼 거 아냐? 겐디 자귀질 하다가 싹 그 자귀로 ᄒᆞ난, 그 게침 바끈 걸 싹 까까 버렷대. 한나 옷도 상허지 않고. 그런 기술이 이섯다고 헤여.(그렇게 하니까 자귀질 하다가 저, 그 사또 입은 그 저 관리가 입은 저 그 옷에다가 가래침을 탁 하게 뱉었어. 뱉으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왜 그런지 볼 거 아냐? 그런데 자귀질 하다가 싹 그 자귀로 하니까, 그 가래침 뱉은 걸 싹 깎아 버렸대. 하나 옷도 상하지 않고.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해.)
108038 @ 듣기도 처음이우다예?(듣기도 처음이네요?)
108039 @ 그다음엔 우리가 빈지를 만들잖아예?(그다음엔 우리가 빈지를 만들잖아요?)
108039 #1 응.(응.)
108039 @ 빈지를 세울 때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흑을 곱딱허게 허젠 만들잖아예?(빈지를 세울 때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흙을 곱게 하려고 만들잖아요?)

108039 #1 응.(응.)
108039 @ 만들 때.(만들 때.)
108039 #1 앙토엔 ᄒᆞ여.(앙토라고 해.)
108039 @ 앙토?(앙토?)
108039 #1 응.(응.)
108039 @ 발르는 걸 앙토렌 헙니까?(바르는 걸 앙토라고 합니까?)
108039 #1 응, 응.(응, 응.)
108039 @ 발를 때 그 기구를 뭐렌 ᄀᆞᆯ읍니까?(바를 때 그 기구를 뭐라고 말합니까?)
108039 #1 아, 손.(아, 손.)
108039 @ 흑손?(흙손?)
108039 #1 흑손.(흙손.)
108039 @ 흑손예? 그다음 흑손인데 그냥 영영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서 바르잖아예?(흙손이요? 그다음 흙손인데 그냥 이렇게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서 바르잖아요?)
108039 #1 응.(응.)
108039 @ 이건 뭐렌 ᄀᆞᆯ읍니까?(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108039 #1 받침.(받기.)
108039 @ 그냥 받침?(그냥 받기?)
108039 #1 흑받침.(흙받기.)
108039 @ 흑받침예? 보통 그거 흑손이나 흑받침 할 때 나무는 무슨 낭으로 썻수과?(흙받기요? 보통 그거 흙손이나 흙받기 할 때 나무는 무슨 나무로 썼습니까?)
108039 #1 그, 판자.(그, 판지.)
108039 @ 그냥 판자?(그냥 판자?)
108039 #1 널짝. 저 그 옛날에는 널판이 귀ᄒᆞ주게.(널짝. 저 그 옛날에는 널판이 귀하지.)
108039 @ 맞수다게.(맞습니다.)
108039 #1 귀허니까 보통 저 옛날에 자귀로 나무를 이렇게 쪼겟어이.(귀하니까 보통 저 옛날에 자귀로 나무를 이렇게 쪼겠어.)
108039 @ 예.(예.)
108039 #1 쪼게가지고도 ᄒᆞ고, 그렇잖으면 큰 나무를 이런 아름드리나무를 저, 둘이 뗑기는 줄데페[252].(쪼개가지고도 하고, 그렇잖으면 큰 나무를 이런 아름드리나무를 저, 둘이 당기는 대톱.)
108039 @ 예.(예.)
103039 #1 그저 톱 줄톱[253], 줄톱으로 밀고 뗑기고, 밀고 뗑기면서 나무를 오렷거든.(그저 톱 대톱, 대톱으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면서 나무를 오렸거든.)

252) '줄데페'는 '줄톱'을 잘못 말한 것이다.
253) 여기서 '줄톱'은 '대톱'을 말한다. 둘이 서러 밀고 당기는 날이 굵고 톱의 크기가 큰 톱이다.

108034 @ 아까 톱 종류에서 줄톱도 이섯구나예? 아까 그 톱에 ᄀᆞ는톱도 이섯고 양날톱도 이섯고 줄톱도 이섯구나예?(아까 톱 종류에서 대톱도 있었군요? 아까 그 톱에 가는톱도 있었고 양날톱도 있었고 대톱도 있었군요?)

108034 #1 응.(응.)

108039 @ 경 헹 펜펜허게 헤근에 그걸로 이제 그 흑손을 만들엇구나.(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서 그걸로 이제 그 흙손을 만들었구나.)

108039 #1 어, 밑에 손젭이 만들엉은에 탁 받청은에, 흑 헤당 얇게 헤가지고 여기에 삽으로 떠서 이 우터레 놓면은 그사람 우에, 높은 데는 칭계 놔야 일어살 거 아니라? 겡 헹 밑에서 받앙은에 거기서 요기에 놩 이거 ᄒᆞ주.(어, 밑에 손잡이 만들어서 탁 받혀서, 흙 해다가 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삽으로 떠서 이 위에 놓으면 그 사람 위에, 높은 데는 층계 놓아야 일어설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밑에서 받아서 거기서 요기에 놓아서 이거 하지.)

108039 @ 그게 나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쒜로 바꼇잖아예?(그게 나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쇠로 바뀌었잖아요?)

108039 #1 어.(어.)

108039 @ 쒜로 바뀐 지 언제쯤인지 알아지쿠과?(쇠로 바뀐 지 언제쯤인지 알겠습니까?)

108039 #1 거, 쒜손.(그거, 쇠손.)

108039 @ 쒜손은 언제쯤 헷수과?(쇠손은 언제쯤 했습니까?)

108039 #1 쒜손, 쒜손 나온 게 해방 후에벳긔 난 못 봐서.(쇠손, 쇠손 나온 게 해방 후밖에 난 못 봤어.)

108039 #5 쎄멘으로 홀 때는 쒜손이 나온 거.(시멘트로 할 때는 쇠손이 나온 거야.)

108039 @ 쎄멘이 언제부터 나왓수과?(시멘트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108039 #1 어, 해방 후예 나온 거주.(어, 해방 후에 나온 거지.)

108039 #5 흑 홀 때는 쒜손이 엇엇고.(흙 할 때는 쇠손이 없었고.)

108039 #1 그때 전부 그 저 흑손이라.(그때 전부 그 저 흙손이야.)

108039@ 예, 알았습니다. 오늘 집짓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예.(예, 알았습니다. 오늘 집짓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 신앙

109001 @ 그냥 흔히 집에서 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예?(그냥 흔히 집에서 하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109001 #5 응.(응.)

109001 @ 어, 혹시 저, 어디 다니는데 이수과?(어, 혹시 저, 어디 다니는데 있습니까?)

109001 #6 다니다가 안 다녀요.(다니다가 안 다녀요.)
109001 @ 어디 교회 다녓수과? 절에 다녓수과?(어디 교회 다녀습니까? 절에 다녔습니까?)
109001 #5, 6 절에.(절에.)
109001 @ 무사 안 다념수과?(왜 안 다니십니까?)
109001 #6 절에 다니다가 저듸 **듸 막 트라블 셍겨서 송서 재판ᄒᆞ곡 막 ᄒᆞ니까 그 설러비엇지오. 설러벳잖여요.(절에 다니다가 저기 **데 막 문제가 생겨서 송사 재판하고 막 하니까 그 그만두었지요. 그만두었잖아요.)
109001 @ 게난예. 오늘 저가 이거 하는 건 뭘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예?(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이거 하는 건 뭘 잘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9001 #6 응.(응.)
109001 @ 어, 여기서 헷던 것들 일어난 일들을예?(어, 여기서 했던 것들 일어난 일들을요?)
109001 #6 응.(응.)
109001 @ 그냥 옛날 썻던 말들로 그냥 지금 허듯이 골아주면 뒈는 거라예?(그냥 옛날 썼던 말들로 그냥 지금 하듯이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109001 #6 예, 예예. 알앗수다.(예, 예예. 알았습니다.)
109001 @ 절대로 이건 표준어로 골아야 뒐 거라 헤가지고 허믄 절대로 경허믄 안 뒐 거예?(절대로 이건 표준어로 말해야 될 거라 해가지고 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거예요?)
109001 #6 알앗수다.(알았습니다.)
109001 @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헤주십서예. 기왕이면 옛날 말들 생각하멍예?(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옛날 말들 생각하면서요?)
109001 #6 예.(예.)
109001 @ 그 지금부터는 신앙에 대한 건데 절에 안 다녀도 상관엇인 거예?(그 지금부터는 신앙에 대한 건데 절에 안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109001 #6 예.(예.)
109001 @ 일단 그 제사 지낼 때 허는 거 여쭤보젠 헤부난 먼저 한 번 물어본 거라예?(일단 그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여쭤보려고 해버려서 먼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109001 #6 응, 예.(응, 예.)
109001 @ 게난 절엔 안 다념고예?(그러니까 잘에는 안 다니고요?)
109001 #6 응.(응.)
109001 @ 혹시 집에 모시는 신 이수과?(혹시 집에 모시는 신 있습니까?)
109001 #6 신은 없어.(신은 없어.)
109001 @ 신은 없고예? 혹시 집안에서 대대로 모시던 신은 엇수과?(신은 없고요? 혹

시 집안에서 대대로 모시던 신은 없습니까?)
109001 #5 엇어.(없어.)
109002 @ 없고예? 게믄, 집안에 모셧던 신이 엇이민 성주도 엇이쿠다예?(없고요? 그러면, 집안에 모셨던 신이 없으면 성주도 없겠네요?)
109002 #6 아, 성주는 내낫수다.(아, 성주는 받았었습니다.)
109002 @ 아, 성주는 내낫수과? 그믄 성주 낼 때?(아, 성주는 받았었습니까? 그러면 성주 받을 때?)
109002 #6 나가, 나가 아프니까.(내가, 내가 아프니까.)
109002 @ 예.(예.)
109002 #5 아프니까 성주 냇수다.(아프니까 성주 받았습니다.)
109002 @ 아.(아.)
109002 5 굿헤낫주게. 굿홀 때에.(굿했었지. 굿할 때.)
109002 #6 굿홀 때에 성주 내서 ᄆᆞ녀 시작, 성주 내놔서 굿 시작홉니다게.(굿할 때에 성주 받아서 먼저 시작, 성주 받아서 굿 시작합니다.)
109002 @ 성주 낼 때 그 과정을 ᄀᆞᆯ아줍서.(성주 받을 때 그 과정을 말해주세요.)
109002 #6 성주 낼 때 내가 아프니깐, 나가 아팡 다 죽어가니까 무당 빌어당 헤시난.(성주 받을 때 내가 아프니깐, 내가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무당 빌어다가 했으니까.)
109002 @ 굿허난 낫읍디가?(굿하니까 나았습니까?)
109002 #6 굿ᄒᆞ난 낫질 아녀고 수술, 디스쿠 걸련에 ᄀᆞ슬에서 잘못ᄒᆞ니까 하도 아프니까 전딜 수가 엇고, 다리가 닥닥닥닥 튀고 전딜 수가 엇으니까, 헌덴 헌 건 다 헤밧어요. 굿도 멧 번사, 족은 굿도 멧 번헤고, 우리 아저씨가 저 한림[254]ᄁᆞ지 가서 다 점 지레 다니고, 다 들어보레 다니고, 게서 부천 중앙병원에 가서 또 수술, 재수술헤연 살앗지.(굿하니까 낫지는 않고 수술, 디스크 걸려서 마을에서 잘못하니까 하도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고, 다리가 닥닥닥닥 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다고 한 건 다 해봤어요. 굿도 몇 번이야, 작은 굿도 몇 번하고, 우리 아저씨가 저 한림까지 가서 다 점 보러 다니고, 다 들어보러 다니고, 그래서 부천 중앙병원에 가서 또 수술, 재수술해서 살았지.)
109002 @ 음, 지금은 궨찮아마씨?(지금은 괜찮아요?)
109002 #6 예, 이제는 ᄒᆞ건듸가 한 이십오 년 넘으니까.(예, 이제는 한지가 한 이십오 년 넘으니까.)
109002 @ 그전에 헤신디도 궨찮아마씨?(그전에 했는데도 괜찮아요?)
109002 #6 응, 마흔네 설에 경헤시난.(응, 마흔네 살에 그랬으니까.)
109002 @ 아이고, 경헷구나예.(아이고, 그랬군요.)
109002 #6 응.(응.)
109003 @ 문전제사에 데헹 ᄀᆞᆯ아줍서.('문전제사'에 대해 말해주세요.)
109003 #6 문전제사[255]는 우리 놓는 대로 기자 문전은 절ᄒᆞ고 다 헤서 숭눙ᄒᆞ고 다

254) '한림리'는 제주시 한림읍 읍소재를 말한다.
255) '문전제사'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는데 달리 '문전제', '문제'라고 한다.

헤서.(‘문전제사’는 우리 놓는 대로 그저 문전은 절하고 다 해서 숭늉하고 다 해서.)
109003 @ 어떤 식으로 상 출렷수과?(어떤 식으로 상 차렸습니까?)
109003 #5 문전제사는. 제사는 술을 쳇 번 올리곡.(‘문전제사’는. 제사는 술을 첫 번 올리고.)
109003 @ 예.(예.)
109003 #5 이 저 첨잔ᄒᆞ곡 헹 네 번을 잔을 올리는데.(이 저 첨잔하고 해서 네 번을 잔을 올리는데.)
109003 @ 예.(예.)
109003 #5 문전제사는 ᄒᆞᆫ 번에 헤불주게.(‘문전제사’는 한 번에 해버리지.)
109003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09003 #5 ᄒᆞᆫ 번 ᄒᆞᆫ 잔. ᄒᆞᆫ 잔 올려근에 숭눙 올려.(한 번 한 잔. 한 잔 올려서 숭늉 올려.)
109003 @ 예.(예.)
109003 #5 ᄒᆞᆫ 번에 거 딱 ᄒᆞ게 올린 거 쪼꼼씩 잡식헤 놔근에 딱 걸로 끗나는 거, 문전제서는.(한 번에 그거 딱 하게 올린 거 조금씩 잡식해 놓아서 딱 걸로 끝나는 거야, ‘문전제사’는.)
109003 @ 문전제사할 때 상 차리는 거 그날 제사헐 것들 다 놓고예?(‘문전제사’지낼 때 상 차리는 거 그날 제사할 것들 다 놓고요?)
109003 #5 다 놓고.(다 놓고.)
109004 @ 다음엔예 조왕에 대헹 ᄀᆞᆯ아줍서.(다음은요 조왕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9004 #6 조왕은 그 조왕에도 음식을 꼭 ᄀᆞ찌 놓고.(조왕은 그 조왕에도 음식을 꼭 같이 놓고.)
109004 @ 예.(예.)
109004 #6 다 밥 ᄒᆞᆫ 사발 거려놓고, 국 ᄒᆞᆫ 사발 ᄒᆞ곡 숟가락 다 놓곡, 것도 조왕에 다 ᄒᆞ여.(다 밥 한 사발 거려놓고, 국 한 사발 하고 숟가락 다 놓고, 그것도 조왕에 다 해.)
109004 #5 건, 고팡에 아저당 놓는 거.(그건, 고방에 가져다가 놓는 거.)
109004 #6 엿날 고팡에 놓는디 이제는 부엌에 놓지.(옛날 고방에다 놓는데 이제는 부엌에 놓지.)
109004 @ 그믄 조왕제 지낼 땐?(그러면 조왕제 지낼 때는?)
109004 #5 건 제 안 지내는 거.(그건 제 안 지내는 거.)
109004 #6 젠 지내지 아녀고.(제사는 지내지 않고.)
109004 @ 술만 놓앙?(술만 놓아서?)
109004 #6 감지 헤다가 잡식헤서 버리는 거.(감주 해다가 잡식해서 버리는 거.)
109004 @ 감주만.(감주만.)
109004 #6 응, 감주만.(응, 감주만.)
109004 @ 문전제사엔 경헤도 술 한 잔 놓는디 술도 안 놓고마씨?(‘문전제사’엔 그래

도 술 한 잔 놓는데 술도 안 놓고요?)
109004 #6 응, 술도 안 놓고.(응, 술도 안 놓고.)
109004 @ 아, 기구나예?
109004 #6 응.(응.)
109005 @ 혹시 칠성은 모셔낫수과?(혹시 칠성은 모셨었습니까?)
109005 #6 칠성[256], 우린 아네여.('칠성'은 우린 안 해.)
109005 @ 혹시 이 동네도 칠성 모시는 사름 이서낫수과?(혹시 이 동네도 '칠성' 모시는 사람 있었습니까?)
109005 #6 이서, 잇주. 이서낫주.(있어, 있지. 있었었지.)
109005 @ 지금도예?(지금도요?)
109005 #6 이서도 다 치왓주.(있어도 다 치웠지.)
109005 #5 다 이젠 아녀.(다 이젠 안 해.)
109005 #6 치왓어.(치웠어.)
109005 @ 음, 혹시 칠성 모셔난 그 집엔.(음, 혹시 '칠성' 모셔난 그 집엔.)
109005 #6 음.(음.)
109005 @ 어떵 헴신고예?(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09005 #6 시방도 경 헴실 거, 모셔난에 그듸서 뭐 헴실거라게.(시방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모셔났으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을 거야.)
109005 @ 몇 세쯤 난 분들이꽈?(몇 세쯤 된 분들입니까?)
109005 #6 시방 나이?(시방 나이?)
109005 @ 예.(예.)
109005 #6 돌아가셔부럿주게. 다 돌아가시고 시방 잇는 분은 여자분 하나 신디.(돌아가셔버렸지. 다 돌아가시고 시방 있는 분은 여자분 하나 있는데.)
109005 @ 예. 알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10.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이제는 예, 아까 그 조왕이니, 칠성이니 그런 부분들 다 끗나고예, 이젠 통과의례렌 헤가지고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뱃속에 아이 키우고 낳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헹뒈고, 이걸 저기 여쭤보크라예?(이제는 예, 아까 그 조왕이니, '칠성'이니 그런 부분들 다 끝났고요, 이젠 통과의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뱃속에 이이 키우고 낳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저기 여쭤볼게요?)

256)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112001 #6 응.(응.)
112001 @ 거난예? 저예? 요 만, 뭐 헷어요만 안헤근에 그냥 동네사름안티 곧듯이 골아줍서예?(그러니까요? 저요? 요 만, 뭐 했어요 만 안 해서 그냥 동네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해주세요?)
112001 #6 알아시난.(알았으니까.)
112001 #5 경 헤야 뒈여.(그렇게 해야 돼.)
112001 @ 이거 하는 목적은예? 여기 저, 세화리에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말투를 사용 헤신가 그걸 하는 거라부난예? 몰르민 그냥 몰라도 뒈는 거예?(이거 하는 목적은요? 여기 저, 세화리에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말투를 사용 했는가 그걸 하는 거여서? 모르면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112001 #6 응.(응.)
112001 @ 걱정허지 말고예? 아까 그 저기 이남 이녀렌 헤신디예?(걱정하지 말고요? 아까 그 저기 이남 이녀라고 했는데요?)
112001 #6 예.(예.)
112001 @ 어, 그 태교는 어떵 헷수과? 뱃속의 아기를 위헤가지고.(어, 그 태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뱃속의 아기를 위해가지고)
112001 #6 아무치도 아녕 순순이 낳주게.(아무렇지도 않고 순순히 낳았지.)
112001 @ 아니, 그니까 태교, 뱃속에 잇을 때 우리 애기 뭐 훌륭한 뭐 무신 대통령이 뒈게 헤줍서, 라든가 그런 거.(아니, 그니까 태교,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애기 뭐 훌륭한 뭐 무슨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든가 그런 거.)
112001 #6 아녀서, 아녀서. 그런 거 아녀서.(않았어, 않았어. 그런 거 않았어.)
112001 @ 기냥 임신헤시난 가지고 열 달 뒈난 낳고.(그냥 임신했으니까 가지고 열 달 되니까 낳고.)
112001 #6 아홉 둘 만에 나서. 아홉 둘 만에 나서.(아홉 달 만에 낳았어. 아홉 달 만에 낳았어.)
112001 @ 이이들 문딱마씸?(아이들 모두요?)
112001 #6 아니, 혼나만. 큰아덜 만.(아니, 하나만. 큰아들 만.)
112001 @ 큰아덜은, 음.(큰아들은, 음.)
112001 #6 경헤도 그렇게 으망젓어.(그래도 그렇게 뛰어났어.)
112001 @ 경헷구나예. 게믄예, 태교는 경헷다 치고.(그랬군요. 그러면요, 태교는 그랬다 치고.)
112001 #6 음.(음.)
112002 @ 그다음엔 애기 난 다음에 준비를 헷잖아예?(그다음엔 애기 난 다음에 준비를 했잖아요?)
112002 #6 응.(응.)
112002 @ 그건 어떵 헷수과?(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112002 #6 아이고, 애기 낭, 옛날 촌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게. 게난 애기 나

동 둣날 일허레 가곡 다 헷주게.(아이고, 아기 낳아서, 옛날 촌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그러니 아기 낳아두고 뒷날 일하러 가고 다 했지.)
112002 @ 진짜 둣날 일허레 갓수과?(진짜 뒷날 일하러 갔습니까?)
112002 #6 응, 우리 둣날 일허레 가곡.(응, 우리 뒷날 일하러 가고.)
112002 @ 애긴 어떵 헤비동?(아기는 어떻게 해두고?)
112002 #6 애기 물구덕[257]에 져 아정.(아기 '물구덕'에 져 가지고.)
112002 @ 져 아저근에.(져 가지고.)
112002 #6 져 아저근에.(져 가지고.)
112002 @ 밧듸 갓수과?(밭에 갔습니까?)
112002 #6 밧듸. 그때 고구마뻿데기 썰언에 ᄉᆞ뭇, 오름에서 ᄆᆞᆯ류난 그거 거두레 애긴 ᄃᆞ란 갓주게.(밭에. 그때 절간고구마 썰어서 사뭇, 오름에서 말리니까 그거 거두러 아기는 데려갔지.)
112002 @ 가을에 낳구나예?(가을에 낳았군요?)
112002 #6 응, 가을에 난. 구월에 난에. 구월에. (응, 가을에 낳았어. 구월에 낳았어. 구월에.)
112002 #5 북서풍이 워낙 쎄게 분듸이, 막 춥주게.(북서풍이 워낙 세게 불었는데, 매우 춥지.)
112002 @ 예.(예.)
112002 #5 추운듸 간. 구덕에 애기 눅전에 담 옘에 ᄇᆞ름의지[258]에 간 영, 하늬ᄇᆞ름의지에 간 영 놔둰. 죽기 살기로 기냥 막 일만 허단 완 보난, 폭 어퍼저비언.(추운데 갔어. '구덕'에 아기 눕혀서 돌담 옆에 '바람의지'에 가서 이렇게, 하늬바람의지에 가서 이렇게 놓아두었지. 죽기 살기로 그냥 마구 일만 하다가 완 보니까, 폭 엎어져버렸어.)
112002 #6 일 만 헷주게.(일 만 했지.)
112002 @ 하이고게.(하이고.)
112002 #5 거난 쏘곱에서 기냥 경헤도 잠 자분 거라.(그러니 속에서 그냥 그래도 잠 자버린 거야.)
112002 @ 집에서 애기 낳잖아예?(집에서 아기 낳았잖아요?)
112002 #6 다 집에서 애기 난.(다 집에서 아기 낳았어.)
112003 @ 그믄 테와 텟줄은 어떵 헷수과?(그러면 태와 탯줄은 어떻게 했습니까?)
112003 #6 근 불로 술앗주게.(그건 불로 태웠지.)
112003 @ 테반, 텟줄 다 술안예?(태반, 탯줄 다 태웠어요?)
112003 #6 다 술안.(다 태웠어.)
112003 @ 게민 누게가 짤랏수과?(그러면 누가 잘랐습니까?)
112003 #6 (손으로 남편을 가리킴.)((손으로 남편을 가리킴.))
112003 @ 누게 짤르는 거 봐낫수과?(누가 자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257)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져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를 말한다.
258) 'ᄇᆞ름의지'는 '바람을 막을 만한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돌담이 쌓여진 곳을 뜻한다.

112003 #5 아니 봐나도 뭐.(아니 봤어도 뭐.)
112003 @ 안 봐나도 그냥 짤르고예?(안 봤어도 그냥 자르고요?)
112003 #5 어.(어.)
112003 @ ᄀᆞ세 뭐 소독, 끌령이라도.(가위 뭐 소독, 끓여서라도.)
112003 #6 소독ᄒᆞ곡 무신 하간 거 ᄒᆞ곡 하이고.(소독하고 무슨 모든 거 하고 하이고.)
112003 #5 경헤도 어떵 아녀.(그래도 어떻지 않아.)
112004 @ 그면 그, 애기 나 놓면, 그 산모 음식으론 뭐 헤먹엇수과?(그러면 그, 아기 나 놓으면, 그 산모 음식으론 뭐 해먹었습니까?)
112004 #6 밀가루, 아 그 저 ᄆᆞ물가루.(밀가루, 아 그 저 메밀가루.)
112004 @ 옛날엔 ᄆᆞ물을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에 메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04 #6 메밀.(메밀.)
112004 @ 메밀이렌 ᄀᆞᆯ앗수과? 그냥 메밀?(메밀이렌 말했습니까? 그냥 메밀?)
112004 #6 ᄆᆞ물,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가루 타 먹언.('ᄆᆞ물', 메밀가루 해서 가루 타 먹었어.)
112004 @ 저베기마씨?(수제비요?)
112004 #6 그자 ᄀᆞ루 흘탁허게시리[259] 헤근에 그자 그 ᄆᆞ물저베기 ᄒᆞ는 식으로 ᄆᆞᆯ아근에 흘탁하게 헹 먹엇주게.(그저 가루 '흘탁하게끔' 해서 메밀수제비하는 식으로 말아서 '흘탁하게' 해서 먹었지.)
112004 #5 겡헹 뿌리멍 저스민 막 반은 카지곡[260].(그렇게 해서 뿌리면서 저으면 막 반은 '카지고.')
112004 @ 메역국은마씨?(미역국은요?)
112004 #6 메역국은 무신 아이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놓난 메역국은 안 먹어서. 힘들어 엇고 힘들어 놓난에.(미역국은 무슨 아이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놓으니까 미역국은 안 먹었어. 힘들어 없고, 힘들어 놓으니까.)
112004 @ 게민 그 ᄆᆞ물로 흔드락허게 허민 그거 맛 좋읍디가?(그러면 그 메밀로 무르게 하면 그거 맛 좋았습니까?)
112004 #6 맛 좋을 리가 이서게? 맛 좋으멍 말멍 게난 먹을 거난 먹엇주게.(맛이 좋을 리가 있어? 맛이 좋으면서 말면서 그러니 먹을 거니까 먹었지.)
112004 @ 경헷수과?(그랬습니까?)
112004 #6 먹을 거난 먹엇주.(먹을 거니까 먹었지.)
112005 @ 게민 애기 목욕은 어떵 시켯수과?(그러면 아기 목욕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112005 #6 모욕은 우리 씨어머니가 시난에.(목욕은 우리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112005 @ 아.(아.)
112005 #5 거난, 우린 일허레 가불민.(그러니까, 우린 일하러 가버리면.)

259) '흘탁하게시리'는 사물이 물렁물렁해서 단단하지 못하거나, 반죽이 무른 상태, 품이 크거나 물건이 축 늘어진 상태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죽이 무른 상태'를 말한다.
260) '카지다'는 흙덩이나 가루덩이 따위가 물에 풀리어 아주 잘게 바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112005 @ 예.(예.)
112005 #5 어머니가 믄 아이덜을 다 춤, 밥 주곡 다 헹 키왓주게. 집이서.(어머니가 모두 아이들을 다 참, 밥 주고 다 해서 키웠지. 집에서.)
112005 @ 집이서.(집에서.)
112005 #6 젓 멕이레 밧듸 뎅기레 경 오곡.(젖 먹이러 밭에 다니러 그렇게 오고.)
112005 #5 경ᄒᆞ곡, 낮 뒈민 업엉.(그리고, 낮 되면 업어서.)
112005 #6 젓 멕이레 오고.(젖 먹이러 오고.)
112005 #5 밧듸, ᄒᆞᆫ 오 리, 오 리 ᄒᆞ면은 지금 ᄀᆞ뜨민 약 ᄒᆞᆫ ᄉᆞ 키로.(밭에, 한 오 리, 오 리 하면 지금 같으면 약 한 사 킬로미터.)
112005 @ 예.(예.)
112005 #5 걸엉 젓 멕이레 가곡.(걸어서 젖 먹이러 가고.)
112005 @ ᄒᆞ루에 멧 번마씨? 젓 멕이레.(하루에 몇 번이요? 젖 먹이러.)
112005 #6 ᄒᆞ루 ᄒᆞᆫ 번 멕이곡, 거 멕여근엥 저냑에 왕 멕엿주게.(하루 한 번 먹이고, 그 먹여서 저녁에 와서 먹였지.)
112005 #5 낮에 ᄒᆞᆫ 번, 원.(낮에 한 번, 원.)
112005 @ 하이고.(하이고.)
112005 #5 경 헨 살앗어.(그렇게 해서 살았어.)
112006 @ 애기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을 뭐렌 ᄀᆞᆯ앗수과?(아기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06 #6 것ᄀᆞ라 벳저구리엔 ᄒᆞᆸ니까?(그것보고 배냇저고리라고 합니까?)
112006 #5 벳저구리.(배냇저고리.)
112006 @ 벳저구리. 봇뎃옷예?(배냇저고리. '봇뎃옷'이요?)
112006 #6 응, '봇뎃옷[261]'.(응, '봇뎃옷'.)
112006 @ 벳저구리는 누가 만들안마씨?(배냇저고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112006 #6 할망이.(할머니가.)
112006 @ 만들안 나둡디가?(만들어 놔뒀나요?)
112006 #6 응.(응.)
112006 @ 음, 경헷구나에?(음, 그랬군요?)
112006 #6 응.(응.)
112007 @ 그 혹시 할망상이라는 거 들어봣수과?(그 혹시 '삼신상'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112007 #6 우리 할망상[262] 안 놔.(우리 '삼신상' 안 놓아.)
112007 @ 할망상 허는 듸 여기도 어디 잇지예?('삼신상' 하는 데 여기도 어디 있지요?)

---

261) '봇뎃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하는데, 달리 '봇뒤창옷', '봇뒤적삼'등으로 불린다.
262)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 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삼승할망'은 삼신할머니를 뜻함.

112007 #6 잇긴 이서도 우린 아녀 봐서.(있긴 있어도 우린 안 해보았어.)
112007 #5 삼신할망?(삼신할머니?)
112007 @ 예.(예.)
112007 #5 그런 말은 헤도 우린.(그런 말은 해도 우린.)
112007 #6 삼성할망 우린 아녀 봐서.(삼신할머니 우린 안 해봤어.)
112008 @ 그 베넷머리는 어떵 헷수과?(그 배냇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08 #6 베넷머리?(배냇머리?)
112008 @ 예.(예.)
112008 #5 거는 문 끈엇주.(그거는 모두 잘랐지.)
112008 @ 언제 끈엇수과?(언제 잘랐습니까?)
112008 #6 초파일날 끈엇주.(초파일날 잘랐지.)
112008 #5 돌 때 헤근에.(돌 때 해서.)
112008 #6 아니, 초파일날.(아니, 초파일날.)
112008 @ 가을에 낳도?(가을에 태어나도?)
112008 #5 사월초파일은 ᄆᆞ리 멘뜨글락 가까근에.(사월초파일은 머리 매끈하게 깎아서.)
112008 @ 봄에 나도 초파일 자른다는 거지예?(봄에 낳아도 초파일 자른다는 거지요?)
112008 #6 어. 겐디 제집아의는 안 짤라서, 소나눔만 짤란.(어. 그런데 계집아이는 안 잘랐어, 사내아이만 잘랐어.)
112008 @ 소나눔만 짤란예?(사내아이만 잘랐어요?)
112008 #6 으, 으.(으, 으.)
112008 @ 그 쫄르는 건 누가 짤랏수과?(그 자르는 건 누가 잘랐습니까?)
112008 #6 이듸 하르방이[263] 다 이발헤서.(여기 남편이 다 이발했어.)
112008 @ ᄀᆞ세로?(가위로?)
112008 #6 가위로, 가위로 문 탁탁 잘란.(가위로, 가위로 모두 탁탁 잘랐어.)
112008 #5 가위로. 제집아의덜 단발도 다 나가 헤주고.(가위로. 계집아이들 단발도 다 내가 해주고.)
112008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2009 @ 그때, 그 그니까 사십육 년생이렌 헷잖아예?(그때, 그 그니까 사십육 년생이라고 했잖아요?)
112009 #6 응.(응.)
112009 @ 오십육 년, 육십육 년에 애기를 낳아신디예? 그때 당시엔?(오십육 년, 육십육 년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때 당시엔?)
112009 #6 응.(응.)
112009 @ 그 홍역이나 저 천연두 ᄀᆞ튼 거 엇엇수과?(그 홍역이나 저 천연두 같은 건

263)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남편을 말한다.

없었습니까?)
112009 #6 홍녁은 막 아이가 야트게 헨 홍녁 허는 둥 만 둥 넘어갓어.(홍역은 막 아이가 얕게 해서 홍역 하는 둥 만 둥 넘어갔어.)
112009 @ 넷 다마씨?(넷 다요?)
112009 #6 아니, 아니. 족은아덜은 고등하교 이학년 때 홍녁 막 크게 헨에 학교서 저시[264]에 살면서 ᄒᆞ니까 막 크게 헨 시방 몸에 다 꼼보 져서.(아니, 아니. 작은아들은 고등하교 이학년 때 홍역 막 크게 해서 학교서 저 시에 살면서 하니까 막 크게 해서 시방 몸에 다 곰보 졌어.)
112009 @ 저, 그 다처난 아이마씨?(저, 그 다쳤던 아이요?)
112009 #5 음.(음.)
112009 #6 족은아덜 경헷어.(작은아들 그랬어.)
112009 @ 나머지 셋은 그냥 무사히 넘어 가고예?(나머지 셋은 그냥 무사히 넘어 가고요?)
112009 #6 응. 무사히 넘고게. 가의는 원, 고등학교 이학년 때 시에 강.(응. 무사히 넘고. 그 애는 원, 고등학교 이학년 때 '시'에 가서.)
112009 @ 그면 홍역 헷을 때 집에선 어떤 식으로 그걸 헷수과?(그면 홍역 했을 때 집에선 어떤 식으로 그걸 했습니까?)
112009 #6 홍역ᄒᆞ미는 이 모든 게 칼질ᄒᆞ는 거라도 주의ᄒᆞ곡 다 ᄒᆞ곡 주의혜서.(홍역하면 이 모든 게 칼질하는 거라도 주의하고 다 하고 주의했어.)
112009 @ 칼질허는 것도마씨?(칼질하는 것도요?)
112009 #6 쒜 ᄀᆞ튼 것도 무시거 ᄒᆞ곡, 닥닥닥닥 ᄒᆞ는 거 다 주의 혜낫주게. 겐디 우리 아이덜 세 개는 다 게븝게 ᄒᆞ니까 자리 정 눕거나 무시거 안 혜낫어.(쇠 같은 것도 무엇 하고, '닥닥닥닥' 하는 거 다 주의 했었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 아이는 다 가볍게 하니까 자리 져서 눕거나 무엇 안 했었어.)
112009 @ 고등학교 때 헤부난 막 힘들게 헷구나게.(고등학교 때 해버려서 막 힘들게 했구나.)
112009 #6 가의 고등학교 때 헤부난 막 크게 헨. 학교를, 경헤부난에 이녁만 자치ᄒᆞ니까 그듸서 막 겐에 보난에 학교를 ᄒᆞᆫ 일주일 동안 못간에.(걔 고등학교 때 해버려서 막 크게 했어. 학교를, 그래버려서 이녁만 자취하니까 거기서 막 그래서 보니까 학교를 한 일주일 동안 못가서.)
112009 @ 음.(음.)
112009 #6 그추룩 혜낫주게. 시방도 몸 안에 조곰 조곰씩 곰보 서.(그처럼 했었지. 시방도 몸 안에 조금 조금씩 곰보 있어.)
112009 @ 얼굴은 어떵 안 허고예?(얼굴은 어떻게 안 하고요?)
112009 #6 응, 얼굴은 어떵 아녀고.(응, 얼굴은 어떻게 안 하고.)
112009 @ 경헤도 것도 소망이엇수다게.(그래도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264) '시'는 제주시를 말한다.

112009 #6 응.(응.)
112009 @ 홍역 때는 칼 소리 난다든가 그렇게 안 허고.(홍역 때는 칼 소리 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112009 #5 음, 무시거 조심ᄒᆞ주. 큰신 ᄀᆞ찌 막 헤어.(음, 무엇 조심하지. 천연두 같이 막 해.)
112009 #6 그거를 잘못ᄒᆞ다간 탈 보카부덴.(그거를 잘못하다간 탈 볼까봐.)
112010 @ 올레 바깥듸 뭐 이렇게 뭐 저 뭐꽈 거?(올레 밖에 뭐 이렇게 뭐 저 뭡니까 그거?)
112010 #6 ᄉᆞᆺ 메는 거?(새끼 매는 거?)
112010 @ 예.(예.)
112010 #6 ᄉᆞᆺ은 안 메고.(새끼는 안 매고.)
112010 @ 애기 날 땐 멧수과?(아기 날 땐 맸습니까?)
112010 #6 애기 날 땐 다 안 메서. 우린. ᄉᆞᆺ 안 멘.(아기 날 땐 다 안 맸어. 우린. 새끼 안 맸어.)
112010 #5 우린 아무것도 다 안 멘.(우린 아무것도 다 안 맸어.)
112010 #6 애기를 쉽게 나니까, 그자 금방 검질메당 왕 그자 춤, 우리 족은뚤은 열 시ᄁᆞ지 검질 메단 완 금방 나비서.(아기를 쉽게 나니까, 그자 금방 김매다가 와서 그저 참, 우리 작은딸은 열 시까지 김매다가 와서 금방 낳아버렸어.)
112010 @ 족은똘은 네 번째마씨?(작은딸은 네 번째요?)
112010 #6 세 번짜.(세 번째.)
112010 @ 아들이 네 번째꽈?(아들이 네 번째니까?)
112010 #6 아들이 네 번짜.(아들이 네 번째.)
112010 @ 그믄 아들, 딸, 딸, 아들 그렇게 낳구나예?(그러면 아들, 딸, 딸, 아들 그렇게 낳았군요?)
112010 #6 응.(응.)
112010 @ 그믄 애기 낫을 때도 ᄉᆞᆺ도 안 메고예?(그러면 아기 낳았을 때도 새끼 안 매고요?)
112010 #6 응. ᄉᆞᆺ도 안 메고, 아무 것도 안헨.(응. 새끼도 안 매고, 아무 것도 안 했어.)
112010 @ 바로 검질메레 가고예? 게면, 특별나게시리 애기 낫덴 헤가지고 막 금기 하거나 이런 건 엇엇수과?(바로 김매러 가고요? 그러면, 특별나게 아기 낳았다고 해가지고 막 금기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112010 #5 그런 것도 아녀보고.(그런 것도 안 해보고.)
112010 #6 아녀보고.(안 해보고.)
112010 @ 경헤도 잘 크고예?(그래도 잘 크고요?)
112010 #6 응. 겐디 다침은 다 ᄒᆞᆫ 번씩 막 헨. 우리 큰아덜도 다리 갑자기 오그라저 벤게.(응. 그런데 다침은 다 한 번씩 막 했어. 우리 큰아들도 다리 갑자기 오그라져버려

서.)
112010 @ 아.(아.)
112010 #6 경헨 막 밤이, 흔 멧 시 뤤 후제 그때 영동병원 실언. 아, 영동병원 아니여. 저 저듸 그 무신 병원이니, 그 ᄒᆞ방에 이서난 듸.(그렇게 해서 막 밤에, 한 몇 시 된 후에 그때 영동병원 실어서. 아, 영동병원 아니야. 저 저기 그 무슨 병원이니, 그 하방에 있었던 데.)
112010 #5 아, 저 서귀포?(아, 저 서귀포?)
112010 #6 응, 그듸 간에, 그 다리 홈마 이 저 그 고장쯤 걸려시카부덴, 이 다리 깝자기 오그라정 걷질 못헤 가니까. 그때 학교는 안 다닐 때라게. 학교는 안 다닐 때라게. 경 헨 ᄒᆞ곡. 족은 아덜은 막 ᄋᆞ라 번 다쳔.(응, 거기 가서, 그 다리 하마터면 이 저 그 고자쯤 걸렸을까봐, 이 다리 갑자기 오그라져서 걷질 못해가니까. 그때 학교는 안 다닐 때야. 학교는 안 다닐 때야. 그렇게 해서 하고. 작은아들은 막 여러 번 다쳤어.)
112010 #5 동산의원인가?(동산의원인가?)
112010 @ 예, 옛날에 이서낫덴 헙디다.(예, 옛날에 있었다고 합디다.)

혼례

112011 @ 어, 그러면 결혼식 헐 때는 그때가 그믄 육십오 년쯤이난 그믄 결혼식은 막 현대식으로 헤시쿠다예?(어, 그러면 결혼식 할 때는 그때가 그러면 육십오 년쯤이니까 그러면 결혼식은 막 현대식으로 하셨겠네요?)
112011 #6 그자 저 엿날 가메, 우린 가메 타곡.(그저 저 옛날 가마, 우린 가마 타고.)
112011 @ 아, 그때도 가메 탓수과?(아, 그때도 가마 탔습니까?)
112011 #6 어, 우린 가마로.(어, 우린 가마로.)
112011 @ 가메 탄 갓구나예?(가마 타서 갔군요?)
112011 #6 응. 가메 탄에 간. 저 집이 가까우니까.(응. 가마 타고 갔어. 저 집이 가까우니까.)
112011 @ 예.(예.)
112011 #6 이듸민 요 저 ᄌᆞ듸 저 무시거 찜질방 막 거리 반벳긔 안 뒈니까 가메 타고 갓주.(여기면 요 저 저기 저 무엇 찜질방 막 거리 반밖에 안 되니까 가마타고 갔지.)
112011 @ 기꽈?(그래요?)
112011 #6 응. 가메 타고. 가메 타는 게 버스 타는 거사 계속ᄒᆞ주마는 가메 타는 게 힘들잖아.(응. 가마 타고. 가마 타는 게 버스 타는 거야 계속하지만 가마 타는 게 힘들잖아.)
112011 @ 맞아예.(맞아요.)
112011 #6 어. 가메 타고 그난 그때.(어, 가마 타고 그러니 그때.)
112011 @ 경헷구나예? 그때도예? 그때 결혼헷을 때 한번 영 쭉 ᄀᆞᆯ아봅서. 어떵 헤신지 가마 타근에.(그랬군요? 그때도요? 그때 결혼했을 때 한번 쭉 말해보세요. 어떻게 했

는지 가마 타서.)
112011 #6 그때는 뭐 저 무시거 족두리 쓰곡 가마 탕 가민 걸로 끗. 한복 입언 그때, 한복.(그때는 뭐 저 무엇 족두리 쓰고 가마 타서 가면 걸로 끝. 한복 입어서 그때, 한복.)
112011 @ 그믄는 그때 시집살이헌 거꽈? 흔 집에, 안팟거리?(그러면 그때 시집살이 한 겁니까? 한 집에, 안채 바깥채?)
112011 #6 아니, 아니. 거리는 일루 ᄀᆞ트민 저 찜질방 거리 만이벳긔.(아니, 아니. 거리는 이리로 같으면 저 찜질방 거리 만큼밖에.)
112011 @ 그게 아니라 시집간에.(그게 아니라 시집가서.)
112011 #6 아, 우리 씨어머니 ᄒᆞ나뿐이난 ᄀᆞ찌 살앗지.(아, 우리 시어머니 혼자뿐이어서 같이 살았지.)
112011 @ 경헷구나, 어머니 혼자 계셧구나예?(그랬구나, 어머니 혼자 계셨군요?)
112011 #6 어, 혼자 계시니까.(어, 혼자 계시니까.)
112012 @ 음, 두 분 결혼은 중매 헷수과, 연애 헷수과?(음, 두 분 결혼은 중매 했습니까, 연애 했습니까?)
112012 #6 ᄀᆞᆯ아붑서.(말해버리세요.)
112012 #5 연애주.(연애지.)
112012 @ 경혜도 그때도 아멩혜도 ᄒᆞ꼼 낫다예. 다른 분들은 보난 막 일제 때 결혼하고 할 땐 그런 게 엇언게마는예? 경혜도 나이 ᄒᆞ꼼 차이 이서실 건디다가.(그래도 그때도 아무래도 조금 났네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막 일제 때 결혼하고 할 땐 그런 게 없던데요? 그래도 나이 조금 차이 있었을 건데.)
112012 #6 하하하 이 하르방[265] 젊은 때는 시방 영 늙어부난 뭐 헷주, 완전 멋시어낫어.(하하하 이 할아버지 젊은 때는 시방 이렇게 늙어버려서 뭐 했지, 완전 멋있었어.)
112012 @ 경헌 거 담수다게.(그런 거 닮습니다.)
112013 @ 음, 경ᄒᆞ고예? 그면은 연애 헤부난 무신 저 막펜지[266] ᄀᆞ튼 거 주고받고 안 헤시키여예?(음, 그러고요? 그러면 연애 해버려서 무슨 저 '막편지' 같은 거 주고받고 안 하셨겠네요?)
112013 #6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2013 @ 안 헷고예.(안 했고요?)
112013 #6 음.(음.)
112014 @ 그다음 결혼헤난 다음에 이제사 경허는디.(그다음 결혼해난 다음에 이제야 그러는데.)
112014 #6 음.(음.)
112014 @ 옛날엔 어떵 헤신지 모르쿠다마는 이바지음식 ᄀᆞ튼 거 헷수과?(옛날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바지음식 같은 거 했습니까?)

265)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266)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112014 #6 우리, 이바지음식 무시거 아녜서.(우리, 이바지음식 무엇 않았어.)
112014 @ 안 헷지예?(안 했지요?)
112014 #6 우리도 우리 어머니 혼자뿐이니까 이바지음식 아녜서.(우리도 우리 어머니 혼자뿐이니까 이바지음식 않았어.)
112014 @ 아 기꽈?(아, 그래요?)
112014 #6 응.(응.)
112014 @ 아, 사삼 때 그면 삼춘 혼자 낳아신게양?(아, 사삼 때 그러면 삼촌 혼자 낳으셨네요?)
112014 #6 동생 이신디, 우리 동생은 팔월 달에 낳고 동짓둘에 우리아버진 돌아가시고 사삼사건 나부니까, 동생 이서.(동생 있는데, 우리 동생은 팔월 달에 낳고 동짓달에 우리아버진 돌아가시고 사삼사건 나버리니까, 동생 있어.)
112014 @ 게믄 어머니가 오누이를?(그러면 어머니가 오누이를?)
112014 #6 아니.(아니.)
112014 @ 자매를?(자매를?)
112014 #6 응, 자매를.(응, 자매를.)
112014 @ 자매를 혼자 키우셧구나예? 잘도 힘들어시키여예?(자매를 혼자 키우셨군요? 잘도 힘드셨겠네요?)
112014 #6 음.(음.)
112015 @ 시집 갈 때 아멩 어려워도 이불은 헨 갓수과?(시집 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불은 해서 갔습니까?)
112015 #6 이불 헹 갓주, 이불사.(이불 해서 갔지, 이불이야.)
112015 @ 이불 멧 채 헷수과?(이불 몇 채 했습니까?)
112015 #6 이불 멧 채 출리곡, 혼 채 헹 가서.(이불 몇 채 차리고, 한 채 해서 갔어.)
112015 @ 기꽈? 근데 삼춘도 잘도 고와낫인게마씸.(그래요? 그런데 삼촌도 잘도 고우셨네요.)
112015 #6 고와낫어?(고왔었어?)
112015 @ 예, 고와낫일 거 닮아.(예, 고우셨을 거 같아.)
112015 #6 늙어부난에 시방 고우미랑마랑 젊을 때도 이거주.(늙어버려서 시방 곱기는커녕 젊을 때도 이거지.)
112016 @ 결혼 헐 때 예장은 어떵 헷수과?(결혼 할 때 예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12016 #6 예장은, 우리 웨삼춘네가 이시니까 예장 ᄒᆞ여낫주.(예장은, 우리 외삼촌들이 있으니까 예장 했었지.)
112016 @ 다 헤줫낫구나예?(다 해줬었군요?)
112016 #6 응.(응.)
112016 @ 그 예장 헐 때 저기 함엔 무시거 놧고, 이런 거 다 헷수과?(그 예장 할 때 저기 함엔 무엇 넣었고, 이런 거 다 했습니까?)
112016 #5 다 헨.(다 했어.)

112016 #6 옛날 그 함엔 헤봐야 시마지[267] 혼 통 놓앗주게. 그 애기 낳민 삿바ᄒᆞ렌 시마지 혼 통 논 거뿐이주게.(옛날 그 함이라고 해봐야 소창 한 통 넣었지. 그 아기 낳으면 기저귀 하라고 시마지 한 통 넣은 거뿐이지.)

112016 #5 옛날엔 다 경헤서덜.(옛날엔 다 그랬어들.)

112016 @ 경헷구나예, 음.(그랬군요, 음.)

112017 @ 어, 가문잔치는 헷잖아예?(어, '가문잔치'는 했잖아요?)

112017 #6 가믓잔치[268], 가믓잔치멍 잔치멍 이틀 ᄒᆞ는 건 이틀 ᄒᆞ는 건디.('가믓잔치', '가믓잔치'며 잔치며 이틀 하는 건 이틀 하는 건데.)

112017 @ 예.(예.)

112017 #5 가문찬치는 아시날, 저 전날에.('가문잔치'는 전날, 저 전날에.)

112017 #6 우린 궨당덜만 영 헤근에.(우린 권당들만 이렇게 해서.)

112017 #5 도새기 잡앙.(돼지 잡아서.)

112017 @ 예.(예.)

112017 #5 그자 막 가까운 동네ᄒᆞ곡 친촉 권당들 헤근에.(그저 매우 가까운 동네하고 친척 권당들 해서.)

112017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12017 #5 저녁 먹고 ᄒᆞ는 거주게.(저녁 먹고 하는 거지.)

112017 #6 경헷주게.(그랬지.)

112017 @ 경헷지예?(그랬지요?)

112017 #6 응.(응.)

112017 @ 그때, 당시에 가문잔치 허면 그 부주는 무시걸로 어떵 헷수과?(그때, 당시에 '가문잔치' 하면 그 부조는 무엇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12017 #6 엿날엔 부주, 쏠. 보리쏠이민 보리쏠 혼 말 헤오는 사름, 닷 뒈 헤오는 사름 그추룩 헷주게.(옛날엔 부조, 쌀. 보리쌀이면 보리쌀 한 말 해오는 사람, 닷 되 해오는 사람 그처럼 했지.)

112017 @ 경헷지예?(그랬지요?)

112017 #6 응. 이젠 돈으로 ᄒᆞ곡, 그 요세 잇다가, 또 곤쏠 혼 말 허는 사름도 이서나곡, 건디 그 시절엔 보리쏠, 보리쏠 대중 보리쏠.(응. 이젠 돈으로 하고, 그 요새 있다가, 또 흰쌀 한 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절엔 보리쌀, 보리쌀 대부분 보리쌀.)

112017 @ 음, 그렛구나예?(음, 그랬군요?)

112017 #6 보리쏠이나 좁쏠 그런 거 ᄒᆞ주.(보리쌀이나 좁쌀 그런 거 하지.)

112017 #5 돈이 그렇게 귀헷주게.(돈이 그렇게 귀했지.)

112018 @ 예, 맛수다예. 그때 그면은 우시는 누가 갓수과?(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위요는 누가 갔습니까?)

112018 #6 우리 웨삼춘.(우리 외삼촌.)

---

267) '시마지'는 시마緦麻 즉 가는 베로 지은 상복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광목인 '소창'을 말한다.

268) '가믓잔치'는 '가문잔치'를 달리 발음한 것인데,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112018 @ 웨삼춘이 다 가고예?(외삼촌이 다 가고요?)
112018 #6 다 돌아가셔부난 이제 엇주.(다 돌아가셔서 이제 없지.)
112019 @ 음. 그 대반은 누가 앉앗수과?(음. 그 대반은 누가 앉았습니까?)
112019 #6 대반은 우리 동세.(대반은 우리 동서.)
112019 @ 동세? 동세가.(동서? 동서가.)
112019 #6 응, 우리 큰동세가.(응, 우리 큰동서가.)
112019 @ 그믄 삼춘이 멧 번째꽈? 집에서, 삼춘은.(그러면 삼촌은 몇 번째입니까? 집에서, 삼촌은.)
112019 #5 막내.(막내.)
112019 @ 아, 막내구나예. 형제 멧마씸?(아, 막내군요. 형제가 몇인가요?)
112019 #5 서 오누이.(서 오누이.)
112019 @ 서 오누이, 그 중 막내구나예. 대반 잇고, 중방은 어떵 헷수과?(서 오누이, 그 중 막내군요. 대반 있고, 중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112019 #5 중방?(중방?)
112019 @ 예, 중방.(예, 중방.)
112019 #5 중반이엔 ᄒᆞ는 말은?(중방이라고 하는 말은?)
112019 @ 여긴 대반만 앉이고예?(여긴 대반만 앉고요?)
112019 #6 대반만, 대반 아지국, 남잔 우시 앚지국.(대반만, 대반 앉히고, 남자는 위요 앉히고.)
112019 #5 남자도 대반은 앉주게.(남자도 대반은 앉지.)
112020 @ 맞수다. 부지는 보리쏠, 두 뒈나 ᄒᆞᆫ 말 허고.(맞습니다. 부조는 보리쌀, 두 되나 한 말 하고.)
112020 #6 보딘 무시거는 ᄒᆞᆫ 말, 경 아녀민 두 뒈 그거주게.(가까운 무엇은 한 말, 그렇지 않으면 두 되 그거지.)
112020 #5 두 뒈가 닷 뒈주게.(두 되가 닷 되지.)
112020 #6 두 관뒈.(두 되.)
112020 #5 두 관뒈가 닷뒈엔 ᄒᆞ주.(두 되가 닷 되라고 하지.)
112021 @ 혹시 이 동네도 암창개 헤난 사름 이수과?(혹시 이 동네도 '암창개' 했던 사람 있습니까?)
112021 #5 암창개[269] 엇어.('암창개' 없어.)
112021 #6 암창개는, 그.('암창개는', 그.)
112021 #5 거 여자 어신디 남자만 와근에.(그 여자 없는데 남자만 와서.)
112021 @ 경 허기도 허고.(그렇기도 하고.)
112021 #6 엿날에 누게 이섯단 다 죽어부난, 그 사름 이서나기는 헤서. 암창개 헨에 이디 왓단 헷젠 ᄒᆞᆫ디.(옛날에 누구 있었다가 다 죽어버려서, 그 사람 있었긴 는 했어.

269)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말한다.

‘암창개’ 해서 이여기 왔다가 했다고 했는데.)
112021 #5 암창게 ᄒᆞ민.(‘암창개’ 하면.)
112021 #6 게, 서방 엇인 듸.(그래, 서방 없는 데.)
112021 #5 서방 엇인 듸 여자만 가는 것도 암창개고.(서방 없는 데 여자만 가는 것도 ‘암창개’고.)
112021 @ 예, 예.(예, 예.)
112021 #5 그거주게.(그거지.)
112021 #6 시방도 ***.(시방도 ***.)
112021 #5 옐 들러서 군인을 가멍 날짜를 정헤 놔신디.(예를 들어서 군인을 가면서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112021 @ 예.(예.)
112021 #5 군인 가비영 난리 못 올 때는 암창개로 그냥 그날 새각시 만 데려가는 거주.(군인 가버려서 난리에 못 올 때는 ‘암창개’로 그냥 그날 새색시 만 데려가는 거지.)
112021 @ 그런 적은 없고예? 이 동네에서?(그런 적은 없고요? 이 동네에서?)
112021 #5 이 동넨 엇어.(이 동네는 없어.)
112022 @ 그믄 혹시 사혼은 헤낫수과?(그러면 혹시 사혼은 했었습니까?)
112022 #5 사혼은 뭐 계속 뒛주, 사혼은.(사혼은 계속 됐지, 사혼은.)
112022 @ 사혼은 계속 헤여예?(사혼은 계속 해요?)
112022 #5 사혼은 뭐 요즘은 그런 거 아녓는디.(사혼은 뭐 요즘은 그런 거 않았는데.)
112022 @ 예.(예.)
112022 #5 ᄒᆞᆫ 일이십 년 전만헤도 사혼허던 사름덜은 가끔 이섯어.(한 일이십 년 전만해도 사혼하던 사란들은 가끔 있었어.)
112022 @ 삼춘네 집안은 엇엇수과?(삼촌네 집안은 없었습니까?)
112022 #6 엇어, 우리 집안엔.(없어, 우리 집안에는.)
112023 @ 어, 그러면 이제 그 결혼 헐 때 혼례와 관련헤 가지고 금기 ᄀᆞ튼 게 엇엇수과?(어, 그러면 이제 그 결혼 할 때 혼례와 관련해 가지고 금기 같은 게 없었습니까?)
112023 #6 아이고, 우리 홀 때가 금ᄒᆞ곡 무시거 ᄒᆞ곡 헤 저서게?(아이고, 우리 할 때가 금하고 무엇 하고 할 수 있었나?)
112023 #5 아무것도 우린 기자 원.(아무것도 우린 그저 원.)
112023 #6 시집이엔 가민 한복 ᄒᆞᆫ 불 그거. 그거 받은 거주. 그거 받은 거라.(시집이라고 가면 한복 한 벌 그거. 그거 받은 거지. 그거 받은 거야.)
112023 @ 아니, 뭐 잔칫집에 동티난 사름은 가지 말라든가?(아니, 뭐 잔칫집에 동티난 사람은 가지 말라든가?)
112023 #6 그런 거 엇어.(그런 것 없었어.)
112023 #5 우린 그런 말도 아녜나서.(우린 그런 말도 않았어.)
112023 @ 기꽈?(그래요?)
112023 #5 이 북군[270]더렌 그런다고 ᄒᆞ드라고.(이 북군들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

112023 @ 예, 예.(예, 예.)
112023 #5 경 헤근에 잔치 택일 나곡 동네 잔치 택일 나민.(그렇게 해서 잔치 택일 나고 동네에 잔치 택일 나면.)
112023 @ 안 뎅긴덴.(안 다닌다고.)
112023 #5 자기네 잔치 ᄒᆞ게 뒈민 그디도 안 가곡.(자기네 잔치 하게 되면 거기도 안 가고.)
112023 @ 안 가고예? 맞수다.(안 가고요? 맞습니다.)
112023 #5 이 북군에는 경 헷덴.(이 북군에는 그렇게 했다고.)
112023 #6 여기도 경 ᄒᆞ는 사름은 경 헴서. 잔치 택일도 ᄒᆞᆫ ᄃᆞᆯ 안에 나믄 이 집이 잔치ᄒᆞᆯ 때는 그 사름이 아녀 오주. ᄆᆞ녀 ᄒᆞ는 집은 아녀 오주.(여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잔치 택일도 한 달 안에 나면 이 집이 잔치할 때는 그 사람이 안 오지. 먼저 하는 집은 안 오지.)
112023 @ 음.(음.)
112023 #6 경 헤나신디 이제는 경 ᄒᆞ는 사름도 가끔 이서도 자주, 하진 않주.(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도 자주, 많지는 않지.)
112023 #5 자기 집에서 안 ᄒᆞ고, 전부 마을회관에서 헤 놓니까.(자기 집에서 안 하고, 전부 마을회관에서 해 놓으니까.)
112023 #6 이듸, 이듸 왕 ᄒᆞ는 따문에.(여기, 여기 와서 하는 때문에.)
112023 @ 이젠 그럴 필요가 엇인 거잖아예? 옛날은 집에서 하니까.(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은 집에서 하니까.)
112023 #6 음.(음.)
112023 @ 이제까지는 결혼식 잔치에 대한 거고예?(이제까지는 결혼식 잔치에 대한 거고요?)
112023 #6 음.(음.)

상례

112024 @ 그다음에는 장례식에 대한 거를 여쭤보크라예?(그다음에는 장례식에 대한 거를 여쭤볼게요?)
112024 #6 음.(음.)
112024 @ 이 사람이 죽어신지 안 죽어신지 어떵 확인헤낫수과?(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했었습니까?)
112024 #6 아, 우리 시부모네는 집이서 돌아가시니까.(아, 우리 시부모는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112024 @ 예.(예.)
112024 #6 병원에 강 돌아가시지 아녜고, 집이서, 우리 집 안네서 죽으니까 집이 놧

270) '북군'은 제주도를 성산포와 한림을 경계로 북쪽지역을 말한다.

다가 영장 헷주.(병원에 강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우리 집 안에서 죽으니까 집에 놓았다가 영장 했지.)
112024 @ 아, 게난. 게난, 이 어머니가 죽어신가 살아신가 확인을?(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112024 #5 아, 계속 밤낫을 지켜 잇거든.(아, 계속 밤낮을 지켜 있거든.)
112024 #6 계속 앞이 지켜 아지니까.(계속 앞에 지켜 앉으니까.)
112024 #5 언제 목숨 떨어질지 모르난.(언제 목숨 떨어질지 모르니까.)
112024 @ 예.(예.)
112024 #5 뭐 동네사름덜 뭐 권당덜 막 뭬어정 밤새는 거라.(뭐 동네사름들 뭐 권당들 막 모아져서 밤새는 거야.)
112024 #6 경혜도 우리 씨어머님은 우리 아덜이 서울에 대학교 가니까 그듸 츰, 우리 아덜 오자마자 할무니 나, 게나제나 영철이, 이름이 영철이니까 '영철이 와시냐' 허단에 완에, 방학헹 오니까 칠월 달에 돌아가셔신디.(그래도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서울에 대학교 가니까 거기 참, 우리 아들 오자마자 할머니 나, 그나저나 영철이, 이름이 영철이니까 '영철이 왔니' 하다가 와서, 방학해서 오니까 칠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12024 @ 예.(예.)
112024 #6 우리 아덜이 와서 '할머니 나 와수다' ᄒᆞ난 듯날 오꼿 돌아가션.(우리 아들이 와서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뒷날 그만 돌아가셨어.)
112024 @음, 아, 막 손지 기다려신게예?(음, 아, 간절하게 손주 기다리셨네요.)
112024 #6 손지 기다련. 그 손지가 그렇게 할망이 에끼고, 츰, 나가 때려벳다근에 말 메칠씩 말도 안 곧곡 헤서.(손주 기다렸어. 그 손주가 그렇게 할머니가 아끼고, 참, 내가 때려버렸다가 말을 며칠씩 말도 안 하고 했어.)
112024 @ 그 다른 손 위 동서의 애기들도 이서실 건디예?(그 다른 손 위 동서의 아기들도 있었을 건데요?)
112024 #6 우리 동세네 애기는, 우리 동세네는 양젤 가부니까.(우리 동서네 아기는, 우리 동서네는 양자를 가버리니까.)
112024 @ 아.(아.)
112024 #6 큰아방 아덜은 양젤 가부니까 우리 씨부모님은 우리가 홀 거니까 우리가 모시고.(큰아버지 아들은 양자를 가버리니까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가 모시고.)
112024 @ 음, 경헷구나예? 그면은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돌아가셧져' 허민 걸로 돌아가신 거마씸?(음, 그랬군요? 그러면은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이제 돌아가셨어' 하면 걸로 돌아가신 건가요?)
112024 #5 으응, 다 아장 자지도 아녀고 그냥 아장 날 새서. 자꾸 멧 분에 ᄒᆞᆫ 번씩 강 영 맥 지퍼보곡, 영 ᄒᆞ당 맥 떨어지민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셧져' 허민 걸로 뒈어난.(으응, 다 앉아서 자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날 샜어. 자꾸 몇 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맥 짚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맥 떨어지면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셨어' 하면 걸로

됐었어.)
112024 #6 문지가도 보고.(만져도 보고.)
112024 @ 거민 돌아가셧져 허잖아예?(그러면 돌아가셨어 하잖아요?)
112024 #5 게민 이 맥이 안 젭히면은 그때 아는 거주게.(그러면 이 맥이 안 잡히면 그때 아는 거지.)
112024 @ 게민 맥이 안 잡혀서 돌아가셧다 거민 언제 그 입관헙니까?(그러면 맥이 안 잡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언제 그 입관합니까?)
112024 #6 날짜 봉, 날짜 봉.(날짜 봐서, 날짜 봐서.)
112024 #5 허, 이. 건 가근에 날짜 강 봉.(허, 이. 그건 가서 날짜 가서 봐서.)
112024 @ 예.(예.)
112024 #5 와근에 어느 날에 조반ᄒᆞ라, 뭐 입관ᄒᆞ라, 뭐 하관ᄒᆞ라, 다 택일헹 오랑.(와서 어느 날에 조반하라, 뭐 입관하라, 뭐 하관하라, 다 택일해서 와서.)
112024 @ 혹시 죽엇덴 헷는데 살아난 경우는 엇수과?(혹시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까?)
112024 #6 구십셋 난 돌아가셔 놓난.(구십셋 나서 돌아가셔 놓으니까.)
112024 @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어머니일 경우고.(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어머니일 경우고.)
112024 #6 아, 딴 사름.(아, 다른 사람.)
112024 @ 동네 누군가가 죽엇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도 안 헤신디 죽엇저, 헤근에?(동네 누군가가 죽었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도 안 했는데 죽었어, 해서?)
112024 #5 아니, 그런 사름은, 그런 경우는 어디 어디서 우리도 그런 말은 들엇어.(아니, 그런 사람은, 그런 경우는 어디 어디서 우리도 그런 말은 들었어.)
112024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24 #5 죽언에, 사름이 죽엇는디 다 무껀 나뒷는디.(죽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다 묶어서 놔뒀는데.)
112024 @ 예.(예.)
112024 #5 뭐 무신 관이 딱 헨 놔뒷는디 무신 소리가 퉁퉁 나니까 열안 보난에 살아살안 뭐 헷젠 말은.(뭐 무슨 관이 딱 해서 놔뒀는데 무슨 소리가 퉁퉁 나니까 열어 보니까 살아 살아서 뭐 했다는 말은.)
112025 @ 그난 그럴 수도 잇는 거잖아예? 경 헤부나예? 그다음 죽은 다음에 복불를 땐 누가, 언제, 어떻게 불럿수과?(그러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버려서요? 그 다음 죽은 다음에 복부를 땐 누가, 언제, 어떻게 불렀습니까?)
112025 #6 아, 혼불를 때?(아, 복부를 때?)
112025 @ 예.(예.)
112025 #5 혼불를 때는 에, 동네사름안틔나 대게는 이 권당.(복부를 때는 에, 동네사람에게나 대게는 이 권당.)
112025 @ 예.(예.)

112025 #5 권당 뭐 삼춘 벌 뒈는 사름, 조카 벌 뒈는 사름이영 혜근에 ᄒᆞ면은 그 저 ᄒᆞ쏠 뭐 협센 ᄒᆞ면은 엿날에는, 지금은 베깃듸서 영 사근에 ᄒᆞ는디, 지붕 우에 올라 가.(권당 뭐 삼촌 벌 되는 사람, 조카 벌 되는 사람이랑 해서 하면 그 저 조금 뭐 하십시오 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데, 지붕 위에 올라 가.)

112025 @ 예.(예.)

112025 #5 지붕 우에 올라 강 그 혼적삼이라는 게 이서이.(지붕 위에 올라 가서 그 혼적삼이라는 게 있어.)

112025 @ 예.(예.)

112025 #5 혼적삼 영 들렁 삼춘 벌이민 '삼춘! 삼춘!' 혼 세 번 불러.(혼적삼을 이렇게 들어서 삼촌 벌이면 '삼촌! 삼촌!' 혼을 세 번 불러.)

112025 @ 예.(예.)

112025 #5 경 혜근에 또 그 적삼으로 또 집 듸우로 강 받는다고, 상제가 강 영 받아온다고.(그렇게 해서 또 그 적삼으로 또 집 뒤로 가서 받는다고, 상제가 가서 이렇게 받아온다고.)

112025 @ 아, 예. 혹시 복불르는 소리, 그냥 삼춘, 삼춘, 경 세 번만 불런마씸?(아, 예. 혹시 복부르는 소리, 그냥 삼촌, 삼촌, 그렇게 세 번만 불렀나요?)

112025 #6 아니, 아니. 상제 이름도 ᄀᆞᆫ지 아녀?(아니, 아니. 상제 이름도 말하지 않나?)

112025 #5 아니, 상제 이름도 안 ᄀᆞᆫ고. 대게는 망인 이름을 불르나, 직함을 불르나 영 춤, 혜영 형제빨 뒈는 사름은 이름을 불러.(아니, 상제 이름도 안 말하고. 대게는 망인 이름을 부르거나, 직함을 부르거나 이렇게 참, 해서 형제뻘 되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112025 @ 아.(아.)

112025 #5 이름을 불르고 막 그때 춤, 보, 혜영 끗나는디.(이름을 부르고 막 그때 참, 보, 해서 끝나는데.)

112025 @ 예를 든다면 저가 최연미잖아예? 그러면 최연미, 최연미, 최연미, 보. 이렇게 끗나마씸?(예를 든다면 저가 최연미잖아요? 그러면 최연미, 최연미, 최연미, 보, 이렇게 끝나나요?)

112025 #5 어, 그런 마끗데.(어, 그런 마지막에.)

112025 @ 마끗데마씸? 그 중간에 다른 말 안허고마씨? 잘 가라라든가 이런 말엇이?(마지막에요? 그 중간에 다른 말 안 하고요? 잘 가라라든가 이런 말없이?)

112025 #5 아니, 아니 기자.(아니, 아니 그저.)

112025 @ 기구나예?(그렇군요?)

112026 @ 그다음 장지 마련은 누가 어떵 헙니까?(그다음 장지 마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112026 #6 아, 영장 마련? 마련은.(아, 영장 마련? 마련은.)

112026 #5 똘, 예를 들어서 똘 이시민.(똘, 예를 들어서 딸 있으면.)

112026 @ 예.(예.)
112026 #6 밥 출리곡.(밥 차리고.)
112026 #5 뚤이 밥 출리곡.(딸이 밥 차리고.)
112026 @ 예.(예.)
112026 #5 또 아덜은 점심을 ᄒᆞ던가 조반ᄒᆞ곡.(또 아들은 점심을 하던가 조반하고.)
112026 #6 피력[271] ᄒᆞ곡.('피력' 하고.)
112026 #5 뚤은 점심 ᄒᆞ곡, 또 딴 뚤이 이시민 피력 ᄒᆞ곡. 거 ᄒᆞᆫ 가지썩 다 마타근에 ᄒᆞ주게.(딸은 점심 하고, 또 딴 딸이 있으면 '피력' 하고. 그거 한 가지씩 다 맡아서 하지.)
112026 @ 그믄 돌아가신 집에 그걸 헹 오는 거예?(그러면 돌아가신 집에 그걸 해서 오는 거요?)
112026 #6 응, 응.(으, 응.)
112027 @ 그 그다음엔 관하고 그 횡대는 어떵 마련합니까?(그 그다음엔 관하고 그 횡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7 #5 관은 널 사당.(관은 널을 사다가.)
112027 @ 예, 사당.(예, 사다가.)
112027 #5 사다가 동네 목수를 빌엉.(사다가 동네 목수를 빌어서.)
112027 @ 음.(음.)
112027 #6 동네 목시 빌어근에 이거 관 짜ᄃᆞ렌 허면은 관 짜근에 입관ᄒᆞᆯ 때 ᄁᆞ지 그거 영 더껑.(동네 목수 빌어서 이거 관 짜달라고 하면 관 짜서 입관할 때 까지 그거 이렇게 덮어서.)
112027 @ 음.(음.)
112027 #6 풀 쒀근에.(풀 쑤어서.)
112027 #5 아, 풀 쒀근에 뭐 ᄇᆞᆯ르곡 무시거 ᄒᆞᆫ 건, 관 짜 놩 거, 예를 들어서 집 도배ᄒᆞ는 식으로.(아, 풀 쑤어서 뭐 바르고 무엇 한 건, 관 짜 놓고 거, 예를 들어서 집 도배하는 식으로.)
112027 @ 예, 예.(예, 예.)
112027 #5 그 창오지로 ᄇᆞᆯ르는 거주게.(그 창호지로 바르는 거지.)
112027 @ 예.(예.)
112027 #5 관 안네를 깨끗ᄒᆞ게 ᄇᆞᆯ라근에 경 헹 거기에 놓앙, 이제 시간 뒈면은 관 더끄민 목시는 걸로 끗이라.(관 안을 깨끗하게 발라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놓아서, 이제 시간 되면 관 덮으면 목수는 그걸로 끝이야.)
112027 @ 음.(음.)
112027 #6 또 이서. 무사게 목시게 입관 헐 때는 누게 이름 막 거 ᄀᆞᆯ으민.(또 있어. 왜 목수가 입관 할 때는 누구 이름 막 거 말하면.)
112027 #5 듯날 영장, 게메 목시가 경 헤영.(뒷날 영장, 글쎄 목수가 그렇게 해서.)

271) '피력'은 '피력떡'을 말하는데 장지에서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눠 주는 떡을 말한다.

112027 #6 곧주게.(말하지.)
112027 #5 못 볼 사름을 거기 보지 말렌 헌 택일에 무신 생, 이름으로 누게 보지말렌은 아녀고 무신 생 무신 생은 보지 마라라.(못 볼 사람을 거기 보지 말라고 한 택일에 무슨 생, 이름으로 누구 보지 말라고는 않고 무슨 생 무슨 생은 보지 마라라.)
112027 @ 음.(음.)
112027 #5 영 ᄒᆞ면은, 그 불르는 사름이 '무신 생 잇소!', 영 ᄒᆞ면은 목시가 거기서 '없소!', 헹 대답 ᄒᆞ주게.(이렇게 하면, 그 부르는 사람이 '무슨 생 있소?', 이렇게 하면 목수가 거기서 '없소!', 해서 대답 하지.)
112027 @ 음.(음.)
112027 #5 또 무신 생 잇소?, ᄒᆞ민 없소, ᄒᆞ민 이놈으 문세가 허멩이문세로구나, ᄒᆞ민.(또 무슨 생 있소? 하면 없소, 하면 이놈의 문서가 허수아비문서로구나, 하면.)
112027 #6 시상만사 허세로구나.(세상만사 허사로구나.)
112027 @ 시상만사?(세상만사?)
112027 #5 허세로구나.(허사로구나.)
112027 @ 허사로구나, 허면서 못 쳐부는 거꽈?(허사로구나, 하면서 못 쳐버리는 겁니까?)
112027 #6 어, 닥닥 못 치고 못 박아부는 거. 우리 ᄀᆞ뜨민 집 못 박듯 닥닥 박아부는 거.(어, 탁탁 못 치고 박아버리는 거. 우리 같으면 집 못 박듯 탁탁 박아버리는 거.)
112027 #5 경ᄒᆞ민은 듯날은 목시가 그 개광문[272]을 달롸. 그 지금 그 구뎅이를 파주게. 목시가 강 파근에 그 하관 헤여근에 ᄒᆞ면은 목시는 걸로 끗이라.(그러면 뒷날은 목수가 그 '개광문'을 다루지. 그 지금 그 구덩이를 파지. 목수가 가서 파서 그 하관해서 하면 목수는 걸로 끝이야.)
112027 @ 음.(음.)
112027 #5 게민 그땐 동네사름덜이 봉분도 다 멘들곡 동네사름덜이.(그러면 그땐 동네사람들이 봉분도 다 만들고 동네사람들이.)
112027 @ 음.(음.)
112027 #5 요즘은 뭐 장의사 헤근엥에 멘들민 알앙 다 헴주마는.(요즘은 뭐 장의사 해서 만들면 알아서 다 하지만.)
112027 @ 그 관 놀 때, 관을 놓고 그 우에 뭐 또 까는 거 뭐꽈?(그 관 놓을 때, 관을 놓고 그 위에 뭐 또 까는 거 뭡니까?)
112027 #6 칠성판. 아, 멩전 닮은 거 끌지 아넘니까게. 그 더꺼근에. 관 우의 멩전.(칠성판. 아, 명정 닮은 거 깔지 않습니까. 그 덮어서. 관 위에 명정.)
112027 @ 개판이렌 헙니까?(횡대라고 합니까?)
112027 #6 개판 더끄고.(횡대 덮고.)
112027 #5 개판.(횡대.)
112027 @ 그건 어떤 무슨 나무로 어떵 헹 만드는 거마씸?(그건 어떤 무슨 나무로 어

272) '개광문'은 뫼를 쓸 때 방향을 바로 잡아 관을 넣을 자리인 광중을 파는데 그 자리를 말한다.

떻게 해서 만드는 건가요?)
112027 #5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27 @ 예.(예.)
112027 #5 막 치레ᄒᆞ는 집인 뽕낭이나.(막 치레하는 집은 뽕나무나.)
112027 @ 예.(예.)
112027 #5 에, 것ᄀᆞ라 뭐엔 낭이라 ᄒᆞ는지, 그 질긴 낭덜이 잇주게. 저 뽕낭, 귀까시낭, 이런 썩지 아녀는 낭덜.(에, 것보고 무슨 나무라고 하는지, 그 질긴 나무들이 있지. 저 뽕나무, 꾸지뽕나무, 이런 썩지 않는 나무들.)
112027 @ 노가리 ᄀᆞ튼 거마씸?(주목 같은 거요?)
112027 #5 어, 노가리. 그런 거 허다가 요즘은 뭐 저, 제밤낭.(어, 주목. 그런 거 하다가 요즘은 저, 구실잣밤나무.)
112027 @ 예, 제밤낭.(구실잣밤나무.)
112027 #5 제밤낭 ᄒᆞ고, 요즘은 저 장의사에 매껴부난 ᄒᆞ는 거 보니까 전부 소낭.(구실잣밤나무 하고, 요즘은 저 장의사에 맡겨버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전부 소나무.)
112027 @ 소나무로예? 음. 경헷구나예?(소나무로요? 음. 그랬군요?)
112028 @ 그러면 이제 그 입관도 다 허고, 그 다음엔 수의는 입관허기 전에 수의는?(그러면 이제 그 입관도 다 하고, 그 다음엔 수의는 입관하기 전에 수의는?)
112028 #5 전부 다 집에서.(전부 다 집에서.)
112028 @ 집에서 만들앙예? 수의는 뭘로 무슨 천으로?(집에서 만들어서요? 수의는 뭐로 무슨 천으로?)
112028 #6 베로, 베로.(베로, 베로.)
112028 @ 베로 헷수과?(베로 했습니까?)
112028 #6 응.(응.)
112028 @ 베는 사당예?(베는 사다가요?)
112028 #5 노인네 이시면은 미리 준비헹 나둬.(노인네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놔둬.)
112028 #6 베 상 나두주게.(베를 사서 놔두지.)
112028 @ 그 베를 사지 안 헹 직접 삼으로 짓진 안헷수과?(그 베를 사지 안 해서 직접 삼으로 짓진 않았습니까?)
112028 #5 엿날에는 삼으로 헤낫주게.(옛날에는 삼으로 했었지.)
112028 @ 삼춘네는 혹시 그거 하는 거 봐낫수과?(삼촌네는 혹시 그거 하는 거 봤었습니까?)
112028 #5 아, 우리 바낫주게. 집이서 짜는 거.(아, 우리 보았었지. 집에서 짜는 거.)
112028 @ 어머니가 짜낫수과?(어머니가 짰었습니까?)
112028 #5 어, 우리 어머니네가 허는 거 봐난.(어,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거 봤었어.)
112028 #6 우리 씨어머닌 그 짠 걸로 무껑은에 가서.(우리 시어머닌 그 짠 걸로 묶어서 갔어.)
112028 @ 아, 본인이 짠 걸로.(아, 본인이 짠 걸로.)

112028 #6 어. 짠 걸로.(어, 짠 걸로.)
112028 @ 기구나예. 그때 헷던 그 베클이라던가 물레 ᄀᆞ튼 거 다 데껴벳수과?(그렇군요. 그때 했던 그 베틀이라던가 물레 같은 거 다 던져버렸습니까?)
112028 #6 언제라게.(언제야.)
112028 #5 건 지금 어디 놔둔 듸 엇일 거라. 박물관이나 잇주.(건 지금 어디 놔둔 데 없을 거야. 박물관이나 있지.)
112028 @ 박물관예? 음, 상복은 어떵 마련헷수과?(박물관이요? 음, 상복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2028 #5 상복?(상복?)
112028 @ 예.(예.)
112028 #5 거는, 추상집이서, 추상.(거는 초상집에서, 초상.)
112028 #6 이녁 부모 모시민 우리가 부모 모션 사난에, 우리가 알앙 그거 다 베 사다근에 우리가 다 만들어근에 상제덜 다 입전.(이녁 부모 모시면 우리가 부모 모셔서 사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거 다 베 사다가 우리가 다 만들어서 상제들 다 입혔지.)
112028 @ 상제도 베로 헷수과?(상제도 다 베로 했습니까?)
112028 #6 으, 베로 입전.(응, 베로 입혔지.)
112028 @ 광목으로 안 헤영예?(광목으로 안 해서요?)
112028 #6 광목으로 아년.(광목으로 않았어.)
112028 #5 모자도, 모자 헤저라, 두건.(모자도, 모자라고 해졌네, 두건.)
112028 @ 두건예?(두건이요?)
112028 #6 다 베로헨.(다 베로 했어.)
112029 @ 상장은 어떵 허고, 집동은 어떵 마련헷수과? 상장.(상장은 어떻게 하고, 집동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상장.)
112029 #5 상장은 동쪽 부락에 이서서.(상장은 동쪽 부락에 있었어.)
112029 @ 예.(예.)
112029 #5 그거 메고 갈 그 메는 거. 다 부락에 그땐 이섯주게.(그거 매고 갈 그 매는 거. 다 부락에 그땐 있었지.)
112029 @ 어디 보관헤낫수과?(어디 보관했었습니까?)
112029 #6 저디, 학교 아래도 보관헤낫지양? 저 옛날 학교 아래 집 이서낫어.(저기, 학교 아래도 보관했었지요? 저 옛날 학교 아래 집 있었었어.)
112029 #5 상엿집이라고 헤서 좀 사름 사는 딜로 조끔 떨어진 듸, 동떨어진 듸 요멘흔 집을 짓어.(상엿집이라고 해서 좀 사람 사는 데서 조끔 떨어진 데, 동떨어진 데 요만한 집을 지어.)
112029 @ 옛날에도 상엿집이렌 헷수과? 생이집이렌 안 헷수과?(옛날에도 상엿집이라고 했습니까? '생잇집'이라고 안 했습니까?)
112029 #6 생잇집, 생잇집. 저기 저 누구 죽어분 듸 살아난 생이밧이렌 ᄀᆞᆯ아난.(상엿집, 상엿집. 저기 저 누구 죽어버린 데 살아난 상여밭이라고 말했던.)

112029 #5 생여, 생잇집이렌 상엿집.(상여, 상엿집이라고 상엿집.)
112029 @ 상여, 생잇집예?(상여, 상엿집이요?)
112029 #6 음.(음.)
119029 @ 그 짚동은 뭐꽈? 짚동, 짚동.(그 짚동은 뭡니까? 짚동, 짚동.)
112029 #5 찝동[273]?(짚동?)
112029 @ 예. 상여 멜 때.(예, 상여 맬 때.)
112029 #6 아, 그 영 메영 가는 사름ᄀᆞ라 짚동이엔 헷인가?(아, 그 이렇게 매서 가는 사람보고 짚동이라고 했는가?)
112029 @ 메는 그거는 어떵 마련헷수과?(매는 그거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2029 #5 그 마련은 다 거기 그 다 줄 헹은에 다.(그 마련은 다 거기 그 다 줄 해서 다.)
112029 @ 줄은 무시걸로 헷수과?(줄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112029 #6 새, 새로.(띠, 띠로.)
112029 @ 새로.(띠로.)
112029 #5 새로 줄 메영, 그거 양쪽으로 쭉 ᄒᆞ게시리 영 사람 어깨에 영 메영가게끔 헤놩, 조꼼 잘사는 집안에는 거길 다시 광목으로 쫙 영 양쪽에 헤영.(띠로 줄 매서, 그거 양쪽으로 쭉 하게끔 이렇게 사람 어깨에 이렇게 매어서가게끔 해 놓아, 조금 잘사는 집안에는 거길 다시 광목으로 쫙 이렇게 양쪽에 해서.)
112029 @ 잘사는 집에.(잘사는 집에.)
112029 #5 아, 건 잘사는 집에. 경 헤영 메영 가는 거주.(아, 그건 잘사는 집에. 그렇게 해서 매서 가는 거지.)
112029 @ 미리 생잇집에 이서마씸, 그게?(미리 상엿집에 있나요, 그게?)
112029 #5 생잇집에 기구덜은 잇스니까.(상엿집에 기구들은 있으니까.)
112029 @ 예.(예.)
112029 #6 영장 아시 날, 일폿 날, 일폿 날 거 만들엇주.(영장 전날, 일포제 날, 일포제 날 거 만들었지.)
112029 #5 대게 줄 ᄀᆞ튼 건 그날 아침에 다 멘, 뒷날 나가는 아침에 꾸미게 뭰 거라.(대게 줄 ᄀᆞ튼 건 그날 아침에 다 멘, 뒷날 나가는 아침에 꾸미게 된 거야.)
112029 @ 그 찍이 엇이민마씨? 그 찍이 새찍이 엇이민?(그 짚이 없으면요? 그 짚이 띠짚이 없으면?)
112029 #6 새찍 다 마련헹 나두어근에, 마련헹 놧당 ᄒᆞ주.(띠짚 다 마련해서 놔둬서, 마련해 놔뒀다가 하지.)
112029 @ 기구나예?(그렇군요?)
112029 #5 경 헹 줄 멘들아, 줄비엉[274].(그렇게 해서 줄 만들어, '줄비어'서.)

---

273) '찝동'은 상제 앞에 늘 놓아 두는 상장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인데, 달리 '북세미', '북시미', '찝동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질문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74) '줄 비다'는 집줄을 만들기 위하여 먹이는 각단을 호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112030 @ 아까 그 두건 말씀하셔신디예? 두건하고 복치마는 마찬가지 그 천 갖당 만들어마씨?(아까 그 두건 말씀하셨는데요? 두건하고 복치마는 마찬가지 그 천 갖다가 만들어요?)
112030 #6 어, 천으로 만들아.(어, 천으로 만들어.)
112030 @ 직접 만들잖아예?(직접 만들잖아요?)
112030 #6 어, 만들앙 헤여.(어, 만들어서 해.)
112030 @ 만들어서 두건은 누구안티까지 줍니까?(만들어서 두건은 누가한테까지 줍니까?)
112030 #6 권당덜 다 주어. 우린 권당덜 다 주어.(권당들 다 줘. 우린 권당들 다 줘.)
112030 @ 복치마는마씨?(복치마는요?)
112030 #6 복치마는 상제덜만.(복치마는 상제들만.)
112030 @ 상제만?(상제만?)
112030 #6 여자상제영 남자 웨손ᄁᆞ지.(여자상제하고 남자 외손까지.)
112030 @ 복치마를 뭐렌 ᄀᆞᆯ앗수과?(복치마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30 #6 복치메엔 ᄀᆞᆯ앗주.('복치메'라고 말했지.)
112030 @ 복치메엔예?('복치메'라고요?)
112030 #6 응.(응.)
112030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2030 #6 응.(응.)
112031 @ 아까 그 또 그 저기 돌아가시면은 풋죽도 쑤잖아예?(아까 그 또 그 저기 돌아가시면 팥죽도 쑤잖아요?)
112031 #6 어, 풋죽도 쒀.(어, 팥죽도 쒀.)
112031 @ 풋죽은 누가, 무사 쏩니까?(팥죽은 누가, 왜 쏩니까?)
112031 #6 그, 그 풋죽은 똑 쒓는데 그 이젠 안 쒀는 사람도 잇주마는 구신이, 엿날에는 풋죽 구신이 ᄒᆞ쏠.(그, 그 팥죽은 꼭 쒔는데 그 이젠 안 쑤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이, 옛날에는 팥죽 귀신이 조금.)
112031 #5 아니, 그게 아니고.(아니, 그게 아니고.)
112031 @ 예.(예.)
112031 #5 죽을 풋죽으로만 쑤렌 흔 게 아니 이건.(죽을 팥죽으로만 쑤라고 한 게 아니 이건.)
112031 @ 예.(예.)
112031 #5 워낙 사름이 죽엉 바쁘니까.(워낙 사람이 죽어서 바쁘니까.)
112031 @ 예.(예.)
112031 #5 바쁘니까 밥ᄒᆞ는 거 보단 아메도 죽 쑤는 게 쉬웟던 모양이지. 경ᄒᆞ기 전에는 죽을 먹엇주게. 저 입관ᄒᆞ기 전에는.(바쁘니까 밥하는 거 보단 아무래도 죽 쑤는 게 쉬웠던 모양이지. 그렇기 전에는 죽을 먹었지. 저 입관하기 전에는.)

달리 '집줄비다'라고 한다.

112031 #6 에구, 풋은 구신을 방지ᄒᆞ는 그. 입관ᄒᆞ기 전에는 죽는 날로부떠.(에구, 팥은 귀신을 방지하는 그. 입관하기 전에는 죽는 날로부터.)
112031 @ 아까 구신이 안 좋아허난.(아까 귀신이 안 좋아하니까.)
112031 #6 풋이 구신이 ᄒᆞ쏠 저 뭐ᄒᆞ는 것이주게.(팥이 귀신이 조금 저 뭐하는 것이지.)
112031 @ 아, 게난 옛날 동화책 읽다보면 도깨비나 귀신이 이제 풋 싫어헤가지고 풋죽 쑤고 하잖아예?(아, 그러니 옛날 동화책 읽다보면 도깨비나 귀신이 이제 팥 싫어해가지고 팥죽 쑤고 하잖아요?)
112031 #6 게난 이 저 심방을 와가나도 그 풋을 막 뿌리는 거야. 심방이 왕 가불 때는 그 풋을 다 집 안네 다 뿌리는 거라. 구신 방지헌덴.(그러니 이 저 무당이 와갔어도 그 팥을 막 뿌리는 거야. 무당이 와서 가버릴 때는 그 팥을 다 집 안에 다 뿌리는 거야. 귀신 방지한다고.)
112031 @ 아예 ᄀᆞ찌 나가불렌예?(아예 같이 나가버리라고요?)
112031 #5 방시로.(방법으로.)
112031 #6 구신 나가불렌, 방시로.(귀신 나가버리라고, 방법으로.)
112032 @ 성복제도 헤낫수과?(성복제도 했었습니까?)
112032 #6 성복제 헤연.(성복제 했어.)
112032 #6 성복제 ᄒᆞ주게.(성복제 하지.)
112032 @ 성복젠 언제 어떵 허는 거꽈?(성복젠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32 #6 성복제는 그, 거.(성복제는 그, 거.)
112032 #5 장례 옷 ᄀᆞ튼 거, 두건 ᄀᆞ튼 거 문딱 멘들앙.(장례 옷 같은 거, 두건 같은 거 모두 만들어서.)
112032 @ 예.(예.)
112032 #5 두건도 다 테와주곡.(두건도 다 태워주고.)
112032 @ 예.(예.)
112032 #5 다 헤놔근에.(다 해놓고.)
112032 @ 예.(예.)
112032 #5 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 성복제.(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 성복제.)
112032 @ 아, 기꽈?(아, 그래요?)
112032 #5 죽엉 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죽어서 처음으로 제 지내는 게.)
112032 #6 입관 헤불민.(입관 해버리면.)
112032 @ 성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꽈?(성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12032 #6 성복이라는 것이 그때부떠 그 복을 쓴다.(성복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그 복을 쓴다.)
112032 #5 어, 복을 쓴다.(어, 복을 쓴다.)
112032 @ 아, 음. 그렇구나예? 복을 쓰는 거구나예?(아, 음. 그렇군요? 복을 쓰는 거군요?)

112033 @ 옛날에는 영장 허기 전에 전날 일포제 헷잖아예? 무사 일포제를 헤신고예? 그리고 일포제는 다 장례식 전날은 무조건 일포꽈?(옛날에는 영장 하기 전에 전날 일포제 했잖아요? 왜 일포제를 했을까요? 그리고 일포제는 다 장례식 전날은 무조건 일폽니까?)

112033 #5 어.(어.)

112033 #6 무조건 일포 헤여.(모주건 일포제 해.)

112033 @ 무사 일포제렌 헤신고예?(왜 일포제라고 했을까요?)

112033 #5 거는 거 전날에 ᄒᆞ는 거는 아마 동네사름이든 친촉, 멀리 사는 친촉들이든 그듸 와근에 의논ᄒᆞ는 날로 정ᄒᆞᆫ 거 ᄀᆞ타.(거는 그 전날에 하는 거는 아마 동네사람이든 친척, 멀리 사는 친척들이든 거기 와서 의논하는 날로 정한 거 같아.)

112033 @ 음.(음.)

112033 #5 경 헹 일폿날은 저녁 때예 해가 떨어질 때 뒈면은 일폿제를 지넷주게.(그렇게 해서 일폿날은 저녁 때 해가 떨어질 때 되면 일포제를 지냈지.)

112033 @ 그렇구나예. 아, 제를예? 해 떨어질 때.(그렇군요. 아, 제를요? 해 떨어질 때.)

112034 @ 아까는 잔치헐 때 부지 허젠 허면.(아까는 잔치할 때 부조 하려고 하면.)

112034 #6 응.(응.)

112034 @ 보리쏠 ᄒᆞᆫ 말, 곤쏠 두 뒈, 이런 식으로 헷잖아예?(보리쌀 한 말, 흰쌀 두 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112034 #6 응.(응.)

112034 @ 거믄 영장 낫을 때 부지는 어떵 허고 조문은 누게까지 왓수과?(그러면 영장 났을 때 부조는 어떻게 하고 조문은 누구까지 왔습니까?)

112034 #6 떡, 빵. 빵 사 아정오랏어, 제물떡[275]으로.(떡, 빵. 빵 사서 가져왔어, '제물떡'으로.)

112034 #5 제물떡으로.('제물떡'으로.)

112034 @ 제물떡을 헹 가정완마씨?('제물떡'을 해서 가져왔어요?)

112034 #6 어. 제물떡으로 차반지에 헤아저근에, ᄀᆞᆫ대구덕[276]에.(어. '제물떡'으로 차반지에 해가지고, 'ᄀᆞᆫ대구덕'에.)

112034 @ 아.(아.)

112034 #5 제물떡 것ᄀᆞ라 ᄒᆞᆫ 고령이엔 ᄒᆞ주, 제물떡 ᄒᆞᆫ 고령[277] 헹 간다, 헹 ᄒᆞ는 거고, 남자는 또 고기, 고기 헤근에 끌럭지[278] 영 싸근에.('제물떡' 것보고 한 '고령'이라고 하지, '제물떡' 한 '고령' 해서 간다, 해서 하는 거고, 남자는 또 고기, 고기 해서 '끌럭지' 이렇게 싸서.)

---

275) '제물떡'은 제사나 굿 따위의 의례에 올리는 떡을 말한다.
276) 'ᄀᆞᆫ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277) '고령'은 대오리나 차풀의 줄기로 엮어서, 채롱보다 통이 아주 얕고 작게 만든 그릇을 말한다.
278) '끌럭지'는 띠, 짚 등을 한 줌 정도 해서 그 양쪽 끝을 묶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싸 넣는 꾸러미를 말하는데 달리 '끌레기', '끌르기'라고 한다.

112034 #6 제숙, 찍으로 싸근에.(제숙, 짚으로 싸서.)
112034 #5 찍으로 싸. 겡 헹 강, 상에 올령 절ᄒᆞ는 거라.(짚으로 싸. 그렇게 해서 가서, 상에 올려서 절하는 거야.)
112034 @ 게민 그걸로 일포 때 나눠 먹는 거꽈?(그러면 그걸로 일포제 때 나눠 먹는 겁니까?)
112034 #6 빵은 나눠 먹지.(빵은 나눠 먹지.)
112034 #5 제물떡 헹 간 거야 나눠 먹지마는 거 끌럭지에 궤기 싼 거는 거 바짝바짝ᄒᆞᆫ 요멘ᄒᆞᆫ 거 ᄒᆞ나, 먹을 거의 딱딱ᄒᆞᆫ 거 요멘이 ᄒᆞᆫ 거 나눠 먹곡 말곡 ᄒᆞᆯ 게 어디서.('제물떡' 해서 간 거야 나눠 먹지만 거 '끌럭지'에 고기 싼 거는 거 바짝바짝 한 요만한 거 하나, 먹을 거 딱딱한 거 요만한 거 나눠 먹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112034 @ 아.(아.)
112034 #5 제숙[279]으로 쓰는 거주, 제숙으로.('제숙'으로 쓰는 거주, '제숙'으로.)
112034 @ 제숙으로? 일포 때는 뭐 헤 먹엇수과? 게믄. 오는 사람안틔 먹을 건 줘야 뒐 거 아니꽈?('제숙'으로? 일포제 때는 뭐 해서 먹었습니까? 그러면. 오는 사람에게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12034 #6 국수허곡, 밥도 허곡. 밥허는 사름도 잇곡, 국수허는 사름도 잇곡 허주.(국수하고, 밥도 하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국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112034 @ 밥도 먹고, 국수도 먹긴 하는데?(밥도 먹고, 국수도 먹긴 하는데?)
112034 #6 밥은 조반에 헹 주곡, 또 정심때에 ᄒᆞ는 사름은 국수헹 주고.(밥은 조반에 해서 주고, 또 점심때에 하는 사람은 국수해서 주고.)
112034 @ 게믄 그 조문 온 사람덜 떡을 다 ᄒᆞᆫ 고령씩 가져오면.(그러면 그 조문 온 사람들 떡을 다 한 '고령'씩 가져오면.)
112034 #6 그거 다 나눠먹지.(그거 다 나눠먹지.)
112034 @ 그 작산 떡 다 나눠먹어마씨?(그 많은 떡 다 나눠먹어요?)
112034 #6 응. 다 나눠 먹지. 밧듸 아정강도.(응. 나눠 먹지. 밭에 가져가서도.)
112034 #5 그날 밤에 둣날 영장 날에, 방상덜이영 그날 다 모이잖녀? 그거 다 나눠 먹주게.(그날 밤에 뒷날 영장 날에, 일가붙이들과 그날 다 모이잖아? 그거 다 나누어 먹지.)
112034 @ 거믄 그 떡을 한 고령씩 허젠허민 집에서 다 쪄근에 왓수과?(그러면 그 떡을 한 '고령'씩 하려하면 집에서 다 쪄서 왔습니까?)
112034 #5 쪄냇주게 집이서. 그 당시야 집이서 헷주.(쪄냈지 집에서. 그 당시야 집에서 했지.)
112034 #6 집이서 쪙 온 사름도 잇곡, 또 ᄆᆞ믈로 만듸ᄀᆞ찌 만듸 만들앙도 오는 사름도 잇고.(집에서 쪄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메밀로 만두같이 만디 만들어서도 오는 사람도 있고.)
112034 @ 만듸로? 빙떡이 아니고?(만두로? 빙떡이 아니고?)

279) '제숙'은 제상에 올리는 생선류를 말한다.

112034 #5 빙떡도 헹 오는 사름도 잇긴 잇는디 만듸가 하곡, 기자 빵이.(빙떡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만두가 많고, 그저 빵이.)
112034 #5 춤, 생각ᄒᆞ는 사름은 친떡.(참, 생각하는 사람은 시루떡.)
112034 @ 친떡도 헤오고예?(시루떡 해오고요?)
112034 #6 빵도 엿날, 시방 밀가루가 아니지.(빵도 옛날, 시방 밀가루가 아니지.)
112034 @ 맞아예.(맞아요.)
112034 #6 엿날 밀가루.(옛날 밀가루.)
112034 #5 토종.(토종.)
112034 #6 벌경헌 밀가루 토종 밀가루 헤근에.(벌그레한 밀가루 토종 밀가루 해서.)
112035 @ 어, 그 다음은 이제 토신, 영장 묻기 전에 토신제를 드려야 뒈는 거잖아예?(어, 그 다음은 이제 토신, 영장 묻기 전에 토신제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112035 #6 어, 토신제.(어, 토신제.)
112035 @ 토신제는 누가 강, 어디 강 언제 헷수과?(토신제는 누가 가서, 어디 가서 언제 했습니까?)
112035 #5 거는, 것도 멧 시에 토신제 지네렝 헌 택일기[280]에 다 적어저서.(그거는, 것도 몇 시에 토신제 지내라고 한 '택일기'에 다 적어졌어.)
112035 @ 예.(예.)
112035 #5 택일헤 올 때에 멧 시, 대게 밤 시간에 ᄒᆞ렌 ᄒᆞ주.(택일해서 올 때에 몇 시, 대게 밤 시간에 하라고 하지.)
112035 @ 예.(예.)
112035 #6 내일 영장헐 거민 오늘 아척에.(내일 영장할 거면 오늘 아침에.)
112035 #5 게민 영장밧듸 아니 뎅긴 사람이 가서 제를 지내여게.(그러면 장지에 아니 다닌 사람이 가서 제를 지내지.)
112035 @ 영장밧듸 안 다녓던 사람마씨?(장지에 안 다녔던 사람이요?)
112035 #6 응.(응.)
112035 #5 부정 아년 사름.(부정 안탄 사람.)
112035 @ 아, 가족이 가는 게 아니고마씨?(아, 가족이 가는 게 아니고요?)
112035 #6 응.(응.)
112035 #5 응, 부정ᄒᆞᆫ.(응, 부정한.)
112035 #6 가족이라도 권당이라도 영장밧듸, 우리 집이 영장 낫이민 그디 뎅기지 말앗다근에 제 지내레 가고.(가족이라도 권당이라도 장지, 우리 집이 영장 났으면 거기 다니지 말았다가 제 지내러 가고.)
112035 #5 가지 말앗당 제 지내레 가렌 ᄒᆞ주게.(가지 말았다가 제 지내러 가라고 하지.)
112035 @ 아.(아.)
112035 #5 게민 제물도 영장집이서 출리지 아녕.(그러면 제물도 초상집에서 차리지

280) '택일기'는 큰일 하는 날짜를 받아 적어 놓은 종이를 말한다.

않고.)
112035 @ 예.(예.)
112035 #5 딴 듸서 출령.(다른 데서 차려.)
112035 @ 거난마씨.(그러게요.)
112035 #5 거 토신, 토신안틔 ᄒᆞ는 제니까.(그 토신, 토신한테 하는 제니까.)
112035 #6 ᄃᆞᆨ, 장ᄃᆞᆨ ᄒᆞᆫ ᄆᆞ리허곡.(닭, 수탉 한 마리하고.)
112035 #5 ᄃᆞᆨ ᄒᆞ곡.(닭 하고.)
112035 #6 제물 ᄒᆞ곡.(제물 하고.)
112035 @ 장ᄃᆞᆨ, ᄃᆞᆨ은 어떵 솔망마씨?(수탉, 닭은 어떻게 삶아서요?)
112035 #6 아니, 아니. 셍 거. 셍 거 가저강.(아니, 아니. 산 거, 산 거 가져가서.)
112035 #5 셍 걸로 ᄒᆞ곡, 제숙도 셍걸로. 제숙도 전부 셍걸로. 죽엉 ᄒᆞ는 게 없어. 전부 셍 걸로.(산 걸로 하고, '제숙'도 날걸로. '제숙'도 전부 날걸로. 죽어서 하는 게 없어. 전부 날걸로.)
112035 @ 아, 안 죽은 ᄃᆞᆨ마씨?(아, 안 죽은 닭이요?)
112035 #6 응. 안 죽은 ᄃᆞᆨ 가저강 거기서 제 지내 낭, 야게기 탁 끈엉 그듸 묻어불곡 그걸로 거.(응. 안 죽은 닭 가져가서 거기서 제 지낸 뒤에, 모가지 탁 잘라서 거기 묻어 버리고 그걸로 거.)
112035 @ 아.(아.)
112035 #5 겡 그거는 집이도 아냐저오곡, 그디서 드르에서 솔망 먹어. 집이 아니 가저온덴 헤나서.(그렇게 해서 그거는 집에도 안 가져오고, 거기서 들에서 삶아서 먹어. 집이 안 가져온다고 했었어.)
112035 @ 아, 게믄 이제 궤기도 다 셍걸로.(아, 그러면 이제 고기도 다 날걸로.)
112035 #5,6 으, 셍걸로.(응, 날걸로.)
112035 @ 게민 떡 ᄀᆞ튼 거 안 헤근에 과일 ᄀᆞ튼 거 가저가시키여예?(그러면 떡 같은 거 안 해서 과일 같은 거 가져갔겠네요?)
112035 #5 어, 과일로. 떡은 아녀서, 그때.(어, 과일로. 떡은 않았어, 그때.)
112035 #6 과일ᄒᆞ고, ᄃᆞᆨᄒᆞ고 밥.(과일하고, 닭하고.)
112035 @ 밥은 헹 가신게예?(밥은 해서 갔겠네요?)
112035 #5 또 동태도 셍걸로 가정가고.(또 동태도 날걸로 가져가고.)
112035 #6 동텐가 멩텐가 시방 파는 거 멩테 그런 거게.(동탠가 명탠가 시방 파는 거 명태 그런 거지.)
112035 #5 그런 거 다 셍걸로.(그런 거 다 날걸로.)
112036 @ 어, 그다음엔예 그 상여가 나가젠 허면 상여꾼들이 잇잖우꽈예?(어, 그다음은요 그 상여가 나가려고 하면 상여꾼들이 있잖습니까?)
112036 #5 으, 동네 청년덜.(응, 동네 청년들.)
112036 @ 동네 청년들이 갓구나예? 따로 놉 쓰는 건 엇엇고예?(동네 청년들이 갔군요? 따로 놉 쓰는 건 없었고요?)

112036 #5 놉 비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다 알앙 나와.(놉 비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다 알아서 나오지.)
112037 @ 예. 그믄 이제 그 상여 관, 상여를 집에서부터 이제 그 장지까지 가는 거잖아예?(예. 그러면 이제 그 상여 관, 상여를 집에서부터 이제 그 장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112037 #6 응.(응.)
112037 @ 저기 산, 묻을 때까지예?(저기 봉분, 묻을 때까지요?)
112037 #6 응.(응.)
112037 @ 그디까지 갈 때 어, 누가 어떤 식으로 그니까, 상여를 동네 청년들이 메어 가젠 허잖아예?(거기까지 갈 때 어,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상여를 동네 청년들이 메어 가려고 하잖아요?)
112037 #6 응.(응.)
112037 @ 그러면 상장은 누가 들고?(그러면 상장은 누가 들고?)
112037 #6 아, 그건 종손이. 큰아덜.(아, 그건 종손이. 큰아들.)
112037 @ 큰아덜이.(큰아들이.)
112037 #5 큰아덜이 들고, 상제들은 두에 전부 따라가고.(큰아들이 들고, 상제들은 뒤에 전부 따라가고.)
112037 @ 그다음엔 노래 같은 걸 불럿잖아예?(그다음엔 노래 같은 걸 불렀잖아요?)
112037 #5 상엿소리. 상엿소리.(상엿소리. 상엿소리.)
112037 @ 상엿소리예? 옛날에도 상엿소리렌 헷수과?(상엿소리요? 옛날에도 상엿소리라고 했습니까?)
112037 #5 어, 생엿소리라고 ᄒᆞ는디.(어, 상엿소리라고 하는데.)
112037 @ 생엿소리. 누가 헷수과? 건.(상엿소리. 누가 했습니까?)
112037 #5 것도 동네사름덜이 가멍 ᄒᆞ는 거. 선소리 ᄒᆞ민.(것도 동네사름들이 가면서 하는 거. 선소리 하면.)
112037 @ 게난 선소리를 누가 헷수가?(그러니 선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112037 #5 동네사름이 거 잘ᄒᆞ는 사름이.(동네사름이 거 잘하는 사람이.)
112037 @ 잘허는 사름이 이서가지고?(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12037 #6 우리 홀 때는 누게 강훈이 하르방이 헷수과?(우리 할 때는 누구 강훈이 할아버지가 했습니까?)
112037 #5 어.(어.)
112037 #6 죽어빗주.(죽어버렸지.)
112037 #5 저 ᄒᆞ민은, 훗소리로 메영 강 사름덜이 훗소린 ᄒᆞ주게.(저 하면, 후렴으로 메어 가는 사람들이 후렴은 하지.)
112037 @ 선소리 헷던 사름 혹시 살아계신 분 엇수과?(선소리 했던 사람 혹시 살아계신 분 없습니까?)
112037 #6 죽언, 돌아가셔부런.(죽었어, 돌아가셔버렸어.)

112037 #5 게, 그 소리헐 중도 몰를 거라.(그래, 그 소리할 줄도 모를 거야.)
112037 #6 무시거홀 때 강훈이 하르방 살아낫수과?(무엇할 때 강훈이 할아버지 살았었습니까?)
112037 #5 살앗주게.(살았지.)
112037 #6 강훈이 하르방이 그 선소리 그 소리 헤실 거우다. 친묵이고 ᄒᆞ난에, 동넷 어른이고.(강훈이 할아버지가 그 선소리 그 소리 했을 겁니다. 친목이고 하니까, 동네어른이고.)
112038 @ 거민 이제 그 봉분 잇잖아예? 옛날 그 봉분은 뭐렌 골앗수과?(그러면 이제 그 봉분 있잖아요? 옛날 그 봉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38 #5 봉분.(봉분.)
112038 @ 그냥 봉분?
112038 #6 봉분.(봉분.)
112038 @ 봉분은 어떵 헹 만듭니까? 흑은 어디서 준비허고.(봉분은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흙은 어디서 준비하고.)
112038 #6 거기서 파근에.(거시서 파서.)
112038 @ 판 걸로 뒈어마씸?(판 걸로 되나요?)
112038 #6 그디 판 걸로 아니 뒈민 딴 듸서 파다근에 그레 놓아.(거기 판 걸로 안 되면 딴 데서 파다가 거기에 쌓지.)
112038 #5 예를 들어 이 밧듸 산 홀 적에는 구석에.(예를 들어 이 밭에 산 할 적에는 구석에.)
112038 @ 예.(예.)
112038 #5 제일로 구석진듸 흑을 동네사름들이 다 그걸 파멍, 멩텡이에 담앙.(제일로 구석진데 흙을 동네사람들이 다 그걸 파면서, 망태기에 담아서.)
112038 @ 예.(예.)
112038 #5 지어당 비우멍 다, 또 봉분 쌓는 사름은 ᄒᆞᆫ 서너 사름이 테로 입혀가멍 흑 비와가멍 헹 쌓는 거주.(져다가 부우면서 다, 또 봉분 쌓는 사람은 한 서너 사람이 떼로 입혀가면서 흙 부어가면서 해서 쌓는 거지.)
112038 #6 테도 이 벵듸서 곤 테로.(떼도 이 벌판에서 고운 떼로.)
112038 #5 곤 테로.(고운 떼로.)
112038 #6 이제는 다 육지 그 잔디 들어왕 헴주마는 우린 이디서 그자 그.(이제는 다 육지 그 잔디 들어와서 하지만 우린 여기서 그저 그.)
112038 #5 옛날에는 다 지방에서 봉은 동산엣 거.(옛날에는 다 지방에서 봉은 동산엣 거.)
112038 @ 봉은 동산에, 거 테들이 크는 데가 이서낫수과?(봉분은 동산에, 그 떼들이 크는 데가 있었습니까?)
112038 #5 뭐 칵 커낫주게, 뭐 다 경ᄒᆞ단 뭐.(뭐 칵 컸었지, 뭐 다 그러다가 뭐.)
112038 #6 응, 이서낫어. 우리 엿날 이 가세오름[281]에 거 막 헤낫주게.(응, 있었어.

우리 옛날 이 ‘가세오름’에 거 마구 했었지.)
112038 @ 가세오름에 거예? 봉분은 겅 헹 만들고.(‘가세오름에’ 거요? 봉분은 그렇게 해서 만들고.)
112039 @ 호충에 대헹 골아줍서. 호충.(호충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호충.)
112039 #6 호충[282]이 뭐라?(호충이 뭐야?)
112036 @ 호충.(호충.)
112039 #5 오충이 아니고?(오충이 아니고?)
112039 @ 예, 호충.(예, 호충.)
112039 #5 오충은 어린애이 죽은 무덤을 오충이라고 ᄒᆞ주게.(오충은 어린아이 죽은 무덤을 오충이라고 하지.)
112039 @ 아, 기꽈?(아, 그래요?)
112039 #5 잔디도 엇곡, 애기덜 ᄒᆞᆫ 대엿 술 미만에 죽은 애덜.(잔디도 없고, 아기들 한 대여섯 살 미만에 죽은 아이들.)
112039 @ 아.(아.)
112039 #6 그걸 오충이렌 ᄒᆞ주게.(그걸 오충이라고 하지.)
112039 @ 오충예?(오충이요?)
112039 #6 응, 오충.(응, 오충.)
112040 @ 그 장지에서는 상여꾼안틘 어떤 음식을 대접헷수과?(그 장지에서는 상여꾼 한텐 어떤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112040 #5,6 밥.(밥.)
112040 #6 가기 전이, 메영 갈 때 가다가 거리 멀메는 술 ᄒᆞᆫ 잔ᄒᆞ곡, 고기 뒈지고기.(가기 전에, 메어서 갈 때 가다가 거리가 멀면 술 한 잔하고, 돼지고기.)
112040 @ 예.(예.)
112040 #6 거곡 술안쥐, 빵 ᄒᆞ쏠씩 주멍 먹으렌.(그리고 술안주, 빵 조금씩 주면서 먹으라고.)
112040 #5 그건 아주 멀리 갈 때.(그건 아주 멀리 갈 때.)
112040 #6 멀리 갈 때.(멀리 갈 때.)
112040 @ ᄒᆞᆫ 대ᄋᆞ슷 참썩 경 갈 때는 경 ᄒᆞ곡, 경 안헐 땐 ᄒᆞᆫ 번에 강 내려놔동 점심을.(한 대여섯 참씩 그렇게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할 땐 한 번에 가서 내려놔두고 점심을.)
112040 #6 이디서 조반 먹엉 가니까 정심은 거기서 상제, 똘 이시민 똘 출려간 거, 출려간 거.(여기서 조반 먹어서 점심은 거기서 상제, 딸 있으면 딸 차려간 거, 차려간 거.)

281)‘가세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사이에 위치한 표고 202m, 넓이 30정보의 오름이다. 오름 모양이 중이 갓 쓴 정국,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가위처럼 생겼다는데 붙여진 이름이다.
282) ‘호충’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관入棺이나 하관下棺을 할 때에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제보자는 ‘호충’을 ‘오충’ 즉 어린아이 무덤으로 이해하였음을 밝혀둔다.

112040 #5 그디 가근에 미리 준비헹 놔둬, 점심 준비를. 겅 헹 멕여.(거기 가서 미리 준비해서 놔둬, 점심 준비를. 그렇게 해서 먹였어.)
112039 @ 그 저, 관을 놓잖아예?(그 저, 관을 넣잖아요?)
112039 #5 어.(어.)
112039 @ 개판 더픈 다음에 흑을 놓기 시작하잖아예?(개판 덮은 다음에 흙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112039 #6 음.(음.)
112039 @ 그축 할 때 그거를 보믄 안 뒈는 사람을 뭐렌 골음니까?(그처럼 할 때 그거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112039 #5 거, 거? 보지말렌 무신 생.(그거, 그거? 보지말라고 무슨 생.)
112039 @ 그걸 호충이렌 허는 거 닮은디예?(그걸 호충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112039 #5 그걸?(그걸?)
112039 @ 예.(예.)
112039 #5 건 모르겟는디. 무신 생 무신 생은 오지말라.(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생 무슨 생은 오지마라.)
112039 @ 오지말라, 보지말라 하잖아예? 그건 누가 허는 거꽈?(오지마라, 보지마라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112039 #5 보지말렌 ᄒᆞ지. 하관ᄒᆞ는 거를.(보지마라라고 하지. 하관하는 거를.)
112039 @ 게, 그건 누가 헙니까? 거는.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그래,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거는.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
112039 #6 아, 그디 목시가 하관헐 때 그.(아, 거기 목수가 하관할 때 그.)
112039 @ 입관은 그 시신을 놀 때지예?(입관은 그 시신을 놓을 때지요?)
112039 #6 하관 홀 때는 따로.(하관 할 때는 따로.)
112039 @ 하관 헐 때도?(하관 할 때도?)
112039 #6 아, 무신 생은 보지 말렌 뭐 응.(아, 무신 생은 보지 말라고 뭐 응.)
112039 @ 아까, 입관을 하관이렌 골아진 거 닮다.(아까, 입관을 하관이라고 말해진 거 같다.)
112039 #5 입관은 처음 죽엉 관에 놓는 게 입관이고.(입관은 처음 죽어서 관에 넣는 게 입관이고.)
112039 @ 입관이고, 하관헐 때도 목시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구나예?(입관이고, 하관할 때도 목수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군요?)
112039 #6 음, 음.(음, 음.)
112039 @ 기구나예. 아니 그 어떤 듸 보면 그 제관, 제 지내는 듸 총 감독하는 사람?(그렇군요. 아니 그 어떤 데 보면 그 제관, 제 지내는 데 총 감독하는 사람?)
112039 #5,6 도감.(도감.)
112039 @ 도감은 궤기 써는 사름 아니꽈?(도감은 고기 써는 사람 아닙니까?)
112039 #5 궤기 써는 사름이 엿날에는 총 책임이랏주.(고기 써는 사람이 옛날에는 총

책임이었지.)
112039 @ 아, 기꽈? 그런 사람이 누게는 궂이난 보지 말라 안 헷구나예? 목수가 헷구나예?(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는 궂으니까 보지 마라 안 했군요? 목수가 했군요?)
112039 #6 목시가 알앙.(목수가 알아서.)
112039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2039 #5 아니, 그 목시보다도 자기네 집인 일이니까 놈은 상관엇어.(아니, 그 목수보다도 자기네 집엣 일이니까 남은 상관없어.)
112039 @ 예.(예.)
112039 #5 상관엇고, 이녁 손지엔 ᄒᆞ던가, 뚤이엔 ᄒᆞ던가 아들이엔 ᄒᆞ던가.(상관없고, 이녁 손주라고 하던가, 딸이라고 하던가, 아들이라고 하던가.)
112039 @ 예.(예.)
112039 #5 요런 사름 내예서 오지말렌 ᄒᆞ면은 미리 골앙 낼라근엥에 그디 사도 그레 쳐다보지 말앙 저쪽으로 돌아가 불라.(요런 사람 내에서 오지마라라고 하면 미리 말해서 내일에는 거기에 서도 그리 쳐다보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가 버려라.)
112039 @ 음.(음.)
112039 #5 경허는 거주게.(그러는 거지.)
112039 #6 비껴 불라.(비켜 버려라.)
112039 @ 어떤 사람안틔 그추룩 골앗수과?(어떤 사람한테 그처럼 말했습니까?)
112039 #5 이녁, 예를 들러서 그 집안에.(이녁,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112039 @ 예.(예.)
112039 #5 요 집안에 영장이 나면은 이 집안에 종순이나.(요 집안에 영장이 나면 이 집안에 종손이나.)
112039 @ 예.(예.)
112039 #5 젤 어른이 이실 거 아녀?(제일 어른이 있을 거 아냐?)
112039 @ 예.(예.)
112039 #5 게민 이 사람이 택일을 헤다 놔근에 영 봉, 아이ᄀᆞ찌 무신 생 무신 생은 보지 말라.(그러면 이 사람이 택일을 해다 놓아서 이렇게 봐서, 아이같이 무슨 생 무신 생은 보지 마라.)
112039 @ 아, 안 맞은 사름은.(아, 안 맞은 사람은.)
112039 #5 보지 말라.(보지 마라.)
112039 @ 부정한 사름이 아니고. 띠가 안 맞앙 보지 말라, 기구나예?(부정한 사름이 아니고. 띠가 안 맞아서 보지 마라, 그렇군요?)
112039 #6 응.(응.)
112039 @ 기구나예.(그렇군요.)
112039 #6 응.(응.)
112041 @ 그다음엔 장지에서 영장 다 하고 봉분 다 하잖아예?(그다음엔 장지에서 영

장 다 하고 봉분 다 하잖아요?)
112041 #6 응.(응.)
112041 @ 이제 거기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안틔는 어, 어떵 헷수과?(이제 거기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한테는 어, 어떻게 했습니까?)
112041 #5 수고흔 사름이엔 흔 게.(수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112041 @ 예.(예.)
112041 #6 청년들이주게, 동네.(청년들이지, 동네.)
112041 #5 그때는 춤, 동네사름이 다 수고 헤부니 이거는 의무적으로 경 흔 걸로 ᄒᆞ고.(그때는 참, 동네사람이 다 수고 해버리니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하고.)
112041 @ 예.(예.)
112041 #5 이 정시라는 게 이서이. 요즘 ᄀᆞ트민 풍수지리 보는 사름.(이 지관이라는 게 있어. 요즘 같으면 풍수지리 보는 사람.)
112041 @ 예, 예예.(예, 예예.)
112041 #5 음, 그 사름을.(음, 그 사람을.)
112041 @ 그 사름을 정시렌 골앗수과?(그 사람을 지관이라고 말했습니까?)
112041 #5 응. 정시라고.(응, 지관이라고.)
112041 @ 아, 예.(아, 예.)
112041 #5 정시ᄒᆞ곡 목시안틔는 대접을 ᄒᆞ는 거주게.(지관하고 목수한테는 대접을 하는 거지.)
112041 @ 예.(예.)
112041 #5 정시안틔는 일폿 날.(지관한테는 일포제 날.)
112041 #6 떡ᄒᆞ곡 술ᄒᆞ곡.(떡하고 술하고.)
112041 #5 떡ᄒᆞ곡 술ᄒᆞ곡 돗다리ᄒᆞ곡 거 헹 가져가곡. 또 도감안틔도 겡 헤영 아져가곡.(떡하고 술하고 돼지다리하고 그거 해서 가져가고. 또 도감한테도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112041 @ 도감안테도.(도감한테도.)
112041 #5 또 장날 때 저, 목시가 제일 수고가 많지이?(또 장날 때 저, 목수가 제일 수고가 많지?)
112041 @ 예, 예예.(예, 예예.)
112041 #5 게 목수안틔는 거기서 에, 하관제라고 이서. 하관허기 전에 제 지내는 거.(그래 목수한테는 거기서 에, 하관제라고 있어. 하관하기 전에 제 지내는 거.)
112041 @ 예, 예.(예, 예.)
112041 #5 전부. 복신덜이니 권당덜 다 모여 놔근에 제지내는 거.(전부. 복신들이니 권당들 다 모여 놓고 제지내는 거.)
112041 @ 예.(예.)
112041 #5 그때 헤난 음식, 제물을.(그때 했던 음시그 제물을.)
112041 #6 음식.(음식.)

112041 @ 목시안틔?(목수한테?)
112041 #5 올려난 거를 전부 목시안틔.(올려난 거를 전부 목수한테.)
112041 #6 오고셍이[283] 출령 줘부러.('오고셍이' 차려서 줘버려.)
112041 @ 아, 기구나예. 옛날엔 목시가 잘도 대접받앗저예?(아, 그렇군요. 옛날엔 목수가 잘도 대접받았네요?)
112041 #6 이제는 돈으로 줨주마는.(이제는 돈으로 주지만.)
112041 #5 그때는 돈을 안 받거든. 요즘에야 다 돈으로 줨주마는.(그때는 돈을 안 받거든. 요즘에야 다 돈으로 주지만.)
112042 @ 영장 끗난 다음에 상 찰리잖아예?(영장 끝난 다음에 상 차리잖아요?)
112042 #6 음.(음.)
112042 @ 집에 왕 상 찰릴 때는.(집에 와서 상을 차릴 때는.)
112042 #6 음.(음.)
112042 @ 언제부터 상을 찰립니까?(언제부터 상을 차립니까?)
112042 #6 삼일동안 출리는 거주. 삼일동안.(삼일동안 차리는 거지. 삼일동안.)
112042 @ 삼일동안.(삼일동안.)
112042 #6 제지내영?(제지내서?)
112042 @ 예.(예.)
112042 #6 둣날, 영장헹 와시면 낼 아침, 막으면은 그때 못허곡 막지 아녀면 둣날부터 삼일동안 상 차리고.(뒷날, 영장해서 왔으면 낼 아침, 막으면 그때 못하고 막지 않으면 뒷날부터 삼일동안 상 차리고.)
112042 @ '막으면은'이 무슨 뜻이꽈?('막으면은'이 무슨 뜻입니까?)
112042 #6 상제들이 막아불민.(상제들이 막아버리면.)
112042 @ 무사?(왜?)
112042 #5 못 볼, 택일에 그.(못 볼, 택일에 그.)
112042 #6 못 볼 사름. 우리가.(못 볼 사람. 우리가.)
112042 #5 택일에, 예를 들어서 제를 둣날은 못ᄒᆞ겠다 ᄒᆞᆫ 걸 다 적엉 나와.(택일에, 예를 들어서 제를 뒷날은 못하겠다고 한 걸 다 적어서 나오지.)
112042 @ 아.(아.)
112042 #5 이 저 돌아가신 거 택일ᄒᆞ레 가민.(이 저 돌아가신 거 택일하러 가면.)
112042 #6 우리 아저씨가 숭상제[284]라근에 못 볼 때는 삼일 잇다가 또 날짜 봐근에.(우리 아저씨가 흉상제여서 못 볼 때는 삼일 있다가 또 날짜 봐서.)
112042 @ 아.(아.)
112042 #5 날이, 그거 사름이 그래서 ᄒᆞ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안 좋아서 둣날ᄒᆞ는 예가 많아.(날이, 그거 사람이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안 좋아서 뒷날 하는 예가 많아.)

283) '오고셍이'는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를 말한다.
284) '숭상제'는 '흉이 있는 상제'을 뜻하는데 망자와의 관계에서 띠가 맞지 않거나 입하관시 '호충'에 해당되는 상제를 말한다.

112042 @ 아, 경헷구나예? 사십구일동안 사십구재 안 헤근에 삼일 만 헷수과?(아, 그랬군요? 사십구일동안 사십구일재 안 해서 삼일 만 했습니까?)
112042 #6 응. 삼일 만.(응, 삼일 만.)
112043 #5 경 형 초ᄒᆞ루 보름.(그렇게 해서 초하루 보름.)
112043 #6 계속헤서.(계속해서.)
112043 @ 아, 초ᄒᆞ루 보름.(아, 초하루 보름.)
112043 #5 삭망을 헤낫주.(삭망을 했었지.)
112043 @ 언제까지 헷수과?(언제까지 했습니까?)
112043 #6 삼년동안.(삼년동안.)
112043 @ 삼년동안 소상, 대상.(삼년동안 소상, 대상.)
112043 #5 응, 대상ᄁᆞ지. 대상ᄒᆞᆯ 때ᄁᆞ지.(응, 대상까지. 대상할 때까지.)
112043 @ 삭망에는 삼일 헷지만 그 이후에 대상까지는 초ᄒᆞ루 보름을 삭망헹 올렷다는 거구나예?(삭망에는 삼일 했지만 그 이후에 대상까지는 초하루 보름을 삭망해서 올렸다는 거군요?)
112043 #5 ᄒᆞᆫ ᄃᆞᆯ에 두 번.(한 달에 두 번.)
112043 @ ᄒᆞᆫ ᄃᆞᆯ에 두 번예? 요즘은 안 헙니까?(한 달에 두 번이요? 요즘은 안 합니까?)
112043 #6 요센 아녀. 초ᄒᆞ루도 아녀. 아무것도.(요사인 안 해. 초하루도 안 해. 아무것도.)
112043 #5 그날도 아녕 끗나부는 사름이 한디.(그날도 안 해서 끝나버리는 사름이 많은데.)
112043 #6 그날 헹 끗나불어.(그날 해서 끝나버려.)
112044 @ 소상은 언제 헷고, 대상은 언제 헷수과?(소상은 언제 했고, 대상은 언제 했습니까?)
112044 #6 죽는 아시날 ᄒᆞ는 거주게. 오늘 죽엇으면은 넬. 어제 헤야주.(죽는 전날 하는 거지. 오늘 죽었으면 내일. 어제 해야지.)
112044 @ 언제? 그니까 몇 년 잇당?(언제?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112044 #5 예를 들어서 그 사름이 보름날 죽으면.(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보름날 죽으면.)
112044 #6 나흘 날, 열나흘 날.(나흘 날, 열나흘 날.)
112044 #5 열나흘 날에 소상을 ᄒᆞ는 거주.(열나흘 날에 소상을 하는 거지.)
112044 @ 아니 그니까 그 소상을.(아니 그러니까 그 소상을.)
112044 #6 응.(응.)
112044 @ 죽엉 보름 만에 허는 게 아니라.(죽어서 보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112044 #6 일 년 뒈사, 일 년.(일 년 돼야, 일 년.)
112044 @ 일 년 지나근에 첫 번째 허는 건 소상.(일 년 지나서 첫 번째 하는 건 소상.)

112044 #6 음.(음.)
112044 #6 그다음엔?(그다음엔?)
112044 #6 또 일 년 뒈근에 ᄒᆞ는 거 소상.(또 일 년 돼서 하는 거 소상.)
112044 #5 대상, 대상.(대상, 대상.)
112044 #6 대상.(대상.)
112044 @ 지금도 소상 대상 헙니까?(지금도 소상 대상 합니까?)
112044 #5 아녀.(안 해.)
112044 #6 아녀여. 이젠 그날 삭망도 아녀는 걸 이제.(안 해. 이젠 그날 삭망도 않는 걸 이제.)
112044 @ 그냥 제사만에?(그냥 제사만이요?)
112044 #6 응, 그자 그날 거기서 가근에 산에서 ᄆᆞᆫ딱 제 지네동 와근에 걸로 끗.(응, 그저 그날 거기서 가서 산에서 모두 제 지내두고 와서 걸로 끝.)
112045 @ 어, 토롱에 데헹 말헤줍서.(어, 토롱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12045 #5 토롱이엔 ᄒᆞᆫ 거는.(토롱이라고 한 거는.)
112045 @ 예.(예.)
112045 #5 택일이 없을 때.(택일이 없을 때.)
112045 @ 예.(예.)
112045 #5 엿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112045 @ 예.(예.)
112045 #5 좋은 터에 강 묻을라고.(좋은 터에 가서 묻으려고.)
112045 @ 예.(예.)
112045 #5 정시라고 아까 예기헷지이?(지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112045 @ 예.(예.)
112045 #5 그 풍수지리 보는 사름.(그 풍수지리 보는 사람.)
112045 @ 예.(예.)
112045 #5 그 사름을 빌어다근에.(그 사름을 빌어다가.)
112045 @ 예.(예.)
112045 #5 터 보레 멧 ᄃᆞᆯ을 뎅기는 거라. 멧 달.(터 보러 몇 달을 다니는 거라. 몇 달.)
112045 @ 음.(음.)
112045 #5 게 긋띄ᄁᆞ지 놔불민 그땐 냉장고도 엇고 뭐 ᄒᆞᆯ 때 썩어불 거 아니어.(그래 그때까지 내버리면 그땐 냉장고도 없고 뭐 할 때 썩어버릴 거 아니야.)
112045 @ 맞수다게.(맞습니다.)
112045 #6 임시 토롱 ᄒᆞ는 거.(임시 토롱 하는 거.)
112045 #5 게난 임시 땅 쏘곱에 묻엉 놔두는 거.(그러니 임시 땅 속에 묻어서 놔두는 거.)
112045 @ 음.(음.)

112045 #5 것 보고 임시 헷다가.(것 보고 임시 했다가.)
112045 #6 또 터 봐근에 제라ᄒᆞ게.(또 터를 봐서 제대로.)
112045 #5 제라ᄒᆞ게 터를 봐서 홀랴고 ᄒᆞ는 게 토롱.(제대로 터를 봐서 하려고 하는 게 토롱.)
11204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2456 @ 어, 혹시 이장도 헤낫수과?(어, 혹시 이장도 했었습니까?)
112046 #5 이장도 많이 ᄒᆞ주, 이장. 우리도 이장헤낫어.(이장도 많이 하지, 이장. 우리도 이장했었어.)
112046 @ 무사 이장헷수과?(왜 이장했습니까?)
112046 #5 아, 그거 뭐 산 터가 나쁘다고 헤 가지고.(아, 그거 뭐 산 터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112046 #6 나쁘다고 헤 가지고.(나쁘다고 해 가지고.)
112046 @ 요즘은 이장이 제사 저 벌초허는 거 막 하면 다들 한꺼번에 막 다 헤근에, 이제 그 저 어디꽈?(요즘은 이장이 제사 저 벌초하는 거 막 많으면 다들 한꺼번에 막 다 해서, 이제 그 저 어딥니까?)
112046 #6 납골당에.(납골당에.)
112046 @ 예. 화장하는데 납골당에 화장 헤븐덴 헨게마는.(예. 화장하는데 납골당에 화장해 버린다고 하더니만.)
112046 #5 그런 사름도 요센 많아.(그런 사람도 요사인 많아.)
112046 @ 안 헤낫수과? 삼춘네는?(안 했었습니까? 삼촌네는?)
112046 #6 우리 아년. 우린, 우린 저 공동 가족공동묘지가 이시니깐 우리 아년.(우리 아년. 우린, 우린 저 공동 가족공동묘지가 있으니깐 우린 안 했어)
112046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2046 #6 응.(응.)
112046 @ 상복은 언제 벗읍니까?(상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6 삼 년 뒈민.(삼 년 되면.)
112047 @ 삼 년 뒈민.(삼 년 되면.)
112047 #5 삼 년.(삼 년.)
112047 #6 응.(응.)
112047 @ 삼 년예?(삼 년이요?)
112047 #6 벗어근에 그때는.(벗어서 그때는.)
112047 #5 대상 때 그건.(대상 때 그건.)
112047 #6 대상 때 벗어근에. 이젠 다 ᄉᆞ라벰주마는 그땐 걸로 옷도 헹 입곡, 막 헤서.(대상 때 벗었어. 이젠 다 살라버리지만 그땐 걸로 옷도 해서 입고, 막 했어.)
112047 @ 기지예?(그렇지요?)
112047 #6 이젠 다 ᄉᆞ라비어.(이젠 다 살라버려.)
112047 @ 우리 어머닌 아직도 그거 헹 빨앙 말령 이불 헤주고 경 헙디다마는.(우리

어머닌 아직도 그거 해서 빨아서 말려서 이불 해주고 그렇게 합디다만.)
112047 #6 것도 경 헤여.(것도 그렇게 해.)
112048 @ 그다음엔예? 그 장례식하면서 장례식 끗나고 삼년상 대상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건 금하고 뭐 이런 건 엇엇수과?(그다음은요? 그 장례식하면서 장례식 끝나고 삼년상 대상까지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어떤 건 금하고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112048 #6 그런 거 엇어.(그런 건 없어.)
112048 @ 뭐 아이덜 결혼 안 시킨다든가 뭐?(뭐 아이들 결혼 안 시킨다든가 뭐?)
112048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48 #6 그런 거 절대 아녀반.(그런 거 절대 안 해봤어.).)
112048 @ 전혀 엇이 그냥 막 헷수과?(전혀 없이 그냥 막 했습니까?)
112048 #6 응.(응.)
112048 @ 혹시 그 전엔 아녀낫수과? 오래전에, 삼춘네 어릴 때.(혹시 그 전엔 않았었습니까? 오래전에, 삼촌네 어릴 때.)
112048 #5 우리 어릴 때? 몰라.(우리 어릴 때? 몰라.)
112048 #6 영장 나민 결혼시키는 거 금헤신가?(영장 나면 결혼시키는 것 금했었나?)
112048 @ 영장이 사월 달에 들엇저, 겐디 야이가 잔치가 오월이여 허민.(영장이 사월 달에 들었다, 그런데 얘가 잔치가 오월이여 하면.)
112048 #6 금ᄒᆞ는 사름은 금헷수다게.(금하는 사람은 금했습니다.)
112048 @ 오월에 나는 그 ᄃᆞᆯ에 결혼을 하거나.(오월에 나는 그 달에 결혼을 하거나.)
112048 #5 미리 땡겨비영. 그런 거 이서난 거 담아.(미리 당겨버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112048 #6 넘엉을 ᄒᆞ던가.(넘어서 하던가.)
112048 @ 그믄 최근에도 이제 멩질.(그러면 최근에도 이제 명질.)
112048 #6 응.(응.)
112048 @ 구정멩질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셔분거라예?(구정명질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112048 #6 응.(응.)
112048 @ 거난 멩질 다 새고, 세배 다 끗난에, 멩질 다 다음 날인가야 날 잡안 그 후.(그러니까 명질 다 새고, 세배 다 끝나서, 명질 다 다음 날인가에 날 잡아서 그 후.)
112048 #5 경 헤여. 부정 ᄒᆞ카부덴.(그렇게 해. 부정 탈까봐서.)
112048 @ 부정 허커부덴예? 지금도 경 헙니까?(부정 탈까봐서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112048 #5 어.(어.)
112048 #6 시방도 마찬가지.(시방도 마찬가지.)
112048 @ 어, 지금까지는예,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끗나고 이제 대상까지 그거에 데헤서 전체적으로 여쭤봣고예. 이젠 제사를 헤야 헐 거 아니꽈예?(어, 지금까지는요,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끝나고 이제 대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이젠 제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례

112049 @ 제사에 데헤서 여쭤보겟습니다예? 제사준비는 어떵 헙니까?(제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사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2049 #6 제사준비는 시방도.(제사준비는 시방도.)
112049 #5 큰메누리가 ᄒᆞ는 거주.(큰며느리가 하는 거지.)
112049 @ 게민 이제 양제 가부난에.(그러면 이제 양자 가버려서.)
112049 #6 나가 우리 씨아버지 씨어머니 제서헴주.(내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사하지.)
112049 @ 경 헴구나예. 제사 준비허젠 허민 아침부터 시장보고 경 헴지예?(그렇게 하는군요. 제사 준비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시장보고 그렇게 하지요?)
112049 #6 시장은 아시날 봐다근에, 떡ᄀᆞ루 ᄀᆞᆯ아오곡 다 헹 떡 ᄒᆞ곡 만듸 ᄒᆞ곡 다 헴주.(시장은 전날 봐오고, 떡가루 갈아오고 다 해서 떡 하고 만두 하고 다 하지.)
112049 @ 떡도 집에서 헴수과?(떡도 집에서 하십니까?)
112049 #6 응, 떡도 집이서 조개송편 좁앙 허곡.(응, 떡도 집에서 조개송편 집어서 하고.)
112049 @ 헴수과?(하십니까?)
112049 #6 응.(응.)
112049 #6 진짜 착한 메누리우다예.(진짜 착한 며느리네요.)
112049 #6 빵도 밀가루 사다근에. 저 침떡 헤도 먹을 거 빵도 나가 다 피우고 다.(빵도 밀가루 사다가. 저 시루떡 해도 먹을 거 빵도 내가 다 피우고 다.)
112049 @ 지금도마씸?(지금도요?)
112049 #6 음, 지금도.(음, 지금도.)
112049 #5 아, 제서 먹으레 처음 오면은.(아, 제사 먹으러 처음 오면.)
112049 #6 줄 거시기 다.(줄 거시기 다.)
112049 #5 제서 먹으레 오면은 처음 대접 ᄒᆞ려면게.(제사 먹으러 오면 처음 대접 하려면.)
112049 #6 빈 입 가져근에 ᄒᆞᆯ 수가 이서게?(빈 입 가져서 할 수가 있어?)
112049 #5 떡ᄒᆞ곡 고기ᄒᆞ곡 뭐 그거.(떡하고 고기하고 뭐 그거.)
112049 #6 드려근에, 드려근에 채소허곡 헹 먹읍센.(드려서, 드려서 채소하고 해서 드시라고.)
112049 @ 일 년에 제사 멧 번 헴수과?(일 년에 제사 몇 번 하십니까?)
112049 #6 두 번, 두 번.(두 번, 두 번.)
112050 @ 어무니, 아부지 거예?(어머니, 아버지 거요?)

112050 #6 응.(응.)
112050 @ 그 제물로는 무시거, 무시거 준비헷수과?(그 제물로는 무엇, 무엇 준비했습니까?)
112050 #6 제물은 뭐, 빵 ᄒᆞ는 건 아녀도 침떡 헹 오고, 조개송편 좁앙도 허곡, 또 준떡[285]도 헤오곡, 묵 허곡, 모물묵 허곡, 묵 쒀근에. 또 전덜 전 ᄀᆞ튼 거 지지곡.(제물은 뭐, 빵 하는 건 안 해도 시루떡 해 오고, 조개송편 집어도 하고, 또 자잘한 떡도 해오고, 묵 하고, 메밀묵 하고, 묵 쒀서. 또 전들 전 같은 거 지지고.)
112050 @ 적도 허고예?(적도 하고요?)
112050 #6 적도 소고기 적 짓고 뒈지고기 적 ᄒᆞ고 또 문어도 사당 적 ᄒᆞ고 기자.(적도 소고기 적지지고 돼지고기 적 하고 또 문어도 사다가 적 하고 그저.)
112051 @ 아, 여러 가지 헴구나예?(아, 여러 가지 하는군요?)
112051 #6 음.(음.)
112051 @ 그 콩나물 ᄀᆞ튼 건?(그 콩나물 같은 건?)
112051 #6 응.(응.)
112051 @ 이젠 막 산 헴주마는 혹시 집에서 키우멍 안 헷수과? 옛날엔?(이젠 막 사서 하지만 혹시 집에서 키우면서 안 했습니까? 옛날엔?)
112051 #6 엿날엔 헷주마는 이젠 다 사당 헴주.(옛날엔 했지만 이젠 다 사다가 하지.)
112051 @ 다 사당 헴지예? 옛날엔 키우긴 헤낫수과?(다 사다가 하지요? 옛날엔 키우긴 했었습니까?)
112051 #6 응, 키왕. 시리에 헤서 그 내와근에[286].(응, 키웠어. 시루에 해서 그 '내와서'.)
112051 @ 메칠 전부터예?(며칠 전부터요?)
112051 #6 응.(응.)
112051 @ 경헷구나예? 그 콩나물 시리에 키울 땐 한 메칠 정도 키웁니까?(그랬군요? 그 콩나물 시루에 키울 땐 한 며칠 정도 키웁니까?)
112051 #6 불롸근에, 불롸근에.(불려서, 불려서.)
112051 @ 불?(불?)
112051 #6 콩이 딱딱ᄒᆞ니까 물 놩 콩 불놔근에.(콩이 딱딱하니까 물 넣어 콩을 불려서.)
112051 @ 아, 콩을 불려서.(아, 콩을 불려서.)
112051 #6 응. 불롸근에 이 시리에 뭐 검질을 깔던가, 뭐 치마 거시기 꼴아. 아래 시리 아래 꼴아근에 그듸 콩 놔근에 싹 나가민 물 계속 ᄒᆞ루에 ᄒᆞᆫ 번씩 물주민 그.(응. 불려서 이 시리에 뭐 검불을 깔던가, 뭐 치마 거시기 깔아. 아래 시루 아래 깔아서 거기 콩 넣어서 싹 나가면 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물주면 그.)
112051 @ 메칠?(며칠?)

285) '준떡'은 '솔변', 절편, 인절미, 과줄 등을 말한다.
286) '내우다'는 사물이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하다.

112051 #6 그 여 흔 열흘 넘어야 그 콩이 이녁 먹을 때 뒈주게.(그 여 한 열흘 넘어야 그 콩이 이녁 먹을 때 되지.)
112051 @ 열흘 넘엉. 경허민 이제.(열흘 넘어서. 그러면 이제.)
112051 #6 요만썩 크면은 그.(요만씩 크면 그.)
112051 @ 멩질 제사가 흔 보름 남앗저 허민.(명질 제사가 한 보름 남았다고 하면.)
112051 #6 응, 그때. 그때 키와근에덜 다.(응, 그때. 그때 키워서들 다.)
112052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2052 #6 응.(응.)
112052 @ 그다음엔 제사지넬 궤기덜 잇잖아예?(그다음엔 제사지낼 고기들 있잖아요?)
112052 #6 응.(응.)
112052 @ 바닷궤기나 육궤기 어떵 준비헷수과?(바닷고기나 육고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2052 #6 우린 미릇 다 헤당 놧당 헤.(우린 미리 다 해다가 놓았다가 해.)
112052 @ 음.(음.)
112052 #6 소고기도 미릇 시방 우리 칠월에 먹을 소고기 다 헤단 준비헨 놔둰, 냉장고 냉동실에.(소고기도 미리 시방 우리 칠월에 먹을 소고기 다 해다가 준비해 놔뒀어, 냉장고 냉동실에.)
112052 @ 냉동실에.(냉동실에.)
112052 #6 응. 또 바닷고기도 강 사다근에 바당에 강 사다근에 거 물류와근에 냉동실에 놧당 그 제사준비.(응. 또 바닷고기도 가서 사다가 바다에 가서 사다가 그거 말려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제사준비.)
112052 @ 옛날엔 고기렌 안 헹 궤기렌 헷지예?(옛날엔 고기라고 안 해서 '궤기'라고 했지요?)
112052 #6 궤기, 응. 궤기.(고기, 응, 고기.)
112052 @ 바당궤기 뭐 쉐궤기 이런 식으로 헷잖아예? 아, 게민 적은 아까 문어까지 헷덴 헷잖아예?((바닷고기 뭐 쇠고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 그러면 적은 아까 문어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112052 #6 응.(응.)
112052 @ 적은 멧 종류 헷수과?(적은 몇 종류 했습니까?)
112052 #6 게, 서너네 개 헷주게.(그래, 서너네 개 했지.)
112052 #5 쉐궤기, 도새기궤기, 문어, 상어도 홀 수도 잇고, 소라 ᄀᆞ튼 것도 뒈는데로 이시믄 ᄒᆞ고 너댓 가지.(쇠고기, 돼지고기, 문어, 상어도 할 수도 있고, 소라 같은 것도 되는대로 있으면 하고 네댓 가지.)
112053 @ 거믄 적은 누가헙니까?(그러면 적은 누가합니까?)
112053 #6 적은 우리 아저씨가.(적은 우리 아저씨가.)
112053 #5 메누리덜도 육지 이서불고 ᄒᆞ니까 나대로 헴서.(며느리들도 육지 있어버리

고 하니까 나대로 하고 있어.)
112053 @ 우리 집안은 적은 다 남자가 헤여예. 나머지는 여자덜이 하는디예.(우리 집안은 적은 다 남자가 해요. 나머지는 여자들이 하는데요.)
112053 #6 그듸도 경 헤? 우리도 적은 겅 ᄒᆞ곡, 전 ᄀᆞ튼 거 떡 ᄀᆞ튼 건 여자가 ᄒᆞ곡 헤영.(거기도 그렇게 해? 우리도 적은 그렇게 하고, 전 같은 거 떡 같은 건 여자가 하고 해.)
112053 @ 기지예?(그렇지요?)
112053 #6 거봐게, 경 헌 듸 신게게.(거봐, 그렇게 한 데 있네.)
112054 @ 그리고 그다음엔 떡은 아까 무신 친떡?(그리고 그다음엔 떡은 아까 무슨 시루떡?)
112054 #6 친떡 ᄒᆞ곡, 조개송편 즙곡, 난 준 떡 강 헤 오는. 난 대부분 멩질 때 ᄀᆞ튼 때영 ᄒᆞᆯ 때는 이녁대로 만들엉 헤여.(시루떡 하고, 조개송편 집고, 난 잔 떡 가서 해서 오는. 난 대부분 명질 때 같은 때랑 할 때는 이녁대로 만들어서 해.)
112054 @ 그 준 떡이렌 헌 건 어떤 떡이꽈?(그 잔 떡이라고 한 건 어떤 떡입니까?)
112054 #6 준 떡은 솔변[287] 절변 ᄒᆞ는 게 준떡이주게, 그거. 그런 거는 네 가지 솔변, 젤변, 인절미, 또 과질 영 네 가지.(잔 떡은 '솔변', 절편, 하는 게 잔 떡이지, 그거. 그런 거는 네 가지 '솔변', 절편, 인절미, 또 과줄 이렇게 네 가지.)
112054 @ 아, 과질도 헙니까?(아, 과줄도 합니까?)
112054 #6 어, 과질도 헤여.(어, 과줄도 해.)
112054 @ 거 다 사당예?(그거 다 사다가요?)
112054 #6 다 사당 ᄒᆞ는디, 난 뭴 수 이시민 기자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엥에 이녁대로 만들어근에 그 쉬 담아근에 조개송편 만들아근에 ** 만들엉.(다 사다가 하는데, 난 될 수 있으면 그저 가루 갈아다가 이녁대로 만들어서 그 소 담아서 조개송편 만들어서 ** 만들어서.)
112054 @ 그렇구나예. 그러면 그 떡을 다 준비를 하면.(그렇군요. 그러면 그 떡을 다 준비를 하면.)
112054 #6 응.(응.)
112054 @ 떡을 놓는 순서는 어떵 헷수과?(떡을 놓는 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54 #6 순서는 친떡 아래 놓곡.(순서는 시루떡 아래 놓고.)
112054 @ 예.(예.)
112054 #6 또 그 친떡은 펜틀에.(또 그 시루떡은 편틀에.)
112054 #5 요만인ᄒᆞᆫ 그 펜틀 ᄒᆞ면은 처음에는 친떡.(요만한 그 편틀 하면 처음에는 시루떡.)
112054 @ 예.(예.)
112054 #6 그다음은 그 떡. 떡 놓아나면 우찍 영 놓곡.(그다음은 그 떡. 떡 놓은 후면 웃기떡 이렇게 놓고.)

287) '솔변'은 반월형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말한다.

112054 #5 그다음에는 인절미, 절벤, 솔벤 젤 우예 놩, 우찍 우예 영 놓민 뒈는 거. 걸로 끗.(그다음에는 인절미, 절편, '솔벤' 제일 위에 놓아, 웃기떡을 위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걸로 끝.)

112054 @ 우찍은 그냥 집에서 만들잖아예?(웃기떡은 그냥 집에서 만들잖아요?)

112054 #6 그 찹쌀 골아다근에 영 멘들아.(그 찹쌀 갈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112055 @ 과일은 뭐, 뭐 준비헤낫수과?(과일은 뭐, 뭐 준비했었습니까?)

112055 #6 과일은 사과도 ᄒᆞ곡, 배도 ᄒᆞ곡, 포도도 사당ᄒᆞ곡.(과일은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포도도 사다가하고.)

112055 @ 예.(예.)

112055 #6 또 미깡도 ᄒᆞ곡 또 빠나나도 사당ᄒᆞ곡, 다헤.(또 밀감도 하고 또 바나나도 사다가하고, 다해.)

112055 @ 바나나도 놔마씨?(바나나도 놓아요?)

112055 #6 응. 다 헤.(응. 다해.)

112055 @ 그믄 사과, 배, 미깡, 또 바나나, 포도.(그러면 사과, 배, 밀감, 또 바나나, 포도.)

112056 @ 그믄 이제 ᄂᆞᄆᆞᆯ은 뭐, 뭐 준비헷수과?(그러면 이제 나물은 뭐, 뭐 준비했습니까?)

112056 #6 ᄂᆞᄆᆞᆯ은 뭐 콩ᄂᆞᄆᆞᆯ ᄒᆞ곡, 고사리 ᄒᆞ곡, 거예 뭐 잡채덜도 ᄒᆞ곡, 채소 헤근에.(나물은 뭐 콩나물, 고사리 하고, 그것에 뭐 잡채들도 하고, 채소 해서.)

112056 @ 시금치 ᄀᆞ튼 건 안 헷수과?(시금치 같은 건 안 했습니까?)

112056 #6 거 헤. 시금치도.(그거 하지. 시금치도.)

112056 @ 옛날에는 뭐 헷수과? 시금치 엇일 땐.(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시금치 없을 땐.)

112056 #6 아, 엿날에는 시금치 엇이난 유채ᄂᆞᄆᆞᆯ 잇잖아, 유채ᄂᆞᄆᆞᆯ도 무청 허고. 무우 무우채 ᄒᆞ곡.(아, 옛날에는 시금치 없으니까 유채나물 있잖아, 유채나물도 무쳐서 하고. 무, 무채 하고.)

112056 @ 아, 무우채 헷잖아예? 저 호박으론?(아, 무채 했잖아요? 저 호박으론?)

112056 #5 호박으로도 ᄒᆞ곡.(호박으로도 하고.)

112056 @ 호박으로 헌 걸 뭐렌 골앗수과?(호박으로 한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56 #5 호박메물[288].(호박'메물'.)

112056 @ 아, 메물, 맞아. 메물예?(아, '메물', 맞아. '메물'이요?)

112056 #6 응.(응.)

112056 @ 경헷지예?(그랬지요?)

112057 @ 진설은 누가 헙니까?(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7 #6 진설이 뭔고?(진설이 뭐지?)

112057 #5 진설은?(진설은?)

---

288) '메물'은 제사에 쓰기 위해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을 말한다.

112057 @ 예.(예.)
112057 #5 나가. 사름이 엇이난에.(내가. 사람이 없어서.)
112057 @ 어시난에?(없으니까?)
112057 #5 응.(응.)
112057 @ 영 올려놓고 허는.(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112057 #5 아, 아덜덜 올 때는 아덜덜이 ᄒᆞ고, 이디 아덜덜이 엇어놓니까 우리 하르방[289]이 올리는 거.(아, 아들들 올 때는 아들들이 하고, 여기 아들들이 없어놓으니까 우리 '하르방'이 올리는 거.)
112058 @ 그 우리 집에는 메나 갱을 메누리가 뜨거든예.(그 우리 집에는 메나 갱을 며느리가 뜨거든요.)
112058 #6 나가 다, 메누리가 다. 메든, 밥 뜨는 거든 나 갱 거리는 건 다 나가 뜨지.(내가 다, 며느리가 다. 메든, 밥 뜨는 거든 나 갱 뜨는 건 다 내가 뜨지.)
112058 @ 아니, 큰아덜 메누리나 족은아덜 메누리가 안 헤마씸?(아니, 큰아들 며느리나 작은아들 며느리가 안 하나요?)
112058 #6 아덜덜은 멩질 때나 와도 나가 헤여, 나가 다 헤여.(아들들은 명질 때나 와도 내가 해, 내가 다 해.)
112058 #5 멩질 때 와야 뭐 ᄒᆞᆯ 거, 육짓아이덜이난 뭐 헐 줄 몰르고.(명질 때 와야 뭐 할 거, 육지아이들이니 뭐 할 줄 모르고.)
112058 #6 육짓아이들이난.(육지아이들이니까.)
112059 @ 음, 기구나예. 이젠 헌관에 대헹 말씀헤주십서. 헌관.(음, 그렇군요. 이젠 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헌관.)
112059 #5 헌관은 초헌.(헌관은 초헌.)
112059 @ 예.(예.)
112059 #5 아헌, 종헌, 집사, 뭐 그거.(아헌, 종헌, 집사, 뭐 그거.)
112059 @ 예. 그믄 초헌은 누가 뭐헤마씨?(예. 그러면 초헌은 누가 뭐하나요?)
112059 #5 그 제 모시는 사름이 ᄒᆞ주게. 초헌ᄒᆞ곡.(그 제 모시는 사람이 하지. 초헌하고.)
112059 @ 예.(예.)
112059 #5 또 다음에는 아들이 ᄒᆞ나.(또 다음에는 아들이 하던가.)
112059 @ 아헌은마씨?(아헌은요?)
112059 #5 아헌은. 종헌은 젤 또 어린사름이 종헌 ᄒᆞ주.(아헌은. 종헌은 제일 또 어린사람이 종헌 하지.)
112059 @ 집사는마씨?(집사는요?)
112059 #5 집사는 손자뻘 뒈는 애덜이 ᄒᆞ곡.(집사는 손자뻘 되는 애들이 하고.)
112060 @ 파젠 멧 시에 헴수과?(파제는 몇 시에 하십니까?)
112060 #5 파제는.(파제는.)

289)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2060 #6 엿날엔 열두 시 넘어사 ᄒᆞ는디, 이제는 아홉 시예.(옛날엔 열두 시 넘어야 하는데, 이제는 아홉 시에.)
112060 #5 이제는 당일.(이제는 당일.)
112060 @ 당일 아홉 시에 헴수과?(당일 아홉 시에 하십니까?)
112060 #6 응, 당일.(응, 당일.)
112060 #5 당일 돌아가신 아시날 저녁에 엿날엔 젤 지냇거든.(당일 돌아가신 전날 저녁에 옛날엔 제사를 지냈거든.)
112060 @ 예.(예.)
112060 #5 제를 지내면은 열두 시, 열ᄒᆞᆫ 시 반 이상 뒈야 이제 젤 지냇는디, 당일 헤불면은 그 날은, 당일에는 아무시간에도 상관엇주.(제를 지내면 열두 시, 열한 시 반 이상 돼야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당일 해버리면 그 날은, 당일에는 아무시간에도 상관없지.)
112060 @ 아, 기지예? 우리도 당일 허겐 아무리 ᄀᆞᆯ아도 안 헹예. 메날 열두 시에 허젠 허난.(아, 그렇지요? 우리도 당일 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안 해서요. 매일 열두 시에 하려고 하니까.)
112060 #5 우리도 열ᄒᆞᆫ 시 반은 꼭 뒈야 제사 지내낫주.(우리도 열한 시 반은 꼭 돼야 제사를 지냈었지.)
112060 @ 아, 우리도 요번에도 멩질 때 막 모야근에 경 허지 마랑 ᄂᆞᆷ들처럼 허겐 헤도.(아, 우리도 요번에도 명질 때 막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처럼 하자고 해도.)
112060 #5 지금 당일에 ᄒᆞ는 사름 엇어.(지금 당일에 하는 사름 없어.)
112061 @ 문전젠[290] 어떵 지냄수과?(‘문전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112061 #6 문전제도 그 마찬가지주게.(‘문전제’도 그 마찬가지지.)
112061 #5 문전제?(‘문전제’?)
112061 @ 예, 문전제.(예, ‘문전제’.)
112061 #5 문전제는 그 출려 논 제물 전부 ᄒᆞᆫ 가지썩 다 올려.(‘문전제’는 그 차려 놓은 제물 전부 한 가지씩 다 올려.)
112061 @ 예. 문전젠 멧 시에 헴수과?(예. ‘문전젠’ 몇 시에 하십니까?)
112061 #5 거는 듯날. 멩질 때는 듯날 아침에 기냥ᄒᆞ고, 진설 다 끗나면은 문전젤 지내고. 큰상에 진설 다 끗나면은 문전제 지내는 거.(거는 뒷날. 명질 때는 뒷날 아침에 그냥하고, 진설 다 끝나면 ‘문전젤’ 지내고. 큰상에 진설 다 끝나면 ‘문전제’ 지내는 거.)
112061 @ 제사 때는?(제사 때는?)
112061 #6 제서 때도 마찬가지주게. ᄆᆞ녀 상에 올려.(제사 때도 마찬가지지. 먼저 상에 올려.)
112061 #5 문전제는 ᄆᆞᆫ저 지내는 거.(‘문전제’는 먼저 지내는 거.)
112061 @ 그다음 제반 거둘 때는 누게가 거뒴수과?(그다음 제반 거둘 때는 누가 거

290)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는데 달리 ‘문제’라고 한다.

두십니까?)
112061 #6 그 제반 올린 사름이. 절헌 사름이.(그 제반 올린 사람이. 절한 사람이.)
112061 @ 제반 거둘 땐 어떤 식으로 헴수과?(제반 거둘 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112061 #6 제반홀 때, 영영 저 뭐홀 때 말하는 거. 거 무사게 음식 헤 논 거, 그난 숭늉 ᄒᆞ영 올릴 때영 말 헴주게.(제반할 때, 이렇게이렇게 뭐할 때 말하는 거. 거 왜 음식 해 놓은 거, 그러니까 숭늉 해서 올릴 때랑 말하는 거지.)
112061 @ 예, 제반 거둘 때.(예, 제반 거둘 때.)
112061 #5 아, 거둘 때는.(아, 거둘 때는.)
112061 #6 밥 ᄆᆞ녀 떠놓곡, 국 떠놓곡 헤동 떡 다.(밥 먼저 떠놓고, 국 떠놓고 해두고 떡 다.)
112061 #5 건 ᄒᆞ는 사름이 다 헤놔도근에 숭늉그릇에.(그건 하는 사람이 다 해놓은 뒤 숭늉그릇에.)
112061 #6 다 떠 놓는 거주.(다 떠 놓는 거지.)
112061 #5 ᄎᆞ레대로 영 헹, 쪼꼼씩 쪼꼼씩 그레 헤 놩, 엿날에 지붕 우터레 영 헤낫주게.(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해 넣고, 옛날에 지붕 위에 이렇게 했었지.)
112062 @ 게, 제반허는 것도 저기 초헌이 헤마씨?(그래, 제반하는 것도 저기 초헌이 하나요?)
112062 #5 아니, 집사가.(아니, 집사가.)
112062 @ 제반은 집사가.(제반은 집사가.)
112063 @ 그다음에는 그 지제, 제사 끗나는 건 언제 헙니까?(그다음에는 그 지제, 제사 끝나는 건 언제 합니까?)
112063 #5 그니까 열혼 시 반이나 열두 시 ᄒᆞ는 사름도 잇고.(그러니까 열한 시 반이나 열두 시 하는 사람도 있고.)
112063 @ 예.(예.)
112063 #5 당일 날 저녁 혼 ᄋᆞ둡 시 아홉 시 ᄒᆞ는 사름도 잇고.(당일 날 저녁 한 ᄋᆞ둡 시 아홉 시 하는 사람도 있고.)
112064 @ 음복은 누가 합니까?(음복은 누가 합니까?)
112064 #5 음복은.(음복은.)
112064 @ 그날 모인 사름 다 ᄀᆞ치들예?(그날 모인 사람 다 같이요?)
112064 #5 응.(응.)
112064 @ 다 ᄀᆞ치예? 게, 삼춘넨 멧 명쯤 모여마씸?(다 같이요? 그래, 삼촌넨 몇 명쯤 모이나요?)
112064 #5 우리 아덜덜은 전부 육지 살아부니까 우리 형님네 아덜이 둬 사름 잇주게.(우리 아들들은 전부 육지 살아버리니까 우리 형님네 아들이 두어 사람 있지.)
112064 @ 음.(음.)
112064 #5 게난 그 ᄒᆞ고.(그러니 그 하고.)

112064 #6 누나에 조케예, 우리 똘덜, 똘덜 사위덜.(누나에 조카에, 우리 딸들, 딸들 사위들.)
112064 #5 흔 ᄋᆞ남은 사름.(한 여남은 사람.)
112065 @ 그 제사허고 관련헤 가지고 혹시 무슨 특별나게 금기하는 건 엇엇수과?(그 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무슨 특별나게 금기하는 건 없었습니까?)
112065 #6 우리 금지ᄒᆞ는 건 엇어.(우리 금지하는 건 없어.)
112065 @ 예를 든다면 뭐.(예를 든다면 뭐.)
112065 #5 개고기 ᄀᆞ튼 거 그런 거는 ***.(개고기 같은 거 그런 거는 ***.)
112065 #6 그런 것사 가끔씩 이서.(그런 것이야 가끔씩 있어.)
112065 #5 개고기, 물고기, 뭐 요런 거는 금ᄒᆞ고.(개고기, 말고기, 뭐 요런 거는 금하고.)
112065 @ 예.(예.)
112065 #6 또 장밧듸 다녓던 사름은 ᄒᆞᆫ 거기 참석 말아야 뒈고.(또 장지에 다녔던 사람은 한 거기 참석 말아야 되고.)
112065 @ 예, 이제까지 제사에 데헤근에 여쭤봣수다예.(예, 이제까지 제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112065 #6 응.(응.)
112065 @ 다음에는 민간요법이라예. 아이덜 어떵 아플 땐 어떵 헤신가예.(다음에는 민간요법이에요. 아이들 어떻게 아플 땐 어떻게 했는가에.)
112065 #6 아, 어.(아, 어.)
112065 @ 일단 제사에 대한 건 끗나고 하게예.(일단 제사에 대한 건 끝내고 할게요.)

11. 민간요법

113001 @ 이제는 아이들 넷이나 낳가지고 키우면서 아니면 어릴 때 삼춘네가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헤쥇는지 기억하멍예?(이제는 아이들 넷이나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아니면 어릴 때 삼촌네가 어릴 때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 기억하면서요?)
113001 #6 우리 큰아덜은 갑자기 다리 오그라지난 병원에 실러가고.(우리 큰아들은 갑자기 다리 오그려지니까 병원에 실어가고.)
113001 @ 예, 이제 ᄒᆞ나씩 ᄒᆞ나씩 이제부터 여쭤보쿠다예?(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부터 여쭤볼게요?)
113001 #6 응.(응.)
113001 @ 기계충이렌 헤가지고 머리예?(기계총이라 해가지고 머리에?)
113001 #6 아, 그추룩은 안 헤봔.(아, 그처럼은 안 해봤어.)
113001 #5 머리 벗어지는 거?(머리 벗어지는 거?)

113001 @ 예, 건 어떵 헷수과? 그때.(예,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113001 #5,6 우리 아이덜은 하나토 아년.(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안 했어.)
113001 @ 아니, 놈의 아이라도 헐 땐 걸 어떵 헷수과?(아니, 남의 아이라도 할 땐 걸 어떻게 했습니까?)
113001 #6 그 막 그 약 무신 신낭 지름 헤영 막 불루곡 헤난.(그 막 그 약 무슨 식나무 기름을 해서 막 바르고 했었어.)
113001 @ 무시거마씸?(뭐라고요?)
113001 #6 신낭 지름에, 신낭 열매 헤당 지름 빵 이런디 막 불르곡 헤난.(식나무 기름에, 식나무 열매 해다가 기름 빻아서 이런데 막 바르고 했었어.)
113001 #5 거, 그게 우리 동네 00이엔 헌 아이 경 헤낫저.(거, 그게 우리 동네 00이라고 한 아이 그렇게 했었어.)
113001 #6 기계충 올라근에.(기계총 옮겨서.)
113001 @ 신낭 열매를?(식나무 열매를?)
113001 #6 응, 그거 지름 헤영.(그거 기름을 해서.)
113001 @ 어떵 허민 그 기름이 나와마씨?(어떻게 하면 그 기름이 나와요?)
113001 #6 거 헤근에 막 보까근에, 우린 안 헤봐신디 놈덜 그거 헤근에 막 불르난. 시방도 그거는 페적이 막 이서.(그거 해서 막 볶아서, 우린 안 해봤는데 남들 그거 해서 막 바르니까. 시방도 그거는 표적이 막 있어.)
113002 @ 맞수다. 그 기계충이 잇는 반면에 독창이라는 게 잇잖아예?(맞습니다. 그 기계총이 있는 반면에 독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113002 #6 응, 막 카저근에.(응, 막 헤어져서.)
113002 @ 예. 그건 어떵 헷수과?(예,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113002 #6 그걸 그 사름덜 시방 그 아인 이디가 다 카지난 그르가 문짝헨 썩언, 그디가 고름이 잘잘 막 헤나서. 요즘에 우리도 그디 검질메레 가근에 밥 먹젱ᄒᆞ민 그 아이 ᄑᆞ리 막 머리에 궤는, 거 헤나신디. 그디 아이들 성젠가? 서오누이가 그축 다 헤나서.(그걸 그 사람들 시방 그 아인 여기가 다 헤어지니까 흉터가 만질만질 썩어서, 거기가 고름이 잘잘 막 했었어. 요즘에 우리도 거기 김매러 가서 밥 먹으려하면 그 아이 파리 막 머리에 꾀는, 그거 했었는데. 거기 아이들 형젠가? 서오누이가 그처럼 다 했었어.)
113002 @ 올랏구나예?(옮았군요?)
113002 #6 응, 올란에. 그 이디 페적 훤ᄒᆞ게 시방도 이서.(응, 옮겨서. 그 여기 표적 훤하게 시방도 있어.)
113002 @ 나이가 멧 살쯤 뒈신디마씨?(나이가 몇 살쯤 됐는데요?)
113002 #6 시방, 나이가 ᄒᆞᆫ 쉰댓 뒈서. 그 또 그 우의 그 동생도, 쉰, 우리 영철이가 쉰셋 뒛수과? 쉰셋이민 가읜 넷 뭔 아이주.(시방, 나이가 한 쉰댓 됐어. 그 또 그 위의 그 동생도, 쉰, 우리 영철이가 쉰셋 됐습니까? 쉰셋이면 그 아인 넷 된 아이지.)
113002 @ 지금도 그니까 흉터가 이서마씨?(지금도 그러니까 흉터가 있어요?)
113002 #6 페적이 이서, 페적이.(표적이 있어, 표적이.)

113003 @ 아이구야, 기구나예? 그담엔예? 머리에 비듬 일잖아예?(아이구야, 그렇군요? 그다음은요? 머리에 비듬 일잖아요?)
113003 #6 응.(응.)
113003 @ 비듬은 어떵 헷수과?(비듬은 어떻게 했습니까?)
113003 #5 비듬은 다 이서낫고. 나도 이서.(비듬은 다 있었고. 나도 있어.)
113003 #6 비듬은 이 하르방도[291] 이서낫주. 이제난 비듬 엇엄주, 엿날에사 아이고, 옷에 보민 희뜩희뜩 다 비듬 털어정.(비듬은 이 할아버지도 있었지. 지금이니까 비듬이 없지, 옛날에야 아이고, 옷에 보면 희뜩희뜩 다 비듬 떨어졌어.)
113003 @ 게난 그 비듬은 어떵 헤근에 낫게 헷수과?(그러니 그 비듬은 어떻게 해서 낫게 했습니까?)
113003 #5 낫암서게? 항상 이섬주.(낫나? 항상 있지.)
113003 #6 시방 이섬서? 시방은 엇엄주.(시방 있을까? 시방은 없지.)
113003 #5 나야 항상 이섬서.(나야 항상 있어.)
113003 #6 이섬서? 아니라, 삼푸 써가난 엇어.(있을까? 아니야, 샴푸 써가니까 없어.)
113003 #5 저 0000이 지금 최고로 그분이 비듬 많은디, 검은 양복 입으민 여기가 허영흔다고 여기가 털어정.(저 0000이 지금 최고로 그분이 비듬 많은데, 검은 양복 입으면 여기가 허옇다고 여기가 떨어져서.)
113003 #6 시방 비듬 이신 사름이 어디 수과게?(시방 비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13003 #5 비듬 한덴 ᄒᆞ난.(비듬 많다고 하니까.)
113004 @ 버즘은 어떵 헷수과? 버짐.(버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짐.)
113004 #6 버즘은 저 무시거 ᄒᆞ영 ᄇᆞᆯ루곡 헷저마는. 버즘에 저 무시거 그거 무시거 꽈? 돌팽이.(버짐은 저 무엇 해서 바르고 했다만. 버짐에 저 무엇 그거 뭡니까? 달팽이.)
113004 @ 예.(예.)
113004 #6 돌뱅이 옷벗은돌뱅이 헤영 막 문뎅 놔두민 좋아. 우리 똘도 이런디 또고망에 버즘 인 때 문뎅, 그츠룩 헹 놔두난 좋앙게.(달팽이 민달팽이 해서 막 문대어 놔두면 좋아. 우리 딸도 이런데 똥구멍에 버짐 인 때 문대어, 그처럼 해서 놔두니까 좋았어.)
113004 @ 좋안예?(좋았어요?)
113004 #6 응.(응.)
113004 @ 요즘 달팽이 화장품 완전 비싼 거 유헹헴잖아예?(좋았어요? 요즘 달팽이 화장품 완전 비싼 거 유행하잖아요?)
113004 #6 그 돌뱅이 헤근에 민달민달ᄒᆞ게 막 ᄇᆞᆯ랑, 거기서 헨에 헹 놔두난 좋안게.(그 달팽이 해서 민달민달하게 막 발라서, 거기서 해서 해 놓아두니까 나았어.)
113004 @ 게난, 옛날 어른들 다 알긴 알아나서예?(그러니, 옛날 어른들 다 알긴 알았었어요?)
113004 #6 뚜꼬망 에염에 버즘 들언에.(똥구멍 옆에 버짐 들어서.)

291)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13005 @ 그담에 백선이라고 헤가지고 허옇게 뒈는 거 잇잖아예? 버즘하고는 좀 다른 거?(그담에 백선이라고 해가지고 허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버짐하고는 좀 다른 거?)
113005 #6 음.(음.)
113005 @ 건 어떵 헤신고예?(건 어떻게 했을까요?)
113005 #6 건, 우린 아녀보난 몰라.(그건, 우린 안 해봐서 몰라.)
113005 @ 동네선 안 봐봇수과?(동네선 안 봤었습니까?)
113005 #5 아니, 경 헌 사름 엇엇나서.(아니, 그렇게 한 사람 없었었어.)
113006 @ 여드름은 이서낫잖아예?(여드름은 있었었잖아요?)
113006 #6 여드름은 이서. 다 고물고물 다 이서나신디.(여드름은 있어. 다 고물고물 다 있었었는데.)
113006 @ 건 어떵 헤신고예?(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113006 #6 그건 다 짜멍 어떵 무시거 행.(그건 다 짜면서 어떻게 무엇 해서.)
113006 #5 그땐 대게 손톱으로 눌렁 짜민 튀어나오메.(그땐 대게 손톱으로 눌러서 짜면 튀어나오지.)
113006 #6 게도 우리 아이덜 그 여드름은 안 나봐서.(그래도 우리 아이들 그 여드름은 안 나봤어.)
113006 @ 그건 삼춘네가 여드름은 안 나난.(그건 삼촌네가 여드름은 안 나니까.)
113006 #6 나도 여드름 안 나난.(나도 여드름 안 났었어.)
113006 #5 난 나낫어.(난 났었어.)
113006 @ 나낫수과?(났었습니까?)
113006 #5 ᄒᆞ나씩 ᄒᆞ나씩 나난.(하나씩 하나씩 났었어.)
113006 @ 아이덜도 여드름 나는 거 안 봐서.(아이들도 여드름 나는 거 안 봤어.)
113006 #5 겐 짜벼 낫주게. 짜비여낫어.(그래서 짜버렸었지. 짜버렸었어.)
113007 @ 겐데 삼춘은 얼굴에 기미도 안 끼는 얼굴이다예?(그런데 삼춘은 얼굴에 기미도 안 끼는 얼굴이네요?)
113007 #6 크게 흔 것덜 제거헨.(크게 한 것들 제거했어.)
113007 @ 이거 헌 것과?(이거 한 겁니까?)
113007 #6 이디 크게 흔 것덜 제거헨. 검은버섯 난 거.(여기 크게 한 것들 제거했어. 검버섯 난 거.)
113007 @ 그거는 병원에 간 제거헌 거지예?(그거는 병원에 가서 제거한 거지요?)
113007 #6 응. 병원에 간, 그 피부과에 간에.(응. 병원에 가서, 그 피부과에 가서.)
113007 @ 그전에는 기미나면 옛날엔 어떵 헤나신고예?(그전에는 기미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13007 #5 건 그거 절석보시[292]라고 헤서 의당히 경 헐 거로 알주게.(건 그거 '절석보시'라고 해서 의당히 그렇게 할 거로 알지.)

292) '절석보시'는 저승꽃, 기미, 검버섯 등을 말한다.

113007 #6 경헤도 우리 하르방[293] 이디 막 이서.(그래도 우리 '하르방' 여기 마구 있어.)
113007 #5 나이 먹으민 건 누구나 오게 뒌 거라.(나이 먹으면 그건 누구나 오게 된 거야.)
113007 @ 나이 안 먹어도 여자들은예, 임신헤도 생기고.(나이 안 먹어도 여자들은요, 임신해도 생기고.)
113007 #6 난 임신헤도 기미 쓰거나 무신거 아녀봔.(난 임신해도 기미 쓰거나 무엇 안 했어.)
113007 @ 경 헙디가?(그렇게 합디까?)
113007 #6 응. 원 아녀봔. 원 입덧도 아녀고, 애기덜 나는 것도 쉽고, 입덧도 일절 아년. 애기 뱃젠 배도 크지 아녀고. 늠이, 애기 뱃인가? ᄒᆞ민 나부는 따문에.(응. 원 안 했어. 원 입덧도 않고, 애기들 나는 것도 쉽고, 입덧도 일절 안 했어. 아기 배었다고 배도 크지 않고. 남이, 애기 배었는가? 하면 낳아버리는 때문에.)
113007 @ 게난 지금도 피부가 잘도 곱수다.(그러니 지금도 피부가 잘도 곱습니다.)
113007 #6 고와?(고와?)
113007 @ 예.(예.)
113007 #6 하이고 곰은 무신?(하이고 곱기는 무슨?)
113008 @ 주근깨는 뭐 그냥 살앗잖아예?(주근깨는 뭐 그냥 살았잖아요?)
113008 #6 주근깨는 다 이서.(주근깨는 다 있어.)
113008 @ 유독 주근깨가 하영 이신 사람도 잇잖아예?(유독 주근깨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113008 #6 응.(응.)
113008 @ 동네 보면은예?(동네 보면요?)
113008 #6 응.(응.)
113008 @ 것도 그냥 잇고예?(그것도 그냥 있고요?)
113008 #6 응.(응.)
113009 @ 사마귄 어떵 헷수과?(사마귄 어떻게 했습니까?)
113009 #6 사막은 파분 사름도 잇곡, 우리 아덜도 이디 콧대에 거 파베성게.(사마귄 파버린 사름도 있고, 우리 아들도 여기 콧대에 거 파버렸던데.)
113009 #5 병원에 강?(병원에 가서?)
113009 #6 예, 파베십디다.(예, 파버렸던데요.)
113009 @ 병원에 강 판 거잖아예?(병원에 가서 판 거잖아요?)
113009 #6 어, 병원에 강 판 거주게.(어, 병원에 가서 판 거지.)
113009 @ 음.(음.)
113009 #5 사막은 파지 말렌 ᄒᆞ멍 엿날 어른덜은. 요런듸(눈 밑을 가리키며) 나민 건 눈물 사막이다 헤서 그런 사름은 항상 울 일이 많을 것이다, 막 경 ᄒᆞ곡 헤낫주게.(사마

293)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귀는 파지 말라고 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요런데(눈 밑을 가리키며) 나면 그건 눈물 사마귀다 해서 그런 사람은 항상 울 일이 많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하고 했었지.)

113019 @ 맞아. 막 그런 말 헤난예.(맞아요. 막 그런 말 했었어요.)

113010 @ 그 사마귀는 그렇고, 다래끼 날 땐 어떵 헷수과?(그 사마귀는 그렇고, 다래끼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0 #6 다래끼 날 때는 뭐 약.(다래끼 날 때는 뭐 약.)

113010 #5 눈에 뭐 영.(눈에 뭐 이렇게.)

113010 @ 뭐렌 골아낫수과? 위에 날 땐 뭐렌 곤고, 아래 날 땐 뭐렌 골앗수과?(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위에 날 땐 뭐라 말하고, 아래 날 땐 뭐라 말했습니까?)

113010 #5,6 개씹[294], 개씹.('개씹', 다래끼.)

113010 @ 개씹이렌 헷잖아예? 밑에 난 건 뭐렌 골앗수과?('개씹'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난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0 #6 둘룻[295].('둘룻'.)

113010 @ 둘룻예?(다래끼요?)

113010 #6 우의 난 게 들룻일 거라. 아래 난 게 개씹 아인가?(위에 난 게 '들룻'일 거야. 아래 난 게 '개씹' 아닌가?)

113010 #5 개씹 낫젠 경 헤나난.(다래끼 났다고 그렇게 했었어.)

113010 @ 건 어떵 치료헷수과?(그건 어떻게 치료했나요?)

113010 #5 거민 발바닥에 글로 천평지평 써근에.(그러면 발바닥에 글로 천평지평 써서.)

113010 @ 거민 진짜 낫읍디가?(그러면 진짜 낫습디까?)

113010 #6 낫아,(나았어.)

113010 #5 나아.(나아.)

113010 @ 아, 낫구나. 기꽈?(아, 나았구나. 그래요?)

113010 #5 나도 멧 번덜 써 줘밧는디.(나도 몇 번들 써 줘봤는데.)

113010 @ 예.(예.)

112010 #5 써 주미는 낫아.(써 주면 나았어.)

113010 #6 게, 그것이 무사 낫는 거냐민 저, 갯긋 것을 먹으면은 이 피부에 안 맞으니까 나는 거 닮아.(그래, 그것이 왜 낫는 거냐면 저, 바닷가 것을 먹으면 이 피부에 안 맞으니까 나는 거 같아.)

113010 @ 갯긋이 것을 먹으민마씸?(바닷가 것을 먹으면요?)

113010 #6 응, 갯긋듸 강 저 ᄀᆞ메길 잡아당 먹엇든가, 그디 강 아무거라도 소라 헹 먹엇든가 헤민 이녁이 피부에 안 맞이민 그런 거 나는 거 닮앙게.(응, 바닷가 가서 저 고둥을 잡아다가 먹었든가, 거기 가서 아무거라도 소라 해서 먹었든가 하면 이녁이 피부에 안 맞으면 그런 거 나는 거 같았어.)

---

294) '개씹'은 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를 말한다.

295) '둘룻'은 속눈썹에 생긴 부스럼인 다래끼를 말하는데, 달리 '들윗', '들륏'이라고도 한다.

11301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3010 #5 아이, 그건 아니고. 그게 개씹이라고 헤서 나면은 막 어떤 사름은 막 주랑허게시리 나는 사람도 잇곡.(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다래끼라고 해서 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치렁하게끔 나는 사람도 있고.)
113010 #6 크게 나는 사름.(크게 나는 사람.)
113010 @ 맞수다.(맞습니다.)
113010 #5 것도 글 쓰는 것도 처음 나올 때 써버려야지 나근에 완전히 튀어나옴 시작ᄒᆞ민 써밧자 소용엇어.(것도 글 쓰는 것도 처음 나올 때 써버려야지 나서 완전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써보았자 소용없어.)
113011 @ 그다음엔 눈에 벌겅허게 충혈헐 땐 어떵 헙니까?(그다음엔 눈에 벌겋게 충혈할 땐 어떻게 합니까?)
113011 #6 난 충혈ᄒᆞ민 약 놓아, 약 놓아.(난 충혈하면 약 넣어, 약 넣어.)
113011 @ 그 전엔 어떵 헷수과? 약 엇일 땐.(그 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약 없을 때는.)
113011 #6 그때는 약 엇일 때는.(그때는 약 없을 때는.)
113011 #5 그전에는 베춧입.(그전에는 배춧잎.)
113011 @ 예.(예.)
113011 #5 베춧입, 옛날 어른덜은 그런 말 헤서. 당베추[296]라고 베춧입보고.(배춧잎,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어. 당배추라고 배춧잎보고.)
113011 @ 베치마씸.(배추요?)
113011 #5 응, 베추, 베추.(응, 배추, 배추.)
113011 #6 나ᄆᆞᆯ, ᄂᆞᄆᆞᆯ.(나물, 나물.)
113011 @ ᄂᆞᄆᆞᆯ예?(나물이요?)
113011 #6 옛날엔 베치엔 헷주.(옛날엔 '베치'라고 했지.)
113011 @ 예.(예.)
113011 #5 베치썹 헤근에 소곰에 놔근에 독독독 뭘로 때리민 그게 소곰물이 들어갈 거 아니? 그디.(배춧잎 해서 소금에 놔서 독독독 뭐로 때리면 그게 소금물이 들어갈 거 아냐? 거기에.)
113011 @ 예, 예.(예, 예.)
113011 #5 게민 ᄂᆞᄆᆞᆯ도 좀 카지곡[297].(그러면 나물도 좀 '카지고'.)
113011 @ 예.(예.)
113011 #5 소곰도 카지멍 좀 들어가곡 ᄒᆞ면은 눈에 영 더퍼.(소금도 '카지면서' 좀 들어가고 하면 눈에 이렇게 덮어.)
113011 @ 더퍼?(덮어?)
113011 #6 소곰물로 싹 씻곡 헷주게.(소금물로 싹 씻고 했지.)

296) '당베추'는 중국종의 배추를 말한다.
297) '카지다'는 흙덩이나 가루덩이 따위가 물에 풀리어 아주 잘게 바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113011 #5 더프미는 경 헤영 ᄒᆞ는 걸 봐낫어.(덮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봤었어.)
113011 @ 음.(음.)
113011 #5 두린 때엔.(어린 때에는.)
113011 #5 소곰물로 씻곡 경 헤난.(소금물로 씻고 그렇게 했었어.)
113012 @ 이빨 아플 때는 어떵 헷수과?(이빨 아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13012 #6 아이고, 난 이빨 다 엇인 사름이난, 이빨 아플 땐 어떵 허여게? 약을 먹으민 약 먹고.(아이고, 난 이빨 다 없는 사람이니까, 이빨 아플 땐 어떻게 해? 약을 먹으면 약 먹고.)
113012 #5 아프민 강 빠불곡, 아프민 빠불곡 ᄒᆞ단 보난 원.(아프면 가서 뽑아버리고, 아프면 뽑아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원.)
113012 @ 옛날에는 어떵 헷수과?(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13012 #6 엿날에는 이녁대로 빳지. 아프민.(옛날에는 이녁대로 뽑았지. 아프면.)
113012 #5 씰로 걸려, 확! 둥겨근에.(실로 걸어서, 확! 당겨서.)
113012 #6 흔들민.(흔들면.)
113012 @ 아니, 젓니 빼는 건 경 헌다 치고, 충치 걸려근에.(아니, 젓니 빼는 건 그렇게 한다 치고, 충치 먹어서.)
113012 #6 아이고, 소곰헹 물곡. 또 백분헤당 물곡.(아이고, 소금해서 물고. 또 백반 해다가 물고.)
113012 #5 간장 물곡, 이 빠는 뒨.(간장 물고, 이 빠는 데는.)
113012 #6 백분 헤당 다 물곡, 게 헤서 늬 뻣을 땐.(백반 해다가 다 물고, 그렇게 했어 이빨 쑤실 땐.)
113012 @ 늬 뻣을 땐. 삼춘도 게 백분 헤당 집어 놔낫수과?(이 쑤실 땐. 삼촌도 그럼 백반 해다가 집어넣었었습니까?)
113012 #6 아니, 난 아녀난.(아니, 난 안 했었어.)
113012 #5 백분은 거 독약이주게.(백반은 거 독약이지.)
113012 @ 게난예.(그러니까요.)
113012 #5 독약이난에 그 늬 영 충 그 늬는 그 가운듸 고망 똘라서. 그레 백분을 담는 거주. 그 입 안트레 놩은 큰일 나주게.(독약이니까 그 이 이렇게 충 그 이는 그 가운데 구멍 뚫어지지. 거기에 백반을 담는 거지. 그 입 안에 넣어서는 큰일 나지.)
113012 @ 음.(음.)
113012 #6 백분 담앙.(백반을 담아서.)
113013 @ 그다음엔예, 피곤하거나 이럴 때 막 혓바늘 일잖아에? 혀에 막 뭐 일잖아예?(그다음은요, 피곤하거나 이럴 때 막 혓바늘 일잖아요? 혀에 막 뭐 일잖아요?)
113013 #6 나 막 나.(나도 마구 나.)
113013 @ 걸 뭐렌 골앗수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3 #6 셋가시?(혓바늘?)
113013 @ 셋가시 일민 어떵 헷수과?(혓바늘 일면 어떻게 했습니까?)

113013 #6 셋가시 일민 난 청, 난 청 불라.(혓바늘 일면 난 청, 난 청 바르지.)
113013 @ 청 불르고?(청 바르고?)
113013 #6 응.(응.)
113013 @ 어릴 땐 어떵 헷수과? 청 엇일 땐?(어릴 땐 어떻게 했습니까? 청 없을 때는?)
113013 #6 아이구, 어릴 땐 세우리 영 영.(아이고, 어릴 땐 부추 이렇게 이렇게.)
113013 #5 세우리가 췌고주게.(부추가 최고지.)
113013 #6 세우리 소곰에 헤근에.(부추 소금에 해서.)
113014 @ 맞아예. 여기도 경헷구나예? 그다음엔예, 홍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천연두라고 이섯지예? 옛날에 이서낫잖아예?(맞아요. 여기도 그랬군요? 그다음은요, 홍역하고는 좀 다른 건데, 천연두라고 있었지요? 옛날에 있었었잖아요?)
113014 #6 천연두?(천연두?)
113014 #5 천연두가 홍역이주게.(천연두가 홍역이지.)
113014 @ 홍역하고 다른 거마씸.(홍역하고 다른 거요.)
113014 #6 큰홍역 족은홍역이주게.(큰홍역 작은홍역이지.)
113014 #5 큰한집, 족은한집[298]이엔 헷주게.(천연두, 홍역이라고 했지.)
113014 @ 큰한집 헐 땐 어떵 헷수과?(천연두 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4 #6 큰한집은 우리 아이덜 안 헤보난. 우리 족은 아덜이 큰한집일 거라, 저거. 곰보일멍 홀 때.(천연두는 우리 아이들 안 해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천연두일 거야, 저거. 곰보지면서 할 때.)
113014 @ 아.(아.)
113014 #6 게연 막 얼 먹엇주게.(그래서 매우 얼먹었지.)
113014 @ 그때는 약이라도 사 먹을 때잖아예?(그때는 약이라도 사 먹을 때잖아요?)
113014 #6 응. 엿날에 사 먹언.(응, 옛날에 약 사 먹었어.)
113014 #5 그때 그거 헤근에 죽는 수도 잇곡.(그때 그거 해서 죽는 수도 있고)
113014 #6 큰홍역 ᄒᆞ당 죽는 사름 하주.(천연두 앓다가 죽는 사람 많지.)
113014 #5 그 엿날 어린이덜은 거의 구십 프로가 그 병으로 죽엇주게.(그 옛날 어린이들은 거의 구십 프로가 그 병으로 죽었지.)
113014 @ 혹시 삼춘네 또래도 죽은 경우 이섯수과?(혹시 삼촌네 또래도 죽은 경우 있었습니까?)
113014 #6 엇어, 우린. 아이덜은 엇어.(없어, 우린. 아이들은 없어.)
113014 @ 그때도예?
113014 #6 응.(응.)
113015 @ 그래도 엇언예? 그 아까 '아이 키우면서'에서도 물어본 적이 이섯지만 홍역 헐 땐 어떵 헷수과?(그래도 없어요? 그 아까 '아이 키우면서'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홍역 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298) '족은한집'은 수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홍역을 말한다.

113015 #6 홍역 홀 땐 우리 아이덜 돌아뎅기멍 홍역 헤부난 무신 거 경 뭐 자리 정 눕거나 헤보진 아년.(홍역 할 땐 우리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홍역 해버리니까 무슨 거 그렇게 뭐 자리 져서 눕거나 해보지는 않았어.)
113015 #5 그거 뭐 막 자리 정 누면은 그거 진짜로 위험혼 병이주게.(그거 뭐 막 자리 져서 누우면 그거 진짜로 위험한 병이지.)
113015 @ 그냥 ᄇᆞ름만 씌우지 아녕 집에 그냥 이서난예?(그냥 바람만 씌우지 않고 집에 그냥 있었었지요?)
113015 #5 어, ᄇᆞ름, 집에 가만히 이서야지.(어, 바람,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113015 @ 어, 따로 뭐 먹이는 거도 엇어난마씨?(어, 따로 뭐 먹이는 것도 없었었지요?)
113015 #6 어, ᄯᅳ루 경 엇엇서.(어, 따로 그렇게 없었어.)
113016 @ 음. 학질 알아지쿠과? 학질. 모기 물려 가지고 막 아픈 거.(음. 학질 알겠습니까? 학질. 모기 물려가지고 막 아픈 거.)
113016 #5 말라리아?(말라리아?)
113016 #6 두두레기 파는 거?(두드러기 피는 거?)
113016 @ 막 추엇다가 더웠다 허는 거.(마구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113016 #5 여름철인 그것ᄀᆞ라 뭐엔 ᄀᆞᆫ는니?(여름철에 그것보고 뭐라고 말하니?)
113016 @ 뭐렌 ᄀᆞᆯ아낫수과? 그것 보고.(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 보고.)
113016 #5 말라리아렌 ᄀᆞᆯ아나지 아녜신가?(말라리아라고 말했었지 않았는가?)
113016 #6 뭐엔 ᄀᆞᆯ아나신디, 튼네지 못허키여.(뭐라고 말했었는데, 떠올리지지 못하겠어.)
113016 #5 갑자기 막 얼멍, 털멍 ᄒᆞ는 게 이서낫주게 여름철에.(갑자기 막 얼면서, 떨면서 하는 게 있었었지 여름철에.)
113016 #6 으슥으슥 얼멍?(으슬으슬 얼면서.)
113016 @ 그런 건 게민 어떵 헷수과?(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13016 #5 그런 거 하낫저.(그런 거 많았었지.)
113016 @ 게난. 먹엿던 게 뭐 엇인가예?(그러니까. 뭐 먹였던 거 없을까요?)
113016 #6 그 우리 으슥으슥 얼멍 털멍 ᄒᆞ는 거는.(그 우리 으슬으슬 얼면서 떨면서 하는 거는.)
113016 #5 약이 이서서? 엿날에 약이.(약이 있었어? 옛날에 약이.)
113016 #6 이제사 여름에 으슥으슥 털어가민 병원에라도 감주마는, 그땐 기자 방안에 누웡근엥에 이신벳긔 홀 수엇이 이불 더껑 누웡 그거벳긔 엇어.(이제야 여름에 으슬으슬 떨어가면 병원에라도 가지만, 그땐 그저 방안에 누워서 있기밖에 할 수없이 이불 덮어 누워서 그것밖에 없어.)
113016 #5 저, 열나민 물수건 헤근에 더껑 찜질헤 주는 거 그런 거벳긘 엇어.(저, 열나면 물수건 해서 덮어서 찜질해 주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
113016 #6 그거벳긔.(그거밖에.)

113017 @ 음. 볼거리렌 헤 가지고 요기 막 아이덜 부우멍 아픈 거는 헤낫지예?(음. 볼거리라고 해 가지고 요기 막 아이들 부으면서 아픈 거는 했었지요?)
113017 #6 아, 거는 잉꾸 불라난, 이는 듸(귀 밑 목을 가리키며).(아, 거는 잉크 발랐었어, 이런 데(귀 밑 목을 가리키며).)
113017 @ 잉꾸 불라난예? 걸 뭐렌 골앗수과?(잉크 발랐었다고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7 #6 것ᄀᆞ라 무시거엔 곧나마, 아이고.(그것보고 뭐라고 말한다만, 아이고.)
113017 #5 그 볼테기 영 붓는 거?(그 볼때기 이렇게 붓는 거?)
113017 @ 예, 예.(예, 예.)
113017 #6 무신거엔 골아라 마는 아이고, 튼네지 못허키여.(뭐라고 말해라 마는 아이고, 떠올리지 못하겠어.)
113017 #5 그땐 거 막 유행이라낫주게, 아이덜.(그땐 거 막 유행이었었지, 아이들.)
113017 @ 맞수다. 지금도 유행헙니다.(맞습니다. 지금도 유행합니다.)
113017 #6 지금도 ᄒᆞ는 사름 서?(지금도 하는 사람 있어?)
113017 @ 예. 지금도.(예, 지금도.)
113017 #6 겐디 우리 아이덜은 아녀봐서.(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안 해봤어.)
113017 @ 잉크 발랏구나예?(잉크 발랐군요?)
113017 #6 그 잉꾸 발라.(그 잉크 발라.)
113017 #5 퍼렇게 잉꾸 불랏어.(퍼렇게 잉크 발랐어.)
113017 #6 그 잉꾸가, 펭에 거 이서나서. 그걸 막 이디 불라나서. 건디 놈덜 ᄒᆞᆫ 거, 우리 아이덜은 아녀봔 그런 거.(그 잉크가, 병에 거 있었어. 그걸 막 여기 발랐었어. 그런데 남들 한 거, 우리 아이들은 안 해봤어 그런 거.)
113018 @ 그다음엔 볼거리랑 비슷하기도 한데 다른 거, 목거리라고 헤서 목 막 붓는 병 알아지쿠과?(그다음엔 볼거리랑 비슷하기도 한데 다른 거, 목거리라고 해서 목 막 붓는 병 알겠습니까?)
113018 #6 아, 갑상선 그 목 붓는 거는 그 시절에 뭐 헹 멕엿저마는, 목 붓는 거. 하여튼 뭐 헨 먹연. 목 붓는 건 우리도 건, 우리 아이도 뭐 헨 멕여낫긴 헤서.(아, 갑상선 그 목 붓는 거는 그 시절에 뭐 해서 먹였다만, 목 붓는 거. 하여튼 뭐 해서 먹였어. 목 붓는 건 우리도 건, 우리 아이도 뭐 해서 머였었긴 했어.)
113018 @ 뭐 헨 먹여낫수과?(뭐 해서 먹였었습니까?)
113018 #6 아, 돔박지름.(아, 동백기름.)
113018 @ 돔박지름 멕여근에예?(동백기름을 먹여서요?)
113018 #6 응, 돔박지름.(응, 동백기름.)
113018 #5 건, 복질[299]에 멕이고.(그건, '복질'에 먹이고.)
113018 #6 복질 *아와가 가민 목도 부수곡 헴수게게.('복질' *아와가 가면 목도 붓고 합니다.)

299) '복질'은 기침이 심한 병을 말한다.

113018 @ 맞수다게.(맞습니다.)
113018 #5 복질, 지침, 어린애들 지침ᄒᆞ는 거는 돔박지름이 약이라.(복질, 기침, 어린애들 기침하는 거는 동백기름이 약이야.)
113018 @ 돔박지름.(동백기름.)
113018 #6 기침헤가민, 목 아프민 동박지름.(기침해가면, 목 아프면 동백기름.)
113018 @ 그거 빠다가 흔 숟가락씩 멕엿수과?(그거 뽑아다가 한 숟가락씩 먹였습니까?)
113018 #6 응, 멕여.(응, 먹여.)
113018 #5 물에 캉 멕여도 뒈고.(물에 타서 먹여도 되고.)
113019 @ 그담에예? 그냥 살앗주 허던데, 똠띠 날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은요? 그냥 살았지 하던데, 땀띠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9 #6 똠띠 날 땐?(땀띠 날 땐?)
113019 @ 예.(예.)
113019 #6 어이구, 똠띠 날 땐 기자 어떵 어떵 젼덧주.(어이구, 땀띠 날 땐 그저 어떻게 어떻게 견뎠지.)
113019 #5 똠띠 날 때사 무신.(땀띠 날 때야 무슨.)
113019 #6 ᄀᆞ루왕 긁으멍이라도 전덧주.(가려워서 긁으면서라도 견뎠지.)
113019 @ 아니, 애기들 똠띠 나면.(아니, 아기들 땀띠 나면.)
113019 #6 아, 애기덜 똠띠 날 땐 약 사당 블르곡 헤낫일 거라. 우리 아이덜 똠띠 나게 밧딜 안 뎅기니까, 우리 아이덜은 똠띠 안 나봇주게.(아, 아기들 땀띠 날 땐 약 사다가 바르고 했었을 거야. 우리 아이들 땀띠 나게 밭에를 안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땀띠 안 나봤지.)
113019 #5 할망이 집이서만 기냥 살아놓난.(할머니가 집에서만 그냥 살아놓으니까.)
113019 @ 시원하고 하난예. 문 열민.(시원하고 하니까요. 문 열면.)
113019 #6 초가집이난, 그 완전 그때 남향집이난 시원ᄒᆞ곡.(초가집이니까, 그 완전 그때 남향집이니까 시원하고.)
113020 @ 그믄 허물 날 땐 어떵 헷수과?(그러면 허물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20 #6 허물 날 땐 약 블르고, 거 무시거렌.(허물 날 땐 약 바르고, 거 뭐라고.)
113020 #5 고약이라고 헹 이, 궤약, 궤약 ᄒᆞ주게.(고약이라고 해서 이, 고약, 고약 하지.)
113020 @ 고약예? 그거는 기냥 파는 거마씨?(고약이요? 그거는 그냥 파는 거지요?)
113020 #5 파는 거주.(파는 거지.)
113020 @ 집에서 무신 약초를 뜯어가지고 한 적은 엇수과?(집에서 무슨 약초를 뜯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까?)
113020 #6 아이덜 뭐 홀 때는 젤멩주[300] 헤당 거 멕이곡 헤낫주.(아이들 뭐 할 때는

300) '절멩주'는 메주콩크기의 작은 환으로 만들어진 조약인데, 숟가락에 짜낸 어머니 젓에 부숴 섞여먹였던 약으로 열이 나거나 경기 등에 먹였다고 한다.

‘젤멩주’ 해다가 거 먹이고 했었지.)
113020 @ 젤멩주는 무시거꽈?(‘절멩주’는 무엇입니까?)
113020 #6 대썹 헤근에 ᄉᆞ라근에 그거 궤영 멕이곡 헤낫주.(댓잎 해서 살라서 그거 끓여서 먹이고 했었지.)
113020 #5 조약으로는 그 저 우리도 그거 많이 헤봣는디.(조약으로는 그 저 우리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113020 @ 허물 나신듸마씨?(허물 났는데요?)
113020 #6 거 허물 날 때는 저 고약 헤당 부찌고, 거 풀, 함박풀인가 잇잖으꽈? 그거 헤당, 함박풀이엔 헌 거 헤다근에 독독 두두령 소금에 헤영 부쩌나서.(거 허물 날 때는 저 고약 해다가 붙이고, 거 풀, 병풀인가 있잖습니까? 그거 해다가, 병풀이라고 한 거 해다가 톡톡 두드려서 소금에 해서 붙였었어.)
113020 #5 ᄆᆞᆯ싸움고장이라고 이섯는디 거 허곡 함베낭[301] 거죽 헤다근에 새 꺼플 헤당 똑 부찌곡.(제비꽃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하고 황벽나무 껍질 해다가 새 껍질 해다가 톡 붙이고.)
113020 @ 무신 낭마씨?(무슨 나무요?)
113020 #5,6 함베낭.(황벽나무.)
113020 @ 함베낭은 어떵 거꽈?(황벽나무는 어떤 겁니까?) .
113020 #5 함베낭 거죽이 이쪽으로 뒈이서.(황벽나무 껍질이 이쪽으로 돼있어.)
113020 #6 노랑ᄒᆞ게.(노랑하게.)
113020 #5 처음에 잇는, 중간에 거죽은 질기고, 저 노랑헌 요런 색깔이고.(처음에 있는, 중간에 껍질은 질기고, 저 노란 요런 색깔이고.)
113020 @ 예.(예.)
113020 #5 우에는 또 북삭북삭[302]ᄒᆞ는 껍데기 잇는 나무가 이서. 막 나무는 질긴 나문디, 그 껍데기가 고름 짜내는 그 역할을 ᄒᆞ주게.(위에는 또 ‘북삭북삭’한 껍데기가 있는 나무가 있어. 매우 나무는 질긴 나문데, 그 껍데기가 고름 짜내는 그 역할을 하지.)
113020 @ 음, 고름 짜는 역할. 그런 거 발라낫구나예?(음, 고름 짜는 역할. 그런 거 발랐었군요?)
113021 @ 그다음은 헌 데 잇잖아예? 이런데 막 헐고 이럴 때.(그다음은 헌 데 있잖아요? 이런데 막 헐고 이럴 때.)
113021 #6 아, 이디가 막 헐어근에 뭐 헐 때.(아, 여기가 막 헐어서 뭐 할 때?)
113021 @ 그땐 뭐 발라낫수과?(그땐 뭐 발랐었습니까?)
113021 #5 건 비리엔 ᄒᆞ는 건가?(그건 옴이라고 하는 건가?)
113021 #6 건 저 가시새.(그건 저 파리풀.)
113021 @ 가시새?(파리풀?)
113021 #6 가시새 헤다가 그 ᄆᆞᆯ랴서 그 개여근에.(파리풀 캐다가 그 말려서 그 개어

301) ‘함베낭’은 황벽나무를 말한다. 여기서 발화자는 ‘함벡낭’을 ‘함베낭’이라 발음한 듯하다.
302) ‘북삭북삭’은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서.)
113021 @ 예.(예.)
113021 #5 막 ᄀᆞ루와 그건, 긁으주게.(매우 가려워 그건, 긁지.)
113921 #6 막 ᄀᆞ룬디 가시새, 그 모욕도 그거 헤다근에 모욕도 ᄒᆞ고, 그 물로 헤여근에.(막 가려운데 파리풀, 그 목욕도 그거 캐다가 목욕도 하고, 그 물로 해서.)
113021 @ 가시새는 뭐꽈?(파리풀이 뭡니까?)
113021 #5 가시새 뿔리 파다근에 불에 태왕, 저 숫ᄀᆞ찌 멘드랑, 기름에 놔근에 영 영 막 ᄒᆞ면은 물로 헹 블루주게.(파리풀 뿌리 파다가 불에 태워서, 저 숯처럼 만들어서,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마구 비비면 물로 해서 바르지.)
113021 #6 경 ᄒᆞ고 모욕도 ᄒᆞ고, 그 물에.(그렇게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물에.)
113021 @ 가시새가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파리풀이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
113021 #6 가시새는 박핫 입 닮은 거라.(파리풀은 박하 잎 닮은 거야.)
113021 @ 아, 기꽈? 박핫 입 닮은 건디 넓은 거?(아, 그래요? 박하 잎 닮은 건데 넓은 거?)
113021 #6 음, ᄒᆞ쏠 넓은 거.(음, 조금 넓은 거.)
113021 @ 모시 얘기헴신가?(모시 얘기하는가?)
113021 #6 모시 아니. 똑, 박핫 닙ᄀᆞ찌 똑 박핫 닙 나온 거 닮은 거야.(모시 아니. 똑, 박하 잎같이 똑 박하 잎 나온 거 닮은 거야.)
113021 #5 그건 원 나무도 크지 아녀여. 요만이.(그건 원 나무도 크지 않아. 요만큼.)
113021 @ 게민 지금도 막 이서마씨?(게민 지금도 막 있나요?)
113021 #6 지금도 요듸 가민 이서.(지금도 요기 가면 있어.)
113021 @ 아. 기꽈?(아, 그래요?)
113021 #5 **네 촐왓듸 가민 이서, 촐왓듸.(**네 꼴밭에 가면 있어, 꼴밭에.)
113021 #6 지금도 막 이서.(지금도 마구 있어.)
113021 #5 촐왓듸.(꼴밭에.)
113021 @ 나중에 한번, 이제 앞으로 식물 이름덜 수백 가지 헐 거라예. 그 안에 혹시라도 보여주민 그림 안에 이시민 ᄀᆞᆯ아줍서예?(나중에 한번, 이제 앞으로 식물 이름들 수백 가지 할 거에요. 그 안에 혹시라도 보여주면 그림 안에 있으면 말해주세요?)
113021 #6 응.(응.)
113022 @ 그다음에는 허물하고도 좀 다른데 종기 잇잖아예?(그다음에는 허물하고도 좀 다른데 종기 있잖아요?)
113022 #6 아, 종기 난 거는 저, 것도 종기 난 것도 그 종기 나민 그 고름 짜젠.(아, 종기 난 거는 저, 것도 종기 난 것도 그 종기 나면 그 고름 짜려고.)
113022 @ 예, 예.(예, 예.)
113022 #5 것도 함베낭.(그것도 함박이.)
113022 @ 것도 함베낭마씨?(그것도 함박이요?)
113022 #6 어, 저 것도 함박꿀 헤당 고름 짜 놩 그디 부찌곡.(어, 저 것도 병풀 해다

가 고름 짜 놓고 거기 붙이고.)
113024 @ 그다음 생손앓이렌 헌 말 들어봣지예?(그다음 생손앓이라고 한 말 들어봤지요?)
113024 #6 생손 알리는 건 천지라. 거는 늬로 씹어.(생손 아리는 건 천지라. 거는 이로 씹었어.)
113024 @ 생손을?(생손을?)
113024 #6 응. 손을 영영영 씹어(손가락 끝을 씹는다) 알린, 생손 알린 거.(응. 손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씹었어(손가락 끝을 씹는다). 아린, 생손 아린 거.)
113024 #5 요디 생손을 나 가민 막 가려우멍 막 아푸주게.(요기 생손이 아려 가면 매우 가려우면서 매 아프지.)
113924 @ 예.(예.)
113024 #5 게민 그거는.(그러면 그거는.)
113024 #6 늬로 막 씹주게.(이빨로 마구 씹지.)
113024 #5 이빨로 그자 생각나는 대로 자꾸 ᄒᆞ면은 그게 없어저부러.(이빨로 그자 생각나는 대로 자꾸 하면 그게 없어져버려.)
113024 @ 무사 생손 앓아신고예?(왜 생손이 앓았을까요?)
113024 #6 아이 몰라, 무사 생손 알려, 생손 알리는 게 무신 때문에 생손 알리는 건지 몰라.(아니 몰라, 왜 생손 아려, 생손 아리는 게 무신 때문에 생손 아리는 건지 몰라.)
113024 #5 게난 그게 베접이엔 ᄒᆞ주게.(그러니까 그게 '베접'이라고 하지.)
113024 @ 무시거마씨?(뭐라고요?)
113024 #5 베접 낫젠.(생손앓이 났다고.)
113024 @ 아, 베접 낫젠예?(응, 생손앓이 났다고요?)
113024 #6 응, 베접 낫젠.(응, 생손앓이 났다고.)
113024 @ 그믄 이빨로 씹으민 그냥 낫안예?(그러면 이빨로 씹으면 그냥 나았어요?)
113024 #6 응.(응.)
113025 @ 땀띠도 잇고 땀띠하고 좀 다른 게 두드레기잖아예? 두드레긴 어떵 헷수과?(땀띠도 있고 땀띠하고 좀 다른 게 두드러기잖아요? 두드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113025 #5 거 뭐 춤 뭐 잘못 먹어근에.(거 뭐 참 뭐 잘못 먹어서.)
113025 #6 두디레기 날 때는, 것도 뭐 소곰물 헤근에 소곰물 헤영 모욕을 ᄒᆞ든가 무신거 헤서, 것도.(두디러기 날 때는, 것도 뭐 소금물 해서 소금물 해서 목욕을 하든가 뭣 했어, 것도.)
113027 @ 것도예?(그것도요?)
113027 #6 응.(응.)
113027 @ 어, 혹시 애기덜 중에 경기헤난 애기 이수과?(어, 혹시 아기들 중에 경기했던 아기 있습니까?)
113027 #6 우린 경기헤난 애기 엇어.(우린 경기했던 아기 없어.)

113027 @ 경기엔 어떵 헷인지 안 들어봣수과?(경기엔 어떻게 했는지 안 들어보셨습니까?)
113027 #6 경기ᄒᆞ는 아인 천진지 알앗주.(경기하는 아이는 천진지 알지.)
113027 #5 경기ᄒᆞ는 거는 갑자기 자빠저근에 정신 일러부는 게 경기라고 ᄒᆞ는디, 그거 저 무신 뭐 청심환?(경기하는 거는 갑자기 자빠져서 정신 잃어버리는 게 경기라고 하는데, 그거 저 무슨 뭐 청심환?)
113027 #6 어, 청심환 헨 먹엿저.(어, 청심환 해서 먹였어.)
113027 #5 청심환이 아니고.(청심환이 아니고.)
113027 #6 정로환, 정로환.(정로환, 정로환.)
113027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3027 #6 절멩지[303] 헤근에 갈아나지 아녓수과?('절멩지'해서 갈았었지 않았습니까?)
113027 #5 절멩지.('절멩지'.)
113027 #6 절멩지 헤당 갈아 멕여낫주게.('절멩지' 해다가 갈아 먹였었지.)
113027 @ 절멩지마씨?('절멩지'요?)
113027 #6 절멩지, 약국에 가민 약방에 저 무시거 한약방에 가민 팔아.('절멩지', 약국에 가면 약방에 저 무엇 한약방에 가면 팔았어.)
113027 #5 약국에 노랑헌 약 잇주게. 그게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그걸 헹 먹엿주.(약국에 노랑한 약 있지. 그게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그걸 해서 먹였지.)
113027 #6 그거 헹 멕연.(그거 해서 먹였어.)
113027 @ 음.(음.)
113027 #6 정기ᄒᆞ는 아이덜. 거 무시거 이수게. 그디 돌아뎅기는 거, 아이구 무시거 매, 매 헤다근에 정기ᄒᆞ는 사름 딸령 물 헹 멕이구.(경기하는 아이들. 거 무엇 있습니다. 거기 돌아다니는 거, 아이고 무엇 매, 매 해다가 경기하는 사람 다려서 물 해서 먹이고.)
113027 @ 물 헹 멕이고예?(물 해서 먹이고요?)
113027 #6 응.(응.)
113027 @ 그 정기헤서 혹시 그게 나중 막 어른이 뒈도 막 아프고 허는 사름.(그 경기해서 혹시 그게 나중 막 어른이 돼도 막 아프고 하는 사람.)
113027 #6 경 ᄒᆞᆫ 사름, 우리 ᄉᆞ춘아지망도 경 헤나서, 시방도 헤낫수게게. 00이 어멍. 밤이 막 이추룩 이처부리는 거.(그렇게 한 사람, 우리 사촌아주머니도 그렇게 했었어, 시방도 했었잖아요. 00이 어머니. 밤에 마구 이처럼 잊어버리는 거.)
113027 @ 그믄 그럴 땐 뭐 뭐 먹연마씨?(그러면 그럴 땐 뭐 뭐 먹였어요?)
113027 #6 ᄆᆞᆯ, ᄆᆞᆯ 무시거.(말, 말 무엇.)
113027 #5 그건 저 뭐 아냐?(그건 저 뭐 아니야?)

303) '절멩주'는 메주콩크기의 작은 환으로 만들어진 조약인데, 숟가락에 짜낸 어머니 젖에 부숴 섞여먹였던 약으로 열이 나거나 경기 등에 먹였다고 한다.

113027 #6 간질.(간질.)
113027 #5 간질.(간질.)
113027 #6 게 그 정기ᄒᆞ당 버치민 그것이 간질이 뒈는 거 아니꽈게?(게 그 경기하다가 부치면 그것이 간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113027 @ 간질에 데헤선 다시 여쭤볼게예? 정기할 때는 아까 뭐꽈? 그거? 매 딸령 멕이고, 그담엔 아까 무시거 아까 정로환 아니고?(간질에 대해선 다시 여쭤볼게요? 경기할 때는 아까 뭡니까? 그거? 매 다려서 먹이고, 그담엔 아까 무엇 아까 정로환 아니고?)
113027 #6 절멩주.('절멩주'.)
113027 @ 절멩주.('절멩주'.)
113027 #6 응, 절멩주. 그거 이서. 빨강 ᄒᆞᆫ 거라.(응, '절멩주'. 그거 있어. 빨강 한 거야.)
113027 @ 음.(음.)
113027 #6 우리 애기덜토 그런 거 멕여낫어.(우리 아기들도 그거 먹였었어.)
113027 @ 음.(음.)
113027 #6 큰아방 순아네.(큰아버지 순아네.)
113028 @ 그러면예 물이나 불에 데엿을 때 화상 입엇을 땐 어떵 헷수과?(그러면요 물이나 불에 데었을 때 화상 입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28 #6 화상 입을 때, 아이고.(화상 입을 때, 아이고.)
113028 #5 하이고, 화상사 조고만이덜 물에 데영덜? 우리 손지도 육지서 오란 버련허단에 손 팔팔 끌리는, 그 누게 태기 경 안 헤나시야? 국사발러레, 게난 저 무시거 저저 알루웨.(하이고, 화상이야 조그만들 물에 데서들? 우리 손주도 육지서 와서 부산떨다가 손 팔팔 끓는, 그 누구 태기 그렇게 안 했었니? 국그릇에, 그러니 저 무엇 저저 알로에.)
113028 @ 알로에 집에 키우는 게 이서낫수과?(알로에 집에 키우는 게 있었었습니까?)
113028 #6 우리 시방 잇주게. 하우수에 ᄒᆞ나 잇주.(우리 시방 있지. 비닐하우스에 하나 있지.)
113028 #5 알루웨 그 거 헹 부찌는 게 최고. 원, 그보단 더 헌 약이 병원에 가도 없어.(알로에 그 거 해서 붙이는 게 최고. 원, 그보단 더 한 약이 병원에 가도 없어.)
113028 @ 음.(음.)
113028 #5 덴 듸는.(덴 데는.)
113028 @ 음. 옛날 알로에 엇일 땐 어떵 헤신고예?(음. 옛날 알로에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113028 #6 아이고, 엇일 땐 그 저 무신걸로 헹 어떵사 관리헤신지 몰라.(아이고, 없을 땐 그 저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야 관리했는지 모르겠어.)
113028 #5 약은 이서? 전디무로 살앗주덜.(약은 있어? 견딤으로 살았지.)
113029 @ 동상 입엇을 땐 어떵 헷수과?(동상 입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29 #6 동상 입을 땐, 저 더운물 헤근에 발 듬그는 거벳긔.(동상 입을 땐, 저 더운물 해서 발 담그는 거밖에.)
113029 @ 동상 걸리믄 더운물에 발 담갓다가 나중에 차가우면 더 심헤질 수도 잇지 안헤마씨? 특별나게 뭐 엇엇수과?(동상 걸리면 더운물에 발 담갔다가 나중에 차가우면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특별나게 뭐 없었습니까?)
113029 #6 우린 동상 입어보지 아녀나보난 몰라.(우린 동상 입어보지 않아봐서 몰르겠어.)
113029 @ 음. 아니 어떤데 보면.(음. 아니 어떤 데 보면.)
113029 #6 놈삐, 놈삐 헤근에 저 막 ᄒᆞ는 사람도 이서, 동상 걸령. 무우, 무헤근에.(무, 무해서 저 막 하는 사람도 있어, 동상 걸려서. 무, 무해서.)
113029 @ 기지예? 무우로예? 아니 어떤 마을은 가지.(그렇지요? 무로요? 아니 어떤 마을은 가지.)
113029 #6 응.(응.)
113029 @ 가지 낭 딸려서 담근다든가.(가지 줄기 다려서 담근다든가.)
113029 #6 여긴 무우헤근에 막 그디 발에 막 ᄃᆞᆼ과. 그 무우 딸령 ᄯᅳ뚯ᄒᆞ게 헤그근에 이 자꾸 동상 입는 건. 겐디 우린 동상 안 입어보난에.(여긴 무우해서 막 거기 발에 막 담그지. 그 무 다려서 따뜻하게 해서 이 자꾸 동상 입는 건. 그런데 우린 동상 안 입어보니까.)
113029 @ 여긴 추운지역 아니꽈?(여긴 추운지역 아닙니까?)
113029 #6 경 막 춥다 ᄒᆞ지는, ᄇᆞᄅᆞᆷ은 이서도.(그렇게 막 춥다 하지는, 바람은 있어도.)
113029 #5 여긴 경 안 추워.(여긴 그렇게 안 추워.)
113029 #6 집은 어디라? 시예 아니?(집은 어디야? 제주시 아니니?)
113029 @ 아니, 우린 서귀포마씨.(아니, 우린 서귀포요.)
113029 #6 아, 서귀포? 서귀폰 ᄯᅳ뚯헌 듸난 더.(아, 서귀포? 서귀폰 따뜻한 데니까 더.)
113030 @ 게난예? 경헤도 전 워낙 추위타난예, 동상을 잘 걸립디다게.(그러게요? 그래도 전 워낙 추위타서요, 동상을 장 걸립디다.)
113030 #6 응, 동상을 잘 걸려?(응, 동상을 잘 걸렸어?)
113030 @ 예, 옛날에 책가방 들르면 손에까지 동상이 걸령 고셍허곡 헤낫인디예.(예, 옛날에 책가방 들면 손에까지 동상이 걸려서 고생하고 했었어요.)
113030 #6 응.(응.)
113030 @ 그 감기 걸렸을 땐 어떵 헤낫수과?(그 감기 걸렸을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13030 #6 감기 걸렷일 때는 감기약 사당 먹어야주.(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 사다가 먹어야지.)
113030 @ 아니, 약이 엇엇일 때. 삼춘네 애길 때.(아니, 약이 없었을 때. 삼촌네 아길

때.)
113030 #6 아이고, 약 엇일 때 감기 헤근에 무시거 먹어저신고?(아이고, 약 없을 때 감기 걸려서 무엇 먹어졌을까?)
113030 #5 저, 고뿔들엇덴 ᄒᆞ멍, 약이 서서?(저, 고뿔들었다고 하면서, 약이 있었어?)
113030 #6 하이튼 조약헤지민 조약헤서.(하여튼 조약해지면 조약했어.)
113030 #5 조약도.(조약도.)
113030 #6 조약ᄒᆞ긴 조약헤실 건디.(조약하긴 조약했을 건데.)
113030 @ 조약이 무시거꽈?(조약이 뭡니까?)
113030 #5 애기덜은 낳근에 열나곡 경 ᄒᆞ면은 줏.(아기들은 낳아서 열나고 그러면, 애벌레.)
113030 #6 뽕나무[304]에 줏[305], 줏. 그 베렝이. 뽕나무에 베렝이.(뽕나무의 애벌레번데기, 애벌레번데기. 그 애벌레. 뽕나무의 애벌레.)
113030 #5 뽕나무 ᄊᆞ곱에 번데기가 이만씩(검지를 끝을 보이며) 헌 거 들어가.(뽕나무 속에 번데기가 이만씩(검지 끝을 보이며) 한 게 들어있어.)
113030 @ 아.(아.)
113030 #5 뽕나무 나무ᄊᆞ곱에.(뽕나무 나무속에.)
113030 @ 아.(아.)
113030 #6 그거 헤다근에.(그거 해다가.)
113030 #5 게민 그거 헤다가.(그러면 그거 따다가.)
113030 #6 물 딸렁.(물 다려서.)
113030 #5 그 ᄊᆞ곱에 거 눌루면은.(그 속에 거 누르면.)
113030 #6 짜.(짜.)
113030 #5 하얀 게 나오주게.(하얀 게 나오지.)
113030 @ 음.(음.)
113030 #5 하얀 물이. 게 그거 멕이민 대번, 대번 나아낫어.(하얀 물이. 그래 그거 먹이면 대번에, 대번에 나았었어.)
113030 @ 아.(아.)
113030 #6 줏 타레 막덜 뎅겨가민 막 하낫주.(애벌레번데기를 따러 마구들 다녀가면 매우 많았었지.)
113030 @ 음.(음.)
113030 #6 뽕낭에 것도 ᄒᆞ곡, 귀까시낭에 거도 ᄒᆞ곡.(뽕나무의 것도 하고, 꾸지뽕나무 것도 하고.)
113030 #5 귀까시낭엔 건 좋질 아년덴 헷주.(꾸지뽕나무에 건 좋지를 않다고 했지.)
113030 @ 귀까시낭이나 뽕낭이나 비슷한 나무잖아예?(꾸지뽕나무나 산뽕나무나 비슷한 나무잖아요?)

304) 여기서 뽕나무는 야생 산뽕나무를 말한다.
305) '줏'은 산뽕나무의 애벌레번데기를 말한다.

113030 #6 어, 비슷흔 거. 귀까시낭 좋텐 ᄒᆞ멍 다 파가비연 ᄒᆞ나토 엇수다.(어, 비슷한 거. 꾸지뽕나무 좋다고 하면서 다 파가버려 하나도 없습니다.)
113030 @ 게난예.(그러게요.)
113031 @ 막 기침 계속할 땐 어떵 헷수과?(막 기침 계속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31 #6 목질[306]이렌 ᄒᆞ멍 그것 저 것도 저 그거주게. 뽕낭, 그거.('목질'이라고 하면서 그것 저 것도 저 그거지. 뽕나무, 그거.)
113031 @ 그거 멕연예?(그거 먹였어요?)
113031 #6 어, 그거 멕연. 목질에.(어, 그거 먹였어. '목질'엔.)
113031 @ 기침하는 것을 목질이렌마씨?(기침하는 것을 목질이라고요?)
113031 #6 어른들은 저 댕유지[307]고. 딸령 먹곡 그자.(어른들은 저 '당유지'고. 다려서 먹고 그저.)
113031 @ 댕유지마씨? 아, 맞아, 맞아. 댕유지예?('댕유지'요? 아, 맞아, 맞아. '댕유지'요?)
113031 #6 어, 댕유지. 댕유지에 저 무시거 놩 딸령 먹고. 저 셍강 이서 셍강.(어, '댕유지'. '댕유지'에 저 무엇 넣어 다려서 먹고. 저 생강 있어 생강.)
113031 @ 생강 놔가지고예.(생강 넣어가지고요.)
113031 #6 그거주게, 그거.(그거지, 그거.)
113031 @ 음.(음.)
113031 #6 엿날엔 기자.(옛날에는 그저.)
113031 @ 댕유지는 거의 집집마다 ᄒᆞ나씩은 이섯지예?('댕유지'는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지요?)
113031 #6 우리도 이서, 우리도.(우리도 있어, 우리도.)
113031 @ 지금도 이수과?(지금도 있습니까?)
113031 #6 응, 낭 이서. 올리도 꼿 피엄선게.(응, 나무 있어. 올해도 꽃 피고 있어.)
113031 @ 기꽈?(그래요?)
113031 #6 음.(음.)
113032 @ 그다음엔 아이덜 딸꾹질헐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아이들 딸꾹질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32 #6 아이고 딸꾹질 어떵, 등 탁 두두렷주.(아이고 딸꾹질 어떻게, 등 탁 두드렸지.)
113032 #5 등 탁! 두두리멍 '너 누게네 어디서 도독질 헤 왓지?' ᄒᆞ면은 예가 깜짝 놀레부려. 거민 엇어저.(등 탁! 두드리면서 '너 누구네 어디서 도둑질 해 왔지?' 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버려. 그러면 없어져.)
113032 @ 게메 경헷덴 헙디다게.(그러게 그랬다고 합디다.)
113033 @ 코피 날 땐 어떵 헷수과?(코피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306) '목질'은 심한 기침병을 말한다.
307) '댕유지'는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둘투둘한 아주 큰 유자의 한 가지를 말하는데, 달리 '당유지', '댕유조'라고 한다.

113033 #6 코피 날 땐 뭐 속 헤다근에 이디(콧구멍을 가리키며.) 집어놧주.(코피 날 땐 뭐 쑥 해다가 여기(콧구멍을 가리키며.) 집어넣었지.)
113033 @ 속 비벼근에?(쑥 비벼서?)
113033 #6 어, 속 부셔근에.(어, 쑥 부셔서.)
113033 #5 놀속 헤근에 비병 코 막으민 대번 원.(날쑥 해서 비벼서 코 막으면 단번에 원.)
113033 @ 코 속에 담고예?(코 속에 담고요?)
113033 #6 응.(응.)
113033 #5 지혈 시키는 거난에, 속은.(지혈 시키는 거니까, 쑥은.)
113034 @ 옛날에 감기 걸려난 다음에 기침 같은 거 할 때도 가레 같은 거 끓으면 건 어떵 헷수과? 가레 막 날 땐?(옛날에 감기 걸려난 다음에 기침 같은 거 할 때도 가래 같은 거 끓으면 건 어떻게 했습니까? 가래 막 생길 땐?)
113034 #6 아이고, 게메. 가레, 가레 헤근에 조약으로 먹어 살아져신가?(아이고, 글쎄. 가래, 가래 해서 조약으로 먹어 살아졌는가?)
113034 #5 거 나 원 몰라.(거 나 원 모르겠어.)
113034 #6 이 시방도 감기 걸렷당 좋아갈 땐 기침 헐 때 가레 글ᄀᆞ랑글ᄀᆞ랑 허는 사름도 이신디 우린 경을 아녀보난에 원.(이 시방도 감기 걸렸다가 좋아갈 땐 기침할 때 가래 갈그랑갈그랑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봐서 원.)
113034 @ 조약은?(조약은?)
113034 #6 조약은 뭐홀 듸도 감기 걸릴 때는 마 거벳긔 댕유지벳긔 더 서?(조약은 뭐 할 데도 감기 걸릴 때는 마 그것밖에 '댕유지'밖에 더 있어?)
113034 @ 음.(음.)
113034 #6 거 저 파뿔리도 파뿔리 딸령 먹고.(거 저 파뿌리도 파뿌리 다려서 먹고.)
113034 #5 ᄆᆞ물축.(메밀죽.)
113034 #6 ᄆᆞ물축 쒕 파뿔리 썰어.(메밀죽 쑤어서 파뿌리 썰어.)
113034 #6 써 놩.(써서 놓고.)
113034 @ 예.(예.)
113034 #6 탁베기 헤근에.(막걸리 해서.)
113034 #5 탁베기 혼 보시 그레 비와근에 저성 것도 먹어나고, 감기에.(막걸리 한 보시기 거기에 부어서 저어서 것도 먹었었고, 감기에.)
113034 @ 탁베기가 무시거꽈?('탁베기'가 뭡니까?)
113034 #6 막걸리게.(막걸리야.)
113034 @ 아, 막걸리.(아, 막걸리.)
113034 #6 막걸리 만들어근에.(막걸리 만들어서.)
113034 #5 그거 ᄒᆞ면은 그거 먹어근에 똠 늬우민 존넨 ᄒᆞ멍, 똠 네와불민 좋넨 ᄒᆞ멍.(그거 하면 그거 먹어서 땀을 내면 좋다고 하면서, 땀 내어버리면 좋다고 하면서.)
113034 #6 ᄆᆞ물축에 파뿔리 헤근에 먹으민 좋넨, 좋넨.(메밀죽에 파뿌리 해서 먹으면

좋다고, 좋다고.)
113034 #5 ᄆᆞ물축ᄒᆞ고 그거 대게.(메밀죽하고 그거 대체적으로.)
113034 @ 그 파뿔리는 대파 얘기허는 거꽈?(그 파뿌리는 대파 얘기하는 겁니까?)
113034 #6 아니, 아니. 쪽파. 쪽파뿔리.(아니, 아니. 쪽파. 쪽파뿌리.)
113034 @ 아, 기꽝? 기구나.(아, 그래요? 그렇구나.)
113034 #6 응.(응.)
113035 @ 그다음엔 가래톳[308], 가렌데 이제 기침 헤난 다음에 가레가 잇고, 그다음엔 이 완전 고질적으로 가레가 계속 끼는 거 잇잖아예? 그런 건 어떵 헤신고예?(그다음엔 가래톳, 가랜데 이제 기침 했었던 다음에 가래가 있고, 그다음엔 이 완전 고질적으로 가래가 계속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했을까요?)
113035 #5 그 가레 그 저 목에 코 코 막앙 가레로 막 코도 막아불곡.(그 가래 그 저 목에 코 코 막아서 가래로 막 코도 막아버리고.)
113035 #6 아이고 무시거 하르방[309] 감기 걸령 멩멩헴싱게.(아이고 무엇 할아버지 감기 걸려서 맹맹하시네.)
113035 #5 저, ᄏᆞ. ᄏᆞ 멕여 ᄏᆞ. ᄏᆞ줄. ᄏᆞ 잇어. 저 ᄏᆞ줄.(저, 박. 박 먹여 박. 박줄기. 박 있어. 저 박줄기.)
113035 #6 저, 박, 박. 박줄.(저, 박, 박. 박줄기.)
113035 @ 예, 예예.(예, 예예.)
113035 #5 박줄.(박줄기.)
113035 @ 예.(예.)
113035 #5 그 웨 가을철에는 박 타불민 줄만 남잖여게?(그 왜 가을철에는 박 따버리면 줄기만 남잖아?)
113035 @ 예, 예예.(예, 예예.)
113035 #5 그거 헤다근에 딸령 실컷 먹어난 뭣이, 멕여난 기역이 나.(그거 해다가 다려서 실컷 먹어난 뭣이, 먹였던 기억이 나.)
113035 @ 예. 그 박은 어떤 박마씨? 둥근 박이꽈? 아니믄 콕박세기?(예. 그 박은 어떤 박인가요? 둥근 박입니까? 아니면 '콕박세기'?)
113035 #6 콕박세기[310], 엿날 그걸로 저 밥 국. 강, 밧듸 강 일허레 갓당 걸로.('콕박세기', 옛날 그걸로 저 밥 국. 가서, 밭에 가서 일하러 갔다가 그걸로.)
113035 #5 그릇으로 써낫어.(그릇으로 썼었어.)
113035 #6 또 물박도 그걸로 헤낫수게. 우리도.(또 물바가지도 그걸로 했잖습니까. 우리도)
113036 @ 설사 날 땐 뭐 먹어낫수과?(설사 날 땐 뭐 먹었었습니까?)
113036 #5 설사 날 때는.(설사 날 때는.)
113036 #6 거 무신 뿔리 헤단 딸려 먹으민 설사 좋아낫어. 이젠 약 먹으민 좋주마

308) 여기서 질문자가 가래톳을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였음을 밝힌다.
309)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310) 'ᄏᆞ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는.(거 무슨 뿌리 해다가 다려 먹으면 설사 좋았었어. 이젠 약 먹으면 좋지만.)
113036 #5 설사 약이엔 흔 것이 저 뭐, 이질풀이라고 잇주. 일본말로 겟노쑈코[311] 라는 건디.(설사 약이라고 한 것이 저 뭐, 이질풀이라고 있지. 일본말로 '겟노쑈코' 라는 건데.)
113036 @ 예.(예.)
113036 #5 이질풀이랏는디 그거 딸령 두 컵만 먹으면 웬만헌 설사는 그 그냥 좋아부러.(이질풀이었는데 그거 다려서 두 컵만 먹으면 웬만한 설사는 그 그냥 좋아버려.)
113036 @ 아. 이질풀을예?(아, 이질풀을요?)
113036 #5 완전히.(완전히.)
113036 @ 이질풀을 풀을 딸렷수과? 뿌리를 딸렷수과?(이질풀을 풀을 다렸습니까? 뿌리를 다렸습니까?)
113036 #6 풀, 풀. 기자 남 낭아래 요, 요 꿀 벋는 거난 끄차다근에.(풀, 풀. 그저 나무 나무아래 요, 요 줄기 뻗는 거니까 잘라다가.)
113036 #5 녹색, 녹색인가? 보라?(녹색, 녹색인가? 보라?)
113036 #6 보라색.(보라색.)
113036 #5 요런 색으로 꽃이 피어.(요런 색으로 꽃이 피어.)
113036 @ 예.(예.)
113036 #6 요 가셍이에 가민 나.(요 가장자리에 가면 나있어.)
113036 #5 겐디, 늙은이덜은 이질풀이렌 ᄒᆞ민 잘 모르고.(그런데, 늙은이들은 이질풀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113036 @ 예.(예.)
113036 #5 겟노쑈코라면은 뭐 흔 칠십 세 이상은 다 알거라.(이질풀이라면 뭐 한 칠십 세 이상은 다 알거야.)
113036 @ 음.(음.)
113036 #5 그게 어쩌다가 그 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설사가 그렇게 심ᄒᆞ게 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그거 먹어서 나은 사름이 이서.(그게 어쩌다가 그 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설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그거 먹어서 나은 사람이 있어.)
113036 @ 음.(음.)
113036 #5 게난 설사 난듸는 이것이 아주 최고여, 최고.(그러니 설사 난데는 이것이 아주 최고야, 최고.)
113036 @최고예?(최고요?)
113036 #5 어. 게난 뭐 이거를 뭐 어디 저, 들에 나가면은 많아, 이거는.(어.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디 저, 들에 나가면 많아, 이거는.)
113037 @ 음. 그믄 설사 날 때는 겅 하고, 진짜 이질 걸렷을 땐 어떵 헤신고예?(음. 그러면 설사 날 때는 그렇게 하고, 진짜 이질 걸렸을 땐 어떻게 했는가요?)

311) '겟노쑈코'는 일본어 'げんのじょうこ'로 이질풀을 말한다.

113037 #5 이질?(이질?)
113037 @ 예.(예.)
113037 #5 이질은 싸지 못헹 삐지직 삐지직 ᄒᆞ멍 피 나곡 ᄒᆞ는 건디.(이질은 싸지 못해서 뿌지직 뿌지직 하면서 피 나고 하는 건데.)
113037 @ 예, 경 허당 죽는 거예. 이거는 죽을 수도 잇는 거예.(예,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113037 #5 엿날에는 거 독새기, 거 기름에 뚜렁 거 먹어낫는디, 계란.(옛날에는 거 달걀, 거 기름에 저어서 거 먹었었는데, 계란.)
113037 @ 예.(예.)
113037 #5 춤지름에 막 저어가지고 먹어낫는디.(참기름에 막 저어가지고 먹었었는데.)
113037 @ 옛날에 이질 걸렁 죽기도 막 헤낫잖아예?(옛날에 이질 걸려서 죽기도 마구 했었잖아요?)
113037 #5 어, 그렇주게. 고치지 못헤영.(어, 그렇지. 고치지 못해서.)
113037 @ 음. 이질 걸렷을 때 이질풀을 끌렁 먹엇이민 좋앗을 수도 이서실 건디예?)(음. 이질 걸렸을 때 이질풀을 끓여서 먹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을 건데요?)
113037 #5 그렇지. 요거 설사에는 쪼끔 존 거니까 거예도 좋을지도 몰른다고.(그렇지. 요거 설사에는 조금 좋은 거니까 거에도 좋을지도 모른다고.)
113037 @ 게난예.(그러니까요.)
113037 #5 아, 설사에는.(아, 설사에는.)
113037 #6 나도, 우리도 자꾸 멕여.(나도, 우리도 자꾸 먹여.)
113037 #5 지금도 난 그거 그 풀 가끔 잇당 헤다가 설사나민 먹어.(지금도 난 그거 그 풀 가끔 있다가 해다가 설사나면 먹어.)
113037 @ 음. 말리지 안 헹 그냥예?(음. 말리지 안 해서 그냥이요?)
113037 #5 말렷당도 뒈곡, 놀차도 뒈곡.(말렸다가도 되고, 날짜도 되고.)
113038 @ 예. 그다음엔 토사곽란이라고 헤가지고, 막 광란.(예. 그다음엔 토사곽란이라고 해가지고, 막 광란.)
113038 #5 광난이풀이라는 풀. 곽난에 걸렷다는 건.(할미꽃이라는 풀. 곽란에 걸렸다는 건.)
113038 @ 예.(예.)
113038 #5 요즘 말로민 급질이라, 급질.(요즘 말로면 급성위장병이야, 급성위장병.)
113038 @ 예, 맛수다.(예, 맞습니다.)
113038 #5 급질인디.(급성위장병인데.)
113038 @ 예.(예.)
113038 #5 광난이풀이라고 그게 할미꽃이라 할미꽃.('광난이풀'이라고 그게 할미꽃이야 할미꽃.)
113038 @ 아, 광난이풀이마씨?(아, 할미꽃이요?)
113038 #5 광난이풀이엔 ᄒᆞᆫ 게 할미꽃이라고 ᄒᆞ민, 그거 헤근에.('광난이풀이'라고 한

게 할미꽃이라고 하면, 그거 해서.)
113038 #6 저, 너삼 뿔리 아니?(저, 너삼 뿌리 아니야?)
113038 #5 그걸 헹, 베또롱을 그걸 헤여근에 둘룬다고 헷던가?(그걸 해서, 배꼽을 그걸 해서 돈다고 했던가?)
113038 #6 곽난이풀 무시거 헤근에 베또롱 둘라낫수다. 손구레기 영 헤근에 멧 번 영영 돌리곡.(할미꽃 무엇 해서 배꼽에 돌렸었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이렇게 돌리고.)
113038 #5 뭐, 뭐 왼쪽을 멧 번 돌리곡, 오른 쪽으로 멧 번 돌리곡 경 헷어.(뭐, 뭐 왼쪽을 몇 번 돌리고, 오른 쪽으로 몇 번 돌리고 그렇게 했어.)
113038 @ 광난이풀을 뜯어왕마씨?(할미꽃을 뜯어와서요?)
113038 #5 뜯어다근에.(뜯어다가.)
113038 #6 거 이레(배꼽을 가리키며) 놔 가지고.(거 이리(배꼽을 가리키며) 놓아 가지고.)
113039 @ 놔 가지고.(놓아 가지고?)
113039 #6 응.(응.)
113039 @ 그다음엔 체헷을 땐 어떵 헷수과? 얹혔을 때.(그다음엔 체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얹혔을 때.)
113039 #6 손으로 뭐 따고 무시거 아녜신가?(손으로 뭐 따고 무엇 안 했는가?)
113039 #5 건 야게 걸릴 때.(그건 목에 걸릴 때.)
113039 #6 응, 야게 걸릴 때.(응, 목에 걸릴 때.)
113039 #5 가시 걸릴 때 먹당 손으로 영 찔렁 막 토허젠 헤난 거주.(가시 걸릴 때 먹다가 손으로 이렇게 찔러서 막 토하려 했던 거지.)
113039 #6 아니, 급체 걸릴 땐 급체 걸령 죽는 사름은 오죽 합니까?(아니, 급체 걸릴 땐 급체 걸려서 죽는 사람은 오죽 많습니까?)
113039 @ 맞수다.(맞습니다.)
113039 #5 체는 손가락을 무꺼근에.(체는 손가락을 묶어서.)
113039 @ 어느 손가락마씨?(어느 손가락이요.)
113039 #6 엄지손가락.(엄지손가락.)
113039 @ 체할 때 엄지손가락 따도 나는 난, 완전 체 잘 허거든예. 안 뒙디다.(체할 때 엄지손가락 따도 나는 난, 완전 체 잘 허거든요. 안 됩디다.)
113039 #5 게난 그게.(그러니까 그게.)
113039 #6 안 뒈여?(안 돼?)
113039 @ 예.(예.)
113039 #6 엿날엔 그 방법벳긔.(옛날엔 그 방법밖에.)
113039 #5 대게는 그거 그거벳긔는 엇어.(대부분은 그거 그것밖에는 없어.)
113040 @ 그다음에는 우리가 벨 때, 칼에 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풀에 베이기도 하는데.(그다음에는 우리가 벨 때, 칼에 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풀에 베이기도 하는

데.)
113040 #6 속, 속. 속으로 지르는 것이.(쑥, 쑥. 쑥으로 치료하는 것이.)
113040 @ 것도 그냥 속으로예?(그것도 그냥 쑥으로요?)
113040 #6 응.(응.)
113040 @ 경헷지예? 그럴 땐예?(그랬지요? 그럴 땐요?)
113040 #6 우리 족은아덜 다천에 돌에서 어퍼가지고 젤 땐 우리 씨어멍 쉐똥헤단 처멘.(우리 작은아들 다쳐서 돌에서 엎어가지고 찢어질 땐 우리 시어머니 쇠똥 해다가 처맸어.)
113040 @ 그건 이따가 여쭤볼게예. 그때 강 골아줍서예. 베일 땐 속 하당 허고예.(그건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때 가서 말해주세요. 베일 땐 쑥 해다가 하고요.)
113041 @ 모기 물릴 땐 어떵 헷수과?(모기 물릴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1 #6 모기 물릴 때는.(모기 물릴 때는.)
113041 #5 모기 물릴 때는, 그 저 그 모기 물린 데는 뭐 약이 엇어. 엇고.(모기 물릴 때는, 그 저 그 모기 물린 데는 뭐 약이 없어. 없고.)
113041 @ 예.(예.)
113041 #6 모기 방지로 헤서 내 피와낫주.(모기 방지로 해서 연기 피웠었지.)
113041 @ 뭐로 내 피웟수과?(뭐로 연기 피웠습니까?)
113041 #5 연기? 불 헤여근에.(연기? 불을 해서.)
113041 @ 무신 불?(무슨 불?)
113041 #5 속불.(쑥불.)
113041 @ 속으로예?(쑥으로요?)
113041 #5 뭐 헤여근에, 여름철에는 이 촌에는 저녁때는 뭐 마당에서 말이여.(뭐 해서, 여름철에는 이 촌에는 저녁때는 뭐 마당에서 말이야.)
113041 @ 예.(예.)
113041 #5 멍석 꼴아놔근에 밥을 그디 출려놩 먹고, 거기 또 자고.(멍석 깔아놓아서 밥을 거기 차려놓고 먹고, 거기 또 자고.)
113041 @ 예.(예.)
113041 #5 그 벳긔듸 자곡 헷는디, 모기가 그 막 하면은 불을 피와, 그 옆에.(그 밖에 자고는 했는데, 모기가 그 막 많으면 불을 피워, 그 옆에.)
113041 @ 예.(예.)
113041 #5 연기 막 나게.(연기 막 나게.)
113041 @ 예.(예.)
113041 #5 게민 젤 싫어ᄒᆞ는 게 모기가 싫어ᄒᆞ는 게 연기거든.(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가 싫어하는 게 연기거든.)
113041 @ 예.(예.)
113041 #5 게난 도망 가분 다음에 **.(그러니 도망 가버린 다음에 **.)
113041 @ 그믄 밤새 그렇다고 속 태우진 못허잖아예?(그러면 밤새 그렇다고 쑥 태우

지는 못하잖아요?)
113041 #5 밤새는 못ᄒᆞ고게 즘들기 전에.(밤새는 못하고 잠들기 전에.)
113041 @ 겡 그냥 물던 말던 즘자불어?(그렇게 물든 말든 잠자버려?)
113041 #6 즘자불 거주.(잠자버릴 거지.)
113041 #5 뜯어먹던 말던 내불 거주.(뜯어먹든 말든 내버릴 거지.)
113042 @ 그 지난번에 뱀에 한 번도 안 물려봣덴 헷는데예? 혹시나 뱀에 물릴 땐 어떵 헤시코예? 옛날에.(그 지난번에 뱀에 한 번도 안 물려봤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뱀에 물릴 땐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113042 #6 그 허븐고사리[312] 헤다근에 구완헤실 거라, 그때.(그 '고비' 해다가 치료했을 거야, 그때.)
113042 @ 허븐고사리가 뭐꽈? 뱀고사리?('고비'가 뭡니까? 뱀고사리?)
113042 #6 베염고사리. 거난 우리 동생 독사 물련에 그 성읍리[313] 어른안틔 간 그거 헤단에 구완헤실 거라게, 그거.(뱀고사리. 그러니까 우리 동생 독사 물려서 그 성읍리 어른한테 간 그거 해다가 치료했을 거야, 그거.)
113042 #5 그 물리멍써라 이 저 무껑 우터레 피 올라가지 못ᄒᆞ게 헤근에, 최고로 좋은 게 입으로 뿔아부는 게 최곤디.(그 물리자마자 이 저 묶어서 위로 피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최고로 좋은 게 입으로 빨아버리는 게 최곤데.)
113042 @ 예.(예.)
113042 #5 그 독을.(그 독을.)
113042 @ 예.(예.)
113042 #5 겐디, 입 안에 무신 상처가 이시민 큰일 나불어.(그런데, 입 안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 큰일 나버려.)
113042 @ 음.(음.)
113042 #5 게난 상처만 엇은 사름은 입으로 빨아버리는 게 원 원 최고여.(그러니 상처만 없는 사람은 입으로 빨아버리는 게 원 원 최고야.)
113042 #6 겐디 바로 뿔아집니까? 다리.(그런데 바로 빨아집니까? 다리.)
113042 #5 다리든 뭐든.(다리든 뭐든.)
113042 @ 아까 고사리는 무신 고사리?(아까 고사리는 무슨 고사리?)
113042 #6 고사리는 허분고사리엔 ᄒᆞ멍 그걸 헤근에 저 성읍리서 건, 성읍리 어른이 그런 거 헤근에 구완헤난.(고사리는 고비라고 하면서 그걸 해서 저 '성읍리'서 그건, '성읍리' 어른이 그런 것 해서 치료했었어)
113043 @ 경헤낫구나예? 벌에 쏘였을 땐 어떵 헷수과?(그랬었군요? 벌에 쏘였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3 #6 벌 쏠 때는? 저 새 뿔리. 첨, 새 뿔리는 지넹이 물 때구나.(벌에 쏘일 때는? 저 띠 뿌리. 참, 띠 뿌리는 지네에 물릴 때구나.)

312) '허븐고사리'는 '허궁고사리'를 잘못 발음한 듯하다. '허궁고사리'는 '고비'를 말한다.
313) '성읍리'는 표선면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113043 #5 지넹이 물 때.(지네에 물릴 때.)
113043 #6 벌 쏘울 때는 뭐 불라나신고? 나도 막 벌 쏘아낫주게. 저 그 밧디 강 일 ᄒᆞ단에 그 우녁밧듸 벌통 놓난에 아이고, 진짜 감당 못허크랑게. 그 주인이 완에 씌완에 이거 다 빼주난. 겐디 난 약 불라나진 아네서.(벌 쏘일 때는 뭐 발랐었지? 나도 막 벌 쏘였었지. 저 그 밭에 가서 일 하다가 그 위쪽 밭에 벌통 놓으니까 아이고, 진짜 감당 못하겠던데. 그 주인이 와서 씌워서 이거 다 빼주니까. 그런데 난 약 바르지는 않았어.)
113043 @ 그냥 이서도 뒙디가?(그냥 있어도 됩디까?)
113043 #6 응.(응.)
113042 @ 벌에 쏘이면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잇잖아예?(벌에 쏘이면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113043 #6 어. 죽는 경우도 이서. 벌 쏘앙 죽는 거, 사름 핫주. 또 드르에 가민 벌통 잇잖아.(어. 죽는 경우도 있어. 벌 쏘여서 죽는 거, 사람 많지. 또 들판에 가면 벌통 있잖아.)
113043 @ 예.(예.)
113043 #6 요만썩 헌 벌통에 벌 모야젓다근에 막 모야들엉 쏘우민 그 벌은 진짜 아팡 전디지 못할 거라.(요만씩 한 벌통에 벌 모였다가 마구 모여들며 쏘이면 그 벌은 진짜 아파서 견디지 못할 거야.)
113043 @ 혹시 세화에서도 벌 쏘앙 죽은 경우들 이서수과?(혹시 세화에서도 벌 쏘여서 죽은 경우들 있었습니까?)
113043 #6 엇어. 세화에선 벌 쏘앙 죽은 사름은 엇어.(없어. 세화에선 벌 쏘여서 죽은 사람은 없어.)
113044 @ 그다음엔 옻올를 때, 칠올를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옻오를 때, 옻오를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4 #6 칠올를 땐, 우리 저 하르방[314] 칠올라낫인디 그 칠낭 헤당 그거에 둑 헨에 먹언에 좋아나신가? 하르방! 칠올를 때 무시거 헨 헷수과? 둑 헤단 먹언 어떵 헨 좋아낫수과?(옻오를 땐, 우리 저 '하르방' 옻올랐었는데 그 옻나무 해다가 그거에 닭 해서 먹어서 좋았었나? '하르방!' 옻오를 때 무엇 해서 했습니까? 닭 해다가 먹어서 어떻게 해서 좋았었습니까?)
113044 #5 무시거 홀 때?(무엇 할 때?)
113044 #6 칠올란에, 밧듸 촐 비레 갓단 칠 올란 왓수게?(옻올라서, 밭에 꼴 베러 갔다가 옻올라서 왔잖습니까?)
113044 #5 칠올를 때?(옻오를 때?)
113044 #6 응, 하르방 뭐 헤낫수게? 그때.(응, '하르방' 뭐 했잖습니까? 그때.)
113044 #5 아, 칠올를 때는 그 저 바닷고기.(아, 옻오를 때는 그 저 바닷고기.)
113044 @ 예.(예.)
113044 #5 비린내 나는 고기 헤연에 딸령 그 물로 몸 곰아낫어.(비린내 나는 고기해

314)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서 다려서 그 물로 몸 감았었어.)
113044 @ 아, 경 허난 낫읍디가?(아, 그렇게 하니까 낫습디까?)
113044 #5 어.(어.)
113044 #6 저 하르방 칠올란 아이고, 완전.(저 '하르방' 옻올라서 아이고, 완전.)
113044 @ 아, 비린내 나는 고기를 끌령 그 물로 씻으니까 낫앗다고예?(아, 비린내 나는 고기를 끓여서 그 물로 씻으니까 나았다고요?)
113044 #6 촐 비레 갓단 칠올란에.(꼴 베러 갔다가 옻올라서.)
113045 @ 그다음엔 멍 들 땐 어떵 헙니까? 씨러져근에 멍들 때.(그다음엔 멍 들 땐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서 멍들 때.)
113045 #6 독새기. 독새기 영 굴리주.(달걀. 달걀 이렇게 굴리지.)
113045 @ 굴리는 거.(굴리는 거.)
113045 #6 어.(어.)
113046 @ 그다음엔예 가끔 말 더듬는 사름들도 잇잖아예?(그다음은요 가끔 말 더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13046 #6 음.(음.)
113046 @ 그럴 땐 어떵 헴신고예?(그럴 땐 어떻게 하는가요?)
113046 #6 말 더듬는 사름사 뭣.(말 더듬는 사람이야 뭣.)
113046 #5 말 더듬는 건 약이 엇어.(말 더듬는 건 약이 없어.)
113046 @ 약이 엇언예?(약이 없어요?)
113047 @ 음. 허리 삐엇을 땐 어떵 헷수과?(음. 허리 삐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7 #6 허리 삐엇을 땐 강 손바리, 저슬살이 헤당은에 처멧주.(허리 삐엇을 땐 강 참으아리, 참으아리 해다가 처맸지.)
113047 #5 저슬살이.(참으아리.)
113047 @ 저슬살이 쩌근에마씨?(참으아리 쪄서요?)
113047 #5 아니, 그냥 찌지 말고 생으로 보따리에 싸근에 영 등어리에 놔근에 영 자곡 헷주.(아니, 그냥 찌지 말고 생으로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등에 놓아서 이렇게 자고 했지.)
113047 #6 보 딱 싸근에, 경 아녀면 헷사저부러.(보에 딱 싸서, 그렇게 않으면 헤쳐져 버려.)
113047 @ 워낙 독헌 거난예?(워낙 독한 거여서요?)
113047 #6 독헌 거난.(독한 거여서.)
113047 #5 옛날 어른덜은 다 경 헷어.(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어.)
113047 @ 경 헹 낫아신가예?(그렇게 해서 나았을까요?)
113047 #6 엿날 낫아신디 말앗인디 그건.(옛날 나았는지 말았는지 그건.)
113047 #5 옛날엔 낫아시난 존 약이엔 흔 거주.(옛날엔 나았으니까 좋은 약이라고 한 거지.)
113047 @ 아니, 다른 마을도 보민 그렇게 대답하기도 헹 저슬살이가 워낙 독한 풀이

잖아예?(아니, 다른 마을도 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도 해서 참으아리가 워낙 독한 풀이잖아요?)
113047 #6 독흔 풀이주.(독한 풀이지.)
113047 #5 독성이 잇는 거주.(독성이 있는 거지.)
113047 #6 우리 시방 담에도 자꾸 나, 저슬살이.(우리 시방 돌담에도 자꾸 나와, 참으아리.)
113048 @ 게난예. 발목 삐엇을 땐 어떵 헷수과? 발은 잘 고무끄잖아예?(그러게요. 발목 삐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발은 잘 삐잖아요?)
113048 #6 발목 삘 땐 줴 와야주게, 강. 줴는 사름안틔.(발목 삘 땐 쥐어 와야지, 거서. 쥐는 사람한테.)
113048 #5 돌 구웡도 ᄒᆞ곡.(돌 구워서도 하고.)
113048 @ 예, 돌 구워근에예?(예, 돌 구워서요?)
113048 #6 응, 돌 구엉도 ᄒᆞ곡, 줴어옴도 ᄒᆞ곡.(응, 돌 구워도 하고, 쥐어오기도 하고.)
113049 @ 그다음에 귀에 물 들엇을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에 귀에 물이 들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9 #6 귀에 물 들엇일 땐 그 헤동 춤지름 놔, 춤지름 이레 질어. 물 들어근에 귀 알리주게, 알려.(귀에 물이 들었을 땐 그 해놓고 참기름 넣어, 참기름 이리로 부어. 물이 들어서 귀 아리지, 아려.)
113049 #5 귀, 귀 영영 헹 탁탁탁탁(물든 쪽 귀를 아래로 가게 머리를 옆으로 숙이며 손바닥으로 귀를 치는 모습을 보이며).(귀, 귀 이렇게이렇게 해서 탁탁탁탁(물든 쪽 귀를 아래로 가게 머리를 옆으로 숙이며 손바닥으로 귀를 치는 모습을 보이며).)
113049 #6 알리민 춤지름 놔.(아리면 참기름 넣어.)
113049 @ 춤지름 거기다가 조금 털어지게?(참기름 거기다가 조금 떨어지게?)
113049 #6 어, 조금 들어가게.(어, 조금 들어가게.)
113049 @ 게믄 낫아수과?(그러면 나았습니까?)
113049 #6 응.(응.)
113050 @ 무좀엔 어떵 헷수과? 무좀 걸리믄.(무좀엔 어떻게 했습니까? 무좀 걸리면.)
113050 #6 무좀 걸리민 무신 풀 헤다근에 그 ᄇᆞᆯ라낫인고?(무좀 걸리면 무슨 풀 해다가 그 발라났지?)
113050 @ 무신 풀마씨?(무슨 풀이요?)
113050 #6 난 식초 ᄇᆞᆯ라낫어. 난, 식초.(난 식초 발랐었어. 난, 식초.)
113050 @ 옛날엔 무좀을 뭐렌 ᄀᆞᆯ앗수과?(옛날엔 무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50 #6 미시무시[315].(무좀.)
113050 @ 미시무시?(무좀?)
113050 #5 미시무시는 거 일본말인디.(미시무시는 거 일본말인데.)

315) '미시무시'는 일본어 '미즈무시(みずむし)'에서 온 말로 '무좀'이라는 의미다.

113050 @ 맞수다.(맞습니다.)
113050 #5 그 저 무시거게.(그 저 무엇.)
113050 #6 무좀이엔 안 걸앙 미시무시엔.(무좀이라고 안 말해서 미시무시라고.)
113050 #5 무신 낭이엔 ᄒᆞ느니? 그 저 히노끼라는 낭인디.(무슨 나무라고 하니? 그 저 히노끼라는 나문데.)
113050 @ 편백마씨?(편백나무요?)
113050 #5 어, 펜백. 펜백 이파리.(어, 편백나무. 편백나무 이파리.)
113050 @ 예.(예.)
113050 #5 그거 내 피왕, 그거 헤영 발에 내 씌와낫주게.(그거 연기 피워서, 그거 해서 발에 연기 쐬었었지.)
113050 @ 게민 낫읍디가?(그러면 낫습디까?)
113050 #6 난 몰라.(난 몰라.)
113050 #5 그 진짜 나도 헤봣는디 뭐 발바닥 막 ᄀᆞ루완에 미시무시 헨 막 거죽 베껴지멍, 헨 그거 ᄒᆞ난 달르긴 달를 거라.(그 진짜 나도 해봤는데 뭐 발바닥 막 가려워서 무좀 해서 막 피부 벗겨지면서, 해서 그거 하니까 다르긴 다를 거야.)
113050 @ 기꽝? 지금은 엇수광?(그래요? 지금은 없습니까?)
113050 #6 지금은 엇어.(지금은 없어.)
113050 @ 낫은 거 담다예? 지금은예?(나은 거 같네요? 지금은요?)
113050 #5 딴 약 먹언사 산듸.(다른 약 먹었기 때문인지.)
113050 @, #5,6 (웃음)
113051 @ 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잇잖아예? 습진 헐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무좀 말고 습진 있잖아요? 습진 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51 #6 무시거ᄒᆞᆯ 때, 그 물 쭐쭐 나멍 습준ᄒᆞᆯ 때?(무엇할 때, 그 물 쭐쭐 나면서 습진할 때?)
113051 @ 예, 예.(예, 예.)
113051 #6 것도 거 무신 풀이라, 아이고 풀 헤근에 습진 걸렷젠 ᄒᆞ멍 거 헤나신디.(것도 거 무슨 풀이야, 아이고 풀을 해서 습진 걸렸다고 하면서 거 했었는데.)
113051 #5 그때 뭐 저, 물싸움고장풀, 함박풀, 함박풀.(그때 뭐 저, 제비꽃, 병풀, 병풀.)
113051 @ 함박풀로예?(병풀로요?)
113051 #5 함박풀 헤근에 영 처메낫일 거라.(병풀해서 이렇게 처맸었을 거야.)
113052 @ 음, 처멘예? 그다음엔 그 저 발가락 요른듸 사이예 눈처럼 요렇게 갈라지는 거.(음, 처맸어요? 그다음엔 그 저 발가락 요런데 사이에 눈처럼 요렇게 갈라지는 거.)
113052 #6 아, 눈. 거 늬 잡앙 놔낫어. 늬 잡앙 하하하.(아, 까치눈. 거 이 잡아서 넣었었어. 이 잡아서 하하하.)
113052 #5 맞아, 경헤낫어. 하하하.(맞아, 그랬었어. 하하하.)

113052 @ 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52 #6 것ᄀᆞ라 눈 텃젠, 눈 텃젠.(것보고 눈 떴다고, 눈 떴다고.)
113052 @ 눈 텃젠?(눈 떴다고?)
113052 #5 발 눈 텃젠.(발에 눈 떴다고.)
113052 @ 발 눈 턴에 거기다가 늬 잡앙 놔?(발에 눈 떠서 거기다가 이 잡아서 넣어?)
113052 #6 늬 잡앙 놓민 좋아나서.(이 잡아서 넣으면 좋았었어.)
113052 #5 좋는지 안 좋는지 몰라도 누게 장난으로사 ᄀᆞᆯ앗는디 모르는디.(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몰라도 누구 장난으로야 말했는지 모르는데.)
113052 @ 아니 그 왜?(아니 그 왜?)
113052 #6 응.(응.)
113052 @ 영화에도 보민 옛날에 임금이 그 등 뒤에 욕창 걸리면 거기다가 저기 거머리 갓당 놓잖아예?(영화에도 보면 옛날에 임금이 그 등 뒤에 욕창 걸리면 거기다가 저기 거머리 갖다가 놓잖아요?)
113052 #6 거멀, 피 빨아 먹으렌.(거머리, 피 빨아 먹으라고.)
113053 @ 그다음엔예, 민간요법, 지금 저가 여쭤본 거 말고예, 계속 그 어릴 때라든가 아팟을 때 어떤 식으로 민간요법으로 치료 헷다는 예기 혹시 엇수과?(그다음은요, 민간요법,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말고요, 계속 그 어릴 때라든가 아팠을 때 어떤 식으로 민간요법으로 치료 했다는 얘기 혹시 없습니까?)
113053 #6 무신 우린 어린 때 약 경.(무슨 우린 어린 때 약 그렇게.)
113053 #5 나 어린 때 저, 우리.(나 어린 때 저, 우리.)
113053 @ 아까 그 저기 족은아덜 다쳣을 때 이제 어머니가 쉐똥 불랏던 얘기 흔 번 ᄀᆞᆯ아줘 봅서, 어떵 헷수과?(아까 그 저기 작은아들 다쳤을 때 이제 어머니가 소똥 발랐던 얘기 한 번 말해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13053 #6 나, 고사리 꺾끄레 가부난.(내가 고사리 꺾으러 가버리니까.)
113053 @ 예.(예.)
113053 #6 저 웃드르[316] 고사리 꺾끄레 가불고, 아방[317]은 민방위 훈련 가분 때주게.(저 '웃드르' 고사리 꺾으러 가버리고, 아버지는 민방위훈련 가버린 때지.)
113053 @ 예.(예.)
113053 #6 그때 왕 보난에 아이가 막 다 죽어감서.(그때 와서 보니까 아이가 막 다 죽어가고 있어.)
113053 @ 예.(예.)
113053 #6 고사리 꺾끄레 웃드르 강 완 보난.(고사리 꺾으러 '웃드르' 갔다 와서 보니까.)
113053 @ 이맘 때 쯤 이여예?(이맘 때 쯤 이네요?)

316)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져 있는 마을을 말한다.
317)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3053 #6 이만 때, 이만 때라. 딱 이만 때. 웃드르 강오난 이만 때난에. 완 보난 이디 머리예 처멘에 잇관, 이거 어떤 일이꽌, 아인 다 죽어가고 경 헨에 이젠, 페선이 흔 숨에 여발로 들아간에, 페선이 가난 병원 못 보켄 헨에.(이만 때, 이만 때라. 딱 이만 때. '웃드르' 가오니까 이만 때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 머리에 처매서 있기에, 이거 어떤 일입니까, 아인 다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젠, 표선에 한숨에 선발로 달려가서, 표선에 가니까 병원에서 못 보겠다고 해서.)

113053 @ 음.(음.)

113053 #5 이엔, 그때 무신 전화가 시카, 이젠 또 돌아완에 이젠 저 서귀포 시방 무신 병원이꽈? 그 병원.(이에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을까, 이젠 또 돌아와서 이젠 저 서귀포 시방 무신 병원입니까? 그 병원.)

113053 #5 동산병원.(동산병원.)

113053 #6 아니, 동산의원은 영철이고. 시방 서귀의료원에, 서귀의료원에 가난에, 간 입원ᄒᆞ난에, 토 만 ᄒᆞ민 죽넨 ᄒᆞ연.(아니, 동산의원은 영철이고. 시방 서귀의료원에, 서귀의료원에 가니까, 가서 입원하니까, 토 만 하면 죽는다고 해서.)

113053 @ 음.(음.)

113053 #6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멕이고 주사만 놘. 아인 헛말 팡팡 ᄀᆞᆫ곡, 저 밥 먹어난 듸가 지 다슷 때 먹어나구렌 헛말만 계속 ᄀᆞᆯ으니까. 우리 아신 간 봣단 '야이추룩 헛말ᄀᆞᆫ곡 밥 ᄃᆞ렌 밥 먹어난 때가 경 ᄒᆞ는 거를 흔 번 줘 봅센, 병원에선 절대 주지 말렌, 일주일 동안. 주지 말렌 헤도 그걸 이젠 밥을 멕여서. 덜언 멕연 그때 진짜 아이가 살아낫어.(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주사만 놓았어. 아인 헛말 팡팡 말하고, 저 밥 먹어난 때가 자기 다섯 때 먹었었다고 헛말만 계속 말하니까. 우리 동생이 가서 보았다가 '얘처럼 헛말하고 밥 달라고 밥 먹어난 때가 그렇게 하는 거를 한 번 줘 보십사고, 병원에선 절대 주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주지 말라고 해도 그걸 이젠 밥을 먹였어. 덜어서 먹였어. 그때 진짜 아이가 살아났어.)

113053 @ 음.(음.)

113053 #6 굶언에 홈마 굶엉 죽을 뻔헷어.(굶어서 하마터면 굶어서 죽을 뻔했어.)

113053 @ 그 머리에 쉐똥 발라부난 균은 어떵 없엔마씨?(그 머리에 소똥 발라버리니까 균은 어떻게 없앴나요?)

113053 #6 쉐똥 발라부난 균은 거기 강 청소, 다 소독으로 다 씻언에, 보난 꽝ᄁᆞ지 술이 나, 저 경 ᄒᆞ여놓난 그거 다 시전에 거 소독헨에 거기서 저 주사 놓곡 막 경 헨 헷인디, 그 겨난 일주일 동안 토만 ᄒᆞ민 죽넨 ᄒᆞ멍 멕이지 말렌 흔 거.(소똥 발라버리니까 균은 거기 가서 청소, 다 소독으로 다 씻어서, 보니까 뼈까지 살이 나, 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거 다 씻어서 거 소독해서 거기서 저 주사 놓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그러니 일주일 동안 토만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먹이지 말라고 한 거.)

113053 @ 게도 피는 멈춘 건 그 쉐똥 덕이 아닌가예?(그래도 피는 멈춘 건 그 소똥 덕이 아닌가요?)

113053 #6 그 쉐똥 헨 피는 멈춘 거. 게난 아이가 낮에 흔 건디 그때ᄁᆞ지 피 낭은 죽

엇주게. 죽을 거주게. 죽을 거라. 그때 ᄒᆞᆫ 대ᄋᆞ슷 술 때란게.(그 소똥 해서 피는 멈춘 거. 그러니까 아이가 낮에 한 건데 그때까지 피 났으면 죽었지. 죽을 거지. 죽을 거야. 그때 한 대여섯 살 때였는데.)

113053 #5 일굽 술인가 뒐 때라.(일곱 살인가 될 때야.)

113053 #6 게난 아이구, 나 가의 업언, 업언 ᄒᆞ곡, 가읜 가의룬 하영 얼 먹엇어. 중학교 때 뽈 차단 다리 꺼끈 걸 몰란 내부난 게, 그 선생은 페선이 병원에 간에 임시 그것 간 그 엑스레이 찍어보지 아년 내부난에 그자 그디서 소독만 ᄒᆞ고 헨 헌 다리가 이만이 부서비언. 아이 이딧 동넷아이가 실러아정 온 건 보난. 경 헨, 영동병원에 실런 ᄃᆞ란 가난에 다리 꺼꺼젓덴 ᄒᆞᆫ 걸 내비언.(그러니 아이고, 나 걔 업어서, 업어서 하고, 걔는 걔로 많이 얼 먹었어. 중학교 때 공 차다가 다리가 부러진 걸 몰라서 내버리니까 그래, 그 선생은 표선의 병원에 가서 임시 그것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보지 않아서 내버리니까 그저 거기서 소독만 하고 해서 한 다리가 이만큼 부어버렸어. 아이 여기 동네아이가 실어가지고 온 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동병원에 실어서 데려서 가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 걸 내버린 거야.)

113053 @ 경 헨 걸어완마씨?(그렇게 해서 걸어왔나요?)

113053 #6 아이고, 나가 거기서 시에서 ᄒᆞᆫ 메칠 살멍 ᄒᆞ고, 나 중학교 업어갓다 업어왓다 헷어.(아이고, 내가 거기서 제주시에서 한 며칠 살면서 하고, 내가 중학교 업어갔다 업어왔다 했어.)

113053 @ 아이고게.(아이고.)

113053 #6 아이고, 중학교서 이층 우에 올랑 업엉, 게 중학교 삼학년 때난 업엉 갓당 업엉 왓당 버천에, 사람 업엉 왓당 업엉 갓당 헷주. 이디 차에 타레 업엉 왕, 차 탕 강, 페선이 또 내려근에 학교에 업엉 강, 이층에 ᄁᆞ지 올려동 '야, 야이 오줌 쌀 때' 친구들 ᄀᆞ라 헤ᄃᆞ렌 헤동 또 업으레 가곡 경 헷주게.(아이고, 중학교서 이층 위에 올라서 업어서, 그래 중학교 삼학년 때니까 업어서 갔다가 업어서 왔다가 무거워서, 사람 업어서 왔다가 업어서 갔다가 했지. 여기 차에 타러 업어 와서, 차를 타서 가서, 표선에 또 내려서 학교에 업어서 가서, 이층에 까지 올려두고 '야, 얘 오줌 쌀 때' 친구들보고 해달라고 해놓고 또 업으러 가고 그렇게 했지.)

113053 @ 경 헷구나예.(그렇게 했군요.)

113053 #6 응.(응.)

113053 @ 어, 지금까지는 질병에 데헤서 그리고 치료하는 거에 데헤서 여쭤봣습니다예.(어, 지금까지는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113053 #6 응.(응.)

12.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잇잖아예? 혹시나 어렷을 때라도 아까 그 족은

놈 말고 두 분 중에라던가, 아니면 두 분의 가족 형제들이라든가, 혹시 죽을 뻔헷다가 산적은 엇엇수과?(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있잖아요? 혹시나 어렸을 때라도 아까 그 작은놈 말고 두 분 중이든가, 아니면 두 분의 가족 형제들이라든가, 혹시 죽을 뻔했다가 산적은 없었습니까?)

114001 #6 우리 동세 아덜 다 죽은 거, 막 갈레죽끄지 다 헤다 놧당도 살앗어.(우리 동서 아들 다 죽은 거, 막 가래까지 다 해다가 놓았다가도 살았어.)

114001 @ 어떵 헨 살안마씨?(어떻게 해서 살았나요?)

114001 #6 에이, 골아붑서.(아이, 말해버리세요.)

114001 #5 그 사름 사는디, 그 무신 엿날 눼막염.(그 사름 사는데, 그 무슨 옛날 뇌막염.)

114001 @ 눼막염.(뇌막염.)

114001 #5 눼막염 걸련에. 우린 저, 거 아파도 뭐 고뿔 걸려신가 헨에 내벼돈, 우리 형님 아덜인디 둘째 아덜인디, 가의 흔 일고으둡 술 으둡 술쭘일 거야 아마. 내벼돈 우린 팔월에 촐 버서 돈 벌랴고, 저 손당[318]이란 부락이 서.(뇌막염 걸려서. 우린 저, 거 아파도 뭐 감기 걸렸나 해서 내버리고, 우리 형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걔 한 일고여덟 살 여덟 살쯤일 거야 아마. 내버리고는 우린 팔월에 꼴 베서 돈 벌려고, 저 송당이란 부락이 있어.)

114001 @ 예.(예.)

114001 #5 그디가 소를 많이 질루니까 촐, 거 큰 낫으로 영 비는 거를.(거기가 소를 많이 기르니까 꼴, 거 큰 낫으로 영 비는 거를.)

114001 @ 예.(예.)

114001 #5 막 여기 와근에 모집을 헤가주.(마구 여기 와서 모집을 해가지.)

114001 @ 음.(음.)

114001 #5 겨 우린 거기 간에 촐 비레간 그 이틀을 비엇는가 헨. 이만 때 이정도 어둑우면은 이제 일을 설를, 설러서 집에 가 뭐 모욕 ᄒᆞ고, 저녁 먹곡, 거기 자멍 허니까. 일 설러서 올라고 일 설르면은 그 낫에 풀 막 한 종일 벼나면은 퍼런 그 저 풀 때가 막 양쪽으로 영 묻주게.(그래서 우린 거기 가서 꼴 베러간 그 이틀을 베었나 햇어. 이만 때 이정도 어두우면 이제 일을 마칠, 마쳐서 집에 가 뭐 목욕 하고, 저녁 먹고, 거기 자면서 하니까. 일 마쳐서 오려고 일 마치면 그 낫에 풀 마구 한 종일 벤 후면 퍼런 그 저 풀 때가 마구 양쪽으로 이렇게 묻지.)

114001 @ 예.(예.)

114001 #5 겐 그거를 따까베도근에 오젠 거 헨 거 낫 ᄀᆞ는디 간에 아자시난에 저, 흔 오백 메다 쪽으로 그 오는 게 걷는 것이 똑 우리 동네사름 걷는 거 닮아붸여. 게, 우리 형님 보고 '쩔로 오는 사름 저것 연춘이 아방 아니꽈?' ᄒᆞ멍. 영 봔에 '연춘이 아방이 무시거 허레 오는니?' '똑 기 닮수다.' ᄒᆞ멍.(그래서 그거를 닦아버리고 오려고 그거 해서 그거 낫을 가는데 가서 앉았으니까 저, 한 오백 미터 쪽으로 그 오는 게 걷는 것이 똑

318) '손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를 말한다.

우리 동네사람 걷는 거 닮아보였어. 그래, 우리 형님 보고 '저기로 오는 사람 저것 연춘이 아버지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봐서는 '연춘이 아버지가 무엇 하러 오니?' '똑 기닮습니다.' 하면서.)

114001 @ 음.(음.)

114001 #5 아, 겐 영 베련에. 아, 온 거 보니까 그 사름이라. 겐 그 사름이 우리 형님ᄒᆞ고 동서지간이거든.(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온 거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형님하고 동서지간이거든.)

114001 @ 예.(예.)

114001 #5 그난 그때는 뭐 핸도폰도 엇엇고 뭐 전화기도 엇엇고 아무 것도 엇인 때니까.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이 잇으면은 그 뭔 일이 잇으면은 사름이 직접 연락을 헷거든. ᄒᆞᆫ 삼ᄉᆞ십리 씩 걸어근에, 그 사람이 교통 역할을 헷으니까.(그러니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뭐 전화기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을 때니까.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이 있으면 그 뭔 일이 있으면 사람이 직접 연락을 했거든. 한 삼사십리 씩 걸어서, 그 사람이 교통 역할을 했으니까.)

114001 @ 예.(예.)

114001 #5 겨난, 여기서 손당이면은 거리가 얼마여. 거리가 아마도 오십 리 더 뒈지 않을까? 걸언 그 연락하러 갓는데, 게 지금 ᄀᆞᆫ는 애이가 다 죽엇다는 거야.(그러니, 여기서 '송당'이면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아마도 오십 리 더 되지 않을까? 걸어서 그 연락하러 갔는데, 그 지금 말하는 아이가 다 죽었다는 거야.)

114001 @ 음.(음.)

114001 #5 오늘 저냑 넘기지 않을 것이다 ᄒᆞ연. 그 말을 듣고 이젠 우리 이 거기서 기냥 집이 들리지도 아녀고 글루 기냥 서의가 내려오는디, 밤에 밤길을 그디 손당서 여기 걸어오젠 허니까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ᄒᆞᆫ시 두시 뒛겟지.(오늘 저녁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젠 우리 이 거기서 그냥 집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로 그냥 셋이서 내려오는데, 밤에 밤길을 거기 '송당'서 여기 걸어오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한시 두시 됐겠지.)

114001 @ 음.(음.)

114001 #5 게, 완 보니까 다 뻗어서.(그래, 와서 보니까 다 뻗어서.)

114001 @ 음.(음.)

114001 #5 뻗언, 보난 동네사름덜이 다 모엿는디 아이, 살지 아녀겟다고. 견 밤새 좀 안 자고 영, 그 죽엇나, 살앗나 헤연. 첨, 삽덜이영 갈레죽 다 갖다놓고 죽으면은 파묻으레 갈랴고 준비 경 헨에, 듯날 저녁도 안 죽엇어. 안 죽언에 듯날은 바로, 어 이 집인가? 요쪽엔가 살아난 최 의원이라고 ᄒᆞ는디, 그 엿날 의원 질 좀 ᄒᆞ고. 아니 이 사름이 소문 들언 위문 간 거지 그러니까.(뻗어서, 보니까 동네사름들이 다 모였는데 아이,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밤새 잠 안 자고 이렇게, 그 죽었나, 살았나, 해서. 참, 삽들이랑 가래 다 갖다놓고 죽으면 파묻으러 가려고 준비 그렇게 해서, 뒷날 저녁도 안 죽었어. 안 죽어서 뒷날은 바로, 어 이 집인가? 요쪽엔가 살았던 최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의원 질 좀 하고. 아니 이 사름이 소문 들어서 위문 간 거지 그러니까.)
114001 @ 음.(음.)
114001 #5 위문 간, 영 환자를 영 봔, 아, 고개를 이렇게 떨치면서 저 미신 약 써봣느냐고, 아 저 무신 약 무신 약 써 봣덴. 그땐 모두 조약이랏거든.(위문 가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보더니, 아, 고개를 이렇게 떨치면서 저 무슨 약 써봤느냐고, 아 저 무슨 약 무슨 약 써 봤다고. 그땐 모두 조약이었거든.)
114001 @ 음.(음.)
114001 #5 그 사름이 박 줄.(그 사람이 박 줄기.)
114001 @ 예.(예.)
114001 #5 박 줄을 헤다가.(박 줄기를 해다가.)
114001 @ 아까 그 콕마씨?(아까 그 박이요?)
114001 #5 어.(어.)
114001 #6 콕, 콕.(박, 박.)
114001 @ 콕 줄.(박 줄기.)
114001 #5 '콕 줄을 걷어다근에 딸령.(박 줄기를 걷어다가 다려서.)
114001 @ 예.(예.)
114001 #5 노랑 흔 물 날 때ᄁᆞ지 딸려근에 거를 멕여보라' 영 ᄒᆞ난, 그거야 뭐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거고, 누게네 집이 지붕 우의 콕 줄 잇저, 무시거 잇저 떡 ᄒᆞ게, ᄋᆞ라 사름 뭐 ᄒᆞ난에, 아 어디 콕 줄 이섯덴 헨에, 그거 걷언에 딸련, 다 뒐 때ᄁᆞ지 딸련에 아침때ᄁᆞ지 딸리는 거지. 흔 서너 시간 딸련 거를 억질로 막 멕인 거라.(노랑 한 물 날 때까지 다려서 거를 먹여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야 뭐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거고, 누구네 집에 지붕 위에 박 줄기 있지, 무엇 있지 떡 하게, 여러 사람 뭐 하니까, 아 어디 박 줄기 있었다고 해서, 그거 걷어서 달련, 다 될 때까지 다려서 아침때까지 다리는 거지. 한 서너 시간 다려서 거를 억지로 마구 먹인 거야.)
114001 @ 음.(음.)
114001 #5 억지로 멕연, 이제 또 뭐 헤볼 바의, 요즘 ᄀᆞ트면 벵원에 가곡 헷주마는 그땐 벵원도 엇엇고. 벵원에 갈 돈도 엇엇고. 서울 뭐 이런 듸야 이섯겟지. 제주시에도 벵원이 이섯겟지마는 돈도 엇고 ᄒᆞ니까 그냥 기자 그만큼 내부린 거라. 게 그거 먹으니까 멕연 흔 서너 시간 잇으니, 코로 시퍼렁흔 게 이렇게 나와(검지와 장지를 콧구멍에 대며).(억지로 먹여서, 이제 또 뭐 해볼 수,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고 했지만 그땐 병원도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서울 뭐 이런 데야 있었겠지. 제주시에도 병원이 있었겠지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만큼 내버린 거야. 그래 그거 먹으니까 먹여서 한 서너 시간 있으니, 코로 시퍼런 게 이렇게 나와(검지와 장지를 콧구멍에 대며).)
114001 @ 아.(아.)
114001 #5 짝 짝 ᄒᆞ게.(좍 좍 하게.)
114001 @ 아.(아.)
114001 #5 짝 ᄒᆞ게시리 나와. 거 뗑겨불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 흔 멧 번 헤부니

아 애가 살아나기 시작 흔 거라.(좍 하게 나와. 거 당겨버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 한 몇 번 해버리니 아 애가 살아나기 시작 한 거야.)
114001 @ 아, 신기하다예?(아, 신기하네요?)
114001 #5 겐 살아낫어.(그래서 살아났어.)
114001 #6 시방 살안. 육십, 육십 다 뒈 가는디.(시방 살았어. 육십, 육십 다 되가는데.)
114001 #5 게난 그게 그 애, 가의가 초등학교 흔 이삼학년 뒌 때 아인가? 하튼 초등학교 뎅길 때라. 막 으망지고 머리가 좋아낫는디. 그거 그추룩 헤난 후예는 머리가 뭐 헤부니까.(그러니 그게 그 애, 걔가 초등학교 한 이삼학년 된 때 아닌가?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라. 막 요망지고 머리가 좋았었는데. 그거 그처럼 하고난 후에는 머리가 뭐 해버리니까.)
114001 @ 아, 음.(아, 음.)
114001 #5 자꾸 잊어불고 뭐 거 ᄒᆞ난.(자꾸 잊어버리고 뭐 거 하니까.)
114001 #6 나이 먹어가난 이제 더 헤.(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더 해.)
114001 @ 장가는 간마씨?(장가는 갔나요?)
114001 #6 장가간. 아덜도 잇고.(장가갔어. 아들도 있고.)
114001 @ 아이는 궨찮고마씨?(아이는 괜찮고요?)
114001 #6 으, 어떵 아녀고, 시방 대학교 나오고 헨에, 저 어디 공무원.(으, 어떻지 않고, 시방 대학교 나오고 해서, 저 어디 공무원.)
114001 @ 것도 신기하다예? 콕 술망, 콕 줄기 술망 먹으민, 이 코 같은 게 코보다?(것도 신기하네요? 박 삶아서, 박 줄기 삶아서 먹으면, 이 코 같은 게 코보다?)
114001 #5 더 완전 딱딱한 게.(더 완전 딱딱한 게.)
114001 #6 퍼렁흔 게 막. 눼엣 거.(퍼런 게 막. 뇌엣 거.)
114001 @ 눼 속에 염증이 일로 나왓나 보다예?(뇌 속에 염증이 이리로 나왔나 보네요?)
114001 #6 응.(응.)
114001 @ 신기하기도 하다.(신기하기도 하다.)
114001 #5 그저 서울서 그 저 무신 저 *** 공장에서 저 판매과장으로, 거 물건 생산ᄒᆞ면은 그 팔레, 그 판매과장으로 직책이 판매과장으로 뭐 일본도 가곡 무시거. 거 ᄀᆞ만히 그디 이시지 자기 독립 ᄒᆞ겟다고 나오란 독립헨 흔 멧 년 ᄒᆞ다가 아엠에프 걸련 그만 복삭 망헤빗어.(그저 서울서 그 저 무신 저 *** 공장에서 저 판매과장으로, 거 물건 생산하면 그 팔러, 그 판매과장으로 직책이 판매과장으로 뭐 일본도 가고 무엇. 거 가만히 거기 있지 자기 독립 하겠다고 나오란 독립해서 한 몇 년 하다가 아이엠에프 걸려서 그만 폭삭 망해버렸어.)
114001 @ 아.(아.)
114001 #5 게메 경 헨 이디 둥굴어 오란, 사는듸 큰 뭐 지장은 엇고.(그러게 그렇게 해서 여기 뒹굴어 와서는, 사는데 큰 뭐 지장은 엇고.)

114001 @ 음.(음.)
114001 #5 가끔 아득아득 잊어부러.(가끔 아득아득 잊어버려.)
114001 @ 음.(음.)
114001 #5 뭐 홀려고 ᄒᆞ다가 잊어불곡.(뭐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114001 @ 경헤도 직장도 좋은 듸 다녀나고 헷저예?(그래도 직장도 좋은 데 다녔었고 했네요?)
114001 #6 시방도 저 직장 다니긴 다념서. 저 요양, 요양 거 무신거꽈?(시방도 저 직장 다니긴 다녀. 저 요양, 요양 거 뭡니까?)
114001 #5 요양원에.(요양원에.)
114001 @ 요양원에?(요양원에?)
114001 #5 저 할머니, 늙은이들 데려 갓다 데려 왓다 운전, 거 차 내주니까.(저 할머니, 늙은이들 데려 갔다 데려 왔다 운전, 거 차 내주니까.)
114001 @ 기구나예?(그렇군요?)
114001 #5 지금도 또 술 아니 먹엄서도 뒈는디 술을 고레ᄀᆞ찌 먹주게.(지금도 또 술 아니 먹어서도 되는데 술을 고래같이 먹지.)
114001 @ 아이구, 기구나예?(아이고, 그렇군요?)
114002 @ 그다음에는예? 옛날에 그 도깨비불 봐낫던가, 그런 적은 엇수과?(그다음은요? 옛날에 그 도깨비불 봤었던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114002 #5 그런 말은 들엇지.(그런 말은 들었지.)
114002 @ 만난 적은 엇고예?(만난 적은 없고요?)
114002 #5 어, 말은 들어나고, 본 적은 엇고.(어, 말은 들었었고, 본 적은 없고.)
114003 @ 어, 그다음에는예, 커갈 때 여자 어른들이야 좀 안 할 수도 잇지만 참웨나 수박이나 다른 뭐 무슨 과일 같은 거, 서리 다녀나지 안 헤낫수과?(어, 그다음은요, 커갈 때 여자 어른들이야 좀 안 할 수도 있지만 참외나 수박이나 다른 뭐 무슨 과일 같은 거, 서리 다녀나지 안 했었습니까?)
114003 #6 그거 장난이, 두린 때 그거 아녀구렌 ᄒᆞ민 잘못된 사름이라.(그거 장난이, 어린 때 그거 않았다고 하면 잘못된 사람이야.)
114003 @ 주로 뭐헤나수과?(주로 뭐했었습니까?)
114003 #6 미깡이주.(밀감이지.)
114003 #5 미깡, 미깡.(밀감, 밀감.)
114003 @ 미깡.(밀감.)
114003 #6 나수미깡덜 탈 때.(하귤들 딸 때.))
114003 #5 처음 미깡 나올 때예 이 저 ᄒᆞᆫ 열 집에 ᄒᆞ나 시나마나 헤연. 미깡나무 ᄒᆞ나가. 그 못 먹으면, 궹장히 어려왓거든. 웨정 때에, 그 일본서 멧 개 가저단 싱근 나무덜인디, 그거 따먹으레.(처음 밀감 나올 때에 이 저 한 열 집에 한 그루 있으나마나 했어. 귤나무 하나가. 그 못 먹으면, 굉장히 귀했거든.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서 몇 개 가져다가 심은 나무들인데, 그거 따먹으러.)

114004 @ 기구나예. 어, 그때에 어렷을 때 특별나게 뭔가 재미잇는 얘기, 혹시 추억 엇수과?(그렇군요. 어, 그때에 어렸을 때 특별나게 뭔가 재미있는 얘기, 혹시 추억 없습니까?)

114004 #5 재미잇는 뭐 두린 때엔 무신, 무시거ᄒᆞ영 재미질 거라? 재미질 게 엇주.(재미있는 뭐 어린 때엔 무슨, 무엇해서 재미있을 거야? 재미있을 게 없지.)

114004 #6 얘기 들은 게 엇이냐 물엄수게?(얘기 들은 게 없느냐 고 묻잖습니까?)

114004 @ 아니, 경험한 거 엇수과?(아니, 경험한 거 없습니까?)

114004 #5 경험ᄒᆞᆫ 거? 엇어. 나 요 손가레기 어릴 때, 돌로 ᄆᆞ사부난에[319].(경험한 거? 없어. 나 요 손가락 어릴 때, 돌로 'ᄆᆞ사버려서'.)

114004 @ 아, 돌로 ᄆᆞ산마씨?(아, 돌로 'ᄆᆞ삿'어요?)

114004 #5 ᄀᆞ자도 짜부라진 양 이서, 원.(여태까지도 짜부라진 양 있어, 원.)

114005 @ 어, 그다음엔예, 그냥 어른들도 한 얘기고 지금도 하고 잇을지 모르겟지만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뭐 경 허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속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기어 같은 거 엇수과?(어, 그다음은요, 그냥 어른들도 한 얘기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속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기어 같은 거 없습니까?)

114005 #5 그러지 말라, 홀 때는 이 어른은 '네 이놈!' 허허허허.(그러지 마라, 할 때는 이 어른은 '네 이놈!' 허허허허.)

114005 @ '네 이놈!' 허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뭐 놈의 말 곧지 말렌 허는데예? 그면 뭐렌 골으멍 '놈의 말 곧지 말라.' 헷수과?('네 이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뭐 남의 말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서 '남의 말 말하지 마라.' 했습니까?)

114005 #6 놈의 말 곧지 말렌 ᄒᆞ는 거? 놈의 험담 ᄒᆞ지 말렌 ᄒᆞ는 건디?(남의 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남의 험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114005 #5 무신 놈의 저, 남을 헐뜯지, 헐뜯어근에 막 그 사름을 모략헤 가민 '그 놈의 말 ᄒᆞ지 말라.' ᄒᆞ멍 골아낫주.(무슨 남의 저, 남을 헐뜯지, 헐뜯어서 막 그 사름을 모략해 가면 '그 남의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말했었지.)

114005 @ 걸 속담으로 허는 말 엇수과?(걸 속담으로 하는 말 없습니까?)

114005 #5 속담이.(속담이.)

114005 @ '에이구, 무신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렌 헤라.'뭐 이런 것들. 여기 이 세화에서 허는 말, 말 잘 들으렌 허는 말 엇엇낫수과? 어른들?('아이고, 무슨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오른다고 해라.'뭐 이런 것들. 여기 이 세화에서 하는 말,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말 없었습니까? 어른들?)

114005 #6 아이, 놈의 말 헐뜯지 말렌 ᄒᆞᆫ 말사 자꾸 곧주게. 헷주마는 놈의 말 홀 필요 없덴 자꾸 곧는 건디.(아니, 남의 말 헐뜯지 말라고 한 말사 자꾸 말하지. 했지만 남

319) 'ᄆᆞ스다'는 유리조각 같은 것을 깨다, 혹은 물건을 부수다,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의 말 할 필요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건데.)
114005 @ 다른 말로 ᄀᆞᆯ앗지예? ᄀᆞᆯ을 때예예?(다른 말로 말했지요? 말할 때에요?)
114005 #6 다른 말로 ᄀᆞᆯ은 것도 닮아. 갑자기 튼네지 못허키여.(다른 말로 말한 것도 같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겠어.)
114006 @ 그 지난번에 노인회장님, 옛날엔 집 흔 채 짓젠 ᄒᆞ민 온 동네가 다 ᄀᆞ치 왕 수눌엇젠 헷잖아예?(그 지난번에 노인회장님, 옛날엔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온 동네가 다 같이 와서 품앗이했다고 했잖아요?)
114006 #5 응.(응.)
114006 @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헷을 때, 지금의 삶허고 그 옛날에 삶허고 비교헷을 때, 어떤 삶이 더 '아, 난 정말 이런 삶이 더 좋아.'라고 할 때 어느 삶이 더 좋아마씨?(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의 삶하고 그 옛날에 삶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아, 난 정말 이런 삶이 더 좋아.'라고 할 때 어느 삶이 더 좋아요?)
114006 #6 아이구, 엿날에사.(아이고, 옛날에야.)
114006 #5 펜ᄒᆞ기야 지금이 백 번 펜ᄒᆞ지.(편하기야 지금이 백 번 편하지.)
114006 @ 편한 건 백 번 더 편한디예?(편한 건 백 번 더 편한데요?)
114006 #6 아이고, 우리 집 엇어근에 놈의 집 살다근에 집 짓젠 ᄒᆞ난 다 동네 사름덜 모다들언 다 헤 줘서.(아이고, 우리 집 없어서 남의 집 살다가 집 지으려고 하니까 다 동네 사람들 모여들어서 다 해 줬어.)
114006 @ 게, 그런 거 셍각 헷을 때 펜한 걸로야 지금이 가장 편하지만.(게, 그런 거 생각 했을 때 편한 걸로야 지금이 가장 편하지만.)
114006 #5 시방이 펜하주게, 아이구.(시방이 편하지, 아이고.)
114006 @ 시방이 펜하주마는?(시방이 편하지만?)
114006 #5 사는 과정은.(사는 과정은.)
114006 @ 예.(예.)
114006 #5 엿날 사는 것은 ᄀᆞ찌 뭐 시방 사는 게 펜ᄒᆞ덴 헤도 아멩헤도게 이 돈 가정에 데헹은 아멩헤도 엿날은 그날 첨, 헴빵울 벌어도 그자 임시 살 무신거 헨 거주마는 시방이 돈 쓰는 거는 더 하영 써저.(옛날 사는 것은 같이 뭐 시방 사는 게 편하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 돈을 가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옛날은 그날 참, 아주조금 벌어도 그저 임시 살 무엇 한 거지만 시방이 돈 쓰는 거는 더 많이 써지지.)
114006 @ 만일에 옛날로 돌아가근에 살렌 허민 살아 지쿠과?(만일에 옛날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114006 #6 엿날로사 살렌 ᄒᆞ민 살지 못ᄒᆞ주. 엿날에 보리밥 조팝 먹으멍 산거추룩 살렌 헹사 못살크라, 하하하.(옛날처럼 살라고 하면 살지 못하지. 옛날에 보리밥 조밥 먹으면서 산거처럼 살라고 하면 못살겠어, 하하하.)
114006 @ 게난예.(그러게요.)
114006 #6 응.(응.)
114006 @ 알앗습니다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겟습니다예.(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

지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4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